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상

2007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이 역사를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歷史主權'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번에 펴낸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작품들을 한 데 모은 것입니다. 우리와 중국은 문헌이 전하는 시대부터 오랜 기간 교류를 해 왔고 현재의 영토와 민족적 정체성을 갖기까지 오랜 세월의 역사적 굴곡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만큼 광범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역사인식은 국가 간의 역사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가 하나로 합쳐지는 세계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촉발부터 현 상태까지의 진행 경과를 되새겨 보고 문제의 핵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 문제는 공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했던 과거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자기 시각과 틀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여기에 힘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시간과 품을 들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지희 재단에서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상

2007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 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간행사 |

중국이 역사를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歷史主權'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번에 펴낸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한 데 모은 것입니다.

우리와 중국은 문헌이 전하는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교류를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의 영토와 민족적 정체성을 갖기까지 오랜 세월의 역사적 굴곡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과도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역사인식은 국가 간의 역사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촉발부터 현 상태까지의 진행 경과를 되새겨 보고 문제의 핵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한 첫 번째 의도입니다.

한편 현실적 잣대로 함부로 자리매김했거나 변형이 가해진 과거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자기 중심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되어 公刊되고 있는 서적과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현황의 파악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이란 시간과 품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여기에 힘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참고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재단에서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 문제는 공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했던 과거의 역사를 인정치 않으려는 움직임에서 촉발되었지만, 단지 과거에 벌어진 역사에 대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내 학계는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차원의 학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필요한 학술행사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정보를 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한·중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기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연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힘들지만 빛은 나지 않는 일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러두기 |

1. 이 편람집은 한 · 중 간의 역사문제가 불거져 나온 2004년 이래의 관련 연구자 및 기관, 연구 성과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 자료집이다.
2. 2004년 이래 한 · 중의 역사문제와 관련이 있는 학술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이전부터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급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3. 학술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목차를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中國邊疆史地研究』와 『東北史地』 수록의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내용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여겨 선별 작업을 거쳐 내용을 요약해 두었다.

1 한·중 역사문제의 경과

한·중 역사문제 관련 주요 일지 | 13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성과물

1)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십일오" 사업 발전 계획』 중 관련 내용 | 21

2) 주요 단행본 | 40

『고구려 역사연구』 | 40
『당조와 변강민족간의 사자 왕래 연구』 | 42
『발해유적』 | 44
『중국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 47
『중국동북변강연구』 | 48
『호태왕비 1580년』 | 50
『중국동북고민족발전사』 | 52
『러시아의 (중국) 동북이민개발문제연구』 | 55
『고려기연구』 | 57
『고대중국고구려사속론』 | 60
『중국고구려학자와 연구종술』 | 62
『한당번속체제연구』 | 65
『발해국사』 | 67
『고구려민족과 국가의 형성과 변천』 | 70
『고구려문제학술연구토론회』 | 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주요 연구논문 | 73

(1)『东疆学刊』(04년 1기~07년 4기) | 73

(2)『东北史地』(04년 1기~07년 4기) | 76

(3)『博物馆研究』(04년 1기~07년 2기) | 85

(4)『北方文物』(04년 1기~07년 3기) | 87

(5)『史学集刊』(04년 1기~07년 5기) | 90

(6)『社会科学战线』(04년 1기~07년 6기) | 91

(7)『中国边疆史地研究』(02년 1기~07년 4기) | 92

4) 주요 논문의 요약 | 103

『동북사지』(2004년~2007년) | 103

『중국변강사지연구』(2002년~2007년) | 18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 일람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자 일람 | 323

4 한·중 역사문제 관련 중국측 연구기관

1) 관련 연구기관 현황 | 403

2) 대표적 연구기관의 조직도 | 405

3) 관련 기관 웹사이트 | 423

5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1) 2005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423

ㅇ 학술회의 | 430
◎ 학술회의 일람표 | 430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32
ㅇ 연구 및 출간 | 452
◎ 도서 | 452
● 기타도서 | 453
◎ 논문 | 455
● 일반논문 | 455
● 학위논문 | 462
ㅇ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463
◎ 신문 / 잡지 | 463
● 신문 | 463
● 잡지 | 476
◎ 방송 | 476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482
◎ 대중문화콘텐츠 | 482
● 전시회 | 482
● 이벤트 / 단신 | 484

● 시민강좌 | 486
◎ 네티즌의 반응 | 486

2) 2006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488

○ 학술회의 | 489
◎ 학술회의 일람표 | 489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90
○ 연구 및 출간 | 501
◎ 도서 | 501
◎ 논문 | 502
● 일반논문 | 502
● 학위논문 | 505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507
◎ 신문 / 잡지 | 507
● 신문 | 507
● 잡지 | 525
◎ 방송 | 525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31
◎ 대중문화콘텐츠 | 533
● 전시회 | 533
● 이벤트 / 단신 | 534
● 시민강좌 | 535
◎ 네티즌의 반응 | 535

3) 2007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537

○ 학술회의 | 538
◎ 학술회의 일람표 | 538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539
○ 연구 및 출간 | 568
◎ 도서 | 568
◎ 논문 | 571
● 일반논문 | 571
● 학위논문 | 575
○ 언론 및 여론의 대응 | 576
◎ 신문 / 잡지 | 576
● 신문 | 576
● 잡지 | 587
◎ 방송 | 588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92
◎ 대중문화콘텐츠 | 593
● 전시회 | 593
● 이벤트 / 단신 | 594
● 시민강좌 | 594
◎ 네티즌의 반응 | 594

Ⅰ 한·중 역사문제의 경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001년 |

2001.06.04~06. 중국 長春에서 〈東北邊疆歷史와 現狀硏究 공작〉 좌담회 개최. 왕거린(王洛林)(당 중앙위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및 관계자 100여 명 참석.

| 2002년 |

2002.01~02. 동북공정 영도소조와 전문가위원회 구성. 제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2002.04.09. 중국 長春에서 〈高句麗歷史硏究〉 학술좌담회 개최. 마따정(馬大正), 리따룽(李大龍) 등 전문가 20명 참석.

2002.04. 2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2002.07.09~13. 중국 長春과 通化에서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硏究中心과 吉林省 社會科學院의 공동 주관으로 〈제2기 東北疆域의 歷史와 現狀 및 高句麗 학술토론회〉 개최. 10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2003년 |

2003.06.23. 중국 光明日報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라는 시론이 게재.

2003.08.05~09. 중국 黑龍江省 黑河에서 3차 전문가위원회 개최.

2003.08.23~24. 중국 延吉에서 "高句麗 · 渤海 문제 학술토론회" 개최. 中國社會科學院 소속학자 등 관련 전문가 25명 참석.

2003.09.19.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이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5개년 계획의 고구려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보도 [일본 每日新聞].

2003.10.09~13. 중국 集安에서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硏究中心과 吉林省 社會科學院의 공동 주최로,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주년 및 3차 전국고구려학술토론회〉 개최.

2003.11. 한국 언론 · 학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의 심각성 인식.

2003.12.09.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 한국 역사학계 17개 학회 '올바른 한 · 중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사 관련 학회 공동성명' 발표.

2003.12.13. 정부, 고구려사 연구센터 건립, 지원 결정.

| 2004년 |

2004.02.04. 고구려사 연구재단 추진위(위원장 김정배) 발족.

2004.03.01. 고구려연구재단 출범.

2004.03.29. 한 · 중 외교장관회담, 반기문 장관 방중. 역사왜곡 우려 표명.

2004.06.10. 고구려연구재단 현판식 및 개소식.

2004.07.01.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2004.07.05. 중국 언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보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의 역사 소개 코너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

2004.07.09. 정부, 중국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고구려사 입장 요구,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한 것에 항의.

2004.08.09~10. 중국 延吉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延邊大 공동주최로, 〈고구려역사문제〉 학술연구토론회 개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厲聲) 등 전문가 30여 명 참석.

2004.08.24. 한·중 외교차관 면담, 고구려사문제 관련 '구두양해사항'에 합의(1. 중국 정부차원의 고구려사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2. 양국 학계간 공동학술회의 조기 개최 추진 등).

2004.08.27. 노무현대통령-쟈칭린(賈慶林)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주석 면담, 쟈칭린 정협주석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

2004.10.07. 노무현 대통령-원쟈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ASEM회의. 구두양해사항의 성의 있는 이행 촉구.

2004.11. 한·중 외교장관회담, APEC 각료회의.

2004.12.21~23.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가치〉 한중학술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 东北工程

사업명칭: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추진기관: 중국 社會科學院 산하 邊疆史地研究中心

사업기간: 2002년 2월 28 ~ 2007년 2월까지

사업과제: 중국 동북3성지역(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 문제가 주요 연구대상. 110개 과제 선정.

총사업비: 1,500만 위안(약23억원)

| 2005년 |

2005.02.04.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2005.03.07. 고구려역사재단,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공동역사 연구 및 역사왜곡 대응 합의.

2005.04. 한·중 외교장관회담 ACD회의.

2005.04.05~07. 미국 Harvard大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5.04.20. 국회, 제1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2005.05. 한 · 중 외교장관회담, ASEM 및 ASEAN 외교장관회담.

2005.06. 한 · 중 총리회담, 이해찬 총리 방중.

2005.06.12~16.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 · 리궈창(李國强) 등 방한. 고구려연구재단과 한중 학술회의 실무회의.

2005.06.20. 국회, 제2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2005.07. 한 · 중 외교장관회담 ARF회의.

2005.07.19~30. 고구려연구재단, 북한 사회과학원 · 유물보존지도국 등과 함께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첫 공동 조사 실시.

2005.08. 한 · 중 외교장관회담 반기문 장관 방중.

2005.08.04~05. 중국 延吉에서 중국사회과학원 東北工程辦公室과 延邊大 中朝韓日關係史研究中心 공동주최로, 〈고구려역사와 문화〉 학술토론회 개최.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2005.08.16. 중국 吉林省,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 발족(일명 장백산(백두산)공정)).

2005.09.08. 국회 제3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2005.10.19. 국회 제4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

2005.10.11~12.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의의〉 한중학술회의 개최(한국 수원).

2005.11. 한 · 중 외교장관회담 APEC.

2005.11. 한 · 중 정상회담, APEC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국빈방문.

2005.12.08. 국회 제5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아차산유적 보존,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추진).

| 2006년 |

2006.04.13. 대만 정부 僑務委員會 산하 全球華文網路教育中心이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파문 [국민일보].

2006.05.10. 북 · 중 접경의 중국 吉林省 白山市 雲峰댐 수몰지역에서 고구려시기 고분 2,000여 기와 성터 발견 [연합뉴스 등].

2006.05.28. 중국, 일본에 '渤海石碑' 반환 요구 [일본 朝日新聞].

2006.06. 한 · 중 외교장관회담 반기문 장관 방중.

2006.06.21. 방송3사 '고구려 사극(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외교문제 비화 조짐. '上海國際放送映像見本市場 2006' (STVF 2006) 참가 중국측 방송 관계자, 관련 드라마 제작에 한국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 [연합뉴스 등].

2006.06. “唐朝 渤海國 上京龍泉府 유적 보호조례”, 중국 黑龍江省 常務委員會의 심의 통과.

2006.07. 중국, 백두산 · 발해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한국일보 등].

2006.08. 고구려연구재단 해산.

2006.09.05. 중국, 동북공정 관련 서적 18권 발간.

(『《三国史记》 详注及研究』(No.18) / 『渤海移民的治理与归属研究』(No.22) / 『民国时期东北地方政府治边研究』(No.11) / 『中韩相关姓氏族源考论』(No.10) / 『近代中国东北地区的国际移民问题』(No.12) / 『历朝东北治边研究』(No.15) / 『东北汉族人口史研究课题』(No.20) / 「渤海史论」(No.8) / 『好太王碑1580年』(No.3) / 『中国东北古民族发展史』(No.9) / 『俄国东部移民开发问题研究(1861～1917』(No.7) / 『渤海国史』(No.5) / 『箕子与箕子朝鲜研究』(No.6) / 『二十世纪中国东北边疆文化研究课题』(No.2) / 『中国东北与俄国 (苏联) 经济关系史 (17世纪中叶～1949年)』(No.4) / 『黑龙江通史』(No.1) / 『清代鸭绿江流域的封禁与开发研究』(No.23) / 『国际法与中朝边界争议问题』(No.16))

2006.09.10～11. 중국 延吉에서 〈고구려문제〉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

2006.09.10. 한 · 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공정’ 유감 표명. 원쟈바오 총리는 재발방지 약속, 2004년 동북공정관련 구두양해 존중 표명(ASEM회의).

2006.09.12. 동북공정 저지 30여개 단체 연합, 범국민연대 결성. 각종 민간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연이어 저지 운동 및 결의 발표.

2006.09.15.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동북공정 中정부 견해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함.

2006.09.28.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현판식, 공식 출범.

2006.10.13. 한 · 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방중(원쟈바오 총리, 2004년의 구두양해 사항 존중 입장 표명/ 후진타오 주석, 2004년 구두양해 사항 이행 약속/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회원장 접견).

2006.11.16.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장백산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관련국과의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2006.11.27.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대학원생, 이어도가 중국령이라며 한국이 설치한 해양과학기지를 철거할 것을 촉구. 주권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결성을 추진 [newsis].

| 2007년 |

2007.01.31～02.02. 長春 동계 아시안게임 시상식에서 한국 쇼트트랙 여자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 적힌 종이를 펴들어 중국측의 항의를 불러옴. 중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에 대해 한국선수단은 유감을 표명,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

2007.03.24.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延邊大에 東北邊疆地區國情調研基地 설립.

2007.04.05～06.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방중, 천쟈꾸이(陳佳貴)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등과 한중 역사문제에 대해 논의.

2007.04.10～11. 노무현 대통령–원쟈바오 총리 회담. 국회를 방문한 원쟈바오 총리,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2007.06.05. 중국『東北史地』(2007-3)에 '高麗 太祖 王建은 한반도 토착 新羅人의 자손이 아니라 漢族의 후예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

2007.06.03. 중국 7월 중 동북공정 연구성과를 총결산하는 총화회의를 갖기로, 최종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연합뉴스].

2007.07.20~21. 일본 큐슈(九州)대 한국연구센터와 미국한국평의회(ICKS)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변강역사연구〉 국제회의가 후쿠오카에서 개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 쑨진지(孫進己) 등이 참석.

2007.09.10. 중국『東北史地』(2007-4)에 '고구려 28대 국왕의 왕릉 모두가 集安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

2007.10.19. 중국 吉林省 성급 연구기지 설립안 통과. '십일오(十一五)'(2006~2010년) 계획기간 중 通化師範大學의 고구려문화연구기지와 延邊大의 발해문화연구기지가 해당 분야의 중점연구기지로 확정 [연합뉴스].

2007.11.06~09.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리궈창 등 방한,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과 한중학술회의 관련 실무회의.

2007.11.07. 중국의 신화연구자, 단군신화가 黃帝 집단의 곰 토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 [연합뉴스].

2007.11.17. 『西古城－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출판. 중국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발굴한 보고서.

2007.11.18. 중국 길림성 소재 발해 상경성 유적의 발굴과 기초 복원작업이 종료 [KBS 1TV].

2007.11.23~24.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차 한·중미래포럼'이 제주에서 개최. '한반도 평화구축과 한중협력' · '한중 FTA' · '한중 상호인식의 제고'의 3가지 주제를 토의.

2007.12.10. 한·중 총리회담 한덕수 장관 방중, 원쟈바오 총리와 회담. 한중관계 발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 관심사와 동북아 지역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역사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함.

2007.12.17~18.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과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공동 주최. 〈고구려 초기 역사연구〉 한·중 고구려역사 학술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성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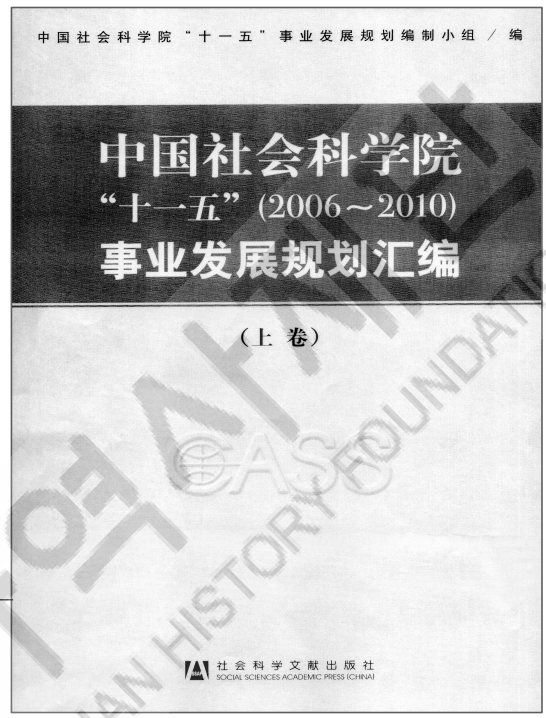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十一五”(2006~2010)事業 發展 計劃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十一五”(2006~2010)
事 业 发 展 规 划 汇 编

中国社会科学院“十一五”事业发展规划编制小组 编,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7年



目 录

上 卷

院 规 划 篇

中國社會科學院第十一个五年事業發展規划……

专題規划篇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科研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人才隊伍建設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對外學術交流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財力和基础條件保障規划……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信息化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院“十一五” 党建工作規划……

直属单位規划篇

研究生院“十一五”事業發展規划……
圖書館(文獻信息中心)“十一五” 事業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出版社“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中國社會科學雜志社“十一五”事業發展規划……
社會科學文獻出版社“十一五”事業發展規划……

研究所規划篇

文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民族文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外國文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語言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考古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歷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近代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世界歷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十一五”事業發展規划……
哲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世界宗教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下　卷

經濟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工業經濟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農村發展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財政与貿易經濟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金融研究所“十一五”期間的事業發展規划……
數量經濟与技術經濟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人口与勞動經濟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城市發展与环境研究中心“十一五”事業發展規划……
法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國際法研究中心“十一五”事業發展規划……
政治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
民族學与人類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社會學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新聞与轉播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世界經濟与政治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俄羅斯東歐中亞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歐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西亞非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拉丁美洲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亞洲太平洋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美國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日本研究所“十一五”事業發展規划……
馬克思主義研究院“十一五”事業發展規划……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十一五”事业 发展 计划

一. 지도사상과 발전 목표

본원 “육대공정” “5대연구중심”을 형성하고 “4대작용”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전체적 요구에 따라 “변강중심 ‘십일오’사업발전계획논증보고”를 근거로 본 발전 계획을 제정하였다.

“십일오”기간, 변강중심은 학과걸설과 발전을 둘러싸고 공작을 개전한다: 중국변강사지학과체의 완선을 핵심으로 중국변강학 학과의 이론 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신강 동북 서남해변 영역 학술 연구를 중점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병행을 계속 유지하며 학과 구조를 더욱 우수하게 하며 변강중심이 유관 연구에서의 최우수 지위와 연구 대오의 우세함을 계속 유지하며 끊임없이 학과 특색 영역의 발전을 심화하며, 이를 통해 변강중심을 국제적 지명도와 국내 일류의 학술연구 센터로 만든다; 성과를 내고 인재를 배출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개방적인 연구 공작 사상[思路]과 방법을 계속 확대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건전화하며 인재 대오의 건설과 인터넷 정보화의 건설 및 도서 자료의 건설을 강화하며 대외 학술 교류를 확대하여 변강 중심이 관리 규범화 · 뛰어난 운용 탄력성[機制靈活] · 합리적 조직[梯隊合理] · 자료의 비교적 완비 · 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국 변강사 연구 기지가 되게 한다.

구체적 발전 목표는 아래의 몇 개 방면과 같다.

1. 연구 시야를 넓히고 연구의 내실을 풍부하게 하고 상황에 맞게 연구 방향을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중국변강역사와 현 상황의 학술연구의 기초 위에서 중국변강연구를 세계 각국의 변강(혹은 邊界) 연구 중에 위치 지워, 중국 변강과 세계 각국 변강 중국변강연구와 세계 각국 변강 연구의 부분과 전체적 관계를 중시하며 중국 변강연구의 중외 관통(고금의 관통 역시 포괄하여)을 중시하여 중국 변강과 세계 각국의 변강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아가 중국 변강의 발전 규율을 더욱 깊이 탐색한다.

2. 연구 취지[主旨]를 명확하게 하며 이론 연구의 역량[力度]을 증대시킨다.

역사상으로 多元一體인 중화민족 변강지구의 정치 · 경제 · 인문 발전과 변천에 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 변강학 연구의 근본 목표이다. “십일오”기간 중국 변강사지학의 연구 취지는 “중국역사 강역의 법률지위”와 “현 중국 변강의 안정 및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기미정책과 藩屬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국 역대의 변경 통치[治理]와 역사 강역의 형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나아가 중국변강사지 이론체계를 만들어 낸다; 후자에 대해서는 현 중국 변강발전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중국변강의 중대한 현실적 문제를 주 테마[主攻方向]로 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형세 아래 중국 변강 발전의 규칙[規律]을 깊이 연구(探討)한다.

3. 중대한 학술 연구 항목을 필두[龍頭]로 하고 끊임없이 학과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碓實].

“십일오”기간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와 “新疆歷史與現狀綜合研究項目” 두 개의 큰 과학연

구 항목을 학과 건설과 발전의 중요 돌파구로 삼아 기회를 잡으면 승세를 타고 “두 날개를 나란히 飛上”시키는 기초 위에 북부변강·서남변강·티벳·해상 영토[海疆] 등 영역의 학술연구를 함께 움직여 학술 연구의 새로운 영역[增長點]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培育] “중국해강연구중심”의 조직 건설을 쟁취하고 10여종의 우수한 역작을 생산하여 내어, 중국변강사지연구가 총체적으로커다란 추진력을 얻게 한다.

4. 대오의 건설과 인재 배양을 강화하며 업무 처리 능력이 높고 과학연구 능력이 강하고 지식 구조를 두루 갖추며 연령 구조가 합리적인 과학 연구 대오를 창조한다.

“십일오” 기간, “일인다역[一人多崗]” · “하나의 전문 영역과 다양한 능력[一專多能]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계속하여 양호한 환경[條件]을 창조하여 업무 수준과 종합적인 소질이 비교적 높은 인재를 끌어들임으로써 과학연구 대오의 제1선을 충실하게 하며, 비교적 높은 학술 수준과 학술계에 영향력을 갖춘 변경 연구 전문가 배양에 힘쓴다. 동시에 우리 연구소 대학원 “중국변강역사과[係]”의 유관 공작 강화에 힘써 연구 후속 세대 인재 배양의 중요한 기지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는 변강 지역 소수 민족 학자와 인재 배양의 임무를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이 성숙해질 때 대학원에 각기 다른 수준의 學歷班 혹은 전문적 성격[專題性]의 非學歷의 훈련반[培訓班]을 함께[一道] 개설하고 변강 지구 소수민족의 전문 인원 및 행정 관리 인원을 중점적으로 모집하여 기수를 나누어 변강 지구를 위해 일단의 정치 소질이 높고 업무 능력이 강한 인재를 배출해 내려고 한다.

5. 대외 학술 교류의 경로[渠道]를 개척하여 넓히고 국제 학술 교류의 실제 효과를 높인다.

사회과학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외학술 교류 창구를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조건 창조에 노력하여 연구소 사이의 교류 협의·회의 주관의 합작·과제 연구의 합작 전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인원이 적극적으로 국제 학술 호라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학자의 방문이나 강연을 주동적으로 요청한다.

6. 기초 건설을 중시하여 중국 변강학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일면으로 “변강사지총서”와『중국변강사지연구』가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전문 총서와 간행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편으로는 중국 변강 연구 자료 센터와 중국 변강 연구 정보 데이타베이스 센터 건설을 목표로 기초 건설 역량을 증가시킨다.

二. 과학연구 임무와 중점과제

(一) 주요 과학연구 임무와 중점연구 영역

“십일오”기간 변강중심의 주요 과학연구 임무는 3대 연구 방향 위주로 전개한다. 3대 연구 방향은 ㉠ 중국 변강사지 연구를 기초로 중국 고대 강역사·중국근대변계 연혁사·중국변강연구사 3개 연구 계열의 종합성 연구 ㉡ 현 시점[當代] 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 방향 연구의 시작[開展] ㉢중국 변강 이론 연구와 중국변강학 이론 연구의 시작이다.

학과 창설(의 목적)에서 볼 때 변강학 이론의 연구는 중점 중의 중점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 연구는

여전히 변강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연구 영역이지만 중국의 변강을 총제적으로 탐구[探索]하기 위해서는 사회학·민족학·정치학·법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學科]를 조합[整合]하는 방식으로 중국 변강역사와 현실 문제의 종합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종합적인[整] 중국 변강학 이론을 구축한다.

변강의 영역에 대해서는 신강·동북과 서남-해양 영토[海疆]가 중점 연구 영역을 이룬다. 앞의 두 연구는 주로 "신강항목"과 "동북공정"의 기존 연구 임무 완성을 실시하며, 서남-해양 영토 지역의 종합 연구는 앞의 두 연구를 따라[仿照] 국가 차원[級]의 연구 항목 지정[立項] 지지를 쟁취하여 냄으로서 대규모 연구 계획을 실시한다.

(二)중점 연구 과제

변강중심의 현재까지의 연구 축적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연구 실력의 논증과 예측의 기초 위에서, 아래의 과제들은 "십일오"기간 완성하고 출판할 중점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1. 변강학 이론 및 종합연구

① 중국변강학 통론
② 중국 봉건 사회 藩屬 제도 연구
③ 고대 동아시아 번속 관계의 연구(중한[中朝]·중국-베트남·중국-오끼나와·중국-버어마·中日)
④ 고대 중국 변강 통치[治理]와 개발 비교 연구
⑤ 중국 역대의 변경 사건과 邊政 연구((사회과학)원 중대 과제, "십일오"기간 완성 출판)
⑥ 중국 고대 변강사(국가 사회과학기금 항목, "십일오"기간 완성 출판)
⑦ 중국 근대 邊界 연혁사
⑧ 중국 변강 탐색사 계열("십오"연구의 연속, 출판 계획)
⑨ 현[當代] 중국 변계 문제의 전문[專題] 연구
⑩ 현 중국 변강 통치 연구
⑪ 현 중국 변강 안정 문제 연구
⑫ 세계 각국의 변계와 변강 연구
⑬ 서방 변강 이론 연구
⑭ 20세기 하반기 중국 주변 제 국가의 약사[簡史] 계열

2. 신강 지역 연구

① "신강 항목" 전체 성과의 역사 연구
② "신강 항목" 전체 성과의 현 상황 연구
③ "신강 항목"계열의 성과

3. 동북지역 연구

① "동북 공정" 전체 성과의 역사 연구
② "동북 공정" 전체 성과의 현 상황 연구
③ "동북 공정"계열의 성과

4. 서남-해역[海疆] 지역 연구

① 중국 해역 요강[論綱]

② 남지나해[南海]·동지나해[東海]·서해[黃海] 문제 전문 연구

③ 티벳·서남 邊政 연구

(三)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

앞에서 이야기한 연구영역과 과제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十五"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中國古代疆域史』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현재 "東北工程"과 "新疆項目"에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었거나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로 일부분은 邊疆中心에 소속된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연구 인력에 맡겨졌다. 세 번째는 연구인력[研究力量](특정 학문의 대표급[學科帶頭人])을 보충해야 하거나 변강중심조직의 국내 저명학자에 의해서만 비로소 실시 가능한 과제로 『世界各國邊界與邊疆研究』, 『中國海疆論綱』, 『中國封建社會蕃屬研究』, 『當代中國邊界問題專題研究』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현재 변강중심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맡아할 수 있거나 혹은 일정교육을 받은 후에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과제이다.

이상의 상황에 근거해 보면, 아래의 몇가지 측면에서 관리강화조치를 취해야한다.

① 연구자[人才]의 부족은 변강중심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다. 현재 소속된 연구자[人才]에 대한 교육과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계획성 있게 연구자를 연구에 투입하고 변강중심 이외의 연구자를 조직해 과제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을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연구인력에 충당할 수 있는 보충기반으로 삼는다.

② 재정면에 안정된 보장이 필요하므로 변강중심의 연구경비는 가급적 중점과제로 하고 동시에 院과 국가의 중점연구영역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얻도록 노력한다.

③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네가지 사항을 확실히 해둔다. 첫 번째는 연구과제성립에 대한 점검, 두 번째는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검사, 세 번째는 연구과제 종료에 대한 심의, 네 번째는 연구성과의 출판과 보고.

三. 학문 분야의 건설[學科建設]

(一) **"十一五"기간에 변강연구학문분야를 건립하는데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내야 하고 변강학이론의 구성을 초보적으로 완성한다.**

중국변강학이 역사학 하부에 소속된 2급학문분야가 되게하여 그로써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 속하게 한다.

(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중국변강연구의 내재적 함의는 역사와 현실은 분리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변강지역이 안정되는 것은 현 중국사회정치의 중요측면이 됨으로 어떻게 중국변강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중요한 전략과제가 되도록 했다. 여러 해에 걸친 연구진행을 통해 변강중심은 현대 중국변강문제

연구에 있어 특색을 드러내게 되었고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앞선 지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연구성과는 점차 黨과 국가정책결정기관의 중시를 받게 되었다.

(三) **더 큰 힘을 들여 자료완성에 노력한다.**

두개의 큰 프로젝트의 자금과 인력자원의 우세를 이용해 변강자료[檔案]를 편집, 출판하고 변강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인쇄하여 변강학문분야 건설을 위해 일차적 연구자료를 축척한다. 동시에 변강지구의 특색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참여하는데 연변대학과 합작하여 고구려, 발해문제연구자료중심을 건립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四. 연구인력집단의 건설

변강중심 자체 연구 역량의 부족은 변강중심의 학문분야 건설과 일부 과제의 완성과 실시에 엄중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十一五"기간 동안의 연구자 집단 건설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一) **연구인력집단 건설의 목표**

현재 변강중심은 30명이 정원으로 지금 소속된 인원은 26명이다. 이중 연구보조인원으로는 단지 3명이 있고 나머지 23명은 연구인원이다. 연구인원 중에는 고급명칭[高級職稱]인원이 5명, 부고급명칭[副高級職稱]인원이 10명, 중급명칭[中級職稱]인원이 3명으로 고급과 중급명칭[職稱]인원이 총수의 69%를 점한다. 이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4명, 석사학위 소지자 6명이다. 학문분야대표자[學科帶頭人]가 3명, 연구핵심[科研骨干]이 4명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변강중심의 점점 더 다양하고 중요해지는 연구임무와 연구조직업무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학문분야의 건설과 발전, 사회현실의 요구와 우리가 맡는 연구임무의 양 등 몇가지 지표에 대한 계산을 통해, 변강중심의 건설규모는 반드시 확대되어야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원편제의 총수도 80명을 넘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물론 연구인력집단의 건설은 한번에 완성될 수 없어서 우리는 장차 적절하고 안정적인 발전 조치를 취하고 인재를 스카웃하거나 스스로 배출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이 과정 중에 과제연구초빙제 등의 수단을 채용해 인력 수급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일부 중대한 과제실시기간에는 과제책임자[主持人] 혹은 주요 참가자를 특별초청연구원[特邀研究員]으로 초빙한다. "十一五"기간에 재직인원 총수를 50명 안팎으로 늘려 변강중심이 중국변강학 영역의 핵심지위를 차지하도록 한다.

(二) **변강중심의 하부 소속기구와 인원배치**

현재 변강중심 아래에 연구1부, 연구2부, 편집부, 인터넷정보부[網絡信息部], 자료실과 종합처[綜合處]가 있는데 우리는 "十一五"기간에 기구조정을 마쳐 정리 후의 기구설치와 인원배치가 아래와 같이 되도록 건의한다.

연구기구 설치 : 연구1부(綜合, 邊疆理論), 배치인원 9명, 그중 2명은 학문분야대표자[學科帶頭人]. 연구2부(동북, 서북, 북방), 배치인원 16명, 그중 5명은 학문분야대표자[學科帶頭人]. 연구3부(티벳, 서남,

海疆), 배치인원 11명, 그중 4명은 학문분야대표자[學科帶頭人]. 이상 총 36명.

연구보조기구 설치 : 편집부, 배치인원 3명. 인터넷정보부, 배치인원 4명. 자료실 배치인원 2명.

행정관리부문 설치(原 종합처에서 分置) : 科研人事處, 배치인원 2명(專職). 사무실[辦公室](재무를 포함), 배치인원 3인(專職).

업무직칭[業務職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고급과 중저급의 인원비율은 2:1로 하여 개방성 연구중심이라는 실제적인 요구에 맞춘다.

(三) **인재 배양과 선발의 절차와 방식**

① 좋은 전략의 실행은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하는 중요한 절차로, 주된[主要] 방법은 연구과제에 따른 초빙임용제[課題研究聘任制]를 통해 인재를 발견하여 선발하고, 배양하는 것이다.

②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연구력[研究實力]을 강화[增强]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십오(十五)"기간동안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中心, 이하상동]에서는 모두 8명의 인재를 끌어들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끌어들인 인재[重點引進人才]는 겨우 한 명이었다. "십일오(十一五)"기간에는, 학문 분야의 리더급 인사[帶頭人級]로 중요하게 끌어들일 인재는 5명 이상에 달할 것이고, 기타 중요하게 끌어들일 인재는 15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전체 사회 속에서도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처럼 대규모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학원[院] 지도자와 관련 부문의 큰 지지가 필요하다.

③ 본 연구중심에서 배양중인 석박사생들을 예비인재로써의 기초능력 배양을 보장[保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박사생지도교수 인원과 석박사생의 모집인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원을 배양하는 방면에 있어서,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는 계속해서 과정중에 있는 석박사생들을 예비인재[後備人才]로 여겨 기초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본 사회과학원 연구생원(대학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변강역사과[中國邊疆歷史系]"가 2003년 정식으로 설립[成立]되었는데, 이는 반드시 변강사지학과의 예비인재 배양 및 학과 인원 조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변강사지학과는 지금 아직 이급학과(二級學科)가 아니어서, 박사학위수여권이 없기 때문에, 박사생을 배양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근대사과[近代史系]에 적(籍)을 두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는 연구생 배양과 관리에 아주 큰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고, 또 학과에서 예비인재를 배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십일오"기간 동안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는 석사생 모집과 배양을 성공적으로 하여, 그것을 기초삼아 변강사지학과를 이급학과의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그 밖에, 중국변강역사과[邊疆歷史系]의 모집 인원이 아주 적어, 2006년의 모집 계획에 단 2명이 있었는데, 이는 변강사지학과의 활기찬 발전과 극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참작하여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모집 인원을 증가시켜 학과 발전의 수요에 맞춰줄 것을 건의한다.

五. 학술간행물의 건설

학술간행물 건설의 목표는 "십일오"기간 동안에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를 국제 영향력을 갖춘 전문[專業]간행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변강사지연구학과의 대표적인 간행물로써의 『중국변강

사지연구』잡지의 중심임무는 중국변강학 학과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인데, “십일오”기간동안 이 중심임무를 둘러싼 일을 전개시킬 것이다.

1. 항목의 설치와 원고선택

주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둔 기초위에, 특히 변강학이론, 변강정치연구[邊政研究], 해양변강연구[海疆研究], 주변지역연구[周邊地區研究]에 중점을 두어, 부단히 학술논고의 질을 높인다. 이하 방면의 약정원고[約稿] 혹은 組稿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① 중국변강의 형성과 발전[中國疆域的形成與發展]에는, 중국고대 강역의 형성 규율과 영향 요소[因素], “대일통”과 중국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고대의 강역관념과 강역의 형성, 중국고대 변강통치관념의 변화와 강역의 형성, 민족융합과 중국고대 강역의 형성, 기미통치와 중국고대 강역의 형성등을 포함한다.

② 종번관계와 속국[宗藩關係與屬國]에는, 중국고대 종번관념의 형성과 발전, 중국 역사상 종변관계의 특징[特點], 중국고대 종건체제의 형성과 발전, 조공－책봉체제의 형성과 발전, 근대 종번관념의 변천, 종번관계와 중국고대강역의 형성 등을 포함한다.

③ 중외 강역이론 비교[中外疆域理論比較]에는, 동서양 강역관념의 동이(同異), 서양의 중국전통 강역관념에 대한 인식, 서양강역이론의 중국전통강역이념에 대한 영향, 최근 중외 변강이론연구의 발전추세, 서양강역이론의 중국변강연구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한다.

④ 변강학학과의 구축[邊疆學學科的構築]에는, 변강학 학과 건설의 학술가치와 현실의의, 변강학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변강학의 틀구조, 변강학의 학과 특징 및 기타학과와의 관계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제 선택은 변강학이론전개를 아주 밀접하게 둘러싸고 있고, 동시에 중국 변강역사발전중의 여러 가지 문제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상술한 조직적 원고[組稿件](?)를 통하여, 더 큰 범위에서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 변강학이론연구의 심도를 더욱 높이고, 동시에 학술분위기를 활발하게 하여, 간행물의 학술수준과 사회영향력을 높인다.

2. 편집교정과 인쇄 품질[質量]에 부단히 완벽을 기하여, 학술적 품위를 높이고, 편집교정의 품질을 높이며, 장정(裝幀)과 인쇄 품질이 정미한 우수한 학술 간행물을 위해 노력한다.

기존의 규장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그 기초 위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편집교정의 질을 계속해서 높인다. 표지를 컬러로 인쇄하는 방법을 택하여, 간행물의 인쇄 품질을 제고한다. 간행물의 양은, 2004년도부터 『중국변강사지연구』의 편집배정을 120쪽에서 150쪽으로 확장하였으나, 지금의 투고량과 간행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필요, 그리고 다른 간행물과 비교했을 때, 양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편집량을 증가시키는데 힘쓸 것이다.

3. 편집조의 형성[編輯隊伍建設]

편집조는 좋은 잡지에서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중국변강사지연구』편집조의 정비는 “십일오” 기간 중의 중요한 일이다. 『중국변강사지연구』의 현재의 편집조는 2명의 전직편집과 4명의 겸직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원 구성방식으로는 본 간행물의 발전 요구에 맞추기 어렵다. 3~4명의 전직편집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변강사지연구』에 분명 비교적 더 이상적인 것이다.

六. 학술교류계획

"십일오"기간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는 연구소[辦所] 개방을 견지하는 방침으로, 학과건설과 발전의 총 목표를 밀접하게 둘러싼, "동북공정"과 "신강항목"의 학술연구임무를 중점으로 대외학술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進一步擴大], 본 사회과학원의 대외학술교류창구를 충분히 이용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능동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대외 학술교류의 통로를 확장시켜, 관련있는 국가의 연구기구와 더불어 합작관계를 세우고, 합작연구와 연구인재의 합작배양을 확대하는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얻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교류협의, 합작주관[主辦]회의, 합작과제연구확대 등의 여러 방식으로,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아울러 주동적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를 요청하여 방문하거나 강의를 하게 한다.

국제학술교류의 실효를 구하는데 힘쓰는 것이, "십일오"기간에 대외학술교류에 주요한 방향이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출방(出訪)과 내방의 관리역량을 한 층 더 강화하여, 우리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학과의 특징과 요구에 근거하여, 우리 변강지역[地區]을 이웃하고 있는 국가와의 학술교류를 돕는 것[對口]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七. 과학적 연구의 현대화 건설[科研現代化建設]

"십일오"기간, 정보화건설의 주된 임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환경을 더욱 완벽하게 하여, 데이터베이스 건설 역량의 확대하며, 데이터베이스자원 통합[整合]에 힘써, 심도있는 인터넷 상황 정보의 모아 편집하는 일을 강화하며, 정보의 학술성을 부단히 제고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일하면서 권위있는 중국변강연구의 정보창고와 중국변강연구자료중심을 초보적으로 건설하고, 나아가 변강연구데이터베이스를 중국 내에서 권위성을 갖춘 일류의 현대화된 정보항으로 세운다.

1. 중점적인 개발영역 –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새로 건설되는 창고[庫]의 편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지와 통합에 매년 100만자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한다. 새로 세우는 창고는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

① 두 가지 큰 중점과제와 항목계획을 둘러싼 데이터베이스의 건설

② 변강사지연구의 중대한 이론문제를 둘러싼 데이터베이스의 건설

③ 변강사지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둘러싼 데이터베이스의 건설

2. "십일오"기간의 계획 완성

① 전문가 창고[專家庫](중점은 a.동북변강연구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b. 신강문제연구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② “동북공정”연구성과의 전문 데이터베이스

③ 변강 연구동태 정보창고

④ 변강사지연구 엄선된 저작 500편 전문 창고

⑤ 최근 10년 변강 고찰자료 창고

⑥ 테마연구 데이터베이스

⑦ 20세기 변강연구논문 전문 데이터베이스

⑧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일부 문헌자료 디지털화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도서자료건설의 첫 발이 비교적 늦지만, 매년 약 총예산의 5%가 고정적으로 투자되고 있지만, 도서자료축적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들이 맡은 연구 임무와 아주 맞지 않는다. “십일오”기간에 경비 투입량을 조금씩 늘려서, 일 년 도서자료경비가 총 경비의 10%～15%에 이르게끔 한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도서자료를 사들이고, 외국도서자료의 구입을 적당히 늘린다.

“십일오”기간의 주요한 임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이 있다.

① 도서자료의 장서량을 두 배가 되도록 힘써, 전문도서가 3만권이 되도록 하여, 일정 수량의 소형화, 전문화된 도서관을 초보적으로 건설한다.

② 변강연구자료의 분산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휘편(彙編)이 일의 중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외국어, 민족문자도서자료의 목록작업을 강화하여 역량을 조직한다.

③ 구입상담, 기증등의 방법을 통해 저명인사의 문고를 건설한다.

八. 개혁적인 기본구상과 건의

“십오”기간, 사회과학원 지도자와 관련기능[職能]을 가진 부문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의 건설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체제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변강사지연구중심이 고속발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십일오”기간, 우리는 지난날과 다름없이 본 사회과학원의 힘있는 지지를 얻어 상술한 계획들이 순탄하게 실시되어 중국변강학 학과 체계를 세우는 발걸음을 재촉하기를 희망한다.

본 사회과학원이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작업임무와 학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건설과 발전의 실제적인 출발로부터, 일정하고 필요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변강사지연구중심의 건설규모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학과 건설과 발전 가운데 중대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핵심문제의 하나이면서, 또 변강사지연구중심 및 중국변강사지학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까지 미치는 관건이다. 좋은 기회를 잡아 중국변강학술연구의 신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는, 우리의 부지런하고 성실함과 견실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사회과학원 지도자와 각 관련 부문의 지지이다. 본 사회과학원이 되도록 일찍 변강사지연구중심 건설규모의 계획을 연구하여, 인원편제, 기구조정, 사업경비, 연구생(대학원생)배양, 판공사무실[辦公用房]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구체적인 일은 다음의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① “변강사지”가 역사학학과하의 이급학과(이급학과)에 속하게 할 것을 확정한다.

② 중등규모의 연구소에 준하여 인원 및 직책을 설치한다. 인원편제 사정[核定]은 50인으로, 그 중 연구[科研]인원 36명, 연구보조인원(편집부포함) 9명, 행정관리인원 5명이다.

③ 기구를 조정하여,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 편집부, 인터넷정보부[망락신식부], 도서자료부, 연구인사처[과연인사처], 행정사무실[행정판공실]을 설치한다.

④ 예산[經費]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외사경비와 도서구입경비로, 중등연구소의 규모에 준하여 각 사업경비를 책정한다.

⑤ 석박사 지도교수와 과정생 선발 인원을 증가시킨다. 박사생 지도교수는 3명까지 증가시키고, 매년 박사생 모집 인원은 3명보다 적지 않게 한다. 석사생 지도교수는 6명까지 증가시키는데, 매년 모집 인원은 4명보다 적지 않게 한다.

⑥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아주 큰 애로사항인 판공사무실문제를 해결한다.

이 밖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개방형 연구기구의 시행[試點] 기구로, 연구활동중 사회적인 역량을 충분히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다만 어떤 정책적인 제한으로, 사회과학원 밖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본 기구의 연구계획 속의 연구작업에 참여 하는데 어떤 장애를 만나게 하였다. 동시에 성과를 통계낼 때도 어떤 부족함이 존재하는데,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과학원 밖의 학자들을 위탁하거나 끌어들여 중요한 연구 임무를 완성하는데 주관하게 하거나 혹은 참여하게 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원 밖의 학자들이 완성한 학술연구 성과를, 변강사지연구중심 연구성과통계에 집어 넣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연구체제, 작업방법, 객관적인 수요 모두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의 개방성연구중심의 인재표준, 재력투입, 직명[職稱]평빙, 출판자금지원[出版資助], 성과총계와 성과평정[積效評定]등에 적합한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여,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인재배양, 과제입항, 대외과제조직등 방면의 작업이 좋은 순환 궤도 속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한다.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編制）

附: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십일오” 사업 발전계획 논증 보고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十一五”事业发展规划论证报告]

一. 총체적인 평가

“십오”기간에, 우리들은 중국변강사지학과 영역에서 계속해서 선두의 지위와 집단의 우세함을 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통하여 그 학과에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이 있게 했고, 두 가지 새로운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였다. 하나는 본래의 근대 변경[邊界]문제를 단일한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좁았던 연구범주를 타파하고, 중국고대강역사, 중국근대변경[邊界]연혁사와 중국변강연구사의 세 가지 큰 연구중점과 계열로 확장시켜, 중국 변강사지연구학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다른 하나는 역사연구에 국한되어 있던 범주를 타파하고, 중국변강의 역사연구와 현상연구를 서로 결합하여, 당대(當代) 중국변강이 처한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기초연구가 응용연구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였다. “십오”계획[規劃]의 총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중국변강학 구축을 둘러싼 총 목표와 연구전개 작업은, 변강연구학과(學科) 건설을 위해 일하고, 중국변강의 안정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우수한 전략을 견지하여 성과를 내고 인재를 내며, 사회에 응하여 개방적 연구작업방법 실시를 견지한다.

우리는 중국변강사지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국고대강역사, 중국근대변경[邊界]연혁사, 중국변강연구의 세 가지 큰 계열의 종합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동시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유기적인 결합을 중시[注重]하여, 현[當代] 중국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연구를 전개하였다. 상술한 연구의 기초 위에, 중국변강이론연구와 중국변강학이론의 수립을 깊이 연구해 들어갔다. 이미 완성되거나 혹 진행중인 주요한 학술연구임무로는 중국변강학의 학술체계의 틀 문제·중국역대 변강통치사상연구·중국역대 변강치리와 개발연구·중국 界 務 문제의 전문 연구·근현대 주변 여러 나라 및 그들의 중국변강지역과의 관계 연구·중국 해양변강문제 연구·중국 역대 변강 탐사사 연구·현 중국 변강의 안정과 발전전략 연구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연구의 기초 위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좋은 기회를 잡아, 중앙정부[중앙]과 본 사회과학원 지도자의 큰 지지와 지도하에, 중국변강의 중대한 여러 문제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2002년, 2005년 정식으로 국가급 중대 항목인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과 “신강역사와 현상 종합연구항목”을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들 항목의 과제 설계 중, 우리들은 역사상의 난제와 현실중의 이슈[열점문제]를 잡아서, 많은 성과 자치구, 많은 부문의 연구역량을 조직, 통합[정합]하여 학과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선 중대한 학술연구 공정을 전개해 나갔다. “동북공정”이 이미 실시된 지 근 4년, 일련의 성과들을 얻어 국내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공정의 전개는 동북변강문제의 심도있는 연구를 극대하게 추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중국 변강사지학과의 영역 건설과 발전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일으켰다.

상술한 두 큰 항목의 성공적인 보고와 실시는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사회역량을 조직, 통합, 이용에 속도를 내어, 학술연구방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 밖에도,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는 여전히 부단히 연구조직을 형성하는 방면에서 새로운 시험을 진행하여, 학과건설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구오"기간의 선후로 성립된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 운남 작업기지[공작참]"(1996),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 동북 작업기지"(1999) 뒤에. "십오"기간에 또 사회과학원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선후로 성립된 "신강발전연구중심"(2000),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 신강 작업기지"(2002)와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 광서 작업기지"(2005), 이러한 연구체제상의 새로운 형식은 각자의 우세함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직 협조에 있어서 각 변강 지구의 관련된 연구 작업 중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하였고, 양호한 발전 추세와 광활한 앞날을 나타내어, 변강지구의 여러 연구 조직과 전문대[대전원교] 및 연구자의 보편적인 승인과 지지를 얻어,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이 학과에서의 우세한 지위를 진일보 확립시켜 주었다.

"십오"기간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는 《중국변강사지연구》(계간)은, 비교적 높은 학술적인 질로써, 이미 중국 변강사지연구의 중요한 학술 무대가 되었다. "중국변강재선" 홈페이지의 건설도 또 장족의 발전을 얻어, 본 학과 연구를 위해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제공해주는 인터넷 플랫폼[평대]이 되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십오"계획을 특출나게 완성하였고, 아울러 어떤 방면에서는 계획 범위를 뛰어 넘는 더 큰 성적을 얻기도 하였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는 변강사지학과가 양호한 태세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학과 발전의 전도가 십분 유망할 것으로 믿는다. 연구자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십일오"기간에 시대특징과 창신한 의의를 갖춘 많은 학술성과들이 배출될 수 있고, 따라서 중국변강학의 진보와 번영을 크게 추진할 것이다.

二. 학과(學科)의 건설

(一) 변강사지학과의 발전 종술

중국변강학 학과의 체계, 중국역사강역의 형성, 역대 변강치리, 역대 종번관계등의 문제는, 줄곧 본 학과영역에서 최전방의 문제였고, 동시에 또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중대한 이론 문제이기도 하였다. 조금 전 "십오"기간 동안에, 학술계에서는 상술한 이론문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넓이와 깊이 모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구체적인 체현은 1 중국변강학 학과 자리매김에 대한 토론이 날마다 심화되었고, 또 더욱 분명해 졌다. 2 중국변강학의 결구에 대한 토론이 역사학 혹은 기타 학과의 단일한 층면에 머물지 않고, 학과를 넘어선 영역의 사고 위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 역대 강역의 형성이론연구방면에서, 학술계에서는 시야를 더 광활한 범위에 두어, 한 쪽에서는, 중국고대강역변천의 역사적인 맥락을 진일보 탐구하고 토론하여, 그것과 중국의 통일 다민족국가 형성과 발전의 변화 역정을 서로 연계시켜, 중국변강과 중국의 통일 다민족국가발전의 역사적인 규율을 탐구하였

다. 다른 한 쪽에서는, 서양의 변강이론 및 세계 기타 국가의 변강문제, 그리고 아울러 변강학설의 연구에 대해 조금씩 전개해 나가, 우리의 연구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 주었고, 우리의 중국변강에 대한 인식[認知]을 더욱 더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하였다.

역대 변강치리의 이론연구 방면에서, 최근에 일정한 진보가 있었는데, 마대정선생이 주편한《중국변강통사》(7권본)이 이미 중주고적출판사의 출판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대형총서는 중국의 치리를 간선으로 하고, 역사발전의 여정에 따라 동북변강, 북부변강, 서북변강, 티벳, 서남변강, 해양변강[해강]을 지표로 하며, 마르크스주의 역사유물주의를 지도로 하여, 거시적인 역사의 각도로, 하대로부터 민국에 이르기까지의 수천년에 걸친 중국변강의 발전과 역대 중앙 왕조의 변강에 대한 경략과 치리에 대해, 다른 역사 단계로 나누어 진지한 사고와 분석,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이로부터 역사상 중국 변강 발전의 대세와 특징, 중국변강치리의 성패와 득실을 종결하고 귀납해 내어, 오늘날 중국 변강의 각각의 정책 제정과 당대(當代) 변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울과 참고의 역할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역사상 중국변강치리학술연구의 역작(力作)이 되었다.

역대 종번관계 문제연구 방면에서, 역시 일정한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역사상 중조(中朝)종번관계, 중월(中越)종번관계의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연구자는 역사상 중외종번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정확하게 서술함과 동시에, 그 성질과 특징 분석을 힘써 꾀하였으며, 역사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것을 구하였다. 중국역사상의 일종 특수한 현상이 되어서, 종번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연구자들의 쟁론의 초점이 되었다. 연구의 심화에 따라, 더욱 많은 창신한 의의를 갖춘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미 손을 꼽아 기다릴 수 있다.

학술발전 자체가 갖추고 있는 특성 및 지금 중국 변강의 특성을 통해 보면, "십일오"기간에는 장자 다음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① "십일오"기간이 중국변강사지이론연구가 신속하게 발전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② 육지변강문제학술연구의 점차적인 성숙과 깊이있는 연구를 따라, 중국 해양변강[海疆]문제가 장차 중국변강사지연구영역의 새로운 신장점(신장점)[增長點]이 되어 학술계의 해양변강문제에 대한 관주(關注)가 아마 작은 高潮期를 이룰 것이다.

(二)변강 중심의 변강사지학과의 지위 평가

(三)학과 발전 추세의 분석

역사학 영역의 하나의 번연 학과가 되어 중국변강사지 학술영역은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는 발전 태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학 영역 학과 건설과 발전 중에서도 새로운 증장점을 이루고 있다. "중국변강사지학"은 이미 사학 연구 자체와 학술계에서 주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에서도 변강사지 학술 영역은 연구를 심화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三. 연구 과제와 연구 성과

(一)연구 계획 집행 상황

변강중심은 "십오"기간 국가·(사과)원·연구소 급의 각종 과제를 합쳐 46개를 맡았으며, 그 중 국가급 과제 2개, 원급 과제는 10개, 소급 과제는 34개 항목이었다. 연구 중인 과제 16개와 완결을 연기한 과제가 1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미 완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과제 연구 계획 집행 정황은 양호하며 개별 과제 성과는 수준[質量] 문제가 존재하며 과제의 중간[中期] 관리와 종결된 항목의 관리 역량 강화는 여전히 이후 연구 조직 공작의 중점 대상이다.

(二)주요 연구 성과 및 평가

주요 연구 성과의 내용 및 평가

①『중국변강경략사』: 마대정 편, 전문 연구서[專著], 71만자, 중주고적출판사 2000년 10월 출판. 본서는 중국 역대 왕조의 변강 정책·변강 개발·변강 통치[治理]·변강 관리 기구의 설치 및 중앙 왕조와 변강 지구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민족 관계·번속 관계와 발전 및 변화[演進] 등 각각 다른 방면에서 중국 역대 변강 경략의 역사 진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기술하고 유관 이론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심도 있는 탐구를 하였다.

②『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논총』: 마대정·楊隆保·李大龍 등 저, 專著,30만자, 흑룡강교육출판사 2001년 2월 출판. 본서는 고구려의 명칭·민족 기원과 고구려의 건립·발전 및 그와 중국 중앙 왕조의 관계에 대해 논술하고 분석하여 충분한 역사 사실로 고구려는 중국 역대 왕조에 臣屬한 지방 정권임을 증명하였다.

③『國家利益高于一切 – 신강 안정 문제의 관찰과 사색』: 마대정 저, 專著, 20만자, 신강인민출판사 2002년 12월 출판. 본서는 종합보고 편과 전제연구 편으로 나뉜다. 전편은 비교적 상세하게 1950～1995년 신강 지구의 분리 반대 투쟁의 여정을 개술하고 20세기 90년대초기 신강의 안정된 형세를 분석하였다. 후편은 신강 사회의 안정·신강의 분리 반대 투쟁의 사회 정황 연구·신강 외부의 분리(독립) 조직의 발전 추세·분리 반대 투쟁의 새로운 戰場－인권 문제·新疆生産建設兵團과 신강 안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는 반폭력 테러 預警機 제도의 건립, 大敵 투쟁 수준의 끊임없는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 건의를 제출하였다.

④『唐西州地方行政體制考論』: 李方 저, 전저, 26만자, 흑룡강 교육출판사 2002년 8월 출판. 본서는 西州의 지방 기구·관리의 업무[職掌]·관리의 職任·관부의 운용 및 제도·소수 민족 부락 등 5개 방면에서 唐代 서주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본서는 중국 변강 지구의 역대 행정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⑤『중국변강사지연구綜述(1989～1998년)』: 厲聲·李國强 등 저, 전저, 33만자, 흑룡강교육출판사 2002년 12월 출판. 본서는 1989～1998년간 중국 변강사지연구의 학술사에 대해 전면적인 회고와 분석을 진행했다. 본서는 지역

⑥『중국신강 : 역사와 현재 상황[現狀]』

⑦『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⑧『中國邊疆史地論集續編』
⑨『中國東北邊疆研究』
⑩『카자흐스탄 및 그와 중국신강의 관계(15세기에서 20세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⑪『唐朝와 변강민족 사자 왕래 연구』
⑫『都護제도연구』
⑬『근대 영국과 신강(1840～1911)』
⑭『『新嘉坡風土記』校注』
⑮「양호한 개발 환경 창조－서북대개발 중의 민족사회 문제 연구」
⑯「중국 해강사지 학술 연구에 관한 思考」
⑰「청대 중－베트남 육로 邊界의 광서 광동 부분의 교섭 述論」
⑱「중국 고대의 변강정책과 변강 통치[治理]」
⑲「신강 역사상의 단명 분리 정권－동투르크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멸망」
⑳「元朝의 군사 방어[戍防]체계와 판도 유지」
㉑「조선에서 청나라로 온[赴淸朝] 사신 일행[使團]의 문화교류 활동」
㉒「민국 參政會 중의 藏族 참정의원과 민국 정부의 티벳 통치 정책」
㉓「청 정부 파미르 교섭 중의 대책 試析」
㉔「파미르 교섭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해」
㉕「고구려 侯騶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해」
㉖「중국 강역의 형성과 발전」
㉗「중국의 해양 권익 유지[維護]」
㉘「東突厥의 귀순과 隋朝의 邊政」
㉙「楊增新 시기 영국과 중국 신간 사이의 무역(1912～1928) 試論」

(三) 國家·(**사회과학**)院級 **수상**[獲奬] **현황**

四. 연구 대오의 건설

五. 학술 간행물의 건설

六. 학술 교류 정황

《표 1》“십오”기간 변강중심 主辦·承辦 학술 회의 통계표
(내용은 생략-편집자)

“十五”기간에 변강중심의 대외학술교류는 큰 폭의 발전이 있었다. 총 43인의 외국방문학자를 맞이했고 총11명이 출국하여 핀란드, 헝가리, 한국, 북한, 일본, 영국, 대만 등을 방문했다. “동북공정”의 실시와 주변국가에 대한 연구가 전개됨에 따라 변강중심의 대외학술교류가 당초 유럽과 미국 등 국가의 학자들에서 한국, 일본 등 중국과 이웃한 국가들로 옮겨졌다. 특히 2003～2004년도에 변강중심은 국가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도 아래,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하는 학술작업에 참여했고 아울러 계획성 있게 한국의 학술계와 교류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사회영향을 얻어냈으며, 우리 사회과학원 지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외교류 분야에 있어 변강중심의 취약점은 주로 접대능력의 한계에 나타난다. 이것은 외부 업무 처리경비의 부족과 외부 업무 처리인원의 부족을 포함한다. 오랜시간 동안 학문분야의 특징과 일부 안전상의 고려에 제한되어 변강중심은 대외교류분야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현재 맹렬하게 증가하는 대외교류요구에 준비부족을 보이고 있다.

“十一五”기간에 변강중심은 여전히 개방형 일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대외학술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학술교류임무 또한 특색있게 완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된 국가연구기구와 협조관계를 성립하고 합작연구를 전개하며 연구인력을 함께 배출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한다.

七. 연구조건[科研條件]

“十五”기간에 변강중심은 디지털화건설에 큰 진전이 있었고 조직기구와 인원배치가 더욱 합리적으로 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정보부를 설립하였다. 해마다 연구과제경비에서 나오는 지원을 꾸준히 투입하여 정보화건설이 지난 5년 동안 완만하게 발전하도록 하였다.

(一) 주요성과

① 변강중심은 우리 院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편제작업을 첫 번째로 마친 기구 중 하나로 전체 院 중에서 호평을 받았다. 변강중심의 웹페이지 “中國邊疆在線”의 건설을 계획하고 3차에 걸친 업데이트를 통해 연구인력과 연구관리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웹페이지의 가입 회원은 100여 명이고 방문인 수는 근 40만 명에 달한다.

② 변강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전체계획을 완성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편제 작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아울러 초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미 완성된 데이터베이스 일람표

编号	数据库名称	类型	条目	库大小 (万字)
1	研究库	全文检索	867	4610
2	中国边疆史地研究题录库	提要索引	979	384
3	中国边疆史地研究论文索引库	索　引	3143	403
4	边疆中心馆藏书目	索　引	3671	180
5	本版出版库	索　引	85	18
6	清代边疆史地研究论著库	索　引	7228	390
7	高句丽、渤海史研究论著资料库	索　引	2857	448
8	当代边疆调研库	全文检索	557	1901
9	当代边疆调研题录库	提要索引	539	282
10	成果库	目录索引	21	317
11	研究人员个人成果 X 全文数据库	全文检索	7(59)	50
总计			20006	8983

“十五”기간에 앞에서 언급한 11개의 데이터베이스의 편제와 유지임무를 완성했고 아울러 매년 최소 100여만자의 데이터를 증가하려고 한다. 본 연구소 인원이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국내외의 해당 영역 학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二)변강중심 정보화건설의 주요 특징 및 유리한 점과 부족한 점

주요 특징은 아래의 몇가지 측면이다.

① 지도자들이 중시하고 조직이 건전하며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관능동성[主觀能動性]을 발휘하는데 비교적 적절하다. 정보화건설 집단은 질서정연하고 작업은 주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책임감이 강해 창의적인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② 매년 중심은 경비를 할당한다. 경비의 안정적 공급은 계획의 실시에 도움이 된다.

③ 데이터베이스 건설의 기초 작업은 비교적 건실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어 이후 데이터의 양을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좋은 기초를 마련했다.

全院의 각 연구소와 비교해, 변강중심의 정보화건설은 평균이상의 위치에 있으며 발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웹페이지와 홈페이지의 내용과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건설은 다소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변강학문분야에서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자원이 많지 않고, 그 또한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한다는 점. 두 번째는 자금투입이 제한적이어서 점진적인 개발만이 가능하는 점. 세 번째는 인력 부족. 네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 모두가 오래되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

2) 주요 단행본

高 句 丽 历 史 研 究

刘子敏，延边大学出版社，1996年

目　　录

序言…… 1
第一章　高句丽的族称和族源…… 1
第一节　高句丽的族称…… 1
一、关于"高句丽"名称的含义…… 1
二、对高句丽族称诸说的辨析…… 3
第二节　高句丽的最早源头"高夷"…… 9
一、高夷的地理位置…… 9
二、高夷地区的考古文化 …… 13
三、高夷地区被纳入战国辽东郡 …… 19
第三节　关于"古高句丽" …… 29
一、"古高句丽"的形成 …… 29
二、"古高句丽"的居地 …… 34
三、沸流国与古高句丽 …… 38
第四节　朱蒙建国与五部的形成 …… 43
一、朱蒙建国神话的演变及其所反映的历史实际 …… 43
二、高句丽五部的形成 …… 56
第二章　高句丽前期社会 …… 75
第一节　高句丽的政治体制 …… 75
第二节　高句丽的社会经济 …… 79
一、土地所有制及社会性质 …… 79
二、农业生产 …… 82
三、渔猎及饲养业 …… 86
四、建筑业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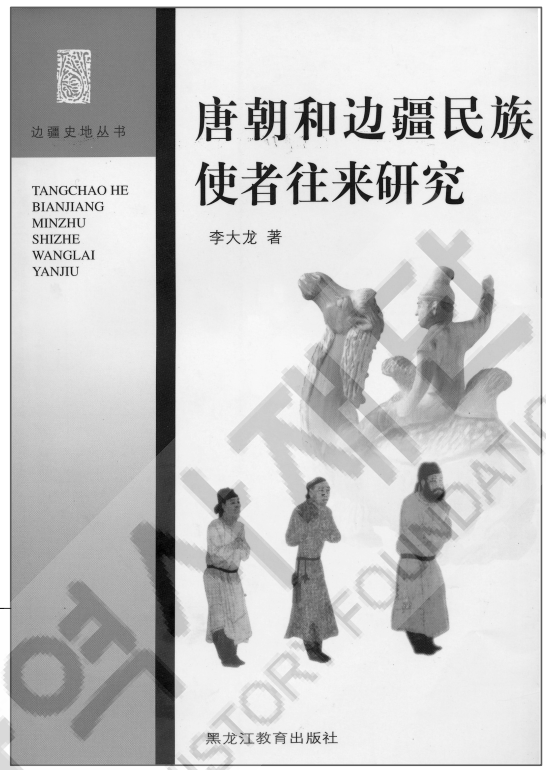
1

五、手工业 …… 99
六、商业 …… 105
第三节 高句丽的文化 …… 107
一、中原典籍的传入与汉字的使用 …… 107
二、中原哲学思想与宗教的传入 …… 110
三、高句丽的自然科学 …… 113
第四节 高句丽的礼俗 …… 115
一、饮食 …… 115
二、服饰 …… 116
三、婚俗 …… 116
四、葬俗 …… 118
五、祭祀 …… 120
六、其它 …… 126
第三章 高句丽前期王系考辨 …… 129
第一节 史学界在高句丽王系问题上的分歧 …… 129
第二节 闾达、如栗、莫来考辨 …… 133
第三节 宫、遂成、伯固考辨 …… 138
一、太祖王宫的在位时间 …… 138
二、遂成与伯固的在位时间 …… 141
第四节 男武、伊夷模、位宫辨 …… 147
一、伯固死后王位的继承者 …… 147
二、伊夷谟即为延优辨 …… 151
三、位宫考辨 …… 153
第五节 关于故国原王钊的谥号 …… 157
第四章 高句丽历史地理 …… 162
第一节 对在高句丽故地归属问题上的
几种错误说法的辨析 …… 162
一、第二玄菟郡是第一玄菟郡之缩小说 …… 162

二、高句丽故地曾属真番郡说 …… 171
三、高句丽故地曾为古朝鲜属地说 …… 181
第二节 高句丽山水考释 …… 188
一、高句丽的山 …… 188
二、高句丽的水 …… 193
第三节 高句丽的交通 …… 213
一、高句丽故地的"南北道" …… 213
二、高句丽故地的其它通道 …… 218
三、高句丽后期的交通 …… 220
第五章 高句丽后期历史 …… 230
第一节 高句丽同南北朝的关系 …… 230
一、接受南北朝的册封 …… 231
二、履行向南北朝进贡的义务 …… 232
三、高句丽强盛不受制 …… 232
四、灵活的交往策略 …… 233
第二节 高句丽对中原文化的继承和发展 …… 235
一、大量汉族融入高句丽族之中 …… 236
二、从高句丽壁画墓的产生和发展看其对中原文化的
继承和发展 …… 237
第三节 鼎盛时期的高句丽 …… 242
一、实行郡县管理的政治制度 …… 243
二、高句丽实行租税制度 …… 243
三、高句丽的铁器生产 …… 244
四、高句丽礼俗的变化 …… 244
五、在文化上的普遍中原化 …… 245
第四节 高句丽灭亡的原因 …… 247
一、隋丽战争及高句丽力量的消弱 …… 247
二、盖苏文政变及高句丽内部的分裂 ……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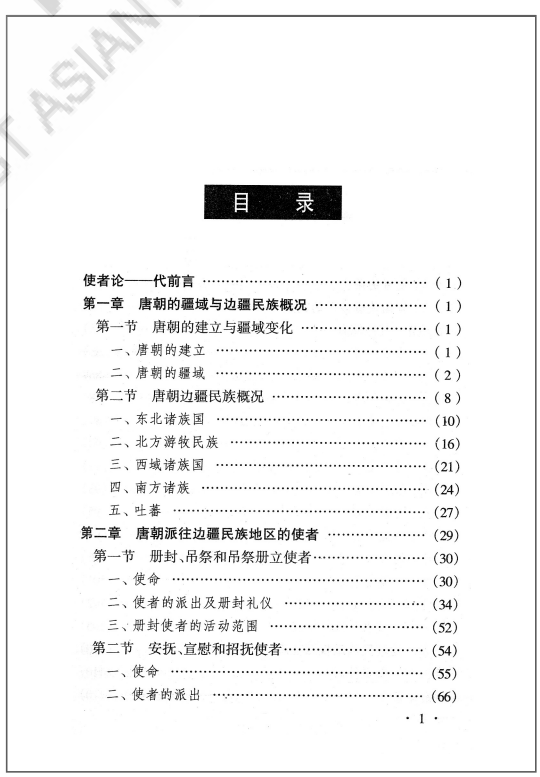
三、高句丽东北亚政策的转变及所带来的危机 …… 248
四、唐朝在高句丽问题上的基本态度与
在朝鲜半岛政策方面的转变 …… 250
第六章 高句丽在古代中朝关系中的历史地位 …… 2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唐朝和边疆民族使者往来研究

李大龙，黑龙江教育出版社，2001年



目　录

使者论——代前言 …… (1)
第一章　唐朝的疆域与边疆民族概况 …… (1)
第一节　唐朝的建立与疆域变化 …… (1)
一、唐朝的建立 …… (1)
二、唐朝的疆域 …… (2)
第二节　唐朝边疆民族概况 …… (8)
一、东北诸族国 …… (10)
二、北方游牧民族 …… (16)
三、西域诸族国 …… (21)
四、南方诸族 …… (24)
五、吐蕃 …… (27)
第二章　唐朝派往边疆民族地区的使者 …… (29)
第一节　册封、吊祭和吊祭册立使者 …… (30)
一、使命 …… (30)
二、使者的派出及册封礼仪 …… (34)
三、册封使者的活动范围 …… (52)
第二节　安抚、宣慰和招抚使者 …… (54)
一、使命 …… (55)
二、使者的派出 …… (66)

三、使者的活动范围 …… (68)
第三节 和亲使者 …… (69)
一、使命 …… (69)
二、和亲礼仪 …… (74)
三、和亲使者涉及的民族 …… (76)
第四节 宣谕使者 …… (80)
一、使命 …… (80)
二、使者的派出 …… (83)
三、宣谕使者涉及的民族 …… (84)
第五节 其他使者 …… (85)
一、告哀使者 …… (85)
二、镇遏使者 …… (86)
三、征兵使者 …… (88)
四、责让使者 …… (89)
五、宣劳使者 …… (90)
六、送迎使者 …… (91)
七、报聘使者 …… (93)
八、和蕃使者 …… (95)
九、会盟使者 …… (97)
十、购亡人使者 …… (100)
十一、赐物使者 …… (101)
十二、风俗使者 …… (102)
第六节 使者队伍的构成 …… (105)
第三章 边疆民族政权派往唐朝的使者 …… (110)
第一节 朝贡使者 …… (110)
一、使命 …… (110)

二、朝贡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12)
第二节 朝见使者 …… (116)
一、使命 …… (116)
二、朝见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21)
第三节 和亲使者 …… (124)
一、使命 …… (124)
二、和亲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28)
第四节 求请使者 …… (128)
一、使命 …… (128)
二、求请使者涉及的民族 …… (138)
第五节 祝贺使者 …… (139)
一、种类 …… (140)
二、祝贺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43)
第六节 告哀使者 …… (144)
一、使命 …… (144)
二、告哀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46)
第七节 互市使者 …… (147)
一、使命 …… (147)
二、互市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49)
第八节 修好使者 …… (151)
一、种类 …… (151)
二、修好使者涉及的民族及作用 …… (157)
三、其他使者 …… (158)
第四章 使者的选派与接待礼仪 …… (164)
第一节 使者的选派 …… (164)
一、唐朝使者的选派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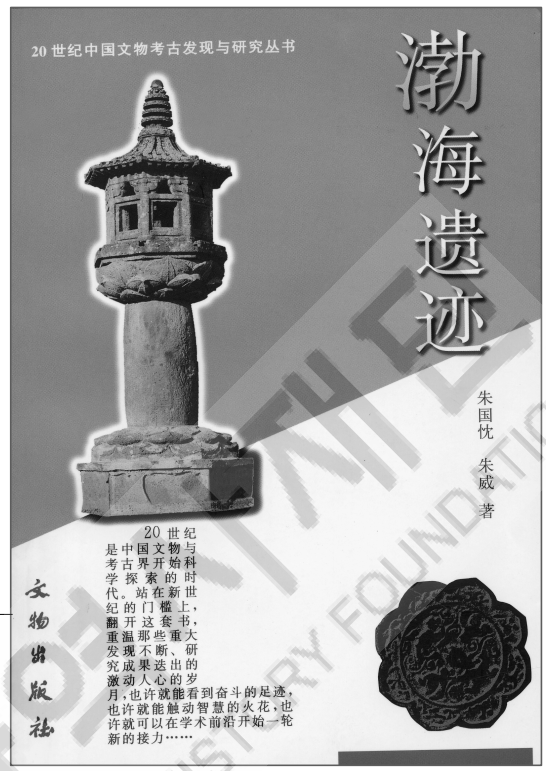
二、边疆民族使者的选派 …… (171)
第二节 接待礼仪 …… (174)
一、唐朝对边疆民族使者的接待礼仪 …… (174)
二、边疆民族对唐朝使者的接待礼仪 …… (194)
三、接待礼仪的性质和意义 …… (206)
第五章 使者来往路线略考 …… (209)
第一节 东北各民族与唐朝使者来往路线 …… (210)
第二节 北方各民族与唐朝使者来往路线 …… (212)
第三节 西北各民族与唐朝使者来往路线 …… (214)
第四节 西南各民族与唐朝使者来往路线 …… (216)
第五节 吐蕃和唐朝使者来往路线 …… (218)
第六章 使者来往在唐朝边疆管理中的作用 …… (221)
第一节 使者来往与边疆政策的制定 …… (221)
一、唐朝使者与唐朝边疆民族政策的制定与实施 …… (221)
二、边疆民族使者与其对唐朝政策的制定与实施 …… (236)
第二节 使者与唐朝对边疆民族政权的管理 …… (239)
一、使者与唐朝诏令的传达 …… (239)
二、使者与唐朝对边疆民族政权的管理 …… (241)
第三节 使者来往与唐朝和边疆民族之间的经济交流 …… (243)
一、朝贡与赏赐 …… (243)
二、互市贸易 …… (246)
第四节 使者来往与文化交流 …… (249)
一、中原典章制度向边疆民族地区的传播 …… (249)

二、使者与儒家道家文化的传播 …… (252)
三、语言及史学的传播 …… (253)
四、历法及佛法的传播 …… (254)
五、音乐舞蹈艺术的传播 …… (255)

附录一 唐朝朝廷遣使大事年表 …… (257)
附录二 边疆民族政权使者大事年表 …… (306)
附录三 主要参考文献、著述 …… (397)
后 记 …… (399)

渤 海 遗 迹

朱国忱 · 朱威，文物出版社，2002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 录

前 言…… *1*

一 渤海考古研究的回顾…… *11*
（一）“古大城”之谜——渤海考古发端…… *15*
（二）渤海考古调查发掘概述 …… *21*

二 渤海城市和建筑考古…… *37*
（一）王都京城的调查和发掘 …… *38*
1. 上京 …… *39*
2. 旧国和中京 …… *63*
3. 东京、南京和西京 …… *68*
（二）其他城堡 …… *75*

1. 苏密城 …… 76
2. 大城子古城 …… 79
3. 斐优城与温特赫部城 …… 81
4. 南城子古城 …… 83
5. 城墙砬子城址 …… 85
（三）渤海建筑的发掘和研究 …… 87
1. 上京宫殿和廊庑址 …… 87
2. 上京禁苑园林址 …… 107
3. 上京城的官衙址 …… 112
4. 佛教建筑址 …… 114
5. 上京城的其他建筑遗迹 …… 133
6. 桥梁址与窑址 …… 135
7. 居住址及其他 …… 140
8. 上京宫殿建筑复原研究 …… 148

三 渤海墓葬及类型 …… 156
（一）王族陵墓 …… 157
1. 贞惠公主墓 …… 157

2. 贞孝公主墓 …… 160
3. 三陵王陵区 …… 164
4. 其他王室贵族墓葬 …… 168
（二）一般墓葬和类型 …… 171
1. 上京地区墓葬 …… 171
2. 旧国、中京、东京地区墓葬 …… 176
3. 其他地区墓葬 …… 178
4. 渤海墓葬类型 …… 181
（三）葬式、葬具、葬俗 …… 185

四 渤海文化、艺术遗物 …… 190
（一）建筑材料与陶瓷烧造 …… 191
1. 石质建材与砖瓦 …… 191
2. 陶器烧造 …… 197
3. 釉陶和瓷器 …… 204
（二）石雕工艺 …… 208
1. 石灯幢 …… 208
2. 大石佛 …… 211

3. 石龟趺、石狮和其他石雕 …… 212
附：骨角器 …… 215
（三）金属冶炼加工工艺 …… 216
1. 铁器 …… 216
2. 铜器 …… 220
3. 金银器 …… 227
（四）碑碣遗石 …… 228
1. 贞惠、贞孝公主墓志 …… 229
2. 上京城“紫石碑”——国学碑及其他 …… 231
3. 唐鸿胪卿“井栏题名” …… 233
4. 张建章、张光祚墓志 …… 234
（五）瓦文、印鉴及其他 …… 236
1. 文字瓦的发现与研究 …… 237
2. 陶文及其他 …… 241
3. 渤海官印和押记 …… 242
（六）壁画及其他 …… 244
1. 贞孝公主墓壁画 …… 244
2. 三陵 2 号墓壁画 …… 247

3. 线刻、银平脱及其他 …… 248
附：纺织品 …… 250

五 渤海考古与海东文化 …… 255

参考文献 ……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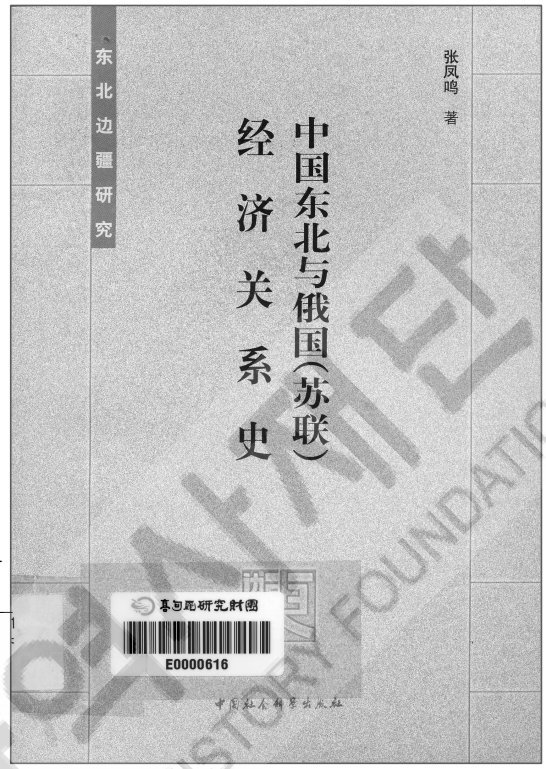
后 记 …… 2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插图目录

一　黑龙江宁安上京城第 1 号宫殿台基址土衬石和残存的砌砖 …… 6
二　上京城遗址平面图 …… 23
三　吉林和龙河南屯墓出土壁画残片 …… 32
四　上京城内城平面示意图 …… 52
五　上京城宫城东城夹墙遗迹 …… 56
六　上京城宫城平面示意图 …… 57
七　上京城宫城正南门第 1 号门址平、剖面图 …… 58
八　吉林敦化城山子山城平面示意图 …… 64
九　吉林和龙西古城平面示意图 …… 65
一〇　吉林珲春八连城平面示意图 …… 69
一一　上京城第 1 号宫殿址 …… 90
一二　上京城东大寺遗址出土舍利石函 …… 119
一三　上京城西大寺遗址出土鎏金铜佛像（残）…… 120
一四　吉林长白灵光塔 …… 124
一五　黑龙江海林鹰嘴峰第 3 号遗址中的渤海炕址 …… 142
一六　吉林和龙贞孝公主墓平、剖面图 …… 161
一七　上京城遗址出土覆盆状柱础 …… 193
一八　上京城遗址出土宝相纹砖 …… 194
一九　上京城宫城正南门台基址附近出土陶瓮 …… 202
二〇　黑龙江宁安兴隆寺石灯幢 …… 209
二一　石灯幢基础 …… 210
二二　上京城遗址出土石龟趺 …… 212
二三　吉林敦化六顶山墓出土铜饰杏叶 …… 221
二四　上京城遗址出土菱花海兽葡萄纹铜镜 …… 222
二五　黑龙江宁安虹鳟鱼场墓出土鎏金铜钗 …… 225
二六　上京城遗址出土铜印 …… 243
二七　吉林和龙贞孝公主墓壁画（摹绘） …… 245
二八　上京城遗址出土舍利函银平脱漆匣纹饰（摹绘） …… 2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国东北与俄国(苏联)经济关系史

张凤鸣,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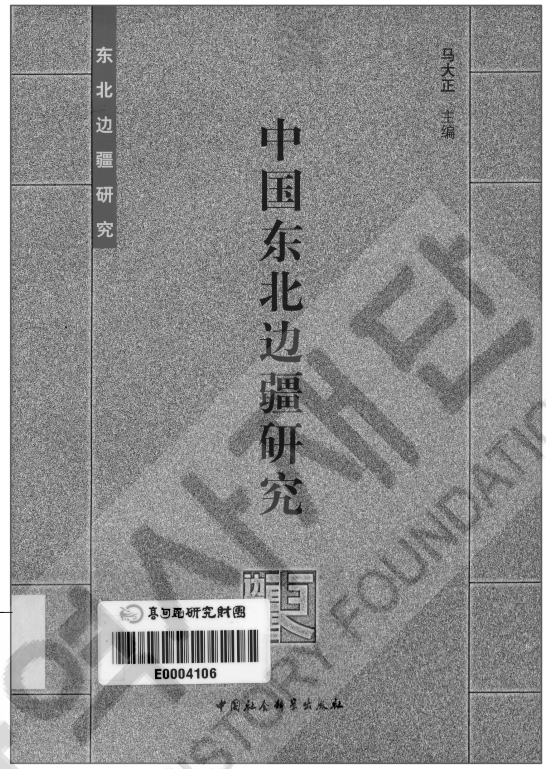
目　录

前　言……(1)

第一章　中国东北与俄国初期的贸易接触……(1)
第一节　俄国入侵中国黑龙江地区……(2)
第二节　中国东北与俄国最初的贸易接触……(9)
第二章　中国东北与俄国微弱贸易关系的长期持续……(13)
第一节　俄国商队赴齐齐哈尔贸易……(14)
第二节　库克多博、祖鲁海图边境地方贸易……(18)
第三节　巡边官兵顺便贸易……(22)
第四节　边境居民贸易……(25)
第三章　中国东北与俄国贸易关系的发展……(26)
第一节　西部边境地区的贸易……(29)
第二节　北部边境地区的贸易……(33)
第三节　东部边境地区的贸易……(38)
第四节　松花江沿岸地区的贸易……(42)
第四章　俄国对中国东北的投资和双方贸易关系的迅速发展……(46)
第一节　俄国对中国东北的投资及其发展……(48)
第二节　中国东北与俄国贸易关系的迅速发展……(107)

第五章　中国东北与苏俄、苏联经济关系的波折和进一步发展……(130)
第一节　苏联政府和俄侨对中国东北的投资及其变化……(134)
第二节　中国东北与苏俄、苏联贸易关系的波折和进一步发展……(160)
第六章　中国东北与苏联经济关系的减弱及停止……(173)
第一节　苏联政府和俄侨对中国东北投资的减少……(176)
第二节　中国东北与苏联贸易关系的减弱及中止……(183)
第七章　中国东北与苏联经济关系的恢复……(186)
第一节　苏联政府和俄侨对中国东北的投资……(188)
第二节　中国东北与苏联贸易关系的恢复……(190)

参考文献……(195)
后　记……(205)



中国东北边疆研究

马大正,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　录

绪　论　篇

加强东北边疆研究，促进学科建设…… 王洛林（3）
开展东北边疆问题研究的几个问题…… 全哲洙（7）
关于“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
　的几个问题…… 马大正（14）

中国疆域理论篇

解决边界争议的法理原则…… 焦润明（23）
中国“边疆内地化”问题研究…… 王景泽（33）

历代东北边疆治理篇

由校尉到都护：唐代东北边疆民族管理
　机构的演变…… 李大龙（47）
从唐朝对东北羁縻府州的统辖关系
　论渤海政权的归属问题…… 程妮娜（61）

辽朝的渤海移民政策…… 武玉环（76）
明初朱元璋经营铁岭以北元朝旧疆始末
——兼论明与高丽的界务交涉…… 张 杰 王 虹（87）

东北边疆民族、文化篇

孤竹国释论 …… 孟古托力（103）
朝鲜的箕子陵与檀君陵 …… 宗 岩（121）
汉族文化在东北边疆文化发展中的
历史作用 …… 李春燕 王 卓（127）
当代社会发展与中国东北社会结构的变迁 …… 郎 正（137）

高句丽历史篇

高句丽研究的若干问题 …… 姜维东（149）
论南北朝时期高句丽王国的内外政策 …… 祝立业（162）
唐征高句丽的动机与效果 …… 孙玉良（171）
简述新中国高句丽考古的几点收获 …… 孙玉良 孙文范（187）
高句丽的主要遗迹与分布 …… 魏存成（201）
鸭绿江以南的高句丽山城分布及其防御
体系 …… 徐日范（213）

周边地区及与中国东北关系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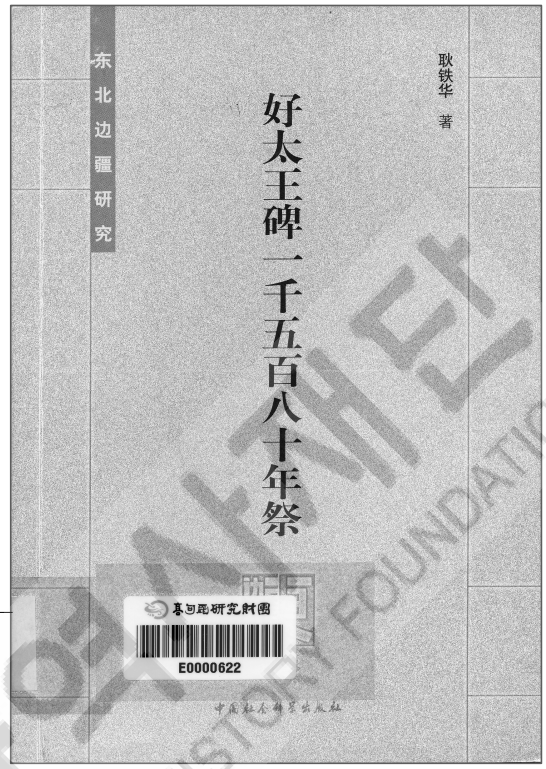
三韩考 …… 李德山（239）
关于“公崄镇”位置的再考证
——以与某些韩国学者的相关说法

商榷为中心 …… 刘子敏（251）
宗藩关系下的贡赐与贸易
——清代中朝朝贡贸易研究之二 …… 刘 为（263）
中日满铁“平行线”交涉评析 …… 胡玉海（289）
伪满时期东北边境纠纷的态势和原因述略 …… 王庆祥（298）
日本侵华罪证的新发现
——“建国神庙”遗址的发掘及“天照大神” …… 王文峰（315）
后记 …… （3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耿铁华,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目　录

前　言 …… (1)

第一章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 …… (1)
第一节　高句丽历史的丰碑 …… (1)
第二节　好太王碑的建立 …… (4)
第三节　好太王碑的形制 …… (9)
第四节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的经历 …… (15)
第二章　好太王碑保护与调查 …… (21)
第一节　重新发现 …… (21)
第二节　火焚除苔 …… (28)
第三节　两建碑亭 …… (34)
第四节　化学封护 …… (40)
第五节　基础探查 …… (50)
第三章　好太王碑的捶拓与拍照 …… (57)
第一节　拓本略说 …… (57)
第二节　好太王碑的捶拓 …… (61)
第三节　拓本的收藏 …… (73)
第四节　好太王碑的拍照 …… (100)
第四章　石灰涂抹的问题 …… (106)

第一节 石灰涂抹的调查 …… (106)
第二节 石灰涂抹的目的 …… (130)
第三节 石灰涂抹的实验 …… (147)
第五章 好太王碑文字现状 …… (152)
第一节 影响文字的诸因素 …… (152)
第二节 现存文字调查 …… (157)
第三节 几点说明 …… (226)
第六章 我国学者研究的新成果 …… (231)
第一节 王健群与《好太王碑研究》 …… (231)
第二节 朴真奭的《好太王碑与古代朝日关系研究》 …… (238)
第三节 《好太王碑新考》的撰写与出版 …… (247)
第四节 其他学者的研究 …… (250)
第七章 好太王碑文字识读的前景 …… (265)
第一节 碑文识读的历程 …… (265)
第二节 碑文识读的具体情况 …… (268)
第三节 碑文识读的工作量 …… (347)
第八章 与好太王碑文相关的冉牟墓志 …… (354)
第一节 冉牟墓志的发现与研究 …… (354)
第二节 调查与保护维修 …… (358)
第三节 墓志新释 …… (363)
第四节 关于墓室主人及其身份 …… (369)
第五节 高句丽贵族与王权 …… (374)
第六节 墓志集释 …… (377)

附录一 中国学者的好太王碑新释文 …… (398)
1 王健群释文 1984 …… (399)
2 朴真奭释文 1993 ……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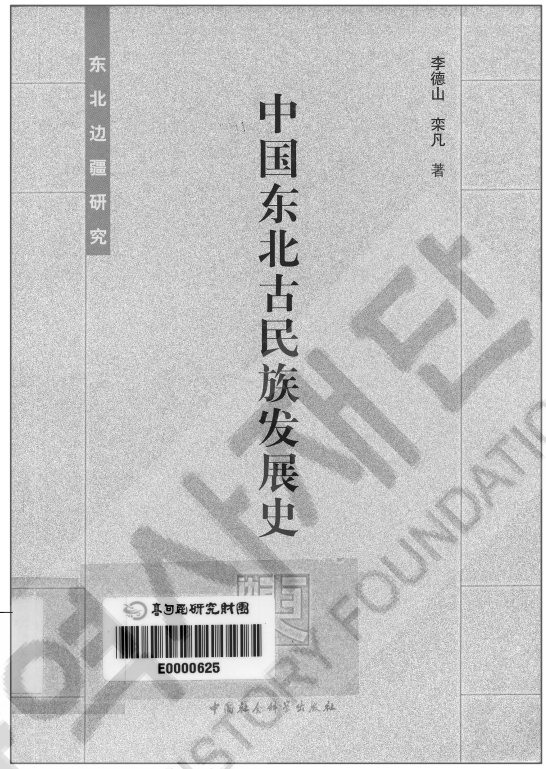
3 耿铁华释文 1994 …… (411)

附录二 中原高句丽碑考释 …… (415)
参考文献 …… (429)
后 记 …… (4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国东北古民族发展史

李德山·栾凡,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目　录

前　言 …… (1)

导　论 …… (1)
第一节　历史上的中国东北地区 …… (1)
第二节　东北古民族的起源 …… (5)
第三节　东北古民族的融合与嬗变 …… (11)
第四节　东北古民族对统一多民族国家的历史贡献 …… (16)

第一章　肃慎系古民族的发展 …… (20)
第一节　肃慎族的发展与演变 …… (20)
一、肃慎族及其居住地 …… (20)
二、肃慎族的社会发展 …… (21)
三、肃慎族与中原王朝的关系 …… (23)
四、肃慎的流向与融合 …… (24)
第二节　真番族的发展与演变 …… (24)
一、真番的族源及居住地 …… (24)
二、真番的社会发展及文化 …… (25)
三、真番与中原及周边民族的关系 …… (26)

四、真番郡的设置 …… (27)
第三节 挹娄族的发展与演变 …… (28)
一、挹娄族的族源 …… (28)
二、挹娄的社会发展及文化 …… (30)
三、挹娄与中原及周边民族的关系 …… (33)
第四节 勿吉族的发展与演变 …… (34)
一、勿吉族的族源及居住地 …… (34)
二、勿吉族的风俗习惯 …… (35)
三、勿吉族与中原及周边民族的交往 …… (37)
四、勿吉族的融合与流向 …… (38)
第五节 黑水靺鞨的兴起与发展 …… (39)
一、黑水靺鞨的起源 …… (39)
二、黑水靺鞨的居住地 …… (40)
三、黑水靺鞨的文化习俗 …… (41)
四、黑水靺鞨通使中原 …… (42)
五、黑水靺鞨与周边民族的关系及其流向 …… (43)
第六节 粟末靺鞨及其创建的渤海国 …… (45)
一、粟末靺鞨的来源及居住地 …… (45)
二、"海东盛国"的渤海国建立 …… (46)
三、渤海国与唐朝的关系 …… (48)
四、渤海国与邻国邻族的关系 …… (49)
五、渤海国的衰亡及人民的流向 …… (51)
第七节 女真族及其所创建的金王朝 …… (53)
一、女真族的形成及金王朝的建立 …… (53)
二、女真族的文化 …… (55)
三、金朝的衰亡及女真族的流向 …… (57)

第八节 女真族在元明时期的发展 …… (58)
一、元代的女真族 …… (58)
二、元代女真族的社会经济 …… (60)
三、明代女真族的变迁 …… (61)
四、明代女真族的经济发展 …… (62)
五、元明时期的女真文化 …… (66)
第九节 满族的兴起及清王朝的建立 …… (67)
一、满族共同体的形成 …… (67)
二、入关前满族的社会结构 …… (70)
三、清王朝的建立与满族入主中原 …… (72)
四、满族为统一的多民族国家的发展所作的历史贡献 …… (73)
五、清朝的灭亡及满汉的融合 …… (76)
六、满族文化的发展融合 …… (77)
第十节 肃慎系其他各族的发展与演变 …… (78)
一、骨嵬族的发展与演变 …… (78)
二、古里迷族的发展与演变 …… (80)

第二章 秽貊系古民族的发展 …… (83)
第一节 秽族的发展与演变 …… (83)
一、秽族的族源及居住地 …… (83)
二、秽族的社会发展及相关文化 …… (86)
三、秽族与中原的交往及其衰亡 …… (87)
四、朝鲜半岛的秽族 …… (90)
第二节 貊族的发展与演变 …… (92)
一、文献记载中的貊族 …… (92)
二、貊族的迁徙及进入东北 …… (92)

三、貊族的社会结构及文化 …… (94)
四、貊族与中原王朝的关系 …… (95)
五、关于小水貊 …… (97)
第三节 箕族的发展与演变 …… (99)
一、箕族的起源 …… (99)
二、箕族的始居地 …… (100)
三、箕族与商王朝的关系 …… (101)
四、箕子东迁及箕族的融合 …… (102)
第四节 古朝鲜族的发展与演变 …… (104)
一、关于古朝鲜的称名问题 …… (104)
二、箕子东迁古朝鲜的历史证据 …… (106)
三、箕子东迁的时间及再迁古朝鲜的原因 …… (107)
四、"八条之教" …… (110)
五、古朝鲜族的居地及文化 …… (112)
六、周秦时期古朝鲜族的发展 …… (114)
七、汉代古朝鲜族的发展 …… (117)
第五节 高夷的发展与演变 …… (119)
一、高夷的族称与居地 …… (119)
二、高夷的流向 …… (120)
第六节 橐离族的发展与演变 …… (121)
一、橐离族的族源 …… (121)
二、橐离族的居地 …… (122)
三、关于"橐离文化" …… (123)
第七节 良夷(梁貊)的发展与演变 …… (125)
一、良夷的族源 …… (125)
二、良夷的居地及其与中原的关系 …… (127)

三、关于"梁貊" …… (128)
第八节 发族的发展与演变 …… (129)
一、发族的起源 …… (129)
二、发族与殷商的关系 …… (131)
三、发族与周王朝的关系 …… (133)
四、发族的居地及社会发展 …… (134)
第九节 白夷的发展与演变 …… (135)
一、白夷的起源 …… (135)
二、白夷与"成周之会" …… (136)
三、白夷的居地 …… (136)
四、白夷的发展 …… (137)
第十节 夫余族的发展与演变 …… (138)
一、夫余的族称及族源 …… (138)
二、夫余族的崛起 …… (139)
三、夫余族的居地及王城 …… (142)
四、夫余国的社会经济 …… (143)
五、丰富多彩的民族文化 …… (145)
六、古老王国的消亡及人口的流向 …… (147)
第十一节 高句丽的发展与演变 …… (149)
一、高句丽族称的含义 …… (149)
二、高句丽与夫余关系考辨 …… (151)
三、五部的构成 …… (154)
四、王国的建立 …… (155)
五、建国初期对周边部族的兼并 …… (157)
六、高句丽经济的发展 …… (159)
七、丰富多彩的风俗习惯 …… (161)

八、高句丽族的人口及流向 …… (168)
第十二节 沃沮族的发展与演变 …… (170)
一、沃沮族的族源 …… (170)
二、沃沮族的居地 …… (172)
三、沃沮族的社会发展 …… (173)
四、沃沮族的流向 …… (174)
第十三节 豆莫娄族的发展与演变 …… (175)
一、族称的含义与族属 …… (175)
二、豆莫娄的居地及社会发展 …… (176)
三、豆莫娄的流向 …… (177)

第三章 东胡系古民族的发展 …… (179)
第一节 山戎族的发展与演变 …… (179)
一、山戎的来历 …… (179)
二、山戎的始居地 …… (181)
三、东北山戎的发展与消亡 …… (182)
第二节 东胡的发展与演变 …… (183)
一、东胡的族源 …… (183)
二、东胡的活动地区 …… (184)
三、东胡的社会发展 …… (184)
四、东胡的演变 …… (186)
第三节 鲜卑族的发展与演变 …… (187)
一、鲜卑族称的来历 …… (187)
二、汉代以前的鲜卑 …… (190)
三、鲜卑的经济与社会发展 …… (191)
四、鲜卑的演变 …… (193)

五、东部鲜卑族 …… (196)
六、北部鲜卑族 …… (199)
第四节 乌桓族的发展与演变 …… (201)
一、乌桓族称的含义 …… (201)
二、乌桓族的居住地 …… (202)
三、乌桓族的风俗习惯 …… (203)
四、乌桓族的经济发展 …… (205)
五、乌桓族的社会发展 …… (207)
六、乌桓族的演变 …… (208)
第五节 奚族的发展与演变 …… (210)
一、北魏以前的奚族 …… (210)
二、迁入东北地区的奚族 …… (212)
三、奚族的发展与演变 …… (214)
第六节 契丹族的发展与演变 …… (217)
一、契丹一词的含义 …… (217)
二、文献中契丹的先世及其族属 …… (219)
三、契丹建国前的居地及风俗习惯 …… (221)
四、契丹社会的发展 …… (222)
五、辽朝的建立和发展及其灭亡 …… (226)
第七节 乌洛浑的发展与演变 …… (230)
一、乌洛浑的起源和发展 …… (230)
二、乌洛浑的社会生活与风俗习惯 …… (231)
第八节 室韦族的发展与演变 …… (232)
一、室韦族先史 …… (232)
二、室韦族与州边各族的关系 …… (233)
三、室韦族的发展 …… (237)

四、室韦族的社会经济 …… (239)
五、室韦族的风俗习惯 …… (240)
第九节 蒙古族的发展与演变 …… (243)
一、蒙古一词的含义 …… (243)
二、蒙古族先世诸说疏证 …… (247)
三、蒙古建国前各部的发展 …… (256)
四、各部的统一及帝国的建立 …… (259)
五、元朝的建立及其历史意义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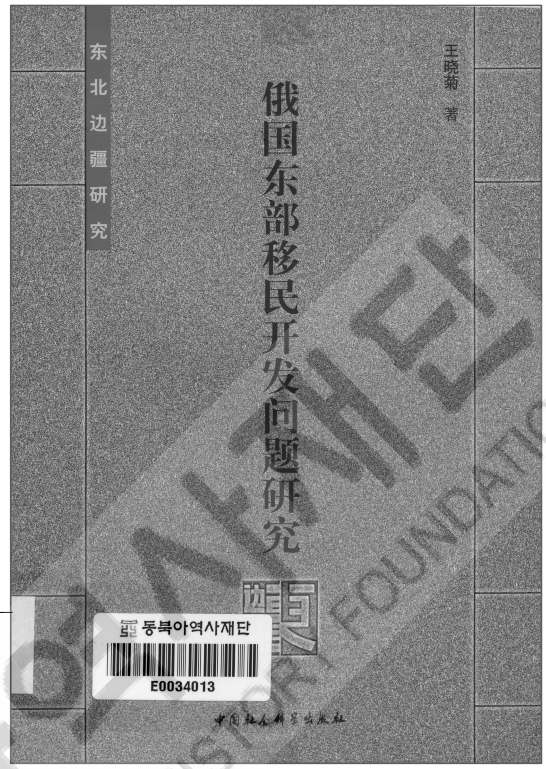
第四章 其他古民族及汉族的发展 …… (266)
第一节 古燕族的发展与演变 …… (266)
一、古燕族的起源 …… (266)
二、古燕族的发展 …… (267)
三、古燕国对东北的经营和管理 …… (270)
第二节 孤竹族的发展与演变 …… (273)
一、孤竹族的起源 …… (273)
二、孤竹族的居住地 …… (274)
三、孤竹族的发展 …… (276)
第三节 令支族的发展与演变 …… (279)
一、令支族的起源 …… (279)
二、令支族的居住地 …… (281)
第四节 俞人、屠何、青丘、周头族的发展与演变 …… (283)
一、俞人的族源及其居住地 …… (283)
二、屠何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85)
三、青丘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87)
四、周头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89)

第五节 雷、地豆于、流鬼族的发展与演变 …… (290)
一、雷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0)
二、地豆于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2)
三、流鬼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3)
第六节 驱度寐、傔罗、鞠、俞折、驳马、大汉族的发展与演变 …… (295)
一、驱度寐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5)
二、傔罗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6)
三、鞠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6)
四、俞折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7)
五、驳马族的族源及其居住地 …… (297)
六、大汉族的居住地 …… (298)
第七节 东北地区汉族的发展 …… (298)
一、先秦时期的华夏族进入东北 …… (298)
二、秦汉至南北朝时期东北的汉族 …… (300)
三、隋唐五代时期东北的汉族 …… (302)
四、宋辽金元时期东北汉族人口的增加 …… (304)
五、明清时期东北汉族人口的激增 …… (307)

主要参考文献 …… (312)

俄国东部移民开发问题研究

王晓菊,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　录

序…… 刘祖熙（1）
前　言 ……（1）

第一章　俄国东部移民开发之缘起 ……（1）
第一节　亚洲俄罗斯的出现……（1）
一、俄国东部的自然人文概况 ……（1）
二、哥萨克东征西伯利亚……（5）
三、俄国对东部边疆的行政治理 ……（9）
第二节　俄国东部的早期移民……（11）
一、迁移国有农民 ……（11）
二、西伯利亚流放 ……（15）
三、“流浪人” ……（25）
第三节　俄国东部的早期开发……（27）
第四节　农奴制度与俄国东部……（31）
一、俄国农奴制的形成与发展 ……（31）
二、农奴制的“边缘化”地带 ……（33）
三、俄国农奴制的瓦解……（35）
第二章　俄国边疆移民政策的演化(1861—1917) ……（37）
第一节　禁止自由移民政策(1861—188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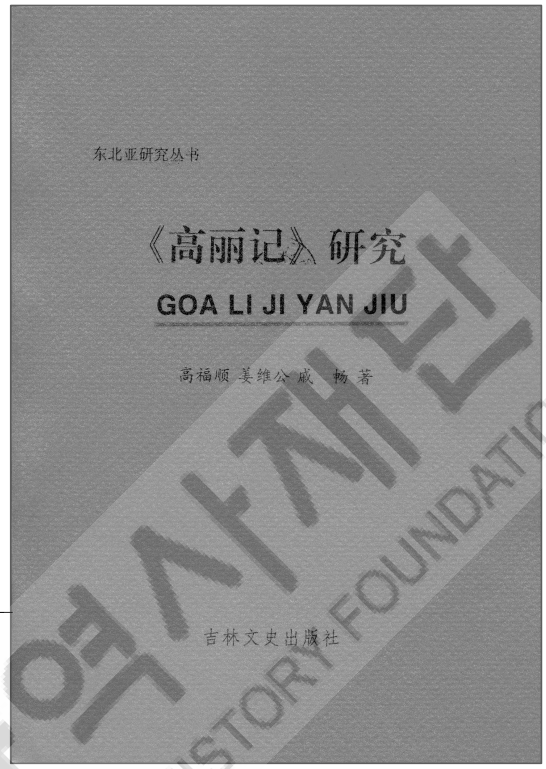
一、农奴制改革与农民迁移自由 …… (38)
二、特例情况 …… (42)
第二节 限制自由移民政策(1881—1904) …… (43)
一、80年代有关农民迁移的专门法规 …… (44)
二、90年代以后移民政策的松动 …… (48)
第三节 鼓励自由移民政策(1904—1917) …… (53)
一、自由移民政策出台的背景 …… (53)
二、自由移民政策的序曲 …… (56)
三、斯托雷平土地改革时期的移民政策 …… (58)
第三章 俄国东部移民开发的主要领导机构 …… (73)
第一节 亚洲俄罗斯地方自治局 …… (73)
第二节 西伯利亚铁路委员会 …… (79)
第三节 远东移民委员会 …… (83)
第四章 俄国东部的移民浪潮 …… (91)
第一节 第一次移民浪潮(1885—1905) …… (91)
第二节 第二次移民浪潮(1906—1917) …… (96)
一、移民情况 …… (96)
二、存在的问题及其原因 …… (103)
第五章 俄国远东移民运动60年 …… (110)
第一节 俄国远东移民运动的历史阶段 …… (111)
一、陆路移民阶段(1861—1881) …… (111)
二、海路移民阶段(1882—1901) …… (116)
三、铁路移民阶段(1901—1917) …… (123)
第二节 俄国远东地区的外国劳务 …… (127)
一、俄国远东地区的中国劳务 …… (128)
二、俄国远东地区的朝鲜劳务 …… (137)
三、俄国远东地区的日本劳务 …… (141)

第三节 俄国远东移民运动评析 …… (144)
一、进展缓慢的远东移民运动 …… (144)
二、俄国远东移民运动的意义 …… (148)
三、俄国远东移民运动的特点 …… (150)
第六章 俄国东部边疆的经济开发 …… (156)
第一节 俄国东部的农牧业开发 …… (156)
第二节 俄国东部的工业开发 …… (163)
第三节 俄国东部的交通开发 …… (176)
一、西伯利亚大铁路的筹划 …… (176)
二、关于阿穆尔铁路 …… (181)
三、西伯利亚大铁路的意义 …… (184)
第七章 俄国东部边疆的社会变迁 …… (188)
第一节 俄国东部的人口状况 …… (188)
一、人口分布 …… (188)
二、民族结构 …… (191)
三、宗教信仰 …… (197)
第二节 俄国东部的文化开发 …… (198)
一、亚历山大三世基金会的业绩 …… (198)
二、创办高等学府 …… (201)
三、开展科研活动 …… (207)
第三节 俄国东部的社会政治思潮 …… (210)
一、西伯利亚区域分立主义运动 …… (210)
二、政治流放与工人运动 …… (215)
第八章 俄国现代化与东部移民开发 …… (220)
第一节 俄国现代化及其特点 …… (220)
一、俄国现代化的基本情况 …… (220)
二、俄国现代化的特点 …… (226)

第二节 俄国现代化中的东部移民开发 …… (228)
一、俄国现代化为东部移民开发提供了契机 …… (228)
二、东部移民开发有力推动了俄国现代化 …… (232)
三、俄国现代化以牺牲东部利益为代价 …… (234)
第九章 俄国东部与周边区域开发之比较 …… (248)
第一节 俄国东部开发与中国东北开禁招垦 …… (248)
一、晚清时代的东北边疆 …… (248)
二、中俄边疆开发中的差异 …… (250)
三、中国东北边疆开发中的俄国因素 …… (252)
第二节 俄国东部移民开发与美国西进运动 …… (256)
一、美国西部与俄国东部的可比性 …… (256)
二、移民开发的效果差异 …… (258)
三、比较差异的成因 …… (264)
四、美国西部开发的经验教训及对俄国的启示 …… (281)

结束语 …… (286)
参考文献 …… (296)
后 记 …… (304)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丽记》研究

高福順·美维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　录

前言…… 1
第一章　《高丽记》的发现及其史料价值
一、《高丽记》佚文的发现 …… 1
二、《高丽记》作者与成书时间 …… 5
（一）成书年代范围的界定…… 9
1．从《高丽记》所载官职来推断成书年代 …… 9
（1）鸿胪卿 …… 9
（2）都督…… 10
（3）刺史…… 12
（4）长史…… 12
（5）县令…… 15
（6）卫将军…… 15
（7）中郎将…… 16
2．从《高丽记》写作手法来判断作者及成书年代…… 18
3．从正史采用《高丽记》内容来判断成书年代…… 18
4．从有关地理片段来判断《高丽记》的作者…… 24
（二）《高丽记》的作者及成书年代…… 28
1．陈大德…… 28
2．邓素…… 34
3．相里玄奖…… 35
三、《高丽记》的由来、流传及散佚 …… 40
（一）陈大德出使高句丽的政治背景 …… 40
（二）高桓权人唐时间 …… 42
（三）陈大德出使高句丽 …… 45
四、《高丽记》的史学价值 …… 45

（一）在高句丽官制研究上的史料价值 …… 48
（二）在高句丽五部研究上的史料价值 …… 52
（三）在高句丽军事上的史料价值 …… 52
（四）在其他方面的史料价值 …… 53
第二章 《高丽记》佚文的辑录与考订
一、《高丽记》佚文与校订的必要性 …… 54
二、《高丽记》佚文辑补 …… 57
（一）张楚金《翰苑》和雍公睿《翰苑》注文所引《高丽记》佚文 …… 59
（二）李贤《后汉书注》所引《高丽记》佚文 …… 63
（三）杜佑《通典》所引《高丽记》佚文 …… 64
（四）《旧唐书》所引《高丽记》佚文 …… 66
（五）《旧五代史》所引《高丽记》佚文 …… 67
（六）《太平寰宇记》所引《高丽记》佚文 …… 67
（七）《新唐书》所引《高丽记》佚文 …… 70
（八）《册府元龟》所引《高丽记》佚文 …… 72
（九）《宣和奉使高丽图经》所引《高丽记》佚文 …… 72
（十）《通志》所引《高丽记》佚文 …… 74
（十一）《文献通考》所引《高丽记》佚文 …… 75
（十二）《太平御览》所引《高丽记》佚文 …… 77
三、《高丽记》与相关中国古代典籍的比较研究 …… 78
（一）《翰苑》、《翰苑》注文与《高丽记》的关系 …… 79
（二）李贤等《后汉书》注文与《高丽记》的关系 …… 80
（三）《通典》与《高丽记》的关系 …… 82
（四）《太平寰宇记》与《高丽记》的关系 …… 85
（五）《旧唐书》与《高丽记》的关系 …… 87
（六）《新唐书》与《高丽记》的关系 …… 87
（七）《宣和奉使高丽图经》与《高丽记》的关系 …… 88

（八）《通志》、《文献通考》与《高丽记》的关系 …… 88
四、《高丽记》佚文勘误 …… 89
（一）《高丽记》佚文的写成方式 …… 89
（二）校勘发现的问题 …… 90
1．佚外之佚 …… 90
2．脱文 …… 91
3．讹夺 …… 91
五、《高丽记》佚文的考订 …… 93
（一）考订文第一 …… 93
1．吐悸 …… 94
2．比几品 …… 95
3．大对卢 …… 95
4．莫何罗支 …… 96
5．总知国事 …… 96
6．三年一代 …… 96
7．不相抵股 …… 97
8．勒兵相攻 …… 97
9．次郁折 …… 97
10．华言主簿 …… 97
11．大夫使者 …… 98
12．谋政事 …… 99
13．征发兵马 …… 99
14．大兄 …… 99
15．拨位使者 …… 100
16．次小使者 …… 100
17．次不过节 …… 100
18．先人 …… 101
19．拨（状）古邹（雏）加 …… 101

20．太大使者 …… 103
21．国子博士 …… 104
22．太学博士 …… 104
23．通事 …… 104
24．典书客 …… 104
25．其大城置得萨 …… 104
26．处闾近支 …… 105
27．未若 …… 105
28．其次领千人以下，各有差等 …… 105
（二）考订文第二 …… 106
1．又其国有五部，皆贵人之族也 …… 107
2．一曰内部 …… 107
3．即后汉时桂娄部也 …… 107
4．二曰北部 …… 108
5．一名后部，一名黑部 …… 108
6．一名左部，一名上部，一名青部 …… 108
7．一名前部，一名赤部 …… 108
8．一名下部，一名白部 …… 109
9．内部姓高，即王族也 …… 109
10．又内部虽王宗，列在东部之下 …… 109
（三）考订文第三 …… 110
1．汉乐浪郡遂成县 …… 111
2．夹右碣石入于河 …… 111
（四）考订文第四 …… 111
（五）考订文第五 …… 112
1．平流清深 …… 112
2．两岸生长柳，家密可藏兵马 …… 112
3．两岸弥平，总名辽泽 …… 112

（六）考订文第六 …… 113
（七）考订文第七 …… 113
（八）考订文第八 …… 114
（九）考订文第九 …… 115
1．马訾水，高丽一名淹水，今名鸭绿水 …… 115
2．其国相传云 …… 116
3．水源出东北靺鞨国白山 …… 116
4．水色似鸭头，故俗名鸭绿水 …… 117
5．即盐难水也 …… 117
6．西南至安平城入海。 …… 117
7．波澜清澈，所经津济，皆贮大船 …… 118
8．今案其水阔三百步 …… 118
9．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也 …… 119
10．辽水东南四百八十里 …… 119
（十）考订文第十 …… 120
（十一）考订文第十一 …… 134
（十二）考订文第十二 …… 136
（十三）考订文第十三 …… 136
（十四）考订文第十四 …… 137
（十五）考订文第十五 …… 138
1．下有石室，可容千人 …… 139
2．夷人长老相传云 …… 139
3．形小而骏 …… 139
（十六）考订文第十六 …… 139
1．乌骨山 …… 140
2．自足至巅，皆是苍石 …… 140
3．高丽于南北碛口，筑断为城 …… 140
（十七）考订文第十七 ……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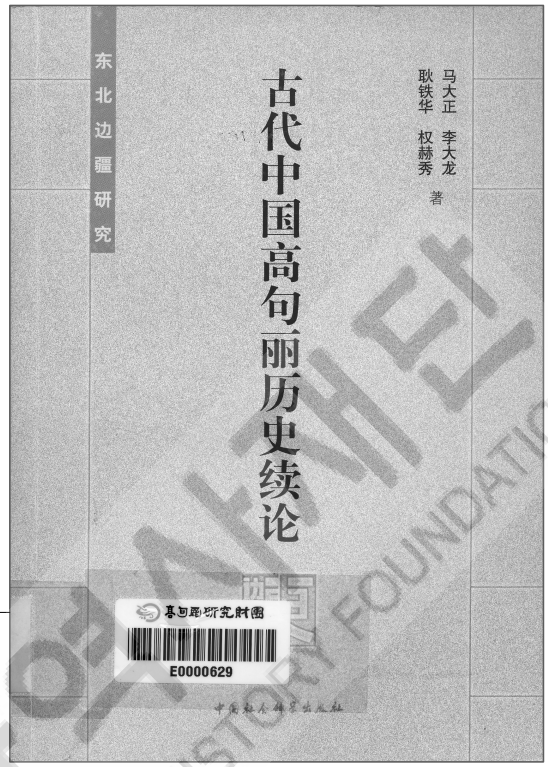
（十八）考订文第十八 …… 141
（十九）考订文第十九 …… 142
第三章 《高丽记》佚文研究
一、高句丽官制研究 …… 143
（一）高句丽官制研究 …… 144
1．高句丽官制研究综述 …… 144
2．高句丽官制等级制度 …… 147
（1）两汉魏晋时期 …… 149
（2）南北朝时期 …… 150
（3）隋朝时期 …… 151
（4）唐朝时期 …… 153
（二）《高丽记》所记官制考异 …… 155
（三）高句丽末期官位体系 …… 164
1．中央官制体系 …… 164
2．地方官制体系 …… 166
（四）兄与使者的关系 …… 167
二、《高丽记》佚文在地理学的贡献 …… 171
（一）在自然地理上的贡献 …… 172
（二）在人文地理上的贡献 …… 175
三、《高丽记》佚文在地名学上的贡献 …… 177
（一）《高丽记》佚文对地名的记述 …… 177
1．高句丽五部 …… 177
2．高句丽古城 …… 178
3．高句丽山川 …… 180
（二）《高丽记》佚文地名的记述方法 …… 180
1．沿革地理法 …… 180
2．对照法 …… 181
3．溯源法 …… 181

4．地理定位法 …… 182
5．重点描述法 …… 182
四、高句丽五部研究 …… 183
1．高句丽五部研究现状 …… 184
2．从《高丽记》佚文看高句丽五部 …… 188
五、高句丽社会研究 …… 197
（一）高句丽传说 …… 197
（二）社会生活 …… 199
1．《高丽记》佚文所见高丽记出产的药材 …… 199
2．《高丽记》佚文所见高句丽纺织手工业 …… 203
第四章 《高丽记》所记地名的研究
一、陈大德出使路线考 …… 210
二、地名考释 …… 217
（一）国邑考释 …… 217
1．高句丽国 …… 217
2．靺鞨国 …… 227
3．沃沮 …… 230
4．朝鲜 …… 232
5．秽貊 …… 235
（二）城邑考释 …… 237
1．平壤城 …… 237
2．辽东城 …… 253
3．建安城 …… 261
4．国内城 …… 265
5．不耐城 …… 279
6．南苏城 …… 282
7．新城 …… 289
8．安市城 …… 296

9．安平城 …… 308
10．乌骨城 …… 311
11．鲁城 …… 317
12．居就城 …… 319
13．带方城 …… 320
14．屯有城 …… 324
15．文城 …… 325
（三）山川考释 …… 325
1．银山 …… 326
2．白山 …… 329
3．辽山 …… 332
4．鲁阳山 …… 333
5．苇山 …… 333
6．马多山 …… 334
7．盖马山 …… 337
8．鸭绿水 …… 339
9．盐难水 …… 351
10．马訾水 …… 351
11．淹水 …… 352
12．狈水 …… 352
13．大辽水 …… 356
14．小辽水 …… 360
15．大梁水 …… 360
第五章 《高丽记》佚文所涉人物研究
一、《高丽记》作者陈大德 …… 361
二、《翰苑》作者张楚金 …… 364
三、《翰苑》注者雍公睿 …… 371
主要参考书目 …… 375

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

马大正·李大龙，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



目　录

再论高句丽历史研究中的相关问题
——代前言……（1）

理论篇

一、古代中国的藩属……（1）
（一）关于藩、属的概念 ……（2）
（二）先秦时期的五服制理论 ……（4）
（三）先秦时期的“夷夏观” ……（17）
（四）汉唐藩属关系的建立和维系 ……（22）
二、高句丽国的归属 ……（58）
（一）历代王朝对高句丽归属的认识 ……（59）
（二）高句丽对中国的认同……（65）
（三）高句丽在中国疆域形成中的作用 ……（73）

历史篇（上）

一、汉四郡研究 ……（81）
（一）四郡设置前的东北边疆……（81）
（二）汉四郡的设置及沿革……（84）
（三）四郡的地望 ……（90）
二、古代中国政权与高句丽相互政策研究 ……（97）
（一）汉至唐各王朝对高句丽的政策 ……（97）

1. 两汉王朝的高句丽政策：由直接管辖向羁縻统治方式转化……（97）
2. 魏晋南北朝各政权的高句丽政策：羁縻状态下的不同政策……（115）
3. 隋唐王朝的高句丽政策：重新构筑直接管辖的努力和实现……（126）
（二）高句丽对汉至唐各王朝的政策……（139）
1. 对两汉王朝的政策：在郡县辖侯国状态下谋求发展……（140）
2. 对魏晋南北朝各政权的政策：在臣属关系状态下谋求壮大……（142）
3. 对隋唐王朝的政策：为免遭覆灭而做的种种努力……（147）
三、高句丽与中原地区经济文化交流研究……（154）
（一）高句丽与中原地区的经济交流……（154）
1. 交流的途径和范围……（154）
2. 经济交流对高句丽经济发展的影响……（158）
（二）高句丽与中原地区的文化交流……（160）
1. 交流的途径和范围……（160）
2. 文化交流对高句丽文化形成和发展的影响……（164）
四、高句丽活动地域变迁研究……（169）
（一）建国初期的活动区域……（169）
（二）东汉曹魏时期的活动区域……（175）
（三）两晋南北朝时期的活动区域……（176）
（四）隋唐时期的活动区域……（178）
五、高句丽文化研究……（185）

（一）教育与文学……（185）
（二）祭祀……（190）
1. 祭天……（190）
2. 祭祀祖先……（191）
3. 祭祀社稷……（192）
4. 祭祀山川洞穴……（192）
5. 祭祀日月……（193）
6. 祭祀星辰……（193）
7. 祭祀伏羲女娲……（193）
8. 诸神灵、仙人的祭祀……（194）
（三）佛教与道教……（194）
（四）碑碣石刻……（200）
1. 好太王碑……（200）
2. 中原高句丽碑……（202）
3. 人像石刻……（203）
4. 石柱、无字碑……（204）
（五）壁画艺术……（207）
（六）音乐舞蹈……（217）

历史篇（下）

一、句丽考……（225）
（一）正史中记载的句丽……（225）
（二）句丽之称的出现……（232）
（三）关于“句丽国”……（234）
二、高句丽建国时间考……（242）
（一）高句丽建国时间的几种意见……（242）
（二）高句丽建国时间考……（248）
（三）建国传说的汉文化本体……（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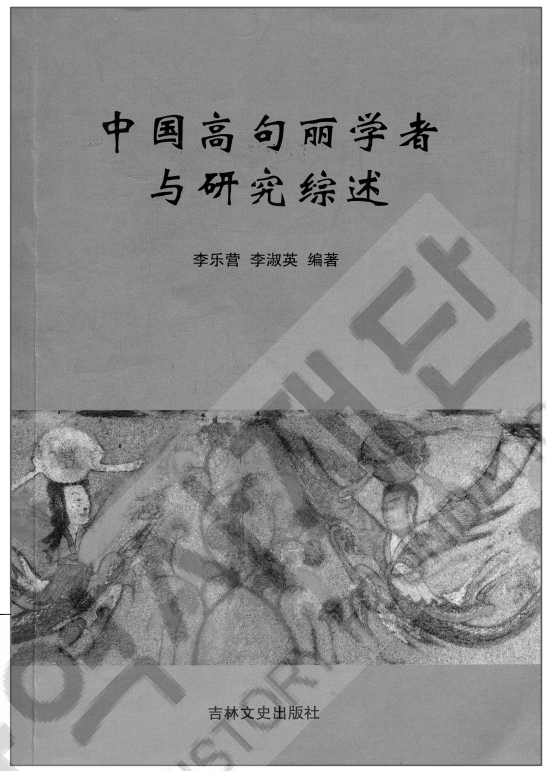
三、高句丽诸王在位时间考……（260）
（一）史书记载的分歧……（260）
（二）高句丽诸王及年代……（263）
四、高句丽复国活动考……（272）
（一）安舜复国活动及其失败……（272）
（二）宝藏复国活动及其失败……（276）
五、高句丽五部考……（279）
（一）高句丽五部的形成与地域……（279）
（二）五部地区文化遗址调查……（283）
（三）万发拨子遗址发掘……（285）
（四）五部的社会生活与经济生活……（287）

研究篇

一、高句丽考古研究评议……（291）
（一）中国的考古调查与发掘……（291）
（二）中国学者的考古研究……（302）
1. 高句丽古城研究……（303）
2. 高句丽古墓研究……（306）
3. 高句丽壁画研究……（309）
4. 好太王碑研究……（314）
5. 高句丽文物研究……（318）
6. 考古研究专著……（321）
（三）外国学者的考古研究……（323）
1. 朝鲜学者的研究……（323）
2. 日本学者的研究……（334）
二、中国学者的高句丽归属研究评析……（346）
（一）高句丽归属研究已成高句丽历史研究的热点之一……（346）

（二）高句丽归属研究仍需深化……（348）
（三）加强疆域理论研究应是当务之急……（362）
三、五代至明中国正史将高句丽写入王氏高句丽传、朝鲜传原因试析……（365）
（一）唐以前中国正史对高句丽的记载……（365）
（二）五代至明中国正史对高句丽和王氏高丽之间关系错误记载的演变过程……（375）
四、《三国史记》及其高句丽历史记述……（379）
（一）金富轼生平及其史学思想……（380）
（二）《三国史记》的编纂及其刊印……（389）
（三）《三国史记》的体例及其内容……（400）
（四）《三国史记》的高句丽历史记述……（405）
五、朝鲜学者孙永钟的高句丽历史研究评述……（412）
（一）孙永钟教授其人……（412）
（二）孙永钟著《高句丽史》三卷本评述……（415）
（三）孙永钟新著《高句丽史之诸问题》评述……（432）
（四）孙永钟的高句丽历史研究在朝鲜学界的地位与影响……（438）
六、韩国学界的高句丽研究评述——以白山学会与高句丽研究会为中心……（439）
（一）白山学会的沿革及其主要学术活动……（440）
（二）白山学会近年来关于高句丽历史的主要研究成果……（449）
（三）高句丽研究会的沿革及其主要学术活动……（454）
（四）高句丽研究会会刊《高句丽研究》1—11辑所载主要论文评述……（475）

后 记……（485）



中国高句丽学者与研究综述

李乐营·李淑英,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目　　录

前言 …… 1
上篇:中国学者高句丽研究综述 …… 1
一、历史文献资料研究 …… 1
二、高句丽历史研究 …… 7
三、高句丽考古研究 …… 51
四、古墓壁画研究 …… 75
五、好太王碑研究 …… 113
下篇:中国高句丽研究学者名录 …… 140
(按姓氏笔画排列)
三画:1、马大正 …… 140
2、马　彦 …… 142
四画:3、王仲殊 …… 143
4、王健群 …… 144
5、王承礼 …… 147
6、王绵厚 …… 148
7、王　侠 …… 153
8、王纯信 …… 154
9、王利群 …… 155
10、王洪峰 …… 157

· 1 ·

11、王培新 …… 158
12、王俊辉 …… 159
13、王晓南 …… 160
14、王禹浪 …… 161
15、王宏北 …… 162
16、王　纪 …… 162
17、王　臻 …… 163
18、方起东 …… 164
19、尹国有 …… 170
五画：20、冯永谦 …… 171
21、丛文俊 …… 172
22、宁会学 …… 173
六画：23、刘子敏 …… 174
24、刘厚生 …… 181
25、刘永智 …… 183
26、刘景文 …… 184
27、刘　炬 …… 185
28、刘萱堂 …… 187
29、孙玉良 …… 188
30、孙进己 …… 190
31、孙文范 …… 193
32、孙仁杰 …… 194
33、孙启林 …… 197
34、孙金花 …… 198
35、孙　力 …… 200

36、孙　泓 …… 201
37、朴真奭 …… 202
38、朴灿奎 …… 205
39、朴润武 …… 207
40、权赫秀 …… 208
七画：41、张博泉 …… 209
42、张碧波 …… 212
43、张福有 …… 215
44、张雪岩 …… 217
45、张志立 …… 219
46、张殿甲 …… 221
47、张　韬 …… 222
48、李健才 …… 223
49、李殿福 …… 225
50、李淑英 …… 229
51、李乐营 …… 231
52、李春祥 …… 233
53、李德山 …… 234
54、李大龙 …… 236
55、李晓钟 …… 238
56、李宗勋 …… 239
57、李新全 …… 240
58、李树林 …… 241
59、李正平 …… 242
60、杨保隆 …… 242

61、杨通方 …… 244
62、杨昭全 …… 245
63、杨春吉 …… 246
64、杨秀祖 …… 248
65、杨志红 …… 249
66、杨　军 …… 250
67、陈大为 …… 251
68、陈相伟 …… 252
69、佟　达 …… 254
70、辛占山 …… 255
71、宋福娟 …… 256
72、迟　勇 …… 257
73、何　明 …… 258
74、邵春华 …… 259
75、严长禄 …… 260
八画：76、罗继祖 …… 260
77、孟广耀 …… 261
78、苗　威 …… 263
79、周云台 …… 266
80、周荣顺 …… 267
81、周向永 …… 267
82、林至德 …… 271
83、郑永振 …… 273
84、金旭东 …… 274
85、武家昌 ……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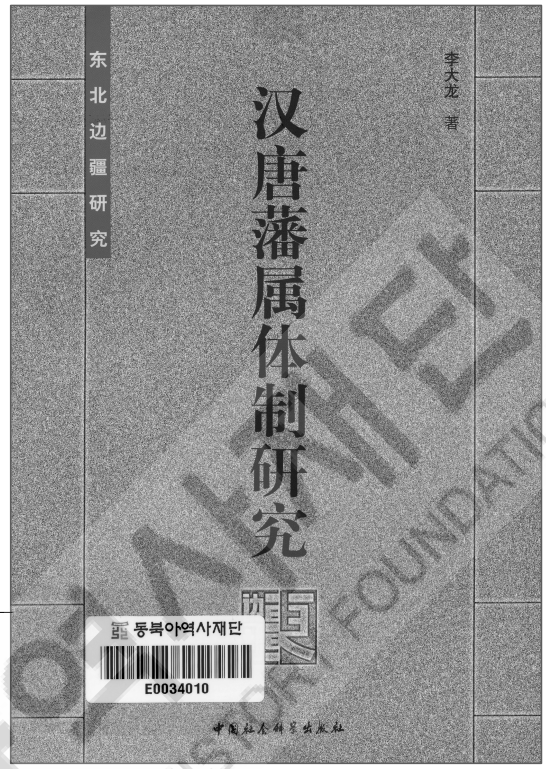
九画：86、柳　岚 …… 277
87、赵秉新 …… 279
88、赵永春 …… 280
89、赵书勤 …… 283
90、赵福香 …… 284
91、赵宏伟 …… 286
92、赵东艳 …… 287
93、姜孟山 …… 288
94、姜维公 …… 289
95、姜维东 …… 292
96、祝立业 …… 294
十画：97、顾铭学 …… 296
98、耿铁华 …… 297
99、高明士 …… 310
100、高福顺 …… 311
101、高远大 …… 313
102、徐德源 …… 313
103、徐家国 …… 316
104、徐建新 …… 317
105、徐光辉 …… 318
106、倪军民 …… 319
107、都兴智 …… 321
108、秦升阳 …… 322
109、秦维国 …… 323
十一画：110、黄甲元 …… 324

111、黄　斌 …… 325
112、曹德全 …… 326
113、梁志龙 …… 330
114、梁启政 …… 332
115、梁玉多 …… 333
116、阎毅之 …… 333
117、阎　海 …… 334
118、崔玉宽 …… 336
十二画：119、傅朗云 …… 337
120、傅佳欣 …… 338
121、曾宪姝 …… 340
122、韩　昇 …… 341
123、韩忠富 …… 342
124、董学增 …… 343
125、董长富 …… 344
126、董　峰 …… 344
127、温玉成 …… 345
十四画：128、滕红岩 …… 346
129、熊义民 …… 348
十八画：130、魏存成 …… 349
后记 …… 3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汉唐蕃属体制研究

李大龙，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



目　录

序　论 …… (1)

上　篇　两汉王朝藩属体制的构筑和维系

第一章　两汉王朝藩属观念的形成和发展 …… (3)
第一节　形成于先秦时期的服事制理论 …… (3)
一、先秦时期的天下观 …… (3)
二、先秦时期的夷夏观 …… (8)
三、服事制理论的确立和实施 …… (13)
第二节　两汉王朝藩属观念的形成和发展 …… (22)
一、服事制理论影响下的天下观 …… (23)
二、服事制理论影响下的夷夏观 …… (30)
三、藩属观念的形成和发展 …… (40)

第二章　西汉时期藩属体制的建立和维系 …… (56)
第一节　藩属体制的建立和发展：四种
类型边疆统治体系的确立 …… (56)
一、西汉王朝初期的藩属体制 …… (61)

二、“藩臣”、“外臣”向郡县制的转化 …… (71)
三、具有“自治”色彩的属国 …… (79)
四、特设管理机构统治区域的出现 …… (88)
五、外围藩属体制的构筑 …… (95)
第二节 西汉王朝藩属体制的维系 …… (105)
一、以朝贡册封体制为主的礼仪规范 …… (105)
二、管理机构的运作 …… (117)
三、朝廷的遥控和协调 …… (145)
四、边疆内地化政策的实施 …… (158)

第三章 王莽新朝藩属体制的调整 …… (162)
第一节 藩属体制的调整 …… (162)
一、“绝域殊俗，靡不慕义”的“实现” …… (162)
二、“改王为侯”政策的推行 …… (170)
第二节 藩属体制的瓦解 …… (179)
一、“久屯不攻”的平叛政策 …… (179)
二、藩属体制的瓦解 …… (184)

第四章 东汉王朝的藩属体制 …… (194)
第一节 东汉王朝的边疆形势与疆域形成 …… (194)
一、东汉王朝初期的边疆形势 …… (194)
二、东汉王朝疆域的形成 …… (200)
第二节 东汉王朝藩属体制的重建 …… (206)
一、郡县区域内藩属体制的建立 …… (207)
二、特设机构管理区域内藩属关系的建立 …… (219)
三、外围藩属区的建立 …… (225)
第三节 藩属关系的维系 …… (230)

一、以朝贡册封体制为主的礼仪制度 …… (230)
二、管理机构的完善 …… (239)
三、藩属之间关系的协调 …… (262)
四、边疆内地化政策的推广 …… (269)

下 篇 唐王朝藩属体制的构筑和维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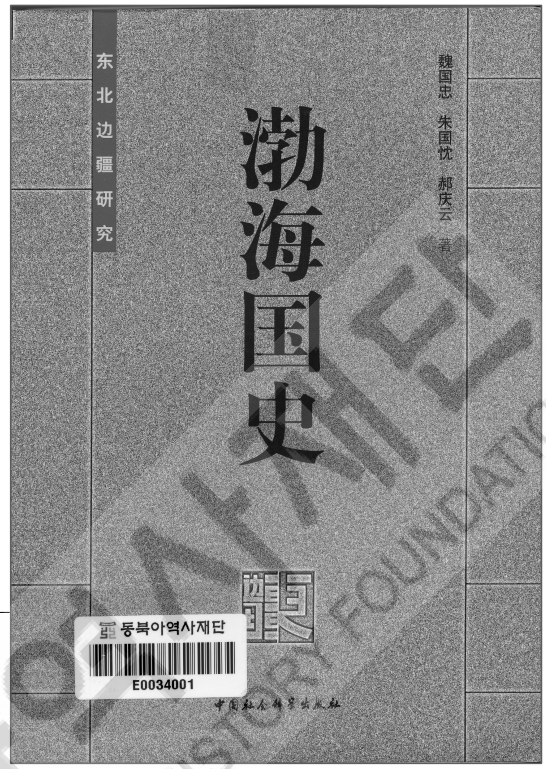
第一章 唐王朝藩属观念的形成和发展 …… (279)
第一节 唐王朝的天下观 …… (279)
一、有关概念的含义 …… (279)
二、唐王朝天下观的构成 …… (286)
第二节 唐王朝的夷夏观 …… (295)
一、魏晋南北朝时期传统夷夏观的变化 …… (295)
二、唐王朝对前代夷夏观的继承和发展 …… (302)
第三节 三层结构体系的藩属观念 …… (308)
一、藩臣体系 …… (309)
二、舅甥体系 …… (319)
三、敌国体系 …… (329)
第二章 唐王朝藩属体制的构筑 …… (334)
第一节 唐高祖、唐太宗时期藩属体制的初步形成 …… (334)
一、唐高祖时期的藩属体制 …… (334)
二、唐太宗时期藩属体制的初步形成 …… (341)
第二节 唐高宗至睿宗三朝时期藩属体制的基本定型 …… (377)
一、东北边疆地区藩属体制的完善 …… (377)
二、北方草原地区的羁縻府州化 …… (381)
三、西域藩属体制构筑的完成 …… (384)

四、南疆藩属体制的调整 …… (387)
第三节 则天朝至玄宗朝时期藩属体制的调整 …… (390)
一、唐与渤海藩属关系的建立 …… (390)
二、突厥汗国的重新崛起与北疆藩属管理体系的内缩 …… (394)
三、西域藩属体系的混乱和两大都护府的构建 …… (400)
四、不断冲突的唐蕃关系 …… (408)
五、南诏的崛起与西南藩属关系的变化 …… (413)
六、藩属管理体制的调整与藩镇的兴起 …… (417)
第四节 安史之乱后藩属体制的逐步衰败 …… (426)
一、东北藩属关系的衰落 …… (426)
二、唐与回纥藩属关系的勉强维持 …… (430)
三、西域藩属关系的丧失 …… (438)
四、唐与吐蕃“舅甥”关系的变化 …… (440)
五、唐与南诏藩属关系的重建和保持 …… (444)

第三章 唐王朝藩属体制的维系 …… (450)
第一节 礼仪制度在藩属体制维系中的作用 …… (450)
一、唐王朝对藩属边疆民族首领或使者的接待礼仪 …… (451)
二、与礼仪制度有关的机构设置 …… (458)
三、三种不同的礼仪制度 …… (465)
第二节 藩属管理体制的建立和运行 …… (477)
一、都护制度的建立和完善 …… (478)
二、都护制度在藩属体制运行中的作用 …… (482)
第三节 使者来往与藩属体制的运行 …… (489)
一、使者的种类 …… (490)

二、使者在藩属体制运行中的作用 …… (499)
第四节 册封、和亲与藩属关系的协调 …… (511)
一、册封与和亲政策涉及的藩属边疆民族 …… (511)
二、册封与和亲在协调藩属关系中的作用 …… (514)
第五节 维系藩属体制的最后手段：讨伐 …… (518)
一、藩属关系的调整与唐王朝的讨伐 …… (519)
二、藩属的反叛与唐王朝的讨伐 …… (521)
三、讨伐与各藩属之间关系的协调 …… (524)

余 论 …… (531)
主要参考书目 …… (536)
后 记 …… (538)



渤 海 国 史

魏国忠, 朱国忱,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年

目 录

序 一 …… 千志耿 (1)
序 二 …… 孙进己 (4)

第一章 靺鞨国的建立 …… (1)
第一节 高丽灭亡后东北地区的形势 …… (1)
一、靺鞨诸部的奔散与重新组合 …… (1)
二、契丹、室韦诸部的发展 …… (3)
第二节 营州之乱与靺鞨“东奔” …… (7)
一、契丹叛乱与营州陷落 …… (7)
二、当地靺鞨卷入叛乱 …… (10)
三、大祚荣的“东奔” …… (14)
四、“东奔”队伍的构成 …… (23)
五、“东奔”队伍的领导集团 …… (30)
第三节 靺鞨国的建立 …… (41)
一、“天门岭”东大败唐军 …… (41)
二、东牟山树壁自固 …… (44)
三、大祚荣建立靺鞨国 …… (48)

第二章 渤海国的发展与强大 …… (70)

第一节 高王的“创业” …… (70)
一、整顿内政与创立根基 …… (70)
二、“通于突厥”与结交新罗 …… (73)
三、接受“招慰”和册封 …… (74)
第二节 武王的武功 …… (80)
一、斥大土宇 征服邻部 …… (80)
二、北攻黑水靺鞨与门艺投唐 …… (83)
三、与唐朝廷的失和 …… (87)
四、东联日本 “亲仁结援” …… (90)
五、进攻登州与行刺门艺 …… (93)
六、同唐朝廷恢复和解 …… (97)
第三节 文王的“文治” …… (100)
一、偃武修文 锐意改革 …… (100)
二、事唐恭谨 全面唐化 …… (103)
三、中原大乱 严守中立 …… (105)
四、三迁其都与两次改元 …… (108)
五、扩大同日本的交流 …… (112)
六、晋封“国王”与五京之建 …… (120)
第四节 王室的动荡与宣王的中兴 …… (122)
一、宫廷政变与成王还都 …… (122)
二、康王之世“朝维依旧” …… (125)
三、定、僖、简诸王的短期统治 …… (130)
四、宣王仁秀入继大统 …… (135)
五、南定新罗与北略诸部 …… (137)
六、开置郡邑与对外交流 …… (139)
七、加强同唐朝的联系 …… (143)
第五节 “海东盛国”的到来 …… (145)

一、大彝震增置军政机构 …… (145)
二、与唐关系更加亲睦和好 …… (147)
三、同幽州的聘问 …… (149)
四、继续与日本交流 …… (150)
五、发展经济与“拟建宫阙” …… (153)
六、虔晃与玄锡之世及对日交聘 …… (156)
七、“海东盛国”时代的到来 …… (163)

第三章 辖域、区划和人口 …… (169)
第一节 地理环境与自然形势 …… (169)
第二节 辖域四至 …… (174)
一、靺鞨国时辖域 …… (174)
二、渤海前期辖域 …… (177)
三、渤海后期辖域 …… (181)
第三节 行政区划 …… (182)
第四节 所属诸部 …… (189)
第五节 人口状况 …… (194)
一、“靺鞨国”时期人口 …… (194)
二、渤海前期人口 …… (196)
三、全盛时期人口 …… (197)

第四章 民族源流与主体民族 …… (199)
第一节 渤海靺鞨先世 …… (199)
一、肃慎和挹娄 …… (199)
二、勿吉与靺鞨 …… (204)
第二节 粟末靺鞨的演变和发展 …… (208)
一、粟末靺鞨的由来与演变 …… (208)

二、隋时粟末靺鞨同高丽的斗争和迁徙 …… (211)
三、唐初营州地区的靺鞨人 …… (213)
第三节 民族构成与主体民族 …… (215)
一、渤海王国的民族构成 …… (215)
二、主体民族 …… (219)
第四节 “高丽别种”辨及其他 …… (234)
一、“高丽别种”不是高句丽人 …… (234)
二、“土人”与“士人”之辨 …… (240)

第五章 渤海政权的性质及其同唐朝的关系 …… (245)
第一节 接受册封与称藩于唐 …… (245)
一、历世诸王接受唐朝册封 …… (245)
二、确立臣属和藩封的地位 …… (252)
三、恪守藩礼 履行义务 …… (258)
第二节 接受押领与隶属于唐 …… (264)
一、忽汗州都督府的建置 …… (264)
二、接受边州长官的管领与节度 …… (267)
三、唐朝“长史”的派驻和监领 …… (281)
第三节 亲睦和好 车书一家 …… (284)
一、政治上的相互依赖 …… (284)
二、经济文化的交流与影响 …… (290)

第六章 统治机构与政治制度 …… (296)
第一节 中枢统治机构 …… (296)
一、三省、六部、十二司 …… (296)
二、诸台、寺、院、监、局、署 …… (306)
第二节 地方建制与部落体制 …… (312)

一、京、府、州、县与节度使司 …… (312)
二、基层政权与部落体制 …… (322)
第三节 军事、司法机构 …… (334)
一、军事机构及其职能 …… (334)
二、司法机构与审判机制 …… (338)
第四节 专制政体与高门政治 …… (342)
一、王权至上与专制政体 …… (342)
二、宗法、等级制度与右姓、高门政治 …… (346)

第七章 社会经济与社会制度 …… (354)
第一节 农业生产的巨大成就 …… (354)
第二节 手工业生产的重大发展 …… (364)
第三节 畜牧和渔猎业 …… (387)
第四节 商业与贸易 …… (391)
第五节 发达的水陆交通 …… (400)
第六节 社会结构与社会性质 …… (411)

第八章 渤海文化 …… (418)
第一节 儒学与教育 …… (418)
一、封建儒学与统治思想 …… (418)
二、政治思想与伦理道德 …… (423)
三、教育与宾贡 …… (429)
四、经籍图书与史学 …… (433)
第二节 宗教 …… (436)
一、萨满教、道教及其他 …… (436)
二、佛教及其传播 …… (440)
第三节 语言、文字与文学 …… (450)

一、语言与文字 …… (450)
二、文学与诗歌 …… (457)
三、谚语与传说 …… (462)
第四节 衣食住行与风俗习惯 …… (463)
一、衣食住行 …… (463)
二、生活习俗 …… (471)
第五节 文艺与体育 …… (476)
第六节 书法与美术 …… (483)
第七节 科学技术 …… (487)

第九章 渤海同周邻的关系 …… (494)
第一节 与邻近诸族关系的演变 …… (494)
一、“遣使交突厥” …… (494)
二、与契丹关系的演变 …… (497)
三、同室韦、回纥诸部的关系 …… (499)
四、与黑水靺鞨的关系 …… (502)
第二节 同新罗国的对峙 …… (504)
一、对峙的开始 …… (504)
二、长期的交恶 …… (504)
三、形势缓和与重开交涉 …… (507)
四、继续对抗与“争长”事件 …… (508)
五、“阴与新罗诸国结援” …… (510)
第三节 与日本国的通好 …… (512)
一、建交伊始 “亲仁结援” …… (512)
二、友好通聘 持续不断 …… (515)
三、一个必须澄清的是非问题 …… (522)
四、渤日交聘中的“旧高丽国”问题 …… (532)

五、一系列的外交纠纷和摩擦 …… (538)

第十章 渤海的灭亡与东丹的建立 …… (548)
第一节 渤海的衰落与灭亡 …… (548)
一、大諲譔在位时的急剧衰落 …… (548)
二、契丹的勃兴 …… (555)
三、渤海的灭亡 …… (556)
第二节 东丹国的始末 …… (561)
一、东丹的建立 …… (561)
二、东丹的政治体制 …… (563)
三、东丹与周邻的关系 …… (567)
四、东丹的内争与渤海遗民的南迁 …… (569)
五、耶律倍的出逃与东丹国的废除 …… (573)
第三节 渤海遗民的反辽斗争 …… (578)
一、渤海遗民的迁散与逃离 …… (578)
二、渤海残余势力的反辽斗争 …… (579)
三、定安国的反辽 …… (580)
四、燕颇起义与兀惹部的反抗 …… (583)
五、大延琳等人的“兴辽国” ……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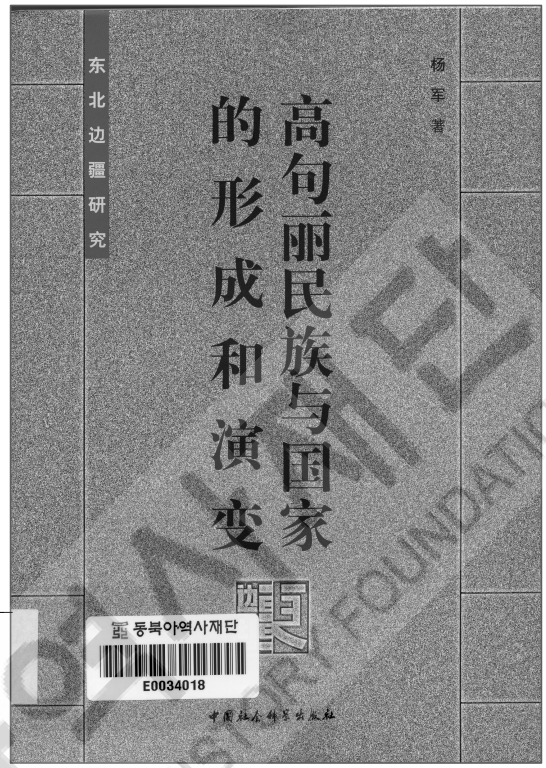
第十一章 渤海国的历史归属和历史地位 …… (589)
第一节 渤海国的历史归属 …… (589)
一、渤海政权是当时唐朝境内的国中之“国” …… (589)
二、渤海国的历史归属 …… (592)
三、“南北国”论纯系人为的杜撰 …… (594)
四、新罗与高丽从未视渤海为同族之国 …… (599)
第二节 渤海国在历史上的地位和作用 …… (601)

附 录
渤海与唐三省六部对照表 …… (607)
渤海纪年表 …… (608)
参考文献 …… (614)
后记 …… (6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句丽民族与国家的形成和演变

杨军,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　录

上篇　高句丽民族的形成与演变

第一章　与高句丽族居地相关的地域概念 …… (3)
第一节　朝鲜名义的演变 …… (4)
第二节　古朝鲜地域考 …… (15)
第三节　辽东名义考 …… (19)

第二章　高句丽族居地的原住民 …… (30)
第一节　鸟夷 …… (32)
第二节　东夷与九夷 …… (42)
第三节　秽国与秽人 …… (49)

第三章　前高句丽时期的民族融合（上）
——中原移民的影响 …… (58)
第一节　箕子东迁与良夷 …… (59)
第二节　华夏族移民 …… (70)
第三节　马韩与三韩 …… (79)

第四章 前高句丽时期的民族融合（下）
——蒙古草原移民的影响 …… (84)
第一节 貊系族源考 …… (85)
第二节 貊族东迁与秽貊族系的形成 …… (89)
第三节 夫余族源考 …… (93)

第五章 朱蒙所部迁入前的汉四郡民族格局 …… (100)
第一节 汉四郡的地理位置 …… (100)
第二节 乐浪郡的民族构成 …… (105)
第三节 玄菟郡的民族构成 …… (108)

第六章 高句丽族属溯源 …… (115)
第一节 柳花神话 …… (116)
第二节 高句丽名义考 …… (129)
第三节 从“别种”看高句丽的族源 …… (134)
第四节 高句丽族源 …… (139)

第七章 高句丽族的形成与演变 …… (150)
第一节 高句丽族形成的时间 …… (151)
第二节 高句丽族人口问题 …… (157)
第三节 高句丽族的流向 …… (165)

下篇 高句丽国家的形成与演变

第八章 前高句丽时期政治组织形式的演变 …… (173)
第一节 箕侯国的性质 …… (173)

第二节 “八条之教” …… (183)
第三节 箕侯国的演变 …… (194)
第四节 秽国 …… (197)
第五节 卫氏朝鲜 …… (200)
第六节 辰国 …… (205)
第七节 马韩国 …… (211)
第八节 “檀君朝鲜” …… (221)

第九章 郡县制对高句丽族居地的影响 …… (229)
第一节 苍海郡 …… (230)
第二节 汉四郡 …… (234)

第十章 高句丽五部的演变 …… (243)
第一节 五部与五族 …… (244)
第二节 五部的族源 …… (249)
第三节 五部的形成与演变 …… (255)

第十一章 高句丽中央官制的演变 …… (261)
第一节 五部官 …… (262)
第二节 早期中央官制 …… (267)
第三节 后期中央官制 …… (270)

第十二章 高句丽地方统治结构的演变 …… (275)
第一节 早期：军政合一的移民组织与领主制 …… (275)
第二节 中期：五部制与城邑制并行发展 …… (280)
第三节 后期：类似郡县制的地方统治结构 ……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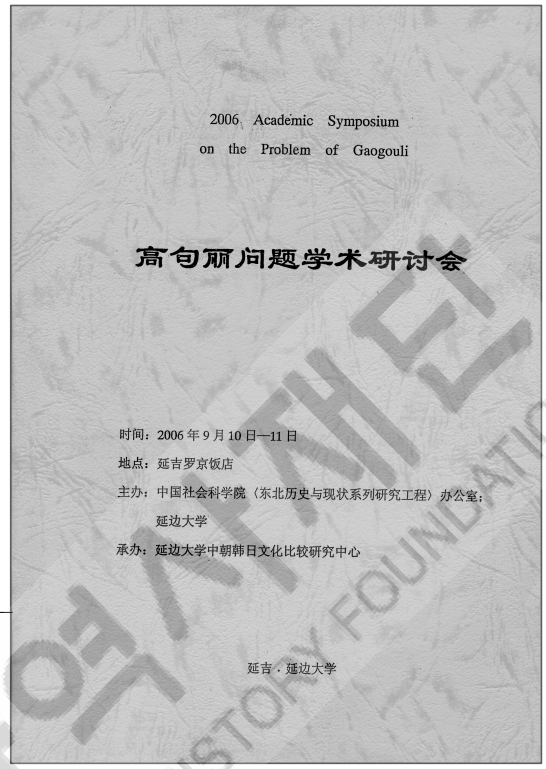
第十三章 高句丽国家的演变 …… (286)
第一节 高句丽前国家形态 …… (287)
第二节 高句丽早期国家 …… (291)
第三节 高句丽成熟国家 …… (297)

附 录：新罗建国时间新探 …… (302)
后 记 …… (3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句丽问题学术研讨会

延吉延边大学, 2006年


2006, Academic Symposium
on the Problem of Gaogouli

高句丽问题学术研讨会

时间：2006 年 9 月 10 日—11 日

地点：延吉罗京饭店

主办：中国社会科学院（东北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办公室；
延边大学

承办：延边大学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中心

延吉 · 延边大学

目 录

一、2006 年“高句丽问题学术讨论会”参会学者名单……4
二、2006 年“高句丽问题学术讨论会”参会论文……5
第一部分：高句丽史认识方法论……5
1、 孙进己 确定历史归属的意义和依据……6
2、 朴灿奎 中韩学界的高句丽历史认识，问题在哪里？…11
第二部分：高句丽史认识方法论及研究评述……20
3、 刘子敏 “一史两用”认识论谈
——兼说高句丽在朝鲜史中的地位……21
4、 李宗勋 关于韩国的“东北亚历史财团”……30
5、 耿铁华 国外学者对高句丽古墓壁画的研究……35
6、 孙 泓 中国学者高句丽归属研究综述……48
第三部分：高句丽早期历史……82
7、 朴真奭 关于两个高句丽理论的初步意见……83
8、 李大龙 高句丽与东汉王朝战事杂考
——以《三国史记·高句丽本记》的记载为中心……105
9、 姜维公、姜维东 高句丽、百济起源新论……112
第四部分：高句丽政治……119
10、 李德山 试论唐朝初年的唐丽关系……120
11、 刘 矩 高句丽三权并存制研究……1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주요 연구논문

(1)『东疆学刊』(04년 1기~07년 4기)

金强一	2004 1	中国朝鲜族社会的文化资源和发展的文化战略(1)
李梅花	2004 1	10-13世纪中朝日文化交流与东亚文化圈
李虎	2004 1	中朝日三国早期西学对应及其比较
李华锋	2004 1	论中国外交观的传统文化渊源
金强一	2004 2	中国朝鲜族社会的文化资源和发展的文化战略(2)
黄美子 禹尚烈	2004 2	朝鲜燕行使与中国琉璃厉
苗威	2004 2	『中韩关系史(古代卷)』引注文献订讹
李爱淑	2004 2	解放后中国朝鲜文刊物的发展历史概况
王臻, 刘玉	2004 3	关于朝鲜与明代建州女真关系研究的理性思考
金强一	2004 3	鲜族社会人口流动和集居地空洞化问题的对策研究
张增香	2004 3	浅谈古代中国对朝鲜的影向
李岩	2004 4	朝鲜古代名谣『箜篌引』存疑续考
金洪培	2004 4	壬辰倭乱与朝鲜朱子学的东渐
屈广燕	2004 4	高丽忠宣王与中峰和尚的交流
刘广铭	2004 4	『建州纪程图记』中的女真人形象
蔡美花	2004 4	延边朝鲜族中小学教育现状调查研究
李苏平	2005 1	试论李栗谷的理气观
徐健顺	2005 1	论《三国史记》对原典的改造与儒家思想观念
马金科	2005 1	“海东江西诗派”概念小考
林立娟	2005 1	俄罗斯饮食文化
李得春	2005 1	韩国汉字音韵系统的几个特征
南日	2005 1	朝鲜语“V+버리다”与汉语“V+下来”的对比
姜智红	2005 1	全球化进程中中国文明透析
曾肖	2005 1	辽代文化与政治述论
[韩]张闰洙著, 潘畅和译	2005 2	近百年来韩国儒学研究的特征
李英顺	2005 2	试述唐朝与新罗文化的交流及影响
禹尚烈	2005 2	《三国史记》、《三国遗事》之梦的解析
陈艳飞	2005 2	关于“中华民族”的语境含义研究
李健才	2005 3	关于汉代替 余王城几个问题的探讨
史未央	2005 3	高句丽与百济新罗的争霸

耿铁华	2005 3	晋封高句丽官印考略
冯永谦	2005 3	界壕与长城论辩三题（下）
杨昭全	2005 3	清政府对朝鲜垦民的“薙发易服”人籍政策
王景泽	2005 3	《中国东北边疆史》序言
魏国忠 俞源	2005 3	论我国抗日战争始于黑龙江省的江桥之战
张军	2005 3	箕子朝鲜研究二题
赵红梅	2005 3	封贡体制下的夫余
李成 张秀芬	2005 3	靺鞨诸部与肃慎后裔
章永俊	2005 3	鸦片战争前后边疆史地学者的治边思想与实践
权赫秀	2005 3	朝鲜北部发现一座渤海时期壁画墓
田丽梅 吕长发	2005 3	吉林省博物院历史馆藏贝币及其相关问题
张福有	2005 3	吉林市南城子遗址调查小记
张福有 赵振华	2005 4	洛阳、西安出土北魏与唐高句丽人墓志及泉氏墓地
李健才	2005 4	唐代泉氏家族墓地不在集安在洛阳令人信服
李殿福	2005 4	高句丽族有回葬旧茔之习俗集安五盔坟应为王陵
耿铁华	2005 4	高句丽泉氏墓地调查及其价值
孙仁杰	2005 4	从泉氏墓志墓地看高句丽的回葬
梁志龙	2005 4	泉氏家族世系及其事事略
陈淘然	2005 4	关于高句丽好太王征服东夫余的几个问题
杨晓军	2005 4	清末东北建制述论
张仲华	2005 4	浅谈如何利用区域性资源搞好地方中小型博物馆的陈列工作
程彦唐	2005 4	陈云在东北
卓昕	2005 4	杨靖宇奉命来东北的时间质疑
赵友三	2005 4	松花江源流散记
李英顺，金成镐	2006 1	试论洪大容的实学思想
何永波	2006 1	李朝末期汉诗家申纬
安龙祯	2006 1	试谈长白山文化的渊源与发展
魏学辉	2006 1	浅析中原壁画对高句丽壁画之影响
蔡美花	2006 1	朝鲜高丽文学的审美理想与追求
郝春燕	2006 1	回归历史本位,重审文学危机
金雄	2006 1	中韩企业教育培训比较分析及启示
金柄珉	2006 2	东北亚文化与东北亚经济
李英顺，潘畅和	2006 2	试论清代实学与朴齐家的实学思想
周进，于涛	2006 2	隋、初唐时期中国、朝鲜半岛、日本佛教状况之分析
倪文波	2006 2	论崔志远的道教思想
徐健顺	2006 2	朝鲜早期史书辨析
黄龙国	2006 2	朝鲜义勇军的活动与中国朝鲜族历史的联系

朴成日	2006 2	韩国基础教育信息化动向分析
吴千石	2006 2	日本帝国主义对中国朝鲜族奴化教育体系的形成过程
李得春，刘娟	2006 3	韩国学和中国的韩国学
李官福	2006 3	佛经故事与中韩两国的“高僧与美女故事”
苗威	2006 3	檀君神话的文化解析
袁晓春	2006 3	对山东蓬莱发现高丽青瓷的思索
崔一	2006 3	殖民地语境下韩国现代作家的“东北”形象
吕秀一	2006 3	简论“九·一八”事变前日本对东北朝鲜人的国籍政策
金柄珉	2006 4	东北亚文化:一体多元互动整合
李虎	2006 4	东亚三国近代文化选择与成因考述
温兆海	2006 4	清代中朝文化交流的历史视阈 — 以乾嘉时期为中心
谭红梅	2006 4	《三国演义》在朝鲜广为流传之原因
朴延华，李英子	2006 4	试论庆源李氏家族与高丽贵族政治的关系
金锦子	2006 4	论百济与北魏的关系 — 以百济的上表文为中心
孙春日，沈英淑	2006 4	论我国朝鲜族加入中华民族大家庭的历史过程
朴婷姬	2006 4	朝鲜族社会家庭结构变迁与性别平等研究
庄秀芬	2006 4	论许兰雪轩的自我艺术形象
邹志远	2006 4	对朝鲜古代诗学研究范围中的“李睟光”名字的考证
金柄珉	2007 1	儒学文化:东北亚的不解之缘
李岩	2007 1	朴趾源《热河日记》的北学意识和实业方略
于春海，曹春茹	2007 1	许筠人物传中的叛逆思想
李昌善	2007 1	构建东北亚文化共同体浅论
周进，于涛	2007 1	论中国佛教宗派对朝鲜半岛、日本的传播和影响
黄贞姬	2007 1	韩国语汉字词研究综述
李秀莲	2007 1	历史性视阈下的中韩民歌
李英武	2007 1	实施创新教育造就创新人才 — 21世纪东亚国家教育改革展望
高斌，孙英杰	2007 1	延边地区中小企业发展问题及战略研究
汤継伦，芦刚	2007 1	韩国新村运动对我国农村人力资源开发的启示
朴键一	2007 2	朝鲜半岛核问题与新世纪中国外交
金柄珉	2007 2	东北亚文化与东北亚文学
陈放，李宗勋	2007 2	东北亚文化与东北亚历史
陈维新	2007 2	东北亚文化与东北亚哲学
崔雄权	2007 2	接受的先声:陶渊明形象在韩国的登陆
村上恒夫，栾兆玉	2007 2	寻找儒学者姜沆的足迹
高恒天	2007 2	秦汉时代东夷之道德生活
邱安昌	2007 2	东北老工业基地“全民创业型社会与文化”发展体系建构

朴永浩	2007 2	解读韩国政府治理腐败方略
李得春，金光洙	2007 3	略论《老乞大》系列版本
〈韩〉申玹丞	2007 3	试论韩国的信息网络犯罪及相关文化政策
李斌斌，李虎	2007 3	论朝鲜朱子学初期形成特点及其演变
邹志远	2007 3	朝鲜李睟光哲学思想与文学思想 — 李睟光“实学”思想论质疑
李梅花	2007 3	宋丽使节往来与文化交流
郑辉	2007 3	明清琉球来华留学生对琉球文教事业的贡献
闫红艳	2007 3	西王母及其神话流变的深刻内涵
姜龙范	2007 3	朝核问题与中国的战略选择
金仁权	2007 3	退溪与奇明彦四端七情之辩及其意义
金柄珉，朴泰洙	2007 3	教师教育国际化的几点思考 — 以中国朝鲜族教师教育为中心
聂鸿英	2007 3	多元文化融合催生全球汉语热情况下语言教学的新思路 — 对韩国人的HSK教学的思考
杨学利	2007 3	大力发展现代物流业促进图们江地区的开发开放
金美淑	2007 4	合内外之心 成巩固之业－－读《历史与民族－－中国边疆的政治、社会和文化》
金柄珉	2007 4	东北亚文化研究
金洪培 黄文日	2007 4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李宗勋 张晓宇	2007 4	中韩日三国语言文化比较－－以一般性特点及历史视角为中心
全信子	2007 4	关于朝鲜族女性涉外婚姻基本模式的探讨－－以嫁到韩国的朝鲜族女性为个案研究
刘延祥	2007 4	李奎报散文中的民族意识探微

(2)『东北史地』(04년 1기 ~07년 4기)

邓凯	2004 1	在'纪念高句丽迁都国内城(集安)2000周年暨第三届全国高句丽学术研讨会'上的讲话
马大正	2004 1	中国学者的高句丽归属研究评析
孙玉良 孙文范	2004 1	高句丽向朝鲜半岛扩张始末
魏存成	2004 1	高句丽政权的建立与发展
李殿福	2004 1	高句丽的都城
李健才	2004 1	关于高句丽中期都城几个问题的探讨
耿铁华	2004 1	高句丽迁都国内城及相关问题
张福有	2004 1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识读
王绵厚	2004 1	关于确认高句丽历史地位的三要素
方起东	2004 1	好太王碑碑文解说
从文俊	2004 1	好太王碑书法及其常关问题略论
王绮 王纯信	2004 1	高句丽鎏金镂空马饰图案艺术解析
东北史地评论员	2004 2	以求真务实精神搞好东北史地研究
厉声 李方	2004 2	隋唐征伐 高句丽刍议
耿铁华	2004 2	集安作为高句丽都城的考古学证明
刘子敏	2004 2	关于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

赵红梅	2004 2	关于古代中朝边界北移的考述
方起东	2004 2	好太王碑释读一见
王从安 纪飞	2004 2	卒本城何在
张碧波	2004 2	中国高句丽史研究的新收获: 评耿铁华著『中国高句丽史』
	2004 2	着眼史料建设 惠及学界同仁- 谈『三国史记』『三国遗事』两书的出版
姜维公	2004 3	历代汉族移民对高句丽经济的影向
李成 张淑华	2004 3	高句丽货币经济研究
姜守鹏	2004 3	清代东北建制的特点
赵永春	2004 3	关于中国古代民族内外迁徙及其归属问题
传朗云	2004 3	东北边疆历史分期急议
李新全/梁志龙/王俊辉	2004 3	关于高句丽座土城的一点思考
李德山	2004 3	简论建国以来东北古文献的整理与研究
徐德源	2004 3	好太王碑铭文三个地名今址考析
安龙祯	2004 3	关于毛口崴渤海盐州的历史地位与作用
高於茂	2004 3	沸流国探秘
秋实	2004 3	学术研究要带有使命感和责任感-谈『高句丽历史知识』的出版
张福有	2004 4	高句丽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即国之东北大镇— 新城
吉林省长白山文化研究会 集安市博物馆	2004 4	集安良民高句丽遗迹调查
祝立业	2004 4	简论唐丽战争中的唐罗同盟与丽济同盟问题
程尼娜	2004 4	元朝对东北地区高丽人统辖探析
宁会学	2004 4	桓仁米仓沟将军墓所葬何人
唐 戈	2004 4	19世纪末叶以来俄罗斯文化在东北地区北部-传播的地理人类学研究
傅朗云	2004 4	东北边疆历史分期当议(续)
张未民	2004 4	东北论 — 中国时空感知下的东北(上)
魏存成	2004 4	读《高句丽古城研究》
权赫秀	2004 4	殊途未必同归存异或可求真-读中韩学界两部高句丽史研究最新代表作
李健才	2004 5	东北地区的元代遗迹遗物综述
王绵厚	2004 5	先秦时期中国东北三大土著族系及考古遗存新论
吉林省长白山文化研究会白山市文管办集安市博物馆	2004 5	鸭绿江上游右岸考古调查
张福有	2004 5	高句丽平壤东黄城考
杨 军	2004 5	高句丽名义考
刘 炬	2004 5	论中国历史上少数民族政权性质的界定标准 – 兼谈高句丽政权的性质
姜维东	2004 5	论中原王朝对高句丽政策的思想基础
邵蔚风	2004 5	夫余问题初探
张未民	2004 5	东北论 — 中国时空感知下的东北(下)
张碧波	2004 6	关于渤海史研究的几点思考

李健才	2004 6	再论高句丽迁都到国内以前有无汉代县城的问题
都兴智	2004 6	关于高句丽史研究中的几个问题
周向永	2004 6	从□统升骨到国内城：人地关系的历史思考
南 珊	2004 6	中国东北史研究的回顾与展望 — 访著名东北史研究专家李健才先生
薛海波	2004 6	试论两汉魏晋时期的玄□菇郡
苗 威	2004 6	乐浪郡与“三韩”
梁启政	2004 6	略述中外学者对好太王碑未记载好太王时期高句丽攻略辽东一事的研究
宋伟宏	2004 6	伪满洲国规划的新皇宫
本刊评论员	2004 7	深化对东北地区世界遗产的研究
耿铁华	2004 7	高句丽遗迹列入《世界遗产名录》与高句丽历史归属问题
刘子敏	2004 7	“高句丽县”研究
秦升阳	2004 7	高句丽王城、王陵及贵族墓葬
徐德源	2004 7	论韩国学者李丙焘先生历史地理考证的两项错误
王德忠	2004 7	日本旧东洋史学关于中国东北历史研究的发展历程
董学增	2004 7	吉林市历史与文物回眸
刘 贤	2004 7	长白山人参栽培史小考
苗 威 刘子敏	2004 8	箕氏朝鲜研究
张增香	2004 8	有关箕子朝鲜的几个问题新探
王德厚	2004 8	渤海史研究之管见
杨雨舒	2004 8	渤海国与唐朝关系述略
高福顺	2004 8	高句丽官制中的“加”
金延龄	2004 8	也谈高句丽民族的起源
张志勇	2004 8	辽朝选任官吏的方式考述
孙仁杰	2004 9	洞沟高句丽墓地的分布与排列研究
杨志红	2004 9	浅析乙支文德对隋军的军事策略
朱凌	2004 9	论1909年以前延珲地区越垦朝鲜流民入籍问题
黄岚	2004 9	从考古学看高句丽民族的饮食习俗
张林 许洪波	2004 10	历代中原王朝的“外患”与北方地理环境因素初探
姜维公	2004 10	从古代假发的盛行看新罗所贡人发的用处
赵玉敏	2004 10	好太王碑载高句丽族源神话考
本刊评论员	2004 11	深化长白山文化研究
王成国	2004 11	东北古代民族史研究的几个问题
高福顺	2004 11	东北古代民族发展的基本特征
崔顺子 孙学宝	2004 11	渤海“日本道”和珲春地区的开发
朴锺锦	2004 11	近世中朝界务交涉焦点述论
刘厚生	2004 11	关于长白山文化若干问题的思考
高於茂 朱明俐	2004 11	试论长白山诗词及其流派
朱立春	2004 11	北方民族萨满文化的演变

麻铃	2004 12	辽,金与高丽的战争
孙泓	2004 12	高句丽文化的主体
卑琳	2004 12	高句丽城址出土陶器研究
姜维东	2004 12	中原王朝对高句丽的封册制度研究
郑春颖	2004 12	浅谈正史〈高句丽传〉的设立
田子馥	2005 1	中国长白山文化本原论
张碧波	2005 1	从百济、高句丽来国到渤海建国-公元663～713年间东北亚政治格局走向历史解读
富育光	2005 1	再论满族传统说部艺术"乌勒本"
王德忠	2005 1	历史上东北开发低水平徘徊原因之探讨
赵永春	2005 1	"炎黄子孙"与中华各族心理认同
梁志龙	2005 1	也说三韩
秦升阳 李乐莹	2005 1	高句丽自然宗教信仰活动及俗制的解析
王臻	2005 1	高句丽同新罗、百济的战和关系
沈燕	2005 1	伪满《时局诏书》剖析
尹铉哲 李硕	2005 1	渤海国与"丝绸之路"
陈福顺	2005 1	"猫冬"我国北方及长白山地区经济发展迟缓的障碍
李龙彬	2005 1	石台子山城
蒋力华	2005 1	国之瑰宝当恒久宝之-《大清国宝·松花石砚》简评
高广滨	2005 1	丹心碧血照古今-记《民族精魂杨靖宇年谱》
王永君	2005 1	一部开拓求实的党史军史著作读《毛泽东与东北解放战争》
郭渊	2005 1	"杨靖宇精神"永放光芒
李德山	2005 1	东陲考察纪行
冯永谦	2005 2	界壕与长城论辩三题（上）
姜维公	2005 2	颜延之《赭白马赋》本事考
刘炬	2005 2	论唐朝与新罗的联盟关系
杨雨舒	2005 2	浅议辽朝对吉林的经略
贾辉	2005 2	辽宁省北宁市出土万枚北宋古钱币后的新发现
李淑娟	2005 2	日伪统治时期东北农村特殊村落透视
曲奎一斑	2005 2	伪满洲国第一大案-从凌升之死看日本军国主义在东北的殖民统治
宋伟宏	2005 2	伪满建国神庙述论
彭晶	2005 2	清政府对东北地区中朝贡道的管理
刘荆	2005 2	日俄战后清廷对东北的政策
南珊	2005 2	汉文化对东北各民族的凝聚作用-田子馥先生访谈录
王松林	2005 2	太阳文化带与萨满文化圈
刘彦臣 张爽	2005 2	长白山崇石习俗探析
汪玢玲 陶理	2005 2	清代女词人顾太清
郎伯君 李今锡	2005 2	吴大澂与"龙虎"石刻
孙文采	2005 2	长白山木帮习俗

李健才	2005 3	关于汉代替 余王城几个问题的探讨
史未央	2005 3	高句丽与百济新罗的争霸
耿铁华	2005 3	晋封高句丽官印考略
冯永谦	2005 3	界壕与长城论辩三题（下）
杨昭全	2005 3	清政府对朝鲜垦民的“薙发易服”人籍政策
王景泽	2005 3	《中国东北边疆史》序言
魏国忠 俞源	2005 3	论我国抗日战争始于黑龙江省的江桥之战
张军	2005 3	箕子朝鲜研究二题
赵红梅	2005 3	封贡体制下的夫余
李成 张秀芬	2005 3	靺鞨诸部与肃慎后裔
消瑶	2005 3	“南戚北李”起落探因
章永俊	2005 3	鸦片战争前后边疆史地学者的治边思想与实践
张淑贤	2005 3	沙俄对中国东北矿产的掠夺
王文锋	2005 3	伪满政权建立前后的张景惠与马占山
刘建华	2005 3	溥仪与汤岗子温泉
于济源	2005 3	“九·一八”拾遗
权赫秀	2005 3	朝鲜北部发现一座渤海时期壁画墓
田丽梅 吕长发	2005 3	吉林省博物院历史馆藏贝币及其相关问题
王梅	2005 3	旅顺博物馆征集的一件清代青华将军罐
张福有	2005 3	吉林市南城子遗址调查小记
张福有 赵振华	2005 4	洛阳、西安出土北魏与唐高句丽人墓志及泉氏墓地
李健才	2005 4	唐代泉氏家族墓地不在集安在洛阳令人信服
李殿福	2005 4	高句丽族有回葬旧茔之习俗集安五盔坟应为王陵
耿铁华	2005 4	高句丽泉氏墓地调查及其价值
孙仁杰	2005 4	从泉氏墓志墓地看高句丽的回葬
梁志龙	2005 4	泉氏家族世系及其事事略
陈淘然	2005 4	关于高句丽好太王征服东夫余的几个问题
曲淑华	2005 4	试论金代的地方治安管理
杨晓军	2005 4	清末东北建制述论
张正	2005 4	论辛亥革命与哈尔滨地区的社会进步
刘贤	2005 4	东北抗联在世界反法西斯战争中的地位和作用
张仲华	2005 4	浅谈如何利用区域性资源搞好地方中小型博物馆的陈列工作
程彦唐	2005 4	陈云在东北
卓昕	2005 4	杨靖宇奉命来东北的时间质疑
赵友三	2005 4	松花江源流散记
徐德源	2005 5	汉字标记高句丽语语间地名字词汉译选释
武玉环	2005 5	辽金时期的萨满教
杨旸	2005 5	明代奴儿干永宁寺碑研究的诸问题论辩

刘子敏	2005 5	论“明夷”不是“朝鲜”以解读《周易》“明夷”卦为中心
周向永	2005 5	明夷·朝夷及其相关问题探讨
祝立业	2005 5	从“王国五部化”走向“五部一体化”的发展历程兼论高句丽王权与部权的消长
王纪	2005 5	高句丽壁画绘制技艺解析与临摹技术法研究
陈鹏 陈琳	2005 5	高句丽文化归属于中国东北“汉文化圈”
王成国	2005 5	略论渤海国高氏
吴雪娟	2005 5	康熙年间三份《大清一统志》黑龙江分省资料
杨明谷	2005 5	敦化是清皇室发祥地鄂多里城之所在地
陈洁	2005 5	清代吉林城的形成因素
李倩	2005 5	“九·一八”事变与吉林沦陷
金旭东 傅佳欣	2005 5	艰辛的历程 闪光的足迹方起东先生与吉林考古
陈相伟 刘萱堂	2005 5	不尽的思念追忆方起东同志
耿铁华	2005 5	方起东先生对高句丽考古研究的贡献
梁志龙	2005 5	怀念方起东先生
张福有	2005 5	跟方起东先生学写古文章
胡黎霞	2005 5	高句丽遗址的历史文化旅游价值与旅游文化教育的思考
王绵厚	2005 6	西汉时期的高句丽“五部”与“第二玄菟郡”－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若干问题之三
姜维公 许立勋	2005 6	从『三国史记·新罗本纪』看金富轼对海东三国系年的按排－以高句丽建国时间为中心
程尼娜	2005 6	辽代渤海人地区的东丹国探析
刘肃勇	2005 6	金世宗北防靺鞨部族策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馆	2005 6	洞沟古墓群禹山墓区JYM3319号墓发掘报告
刘素云	2005 6	高句丽的发祥地－卒本川当今何地?
鸿鹄	2005 6	高句丽国相制度研究
华阳	2005 6	浅析褥萨的产生
李英顺	2005 6	从『三国史记』的记载看东北亚古族古国的“事大”理念
蒋戎	2005 6	元朝“天下一家”的治边思想及其对东北地区的影响
王剑	2005 6	俄罗斯东侵与清初东北的地区安全
王雪梅	2005 6	试述光绪年间蜂蜜山地区的土地招垦政策
宋慧娟 许莉莉	2005 6	从使臣别单看朝鲜对中国清代东北的关注
赵兴元	2005 6	清代移住图们江北的朝鲜移民
宋健	2005 6	清代朝鲜移民的迁入与东北边疆的开发
何青志	2005 6	“天人合一”观对东北文化的影响
朱立春	2005 6	对东北原始文化的一种全新解读－简评郭淑云的『多维学术视野中的萨满文化』
刘奉文	2005 6	松花石砚研究中的若干问题探讨
安龙祯	2005 6	长白山西北坡踏查记
李治亭	2006 1	论东北地区的战略地位
张碧波	2006 1	朝鲜半岛古文化渊源的考察

张福有 孙仁杰 迟勇	2006 1	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崚”字考
杨军	2006 1	渤海早期国号考
苗威	2006 1	关于“古之辰国”的再探讨
刘伟	2006 1	儒家思想在高句丽前期的传播原因及影响
杨雨舒	2006 1	辽代吉林经济发展概述
滦凡 杜燕萍	2006 1	明代女真的集聚与整合
刁书仁 史桂荣	2006 1	20世纪韩国,朝鲜,日本对古代中朝关系史研究成果概述
于济源	2006 1	海东渔俗采珍
徐德源	2006 2	汉乐浪郡属县令地考定质疑
张福有 孙仁杰迟勇	2006 2	豆谷,豆谷离宫及琉璃明王陵
朱国沈 朱威	2006 2	关于渤海石灯幢
赵永春 玄花	2006 2	“保州”问题与辽丽关系
于波	2006 2	汉文化对高句丽文化的影响
杨秀祖	2006 2	渤海政权建立的几个问题
宋卿	2006 2	唐代东北羁縻府州朝贡述论
高福顺 张爽	2006 2	金末蒙初大辽收国的建立及其灭亡
王雁	2006 2	女真首领李满住在鸭绿江流域的活动
阎光亮	2006 2	清代鸭绿江流域实行封禁的原因
张翠敏	2006 2	论双砣子第三期文化在黄渤海沿岸地理分布上的差异
韩翠花	2006 2	一部研究中,朝关系史的珍贵资料－《同文汇考》中朝史料 评介
蔡宏 李爱华	2006 2	“伪满洲国”时的吉林方志
朱晓东 高文俊	2006 2	日,韩学者对《三国史记》的研究
王丛安 王俊辉 赵金付	2006 2	沸流王故地在桓仁
李殿福	2006 3	国内城始建于战国晚期燕国辽东郡塞外的一个据点之上
张福有 迟勇 孙仁杰	2006 3	集安髙子沟墓地调查与东川王陵考
李德山	2006 3	再论高句丽民族的起源
史长乐	2006 3	曾巩对高丽世次十问
杨 旸	2006 3	永宁寺碑文铭刻的奴儿干都司与黑龙江下游,库页岛的先居民族关系
杜家骥	2006 3	《他塔喇氏家谱》及其所反映的清代东北驻防旗人家族
梁玉多 魏国忠	2006 3	渤海国号初称“靺鞨”考
陈陶然	2006 3	浅析渤海王族大氏的族源
薛海波	2006 3	试论宣王大仁秀与渤海国的中兴
郑 毅	2006 3	辽朝“国制”成因探考
蒋金玲	2006 3	辽代救灾与抗灾措施研究
赵玉田 邵国莉	2006 3	试论明初和平统一东北之战略
郝庆云	2006 3	赫哲族研究的历史与现状
姜小莉 郭殿华	2006 3	“韩边外”兴起与作用探析
施立学	2006 3	吉林地名与地域文化

陈福顺 孙文采	2006 3	长白山貂俗研究
李大龙	2006 4	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几个问题
刘子敏	2006 4	关于高句丽第一次迁都问题的探讨
耿铁华	2006 4	潘祖荫藏好太王碑早期拓本刍议
冯尔康	2006 4	由清代满族文化特性想到民族文化与外来文化关系
安龙祯	2006 4	试论渤海国与日本的友好交往
孙 明	2006 4	叶赫王城与哈达王城建制的比较研究
王颖超	2006 4	清代封禁政策对辽西农业经济及习俗的影响
陈 鹏	2006 4	试述清政府对黑龙江流域边民实行的贡貂与赏鸟林制度
唐 戈	2006 4	十字架与敖包,神树:人类学比较研究
闫 超	2006 4	从萨满教的崇拜看其生态环保因素
杜 晶	2006 4	清代满族文化浅谈
大连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4	大连城山山城2005年调查报告
任海滨 王广义	2006 4	东北地方志与东北史地研究
李健才	2006 4	喜读长春地方文化建设的最新成果－《长春厅志·长春县志》和《长春资料选编》
于济源	2006 4	琐谈东北大白鱼
李仁志 田月华 李训良	2006 4	辽西金代考桥考
高振环	2006 4	康熙和长白山: 历史的对话
徐德源	2006 5	关于朝鲜历史地理研究中若干问题的解误
杨军	2006 5	高句丽人口问题研究
李世愉	2006 5	试论自然灾害对清代科举制度的影响
张福有	2006 5	集安出土赵国阳安君青铜短剑及相关问题再探
赵振华	2006 5	北宋杨畏妻王氏墓志与王彦英相国新罗
王昭	2006 5	集安出土青铜车辖的初步讨论
蒋戎	2006 5	东汉时期"柔道行之"治边思想及其在东北地区的影响
孙倩	2006 5	近年来渤海与日本关系研究综述
潘丹丹	2006 5	试论辽朝"治契丹与诸夷之法"
滦凡	2006 5	红巾军东渡鸭绿江及其社会影响
赵兴元	2006 5	从"犯越"到垦居－19世纪60年代朝鲜边民偷越图们江性质的变化
薛海波	2006 5	评宋德金先生的《辽金论稿》
崔世浩 刘艳红	2006 5	金州古城略考
于文萍	2006 5	爱国志士韩登举事略
王绵厚	2006 6	辽东"貊系"青铜文化的重要遗迹及其向高句丽早期文化的传承演变－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若干问题之四
史长乐	2006 6	王建为何定国号为高丽
耿铁华	2006 6	跋高句丽金铜佛造像
姜维公	2006 6	从传统民族观与正史体例来看正史四夷传的部族前史兼论族源族属问题
李健才	2006 6	清皇室始祖居地的鄂多里城考

陈逸民 陈莺	2006 6	红山文化玉器的神话学思考
赵红梅	2006 6	略析玄菟郡的多元民族结构
通化市文管会办公室	2006 6	通化江沿遗迹群调查
王贵玉 王珺 王志敏	2006 6	通化江沿遗迹群所在地当即卒本夫余初居地
马彦 编译	2006 6	高句丽前期地方统治考
麻铃	2006 6	辽金时期的吉林民俗
孙守朋	2006 6	哈达部城寨及哈达部兴衰
丁海斌 赵彦昌	2006 6	满文档案与清代民族史研究
马阿宁	2006 6	郝浴流徙东北初居地谜
刘奉文 夏晓东	2006 6	刘大观与《玉磐山房诗集》
张福有 孙仁杰 迟勇	2007 1	长白山南麓积坛调查清理与考证
李大龙	2007 1	高句丽与东汉王朝战事杂考－以『三国史记·高句丽本纪』的记载为中心
王成国	2007 1	略论高句丽与中原王朝的关系
梁志龙	2007 1	“斩俘图”小议
高乐才 汤凤云	2007 1	民国初年呼伦贝尔地区国内移民探析
祝立业	2007 1	以王权为中心的高句丽政治制度考察
张国强 钟飞辰	2007 1	契丹与牧丹－略述辽墓壁画的牧丹图
杨清华	2007 1	金末东北地区行省设置考
魏志江	2007 1	关于清朝与朝鲜宗藩关系研究的几个问题－兼与韩国全海宗教授商榷
穆鉴臣	2007 1	赛因诺颜部与清朝关系述略
施云	2007 1	赫哲族历史源流
戴伟 魏黎 邵素兰	2007 1	哈尔滨关道及其档案述略
孟昭信 孟忻	2007 1	抗清功绩不可泯－试谈毛文龙评价问题
杨郁松	2007 1	程德全与黑龙江地区的移民实边(1904-1908)
陶理 汪玢玲	2007 1	敖包新考
王松林	2007 1	松花江“神石”探秘
梁玉多	2007 1	『唐征高句丽史』评价
董延寿 赵振华	2007 2	洛阳, 鲁山, 西安出土的唐代百济人墓志探索
秦升阳 梁启政	2007 2	高句丽军事问题述略
李桂芝	2007 2	辽朝糺军管见
刘厚生	2007 2	关于满族族称的再思考
张士尊	2007 2	建洲女真董鄂部族源考
张杰	2007 2	清初招抚赫哲人入旗考论－清代新满洲研究之二
宋立民 李陆华 杨军	2007 2	东北地区与青藏地区原始宗教比较研究
邵正坤	2007 2	试论鲜卑早期的宗教信仰及其转变
薛海波	2007 2	高句丽早期“那部体制”探析
杨军	2007 3	“辽东本周箕子国”别议
徐德源	2007 3	高句丽南部地区地方行政建置及其今地考

史长乐	2007 3	唐明宗披露了高丽太祖王建的族籍
朱国忱	2007 3	兀惹部·兀惹城研究
黄凤岐	2007 3	契丹科学技术研究
冯永谦	2007 3	金长城的考古与发现
周向永	2007 3	何处梁口
孙力楠	2007 3	我国东北汉唐时期壁画墓发现与研究综述
梁玉多	2007 3	後金教育政策考略
刘俊勇	2007 3	论旅顺·大连近代城市的形成
刘美晶	2007 3	辽东半岛第一城－旅顺牧羊城城址
顾丽华	2007 3	清代黑龙江将军衙署的迁移及其政治功能的变化
赵兴元	2007 3	康乾时期燕行使眼中的中国北方市肆
吴雪娟	2007 3	新发现的满文本『黑龙江·松花江·嫩江流域图』
曹保明	2007 3	长白山森林号子
施立学	2007 3	东北柳条边的封禁及对东边道生态文化的影响
高振环	2007 3	驿路沧桑－东北驿站故事
马阿宁 庄艳杰	2007 3	银园史话
韩亚楠	2007 3	神秘的努尔哈赤圣像考释
张福有 孙仁杰 迟勇	2007 4	高句丽王陵通考要报
耿铁华	2007 4	集安出土卷云纹瓦当研究
谢景方 吴娟	2007 4	清中叶以前东北地区教育实施的特点和经验教训
胡凡	2007 4	论"关东"历史地名内涵之演变
刘矩	2007 4	盖苏文抗唐政策的形成及起因
孙颢	2007 4	高句丽的祭祀
黄河	2007 4	慕容廆与两晋政治关系浅析
王耀	2007 4	晚清延吉的兴起及原因初探
赵娅丽 范胜丽	2007 4	现代思惟科学与东北近现代历史文献研究
杨雨舒	2007 4	伊通河流域人类文明的演变与历史启示
王松林 田佳训	2007 4	蛟河"双鹞首五弦琵琶剑"渊源考
张永敏	2007 4	评校勘本『三国史记』与『三国遗事』
韩行方	2007 4	『辽南碑刻』: 一部存史证史的力作

(3) 『博物馆研究』(04년 1기~07년 2기)

韩洋	2004 1	关于吉林省文博工作发展状况调研报告
王桂珠	2004 1	对学习《文物保护法》的新认识
隽成军 王平	2004 1	改进文物宣传工作的几点思考
王建华	2004 1	海岱龙山文化灰坑研究初论
柳 岚	2004 1	高句丽积石串墓研究
王秋华	2004 2	关于高校中小型博物馆自身发展的思考－兼谈辽宁大学博物馆的建设与发展

陈 平	2004 2	高句丽山城古城名辨析
陈 健	2004 2	试论后金迁都辽阳兴建东京城的原因
李健才	2004 3	近百年来国内外有关中国东北史研究的回顾与展望
宁会学	2004 3	恒仁米仓沟将军墓墓主考
杨 旸	2004 3	15世纪中国与东北亚，东南亚和非洲国家－试论永乐帝对外政策
杨俊峰	2004 3	清末延珲地区韩民越垦原因初
张碧波	2004 3	长白山与太白山考论－兼与[韩]金得榥《白头山与北方疆界－鸭绿江图们江不是我们的国境》一文论辩
铁岭市博物馆 西丰县文物管理所	2004 3	西丰钓鱼乡小育英屯石墓清理简报
金 兰	2004 3	浅谈博物馆小型陈列展览的文字编撰－以吉林市博物馆为例
蔡向荣 黄 峰	2004 3	试谈青铜器的用途与科学保养
姜维东	2004 4	唐代关于高句丽，新罗的著述考略
宋玉祥	2004 4	渤海史研究中的三题小议
冯永谦米文平	2004 4	拓跋鲜卑与慕容鲜卑同源的考古学研究－兼论乌恒考古学文化
刘萱堂	2004 4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之二）
徐德源	2004 4	集安博物馆藏高句丽印及印文考释
王宏刚	2004 4	欧亚大陆石器时代的女神像与萨满教生殖崇拜
高秀华 王秀兰	2004 4	浅谈大遗址文物建档科学化，规范化管理
郭富纯	2005 1	加强爱国主义教育是博物馆面临的重要课题
张碧波	2005 1	日本民族与文化渊源考略－关于古代中日关系研究之一
宋玉祥	2005 1	大武艺的失策与唐玄宗的“失误”
杨旸	2005 1	明代江苏籍谪寓东北的流人及其历史贡献
桂元，高秀华，柳岚，邵春华	2005 1	吉林省出土的古代兵器－剑
都兴智	2005 2	濊貊浅论
杨雨舒	2005 2	试论辽朝对吉林的统治
田艳萍，王桂芬	2005 2	论长春市抗美援朝运动中的爱国主义教育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葫芦岛市文物管理办公室	2005 2	辽宁葫芦市杨家洼新石器时代遗址发掘简报
刘焕珉，周阳生	2005 2	沈阳老虎冲青铜时代遗址发掘简报
张翠敏	2005 2	双砣子二期文化再探讨
武家昌	2005 2	本溪小市墓及相关问题
方琦	2005 2	黑龙江省嫩江县多金遗址出土的陶埙
张碧波	2005 3	粟特人和渤海国
刘景文	2005 3	论中国境内图们江流域的原始文化
柳岚，张学岩	2005 3	高句丽封土墓研究

杨俊贤	2005 4	汉书文化与白城一带古代文明
李宇峰	2005 4	辽宁阜新县红帽子城址调查
韩洋	2005 4	对文物行政执法相关问题的探讨－以吉林省扶余出土文物蒸汽机车为例
徐龙男	2005 4	延边博物馆的现状和创建现代博物馆的设想
阎 海	2006 1	高欢族源探微
武家昌	2006 1	冬寿墓壁画中的乐器及相关问题
郑新城	2006 1	吉林扶余首次发展现战国时期钱币
樊恒发	2006 2	关于金代肇州地理位置的探讨
周向永	2006 2	辽宁省铁岭市战国秦汉考古综述
张桂元 春 华	2006 2	高句丽太王陵位置石板作用在探讨
李宗明	2006 2	东辽县凌云乡土古钱小议
侯莉闽	2006 2	新时期延边博物馆古代史陈列的思考
杨雨舒	2006 3	浅谈唐代渤海人的习俗
王从安 纪 飞	2006 3	卒本城新考
董学增	2006 4	关于确定吉林市最初建城地点与年代的论证意见
宋玉祥	2006 4	质疑“靺鞨国”
张增香 隽成军	2006 4	对渤海国史的一点看法
陈健	2007 1	辽阳历史文化的新视角 — 中国古代经典文学作品所描写下的辽阳
徐秀云	2007 1	渤海上京城遗址简介
许志国	2007 2	辽北境内燕秦汉长城及相关遗迹遗物的发现和研究
宋玉祥	2007 2	渤海史研究中的三个话题
周峰	2007 2	金代北疆地区的开发

(4)『北方文物』(04년 1기~07년 3기)

王大方	2004 1	中国北方长城地带青铜文化引起国际考古界关注,研究成果结集出版 —《边疆考古研究》(第一辑)简述
肖红	2004 1	从渤海国和中央皇朝关系的演变看渤海国的归属性质
华阳	2004 1	东北地区古代火炕初探
梁振晶	2004 1	辽宁阜新梯子庙二、三号辽墓发掘简报
李慧竹	2004 1	汉代以前山东与朝鲜半岛南部的交往
牛金娥	2004 2	高句丽民族对东北开发的贡献
梁志龙	2004 2	高句丽儒释道三教杂论
李大龙	2004 2	有关唐安北都护府的几个问题
晓辰	2004 2	谈渤海文王大钦茂时期的都城建制
胡秀杰	2004 2	渤海佛教遗迹的发现与研究
李陈奇	2004 2	渤海上京城考古的四个阶段
孙进己	2004 2	公元3～7世纪集安与平壤地区壁画墓的族属与分期
董峰	2004 2	集安洞沟古墓群禹山墓区2112号墓

张庆国	2004 2	渤海上京遗址博物馆馆藏的铜镜
宋玉祥	2004 3	释读渤日交往国书中的一些关键词语
温玉成	2004 3	高句丽“相之国”
马一虹	2004 3	古代日本对靺鞨的认识
刘焕民	2004 3	辽宁沈阳八家子汉魏墓葬群发掘简报
李龙彬	2004 3	辽宁沈阳沈州路东汉墓发掘简报
宋基豪	2004 4	渤海国首领的性质
杨茂盛	2004 4	《中国北疆古代民族政权形成研究》一书的前言
刘晓东	2004 4	渤海国语言初探
程尼娜	2004 4	护东夷校尉考
张博泉	2004 4	“明刀”币研究续说
付彤	2004 4	宁安市虹鳟鱼场渤海墓地征集的几件陶器
王祥滨	2004 4	宁安市渤海镇西安村东遗址发掘简报
吴江原	2005 1	关于辽宁－朝鲜半岛西北部中细型铜剑的研究
阎海	2005 1	试析东北古地名中的“天人合一”现象
景爱	2005 1	关于长城起源的误说
张碧波	2005 1	高句丽壁画墓四神图像与中国的天文学、神话学
李蜀蕾	2005 1	渤海墓葬类型演变再探讨
陈建立	2005 1	从铁器的金属学研究看中国古代东北地区铁器和冶铁业的发展
周向永	2005 1	辽宁开原建材村所出铜刀铭文涵义考
耿铁华	2005 2	王莽征高句丽兵伐胡史料与高句丽王系问题 — 兼评《朱蒙之死新探》
郑君雷	2005 2	从汉墓材料透视汉代乐浪郡的居民构成
田广林	2005 2	红山文化“勾云形玉佩”的再解读
方殿春	2005 2	辽宁阜新县胡头沟红山文化积石冢的再一次调查与发掘
孟古托力	2005 3	骑兵建设推动养马业的发展 — 战马马源之分析
刘晓东	2005 3	中国渤海史研究的四次热潮及其代表性成果
武家昌	2005 3	集安两座高句丽墓上的石碑为“通天柱”说
方琦	2005 3	渤海上京龙泉府出土的几件文物
杨雨舒	2005 3	渤海国时期吉林的铁器述论
B. И. 博尔金	2005 4	1994～1998年对滨海地区渤海遗存的考古学考察研究成果
李淑英	2005 4	高句丽古城研究的新成果 — 读王绵厚先生的《高句丽古城研究》
苗威	2005 4	朝鲜县的初址及变迁考
刘子敏	2005 4	“嵎夷”与“朝鲜”
张伟	2005 4	松嫩平原战国两汉时期文化遗存研究
Ma Yihong	2006 1	View on the Owenership Awareness of the Kao-kou-li Adherents Submitted to Tang Dynasty According to the Unearthed Tomb Tables — Mainly Study the Grandson Gaozhen's Tribe of the Last Reign of Kao-kou-li and the Powered Nobles
Liu Xiaodong	2006 1	A Preliminary Study on the Systems of “Three Courts” of Bohai Kingdom

张碧波	2006 1	中华天文星象学在北方民族中的传播与发展 — 北魏、辽、西夏和吐鲁番天文星象图的比较研究
梁玉多	2006 1	简析渤海国对其周边民族实行的羁縻政策
陶刚,申佐军	2006 1	大遗址保护若干问题的探讨 — 就渤海国上京龙泉府遗址保护而谈
Э·В·沙弗库诺夫, 杨振福	2006 1	对朝鲜学者关于渤海国论著的客观评述
赵湘萍	2006 2	五常市小北山遗址发现西团山文化石器
Shenyang Municipal Institute of Archaeology	2006 2	A Preliminary Excavation on the Kao-kou-li Burials of Shitaizi Mountain City in Shenyang
Liu Xuangtang Liu Yingguang	2006 2	Kao-kou-li Paintings of Jian,Its Decoration Feature,Design andRelation with the Han Culture
董万仑	2006 2	黑龙江存在"秽貊族系"说应当再研究
杨军	2006 2	渤海"土人"新解
栾凡	2006 2	元明清东北民族政策之比较
张国强	2006 3	西拉木伦河流域先秦时期考古学文化简论
杨茂盛 田索菲	2006 3	白山黑水系中华 — 黑龙江流域的民族崛起促进了中国历史进程
魏郭辉 李强	2006 3	新罗质子侍唐刍议
吴江原 李慧竹	2006 3	论五女山在桓仁地区青铜时代社会中的性质与功能
耿铁华	2006 4	集安新出土文字瓦当及释读
冯恩学	2006 4	特罗伊茨基靺鞨墓地的陶器来源
卢伟	2006 4	渤海国湖州治所及湄沱湖问题
张国庆	2006 4	古代东北地区少数民族渔猎农牧经济特征论
徐学毅	2006 4	敦化城山子山城考察记
宋卿	2006 4	日本接待渤海国使者的外交礼仪初探
杨荣昌	2007 1	辽东地区青铜时代石棺墓葬及相关问题研究
	2007 1	《渤海文化研究 — 以考古发现为视角》一书出版
刘欣鑫	2007 1	渤海上京城发现的童子骑鸟铜像
刘晓东	2007 1	渤海"振国"、"震国"名源考察 — 纪念金毓黻先生诞辰一百二十周年
赵永春	2007 1	辽金时期的黄龙府
刘子敏	2007 1	谈金富轼对王莽朝记事的篡改 — 兼与耿铁华先生商榷
吴玲 李晓航	2007 1	从山丹贸易的变迁看清代对东北地区统治的弱化
景爱	2007 1	长城遥感调查与考古学
姜玉珂	2007 2	镜泊湖边墙为渤海说兼谈渤海遗迹的甄别
阴淑梅	2007 2	宁安市渤海上京城发现的铜佛像
孙秀仁	2007 2	关于金长城(界壕边堡)的研究与相关问题
高福顺	2007 2	高句丽官制中的兄与使者
上田雄 李凤英	2007 2	渤海使研究
蔡强	2007 3	朝阳发现的北燕墓
李龙彬, 苏鹏力, 朱寒冰	2007 3	沈阳市石台子高句丽山城2002年Ⅲ区发掘简报
朴灿奎 孙泓	2007 3	介绍朝鲜半岛出土的几件玻璃器
李西亚 杨卫东	2007 3	金代东北边疆的官员管理

(5)『史学集刊』(04년 1기~07년 5기)

刘群艺	2004 1	俞吉浚的《西游见闻》与韩国开化期的经济思想
刁书仁	2004 1	论清初东北招民开垦政策与汉族民人对东北的开发
魏存成	2004 1	中原、南方政权对高句丽的管辖册封及高句丽改称高丽时间考
武玉环	2004 2	渤海与高句丽族属及归属问题探析
都兴智	2004 2	关于古朝鲜研究的几个问题
田广林	2004 2	红山文化"坛、庙、冢"与中国古代宗庙、陵寝的起源
刘德斌	2004 2	布赞和利特尔《世界史中的国际体系》笔谈
赵学功	2004 2	朝鲜战争与英美关系
李宗勋	2004 4	韩国的高句丽研究及其史观 — 以高句丽归属问题为中心
张鹤泉	2004 4	南朝都督诸州军事与其所领将军职的关系探讨
汪诗明	2005 1	论澳大利亚参与朝鲜战争的原因
张璇如	2005 2	"吉林"地名探析
王秋彬	2005 2	谁来引领东亚共同体:历史经验与现实思考
任东波	2005 2	东亚共同体的观念建构 — 徘徊于逻辑与历史之间
张乃和	2005 2	东亚多元一体论
杨军	2005 2	中、日与东亚共同体:从历史到现实
田毅鹏	2005 2	全球化、民族国家与东亚认同
阪仓笃秀	2005 2	东亚共同体与日中关系的历史及未来
巴里·布赞	2005 2	"国际共同体"意味着什么?
王小甫	2005 3	新罗北界与唐朝辽东
李大龙	2005 3	简论曹操对乌桓的征讨及意义
权赫秀	2005 4	清代中朝关系史研究的一部用心之作 — 评刘为著《清代中朝使者往来研究》
刘子敏	2005 4	也谈古朝鲜研究的几个问题 — 与都兴智先生商榷
王臻	2006 1	明朝与李朝在郎卜尔罕问题上的政策之比较研究
沈志华	2006 1	对日和约与朝鲜停战谈判
程尼娜	2006 1	辽金王朝与中华多元一体的关系
张国刚	2006 1	"唐宋变革"与中国历史分期问题
尤锐	2006 1	历史的进步与退步:以"大一统"观念为例
葛金芳	2006 1	关于中国古代社会性质、结构及其演进轨迹的思考
赵红梅	2006 2	玄菟太守考略
孟庆义	2006 3	日韩现代管理思想中的儒家文化因素
张鹤泉	2006 3	东汉时期的屯驻营兵
瞿林东	2006 4	唐代史家对信史的追求 — 重读《唐会要·史馆杂录》
朱泓 周慧	2006 4	中国边疆地区汉代以后古人骨的研究
杨军	2006 4	拓跋鲜卑早期历史辨误
金景一	2007 3	关于中国军队中朝鲜族官兵返回朝鲜的历史考察

魏存成	2007 4	靺鞨族起源发展的考古学观察
王万志 孫 昊	2007 5	中國邊疆民族歷史与文化研討會暨中國民族史學會第十一次學術研討會綜述
刁書仁	2007 5	明代女眞与朝鮮的貿易
沈志華	2007 5	斯大林、毛澤東与朝鮮戰爭再議－－根据俄國檔案文獻的最新証据

(6)『社会科学战线』(04년 1기~07년 6기)

周伟洲	2004 1	霫与白霫考辨
王颖	2004 1	从东北方言词语看东北的多元民族文化
赵子祥 陈萍 王广林	2004 1	论东北老工业基地振兴新道路
梁化军 刘远航	2004 1	东北老工业基地国有企业的退出障碍、退出路径及政策选择
刁书仁	2004 1	论后金建立前与朝鲜的关系
钟贤巍	2004 2	振兴东北老工业基地与发展产业旅游
王成国	2004 2	论唐代契丹
张福有	2004 3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考证与初步研究
冯永谦	2004 3	汉代襄平、望平、辽阳今地考辨 — 论“曹雪芹祖籍铁岭说”历史地理考证之失误
宫玉海	2004 3	“高句丽”非族名考
赵宾福	2004 4	东北地区新石器时代考古学文化的发展阶段与区域特征
朴今海	2004 4	伪满时期日本帝国主义对东北朝鲜族的“皇民化”政策
邴正	2004 5	振兴东北与振兴东北文化
许宁	2004 5	东北地域文化的演进与老工业基地的全面振兴
那薇	2004 6	庄子与海德格尔的咏叹歌吟
黄松筠	2004 6	中国藩属制度研究的理论问题
姜维东	2004 6	高句丽文化渊源概论
赵红梅	2004 6	真番郡考疑
林秀梅, 马端忠, 陈少志	2004 6	振兴东北老工业基地重要的是产业结构的调整
王志东	2004 6	东北地区解决城乡二元结构的途径和措施
方国根, 罗蒙	2005 4	中、朝(韩)、日儒学思想理论特色摭论
吕春凤, 张泰湘	2005 4	东夏上京与北京考
钟贤巍, 辛本禄	2005 5	长白山旅游模式扩展及其原因分析
郑明	2005 5	清史纂修纪实(一)
张鹤泉	2005 6	东晋都督诸州军事设置的特点及其权力问题试探
宋慧娟	2005 6	康熙帝对朝鲜政策透析
黄松筠	2005 6	东北地域文化的历史特征
李德山	2006 1	白山靺鞨史论
王永平	2006 3	汉末流寓辽东士人之遭遇及其影响考论
杨玉洪	2006 3	中国古代“天人合一”审美境界解读
姜维东	2006 4	唐朝对东北亚诸政权的文化输出研究

栾凡	2006 5	秽貊系民族的习俗、文化与民族性格
李治亭	2006 5	新修《清史》传记撰写方法研究
程世和	2006 5	大一统"文化中国"观念与中国高校的"文化素质"教育
邢丽菊	2006 6	朝鲜时期儒学者对孟子"四端说"的阐释 — 以退溪、栗谷与茶山为中心
金健人	2007 1	古代东北亚海上交流史分期
戴逸	2007 2	东北地域文化论 —《东北历史与文化论丛》序
邴正	2007 2	振兴东北与社会结构的改造
盛海燕	2007 2	俄罗斯在朝鲜核危机中的立场与作用
李德山	2007 2	让历史重焕青春 — 刘炬、姜维东《唐征高句丽史》评介
陈启云	2007 3	封建与大一统之间:关于中国传统政体的理论和史实
杨雨舒	2007 3	魏晋南北朝时期"用夏变夷"思想与治理东北边疆
魏存成	2007 4	集安高句丽大型积石墓王陵研究
刘炬 季天水	2007 4	"高句丽侯驺"考辨
刘冬梅	2007 4	论晚清政府在东北问题上的联美制日
刘彦君	2007 4	媒体引导下的消费时代－－《大长今》的消费策略
赵英兰	2007 4	清代东北边疆户口管理体系及其演变
鸿 鹄	2007 4	关于高句丽纺织品之我见－－以分析《高丽记》史载为中心
魏志江	2007 5	试论17世纪初的中韩交涉与东北亚国际格局
吴雨平	2007 6	日本汉诗与古代东亚各国的文化交流
党银平	2007 6	新罗文人崔致远与淮南节度使高骈交往关系考
付百臣	2007 6	略论日本在东亚朝贡体系中的角色与作用
黄松筠	2007 6	中国古代藩属制度五个阶段的基本特征
张晓曼	2007 6	韩国汉语教材存在的问题及改进措施研究
马大正-	2007 6	学术杂志自觉介入学术积累的成功尝试－－读《东北历史与文化论丛》
	2007 6	吉林省社会科学院主办"东北亚区域发展与合作"国际学术会议

(7)『中国边疆史地研究』(02년 1기 ~ 07년 4기)

马大正	2002 1	关于边疆研究若干问题的思考
李世愉	2002 1	清前期治边思想的新变化
方铁	2002 1	蒙元经营西南边疆的统治思想及治策
张荣, 王希隆	2002 1	清末科塔借地之争述论
刘雪河	2002 1	论两汉时期滇人的封建化问题
王义康	2002 1	唐代城傍辨析
刁书仁	2002 1	论明前期斡朵里女真与明、朝鲜的关系 — 兼论女真对朝鲜向图们江流域拓展疆域的抵制与斗争
吐娜	2002 1	清代塔尔巴哈台额鲁特蒙古十苏木的戍守和开发
贾建飞	2002 1	马継业与辛亥革命前后英国在新疆势力的发展
高永久, 徐亚清	2002 1	浅析中亚国家的社会分化与整合

薛晖	2002 1	清初新疆的官主祭仪与多神崇拜
张碧清	2002 1	事实胜于雄辩 合作胜于僵持
方堃	2002 1	琉球、钓鱼岛与中日关系
刘文宗	2002 1	石油资源与钓鱼岛争端
李国强	2002 1	近10年来钓鱼岛问题研究之状况
张植荣	2002 1	日本有关钓鱼列屿问题研究评述
姜涛	2002 1	学者责任重 窃土源流清 — 评《日本国窃土源流 · 钓鱼列屿主权辨》
程尼娜	2002 2	东北古史分期探赜
赵梅春	2002 2	王符的治边思想
李方	2002 2	试论唐西州都督府与西州政府的关系
宋秀英, 龙木	2002 2	唐代单于都护府的几个问题
毕奥南	2002 2	元朝的军事戍防体系与版图维系
厉声	2002 2	新疆历史上的短命分裂政权 — “东突厥斯坦伊斯兰共和国”的覆灭
李德山	2002 2	关于古朝鲜几个问题的研究
刘正寅	2002 2	阿帕克和卓流亡路线的再探讨
贺圣达	2002 2	嘉靖末年至万历年间的中缅战争及其影响
吴元丰	2002 2	南明时期中琉关系探实
郭孟良	2002 2	清代前期海外贸易管理中的具结现象
张碧波	2002 2	一个研究新阶段的标志 — 评《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
马大正	2002 2	中国学术界的声音 — 读《英国、俄国与中国西藏》
傲奇	2002 2	研究回鹘文契约文书的创新之作 — 读《回鹘文契约文书初探》
C · Г · 卢贾宁, 阿拉腾奥其尔	2002 2	中国与苏维埃俄国之间的蒙古(1920－1924)
赵永春	2002 3	关于中国历史上疆域问题的几点认识
马大正	2002 3	新疆历史纵论
陈晓鸣	2002 3	两汉北部边防若干问题之比较
赵云田	2002 3	清末新政期间东北边疆的政治改革
孙宏年	2002 3	国民参政会与国民政府的治藏政策 — 以治藏议案为中心
王静	2002 3	明朝会同馆论考
洪崇文	2002 3	云南殖边督办公署治边能力剖析
许建英	2002 3	试析清政府在帕米尔交涉中的对策
齐清顺	2002 3	论近代新疆对苏(俄)政策的基本方针
赵贞	2002 3	大中二年(848)沙州遣使中原路线蠡测
张植荣, 蒋苏晋	2002 3	美国与中日钓鱼台列屿争端
张云	2002 3	《通典 · 吐蕃传》的史料价值
龙木	2002 3	西北边疆民族学术研讨会暨中国中亚文化研究会第三届年会述要
龙木	2002 3	第二届东北边疆历史与现状暨高句丽学术研讨会述要
马大正	2002 4	组织跨学科力量对中国边疆重大问题研究进行联合攻关

白翠琴	2002 4	论蜀汉“西和诸戎, 南抚夷越”之策
田澍	2002 4	明代哈密危机述论
薛宗正	2002 4	噶尔家族与附蕃西突厥诸政权 — 兼论唐与吐蕃间的西域角逐
刘为	2002 4	清代朝鲜使团贸易制度述略 — 中朝朝贡贸易研究之一
孙春日	2002 4	清末中朝日“间岛问题”交涉之原委
武沐, 王希隆	2002 4	“吐延”、“奢延”为匈奴语南北考
黄光成	2002 4	西南丝绸之路是一个多元立体的交通网络
方鹏	2002 4	自汉至唐海南岛历史地理略说
廖大珂	2002 4	汉唐至宋元时期的闽台交流
程爱勤	2002 4	解析菲律宾在南沙群岛主权归属上的“邻近原则” — 评菲律宾对南沙群岛的主权主张
隋丽娟, 张兴吉	2002 4	台湾总督府在日本侵占海南岛时期“海南岛开发”中的作用
黄松筠	2002 4	论清代东北封禁与流人文化
周伟洲	2002 4	民族关系史和边疆史地研究的新探索 — 评李大龙著《唐朝和边疆民族使者往来研究》
李鸿宾	2002 4	中西学术之间:荣新江新著《中古中国与外来文明》
灵均	2002 4	中国民族史学会第九次学术研讨会纪要
刘远图	2003 1	边界:建立睦邻友好国家关系的纽带和桥梁
方铁, 张维	2003 1	论中国古代治边思想的特点、演变和影响
张辉	2003 1	“铁岭立卫”与辛禑朝出师攻辽
王景泽	2003 1	明末的“辽人”与“辽军”
葛承雍	2003 1	东突厥阿史那摸末墓志考述
隋丽娟	2003 1	清末民初黑龙江少数民族新式教育述论
鲁宝林	2003 1	锦州为汉代徒河县再考
安京	2003 1	《海条》作者、版本、内容新论
杨翠柏	2003 1	时际国际法与中国对南沙群岛享有无可争辩的主权
张凤鸣	2003 1	试论黑龙江地区与沙俄的贸易
王川	2003 1	清代及民国时期西藏地方的丹达神崇拜
孙波辛	2003 1	斯坦因第四次来新之经过及所获古物考
英新	2003 1	开创历史研究的新天地 —《国家利益高于一切》评介
翁飞	2003 1	中国海疆历史研究的拓荒之作 —《中国海疆通史》评述
焦润明	2003 2	关于历史疆域归属若干理论问题的研究
张敏	2003 2	论北魏长城－军镇防御体系的建立
张德寿	2003 2	高闾民族观述论
乌小花 ,李大龙	2003 2	有关安南都护府的几个问题
聂红萍, 王希隆	2003 2	鄂对家族与清代新疆政治
钟霞	2003 2	张鸣岐与清末广西近代化
马曼丽, 艾买提	2003 2	关于边疆跨国民族地缘冲突的动因与和平跨居条件的思索
李德山	2003 2	当前高句丽史研究中的几个问题
李乐营	2003 2	高句丽自然宗教信仰对象辨析

麻秀荣, 那晓波	2003 2	清代八旗索伦的骑射教育
高中华	2003 2	肃顺和中俄边界交涉
张明亮	2003 2	南中国海争端与中菲关系
李并成	2003 2	甘肃玉门花海比家滩古绿洲沙漠化的调查研究
厉声	2003 3	沿着中国边疆史地研究的正确方向不断开拓进取
马大正	2003 3	关于构筑中国边疆学的断想
吕一燃	2003 3	欣慰的回顾 — 纪念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建立20周年
李国强	2003 3	在探索中开拓中国边疆史地研究的新局面 —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20年来科研成就综述
都永浩, 王禹浪	2003 3	对东北亚民族与历史问题研究的理论思考
刁书仁	2003 3	康熙年间穆克登查边定界考辨
潘志平	2003 3	新疆的地缘政治与国家安全 — 历史与现状的考察
杨恕	2003 3	中亚的地缘政治 — 历史和现实
张永攀	2003 3	《艾登备忘录》与二战末期英国对藏政策
齐春风	2003 3	抗战时期日本在港澳湾地区的走私活动
周保明	2003 3	大石国盐莫念"(永徽)六年六月遣使朝贡"考辨
李治亭	2003 3	架构中国边疆学的科学实践 — 评《中国边疆研究论稿》
尚衍斌	2003 3	明代蒙古史研究的上乘之作 —《明代漠南蒙古历史研究》评析
尚季芳	2003 3	国民政府时期的西北考察家及其著作述评
龙木	2003 3	"高句丽 · 渤海问题学术研讨会"纪要
杜文忠	2003 4	边疆的概念与边疆的法律
彭丰文	2003 4	汉魏十六国时期河陇大族势力的崛起及其在西北边疆开发中的作用
李方	2003 4	隋末唐初东突厥与中原势力的关系
陈维新	2003 4	乾隆时期中俄外交争议中的土尔扈特部问题
金元石	2003 4	关于中国朝鲜族的含义
高永久, 徐亚清	2003 4	论中亚的民族主义问题
吴小凤	2003 4	明代广西交通建设述略
宾长初	2003 4	论广西近代圩市的变迁
刘厚生	2003 4	长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
李德山	2003 4	试论长白山文化的特点
王景泽	2003 4	从大时空角度看长白山古代文化属性
郝庆云	2003 4	肃慎族系长白山观念透析
李大龙	2003 4	高句丽史研究的又一部力作 —《中国高句丽史》评介
张碧波	2003 4	高句丽历史考古研究的新成就 — 评王绵厚的《高句丽古城研究》
孟宪实	2003 4	《唐西州行政体制考论》评略
贺灵	2003 4	察哈尔蒙古研究新作 — 读《新疆察哈尔蒙古历史与文化》
扎洛	2003 4	《五世达赖喇嘛1680年发给门隅、珞渝地方之法旨》考释
赵夏	2003 4	马鹤天先生对边疆考察和研究的贡献
李大龙	2004 1	传统夷夏观与中国疆域的形成 — 中国疆域形成理论探讨之一

黄今言	2004 1	两汉边防战略思想的发展及其主要特征
王献军	2004 1	至元末元军征黎时间考辨
孙宏年	2004 1	蒙藏事务局与民国初年的边疆治理论析
朱昭华	2004 1	薛福成与滇缅边界谈判再研究
胡廷荣	2004 1	辽中京至广平甸捺钵间驿馆考略
张丹卉	2004 1	论明清之际东北边疆城镇的衰落
程早霞	2004 1	美国中央情报局与中国西藏
汪炳明	2004 1	民国初年乌泰"独立"事件的外援背景再探
熊春云	2004 1	清末桂西南地区的移民实边
姜清波	2004 1	新罗对唐纳质宿卫述论
贾建飞	2004 1	论松筠与晚清西北史地学的兴起
周新国	2004 1	林则徐与新疆史地研究
阎国栋	2004 1	帝俄藏学的历史与成就
李之勤	2004 1	《西域土地人物略》的最早、最好版本
张世明	2004 2	"边疆"一词在世界主要法系中的镜像: 一个语源学角度的考察
张碧波	2004 2	中华疆域观念与历代边疆政策 — 以东北疆域为例
秦树才	2004 2	绿营兵与清代的西南边疆
徐建平	2004 2	论清末东北宪政改革的特点
马陵合	2004 2	从"开门通商"到"厚集洋债,以均势力" — 徐世昌与东北外交策略的变化
童远忠	2004 2	论刘锦棠出任新疆巡抚之原因
纪胜利	2004 2	渤海国初建之际国号考
奇文瑛	2004 2	明洪武时期内迁蒙古人辨析
赵克生	2004 2	明、蒙冲突与祭祀之变
杨煜达	2004 2	花马祀 : 16 – 19世纪中缅边界的主权之争
周春英	2004 2	近代东北三省关内移民动态的分析
周立英	2004 2	从云南看近代中国边疆民族地区女学的产生及其影响
李乐营	2004 2	长白府设置的背景及意义
鲁刚	2004 2	略论昆明古城的历史沿革、文化特色及其底蕴
戴可来	2004 2	略论古代中国和越南之间的宗藩关系
王秋华	2004 2	明万历援朝将士与韩国姓氏
吴楚克	2004 2	台湾《中国边政》述评
李清凌	2004 2	1980年以来西北开发史研究
金少萍	2004 2	中国蒙古族历史与文化学术研讨会综述
马大正	2004 3	中国疆域的形成与发展
马勇	2004 3	汉武帝对匈奴政策新论
彭建英	2004 3	明代羁縻卫所制述论
彭勇	2004 3	明代广西班军制度研究 — 兼论班军的非军事移民性质
吴元丰	2004 3	清代乌鲁木齐满营述论

周琼	2004 3	从土官到缙绅:高其倬在云南的和平改土归流
李方	2004 3	后东突厥汗国夏兴
雷艳红	2004 3	武德年间的唐突关系与玄武门之变的爆发
张北根	2004 3	1919年中英关于西藏问题的交涉
王青松	2004 3	南宋海防初探
徐晓望	2004 3	论晚明对台湾、澎湖的管理及设置郡县的计划
林漫宙	2004 3	明代海南城、市考
闫天灵	2004 3	略论民国时期对内蒙古开发道路的认识与认定
鲍音	2004 3	“敖汉”的释义应是“老大”吗?
乐嘉辉	2004 3	19世纪末至20世纪30年代中美边疆历史研究比较
李国强	2004 4	“东北工程”与中国东北史的研究
黎小龙	2004 4	战国秦汉西南边疆思想的区域性特征初探
姜维公	2004 4	南朝与北朝对高句丽政策的比较研究
李德山	2004 4	唐朝对高句丽政策的形成、嬗变及其原因
刘建丽	2004 4	略论宋代蕃兵制度
毕奥南	2004 4	蒙古汗国与元朝关系的考察
张杰	2004 4	清前期对鸭绿江封禁区的管辖
李淑英	2004 4	两汉时期高句丽的封国地位
秦升阳	2004 4	高句丽人口问题研究
苗威	2004 4	从金富轼的高句丽观看高句丽政权的性质及其历史归属
郭渊	2004 4	从睦邻政策看中国在南海问题上的立场和主张
安京	2004 4	《山海经》与《逸周书·王会篇》比较研究
蓝勇	2004 4	西南边疆政区名称教化功能演变研究
刘子敏	2004 4	新成果 新高度 — 评《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
王継光	2004 4	洪武三十年中越领土交涉的原始文件
周保明	2004 4	20世纪怛逻斯战役研究概述
贾霄锋	2004 4	二十多年来土司制度研究综述
王鸣野	2004 4	建省后新疆历史研究述评
于逢春	2004 4	高句丽历史问题学术研讨会述评
成崇德	2005 1	论清朝疆域形成与历代疆域的关系
王尚达	2005 1	新疆与历代中原王朝政治关系的计量分析
周松	2005 1	明洪武朝陕北边防及其特点
周卫平	2005 1	清末新疆禁毒研究
武沐	2005 1	对匈奴收継婚制度的再探讨 — 匈奴婚姻制度研究之一
拜根兴	2005 1	论罗唐战争的性质及其双方的交往
余定邦	2005 1	1583年中缅姚关之战 — 读《恤忠祠记》
秦永章	2005 1	20世纪初叶西藏的日本军事教官矢岛保治郎

周伟洲	2005 1	两汉时期新疆的经济开发
李德元	2005 1	明清时期海岛开发模式研究
徐德源	2005 1	高句丽族语言微识杂
郭丽萍	2005 1	显学的背后:沈垚西北史地学述论
马玉华	2005 1	20世纪上半叶民国政府对西南边疆少数民族的调查
卡索夫	2005 1	西藏历史研究的一个重要发展 — 读张云《元朝中央政府治藏制度研究》
东为	2005 1	“高句丽文化的历史价值”中韩学术讨论会综述
孙宏年	2005 1	2004年中国边疆史地研究论文索引
章永俊	2005 2	西方近代边疆理论的初步发展
孙宏年	2005 2	相对成熟的西方边疆理论简论(1871－1945)
董欣洁	2005 2	冷战期间西方边疆理论的发展
于沛	2005 2	从地理边疆到“利益边疆” — 冷战结束以来西方边疆理论的演变
崔明德	2005 2	中国古代和亲与丝绸之路的拓展
李炳泉	2005 2	两汉农都尉的设置数额及其隶属关系
田平凤	2005 2	北庭副都护和守阳事迹考述
程尼娜	2005 2	元朝对黑龙江下游女真水达达地区统辖研究
张晓松	2005 2	论元明清时期的西南少数民族土司土官制度与改土归流
马长泉	2005 2	清代前期巡边制度述论
宋秀英	2005 2	刘渊政权的出现与北疆民族主动认同“中国”的开始 — 中国古代疆域形成理论探讨之二
毕奥南	2005 2	洪武年间明朝与麓川王国关系考察
贾宇	2005 2	南海“断续线”的法律地位
乌兰	2005 2	托忒学 — 清朝有关边疆民族的专门教育机构
厉声	2005 2	近代以来新疆艺术述论(1840－1999)
孟秋丽	2005 2	清康熙时期的蒙古行纪
王文光	2005 3	“五帝”世系与秦汉时期“华夷共祖”思想
刘夏生	2005 3	宋朝西南边疆民族地区的土地赋税政策
林乾	2005 3	清朝以法治边的经验得失
王欣	2005 3	《回疆则例》研究
高中华	2005 3	试论左宗棠的荒政思想及其边疆救荒实践
周竞红	2005 3	南京国民政府初期十年边疆民族事务管理机制与政策
杨军	2005 3	粟末靺鞨与渤海国
秦升阳	2005 3	高句丽法律问题研究
耿铁华	2005 3	好太王碑一千五百九十年祭
田卫疆	2005 3	关于明代吐鲁番史若干问题的探讨
贺萍	2005 3	新疆多元民族文化特征论
刘为	2005 3	试论摄政王多尔衮的朝鲜政策
胡尚哲	2005 3	中亚国家独立前后跨国民族的迁移对其民族结构的影响
刘正刚	2005 3	清代移民开发边疆与少数民族关系 — 以台湾为例

杨翠柏	2005 3	“承认”与中国对南沙群岛享有无可争辩的主权
权赫秀	2005 3	中国古代朝贡关系研究评述
樊文礼	2005 3	一部中国古代和亲问题研究的集大成之作 — 读崔明德博士《中国古代和亲史》
李丹婕	2005 3	评介《唐末五代的代北集团》
尚衍斌	2005 3	清代新疆法制史研究的力作 —《清代回疆法律制度研究》评介
杨恕	2005 4	春秋时期诸侯国是独立主权国家吗 — 与叶自成先生商榷
侯丕勋	2005 4	哈密国“三立三绝”与明朝对土鲁番的政策
于逢春	2005 4	清末民初中日两国的朝鲜族教育政策之一侧面 — 以“间岛”垦民教育会的教育活动为中心
孙懿	2005 4	抗战时期民国政府的边疆教育政策
王利群	2005 4	高句丽自然灾害发生状况及影响
胡凡	2005 4	论明世宗对蒙“绝贡”政策与嘉靖年间的农牧文化冲突
樊明方	2005 4	海山与1911年外蒙古“独立”
陆韧	2005 4	明朝统一云南、巩固西南边疆进程中对云南的军事移民
范玉春	2005 4	矿业移民与西南地区社会变迁的个案分析 — 以广西合山煤矿开发及移民为例
刘进宝	2005 4	不能对古代新疆地区棉花种植估计过高
杨文辉	2005 4	南诏时期洱海地区的白蛮语地名考释
杨蕤	2005 4	宋夏疆界考论
郭永虎	2005 4	关于中日钓鱼岛争端中“美国因素”的历史考察
李春祥	2005 4	论《三国史记》的编撰方法、历史观及史学思想
王希隆	2005 4	顾颉刚先生在西北
胡小鹏	2005 4	1978－2003年间明代西北政治史研究概况
于逢春	2006 1	论中国疆域最终奠定的时空坐标
李大龙	2006 1	不同藩属体系的重组与王朝疆域的形成－以西汉时期为中心
张云	2006 1	西藏参与,认同中国”大一统”的历史及其启示
方铁	2006 1	古代治边观念的研究内容与主要特点
许建英	2006 1	”中国世界秩序”观之影响及其与中国古代边疆研究－费正清《中国世界秩序; 国古传统的对外关系》读后
祁美琴	2006 1	对清代朝贡体制地位的再认识
李方	2006 1	怛罗斯之战与唐朝西域政策
骆桂花 高永久	2006 1	明朝西宁卫的军事戍防与政治管控
张世明 龚胜泉	2006 1	另类社会空间: 中国边疆移民社会主要特殊性透视(1644-1949)
黄达远	2006 1	论铁路与新疆的城镇发展
孙哲 王江	2006 1	对1689-1727年中俄外交关系的考察
孙懿	2006 1	探究民族政权形成规律的创新之作-《中国北疆古代民族政权形成研究》介评
刘爽	2006 1	中国东北与俄苏经济关系史研究的新成就－简评《中国东北与俄国(苏联)经济关系史》
王德明	2006 1	筱田治策与《白头山定界碑》
蔡凤林译	2006 1	日本外交文书选译－关于”蒙藏协约”
孙宏年 刘清涛	2006 1	2005年中国边疆史地研究论文索引

杨建新	2006 2	”中国”－词和中国疆域形成再探讨
毕奥南	2006 2	历史语境中的王朝中国疆域概念辨析－以天下, 四海, 中国, 疆域, 版图为例
王欣 周伟洲	2006 2	10世纪前中国西北边疆发展的几个特点
方高峰	2006 2	试论左郡左县制
李勃	2006 2	唐代崖州治所考
何兆吉	2006 2	杨一清的安边策及其历史价值
钱文华	2006 2	清政府弱化琉球宗主权的历史考察
唐凌	2006 2	论民国时期民族经济融合中的政府力量－对广西边疆稳定基本构成要素的新认识
温强	2006 2	“西藏问题”与肯尼迪政府对华遏制孤立政策考察
滕红岩	2006 2	渤海致日本礼物探析
周喜峰	2006 2	论唐代渤海国儒学文化教育
冯恩学	2006 2	黑水靺鞨思慕部探索
赵宾福	2006 2	东北新石器文化格局及其与周边文化的关系
孙卫国	2006 2	试论入关前清与朝鲜关系的演变历程
朱昭华	2006 2	从班洪事件到中缅”1941年线”的划定
伍成泉	2006 2	魏源的边疆史地研究述略
王菡	2006 2	《重修使琉球录》的刻本及其作者
余太山	2006 2	《魏略·西戎传》要注
厉声	2006 3	先秦国家形态与疆域四土刍见-以殷商国家叙述为主
于逢春	2006 3	构筑中国疆域的文明板块类型及其统合模式序说
刘志杨 李大龙	2006 3	“藩属”与“宗藩”辨析－中国古代疆域形成理论研究之四
李云泉	2006 3	朝贡制度的理论渊源与时代特征
田澍 杨军辉	2006 3	古代西北疆域研究若干问题的思考
汪桂海	2006 3	简牍所见汉代边塞徼巡制度
冯金忠	2006 3	幽州镇与唐代後期政治探析
左红卫 孟楠	2006 3	从”斌静案”看清代驻疆官员与新疆的稳定
朱从兵	2006 3	铁路筹建与清末广西边防
希都日古	2006 3	关于明代蒙古人的宗教信仰
梁丽霞 王希隆	2006 3	清前期的西北战局与阿拉善蒙古
李恭忠	2006 3	1855-1858年中俄塔城事件之交涉
李朋	2006 3	日俄战争其间美国的东北亚政策
刘清涛	2006 3	第三届中国边疆史地学术研讨会述要
王小虹	2006 3	清代珲春衙门档案概述
苗威	2006 3	乐浪郡研究综述
方铁	2006 4	古代”守中治边”,”守在四夷”治边思想初探
黎小龙 徐难于	2006 4	两汉边疆思想观的论争与统一多民族国家边疆思想的形成
崔明德	2006 4	中国民族思想的概念及发展脉络
贾丛江	2006 4	西汉戊己校尉的名和实

李鸿宾	2006 4	隋朝的北部防务与长城问题
王世丽 王世伟	2006 4	突厥的叛乱与安北都护府南迁
高月	2006 4	清末东北新政改革论－以赵尔巽主政东北时期的奉天财政改革为中心
武沐 尹玉琴	2006 4	《晋书·北狄传》入塞屠名新论
何峰	2006 4	吐蕃尚论沿革研究
马曼丽 安俭	2006 4	从成吉思汗经略西北边疆的成败看文化力的作用－纪念成吉思汗登大汗位800周年
魏贤玲 洲塔	2006 4	呐(?)厮啰及其政权考述
王剑	2006 4	纳哈出盘踞辽东时明朝与高丽的关系
刁书仁	2006 4	从"北伐论"到"北学论"－试论李氏朝鲜对清朝态度的转变
李倩	2006 4	日据吉林时期的文化专制与奴化教育
尚衍斌	2006 4	元代西域史事杂录
许建英	2006 4	马达汉新疆考察国际研讨会及野外考察述要
马大正	2007 1	深化边疆理论研究与推动中国边疆学的构筑
张云	2007 1	舅甥关系, 贡赐关系, 宗藩关系及"供施关系"－历代中原王朝与西藏地方关系的形态与实质
安介生	2007 1	略论北魏时期的"上客", "第一客"与招怀政策
裴婷婷 何立慧	2007 1	吐蕃,唐朝和战交往及对唐朝的影响
杨晓春	2007 1	13-14世纪辽阳,渖阳地区高丽移民研究
聂红萍	2007 1	嘉庆朝新疆"玉努斯案"
王文光 张曙辉	2007 1	西南边疆乌蛮源流考释
赵学先	2007 1	景颇族历史上的"贡萨"与"贡龙"制
徐百永	2007 1	试论民国时期英国对中国西藏的武器供应
周智生	2007 1	历史上的滇藏民间商贸交流及其发展机制
陈炜	2007 1	近代右江流域城镇圩市发展与民族经济融合
李盛刚 王希隆	2007 1	马鬃山口岸述论
李树辉	2007 1	疏勒,佉沙地名新证
高健	2007 1	《西域闻见录》异名及版本考述
李慧	2007 1	史地名著 名家释读-《中国古代地理名著选读》(第一辑)简评
刘清涛	2007 1	2006年中国边疆史地研究论文索引
方铁	2007 2	论中国边疆学学科建设的若干问题
李方	2007 2	试论唐朝的"中国"与"天下"
于逢春	2007 2	华夷衍变与大一统思想框架的构筑 — 以《史记》有关记述为中心
朱奎泽	2007 2	汉代河西屯戍军粮管理措施述论 — 以汉简资料为中心
李建国	2007 2	清代西北地区盐政考议
郭美兰	2007 2	土尔扈特汗渥巴锡部众东归后拨地安置始末
杨永福 段金生	2007 2	杨增新与科布多事件及阿尔泰并新
周伟洲	2007 2	关于十四世达赖喇嘛坐床典礼的若干问题
杨建新 王东春	2007 2	明代蒙古部落大批入据青海考论
刘智文	2007 2	边疆民族关系范例解读 — 中国朝鲜族聚居区民族和睦成因探析

贾霄锋 王希隆	2007 2	明清时期土司制度与藏区少数民族的文化变迁 — 以嘉绒藏区文化变迁为例
张彧 汤开建	2007 2	晚清圣母圣心会中蒙古教区传教述论
李花子	2007 2	朝鲜王朝的长白山认识
李琪	2007 2	中亚国家的民族关系与地区安全
姚胜 尚衍斌	2007 2	汉唐藩属体制的多维夏原 — 读《汉唐藩属体制研究》
李大龙	2007 3	“中国”与“天下”的重合:古代中国疆域形成的历史轨迹 — 古代中国疆域形成理论研究之六
张文	2007 3	论古代中国的国家观与天下观 — 边境与边界形成的历史坐标
王子今 李禹阶	2007 3	汉代北边的“关市”
王东平 郭红霞	2007 3	清代回疆粮赋制度研究:牛津大学所藏清代库车、沙雅尔署衙档案之探讨
王力 王希隆	2007 3	东汉时期羌族内迁探析
玉时阶	2007 3	明清时期瑶族向西南边疆及越南、老挝的迁徙
张文生	2007 3	东突厥建牙漠南小考
魏存成	2007 3	渤海政权的对外交通及其遗迹发现
滕兰花	2007 3	清代广西天后宫的地理分布探析
陈慧	2007 3	试析15世纪中叶图们江成为中朝界河
周娟 高永久	2007 3	试论清代中国西藏地方政府与不丹之间的宗藩关系
许建英	2007 3	论杨增新时期英国对中国新疆政策
郭渊	2007 3	晚清政府的海洋主张与对南海权益的维护
王海滨	2007 3	中国国民政府与琉球问题
郭茂育 赵振华	2007 4	唐《史孝章墓志》研究
范恩实	2007 4	唐开元年间黑龙江流域地区史事新证－－以“郑实活墓志铭”为中心
刘夏生	2007 4	宋代羁縻州“虚像”及其制度问题
张 云	2007 4	“中国历代边臣疆吏”国际学术研讨会综述
顾宏义	2007 4	《宋史·高丽传》史源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주요 논문의 요약

『동북사지』 (2004~2007년)
『중국변강사지연구』 (2002~2007년)

▶『동북사지』(2004~2007년)

• 東北史地 2004年

1기 [東北史地 2004年 1期]

1. 盈時興詣 · 與時偕行 · 與時俱進(本刊評論員, 『东北史地』, 2004－1)

1999년 改刊한 『학문』이 학술성 이론 잡지로 성격을 바꾸면서 본 호부터 이름도 다시 『東北史地』로 바꾸었다. 본 호의 「고고신론」에서는 JYM3319호 무덤에서 발견된 기와에 대한 최신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와당의 명문 중 "盈時興詣"는 퍽 흥미있는 부분이다. "시간의 추이에 맞춰 끊임없이 진전한다"는 뜻으로 강택민이 강조하는 "與時俱進"과 상통한다. "與時俱進"은 동북사지 연구에서 지켜야 할 사상 원칙이며 『東北史地』 잡지가 지켜야 할 창간 원칙이기도 하다.

2. 在"紀念高句麗遷都國內城(集安)2000周年暨第三屆全國高句麗學術討論會"上的講話(鄧凱, 『东北史地』, 2004－1)

올해는 고구려가 집안에 천도한 2000주년으로 고구려 문제의 학술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① "3개대표" 사상의 지도 하에 고구려 문제를 연구하며 ② 연구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며 ③ 연구 기관의 건설을 강화하며 ④ 고구려 지식의 보급 및 선전 사업을 강화하며 ⑤ 고구려 연구의 정보 교류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中國學者的高句麗歸屬研究評析(馬大正, 『东北史地』, 2004－1)

고구려 역사 연구에서 그 귀속 문제는 현재 최대 이슈의 하나인 동시에 여전히 심화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특히 연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① 箕子조선과 衛氏조선의 역사와 활동 지역에 대한 연구 ② 중국 고대 영역 이론 연구의 발전이라는 두 주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중 영역 이론의 연구에서는 특히 宗藩관계와 羈縻정책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외국 학자들의 중국 강역과 민족에 대한 연구에 보이는 많은 잘못에 대한 계통적인 소개 · 정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高句麗向朝鮮半島擴張始末(孫玉良 孫文範, 『东北史地』, 2004－1)

본 글에서는 고구려의 한반도 확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구려의 한반도 소유는 외부를 향한 군사적 확장을 통한 무력 정복의 결과로 고구려 민족은 한반도의 토착민족이 아니며 신라와 백제에게 고구려는

한반도 외부에서 온 침입자였다. 고구려의 반도 출현과 종결은 그 전후 시기와 어떠한 계승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외래 침입자의 실패한 공격이었다. 이는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의 하나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임을 증명하여 고구려 귀속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5. 高句麗政權的建立與發展(魏存成,『东北史地』, 2004－1)

고구려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설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前漢 孝元帝 建昭 2년(기원전 37년) 건국하여 668년에 멸망하기까지 28왕 705년간 존속한 것으로 본다. 고구려는 존속하던 각 시기별로 중원지역과 몇 차례 전쟁을 겪기는 했으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방면에서 시종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6. 高句麗的都城(李殿福,『东北史地』, 2004－1)

내용 : 고구려는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읍을 몇 차례 옮겼는데 본문은 문헌 사료와 고고자료를 이용하여 다섯 곳 도성(紇升骨城 · 國內城 · 丸都城 · 平壤城 · 長安城)의 위치, 건도와 흥망성쇠, 건축 양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紇升骨城은『삼국사기』의 卒本川과 같은 것으로 졸본천 지역 안에 흘승골성을 세운 것이다. 흘승골성과 졸본천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다수 학자들은「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 따라 흘승골성을 산성으로 보고 桓仁縣城 부근의 平川을 졸본(비문에서는 忽本)으로, 환인현의 玉女山城을 흘승골성으로 비정한다. 근래 일부 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환인현성 서쪽의 평원성인 "下古城"을 비문에 나오는 "忽本西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옥녀산은 해발 820미터의 높은 산으로 산성은 산 위에 있다. 동서가 짧고 남북이 비교적 긴 장방형으로 동 남 북 삼면의 담이 있는데 초기 築墻 양식의 石墻이다. 산세가 험준하지만 성 안은 평탄하여 건축이 용이하였다. 1대 鄒牟王(동명왕 주몽) 때 이곳에 도읍하여 궁전과 신묘를 세웠다. 유리왕 때 홀(骨+鳥)川에 별궁을 지었다고 하는데 홀과 忽本 卒本은 모두 한 가지 발음을 옮겨쓴 것으로 "하고성" 즉 "홀본서성"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흘슬골성은 瑠璃明王 22년(기원후 3년) 국내성으로 옮기기까지 40년간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다.

國內城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유리명왕 시기에 천도하였다. 현재의 집안성 石城의 옛터가 국내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래 집안 지역에 2세기 이전의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國內=不耐에 근거하여 한반도 북부 즉 漢代 嶺東 7현의 하나인 不耐城이 국내성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근래 발굴을 통해 집안 지역에서 2세기 이전의 유물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근거가 없다. 국내성은 원래 토성으로 침입이 있으면 험준한 尉那岩城(山上王 이후에는 丸都城으로 부름)으로 퇴각하였다. 고국원왕 12년 원래의 토성 위에 석재로 안팎을 보강하여 국내성은 석성이 되었다. 석성은 方型으로 동쪽 성벽은 554.7미터, 서쪽은 644.6미터, 남쪽은 751.5미터, 북쪽은 734.2미터로 성 둘레는 2685미터에 달한다. 남북 각 1곳, 동서 각각 2곳 총 6개의 문이 있으며 모두 옹성이 있었다.

국내성 북쪽 2.5킬로미터 지점의 산성이 丸都城으로 국내성으로 천도하면서 함께 축조한 국내성의 군사 衛城이었다. 산상왕과 고국원왕이 두 차례 여기에 도읍을 두기도 한 고구려의 세 번째 도성이다. 환도성은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산등성이를 따라 성벽을 쌓아 길이가 7킬로미터에 이른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발전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중심 역시 남쪽으로 향하여 427년 평양 부근의 安鶴宮성으로

천도하면서 환도성도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쇠락으로 가게 된다.

장수왕이 천도한 平壤城은 大聖山城과 산 아래의 안학궁성이다. 대성산성은 현재 평양의 동북 6~7킬로미터에 위치하며 대동강 북쪽 기슭의 산 위에 쌓았다. 성벽은 총 7218미터에 이르며 성 내의 면적은 2.7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남문 양 측면에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있으며 남북에 각각 1개의 성문이 있다. 종합적인 모습에서 대성산성과 환도성은 매우 비슷하다. 안학궁성은 610미터의 석벽을 둘렀으며 흙으로 틈을 메꾸었다. 성은 마름모꼴로 남북의 두 성벽은 동서로 향하고 동서의 두 성벽은 서로 3.5도 기울어있으며 높이는 4미터이다. 6개의 성문이 있는데 남쪽에 3개를 설치하고 그 중 중앙의 문이 가장 크다. 안학궁과 대성산성의 배치는 국내성과 환도성의 배치와 매우 비슷하여 평소에는 안학궁에 거주하다가 전쟁 시에는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하였다.

長安城은 고구려 최후의 도성으로 지금의 평양성 자리에 있었으며 평원왕 28년(586년) 천도하였다. 장안성은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 조건을 이용한 "平山城"으로 표주박형이며 남쪽이 크고 북쪽은 작다. 전체 성은 北城·내성·中城과 외성의 4개로 구성되며 23킬로미터에 달하는 고구려 최대의 도성이다. 각 성은 축조 시기가 달라 북성-내성-중성-외성의 순서로 쌓아졌으며 산 위와 평지에 축조되었으므로 "평산성"이라 한다. 장안성은 고구려 고유의 성벽 축조 방식의 분명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성내의 里坊 설계 역시 田 형태의 완비된 도시를 형성하지 못했다.

고구려의 천도에서 가장 고려한 점은 안전이었다. 고구려는 중원 왕조와 계속 마찰이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만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토를 확장하였던 광개토대왕 시기 천도가 없다가 장수왕 시기 천도한 것이나 장안성으로 마지막 천도한 것 모두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7. 關于高句麗中期都城幾個問題的探討(李健才,『东北史地』, 2004-1)

기원후 3년 고구려는 國內로 천도한 것이지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이 아니다. 기원후 3년 이전 국내(지금의 집안)에는 古城이 없었다. 현재의 집안 국내성 아래의 토성벽은 247년 국내(지금의 집안)에 세운 평양성이며 토성벽 위에 돌로 쌓은 성벽이 342년 세워진 국내성이다. 고구려는 기원후 3년 紇升骨城에서 국내(지금의 집안)로 천도한 이후 427년 평양성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425년간 국내(지금의 집안성)에 尉那岩城·丸都城·平壤城·國內城을 잇달아 건축하였다.

8. 高句麗遷都國內城及相關問題(耿鐵華,『东北史地』, 2004-1)

과거 북한 학자들과 2002년 중국 학자 劉子敏이 이설을 제기하였지만, 漢漢 平帝 元始 3년 10월(기원후 3년 11월)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는 것은 국내외 학자들이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올해는 정확히 고대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한 2000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 한 가치가 있다.

9. 集安禹山3319호 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張福有,『东北史地』, 2004-1)

집안 JYM3319호 무덤은 중요한 古墳이다. 무덤 축조 방식이 특이하며 무덤 곁에는 돌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고 東晋의 자기가 출토된 적이 있으며 1962년과 1983년 각각 구름 무늬에 銘文이 새겨진 기와의 마구리[瓦當]가 출토되어 특별히 주목을 끌었다. 2003년 민간에 소장되어 있던 위 무덤에서 출토된 구름무늬에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새로 발견되었다. 필자는 이를 이전에 출토된 두 기와가 함께 분석하여 기와 명문의 완전한 해독에 성공하여 묘주 및 그 가족 등 문제의 연구에 신뢰할 만

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丁巳년 와당은 기존의 고구려 와당과는 다르며 중원 문물의 성격이 농후하다. JYM3319호 무덤은 고구려의 왕릉이 아니며 晉에서 고구려의 관리로 임명한 한인 "中郎 및[及] 부인"의 무덤이다. 예전에는 묘주가 355년(乙卯年)에 죽어 357년(己巳年)년에 매장한 것으로 추측했으나 중랑과 부인의 합장묘인 것이 밝혀진 이상 355년과 357년에 각각 사망하여 그 해에 매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무덤은 축조 연도와 위치에서 볼 때 고국원왕이나 소수림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고국원왕의 허가와 지지가 있었기에 이 곳에 축조될 수 있었다. 묘주와 부인의 성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0. 關于確認高句麗歷史地位的三要素(王綿厚, 『东北史地』, 2004－1)

고구려 민족은 대대로 "長白山南係" 압록강 양안에 살았던 華夏"東夷" 계통의 고대[古老] 민족으로 민족의 주체는 중국 요동의 渾江 압록강 太子河 蘇子河 상류에 있었으며 그 시조는 주몽이다. 서한 시기 "낙랑"과 "현토군"이 되었으며 "단군"설화는 "건국 설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역사가 아니다.

11. 好太王碑碑文解說(方起東, 『东北史地』, 2004－1)

광개토대왕비 및 중국에 소장된 탁본을 소개하고 각계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광개토대왕비문에 대한 새로운 해독을 진행하였다. 광개토대왕비의 가장 좋은 탁본으로 여겨지는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중 C탁본("석회 뜨기 이전 탁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기존 판독 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 ① 제1면 제3행 27번째 글자는 "天"자로 "天遣黃龍來下迎王"이 되며 "因"자가 아니다. ② 제1면 제7행 24번째 글자는 "貧"으로 "過富山·貧山, 至鹽水上"이며 "過富山, 負山至鹽水上"이 아니다. ③ 제1면 8행 25번째 글자는 "狩"으로 "五備狩" 즉 다섯 차례 정비하여 순수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獵"으로 해석했는데 근거가 없다. ④ 제1면 11행 23번째 글자는 "介"로 "介而耶羅城"이며 과거 "分"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⑤ 제2면 2행 11번째 글자는 "民"으로 "岩門民城"이 된다. ⑥ 제2면 6행의 29번째 글자는 "聆"으로 "朝貢聆事"이지 "朝貢論事"가 아니다. ⑦ 제2면 9행 34번째 글자는 "晨"이다. ⑧ 제2면 10행의 32에서 35번까지의 글자는 "得其□九"으로 得자와 九자는 탁본에서 새롭게 식별한 것이다. ⑨ 제3면 2행 19·20번째 글자는 "聆事"로 과거 "朝貢"이나 "論事"로 해석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 즉 "昔新羅寢錦未有身來聆事"이다.

12. 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叢文俊, 『东北史地』, 2004－1)

현재 광개토대왕비의 가장 좋은 탁본으로는 水谷悌二郎 소장본과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중 C탁본이 손꼽힌다. 광서 28년 이후에는 석회를 바른 후의 再拓本이 널리 퍼졌으며 1963년 이후에는 석회가 떨어진 후의 재탁본이 유행하였다. 현재 집안박물관에는 3종의 탁본이 있다. 비의 서체에 대해서는 과거 古隸體라는 설이 주로 채택되었지만 진 簡牘의 발견 이후 더 이상 고예체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東晋隸書" "魏碑" 등의 설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舊體銘石書"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며 이는 서법을 숭상하지 않았던 고구려가 중원 서법의 흡수에 느리고 실용성을 가장 중시한 점과 관련이 있다. 또 대왕비의 서체가 고졸한 것에는 사용된 석재가 화산암과 기타 암석 파편의 혼합물로 장인들이 정세하게 刻字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민족 문화 융합의 거시적 관점에서 광개토대왕비와 十六國北朝의 刻石書法을 묶어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근접한 것 외에도 그 내재적인 연계와 깊은 함의를 가진 것으로 명확한 비교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 탁본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서법사의

계통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소수민족이 어떻게 서서히 한화되었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고구려와 십육국은 작품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며 발전 노선도 서로 가깝다. 한화의 정도 면에서 고구려와 십육국 그리고 平城 시기의 북위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좋은 조건 비교와 유사한 내재적 논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장춘에서 열린 "광개토대왕비 및 십육국북조 각석 서법 학술토론회"는 고구려와 십육국의 두 개 주제가 별도로 진행되었지만 민족 문화 융합 속의 서법 예술에 대한 총체적 주목을 잘 보여준다.

13. 高句麗鎏金鏤空馬飾圖案藝術解析(王紀 王純信,『东北史地』, 2004－1)

고구려가 남겨 놓은 鎏金鏤空馬飾圖案은 당시 고구려 민족의 군사·생산·문화적 상황과 종교 신앙 및 심미 풍속을 대표한다. 그 중 비교적 많이 사용된 "忍冬무늬"도안·"方勝盤長"도안·"山形幾何"도안 등은 모두 중원문화에서 기원하였다. 동시에 고구려 문화는 또한 이후의 만주족·조선족·赫哲族·몽고족 등 소수민족에 크고 깊은 영향을 끼쳤다.

2기 [東北史地 2004年 2期]

1. 以求眞務實精神研究東北史地問題(본 잡지 평론원,『东北史地』, 2004－2)

"진실을 추구하고 실상에 힘쓰는 것(求眞務實)"은 후진타오 동지가 총서기를 맡은 이후에 당 전체에 요구하는 새로운 중요원칙이다. 동북지역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 隋唐征伐高句麗芻議(厲聲　李方,『东北史地』, 2004－2)

고구려는 항시 중원의 속국이었고 수당의 고구려 정벌은 할거세력을 제거하고 邊境지역의 안정과 천하질서의 바른 뜻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3. 試論遼金元淸的政權屬性－兼評所謂"中國征服王朝"論(田子馥,『东北史地』, 2004－2)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외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중국정복왕조"론에 반박한다. 요, 금, 원, 청 등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정권은 중화일체의 국가정권이고 이들이 중원에 들어와 통치자 역할을 한 것은 특수한 "북아시아" 현상이 아니라 한족 문화의 내부 흡수력이 발휘된 결과로 이는 중국의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된 결정체이다.

4. 集安作爲高句麗都城的考古學證明(耿鐵華,『东北史地』, 2004－2)

고구려가 기원후 3년에 도성을 紇升骨城에서 國內城으로 옮겼고 집안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이 되었다.

5. 關于高句麗歷史研究的機个問題(劉子敏,『东北史地』, 2004－2)

고구려의 민족기원 문제, 역사지리문제, 관련 사료의 분석과 사용문제는 현재 고구려연구에 있어 중시해야할 3가지 문제이다. 고구려의 민족기원은 첫 번째 高夷, 두 번째 夫餘, 세 번째는 貊人이지만 후대 역사 사실을 볼 때 漢族이 가장 큰 민족 기원이 되며 沃沮, 挹婁, 거란, 백제, 신라인 등의 일부도

고구려에 포함되었다. 고구려 옛 지역과 그 선조인 고이, 貊國, 小水貊, 梁貊, 졸본부여의 분포구역은 처음부터 遼東郡 관할하에 있었고 이 지역이 요동군에 포함된 것은 전국시기 燕나라 昭王 집권 말기이다. 고구려 5部의 지역은 고구려민족의 초기 분포지역으로 제2현토군의 전체지역을 포함한다. 고구려가 낙랑, 대방, 제3현토군과 요동군을 점령하고 이후 평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정치 중심은 이동했지만 5부는 여전히 유지되며 고위 관리와 무관을 배출했다. 관련 사료 분석에 있어 고조선 관계사료, 고조선과 고구려 관계사료, 眞番 관련 사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6. 關于古代中朝邊界北移的考述－兼論中國皇帝三次"賜土"(越紅梅, 『东北史地』, 2004－2)

고대시기 조선반도 북부는 일찍이 중국의 영도였지만 이후 조선의 영토가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되었다. 이는 그들의 "북진정책"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황제의 "賜土"와도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사토는 기원후 735년 唐 玄宗의 "勅賜浿江(지금의 大同江)以南地"를 신라에게 준 것이다. 두 번째는 기원후 993년에 遼 聖宗이 "詔取女眞鴨綠江東數百里地"를 고려에 준 것이고, 세 번째는 기원후 1404년 明 永樂帝가 조선의 요구에 동의해 조선반도 동북 열 곳의 女眞 지역을 이씨 조선에 준 것이다.

7. 好太王碑釋讀一見(方起東, 『东北史地』, 2004－2)

호태왕비 비문을 서체로 구분해 보면 "舊體銘石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자 획수를 늘리고 이어진 획을 끊어서 썼으며 굽은 것을 곧게 펴고 둥근 형태를 각이 지게 고쳐 써서 手寫體보다 단정하고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고대 흘림체를 고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수의 異體字들이 생겨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글자는 제1면 8행의 한 글자와 제1면 11행의 한 글자이다.

8. 卒本城何在(王從安 紀飛, 『东北史地』, 2004－2)

졸본성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간 여러 종류의 설명이 있었다. 문헌을 통한 고증과 현장 조사를 결합해본 결과 喇哈城 遺址가 아마도 졸본성유지라고 생각된다.

9. 中國高句麗史研究的新收穫－評〈中國高句麗史〉(張碧波, 『东北史地』, 2004－2)

耿鐵華 선생이 쓴 『중국고구려사』는 2002년 길림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본 책은 고고학과 역사문헌학의 내용을 결합하여 고구려국가 역사를 썼다는 특징을 갖으며 중국고구려사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10. 着眼史料建設 惠及學界同仁－談 『三國史記』『三國遺事』兩書(校勘本)的出版(秋實, 『东北史地』, 2004－2)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교감본이 吉林文士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이것은 중국 역사학계의 고구려 역사와 조선반도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1. 回眸柳條邊(于濟源, 『东北史地』, 2004－2)

淸朝는 북경에 수도를 정한 이후 만주족의 발흥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柳條邊을 43년에 걸쳐 건설했다. 이것은 "老邊"과 "新邊"으로 나뉘는데 각각 1900리와 690리에 달한다. 유조변의 설치와 封禁은 장백산

지역의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12. 長白山的五道坡口與八大綠洲(安龍禎,『东北史地』, 2004－2)

장백산의 懸雪涯, 軟石崖, 伏龍崗, 汨石坡, 華盖峰, 乘槎河, 鐵壁綠洲, 仙阜綠洲 등을 답사함.

3기 [東北史地 2004年 3期]

1. 探史尋地 求個究竟(本刊 評論員,『东北史地』, 2004－3)

본 호에 실린『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新國"與"故國"簡析』『沸流國探秘』등 문장은 역사 지리 상의 문제를 찾아 낸 것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결론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학술상의 민주주의를 발휘하고 백가쟁명을 전개하는 것이다.『爭鳴園地』는 본 잡지의 중요한 상설 항목으로 동북 문사 고고학계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사와 지리를 찾아 내는 올바른 결론을 추구하는 것, 이런 정신과 기세가 있다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그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歷代漢族移民對高句麗經濟的影響(姜維公,『东北史地』, 2004－3)

고구려의 자연 환경은 "거산과 계곡[大山深谷]"이 주를 이루었다. 자연 법칙의 발전에 따른다면 이런 지방 정권의 경제는 어로와 수렵 색채를 강하게 띠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경제는 확실히 농업 위주였으며, 이는 한문화의 전파에 유리하였다. 한족 인구의 대량 유입 및 중원 왕조가 만주[東北]에 세운 행정 기구는 한문화 유입의 주요 방식이었다.

3. 高句麗貨幣經濟研究(李成 張淑華,『东北史地』, 2004－3)

고구려 사회가 계속 자연경제 단계에 머물렀다는 관점을 잘못된 것으로 고구려 사회 중기에 이미 자연 화폐[物幣] 경제 단계에 진입하고 후기에 이르면 상업 활동에서 화폐를 병용하기에 이르렀다.

4. 清代東北建制的特點(姜守鵬,『东北史地』, 2004－3)

청 왕조가 만주에 제도를 세운 것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청이 입관하기 전 만주를 통일한 시기로 八旗 제도를 실행하여 旗가 행정을 대리하였다. 두 번째는 입관에서 光緒帝 말년까지로, 3명의 장군이 만주를 관할하였으며 동북 삼장군은 만주의 군제와 정무를 통합 관리하는 동시에 중앙이 동북에 설치한 기구를 함께 관리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광서 33년 만주에 3省을 설치하고 각 성에 각각 旗務司와 蒙務司를 설치하고 새로 몇 개의 分巡兵備道를 두었다.

5. 關于中國古代民族內外遷徙及其歸屬問題(趙永春,『东北史地』, 2004－3)

중국 역사상 민족의 이주[內遷外徙] 현상은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민족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변강 역사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이다. 본 글은 고대 민족의 중원 이주와 중원민족의 외부 이주의 성격과 귀속 기준 문제에 대해 심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각 민족의 정권 수립 여부 및 그 건국 시기가 외부에서 옮겨온 민족의 귀속에서 중요한 기준임을

밝혀 관련 연구에 비교적 과학적인 근거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6. 東北邊疆歷史分期芻議(傅朗雲,『东北史地』, 2004－3)

본 글은 사료에 기초하여 중국[我國] 만주 변강의 역사를 네 개 시기로 나누어 邊疆·邊界·族界·國界의 형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邊疆의 출현, 邊界의 형성, 族界 간의 갈등, 國界의 劃定 및 그 변화 과정을 거쳤다. 동북 변강 역사의 분기는 가장 전형적이자 대표적인 것이다. "탁록의 전투"는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釜山이나 집안의 "丸都之山"은 黃帝가 東巡한 곳으로 황제 관할의 東疆이나 기록 사료가 없다. 堯시기 조선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치수를 맡았다고 전해지는 禹의 아버지 鯀는 단군 신화의 환웅이 곤임을 암시한다. 순은 동북에 대한 관할을 강화하였으며 요순우 기록에 보이는 發 숙신 조선 州胡는 모두 중국 遠古古國古族연합체의 구성원이었다. "만국연맹"의 "公天下"는 "夏氏革命"으로 끝나고 禹 이후 "家天下"의 역사 시기로 접어든다. 전국시기는 동북변강 역사의 中前期를 이루게 된다. 진의 통일을 거쳐 한대에 접어들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도 한 왕조 관할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된다. 남북조시기 중국이 분열 상황에 처하면서 진한시기의 중국 각 민족의 국가들은 평등한 지위를 이루게 된다.(하편 이어짐)

7. 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李新全 梁志龍 王俊輝,『东北史地』, 2004－3)

遼寧省 桓仁縣 下古城 子古城과 集安市 국내성 석벽 하단의 토성은 漢族이 세운 성이나 縣이 아니며 한 문화의 영향 아래 고구려 민족이 스스로 축조한 토성이다.

8. "新國"與"故國"簡析(曹德全,『东北史地』, 2004－3)

고구려 연구 중 항상 보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고국"과 "신국"이다.『삼국지』에서 말하고 있는 신국은 환도산성과 국내성의 合稱이며 고국은 위나암성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훗날 도성의 천도에 따라 고국과 신국이 가리키는 장소에도 변화가 생겨 고국원왕과 고국양왕 시기에 이르면 고국은 환도산성과 국내성을 말하게 된다.

9. 簡論建國以來東北古文獻的整理與研究(李德山,『东北史地』, 2004－3)

본 글에서는 신중국 건국 이후 55년간 만주 고문헌의 정리 연구 상황에 대해 檔案문헌·전적문헌과 금석문헌(잡지문헌 부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연구 논술을 진행하는 한편 餘論 부분에서 만주 고문헌 정리 연구의 특징에 대해 총괄 정리를 하였다.

동북 고문헌의 정리 연구 사업이 선명한 지역적 특생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① 식민지 문화의 잔재를 소탕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없애야 한다: 러시아와 일본 어용학자들은 침략 목적의 달성을 위해 "滿鮮史" 같은 왜곡된 이론과 관점을 제기하여 아직까지도 전세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② 동북 고문헌은 그 생산 발전 축적 면에서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고 수량도 작으며 정리연구 사업도 중원·강남·서남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각종 민간 문헌 자료의 수집은 80년대 이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족보와 민간 문학 작품의 수집을

통해 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10. 好太王碑銘三個地名今址考析(徐德源,『东北史地』, 2004－3)

광개토대왕비의 비문 중에는 "來□城" "彌鄒城" "大山韓城" 등 지명이 나오는데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현재의 지리 구획과 결합하여 본다면 "來□城"는 "來遠城"(현재의 요녕성 鳳城縣 지역), "彌鄒城"은 경기도 인천으로, "大山韓城"은 충청도 鴻山으로 비정할 수 있다.

11. 關于毛口崴渤海鹽州的歷史地位與作用(安龍禎,『东北史地』, 2004－3)

모구외는 "중국" 당대 발해국의 "日本道"의 육로 종착점이자 해로의 시발점으로 옛 발해국 동경 용천부 관할 하의 행정 중심이자 항구 도시인 염주의 소재지인 동시에 고대 중국 북방 대외무역의 "해상 실크로드"이다.

12. 蒙古高原邊墻考(李丕華,『东北史地』, 2004－3)

『金史·地理志』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쪽으로 태주에 돌아 들어가 포노화가 구축한 국경 해자[右旋入泰州婆盧火所浚界壕]"는 오늘날의 大興安嶺의 두 초원 지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만주는 동북쪽 根河 지류인 庫力河畔 부근에서 시작하여 서남으로 鄂嫩河의 원류에서 멈추고 있는 고대의 변강 장벽이다.

13. 沸流國探秘(高於茂,『东北史地』, 2004－3)

장백산 지역에 있었던 비류국의 위치를 비정한 결과 비류수는 渾江, 비류국은 通化市 通化縣 快大茂鎭의 赤柏松古城이다. 비류국은 고대 동북의 3大 종족 계통인 肅愼·東胡·濊貊族이외의 대종족 중 하나인 商人이 남쪽으로 천도할 때 남겨진 후에였다.

14. 學術研究要帶有使命感和責任感(秋實,『东北史地』, 2004－3)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보급형 독서물 형태로 편찬한 『길림변강사지총서』 중 『고구려역사지식』은 고대 소수민족 지방 정권인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발전 양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고구려의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일부 간부와 군중의 고구려에 대한 역사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동북 변강 역사 연구과 선전 보급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5. 『國學備覽』시디롬 출판 발행

북경 國學時代文化傳播주식회사가 연구 제작하고 상무인서관국제주식회사가 출판한 "국학경전문고 시리즈"의 첫 번째 시디인 『國學備覽』이 정식으로 시장에 나왔다. 본 시디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사와 각계 의견의 수렴을 통해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81종 경전 명저를 수록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도 검색·복제 등 기능 외에도 한어사전을 수록하여 어떠한 한자도 클릭 한 번으로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문 읽기를 어려워 하는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4기 [東北史地 2004年 4期]

1. 在結合中創新(본 잡지 평론원,『东北史地』, 2004－4)

동북의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데 있어 "結合"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의 결합, 문헌연구와 문물유적조사의 결합, 지도자 및 전문가와 대중과의 결합이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를 중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2. 構建理論體系 提高研究水平－重讀胡喬木致黎澍便函的聯想(宋德金,『东北史地』, 2004－4)

중국 동북 영토주권과 요, 금, 원, 청나라 역사 연구에 있어 세계학계에는 남북대립론, 이민족통치론, 변경지역의 中國無主權론, 정복왕조론, 문화주권론, 국사중심론, 기마민족론 등의 이론이 있다. 중국도 "중화일체", "多元一體格局" 등의 이론이 있지만 앞으로 학문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이론을 새롭게 구상하고 해외학자와 교류해야 한다.

3. 集安良民高句麗遺迹調查(吉林省長白文化研究會 集安市博物館,『东北史地』, 2004－4)

집안양민은 국내성 동북지역 중 가장 큰 평원으로 다수의 고구려 古墓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벽, 혹은 석벽으로 만들어진 고구려 古城도 하나 있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보면, 이 고성이 바로 고구려 西川王이 두 번이나 순행하였고 烽上王이 "避賊"했던 곳으로 이른바 "國之東北大鎭"이라는 新城이다. 동시에 이 성은 아마도 東川王이 건설했다는 平壤城인 것으로 보인다.

4. 高句麗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卽國之東北大鎭－新城(張福有,『东北史地』, 2004－4)

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성은 지금의 조선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또한 집안에 있는 국내성도 아니며 바로 집안양민의 고구려 고성이 그것이다. 이 고성이 바로 "國之東北大鎭"으로 동천왕 21년(247년)에 만들어졌다.

5. 簡論唐麗戰爭中的唐羅同盟與麗濟同盟問題(祝立業,『东北史地』, 2004－4)

唐 왕조는 7세기 건립 이후, 중원지역의 형세가 안정됨에 따라 동북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고구려를 통합하는 정책을 확립한다. 당 왕조의 對 고구려전쟁 중 이와 관련된 각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唐羅동맹과 麗濟동맹이 출현하게 되었다. 당시 백제, 신라, 고구려는 명의상으로 모두 당 왕조의 藩屬國이어서 이것은 唐羅同盟이 顯性同盟(겉으로 드러내는 공식적인 동맹), 麗濟同盟이 隱性同盟(실제적인 동맹이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동맹)의 형태를 띠게 했다.

6. 元朝對東北地區高麗人統轄探析(程尼娜,『东北史地』, 2004－4)

원나라는 遼陽行省 지역으로 들어온 고려인에 대해 족속을 모아 따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할했다. 이에 高麗軍民萬戶府, 高麗軍民總管府이 설치되었고 元末까지 유지되었다. 원 세조시기 至元 7년에서 27년 사이 元의 영역이 일시적으로 조선반도 중부까지 확장되자 옛 고려 서북부에 東寧路(처음에는 東寧府)를 설치하고 귀부한 고려민을 통치했다. 원은 고려 관원을 이용해 현지 습속에 따른 통치를 하여 고려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통치를 실현했다.

7. 桓仁米倉溝將軍墓所葬何人(寧會學,『东北史地』, 2004－4)

요녕성 桓仁縣 雅河鄕 米倉溝에 고구려 대형 封土石室墓가 있다. 고고학 발굴 내용에 따르면 이는 왕족의 묘이다. 墓主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고문헌에 대한 고증과 묘의 벽화 및 출토문물을 분석해보면 米倉溝 將軍墓는 고구려 18대 故國壤王과 그 왕후의 합장묘이다.

8. 論遼南地區偏堡類型因素(張翠敏,『东北史地』, 2004－4)

偏堡類型은 遼中區의 토착문화이다. 길림, 흑룡강 중부 평원지구와 遼南 연해 지역에 편보유형문화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편보유형의 전파와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완전한 계승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문화와 합쳐져 遼南지역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9. 東北邊疆歷史分期芻議(續)(傅朗雲,『东北史地』, 2004－4)

중국 동북변강지역 역사는 邊疆, 邊界, 族界, 國界가 각각 확립, 변화되는 과정이다. 肅愼國이 출현하여 遐夷, 大和, 沃沮, 新羅 등과 민족적 경계를 이루는 것이 族界의 대표적 모습이다. 遼, 金, 元 성립이후 동북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러시아 등과 國界를 이루었다.

10. 東北論－中國時空感知下的東北(上)(張未民,『东北史地』, 2004－4)

동북지역은 중국에 있어 關外지역이다. 관외지역은 예부터 풍속이 다른 곳으로 묘사되곤 했다. 하지만 중국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중국의 시공간은 모두 중국인의 고향과 같기 때문에 동북지역도 중국인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동북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가리키는 지역이 달랐지만 이는 끊임없이 확장해 오늘에 이른다.

11. 讀『高句麗古城研究』(魏存成,『东北史地』, 2004－4)

王綿厚 선생이 지은『高句麗古城研究』은 국가문물국"95"邊疆考古規劃 프로젝트의 성과로 2002년에 문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총 12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緖論, 2장은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그 고고학적 문화, 3장은 고구려 성읍제도와 山城, 4장은 고구려 초기, 중기, 말기의 도성, 5장, 6장, 7장과 8장은 하나의 단원으로 고구려고성 자체의 고고발굴 자료를 정리했다. 9장, 10장, 11장 역시 하나의 단원으로 문헌기재 내용과 고고학적 증거를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마지막 12장은 고구려고성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그것과 고구려민족, 정권의 발전 관계를 정리했다. 또한 고구려 고성에서 보이는 漢과 鮮卑문화의 요소를 찾아 분석해 20세기 고구려 고성 발견과 연구의 과정을 총정리했다. 본서는 고구려 고성 연구에 있어 첫 번째 전문 저작이다.

12. 殊途未必同歸 存異或可求眞－讀中韓學界兩部高句麗史研究最新代表作(權赫秀,『东北史地』, 2004－4)

耿鐵華 선생의『中國高句麗史』와 한국학자 申瑩植선생의『高句麗史』는 고대 고구려와 관련된 최신의 通史性 저작으로 양국 학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철화의 저작은 고구려는 한나라의 郡國병행제도하의 지방정권으로 발전과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화대일통의 관리와 영향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형식의 저작은 고구려는 중국소수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 결코 아니고 그 자체가 천하대제국이라고 주장한다. 두 연구업적의 내용을 볼 때 경철화의 저작이 더욱 종합적이며 자세하다. 두 가지 연구 방식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실을 추구한다는 유일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 話說車軲轆菜(張常信,『东北史地』, 2004－4)

車軲轆菜의 學名은 車前草로 일반적인 야생식물의 일종이며 동북지역에 넓게 자생하고 있다. 장백산의 거주민들은 이것을 牛舌草라고 부른다. 이것은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실생활에서 갈증을 달래는 음식물이 되기도 했다.

5기 [東北史地 2004年 5期]

1. 在調研中解惑(本刊評論員,『东北史地』, 2004－5)

동북 역사 연구에는 적지 않은 의문점과 난점이 존재한다. 본 호에서 평양은 본래 산간평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평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新城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역사지리에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문헌 연구의 결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張未民 동지와 왕면후 선생의 논문은 역사지리 연구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부여문제초탐』은 연구의 공백을 파고들어 연구를 전개한 것으로 올바른 연구 노선을 보여준다. 이건재 선생의 논문은 원대의 신뢰할만한 실물자료를『元史』의 기록과 결합하여 신뢰할만한 綜述을 작성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의문점을 풀어주었다. 장벽파 선생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게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몇 편의 문장들을 꼭 일독하기 바란다.

2. 東北地區的元代遺址遺物綜述(李健才,『东北史地』, 2004－5)

본고는 원대 만주지역의 성터 및 각종 기물에 대한 고고학 상황에 대해 종합 보고로 이런 옛 터와 문물은 원대의 사회·경제·문화와 각 민족 인민들의 경제·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에 진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만주의 원대 성터로는 上都故城·應昌路故城·黑山頭古城·塔子城·大寧路故城 등이 있다. 원대 遺址와 창고로는 新民縣 前當鋪 원대 유지·開原老城鎭 원대 창고 문물·내몽고 적봉 大營子 원대 창고 등이 있다. 원대 만주의 중요 비각에는『魯國公札勒爾公神道碑』·『管軍上百戶張城墓碑』·『薊國公張應瑞墓碑』·『喀勒沁旗元代龍泉寺의 두 석비』·『管民千戶之印』·『管水達達民戶達魯花赤之印』·『鎭寧州諸軍奧魯印』등 있다. 만주에서 발굴된 원대 무덤들은 석실이나 塼築墳의 單室墓가 대부분으로 부장품 역시 요금 무덤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는 원대 귀족의 생활과 몽골 사회 풍습의 특징 복식 등을 연구하는 데에 얻기 어려운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先秦時期中國東北三大土著族係及考古遺存新論(王綿厚,『东北史地』, 2004－5)

선진 시기 만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3大 토착 종족의 文化區는 요하 중상류의 先秦燕亳집단, 서해 발해만 북안과 동해[日本海] 서안을 둘러싼 동이"예맥"집단과 장백산 북쪽[北係]의 숙신집단을

포괄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통설에서 말하는 3大 종족계통 중의 東胡계 문화는 뒤에 생겨난 문화로 결코 만주[中國東北]의 가장 최초의 토착 민족이 아니다.

4. 鴨綠江上流右岸考古調查(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白山市文管辦　集安市博物館, 『东北史地』, 2004－5)

압록강변의 樺皮甸子는 고구려의 동북 거점이었던 新城 集安 良民 동쪽의 대평원 중의 하나로 이곳을 중심으로 고구려 옛 성과 고분군 가마터 부두 등의 중요한 유적지가 있다. 2004년 압록강 우안의 고구려 유적인 河南屯遺址·東甸子고분군·干溝子고분군·二十一道溝중요유적지 및 일부 거주지 등 20여 곳의 유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많은 흔적들을 볼 때 樺皮甸子 고성이 고구려 평양 동황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高句麗平壤東黃城考(張福有, 『东北史地』, 2004－5)

고구려 평양 동황성은 현재 북한의 평양성 동쪽이나 집안 국내성의 동쪽이 아니라 집안 양민 고구려 고성(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성)의 동쪽 즉 오늘날의 길림성 臨江市 六道溝鎭 樺皮甸子에 있었다.

6. 高句麗名義考(楊軍, 『东北史地』, 2004－5)

고구려라는 단어는 종족명으로 중국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중국어의 글자 뜻에서 고구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주몽이 속했던 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사군 설립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고구려족에서 나온 것이다. 주몽이 속한 부보다 빨리 고구려는 맥 계통 민족의 한 지파였다. 고구려는 "貊"이라는 일족에 대한 일종의 음역으로 같은 종족을 사서마다 다르게 음역된 것을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7. 論中國歷史上少數民族政權性質的界定標準－兼談高句麗政權的性質(劉炬, 『东北史地』, 2004－5)

중국 역사상의 소수민족 정권의 성질을 확정짓는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변강사 연구에서 줄곧 곤혹스러운 중대한 문제이다. 주권과 통치권[治權]의 본질 및 이를 중국 봉건사회의 모델 속에서 심화 탐구한 기초 위에서 볼 때 중원왕조에 대한 稱臣과 그 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수민족 정권의 성질을 확정짓는 근본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역사상의 특수한 예, 즉 지방제 할거 정권의 특징에 대해 분명히 밝혀내고 중국 동북 역사 속의 고구려 정권은 전형적인 소수민족의 지방할거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8. 論中原王朝對高句麗政策的思想基礎(姜維東, 『东北史地』, 2004－5)

역사 문헌에서 볼 때 중원 왕조의 고구려 민족에 대한 정책은 通好·冊封·責讓·정벌 등등이 있었으며 이런 집행 정책을 하나로 포괄하여 기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중원왕조의 주변 부족에 대한 기미정책은 중화"대일통" 사상을 기초로 한 것이다. "대일통"사상은 중국 특유의 정치사상으로 농업사회 특유의 폐쇄적 관념으로 중화민족의 천년 이상 변하지 않는 응집력을 제공하였다. 이는 주변 민족과 중앙의 관계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한 특징이 있다.

9. 夫餘問題初探(邵蔚風,『东北史地』, 2004－5)

부여의 도성은 지금의 길림시 부근에 엄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의 北華대학 맞은 편의 높은 산이 "尸之國南山上"이었다. 부여는 이미 노예제 사회의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였다.

10. 東北論－中國時空感知下的東北(下)(張未民,『东北史地』, 2004－5)

동북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국시공의 거시적 실마리 관찰을 통해 ①중국 시공 관계의 변천 중에 동북은 중국 역사의 뒷무대였으며 ②"중국"국가 관념의 시공 시야 속에 동북의 남으로의 발전이라는 중국화取向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다시말해 중국 내지 "중심화"의 흡수력과 천하 법통의 수립 관념 등에 의해 동북 민족은 중국과 동질감을 형성했다. ③동북 민족의 중국으로의 돌입은 중국시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④동북이 중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원의 중국은 만리장성을 통해 대응하기도 했다.

6기 [東北史地 2004年 6期]

1. 整合研究 大有可爲(본 잡지 평론원,『东北史地』, 2004－6)

두가지 학문 분야의 내용을 결합하여 연구하는 방식은 현재 학계에 매우 필요한 방식이다. 이것은 새로운 추진력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難題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각 학문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하며 연구자가 해당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를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2. 關于渤海史研究的機点思考(張碧波,『东北史地』, 2004－6)

발해사 연구를 위해 ① 발해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강화, ② 고고학과 문헌학의 종합적 연구 강화, ③ 사료 판별 능력의 제고, ④ 학술연구 영역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3. 再論高句麗遷都到國內以前有無漢代縣城的問題(李健才,『东北史地』, 2004－6)

"國內"지역에서 고구려 정권이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인 戰國, 漢代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를 한대의 不而縣城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대의 不而城은 樂浪郡 지역내에 있지만 지금의 집안 국내성에서 발견되는 토성은 낙랑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 국내성에서 발견된 토성은 기원후 247년 고구려가 국내지역에 건설한 평양성이다.

4. 關于高句麗史研究中的幾個問題(都興智,『东北史地』, 2004－6)

역사상 두 개의 고구려가 존재한 적은 없다. 주몽의 건국은 단지 한차례 고구려 부족 내부의 권력이 교체되는 것이다. 고구려 건국신화는 믿을 수 없으며 각종 사료에 보이는 升骨城, 丸都城 등 초기 고구려 도성들은 그 대부분이 집안 국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5. 從紇升骨到國內城人地關係的歷史思考(周向永,『东北史地』, 2004－6)

고구려 정권의 첫 번째 천도는 겉으로는 掌牲薛支가 제사에 쓸 돼지를 잡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땅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된 것이다. 흘승골 지역은 험준한 산지로 경작지가 적었지만 국내성 지역은 경작지로 쓸 수 있는 평지가 많았다. 또한 흘승골은 山城 규모도 작고, 배후지가 넓지 못하며 물산이 풍부하지 못했던 반면 국내성 지역은 넓은 배후지를 갖고 있고 東川, 中川, 西川 등 경제활동에 적합한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차이가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고구려 정권이 천도를 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6. 中國東北史研究的回顧與展望－訪著名東北史研究專家李健才先生(南珊,『东北史地』, 2004－6)

동북사 연구가 현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분산된 동북사 연구 인력을 집중시켜 상호 협력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긴 안목을 갖고 장기간의 연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한다. 세 번째, 연로한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신진연구진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출판된 각종 연구업적을 번역하고 소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연구 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7. 試論兩漢魏晉時期的玄菟郡(薛海波,『东北史地』, 2004－6)

兩漢魏晋시기 동북지역에 설치된 현토군은 그 관할 지역이 점차 축소되어 서쪽 혹은 남쪽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보였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토군은 고구려, 부여에 대해 지배관계를 갖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군사적으로는 고구려 등 소수민족을 제압하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8. 試論清代東蒙古地區的商業發展(穆崇臣,『东北史地』, 2004－6)

청대 동몽고 지역의 상업은 큰 발전을 거두어 당시 다양한 형식의 상업이 존재했다. ① 商帮무역－정부의 지원하에서 晋帮, 京帮, 河北帮 등의 지역 상인이 주도하는 상업 ② 寺廟무역－불교사원이나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업무역 ③ 邊市무역－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④ 通貢무역과 官市무역－조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상업무역 ⑤ 밀수무역－정부가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밀수무역

9. 樂浪郡與 "三韓"(苗威,『东北史地』, 2004－6)

낙랑군은 삼한지역의 漢文化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로 한반도에서 漢字와 漢語를 유행시켰다. 두 번째로 삼국의 건국신화 중에 중국 역사 문화적인 요소가 많고 韓人도 용과 白鹿을 숭배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삼한의 종교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三韓사이에 존재하는 事大思想과 農本思想 역시 낙랑군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10. 論李氏朝鮮(1392～1910年)的事大國策(肖瑤,『东北史地』, 2004－6)

사대정책의 개념－14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공손, 경제적으로 의존, 군사적으로 의지, 문화적으로 중국을 배워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 경제적인 원조, 군사적인 보호, 문화적인 교화 등의 이익을 얻는 기본 정책이다. 사대정책의 특징－① 외교형태를 띤 비밀관계, ② 이론상으로 풍부한 발전을 이룸, ③ 내용상으로 정치적인 것이 주된 내용임, ④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국가정책임, ⑤ 조선과 중국의 宗藩체제 안정의 전제와 기초가 됨, ⑥ 理性戰勝感性의 선택, ⑦ 주관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대정책의 원인－① 조선이 종주국의 비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② 小國, 弱國인 조선은 국력이 약해 대국, 강국에 대항할 수 없었다. 사대정책의 내용 -① 정치면: 조선은 중국에 보내는 문서에 별도의 글자를 사용하고 궁녀, 환관 등을 바치며 설날과 중국 황제 생일에 사절단을 보낸다. 중국은 토지를 하사하고 책봉한다. ② 군사면: 조선은 寶劍이나 선박을 바치고 군량을 제공한다. 중국은 화약, 무기 등을 하사하고 군대를 훈련시켜준다. ③ 경제면 : 조선은 특산물을 주동적으로 바치고 중국은 互市를 열어주고 쌀, 화폐, 낙타, 말 등을 하사한다. ④ 문화면 : 조선은 중국의 유교 경서를 배우고 樂官을 중국에 보내 새 문물을 배우게 한다. 중국은 불경과 경서를 하사하고 조선인이 태학에 들어가 과거에 참가하며 관직을 갖을 수 있게 허락한다. 사대정책에 대한 평가 -① 조선의 자립자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② 조선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아니었다. ③ 조선이 사대정책을 채택한 것은 소국이며 약국인 까닭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④ 조선의 사대정책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⑤ 사대주의는 조선이 스스로의 민족문화와 사상을 경시하게 했다.

11. 略述中外學者對好太王碑未記載好太王時期高句麗攻略遼東一事的研究(梁啓政, 『东北史地』, 2004-6)

중국 국내학자의 연구로 ① 丁謙, 金毓黻 - 避諱하기 위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② 王健群 - 호태왕 시기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③ 耿鐵華 -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나 미비한 수준이라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④ 朴眞奭 - 요하유역을 공격하는 것은 호태왕의 주요 공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외학자의 연구로는 ① 북한 학자 孫英鐘 - 호태왕시기 요동지역에 영토확장을 위한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北燕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기재하지 않았다. ② 일본학자 千寬宇 - 호태왕비는 고구려 요동정벌을 기록했다.

12. 高句麗歷史問題學術研討會在延吉擧行(劉炬, 『东北史地』, 2004-6)

2004년 8월9일~10일 양일간 延吉賓館에서 고구려역사문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이 두 번째인 본 학술대회는 고구려의 귀속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국회과학원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辦公室과 연길대학 中朝韓日문화비교연구중심이 주최하고 연길대학 中朝韓日關係史研究所가 실무를 담당했다. 馬大正, 厲聲과 연변대학 黨委員會 金熙政 서기가 참석해 발언을 했다.

7기 [東北史地 2004年 7期]

1. 深化對東北地區世界遺産的研究(本刊評論員, 『东北史地』 2004-7)

2004년 7월 1일 소주에서 거행된 28차 세계문화유산 대회에서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묘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고구려 유물의 신청 성공은 고구려문화가 중화문화의 유기적 일부분인 동시에 세계문화의 우수한 유산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20여년간 중국 학자들의 고구려 연구의 학술적 성취가 더 넓은 영역에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중화문화는 "지역단위 문화들[亞文化]의 모자이크"라는 것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으며 고구려 문화는 중국 고대 동북 변강민족 문화의 걸출한 대표이다. 고구려 유물은 동북 지역의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우리는 세계유산의 측면에서 동북사지와 관련한 일단의 문제에 대한 이론 연구와 탐색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지역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학술 연구를 심화하여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도록 해야 것이다.

2. 高句麗遺址列入『世界遺産名錄』與高句麗歷史歸屬問題(耿鐵華,『东北史地』2004－7)

중국의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 무덤군들과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별도로 등재됨으로써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고구려 유산은 현대의 국경에 따라 신청이 진행된 것으로 문물 유적의 귀속과 역사의 귀속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이다. 고구려 역사의 귀속은 그 기원과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는 역사에서 출발하여 역사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 臣屬·조공·중원 冊封의 접수 상황으로 논증하여야 한다. 동시에 고구려 민족과 국가의 생존 활동 지역의 역사 귀속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중국 만주[東北]의 고대민족으로 고구려 왕국은 중국 만주 역사상의 지방 정권이다.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을 고구려 역사가 중국과 북한에 귀속하는 경계선으로 삼는 것은 완전한 고구려 역사를 분리하는 것으로 역사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며 취할 바가 못된다.

3. 高句麗王城, 王陵及貴族墓葬(秦升陽,『东北史地』, 2004－7)

세계유적에 등재된 고구려 유물에 대한 소개한다. 고구려의 왕성으로는 五女산성, 국내성－환도산성이 있다. 고구려의 왕릉으로는 광개토대왕릉, 장군총이 있다. 고구려의 귀족 무덤으로는 집안 동구고분군에는 800여기의 대규모 고분이 남아있으며 상당한 숫자의 귀족 고분군이 남아있는데 그 중 26기가 등재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봉분석실벽화 무덤이다. 그 외에 광개토대왕비가 있다.

4. "高句麗縣"研究(劉子敏,『东北史地』, 2004－7)

역사 사실의 고증을 통해『한서』『후한서』의 잘못을 찾아내어 1·2차 현도군은 다른 시기에 별개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밝혀내고 고구려현은 한 武帝 시기가 아닌 昭帝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현의 관할 구역을 고찰하고 고구려현 설치의 중요한 역할 의의 및 그 변천 상황을 밝혀내었다.

5. 論韓國學者李丙燾先生歷史地理考證的兩項錯誤(徐德源,『东北史地』, 2004－7)

이병도 선생의 위만과 관련한 "滿潘汗"과 "진의 옛 빈 땅에 있던 상장과 하장[秦故空地上下障]" 고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다. 고적 속의 "眞番朝鮮" "遼東外緣" "秦故空地"는 실제로는 같은 지방으로 모두 "秦故空地上下障"의 사이에 있었다. 현재의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遂安·谷山 일대가 옛 연나라가 쌓은 上障의 옛 터 중 하나이며 경기도 안산 일대가 下障의 옛 터이므로 문산이나 汶湖里에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潘川里에 이르는 선이 바로 만반한이다.

6. "闖關東"的由來及其歷史貢獻(田子馥,『东北史地』, 2004－7)

"闖關東"은 청의 봉금 정책을 어기고 만주로 들어간 일종의 이민 활동이다. 만주의 역사는 한족을 주체로 한 다민족 공동 개발의 역사이며 결코 소수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다. 상나라 초기 1500여년,

연나라 800여년, 연과 秦나라가 요동군을 세운 160여년, 양한 500여년, 당의 300여년에 걸친 만주 개발과 경략으로 한족 정권을 튼튼히 하고 한족은 이미 만주 각 민족들을 응집시키는 주체 민족이 되었다. 수당 시기 만주의 주현에서는 한족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잡거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다. 고구려·발해 등 소수민족 정권에서도 한족은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구려의 경우 한족과 서로 융합한 정권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한족의 만주 진입을 막기 위해 청 강희7년부터 200여년간 실시된 봉금정책은 흑룡강 이북의 커다란 영토를 상실하게 한 잘못된 정책이다. 하지만 "闖關東"의 이민을 통해 선진적인 농업 생산 경험을 가진 1180만명이 정착하여 거주민의 분포와 민족 분포를 바꾸었으며 경제 번영을 촉진하여 이민으로 변경을 튼튼히 함을 실현하였다.

7. 奉係時期東三省幣制節略(董昕,『东北史地』, 2004－7)

봉계 군벌 시기, 동3성의 화폐 제도는 매우 혼란하여 각 성마다 독자적인 화폐가 있었다. 봉천성에서는 奉票를 사용하였는데 봉표는 小洋票와 大洋票가 교대로 사용되었다. 봉계군벌 장작림의 세력이 동3성을 장악하자 봉표는 3성에서 통용되었다. 길림성에서는 길림 官貼이 사용되었는데 大洋 본위제에서 永大洋과의 양본위제로 바뀌었다. 흑룡강에서는 흑룡강 官貼을 썼는데 大洋 본위제에서 哈大洋과의 양본위제로 바뀌었다. 그 외 각지에서는 상당한 수의 私貼이 통용되었다. 러시아 일본 화폐의 세력도 상당히 컸다. 원래 흑룡강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羌貼이 러시아혁명 후 쇠퇴하자 일본의 金票가 세력을 확장하여 쓰여지면서 동3성의 화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동3성 화폐제의 혼란은 당시 중국에서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이며 내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8. 日本舊東洋史學關于中國東北歷史研究的發展歷程(王德忠,『东北史地』, 2004－7)

일본학계의 중국만주 역사 연구는 전통적인 한학에서 동양사학으로의 변환을 거쳤으며 2차 대전 종전 이전의 옛 동양사학은 배태기－형성기－번영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특수한 역사 배경과 정치 환경에서 동양사학은 창립 초기부터 침략 사학의 낙인이 찍혔으며 일본 정부의 명을 받은 전쟁 정책과 대외침략에 봉사한 것은 동양사학이 기형적인 번영을 누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9. 吉林市歷史與文物回眸(董學增,『东北史地』, 2004－7)

길림시의 역사문화는 ① 유구한 역사를 가지면서 중단없이 이어졌으며 ② 소수 민족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중원왕조 및 한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③ 고대 문물이 자못 민족적 특색을 갖춘 동시에 한문화의 강렬한 영향을 받았으며 ④ 이 지역의 옛 흔적이 길림성과 만주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 길림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길림은 중원 왕조 관할 하의 있던 부여 왕국의 영토로 부여의 前期 왕성이 존재하였다. 고구려는 410년경 이 지역을 점령한 후 龍潭山 산성 등을 쌓아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발해 시기 길림에는 長嶺府와 涑州의 치소가 있었다. 요 금 왕조 역시 길림 지역을 중시하였으며 현재 길림 지역에는 요대에 처음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성곽이 축조되었고 원대에는 상곽을 쌓지는 않았지만 역참을 두었다. 명조 시기 길림은 海西女眞 烏拉部 소속 몇 개 衛所의 소재지였다. 청대 강희12년 寧古塔將軍이 녕고탑에서 길림으로 옮겨온 후 길림은 발전을 거듭하여 광서 33년(1907) 길림성을 만들면서 길림은 省의 치소가 되었다.

10. 近年來對日本向中國東北移民問題的研究綜述(馬玉良 孫艷波,『东北史地』,2004－7)

만주 이민은 일제의 중국 침략에서 기본적인 국책의 하나였다. 일본의 이민 활동은 40여년에 걸쳐 "시험 이민" "무장이민" "국책이민"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본의 만주 이민은 ① 인구 과잉을 해결하여 제2의 고향을 건설하여 일본 국토를 확장하고 ② 항일무장투쟁을 진압하고 대소 공세를 완벽하게 하여 새로운 대륙 정책의 근거지를 세우며 ③ 농업 자원을 약탈하여 "대동아전쟁"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이민 침략은 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 세계 식민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이민 침략 계획으로 ② 정치적 군사적 약탈적 성격이 확연하며 ③ 이민의 국책화 법률화 ④ 일본 이민민의 강제 수출 ⑤ 이민 선전의 사기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동시에 중국 인민에게는 토지 약탈과 전농화 같은 재난을 가져왔다. 일제는 일본 이민의 장려, 조선 이민의 방임, 중국 이민의 억제라는 민족에 따른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펼쳤다.

11. 長白山人蔘栽培史小考(劉賢,『东北史地』, 2004－7)

장백산에서의 인삼 재배는 西晉말부터 시작되어 1600여년의 역사를 가지지만 풍부한 자연삼의 존재와 자연삼 채취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 때문에 재배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다. 청조 초기에는 八旗에게 지역을 나누어 인삼을 채취하도록 하였으나 강희제는 황실이 독점하도록 바꾸고 장백산 입산을 금지하여 장백산에서의 인삼 재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상공액의 증가와 자연삼의 감소에 따라 산삼 채취만으로는 상공액을 채울 수 없게 되자 "秧蔘"라 불리는 장뇌삼 재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光緖 연간 불법이었던 "앙삼"을 양성화한 이후 인삼 재배는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다.

8기 [東北史地 2004年 8期]

1. 力求史地研究之深(본 잡지 평론원,『东北史地』, 2004－8)

역사 연구에 있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 縱的인 비교방법과 橫的인 비교방법이 있는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종적인 방법이 더 유리하다.

2. 箕氏朝鮮研究(苗威 劉子敏,『东北史地』, 2004－8)

箕子에 의해 세워진 나라의 최초 국호는 辰國이고 조선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북쪽 대동강 유역에 옮겨간 이후의 국호이다. "明夷"는 卦名이지 지명이 아닌 까닭에 "조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箕氏朝鮮은 아직 청동주화와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3. 有關箕子朝鮮的幾個問題新探(張增香,『东北史地』, 2004－8)

기자조선은 분명 존재했다. 당시 여건상 중국 중원지역의 국가처럼 완전한 형태를 바로 건설할 수는 없었겠지만 기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건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의 발전에 공헌했다. 고대 중국이 변방정권에 대해 해당지역 습속에 따라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고, 고조선이 稱臣하지 않은 것은 箕子에 대한 일종의 우대였기 때문에 중앙과 封貢관계가 이미 성립된 기자조선은 존재할 수 있었다.

4. 渤海史研究之管見(王德厚,『东北史地』, 2004－8)

발해사 연구는 현재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발해의 민족기원 문제, 대조영의 族屬문제 발해족의 사회身分문제, 5京15府62州의 위치문제 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해의 옛 영토는 현재 러시아, 조선, 한국 등과 관련이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해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용하여 국외의 연구 동태를 주시하는 동시에 연구기구를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경비를 조달해줘야 한다.

5. 渤海國與唐朝關係述略(楊雨舒,『东北史地』, 2004－8)

대조영 집권 초기에 발해국과 唐朝의 관계는 대항적 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당은 발해왕을 책봉하고 발해왕족과 귀족들에게 관직을 수여했으며 동시에 당의 지방절도사와 長史들에게 발해국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신을 발해국에 직접 파견해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해국은 건국에서 멸망까지 시종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는 중국 고대의 민족관계사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6. 高句麗官制中的"加"(高福順,『东北史地』, 2004－8)

"加"자가 붙은 관직은 기원후 3세기 전후에 출현했다. 이는 夫餘語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각 읍락의 추장 혹은 수령의 뜻을 가지며 軍政사무에 두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加"는 다시 "相加", "古雛加", "大加" 그리고 "小加"로 나뉜다. 상가는 고구려 관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百官의 수장이다. 고추가는 고구려의 大加 관료계층 중의 특수계층으로 국가의 중요사항 결정에 참여하며 권세와 높은 지위를 갖는다. 대가는 고구려 5部 중 비교적 큰 읍락의 부족장 혹은 수령으로 고구려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등급의 관료계층이다. 소가는 대가보다 낮은 등급의 관료귀족 계층에 해당한다.

7. 也談高句麗民族的起源(金延齡,『东北史地』, 2004－8)

고구려 민족 기원에 대해 金毓黻 선생은 고구려는 부여족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설명이다. 현재 주류적인 관점인 濊貊說과 高夷說을 비교해 볼 때 고구려와 부여는 모두 예맥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金毓黻 선생의 설명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8. 遼代職官的犯罪與懲罰(武玉環 尹宿湜,『东北史地』, 2004－8)

요나라 관리 죄명과 내용은 거란 관리와 한인 관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란 관리는 ①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친 경우－謀逆罪, 叛逃罪, 結黨營私罪. ② 형사범죄－모살죄, 惡逆父母罪, 通奸罪. ③ 경제범죄－貪汚罪, 受賂罪, 詐騙罪, 盜竊罪, 職官私取官物罪. ④ 瀆職과 직권남용죄－瀆職罪, 濫用職權罪, 包庇罪, 官吏蓄謀引人誤犯罪, 臨陣脫逃罪, 군사상의 指揮不利罪. ⑤ 僭越과 大不敬罪－禁地射獵罪, 官吏私言宮事罪. ⑥ 기타－連坐罪, 教唆犯罪, 過失犯罪. 漢人 관리의 경우, ①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친 경우－謀反罪, 叛逃罪. ② 형사폭력범죄－不義罪, 內亂罪, 不孝罪. ③ 경제범죄－受賂罪, 盜竊罪, ④ 독직과 직권남용죄－職官瀆職罪, 官員濫用職權罪, 誣陷罪, 擅改詔旨罪.로 나뉜다. 죄를 지은 관리에 대한 징벌수단에는 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경우 ① 死刑－凌遲, 車裂, 射鬼箭, 支解, 生瘞, 投崖, 棄市. ② 身體刑－杖刑, 肉體刑, 黥墨, 宮刑.

③ 流刑. ④ 徒刑. ⑤ 籍沒之法. 등이 있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① 罷官, 貶官, 削爵位. ② 財産刑. ③ 從軍, 戍邊 ④ 責斥 등의 처벌 있다. 요나라 시기 관리 범죄의 규정과 그 처벌 특징으로는 ① 민족 융합의 특징을 보인다. ② 관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잔혹하다. ③ 관리처벌 형태가 점차 더욱 엄격해진다. ④ 관리의 처벌은 같은 죄의 경우라도 다른 법이 적용된다. ⑤ 통치 민족을 우대했다. ⑥ 해당지역 민속에 따라 통치한다는 요나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⑦ 요나라 중후기 이후 거란족과 한족의 서로 다른 법률이 하나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인다.

9. 遼朝選任官吏的方式考述(張志勇,『东北史地』, 2004－8)

요나라의 世選제도의 특징은 ① 관리 선발의 표준이 功과 才 두가지다. ② 선발과정에서 황족 耶律氏와 외척 蕭氏가 특권을 누린다. ③ 南北樞密使, 南北府宰相, 夷離堇, 節度使, 決獄官, 院部司吏, 太醫 등의 관직이 세습된다. ④ 세습관원은 黥面하지 않고, 銀器를 葬禮에 쓸 수 있고, 皮室軍役을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린다. ⑤ 부락의 추천을 받아 부락연맹 회의에서 통과된 후 柴冊儀의 거행을 통하는 등 일련의 선발 과정이 정해져있다. ⑥ 합리성(유목민족 문화 특징이 반영된 3년 1회의 방식)과 局限性(민족에 따른 수여관직의 제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 요나라 과거제도의 특징으로는 ① 초기에는 1년에 한 번, 후기에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거행된다. ② 과거 합격자 수가 唐代보다 많고 송대보다는 적다. 요나라 초기에는 거란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시험 합격이후에는 일반적인 관직을 수여받는다. ③ 요나라 과거시험은 鄕, 府, 省, 殿 네 종류로 시행된다. ④ 진사과에 경전내용 시험을 포함시켰다. 과거시험 이외에 薦擧, 征召, 任子, 恩蔭, 賞賜, 贈與, 入粟補官法 등의 방법이 있었다. 관리로 임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① 漢人관리의 임명 제한. ② 거란인의 과거 응시 금지. ③ 賤庶의 임관 금지. ④ 상인의 임관 금지. ⑤ 불효자의 임관 금지. ⑥ 노예의 진사시험 참가 금지. ⑦ 범죄자의 임관 금지. ⑧ 나이 많은 이의 임관 금지. ⑨ 廢官된 자의 임관 금지. 등이 있었다.

10. 烏拉街老城踏訪記(趙勤,『东北史地』, 2004－8)

烏拉街는 길림성 永吉縣에 위치해 있으며 청나라 시기 打牲烏拉衙門總管의 소재지이다. 이곳은 청나라 정부에 의해 송화강변에 세워진 후 수렵과 채집, 저장 및 황실에 供奉하는 일을 처리했다. "烏拉이 생긴 이후에 吉林市가 생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9기 [東北史地 2004年 9期]

1. 在把握規律性上多下功夫(本刊評論員,『东北史地』, 2004－9)

본 호의『洞溝高句麗墓地的分布與排列研究』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대량의 자료 분석을 통해 거짓을 없애고 진실만을 남기며 표면에서 내부로 파고들어 규칙성을 띠고 있음을 파악하는 방법론은 우리가 더욱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규칙은 사물 발전 과정 중에 계속 존재하지만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여 전기 도읍의 위치 비정 과정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떤 論斷은 중복해서 인용하지만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본 호에서 서천왕이 행차한 新城의 위치에 대해 기존에 말해지던 撫順의 高爾山城이 아니라 길림의 良民山城임을 밝혀낸

것은 그 예의 하나일 것이다. 연구의 심화는 반복된 논증과 비교가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2. 洞溝高句麗墓地的分布與排列研究(孫仁杰,『东北史地』, 2004－9)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집안 동구 고분군의 묘장의 분포와 배열에는 일정한 규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구려 사회 구조 연구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고구려 분묘의 배열 조합 방식에는 ① 직선으로 꿰기[單串連式] ② 가지치기식 꿰기[分支串連] ③ 혼합 꿰기[混合串連] ④ 산등성이 방향을 따른 가로 배열식[沿山脊方向橫排式]의 네 종류가 있다. 동구 고구려 무덤군[串墓]은 구조와 조합상의 특징에서 ① 階墻積石石壙串墓 ② 有壇積石石壙串墓 ③ 有壇積石石壙室串墓 ④ 土石混合串墓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4종류의 串墓가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지만 전체 고분군을 포괄할 수는 없으며 串墓 구조 연구는 새로운 발굴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묘장 구조의 연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으며 좀 더 많은 고분 발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3. 拓跋鮮卑早期歷史文化的重新審讀(張碧波,『东北史地』, 2004－9)

선비 탁발부의 부족명은 그 독특한 민족 특유의 복식문화, 즉 동물(주로 뿔소) 문양의 바클[帶鉤; 허리띠 고리]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 민족 집단은 최초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시베리아라는 이름도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선비족 및 그 황금뿔소 바클은 兩周시기에 중원 및 荊楚 지구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그 복식 문화는 중화 지역 사람들이 았던 유행을 형성하여 남북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선비탁발부는 魏를 세워 주동적으로 중원 역대 왕조의 법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중화 관념의 정통임을 자임하였다.

4. 淺析乙支文德對隋軍的軍事策略(楊志紅,『东北史地』, 2004－9)

『손자병법』 중의 주요 사상을 이용하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을지문덕이 지휘하는 군대가 수의 정벌에 대항한 군사 활동을 분석하여 고구려 군사 사상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의 군사 사상은 손자병법과 합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군사사상의 형성 과정에서 중원 손자병법의 정수를 흡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論1909年以前延琿地區越墾朝鮮流民入籍問題(朱凌,『东北史地』, 2004－9)

길림성 연변 훈춘 지구는 중국 조선 러시아 삼국의 경계선상[交界]에 위치한다. 청대 조선 유민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이 지역으로 넘어왔으며 19세기 중엽 유민의 월경 개간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다. 1909년 이전 청 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적법"이 없었으므로 "변발과 복장[薙發易服]"만으로 월경 개간하는 조선 유민을 중국 국적에 편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였다. 따라서 1909년 이전 청 정부의 월경 개간하는 조선 유민에 대한 정책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변화하였다. 조선 유민의 입적 상황 역시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6. 吉林市的城市起源－兼論龍潭山城的始建年代(翟立偉 仇起,『东北史地』, 2004－9)

길림시는 2세기 부여의 "鹿山之都"에서 기원하며 龍潭의 성은 부여 전기의 도성이었다.

7. 從考古學看高句麗民族的飮食習俗(黃崗, 『东北史地』, 2004－9)

혼강·압록강 유역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고고학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더하여 고구려의 식생활 구조·식기·식생활 방식 등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 경제 및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식생활은 곡물과 생선·육류를 동시에 중시하였다: 곡물은 조·수수·콩 등 밭농사를 위주로 야채를 곁들이고 물고기 잡이와 사냥·사육을 통해 얻은 고기로 부족한 곡물을 보충하였으며 조미료로는 소금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있다. 그 외에 술은 일찍부터 빚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즐겼다. 조리 기구는 초기에는 질그릇[陶器]를 사용했지만 뒤에는 철기가 질그릇을 대체하였다. 식기는 질그릇이나 銅器를 사용하였으며 뚜껑이 있어서 깨끗함을 좋아하는 고구려의 풍습을 보여준다. 요리 방법은 굽기와 찌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8. 明代女眞文化向滿族文化的轉型芻議(欒凡, 『东北史地』, 2004－9)

만주족 문화는 명대 여진 문화의 기초 위에서 형성 발전하여 온 것이지만 각각 하나의 민족과 문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만주족과 여진족 사이에는 성질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만주족 공동체의 형성 발전 과정 중 여진문화는 만주족 문화로 전환되었으며 만주족과 한족 문화의 융합은 만주족 문화를 민족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게 하였다.

9. 『東北石器時代考古』評介(秋實, 『东北史地』, 2004－9)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 趙賓福 교수의 『東北石器時代考古』가 길림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두 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에서는 만주지역 구석기문화와 화북·한반도·일본·러시아 연해주 지역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2장에서는 만주 신석기 문화를 분석하여 8개의 비교적 큰 문화구역으로 나누고 각 문화구역의 특징과 연대·고고학적 발굴을 종합하였다. 이 책의 의의는 ① 만주 신석기 문화를 "3개 단계" "7개 시기"로 나누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여 만주 신석기 문화에 체계적인 분류 접근을 시도하였고 ②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론의 속박을 벗어나 이 지역 문화가 어로·수렵 위주였음을 밝혀내어 인식상의 비약을 이끌어 내었으며 ③ 선사시대 만주의 玉器가 시대적 특징만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밝혀낸 점이다.

▌10기 [東北史地 2004年 10期]

1. 關注歷史地理和人文地理(본 잡지 평론원, 『东北史地』, 2004－10)

지리학은 오랜 역사를 갖는 학문 분야이자 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데 있어 역사지리와 인문지리를 모두 연구해야만 한다.

2. 歷代中原王朝的"外患"與北方地理環境因素初探(張林, 許洪波, 『东北史地』, 2004－10)

북방의 열악한 자연기후는 북방 유목민이 중원민족보다 문명화가 늦어지는데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인 속성보다 자연적인 속성이 더 많아지게 했다. 이와 달리 남방 민족은 이른시기에 문명화가 이루어져 사회적인 속성이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文弱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지리와 강수량의 차이는 북방민족으로

하여금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했고 남방 민족은 평지에서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하게 했다. 이 차이는 중원왕조가 겪은 外患이 주로 북쪽에서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3. 從古代假髮的盛行看新羅所貢人髮的用處(姜維公,『东北史地』, 2004－10)

당나라에는 가발이 유행했지만 공급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해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상대적으로 儒家의 영향을 적게 받은 신라가 당나라 조정에 가발을 헌상했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신라가 여러 차례 헌상을 했지만 그 수량의 한계로 인해 황제의 총애를 받는 소수의 비빈들에게만 이용되었다.

4. 試論淸朝對東北邊疆失行的"四民體制"和"因俗而治"政策(陳鵬,『东北史地』, 2004－10)

"해당 지역 습속에 따라 통치한다(因俗而治)"는 중국 고대 국가가 변경지역 민족을 통치할 때 사용한 전통적인 방침으로 청나라 통치자 또한 이것을 채택했다. 청나라는 북방 변경 민족의 분포와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因俗而治" 방침에 기초를 둔 駐防八旗制, 民戶州縣制, 邊民姓長制, 東蒙盟旗制를 만들었다. 이들 제도는 사민체제를 고착화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부단히 변하게 했다.

5. 埃文克民族史志概述(孫運來,『东北史地』, 2004－10)

埃文克은 시베리아 민족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분포 지역이 가장 넓은 민족이다. 17세기 이전에 이들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였으나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체결 이후 러시아 관할로 되었다. 씨족사회 정도의 문명 발달 수준을 유지한 埃文克 민족은 유목과 수렵을 주된 생활 방식으로 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향유했다. 특히 20세기 70년대 이후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다.

6. 好太王碑載高句麗族源神話考(趙玉敏,『东北史地』, 2004－10)

고구려 호태왕비 비문 중에는 "天帝之子", "生則有聖德", "連葭浮龜", "履龍首昇天"의 내용이 있다. "天帝之子"에는 태양숭배 사상이 내재되어 있고, "生則有聖德"의 聖德에는 중국의 后稷神話와의 연관이 있다. "連葭浮龜"의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은 중국 책『죽서기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履龍首昇天"에서 보이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모티브는 중국의 黃帝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는 중원 한족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 민족이 의지하고 있는 문화 근원에 대한 자각으로도 볼 수 있다.

7. 寵辱不惊人之道 山高水長學之風－憶著名金史, 地方史學家張博泉先生(宋卿禾女,『东北史地』, 2004－10)

장박천 선생은 1926년생 요녕성 遼陽縣 사람으로 2000년 10월 9일에 사망했다. 그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금나라 역사를 전공한 후 금나라 역사를 집대성했다. 특히 猛安謀克制에 대한 연구, 금나라 여진족 사회 성질 인식 문제, 금나라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문제, 금나라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중요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냈다. 장 선생은 평소 "中華一體" 이론을 강조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표 저작으로는『金史簡編』(요녕인민출판사, 1984년),『金史論稿』(吉林文史출판사, 1986년),『金代經濟史略』(요녕인민출판사, 1981년) 등이 있다.

8. 東北地方文化研究的品牌－長白叢書(宮健澤,『东北史地』, 2004－10)

北華大學 東亞歷史與文化研究中心이 총 100권, 4천만자에 달하는『長白叢書』를 발간했다. 본 총서는 史料, 方志, 檔案, 人物, 詩詞, 滿學, 農學, 邊疆, 民俗, 金石, 地理, 東北亞 등 20개의 하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외 동북아의 역사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계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증가한 方志편찬 분위기와도 맥을 같이 하는 본 총서는 지방 여행업과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9. 長白山文化博覽城主體竣工(姜宏强,『东北史地』, 2004－10)

2004년 7월 15일 오전 安圖縣 明月鎭에서 장백산문화박람성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총 면적 37만 평방미터 건축 면적 2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장백산문화박람성은 文化와 民俗여행지 등의 분야로 나뉘어 백두산의 자연, 인문역사와 민속 특징 등 각종 문화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관광에 대한 내용 또한 전시하고 있다. (『延邊日報』 2004년 7월 16일 기사 전재)

10. 看墻看歷史 游廊游詩海 陶畵陶情操(楊守玉,『东北史地』, 2004－10)

장백산문화박람성은 백두산 문화와 현지 경제, 정치와 결합된 주력 상표와도 같은 존재다. 총 투자비 2.3억 위엔이 들어간 장백산문화박람성은 내부에 여가 및 스포츠 코너, 엔터테인먼트 코너, 만주족 민속촌, 조선족 민속촌, 歷史文化博覽宮, 動植物生態園 등이 설치되어 있다. (『延邊日報』 2004년 11월10일 기사 전재)

11. 長白山文化博覽城整合文化資源(俞永哲,『东北史地』, 2004－10)

장백산문화박람성은 우수한 문화자원을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데에 의미가 크다. 백두산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사람들이 대자연과 친화하고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물질문명의 성과와 백두산지역의 정신문화적 성과를 높이고 관광자원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人民日報』 2004년 7월 23일 기사 전재)

12. 弘揚長白山文化的有形載體 博覽長白山歷史的精美畵卷(張宇,『东北史地』, 2004－10)

장백산문화박람성은 6가지의 최초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두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처음으로 종합해 백두산 지역 선조들이 자연과 친화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물질문명의 성과와 백두산 문화를 관광경제 개발 항목으로 승화했다는 것, 두 번째는 처음으로 32건의 역사 사건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했다는 것, 세 번째는 처음으로 浮雕의 형식을 빌어 백두산에 거주했던 선조들의 정신세계와 감동적인 역사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네 번째는『詩經』,『楚辭』에서 현대 백두산 詩歌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을 넘는 시간 동안의 문학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것, 다섯 번째는 백두산 石刻碑文을 처음으로 정리해 碑林을 만들었다는 것, 여섯 번째는 劉建封이 백두산을 답사하고 해발 2500미터 이상의 16개 봉우리의 이름이 지어진 역사적 유래를 밝힌 것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11기 [東北史地 2004年 11期]

1. 深化長白山文化研究(本刊評論員,『东北史地』, 2004－11)

장백산 문화의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동북사지 연구 중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백산 문화의 일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이미 중요한 진전과 광범위한 공인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백산 문화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장백산 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지역 특색을 띤 우수한 문화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또 우수한 문화정신과 선진 문화와의 관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장백산문화는 오래된[古老] 것이지만 장백산 문화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새로 발굴된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장백산 지구 개발사, 문화발전사의 연구를 심화해야 할 것이다. 장백산문화는 반드시 시대 흐름과 같이 나아가야[與時俱進] 하며 그 실질은 장백산문화의 혁신 문제라 할 수 있다.

2. 東北古代民族史研究的幾個問題(王成國,『东北史地』, 2004－11)

동북의 고대민족은 동북 역사문화의 창조자이자 동북 역사의 주인이다. 중화민족 역사 형성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중국[祖國]의 동북 강역을 굳건히 다지고 역경을 이기고 탁월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역사는 주국민족사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며 동북사가 포괄하는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동북 고대 민족사에 관해 중국 학자들은 역사학 민족학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온 결과 100여년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관련 사료의 결핍과 개별 민족역사 형성과 쇠망의 특수성과 복잡성이 연구에 곤란을 가져와 약간의 난점이 나타나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난점으로는 ① 민족 源流에 관한 연구 ② 동북 제민족(혹은 민족지방정권)과 역대 중원왕조 관계의 위상 정립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철화 양춘길이 편저한 『중국학자고구려연구문헌목록』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학자의 고구려 연구 논저는 900편으로 고구려 민족의 기원·건국·사회경제·문화생활·군사·인물 및 고고학 조사·발굴·비각·벽화 등이다.

3. 東北古代民族發展的基本特徵(高福順,『东北史地』, 2004－11)

중국 동북 고대 민족의 발전 역정에 대한 거시적 고찰을 통해 동북고대민족발전의 기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동북 고대민족은 급작스럽게 등장하여 일정 시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돌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런 반복된 "뒤섞기"운동은 고대민족의 발전에 ㉠ 연속성과 불연속성 ㉡ 지역 평형성과 불평형성 ㉢ 개방성과 단절성 ㉣ 다원성과 일체성의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나 동북 고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어느 시기에는 대발전의 국면이 나타났다가 다른 시기에는 상대적인 정체 낙후성을 드러냈다. 동북고대민족의 이런 특징은 역대 중원 왕조의 동북지역에 대한 관리 통치와 관계가 있는 동시에 동북고대 각 민족 자체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양자가 결합하여 작용한 결과 동북 고대사회는 중원 지역을 능가할 수 없고 계속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가 처하게 되었다.

4. 渤海"日本道"和琿春地區的開發(崔順子 孫學寶,『东北史地』, 2004－11)

琿春은 圖們강 하류 지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삼국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大海에 접하여

멀리 일본과 한국을 바라볼 수 있어 대외 개방의 우세한 전략적 위치이다. 일찍이 戰國 兩漢 시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으며 唐代발해 시기 혼춘은 발해가 일본과 연결하는 중추적 거점으로 "日本道"를 개척하여 일본과의 정치 문화와 경제무역 왕래를 전개하여 사회 경제의 번영을 촉진하였다.

5. 近世中朝界務交涉焦點述論(朴鐘錦,『东北史地』, 2004－11)

『近世韓國疆域論考』는 한국 梁泰鎭이 저술한 책으로 중조 변계에 관한 관점은 주로 중국 요동·연변 등 지역이 조선(한국) 영토라는 점 등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의 주장 중 특히 "封禁地帶"·穆克登奉旨 查邊와 "백두산정계비" 및 "간도문제" 등에 대해 사실을 밝혀본다.

6. 關于長白山文化若干問題的思考(劉厚生,『东北史地』, 2004－11)

장백산은 동북의 명산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 이미 970년이 되었다. 장백산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것으로 장백산 지역을 지역 공간 범위로 하고 예맥족 계통과 숙신족 계통의 문화를 기초로 하여 華夏(漢문화)을 주체로 하여 역사 발전 과정 중 끊임없이 융합하여 진보 발전한 것으로 선명한 민족 전통과 지역 특징을 갖춘 지역[區域] 문화이다. 그 특징으로는 ① 漁獵 채집 목축 농경이 결합한 다원적인 물질문화 ② 상무정신 ③ 선진 문화의 배우고 받아들이며 혁신을 즐겨하는 의식 ④ 샤머니즘 문화 ⑤ 외세 침략에 대항하는 애국주의 정신 ⑥ 동북아 각 국 문화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7. 試論長白山詩詞及其流派(高於茂 朱明俐,『东北史地』, 2004－11)

장백산 詩詞는 중화詩詞와 마찬가지로『詩經』에서 기원하며 詞는 장백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장백산 지역의 첫 번째 시인은 箕子이다. 전체 동북 및 한반도는 모두 장백산 범주에 속하며 장백산의 경관을 쓴 詩詞는 모두 장백詩詞에 속한다. 장백산 시사의 流派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장백산 시파를 양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장백산 문화를 번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장백산 시사의 발전은 중화 시사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에 커다란 추진 역할을 할 것이다.

8. 北方民族薩滿文化的演變(朱立春,『东北史地』, 2004－11)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薩滿教]은 보편적으로 조상[祖先] 神位를 숭배하며 각 씨족마다 자신만의 신위가 있다. 샤머니즘은 일종의 조상 숭배를 위주로 하는 원시적인 다신교로 그 발전은 자연숭배·동물숭배와 토템 숭배에서 다시 조상 숭배에 이르는 역사 단계를 거쳤다. 샤머니즘이 쇠락한 원인으로는 ① 故土를 멀리 떠나 외부로 확장하려는 욕구 ② 기타 외래 종교 문화 특히 현대 종교의 충격과 영향 ③ 중원 문화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9. 清代滿族薩滿教祭祀風俗研究(黃崗 任雷,『东北史地』, 2004－11)

만주인들은 샤머니즘을 깊이 믿었으며 만주족의 형성 발전에 샤머니즘은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는 무당[薩滿;샤먼]이 주관하며 농후한 민족적 특징과 선명한 북방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었다. 민속학을 중심으로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 풍습을 연구해보면 5개 측면에서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 풍습의 분석 연구를 통해 샤머니즘이 만주족 사회조직·사회생산·문화활동 등에 깊이 침투해 들어간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청대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활동이 이미 사람들의 생산활동·사회활동·문화오락 내지 민족 풍습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만주족 민족 신앙과 전통 문화의 중요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10. 吉林省第三次長白山文化研討會在通化召開(樂齊,『东北史地』, 2004－11)

2004년 11월 27일 통화에서 길림성제3차 장백산문화연구토론회가 열렸다. 참가한 회원 대표는 50명이며 제출된 논문은 66편이다. 2002년 이래 거둔 성과로는 ①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長白山文化』가 출판될 예정이며 ② 장백산 문화박람城 건설에 참여 지도하였고 ③ 28명이 36부의 저작을 출판하고 省級 이상 잡지에 16편의 중요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④ 압록강 유역 개발사 연구 중 일련의 새로운 발견이 있었으며 ⑤『장백산문화총서』를 발간하고 ⑥『东北史地』를 창간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2기 [東北史地 2004年 12期]

1. 加强對東北經濟史的研究(본 잡지 평론원,『东北史地』, 2004－12)

동북경제사는 동북지역사 연구 중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최근 중앙 黨에서 동북지역의 오래된 공업지대를 다시 부흥시키기로 결정하고 동북경제사 연구 또한 이것에 상응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지역 경제사 분야에서 현재 비록 얼마간의 연구 업적이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게 진행된 것이라 경제사가 역사학 분야 속 하나의 학문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의 진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2. 遼, 金與高麗的戰爭(麻鈴,『东北史地』, 2004－12)

요나라, 금나라와 고려의 전쟁은 역사상 여러 차례 발발했다. 이 전쟁은 주로 압록강 동쪽 지역의 중요 도시들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요나라, 금나라와 고려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압록강 하류와 한반도 동북부 지역을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곳은 거란, 여진과 고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군사충돌의 핵심지였다. 비록 요나라, 금나라와 고려는 수차례 전쟁을 치루며 대결 상태를 유지했지만 이들 사이의 교류와 융합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3. 民國前期中國政府對延邊朝鮮移民的政策(趙興元,『东北史地』, 2004－12)

1912년에서 1931년 사이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는 연변 조선인 이민에 대해 세가지 다른 정책을 실시했다. 초기(1912～1919)에는 적극적으로 入籍을 권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중기(1919～1929)에는 한편으로 계속 入籍을 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의 입적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후기(1929～1931)에는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인 귀화정책을 폈다.

4. 高句麗文化的主體(孫泓,『东北史地』, 2004－12)

고구려 민족은 언어(고구려는 이두문자를 만들지 않았고 학교에서 중국어, 한자를 가르쳤으며 書面語

로는 한자만을 사용했다.), 복식(넓은 소매와 폭이 넓은 바지는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다.), 머리형(머리를 묶는 형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음식(한족들의 식기를 이용했다.), 주거(동북지역의 민족들 중 고구려 민족이 가장먼저 半地穴式에서 地上居住 형태로 바뀐 것은 중원 한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혼인상례(4세기 이후 服喪의 기간이 길어지고 封土墓, 石室墓 등의 漢族 매장방식을 받아들였다.), 신앙(중원을 통해 불교, 도교를 받아들였다.), 교육(漢字로 된 책을 통해 교육했다.), 과학기술(중원에서 침구술과 의술 및 천문학 기술을 유입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예술(연주에 쓰이는 악기의 대부분이 중원에서 전파되었다.)등에서 漢族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당나라 漢族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고구려인들의 漢化가 이루어졌다.

5. 高句麗城址出土陶器研究(卑琳,『东北史地』, 2004－12)

5곳의 山城과 한 곳의 平原城에서 총 67건의 고구려 도기가 발견되었다. 罐의 경우 입구의 모양에 따라 3가지로 분리된다. 瓮은 입구에 짧은 목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盆은 배 부분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鉢은 배 부분이 휜 정도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뉜다. 盤은 배 부분의 깊은 정도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甑은 중심의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이들 도기는 거의 전부가 고구려 중후기 이후에 것으로 추정된다.

6. 中原王朝對高句麗的封冊制度研究(姜維東,『东北史地』, 2004－12)

"封冊"은 역사 문헌상에서 보이는 책봉보다 그 함의가 크다. 중원 왕조의 고구려에 대한 봉책이 총 34번 있었다. 이것은 중원 지역의 상태, 즉 통일과 분열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됐다. 주로 고구려 왕위가 교체되는 시기 혹은 중원 왕조의 왕위나 왕조가 바뀌는 시기에 봉책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 형식을 통해 피차간의 군신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외에 고구려의 職貢에 대한 褒賞과 고구려 멸망 이후 유족에 대한 按撫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봉책을 통해 중원 왕조는 고구려의 영토와 官爵 모두가 중원 왕조에 의해 사사되었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고구려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편 고구려의 왕은 봉책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원 왕조에 조공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타 동북지역 민족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꾀했다.

7. 淺談正史『高句麗傳』的設立(鄭春穎,『东北史地』, 2004－12)

중국 史書의 편찬 내용을 살펴보면 正史「高句麗傳」은 통상적으로「東夷傳」에 포함되어 있다. 史書에「東夷傳」이라는 제목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혹은 다른 傳과 합쳐져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이「高句麗傳」은 일반적으로「東夷傳」의 여러 傳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것은 중국 史家들이 고구려의 禮樂文化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고구려가 지리적으로 중원과 가깝다는 사실과 史家들이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이전의 방식에 큰 가감 없이 계승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史記』의「朝鮮傳」은 후세의「東夷傳」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高句麗傳」의 前身으로 볼 수 있다.

8. 札記兩篇(劉向東,『东北史地』, 2004－12)

①『隋書』「高麗傳」의 誤記와 고구려왕의 "帝諡"사실－『隋書』「高麗傳」에 "位宮玄孫之子昭烈帝"라는 기록을 근거로 고구려에서 "帝"라는 칭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利子釗, 烈帝時與慕

容氏相攻擊"를 "利子釗烈帝時, 與慕容氏相攻擊"라고 잘못 끊어 읽은 것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釗"를 "昭"로 "烈"을 "列"로 잘못 기록한 후에 그 앞에 "曰"자를 첨가하여『隋書』「高麗傳」에서 말하는 "位宮玄孫之子昭烈帝"이 된 것이다. ② 燕나라가 언제 遼東을 개척했는가? - 普蘭店市 元臺鎭 后元臺村에 출토된 전국시기 魏나라 靑銅戈 "啓封戈"를 통해 연나라가 기원전 272년 전에 이미 요동반도 일대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나라가 요동을 개척한 대략적인 시기는 기원전 284년에서 기원전 272년 사이로 추정된다.

9. 從洞穴走上金鑾殿的"安圖人"(蔣成義, 崔振杰,『东北史地』, 2004 - 12)

2만6천년 전 백두산 아래 布爾哈通河 강변에 인류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동굴에 살며 채집, 수렵의 생활을 했는데 이들을 安圖人이라 한다. 기원전 1000년 전 시기에 이르러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에서 활동한 안도인은 원시 씨족 부락연맹 단계로 발전하고 이후 이들은 "肅愼氏"라고 불려졌다. 東漢시기에 "挹婁", 南北朝시기에 "勿吉", 수당시기에 "靺鞨", 遼나라 때 女眞이라고 불리며 발전했다. 그사이 安圖人은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고 고구려의 위협과 거란족의 공격 뿐만 아니라 몽고 鐵騎의 유린, 명나라 군대의 살육을 이겨내고 마침내 만주족의 신분으로 북경의 金鑾殿에 올라 청나라를 건국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기 [東北史地 2005年 1期]

1. 中國長白山文化本原論(田子馥,『東北史地』, 2005－1)

장백산 문화는 漢문화를 주체로 하는 다원복합형 문화이다. 하지만 漢문화는 다민족공동체가 함께 누린 "동일성"의 문화이고 漢문화는 다민족 문화의 정수를 하나로 모아 다민족 의식형태의 주체를 이루었다. 燕은 가장 일찍 장백산 문화를 개발한 漢族 원주민[先民]으로 漢문화는 장백산 지역 민족 발전의 생명 공간을 구성하였다.

2. 從百濟, 高句麗滅國到渤海建國－公元663～713年間東北亞政治格局走向的歷史解讀(張碧波.『東北史地』, 2005－1

663년에서 713년까지의 반세기는 중국동북과 동북아 지역 정치 형세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백제 고구려가 연이어 망하고 신라는 이를 틈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倭의 실패[挫敗]와 營州 거란족의 반란, 粟末말갈의 흥기와 발해의 건립, 唐朝 군사 중심의 남쪽 幽州로의 옮김 등의 역사 사건은 동북과 동북아 정치 형세에 격렬한 변동이 일어났음을 잘 보여준다. 발해 건립과 발해－당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속말말갈족을 주체로 하는 발해말갈이 새로운 역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잘 보여준다.

3. 再論滿族傳統說部藝術"烏勒本"(富育光,『東北史地』, 2005－1)

說部예술은 만주족의 오랜 전통 문화의 한 형식으로 옛 이야기나 노래를 구술하는 형식으로 만주족의 수많은 빛나는 역사·풍속·가요·춤·회화·속담[俚諺]·전설 등을 후세에 남긴 만주족 문화의 진귀한 유산[奇葩]이다.

4. 歷史上東北開發低水平徘徊原因之探討(王德忠,『東北史地』, 2005－1)

역사상 동북지역 개발 역사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어려움, 오랜 기간 낮은 수준에서 맴돌게 한 원인은 ① 兩漢 이래 빈번한 민족 이동과 사회 동란이 사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상실하게 하였고 ② 일부 역대 왕조의 정책 조치가 개발의 진전을 가로 막았으며 ③ 자연 환경의 열악함과 노동력의 결핍으로 귀결될 수 있다.

5. 中國民族, 政權, 疆域研究(孫進己,『東北史地』, 2005－1)

역사상의 중국 강역과 오늘날 중국 강역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이다. 역사상 수 많은 민족 및 그 정권이 각기 다른 시기에 중국에 가입하여 비로소 오늘날 56개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 다민족국가를 점차적으로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오늘날 중국의 강역을 형성하였다. 역사상 민족 정권의 귀속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당시 누가 관할하는 것에 속하였는가 및 관할의 수준과 시간에 따라야 할 것이다.

6. "炎黃子孫"與中華各族心理認同(趙永春,『東北史地』, 2005－1)

중국 역사상 "염황자손"은 華夏族과 漢族만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수 민족도 포괄한다.

중화 각 민족이 모두 炎帝와 黃帝에서 나왔다는 "一源論" 논법[說法]은 오늘날 보기에 과학적인 것이 아니지만 도리어 중국 역사상 중원민족과 주변민족은 혈연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민족이며 각 민족은 형성과 발전 과정 중에 점차 피가 섞이고 융합되어 간 역사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중화 각 민족은 모두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심리적 동질감과 사상적 인식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중화 각 민족의 "같은 문화의 공통 심리 요소를 드러내는"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다.

7. 也說三韓(梁之龍,『東北史地』, 2005－1)

"삼한"이라는 호칭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최초의 삼한은 한반도 남부의 馬韓 辰韓 弁韓을 지칭하였지만 수당대에 들어서면 삼한이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였으며 한반도나 고구려가 점령한 요동반도까지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요금 시기에는 전통적 의미의 삼한 외에 中京 大定府에 속하는 三韓縣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명청대에는 삼한은 한반도 외에 요동[遼左] 역시 삼한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8. 高句麗自然宗教信仰活動及俗制的解析(秦昇[升]陽 李樂瑩,『東北史地』, 2005－1)

고구려의 자연종교 활동은 자체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신앙활동에서 고구려와 중원문화의 밀접한[千絲萬縷] 연계성을 구현하였으며 고구려의 중원 예법에 대한 준수와 엄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화 고대 문명의 풍부함·다양성과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느낄 수 있다.

9. 高句麗同新羅百濟的戰和關係(王臻,『東北史地』, 2005－1)

고구려와 신라·백제의 화전 관계 및 당과 왜의 "삼국"관계 속에서의 다른 표현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백제와의 和戰 관계가 그 당시 중한 관계의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일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는 낙랑·대방을 대신하여 그 땅을 통치한 후 효과적으로 신라 백제의 북진을 저지하여 중국고대의 전통 강역을 지키는데 역사상의 공헌을 하였다.

10. 渤海國與"絲綢之路"(尹鉉哲 李碩,『東北史地』, 2005－1)

발해는 200여년의 발전 과정 중 적극적으로 선진 문화를 흡수하여 중국동북 및 러시아와 한반도의 일부 지역에서 발달된 민족경제와 찬란한 발해문화를 일구어 내어 "해동성국"의 눈부심을 만들어내었다. 발해는 그 고도로 발전한 "실크로드"를 통해 당조 일본과 교류하는 가운데 거대한 공헌을 만들어 내었다. 이 길을 통해 당의 물질문명이 더욱 더 동북아에 도래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의 "실크로드"를 이루게 되었다.

11. "猫冬"我國北方及長白山地區經濟發展遲緩的障碍(陳福順,『東北史地』, 2005－1)

"묘동"은 중국 북방의 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겨울철 농한기[冬閑] 생활 습관으로 11월 중순부터 4월 청명까지 이런 생활이 이루어졌다. 이는 동북과 장백산 지역 인민들이 게으름과 향락을 추구하여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중국 북방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

12. 石臺子山城(李龍彬,『東北史地』, 2005－1)

석대자산성은 심양시에서 동북으로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輝山 풍경구 안의 棋盤山 저수지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유적으로 시설이 비교적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보존 역시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유적 속에서 출토된 器物이 비교적 많아 도기·철기·석기·동기·骨器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석태자산성의 옛 성 이름은 아직 정설이 없는 상태이다.

13. 國之瑰寶當恒久寶之－『大淸國寶 · 松花石硯』(蔣力華,『東北史地』, 2005－1)

중국 내에 송화벼루[石硯]에 관한 전문 서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의 출판은 그 공백을 메워 준 것이다. 송화벼루는 강희에서 건륭까지의 60여년 동안만 생산되어 궁중에서만 사용되고 민간에 유통된 적이 없는 진귀한 청대 문화의 보물이다.

2기 [東北史地 2005年 2期]

1. 界壕與長城論辯三題(上)(馮永謙,『东北史地』2005－2)

금나라의 界壕와 長城에 관해 3가지 측면에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장성을 이해해야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금나라의 界壕를 장성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가 아니다. ② 계호를 당시에 "장성"이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장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지상에 높게 건축된 장벽인 것은 아니다. ④ 험준한 자연 절벽도 장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⑤ 장성을 노동 인민 대중에 대한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만 고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⑥ 요나라는 계호 대신 장성을 축조했고, 금은 장성 대신 계호를 축조했다. 명대에는 장성을 축조하는 까닭에 "柳條邊"같은 것을 건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나라의 계호는 장성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2. 顔延之「赭白馬賦」本事考(姜維公,『东北史地』2005－2)

赭白馬는 선비족 모용씨가 썼던 乘輿馬의 이름에서 명칭을 따온 것으로 南朝 宋나라 시기 때 고구려가 東晋에 바친 조공품이었다. 劉裕가 남조 송을 건국한 후 자백마는 여전히 승여말로 쓰였고 송나라 군주들의 총애를 받았다. 말이 죽은 이후 여러 신하들은 賦를 지어 칭송하였다. 안연지가 賦를 지을 때 이 말이 고구려가 東晋에 헌상한 말이어서 남조 송나라의 번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사실을 숨겼다.

3. 論唐朝與新羅的聯盟關係(劉炬,『东北史地』2005－2)

당나라와 신라가 연맹을 맺었을 당시 이 두나라 사이에는 이미 깊은 이익 충돌이 있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남겨두길 바랬지만 신라는 도리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남겨두고자 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은 당나라의 貞觀時期(두나라가 연합의 필요를 느끼고 당나라 주도로 연합이 추진되는 시기), 永徽年間에서 백제멸망시기(당나라 병사를 출동시켜 백제를 멸망코자 신라가 당나라에 부단히 애걸하는 시기), 백제 멸망 이후 나당 연합의 파기까지(신라와 당나라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

3시기 동안 변화 발전해 갔다. 결국 모든 이익의 수혜자는 신라가 되고 당나라의 모든 노력은 신라인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4. 淺議遼朝對吉林的經略(楊雨舒,『东北史地』2005－2)

발해 멸망 이후 요나라는 길림성 지역 내에 있던 발해 유민과 여진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다. 中臺省을 이용한 통치를 했으며 길림지역의 縣級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이외에 春捺鉢를 실시하고 黃龍府, 長春州, 泰州, 寧江州 등의 군사적 요충지역을 설치하였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女眞王大府를 설치하여 간접통치도 강화했다. 또한 寧江州와 黃龍府에 榷場을 설치하여 여진족과 기타 부족들간의 무역활동을 통제하고 聖宗시기에는 長春州錢帛司를 설치하여 동북지역의 화폐제조와 사용을 관리했다.

5. 遼寧省北寧市出土萬枚北宋古錢幣後的新發見(賈輝,『东北史地』2005－2)

2004년 북녕시 鼓樓 북쪽에서 2만 개 이상의 북송시기 화폐가 발굴되었다. 당시 화폐가 대량 매장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① 澶淵의 盟 이후 다수의 송나라 화폐가 요, 금나라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② 금나라 시기 민간에서 지폐보다 금속 화폐를 선호했고 땅에 묻어 보관하는 방법이 유행했다. ③ 금속화폐는 무기 제작등에 이용될 수 있어 밀매용으로 자주 이용되었는데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묻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6. 清政府對東北地區中朝貢道的管理(彭晶,『东北史地』2005－2)

1637년 丁丑條約 체결 이후 청나라와 조선의 조공관계를 확립되었고 조선은 청나라의 첫 번째 조공국이 되었다. 조공사절단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① 奉天에서 朝鮮까지, ② 盛京에서 山海關까지 크게 부분으로 나뉜다. 조공사절단의 이동로에 대해 청나라 정부는 驛站을 설치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조공사절단 이동로를 따라 館舍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왔으며 중앙과 지방 관리를 파견하여 조공 사절단을 맞이하거나 배웅했다. 조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나라와 조선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져 조공사절단이 이동했던 길은 양국의 禮儀의 길이자 경제의 길, 문화의 길이 되었다.

7. 漢文化對東北各民族的凝聚作用－田子馥先生訪談錄(본 잡지 기자 南珊,『东北史地』2005－2)

동북지역 문화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① 민족 문화와 민족사 연구를 결합하여 문화연구를 위주로 하고 역사 연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 ② 민족 문화와 민족 정권의 연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③ 동북 지역은 다민족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한다. ④ 다민족 문화의 특징을 갖는 지역에 대한 지역문화 연구는 해당 지역의 주체적인 민족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다민족 문화지만 이 모든 것은 漢字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북 지역의 문화사는 漢文化가 중심이 된 다민족 복합문화라 할 수 있다. 漢文化가 동북 지역 각 민족융합에 끼친 영향은 세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北魏의『祝文』, 고구려의『호태왕비』, 발해의『貞惠公主墓誌』, 遼의『耶律敵烈墓誌盖銘文』, 金의『大金得勝陀頌碑』등이 모두 한자로 기록된 것이다. ② 하나의 민족, 국가, 인종이 갖는 최종적인 의미는 군사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③ 동북지역에 출몰했던 여러 민족들은 모두 "漢文化圈"에서 자체적으로 순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① 漢文化가

인민대중의 문화이자 感性의 문화, 질박한 문화, 포용성이 강한 문화였다는 점. ② 漢文化는 개방의 문화 자유의 문화였다는 점. ③ 漢文化의 핵심은 人本主義이고 고도로 中和된 문화여서 이는 곳 "中庸"의 사상을 잉태해내고 이를 통해 圓融의 사상, "非和弗美"의 사상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8. 太陽文化帶與薩滿文化圈(王松林,『东北史地』2005－2)

샤먼문화는 태양문화가 형성되는 경로를 따라 무단히 전파되고 퍼져나갔다. 최종적으로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북유럽, 북미 지역에 퍼져나가 중국 북방민족과 세계 기타 민족의 원시 문화 유산 중 하나인 기적적인 형태가 되었다. 샤먼문화는 중국 북방의 독특한 특색을 갖춘 본토문화현상이고 강인한 생명력과 강력한 융합력을 가진 문화이다. 샤먼문화는 북위 40도 지역에 형성되었던 원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면 진정한 의미의 샤먼종교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전환과 지리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샤먼문화의 集體主義 정신은 中華傳統文化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이다.

9. 長白山崇石習俗探析(劉彦臣, 張爽,『东北史地』2005－2)

만주족은 예부터 石製 장식품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었다. 특히 석제 장식품은 만주족의 원시 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만주족 선조들의 神石숭배는 주로 백두산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주족의 石鎭宅(기둥 아래 큰 돌을 받치는 방식) 풍속은 비록 漢族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역시 만주족의 민족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석각 인물상과 母神숭배는 백두산 崇石문화의 중요 부분이 된다.

10. 長白山木幇習俗(孫文采,『东北史地』2005－2)

林業 노동자들을 "木把"라고 했는데 옛 縣의 지방지에 이들을 "木幇"이라 기록하고 있다. 木把는 노동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의 집단이 木幇이다. 계절성 임시 계약 노동자와 贖身 노동자로 구성된 목방은 한 곳의 목장 안에 포함된 여러 개의 房子에 속해 있다. 이들은 "山神爺"와 "老把頭"를 신앙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싹이 나는 나무 위나 까맣게 타버린 나무토막 위 혹은 소나무에 앉지 않는 금기가 있다. 또한 산에서는 호랑이나 이리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꿈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木幇은 천정이 열린 집에서 거주하며 옥수수 전병과 소금에 절인 콩을 주로 먹는다. 면으로 만든 옷을 주로 입고 각종 민간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나무를 베기 위한 도끼질, 가지치기, 강을 통해 목재를 운반하기 등에 나타난다.

3기 [東北史地 2005年 3期]

1. 關于漢代夫餘王城幾個問題的探討(李健材,『東北史地』, 2005－3)

한대 부여 왕성의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견이 있다. 李文信의 오래전 고찰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길림시 용담산 산성 및 그 서남 평원 위의 漢代 유적이 한대 부여 왕성의 산성과 평지성의 소재지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高句麗與百濟新羅的爭霸(史未央,『東北史地』, 2005－3)

고구려는 중국 요동에서 일어나 건국 후 300여년간 같은 한반도의 백제·신라와는 낙랑군에 가로막혀 어떠한 왕래도 없었다. 게다가 삼국의 건립은 각자의 역사 발전의 산물이지 서로 각축을 벌인 결과가 아니다. 고구려가 끊임없이 확장하여 미천왕 시기 낙랑군을 점령하면서 점차 백제 신라와 패권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장수왕 시기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삼국의 정립이 형성되었다. 수당 시기에 이르러 그 패권 다툼은 더욱 가열되었지만 그 운명은 도리어 중원 정권의 손 안에서 조종되고 있었다. 결국 신라는 당조의 힘을 충분히 이용하여 당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연달아 멸망시켰다.

3. 晋封高句麗官印考略(耿鐵華,『東北史地』, 2005－3)

현재 남아있는 진이 고구려를 책봉한 관인의 인영[印模]은 7개가 남아있다. 도장에 새겨진 글자는 "晋高句驪率善邑長"·"仟長"·"佰長"으로 진 武帝 시기 중앙왕조가 고구려 지방 관원을 봉하여 내려준 인감이다. 이런 인감은 서진 왕조의 고구려 사회에 대한 통제 관리가 기층 조직에까지 깊이 미치고 있음을 실증해주는 동시에 고구려가 서진 왕조의 邊郡封國의 지위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封國 내에서 고구려왕은 5부와 성읍제도의 지방 관리를 실행하여 위진시기 북방 소수 민족 지방 정권 관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4. 界壕與長城論辯三題(下)(馮永謙,『東北史地』, 2005－3)

界壕는 ① 그 구조가 장성과 차이가 없으며 ② 장성과 마찬가지로 땅을 다진 위에 축성되었고 ③ 봉화의 유무가 장성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④ 금나라 사람들이 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墻이라는 용어로 국경에 만든 성벽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 점에서 장성과 다른 점이 없다. ① 길게 이어진 높은 성벽 ② 땅을 다진 위에 축성 ③ 적을 방어하는 군사 공정이라는 장성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금의 界壕는 완전히 이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界壕는 장성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부정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5. 淸政府對朝鮮墾民的"薙發易服"入籍政策(楊昭全,『東北史地』, 2005－3)

청정부의 1890년대부터 실시한 조선 개간민에 대한 "변복 변발"을 통한 歸化入籍 정책은 완전히 부정적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긍정적인 측면은 ① 入籍한 후에야 토지 경작을 허용한 것은 자국 영토 주권을 지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이고 ② 조선 출신 개간민들과 그들이 거주하던 간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중국에 확실히 귀속시킨 점 ③ 이후 일본이 "韓民 보호"를 내세워 중국연변 지구에 침략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④ 중국 조선족 형성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이다. 반면 청 정부의 목표가 조선 개간민들을 만주족에 동화시킨다는 강제 민족 동화이라는 점에서, 비록 이 정책에 따라 중국에 귀화한 조선 개간민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낙후되고 반동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6.『中國東北邊疆史』序言(王景澤,『東北史地』, 2005－3)

이 책의 제목은 동북 역사의 "변강"특색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변강"이란 동북 지구가 중국의 변강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 동북지구의 "변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변강의

개념은 그 속성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변강은 지리 역사와 정치적 속성만이 아니라 사회 속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 변강의 특징은 ① 민족문화의 다양성으로 변강 소수민족 문화와 중원문화는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되며 ② 문화가 풍부하고 다채롭지만 사회 관리 시스템·행정 관리 수준·교육사업은 도리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며 ③ 경제발전 수준이 내지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동북변강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따른 변강 위기의 산물이었다.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침략은 동북 연구 열기를 고조시켰다. 50～70년대에는 민족사 연구와 제국주의 침략사 연구가 두드러진다. 개혁개방 이후 변강사 연구는 금기시되던 영역이 줄어들면서 학술 성과가 날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 변강 역사의 시대 구분은 학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대 동북 변강사는 ① 상고시대에서 서주초 ② 기자의 조선 책봉에서 발해 멸망 ③ 遼金元 시기 ④ 명청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근대 동북 변강사는 1860년을 기점으로 고대 동북사와 분리되며 ① 咸豊10년(1860년)에서 宣統3년의 청말 시기 ② 1912년에서 1931년 "만주사변[九一八事變]"까지 ③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45년 일본 항복까지 ④ 1945년 일본 투항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북변강사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① 동북 역사의 이해가 있어야만 애향심을 고취하고 변강을 건설할 수 있고 ② 동북을 진흥시키는 필요성에 부합하며 ③ 동북 지역 미래 발전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구 방법상에서 ① 동북변강사는 중국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중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정확한 동북 변간 역사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② 역사 과정을 장악하는 동시에 공간 관념을 수립하여 동북 역사지리를 이해하도록 하며 ③ 동북 역사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민족과 변강의 귀속 문제의 올바른 대처를 위해 관련된 이론과 국제법을 이해해야 한다.

7. 箕子朝鮮研究二題(張軍,『東北史地』, 2005－3)

① 辰國은 한반도 남부의 古韓族을 통일하여 殷商의 선조들[先公先王]인 夏王 相의 商后 相土가 한반도에 세운 나라로 기자조선보다 훨씬 일찍 출현하였으며 뒷날 기자조선과 남북으로 이웃한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정권이었다. 漢末 진국은 다시 분열하여 삼한이 되었다. ②『周易 明夷』의 이해에서 주석문[傳]으로 경전을 이해하여 卦의 문장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명이는 하나의 명사로 이해하여야 하며 괘의 문장은 기자가 나라가 망한 후 明夷(동방의 나라, 해가 뜨는 곳)에 도착하기까지의 역정과 심경을 기록한 것이다. 즉 명이는 한반도의 옛 지명 중의 하나로 商周 교체기에 조선의 지명으로 변화한 것이다.

8. 封貢體制下的夫餘(趙紅梅,『東北史地』, 2005－3)

부여가 학계에서 보통 조공책봉체제라 부르는 "봉공체제"에 편입되어 중국 중원 중앙 각 왕조에 조공책봉된 것은 前漢시기부터 시작하였다. 이런 간접적인 통치 방식은 부여의 생존과 발전에 유리한 외부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이이제이"정책의 실시는 변강의 위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여는 계속해서 중원 중앙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부여민족은 중화민족 형성 과정 중의 일원이었으므로 부여국은 당연히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이었다.

9. 靺鞨諸部與肅愼後裔(李成 張秀芬,『東北史地』, 2005－3)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최초의 말갈이라는 이름이 6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말갈의 명칭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서한 시기이다. 국내외의 일부 학자들은 말갈의 諸部를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여 숙신－挹婁－勿吉－여진의 한 계통으로 이어 내려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말갈의 제부가 모두 숙신의 후예는 아니다. 여진 민족의 기원이 되는 말갈부락은 隋代 말갈7부 중의 흑수부나 唐末의 흑수부가 아니라 광의의 흑수말갈 중에서 발해 통치 하에 있던 號室·拂捏 등의 일부 部로 그들은 물길의 후예이다.

10. "南戚北李"起落探因(肖瑤,『東北史地』, 2005－3)

왜구에 대항하고 북방 민족 침입에 대항하며 여진을 방어하는[抗倭禦虜防夷] 전쟁 중 동남의 戚繼光과 동북의 李成梁 두 명의 명장은 두각을 나타내어 "남척북이"라 불렸다. 두 사람은 張居正 개혁의 수해자이지만 또한 장거정 사후 그와 연좌되었다. 萬曆帝가 "李를 남기고 戚을 제거"한 것은 이성량은 이용할 가치가 있었지만 척계광은 모반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1. 鴉片戰爭前後邊疆史地學者的治邊思想與實踐(章永俊,『東北史地』, 2005－3)

육상 국경 방어[塞防]와 해상 방어[海防] 두 측면에서 아편전쟁 전후 史地 연구와 관련된 학자들의 변강 관리[治邊] 사상과 실천을 분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관리·군사방어·경제개발 등의 측면에서 사지학자들의 국경 방어 사상과 실천을 드러난다. 海防 방면에서 그들은 각자 조금씩 관점을 달리 하지만 공통적으로 연해지구의 방어 설비와 관리 강화·군사 장비의 강화·"민심의 이용"·"이이제이" 및"적의 장점을 배워[師夷]" "적을 제압[制夷]"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였다.

12. 吉林名將金順事略(孔艷春,『東北史地』, 2005－3)

김순은 청말 길림 출신의 장군으로 태평천국 기의와 섬서·감숙의 무슬림[回族] 기의 진압에서 출세하기 시작하여 국가 주권의 보위와 신강의 우르무치·이리 수복 과정 중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김순의 일생은 기의를 진압하고 반란을 평정하며 영토를 수복한 것으로 공과 잘못이 반반이라고 할 만하다.

13. 朝鮮北部發現一座渤海時期壁畵墓(權赫秀 編譯,『東北史地』, 2005－3)

2004년 9월초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은 함경북도 花台郡 錦城里에서 발해의 벽화묘를 발굴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벽화가 있는 발해의 무덤이다. 조선 학계는 무덤의 양식과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특히 북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벼루의 형태 등을 통해 발해의 고분으로 추정하였다.

14. 吉林省博物院歷史館藏貝幣及其相關問題(田麗梅 呂長發,『東北史地』, 2005－3)

조개 화폐는 중국 화폐사상 가장 초기의 가장 중요한 화폐 형태의 하나로 천연의 바다 조개는 교환 활동 중에 주요한 지불 수단으로 춘추시대까지 사용되었다. 길림성 박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조개 화폐를 중심으로 천연 바다조개·骨貝·陶貝·銅貝·石貝의 기본 형태 및 화폐의 계량 단위인 朋과 화폐의 역사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15. 東珠 – 淸代名貴貢品(趙勤 于海民 趙樹,『東北史地』, 2005－3)

역사상 흑룡강 송화강 유역에서 채취한 진주를 동주라 부르며 인삼·담비 가죽 등과 함께 동북에서 청대 궁중에 보내는 공물로 널리 알려졌다. 동주는 길림의 打牲烏拉에서 생산되었으며 打牲烏拉總督衙門에서 조정의 旨를 받아 생산 관리와 수송을 담당하였다. 강희 건륭 연간이 동주 생산의 전성기였으며 채취 방식이 원시적이고 잦은 채취는 진주조개의 고갈을 가져왔으므로 채취 금지령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였다. 打牲烏拉의 진주 채취는 일종의 채집경제로 황실의 사치를 위해 복무했던 것으로 청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4기 [東北史地 2005年 4期]

1. 洛陽, 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誌及泉氏墓地(張福有, 趙振華,『东北史地』2005－4)

낙양, 서안 등지에서 북위와 당나라 시기의 고구려 묘지가 14곳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고구려인들이 중원 내지에 遷徙되었다. ② 泉氏의 묘지는 낙양에 있기 때문에 集安에 있는 五盔墳은 泉씨의 묘지가 아니다. ③ 泉氏의 묘지 3곳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중원 묘지 방식인 昭穆제도를 따르고 있다. ④ 고구려 귀족은 사망 이후 가족이나 집이 있는 고향에 매장하는 回葬의 풍속이 있었다. ⑤ 泉氏 무덤들은 고구려의 封土墓의 방식과 중원 지역의 夯土 방식 모두를 채용했다. ⑥ 중요한 묘지의 경우 벽돌과 와당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唐代泉氏家族墓地不在集安在洛陽令人信服(李健才,『东北史地』2005－4)

張福有, 趙振華 선생의「洛陽, 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誌及泉氏墓地」논문은 당나라 시기 동북아사 연구의 중요한 논문이다. 현지 조사와 고증이 매우 뛰어나고 泉氏의 묘지가 낙양의 北邙山 동쪽 嶺頭村에 있다고 고증한 것은 매우 정확하며 사람을 놀라게 한다.

3. 高句麗貴族有回葬舊塋之習俗集安五盔墳應爲王陵(李殿福,『东北史地』2005－4)

고구려의 文資王, 安藏王, 平原王, 陽原王, 安陽王, 嬰陽王, 建武王의 7개의 왕릉은 石墳墓 건축 양식을 버리고 封土石室墓의 방식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7개의 왕릉은 아마도 옛 수도인 國內城 부근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국내성은 여전히 陪都의 형식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조상의 분묘를 回葬하는 습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4. 高句麗泉氏墓地調查及其價值(耿鐵華,『东北史地』2005－4)

張福有 선생은 하남성 洛陽文物考古部門 趙振華 선생의 도움으로 2003년, 2004년에 걸쳐 고구려 귀족 泉男生 가족 묘지와 王氏 후예들의 묘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고구려 泉氏 묘지의 조사와 墓誌자료의 공개는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두 번째는 高氏의 墓誌와 泉氏의 묘지가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왕족과 귀족들이 중원지역에 대한 문화 교류와 민족 융합의 실질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泉氏의 墓誌 내용은『삼국사기』등 각종 고구려 관련 사료의 내용을 방증해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5. 從泉氏墓誌墓地看高句麗的回葬(孫仁杰,『东北史地』2005－4)

낙양에 있는 고구려 泉氏 墓地 형태와 墓誌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에 回葬制度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葬制의 개혁은 小獸林王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王陵의 回葬 풍속은 長壽王 시기에 시작되었다. 高藏王을 제외하고 평양성을 천도한 이후의 왕들은 장수왕의 방식을 본떠 回葬의 풍습을 따랐다. 集安 열차역 뒷 지역은 고구려 왕릉이 回葬된 묘지 구역으로 생각된다.

6. 泉氏家族世系及其事略(梁志龍,『东北史地』2005－4)

泉蓋蘇文의 아버지는 太祚이고 조부는 子游이다. 太祚의 아들이자 蓋蘇文의 형제로 淨土가 있다. 蓋蘇文의 아들은 男生, 男建, 男産 3명이 있고 남생에게는 아들이 獻忠, 獻誠 두명이 있었다. 獻誠은 다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玄隱, 玄逸, 玄靜이다. 玄隱은 아들 悊를 두었다. 蓋蘇文의 3남인 男産의 손자로 光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7. 關于高句麗好太王征服東夫餘的幾個問題(陳陶然,『东北史地』2005－4)

고구려 호태왕은 기원후 410년에 동부여를 멸망시켰다. 동부여는 당시 부여, 北夫餘와 함께 병존하던 夫餘人 설립 정권 중 하나로 그 세력지역이 길림성 동부와 러시아 濱海지역 일대이다. 헌데 고구려 호태왕 시기에 멸망시킨 동부여는 지금의 吉林市에 위치해 있지 않는다. 따라서 고구려가 지금의 吉林市 지역을 점유하게 된 것은 突地稽가 粟末靺鞨 무리를 이끌고 隋나라에 內附한 이후로 호태왕 시기가 아니다. 동부여의 위지는 도문강 하류 일대로 길림성 琿春市 주위와 러시아 濱海 지역이다.

8. 試論金代的地方治安管理(曲淑華,『东北史地』2005－4)

금나라 초기에는 猛安謀克制를 실시하였고 熙宗 天眷 관제개혁 이후에는 지방에 路, 府(州), 縣 3급 행정기구를 설치해 맹안모극제도와 병행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상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는다. 지방 치안 관리에 대해 두 제도는 공통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첫 번째는 道德教化와 豫防犯罪 정책을 실시했다. 두 번째는 죄인 심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죄를 냉정하게 확정했다. 세 번째는 지방 정부는 현지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의하고 치안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도적침범 방비 대책을 채택했다. 네 번째는 지방 무장 세력을 규합하여 도적을 막고 지방 치안을 안정시켰다. 다섯 번째는 지방 토호 세력을 억제하였다. 이를 통해 금나라는 世宗, 章宗시기에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州縣 지방관이 여진인에 대한 사법권을 갖지 못하고 맹안모극에 속한 軍戶가 漢族民에 대한 자의적인 억압을 가하는 문제점이 금나라 중후기에 두드러지는 사회문제로 돌출되었다.

9. 清末東北建制述論(楊曉軍,『东北史地』2005－4)

청나라 초기 동북지역에 "軍府制度"를 실시하고 奉天, 吉林, 黑龍江 3장군을 두어 동북 지역을 관리했다. 청나라 말기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동북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東北建制가 고려된다. 그 배경에는 ① 동북 지역이 청나라 정부의 발상지고 만주족이 발전하고 강대해져 정권을 세운 지역이라는 점. ② 동북지역이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는 각축장이 되었다는 점. ③ 청나라 정부가 유지해온 封禁政策이

파괴되었다는 상황. ④ 계급 갈등이 점차 첨예해지고 계급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 ⑤청나라 정부가 동북지역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 등에 있다. 東北建制는 제 1단계－崇實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던 동북건제 초기단계, 제 2단계－趙爾巽이 관할하던 동북건제 발전단계, 제 3단계－徐世昌에 의한 동북건제 완성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① 강력한 억압성, ② 선명한 지역성, ③ 농후한 군사성에 있다. 東北建制는 ① 동북 지역제도가 중원지역과 같아지는 역사발전의 추세에 부합한다. ② 중국과 서방의 정치적 특색 모두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③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 다민족 일국가를 이뤄 민족 대융합에 공헌한다. ④ 동북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⑤ 동북지역의 변방수비를 강화해 열강의 동북 침략을 막고자 한다는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 天河浩蕩古今流－松花江源流散記(趙友三,『东北史地』2005－4)

길림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난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西漢 왕조 시기 濊貊族이 夫餘를 건국했으며 그 외에도 고구려, 거란, 여진 등 다양한 민족이 활동했다. 길림성을 지나는 松花江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해 동북지역을 흘러나가는 큰 강이다. 만주족 조상들은 이 강에서 강력한 신령적인 힘을 느끼기도 해 이 강을 "하늘(天)"의 뜻을 갖는 "松阿哩 烏拉"이라고 했다가 明代 이후에 "송화강"이라고 음역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송화강은 嫩江과 합쳐지며 동북지역의 가장 큰 강줄기를 형성한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송화강은 근현대 시기 많은 역사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유유히 남아 오늘날에 길림 대평원의 젖줄이 되고 있다.

6기 [東北史地 2005年 6期]

1. 西漢時期的高句麗"五部"與"第二玄菟郡"－關于高句麗早期歷史的若干問題之三(王綿厚,　『东北史地』2005－6)

서한시기 고구려 초기에 형성된 "五部"는 서한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년)에 옮긴 "第2期玄菟郡"과 관계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고구려 초기 五部의 형성과 확립은 분명 고구려 초기 3代 王인 朱蒙, 琉璃明王, 大武神王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지 건국 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 초기 五部의 형성은 고구려와 그 기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涓奴部"와 "桂婁部"는 遼東"二江"유역의 "卒本夫餘"와 "沸流部(小水貊)" 그리고 "大水貊"의 연합체이다. 세 번째 고구려 초기 五部의 핵심지역은 모두 玄菟郡에 소속되어 있던 고구려, 上殷臺, 西盖馬 3현과 그 주변지역에 해당된다.

2. 從『三國史記 · 新羅本紀』看金富軾對海東三國系年的按排－以高句麗建國時間爲中心(姜維公, 許立勛,『东北史地』2005－6)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구체적 건국 시기는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기타 역사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유독 삼국이 멸망한 한참 후인 고려시기 역사서인『삼국사기』에 그 내용이 보인다. 삼국의 건국시기와 관련된 기사는『삼국사기』의 작자인 金富軾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고구려와 신라 중 김부식이 신라의 건국시기를 고구려보다 앞선 것으로 정하는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했다. 당시 고려는 신라의 옛 영토 안에서

건국했으며 앞선 왕조를 이은 국가이기 때문에 신라를 가장 앞서 건국한 국가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의 근거로 김부식은 중국 史書인『通典』에 기록된 신라 김씨가 30 여 代를 이어왔다는 기록을 근거로 고구려는 28대로 한정해 신라가 더 오래되었음을 확정했다. 따라서 김부식의 한반도 삼국의 건국 시기 순서는 중국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확정한 것이다.

3. 遼代渤海人地區的東丹國探析(程尼娜,『东北史地』2005－6)

요나라 전기 발해인 거주 지역에 東丹國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소수민족 통치 특색이 반영된 특수 행정제도를 설치한 것이다. 건립 초기 東丹國은 요나라의 분봉지역 성질을 띤 특수 행정구역이었지만 후기에 이르면 점차 耶律倍의 가족 封地로 변한다. 東丹國의 정치, 경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발해의 옛 제도를 계승했다. 東丹王과 주요 대신들은 거란 황제에 의해 임명되고 거란족과 발해 관원이 같이 통치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특수 성질의 행정지역으로 東丹國은 비교적 큰 자주권을 향유했으며 하층 관리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외교권도 행사하며 세금도 직접 징수했다. 그러나 요나라 시기의 발해군대는 東丹國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나라 중앙정부에 직속되었다.

4. 金世宗北防韃靼部族策(劉肅勇,『东北史地』2005－6)

금나라 세종시기 북방 변경 지역의 韃靼부족은 자주 국경지역을 침범해 금나라에 큰 위협이 되었다. 세종은 이전 황제들의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減丁"(1～3년 사이에 한번씩 군대를 동원해 韃靼이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공격해 군인을 포함해 장정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내려와 노예로 만드는 작전. 이를 통해 북방지역에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사자원을 궤멸하는 정책)등의 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전국의 財政力과 군사력을 동원해 변경 지역에 長城을 축조해 그들의 변경지역 침입을 억제했다. 이는 얼마간 효과를 거두고 세종 이후의 황제들은 이 정책을 계승해 국가의 생명을 연장했다.

5. 洞溝古墓群禹山墓區JYM3319號墓發掘報告(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东北史地』2005－6)

JYM3319號 묘지는 磚室墓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원지역 漢, 晉시기에 유행했던 묘지 제작 구조와 기본적인 일치를 이룬다. 이것은 고구려 묘지 제도의 변화에 선례가 되는 것으로 고구려 石室墓가 발전을 이뤄내고 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묘지에서는 銘文이 쓰여져 있는 瓦當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고 문헌 사료와 비교해 본 결과 본 묘지의 주인은 晉나라에서 고구려로 투항한 平州刺史 東夷校尉 崔毖로 추정된다.

6. 高句麗的發祥地－卒本川當今何地?(劉素雲,『东北史地』2005－6)

紇升骨城이 지금의 桓仁 五女山城에 있다는 것을 통해 卒本川은 분명 紇升骨 동쪽의 평원지대, 즉 지금의 桓仁저수지 침수구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다량의 고구려 積石墓群유지가 발견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7. 高句麗國相制度研究(鴻鵠,『东北史地』2005－6)

고구려 國相制度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상제도 萌芽期로

左右輔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몇가지 특징을 갖는다. ① 이 시기 輔臣의 권력은 국왕이 수여한 것이라는 점. ② 左右輔의 직임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시기에는 존재하다가 특정시기에는 없어지기도 한다는 점. ③ 大輔, 左右輔의 人選은 귀족출신이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桂婁部 출신이라는 점 등이 있다. 두 번째 시기는 國相시기로 여러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① 귀족출신이 國相을 맡는다. ② 국상은 常設직임으로 기본적으로 終身制이며 전직 국상의 사후 후임을 바로 임명해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 ③ 국상의 임명은 四部에서 추천을 통한 후 국왕의 최후 비준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국상의 권한은 고정적인 것으로 軍事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政事", "政教", "賞罰"과 관련된 일을 주관한다. ⑤ 국상은 四部의 공동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신문이 특수하다. ⑥ 행정 직무의 직급상 국상은 百官의 우두머리라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시기는 大對盧시기에 해당된다. 대대로는 3년에 한번씩 교체되었으며 매번 무력이 가장 강한 자가 선출된다. 이시기 대대로는 이미 국왕의 지위를 뛰어 넘는 권력을 누렸다.

8. 淺析褥薩的産生(華陽,『东北史地』2005－6)

고구려 국가의 초기 형성시기에 五部가 있었으며 각 部의 수령을 大加라고 칭했다. 이들은 해당 部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자주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王權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王權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고구려 국가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때문에 고구려의 왕들은 점차 왕권을 강화해갔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褥薩이 출현하게 되었다. 褥薩은 고구려 왕이 직접 임명하는 각 部의 최고 관리자로 기존의 大加를 대신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려 정치제도 중의 중요한 변혁 중 하나가 되었다.

9. 從『三國史記』的記載看東北亞古族古國的"事大"理念(李英順,『东北史地』2005－6)

김부식은『삼국사기』의 저술을 통해 "事大"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를 했다. 중국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긴 신라는 중국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 "禮儀之邦"이 되었지만 중국에 대항하고 중국지역을 침식하려 했던 고구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사상은 王氏 고려의 통치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려는 송, 요, 금, 원과 교류하는 중에 "사대"의 정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 元朝"天下一家"的治邊思想及其對東北地區的影響(蔣戎,『东北史地』2005－6)

원나라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건국한 첫 번째 통일 왕조이다. 그 영역은 매우 넓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전의 왕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와 변경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는 원나라 왕조가 직면한 중대 문제였다. 중원과 동북지역에 진입한 이후, 몽고는 漢族式제도를 이용해 통치했는데 쿠빌라이는 원나라를 건국한 이후 華夏大一統 사상을 받아들여 그 기초 위에 "天下一家"의 통치사상을 만들어냈다. 전국에 行省制度를 실시하여 동북 변강지역에 대한 중앙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다. 반란을 평정하고 민족 갈등을 완화하며 屯田을 장려한 것은 동북지역이 일정 시기 동안 완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11. 俄羅斯東侵與清初東北的地區安全(王劍,『东北史地』2005－6)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後金(청나라)은 동북 지역 黑龍江 유역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의 東侵은 청나라 초기 동북 지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 이것은 청나라가 영토내에서 북부 소수 민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康熙시기 이후부터 동북부 지역에 엄격한 巡邊制度를 실시한다. 매년 齊齊哈爾, 墨爾根과 瑷琿에서 군사를 보내 변경지역을 점검하게 했다. 또한 변방 요새 지역에는 佧倫을 설치하고 도시를 만들며 변경지역 戶口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해 동북 지역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조치는 청나라 조정이 동북지역의 안정을 위해 취한 필연적인 조치였다.

12. 試述光緖年間蜂蜜山地區的土地招墾政策(王雪梅,『东北史地』2005－6)

蜂蜜山 招墾局 성립 이후 청나라 정부는 招墾정책을 적극 실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 官墾(정부 주도의 開墾), 商墾(상인과 상업 자본에 의한 開墾), 兵墾(군대를 이용한 開墾), 民墾(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開墾) 등 4가지 정책을 병행했다. ② 민간 개간을 중시하고 정부에서는 官品 수여를 통해 개간을 장려했다. ③ 민간에 개간을 맡긴 경우 그와 관련된 세금에 해택을 주었다. ④ 토지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시간에 따라 토지 등급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방지역을 충실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

13. 從使臣別單看朝鮮對中國清代東北的關注(宋慧娟, 許莉莉,『东北史地』2005－6)

중국의 동북 지역은 조선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청나라에 파견되는 朝鮮使臣들은 이 지역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크게 세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三藩의 난 이후 동북지역에서의 청나라 정부가 취하는 움직임과 吳三桂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두 번째는 동북지역에 건설되는 방어 도시의 현황과 청나라 황제가 동북지역에 실시하는 정책을 중시했다. 세 번째는 청나라 정부의 몽고민족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관심을 보였다. 조선사신들이 얻은 각종 정보는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14. 清代移住圖們江北的朝鮮移民(趙興元,『东北史地』2005－6)

계속되는 재해로 19세기 6～70년대부터 조선 국경 지역의 거주민들이 도문강을 넘어 중국 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도문강 이북에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점차 布爾哈通河, 海蘭河, 嘎呀河 연안 등으로 퍼져나가 집단 촌락을 형성했다. 1909년 청나라 정부가 〈大清國籍條例〉를 발포한 이후 조선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거해 새롭게 국적을 얻어 중국 국민이 되었다.

15. 清代朝鮮移民的遷入與東北邊疆的開發(宋健,『东北史地』2005－6)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주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미 한족문화에 융합되어 현재 중국 조선족의 선조로 볼 수 없다. 조선인들의 중국 이주는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세기 중엽에서 1910년까지로 경제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자유이민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는 1910년에서 1931년 사이로 정치적으로 反日의 성향을 띤 사람들이 이주했다. 세 번째는 1931년에서 1945년까지로 일본제국주의의 강제 이민정책에 따라 다수의 조선인들이 이주했다. 이러한 조선 이주민에 의해 동북 지역 농업이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주로 水田 농업이 크게 발달한다.

16. “天人合一”觀對東北文化的影響(何靑志,『东北史地』2005－6)

“천인합일”은 중화 민족의 긴 역사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세계관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침투했으며 동북 지역 문화의 생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동북지역 고대 민족의 신화와 紅山문화 출토 예술품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고대 詩歌나 현대 문학 작품 속에서도 “天人合一”觀을 확인할 수 있다. 천인합일의 세계관은 동북지역 문학과 예술에 일종의 審美的인 요소를 제공했으며 또한 동북지역 고대 민족의 소박한 生態學과 發展觀 및 평화로운 사회 건설의 사회 이념으로 표현되었다.

17. 對東北原始文化的一種全新解讀－簡評郭淑雲的 『多維學術視野中的薩滿文化』(朱立春, 『东北史地』2005－6)

劉憲魯, 王欒周, 卓越 주편의『多維學術視野中的薩滿文化』는 吉林大學出版社에서 2005년 3월에 출판되었다. 본서는 “綜述”, “숭배관념과 제사의례”,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 “샤머니즘 원시 과학”, “샤머니즘 문학예술”, “샤머니즘 문화와 북방 민속” 총 6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샤머니즘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 자연과학, 豫測學, 의학, 법학, 符號學, 문학, 예술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샤머니즘 종교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 또한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다시 發生學의 입장에서 샤머니즘 문화와 현대의 지식 분류 방식이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18. 松花石硯研究中的若干問題探討(劉奉文,『东北史地』2005－6)

松花硯은 중국 고대 文房 문화 중의 특수한 한 종류로 중국 전통 한족문화와 만주족문화 및 동북지역 문화가 결합된 산물이다. 康熙 황제가 발견했다고 하는 松花石은 늦어도 강희 36년(1697) 이전에 발견되었으며 松花硯이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강희 33년에서 36년 사이의 일이다. 松花石과 松花石硯이라는 이름은 강희 황제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松花硯의 생산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400 여개 이상이 현존하고 있다.

19. 長白山西北坡踏査記(安龍禎,『东北史地』2005－6)

2002년 8월 12일, 張福有, 盖秀臣, 安龍禎 3인이 백두산 서북향의 玉柱峰, 白雲峰, 芝盤峰, 錦屛峰 등에 대해 해발고도, 지형지질 등의 항목을 조사하여 많은 중요 자료와 현장 사진을 얻었다.

1기 [東北史地 2006年 1期]

1. 論東北地區的戰略地位(李治亭,『東北史地』, 2006－1)

고대로부터 동북은 국가 발전의 구조 가운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북이 자리잡은 지리적 환경과 동북이 겪었던 역사 변혁 및 현대 중국 발전 구조 중의 역할에서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朝鮮半島古文化淵源的考察(張碧波,『東北史地』, 2006－1)

한반도 고대 문화 연원의 탐색은 한반도 문명 기원에 관련된 커다란 문제이다. 문헌학 자료에서 볼 때 6개 방향에서 이 문제를 탐색하여 볼 수 있다. 한반도 시초의 지명으로 인정되는 暘谷는 해가 뜨는 곳을 관찰하던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화 선주민은 기원전 2000년전부터 한반도를 경영하기 시작하여 해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관찰하고 "曆象日月星辰"하여 "敬授民時"하는 天人관계의 질서화를 이루고 제사와 예의제도를 건립하여 중화의 고문명을 한반도에 이식하여 반도 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주민인 嵎夷(雀夷 島夷)는 湯谷扶桑十日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夏商 시대에는 明夷로 바뀌었으며 商周 시대에는 다시 조선이라 이름 붙였는데 모두 해상에서 해가 떠오르는 형상이다. 네 번째는 주대 한반도의 옛 종족에 대한 탐색이다. 다섯째는 辰國의 탄생 및 그 정치 성질에 대해 탐색하고 아울러 옛 한족 종족명 문화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을 하였다. 여섯째는 한반도의 顓頊 高陽 3종 문화 습속(卵生 羽民 偏頭)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 기자는 한반도 역사 문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나라가 망한 후 "走之朝鮮""箕子之明夷"하여 한반도 북부에 기자조선 정권을 세운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화문명은 한반도 옛 문화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어 한반도 고문명의 탄생을 촉진하고 한반도 문명사의 역사 발전 과정을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진국의 출현과 기자조선의 건국은 서로 다른 민족과 정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반도의 남북 지역이 문명 역사 단계에 진입하는 하나의 선명한 표지였으며 기자조선은 중국동북문명사의 시작이었다. 역사 발전에 따라 한반도 남과 북 지역은 각기 다른 문명 발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3. 朱蒙所葬之"龍山"及太王陵銅鈴"峻"字考(張福有 孫仁杰 遲勇,『東北史地』, 2006－1)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주몽을 장례지낸 "龍山"은 요녕성 桓仁 "望江樓"에 있는 "龍山"으로 "龍頭山" "龍岡" "東岡" "忽本東岡"이라고도 불린다. "용산"의 中上부에는 7개의 옛 무덤이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4호묘에서 마노 등의 주패 장신구가 출토되었으므로 주몽의 묘일 것이며 속칭 "眞珠墓"이다. "용머리[龍首]"의 위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테라스[平臺]가 있다. "용머리" 서남측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지와 명청대의 "龍宮廟"유적지가 있다. 집안 "태왕릉"에서 출토된 구리방울에는 "辛卯年好太王□造鈴九十六"이라는 12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불확실한 7번째 글자는 "峻"이다. 이 글자의 판독은 고국양왕이 8년간 재위하고 호태왕이 391년에 즉위하였으며 "태왕릉"이 바로 고구려 19대왕인 호태왕 談德의 능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4. 渤海早期國號考(楊軍,『東北史地』, 2006－1)

698～713년간 대조영의 국호는 "振國"으로 "靺鞨國"이 아니다.『신당서』에 실린 "震國"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振國"은 "辰國"의 다른 방식의 옮겨 쓰기이다. 대조영이 국호를 "진국"으로 정한 것은 진한의 신라와 정통을 다툰다는 의미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구려 유민의 동질감을 얻는 동시에 고구려 유민의 신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훗날의 역사 발전에서 볼 때 대조영의 이 정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공적인 것이었다.

5. 五國城與五國國名的破譯(劉文生 張泰湘,『東北史地』, 2006－1)

오국부는 요대 생여진에는 한 부락이 모두 5국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 국에는 하나의 성이 있었으므로 오국성이라 불렀다. 각 國의 國名은 한자를 이용하여 기록한 音譯 이름으로 국명이 기괴하다. 본 연구는 고대 여진어 및 그 방언으로 음역한 지명을 연구하기 위해 여진어의 계승어인 만주어를 이용하여 위의 지방들을 해독하였다. ① 越里吉은 물보라가 솟구치는 지방 ② 盆努里는 항상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지방 ③ 越里篤는 石室 동굴을 가진 지방 ④ 奧里米는 비늘이 가는 물고기가 많이 생산되는 강 ⑤ 剖阿里는 원래 활을 뜻하며 활모양의 물굽이를 가진 지방을 뜻하는 것으로 轉意되었다. 해독한 후의 지명은 여진어 방언의 계승어인 赫哲어 鄂倫春어 鄂溫克어를 이용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6. 關于"古之辰國"的再探討(苗威,『東北史地』, 2006－1)

사서에 실려있는 "古之辰國"은 기자가 한반도에 세운 국가이다. 춘추시기 기자의 나라(진국)은 북쪽 오늘날의 대동강 중하류 지역으로 옮겨가 옛 "良夷(樂浪夷)"와 서로 융합하여 "朝鮮蠻夷"를 만들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고지진국"은 결코 하대 상족의 선공인 相土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당시의 역사 조건으로 볼 때 상토가 중원 지구를 떠나 멀리 한반도 남부를 정벌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시경』속의 "相土烈烈, 海外有截"는 하 왕조의 일개 제후국 군주인 상토가 쌓아올린 공적과 한반도와 같은 해외 지역에 대해 강렬한 영향을 낳아 기꺼이 신복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7. 儒家思想在高句麗前期的傳播原因及影響(劉偉,『東北史地』, 2006－1)

고구려 전기 국왕들은 유가 사상의 흡수에 주의를 기울였다. 유가의 윤리·정치·陰陽災異·天人感應·宗法 등 사상은 고구려 전기의 국왕들에게 전파되어 깊은 영향을 낳았고 이는 고구려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져왔다.

8. 遼代吉林經濟發展概述(楊雨舒,『東北史地』, 2006－1)

요대 길림의 철제 도구들은 상당한 진보가 있었으며 생산력 수준에 새로운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요대 중기 이후 길림 각지의 축산업 어업 농업 및 수공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전매[榷場]무역이 점차 번영하기 시작하고 화폐의 사용도 더욱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성취는 당시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물질적인 양호한 기반을 다져주었다.

9. 契丹"三后"的成敗及其歷史根源(陶理 汪玢玲,『東北史地』, 2006－1)

거란은 중국 고대의 민족으로 흥기－극성－쇠락까지 수백년이 걸렸다. 그 사이 황후를 대표로 하는

부녀들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漢化가 지나치게 빨랐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漢문화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섭취한 탓으로 거란 특유의 女權의 특별한 존중, 모계의 존숭, 모후의 집권, 남녀의 상대적인 평등 등이 후기에 이르면 부녀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속박하는 편향적인 정조관을 추앙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결국 "부녀자들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실패를 맛보도록" 하였다.

10. 明代女眞的集聚與整合(欒凡 杜燕萍,『東北史地』, 2006－1)

명대 여진 사회의 결집과 재조합[集聚與整合] 과정 중 조선과의 관계는 줄곧 따라다녔으며 그 사이에 일정한 영향이 생겨났다. 한반도 동북부는 원래 중원 왕조의 관할에 속하였으나, 명조 건립 초기 주로 친원[付元] 잔여세력에 정력을 쏟느라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다. 이를 틈타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야심을 품고 노리던 고려 및 그 후계자인 李朝는 무력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점령 통제를 강행하였다. 명조 황제의 대국 이념 및 역사지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쉽사리 조선에 넘겨준 것은 명조 황제의 이 지역 경영 이념상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20世紀韓國 · 朝鮮 · 日本對古代中朝關係史研究成果概述(刁書仁 史桂榮,『東北史地』, 2006－1)

중조 양국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유구한 교류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이후 고대 중조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 국제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 날로 각국 학자들의 중시를 받았다. 한국 북한 일본의 고대 중조관계사에 관한 연구성과는 중국 학술계의 고대 중조관계사 연구에 유익한 참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12. 海東漁俗采珍(于濟源,『東北史地』, 2006－1)

이른바 동해는 錫霍特山 이동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흑룡강이 바다로 나가는 입구인 廣袤지역과 庫頁島 등 지역을 포괄한다. 만주족의 선조들과 수많은 북방소수민족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요대의 東海여진과 명대의 野人여진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동해지역의 풍속은 동북의 다른 지역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어로 풍습만은 독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2기 [東北史地 2006年 2期]

1. 漢樂浪郡屬縣今地考定質疑(徐德源,『东北史地』2006－2)

『鹽鐵論』의 「險固」에 나오는 "燕塞碣石絶斜谷繞援遼" 구절을 잘못 끊어 읽어 북한의 서북쪽 해안에 碣石이 있는 江西郡 咸從里를 漢代 낙랑군의 遂成縣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것은 遼東의 옛 변방이 斜谷, 즉 지금의 북한 淸川江 谷地 북쪽에까지 이른다고 해석해야 한다. 북한에서 최근 발견된 大寧江 長城이 청천강을 넘지 않고 平安北道 淸川江 북쪽의 博川에서 그친다는 사실은 "燕塞, 碣石絶斜谷"이라는 것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금의 博川을 옛 遂成縣이라고 해야한다. 이외에 역사지리학자들이 옛 浿水를 지금의 북한 청천강이라고 잘못 비정하여 이 강과 관련된 한대 낙랑군 소속의 鏤方, 浿水(臨浿縣), 增地 세곳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었다.『史記』「朝鮮傳」의 기록에 의거해 보면, 북한 大同江 水系에

속하는 普通江이 옛 浿水에 해당되고 위의 세곳은 普通江의 발원지역이나 中流 혹은 대동강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 등지에서 그 위치를 찾아야 한다. 만약 대략의 위치를 비정해 본다면 세곳은 각각 平安道 肅川, 平壤市 順安, 平壤市 南浦에 해당된다.

2. 豆谷, 豆谷離宮及琉璃明王陵(張福有, 孫仁杰, 遲勇,『东北史地』2006－2)

고구려 2대 왕인 瑠璃明王은 "豆谷離宮"을 만들고 "豆谷東原"에 매장되었다고 하는데 "豆谷"의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문헌 사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보면 "豆谷"은 바로 "通溝"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豆谷離宮"은 集安의 "梨樹園子南遺址"이고 "豆谷東原"은 集安 通溝河의 동쪽이자 故國川原의 서쪽, 국내성 이북 지역인 高阜, 臺地 지역이다. 瑠璃明王의 陵은 集安 禹山의 JYM0호 묘지이다.

3. 關于渤海石燈幢(朱國忱, 朱威,『东北史地』2006－2)

石燈幢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經幢보다 일찍 출현했다. 발해 上京유적지에서 발견된 石燈幢은 9개 혹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12개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石燈幢의 구조와 조각기법에서 발해 문화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데 蓮花 조각은 불교를 崇重했던 사회분위기를 보여주며 조각 기법은 石彫예술과 建築예술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발해 石燈幢은 현재 동남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보수가 필요하다.

4. "保州"問題與遼麗關係(趙永春, 玄花,『东北史地』2006－2)

요나라 聖宗은 고려가 요나라에 대해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치는 동시에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압록강 동쪽 수백리의 땅을 고려에 주었다. 이후 고려가 약속을 어기자 출병하여 江東의 城 여섯 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요나라가 3번째 출병하여 고려를 정벌할 초기에 保州를 건설하여 고려의 침공과 통제를 위한 군사 핵심 도시로 삼는다. 전쟁 이후 고려는 保州가 고려에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요나라 조정에 保州를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保州 지역이 성종이 고려에 준 압록강 동쪽 수백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고려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保州문제를 둘러싼 양쪽의 빈번한 협상가운데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금나라가 기병한 이후에도 고려는 금나라 朝廷과 保州문제를 협의하였고 결국에 금나라는 고려가 금나라에 신하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고려에 넘겨주었다.

5. 漢文化對高句麗文化的影響(于波,『东北史地』2006－2)

고구려는 여러 분야에서 漢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① 생산 방식 분야－고구려인들의 거주지역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는 지형이지만 고구려인들이 농업을 중시했다는 것은 한문화의 농본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사상 의식 분야－고구려인들은 한문화의 儒家思想을 받아들였다. ③ 문학 예술 분야－瑠璃明王의「黃鳥歌」를 보면 한문화의 음악과 춤에 영향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④ 풍속 습관 － 宗廟와 社稷를 세우고 머리를 땋는 습관은 한문화의 영향이다. 고구려가 한문와의 영향을 받은 원인은 ① 漢族들이 지속적으로 고구려지역에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② 고도로 발달된 한문화는 자연스

럽게 주변 민족들이 모방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중원 왕조와 고구려와의 문화적 유사성은 두 민족이 하나로 융합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6. 渤海政權建立的幾個問題(楊秀祖,『东北史地』2006－2)

발해 정권의 건립은 粟末靺鞨 사회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營州의 亂이 발생한 이후 당나라는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잠시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발해 정권이 건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粟末靺鞨의 수령 大祚榮은 정치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발해 정권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발해 정권이 성립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7. 唐代東北羈縻府州朝貢述論(宋卿,『东北史地』2006－2)

당나라는 주변 소수민족들의 거주 지역에 羈縻府州를 건설하였다. 각각의 소수민족이 처한 사회 발전 상황이 달랐던 까닭에 각 羈縻府州의 유형 또한 서로 달랐다. 동북 변경 지역의 契丹松漠都督府와 奚饒樂都督府는 契丹과 奚 두 민족 부락 연맹의 형식을 기초로 하여 건립되었다. 이 두 도독부 설립 이후 契丹과 奚 두 민족은 羈縻府州의 형식을 바탕으로 당나라 조정과 朝貢蕃屬관계를 유지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朝貢은 중원지역 왕조와 변경지역 민족과의 관계를 더욱 일체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해 변경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것은 중앙 정권이 변경지역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8. 女眞首領李滿住在鴨綠江流域的活動(王雁,『东北史地』2006－2)

女眞 建州衛의 首領 李滿住는 明 永樂 말년에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 유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조선군대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불리한 형세 속에서 이만주는 다른 여진족들을 모아 압록강 유역을 개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지역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9. 清朝政府早期對黑龍江西部地區的行政管理(周喜峰,『东北史地』, 2006－2)

흑룡강 서부 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민족이 공존했던 지역이다. 청나라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각 민족지역 통치를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기미 위주의 관리 방식을 폐지하고 黑龍江將軍을 설치하여 흑룡강 서부 지역을 관할케 했다. 또한 흑룡강, 墨爾根, 齊齊哈爾 등의 도시를 건설한 후, 副都統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지 각 민족을 八旗에 편성하여 각 도시에 주둔시켜 駐防八旗制를 실시했다. 이외에 布特哈 지역의 達斡爾 등 민족에 대해서는 布特哈八旗制, 蒙古族에 대해서는 盟旗制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청 정부는 흑룡강 서부 각 민족들을 직할 통치하에 두었다. 이는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동북 국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10. 清代鴨綠江流域實行封禁的原因(閻光亮,『东北史地』, 2006－2)

청나라 초기부터 200 여년 동안, 청 정부는 압록강 유역에 대해 封禁政策을 실시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국경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에 있었다.

11. 清末庚戌, 辛亥年間的 東北鼠疫(李皓, 『东北史地』, 2006－2)

庚戌, 辛亥 年間에 대규모의 유행성 페스트가 동북 지역에 발발해 수만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동북3성 각급 정부는 防疫사무소를 설치하고 격리병원을 건설했다. 능력 있는 의사를 초빙하여 격리와 현장관찰 등의 조치를 통해 병해와 결전을 벌였다. 방역조치의 적절한 실시와 상하 기관의 협력을 통해 5개월 동안 지속했던 페스트를 결국 진압할 수 있었다. 잔혹한 역병은 동북지역 사람들에게 거대한 재난이었던 동시에 이것은 동북지역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회였다. 당시의 경험은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2. 論雙砣子第三期文化在黃渤海沿岸地理分布上的差異(張翠敏, 『东北史地』, 2006－2)

雙砣子第三期文化로 대표되는 大連지역 청동기 문화는 遼南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요동반도 남단과 발해만 연안에 비교적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주로 존재하지만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발해만 연안에서 발견된 遺址 중 雙砣子第三期文化를 포함한 지층은 于家村上層, 羊头洼上層, 大砣子上層, 小黑石上層, 雙砣子上層, 崗上墓地下層, 廟山上層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출토문물과 형태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黃海 연안에서 발굴된 유지로는 大嘴子上層, 大溝頭第三層, 高麗寨上層, 上馬石上層 등이 있고 이들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문화시기의 묘지는 발해만 연안에서만 발견되는데 于家村砣頭積石墓地, 天寶山積石墓地와 土龍積石墓地가 있으며 이 역시 묘지의 크기와 매장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①각 지역 문화의 내재적 특성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②각 지역 문화 사이의 교류가 교류하지 않는 지역과의 새로운 차이를 만들었다. ③지리적인 특성과 지질 조건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다 등이 있다.

13. 一部研究中, 朝關係史的珍貴資料－《〈同文匯考〉中朝史料》評價(韓翠花, 『东北史地』, 2006－2)

『동문회고』는 朝鮮 承文院이 禮曹判書 鄭昌順 등에게 의탁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에 걸쳐 중국과 조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서를 모아 발간한 책이다. 본 책은 元編, 別編, 補編, 附編, 原編, 原編續, 附編續, 附編 등의 편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636년에서 1881년 사이의 중국과 조선 사이에 왕래했던 詔勅, 貢表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同文匯考〉中朝史料》의 이름으로 출간된 동문회고는 총 4권, 200 여 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출간되었다.

14. 日, 韓學者對《三國史記》的研究(朱曉東, 高文俊, 『东北史地』, 2006－2)

삼국사기는 완성 이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는 고려시대 李奎報의 것이 최초에 해당된다. 이후 麗末鮮初 權近(『進三國史略箋』), 尹淮(『擬請刊行東國史略箋』)과 李克墩(『東國通鑒』) 등이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후 徐居正의 『進東國通鑑箋』, 吳澐의 『東國纂要』, 安鼎福의 『順菴文集』, 정약용의 『茶山全書』 중에 삼국사기의 체례와 언어, 사학관점 등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신채호 등을 대표로 하는 일부 민족역사가들이 삼국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일제시기의 일본 역사가 津田左右吉과 末松保和 등이 삼국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현대 한국의 金哲俊, 高柄翊, 李基白 등이 삼국사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본 글 후반부에 연구 목록이

있다.

15. 沸流王故地在桓仁(王叢, 王俊輝, 趙金付,『东北史地』, 2006－2)

비류왕의 옛 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다. 이에 관해 문헌 고증과 현지 조사를 통해 보면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다. 역사상에서 말하는 沸流水는 富爾江이고 비류왕의 옛 땅은 桓仁이다.

16. 扈爾漢祖居地雅爾古寨考(寧會學,『东北史地』, 2006－2)

고고학 조사와 연구 발표를 종합해 보면, 烟筒山 아래의 南老臺가 雅爾古寨遺址에 해당된다. 그 이유로는 ①남로대가 "大雅河의 유역"에 포함된다는 점. ②지세로 봤을 때 계곡과 삼림 중에 있어 방어가 쉽고 좀처럼 공격받지 않는다는 점. ③이곳에서 다량의 明代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점. ④산 아래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佟佳江이 있어 어로, 수렵 및 경작과 방목에 유리하다는 점. ⑤고대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돌 맷돌과 집터, 분묘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 ⑥이 지역이 명대시기 성곽과 거리가 2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실제와 유사하다는 점 등이 있다.

3기 [東北史地 2006年 3期]

1. 國內城始建于戰國晚期燕國遼東郡塞外的一個據點之上(李殿福,『东北史地』, 2006－3)

집안 국내성의 성벽 구조는 돌로 쌓은 성벽 속에 흙을 다져 만든 성벽을 포함하며 검은 색의 흙을 다져 만든 성벽 하단에 기초를 잡은 흙이 있다. 이는 돌 성벽으로 개축하기 전에도 여전히 흙을 다져 쌓아올린 토성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瑠璃明王이 국내성으로 천도했을 때 이 토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때 쌓았다고 하는 尉那岩城이 바로 山上王 이후 丸都山城이다. 국내성의 돌 성벽은 故國原王이 원래 있던 흙으로 쌓은 성벽 바깥에 돌 성벽을 추가하여 쌓은 것이다. 토성은 전국말에 쌓은 것으로 전국시대 말기 燕 요동군의 새외 거점의 하나였다.

2. 集安蒿子溝墓地調查與東川王陵考(張福有 遲勇 孫仁杰,『东北史地』, 2006－3)

고구려의 동천은 국내성이 소재했던 "中川"의 동쪽 일대인 집안 長川·蒿子溝 일대를 가르킨다. 제11대 왕인 동천왕의 릉은 동천의 호자구JHM1호 묘에 위치한다. 이 지역을 옛날에는 "柴原"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蒿子溝·柴子溝라고 부른다. 장천·호자구·良民은 모두 압록 평원에 있다. 동천왕이 쌓은 平壤城은 바로 집안의 良民古城이다. 동천왕이 평양성을 쌓은 다음 해에 죽자 국내성과 평양성 사이의 동천에 장례지낸 것이 도리에도 맞고 예의에도 부합한다.

3. 再論高句麗民族的起源(李德山,『东北史地』, 2006－3)

오래전에 존재했던[古老]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고구려사 연구에서 주목받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오랜 기간 학자들은 수많은 관점을 제출하였고 모두 나름대로 합당하고 상세한 논증이 있었다.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구려 민족은 예맥이나 부여 등이 아니라 동이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동이족 계통 중의 介族과 萊族과 淵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역사 사실에 부합한다.

4. 參加古代壁畵臨摹的回憶與體會(劉萱堂,『东北史地』, 2006－3)

필자는 20세기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동북지역에서 여러차례 고구려·발해와 遼代 벽화묘의 측량과 모사 작업에 참가하였다. 이 글은 몇 차례의 중요했던 모사의 참가자와 작업 상황에 대해 상세한 회고로 이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된 고고 브리핑[簡報]인『報告』의 보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실전 경험을 결합하여 벽화 모사의 의의 역할 및 기법에 대해 총괄하고 수준 높은 탐구를 하였다.

5. 曾鞏對高麗世次十問(史長樂,『东北史地』, 2006－3)

북송 증공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王氏고려와 고구려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진 역사가[史官]이다. 일찍이 920여년전 증공은 옛 사서에 실린 고구려와 왕씨고려의 역사 사실이 뒤섞여 분간할 수 없고 많은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請訪問高麗世次』를 올려 고구려와 왕씨고려의 제왕 계승 순서[世次]에 대해 열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神宗에게 사신 접대관[典客之臣]에게 명하여 송을 방문하러 와 있던 고려의 史臣(使臣의 오류인 듯*)에게 직접 알아보도록 할 것을 요청하여 옛 사서에 실린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고려 史臣(上同*)은 감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회피하여 증공이 질문했던 것은 제대로 끝맺음 할 수 없었다. 그 다음해 증공이 병으로 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계속해서 추궁해 나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 바로 명확하게 될 문제가 오히려 역사의 현안이 되어 계속 그대로 따르면서 고쳐지지 않았다.

6. 永寧寺碑文銘刻的奴兒干都司與黑龍江下流, 庫頁島的先居民族關係(楊暘,『东北史地』, 2006－3)

최근 중국 사학계는 영녕사의 두 개 비문 연구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지만 奴兒干都司와 흑룡강 하류·사할린[庫頁島] 민족 관계 방면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비문은 ① 한어 몽고어 여진어 티벳어로 새겨 "잡거"하던 다민족 지구의 문화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였고 ② 이 지역에서 儒佛道 문화 교류와 융합을 촉진한 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적어도 원대부터 이 지역과 일본 북해도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어 명대에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명의 복식이 이 지역을 거쳐 북해도의 아이누인에게 전해져 아이누인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는 중일 양국 인민의 전통적인 우호와 문화교류 및 융합이 오랜 역사를 가지는 점을 설명해준다.

7.『他塔喇氏家譜』及其所反映的清代東北駐防旗人家族(杜家驥,『东北史地』, 2006－3)

만주족『他塔喇氏家譜』및 거기에 반영된 동북 駐防 旗人의 거주 분포 상황과 그 특징, 그리고 그들의 문화·관직 재직·통혼·종족 제도 등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만주족의 종족 족보는 만주족 역사와 팔기 제도사 연구에 비교적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만주족 종족을 고찰하는 기본 사료이므로 이런 자료의 이용을 중시해야 한다.

8. 渤海國號初稱"靺鞨"考(梁玉多 魏國忠,『东北史地』, 2006－3)

『신당서 발해전』에는 대조영이 唐朝의 "발해국왕" 책봉을 받아들인 후 "비로소 말갈의 호칭을 버리고 오직 발해라고만 일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관련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충분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해 早期의 정식 국호는 "말갈" 혹은 "말갈국"이라고만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震國"설과 "振國"설은 비록 각각 나름의 근거와 출처를 가지고 있지만 698～713년 사이 대조영 정권의 정식 국호는 결코 아니며 당지 "말갈국"의 별칭이거나 속칭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振國"은 같은 음의 단어인 "震國"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잘못 기록한 것이다.

9. 淺析渤海王族大氏的族源(陳陶然,『东北史地』, 2006－3)

粟末靺鞨은 肅愼－挹婁－勿吉 어족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발해의 왕족인 대씨는 속말말갈에서 나왔다. 속말말갈은 고려에 종속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어떤 사서에서는 그들을 고려의 別種이라 불렀다. 속말말갈은 고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매우 크지만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구당서』가『말갈전』과『발해말갈전』을 나누고『신당서』가『흑수말갈전』과『발해전』을 따로 두었던 것은 발해 왕족 대씨가 속말말갈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발해 민족은 말갈인 고려인 漢人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일부 소수민족이 함께 구성한 것이다.

10. 試論宣王大仁秀與渤海國的中興(薛海波,『东北史地』, 2006－3)

선왕 대인수는 발해 중흥의 군주로 그 통치 시기 당시의 정치 형세 변화에 근거하여 당조와의 예속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전략과 경제적 이익의 고려에서 출발하여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전대 諸王들의 기초 위에 발해의 관제 및 각급 행정 구획을 개혁하고 완비하였으며 영토 확장을 통해 발해 강역을 최종적으로 안정시켜 발해를 극성기에 다다르게 하였다.

11. 遼朝"國制"成因探考(鄭毅,『东北史地』, 2006－3)

요의 "거란의 제도[國制]로 거란인을 다스리는" 통치 정책은 요대의 "습속[俗]에 따라 다스리는" 민족 정책의 구성 성분의 하나로 거란민족이 건국하던 때의 객관적 사회 기초와 전제황권 건립의 정치적 요구를 두루 고려한 것이었다. 이는 阿保機가 거란 부족 연맹의 전통적인 옛 제도에 대한 이용과 개조의 기초 위에서, 오랜 발전을 거쳐 점차 형성된 하나의 통치 정책이며 요대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12. 試論明初和平統一東北之戰略(趙玉田 邵國莉,『东北史地』, 2006－3)

명초 동북을 평화롭게 통일하려는 전략은 명태조가 역량을 집중하여 元順帝 및 擴闊帖木兒 집단을 소멸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려는 정치 군사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 책략은 나하추[納哈出]部 및 동북 지역의 기타 元軍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는 정치 군사적 수단의 상호 결합을 통해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명초 동북을 평화통일하는 과정은 대체로 정치적 유혹 단계－군사적 위협 단계－군사적 공격 단계 및 정치적 귀순 유도 단계를 거쳤다.

13. 赫哲族研究的歷史與現狀(郝慶雲,『东北史地』, 2006－3)

혁철족은 중국에서 인구는 비교적 작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러시아와 동북 양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민족이다. 혁철족의 역사와 문화는 일찍부터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서는 중 러시아 일본 세 나라의 혁철족 역사문화 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80년대 이후 전문화의 경향을 보이며 경제문화의 변천 및 생산 활동 등 각 방면에 걸쳐 커다란 진보가 있었다. 러시아의 연구는 때때로 식민주의 색채를 띠지만 적지 않은 사료 축적이 있으므로 중국에 부족한 사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는 민족학 인류학적 시각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민족문화 항목의 연구에 치중하였다.

14. "韓外邊"興起與作用探析(姜小莉 郭殿華,『东北史地』, 2006－3)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50여 년간 길림성 남부의 夾皮溝를 중심으로 한 수백리의 산간 지역에는 "한외변"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 호족과 그 종족이 "독립왕국"식의 통치 형태를 세웠다. 합법과 비적적인 성격을 함께 띤 것으로 동북 변강 발전사에서 비교적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으며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 흥기와 발전은 동북 개발에 상당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5. 吉林地名與地域文化(施立學,『东北史地』, 2006－3)

역사와 풍속 문화의 시각에서 길림 지명의 비밀을 풀어 보았다. 그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길림 지명"에서 일부 우리가 상상과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 지역을 탐구할 수 있다; "산천의 지세가 빼어나 이름을 얻은" 곳은 길림의 지명이 어떻게 역사를 장식[鑲嵌]하는지를 보여준다; "농경 어업 수렵 활동과 관련하여 촌락의 이름을 지은" 곳은 한 폭의 농경 어업 수렵의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다; 수많은 특수한 지명은 다민족 문화의 융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나 詞 對聯 혹은 전설 고사를 통해 길림 지명과 지역문화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으며 길림의 지명 문화는 길림 역사문화와 농경 어로 수렵 문화생활의 풍성함을 반영하고 있다.

16. 長白山貂俗研究(陳福順 孫文采,『东北史地』, 2006－3)

關東三寶의 하나인 담비의 명칭 유래를 서술하고 어떻게 담비의 등급을 식별하는지 소개하며 담비 사냥꾼들의 담비 사냥 중의 신앙 및 풍속을 정리하였다. 또 각기 다른 역사 시기담비 사냥 기술의 발전 변화를 소개하였다.

4기 [東北史地 2006年 4期]

1. 關于高句麗早期歷史的幾個問題(李大龍,『东北史地』, 2006－4)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고구려 五部형성의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다. 주몽이 길에서 만난 3명은 각각 3개의 부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주몽이 이끌고 남했던 부여인과 고구려 영역내에 있던 蠻夷가 함께 五部를 형성했다. 그리고 五部가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에서 中部(黃部), 北部(後部), 東部(左部), 南部(前部), 西部(右部)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단순한 명칭상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긴 시간에 걸쳐 흩어져 있던 부락민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역사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민족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표시가 된다.

2. 關于高句麗第一次遷都問題的探討(劉子敏,『东北史地』, 2006－4)

고구려의 첫 번째 천도와 관련해 세가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처음 고구려가 "國內"에 천도했다는 것은 "國內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國內地區"를 지칭하는 것이다. "尉那岩城"은 "山城子山城"이 아니라 "覇王朝山城"이다. 또한 사서에서 말하는 "效猪" 쫓아갔다는 기록은 믿기 어렵다. ② 고구려가 지금의 集安 國內城으로 천도한 것은 大武神王이 재위하던 시절의 일로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玄菟郡이 와해된 후 고구려가 "盖馬國"과 같은 "國內"지역의 高夷諸部를 병합했어야 한다. "國內"라는 이름은 戰國, 秦漢시기 이 지역 土築城邑의 이름에서 기인한다. ③ "西盖馬"縣은 盖馬大山(지금의 狼林山脈)의 서쪽에 위치하며 역사상 단지 "西盖馬縣"만이 있을 뿐 "西盖馬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潘祖蔭藏好太王碑早期拓本芻議(耿鐵華,『东北史地』, 2006－4)

徐建新 선생은 얼마전 潘祖蔭藏好太王碑를 발견했다. 이것은 현재 발견된 호태왕비 중 가장 초기의 雙勾加墨本이다. 탁본을 模寫한 시기는 光緒6年 1880년으로 생각된다. 이 탁본에 첨부된 題跋은 호태왕비의 발견과 탁본, 文字연구 및 역사연구에 중요한 실증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이것은 경매에 붙여진 이후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4. 由清代滿族文化特性想到民族文化與外來文化關係(馮爾康,『东北史地』, 2006－4)

清代의 문화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발전시기의 開放吸收性, ② 통일 중국 초기의 문화擴張性, ③통일 이후 민족문화 유지노력의 堅忍性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민족 문화와 기타 문화, 외래 문화의 관계를 다룰 때에 문화의 主體性과 寬容性 및 調整性 등 여러 방면을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5. 試論渤海國與日本的友好交往(安龍禎,『东北史地』, 2006－4)

발해와 일본의 무역은 주로 官方貿易으로 交關, 回易, 互贈, 市易, 交易 등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발해에서 일본을 총 34번 방문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교류가 활발했는데 발해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때 詩賦에 능하고 문학적인 조예가 깊은 사람을 뽑아 보내 일본의 문학가들과 교류를 갖게 하여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 이외에도 발해와 일본 승려들 사이의 교류는 불교의 전파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발해와 일본 사이의 교류는 동북지역과 일본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中日關係史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6. 葉赫王城與哈達王城建制的比較研究(孫明,『东北史地』, 2006－4)

葉赫王城과 哈達王城은 擇地와 수량 및 城郭제도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데 공통점으로는 ① 擇地에 있어 산에 의지하여 건설했다는 점. ② 강을 끼고 자리했다는 점. ③ 貢市의 교통요지를 장악하여 통행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 ④ 왕성의 수량이 둘 다 모두 3개라는 점. ⑤ 성곽의 구조가 모두 內外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⑥ 왕성의 모습이 불규칙한 원형이나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① 두 왕성의 발전시기가 차이난다는 점. 哈達王城이 强勢에서 弱勢로 바뀌면 葉赫王城은 다시 강해지는 과정을 겪는다. ② 왕성 축조 방식에서 哈達은 土築, 石築, 土夯築, 土石混築 등이 있으며 이중 土築이 가장 보편적인 반면 葉赫은 土石混築과 塼包夯土 등의 방식이 있는데 土石混築이 가장 많다는 점. ③ 都城의 배치 형태상 哈達城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불규칙 배치형태이고 복잡한 지형과 舊城郭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반면, 葉赫城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배치구조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완전한 형태를 이룬다는 점 등이 있다.

7. 清代封禁政策對遼西農業經濟及習俗的影響(王穎超,『东北史地』, 2006－4)

청나라의 封禁정책은 동북지역 토지 개발과 농업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특수한 경제환경과 馬政制度로 인해 遼西 大凌河 말목장은 청나라 조정의 封禁政策 아래에서 "막아 놓지만 완전히 禁하지는 않는 상태", "때에 따라 개간하고 때에 따라 禁하는 상태"와 "금지한 것이 점차 완화되어 개간을 허용하는 상태"를 겪게 된다. 이와 함께 遼西의 농업 경제 또한 曲折을 겪으면서도 간혹은 완만한 간혹은 신속한 발전을 하게 된다. 關內지역에서부터 이주해온 대량의 漢族 농민은 선진 농업 생산 기술을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족 농민들의 생산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독특한 농업 생산 습속을 형성했다.

8. 試述清政府對黑龍江流域邊民實行的貢豹與賞烏制度(陳鵬,『东北史地』, 2006－4)

청나라 정부는 흑룡강 유역의 각각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대해 서로 다른 貢賞관리제도를 시행했다. 흑룡강 하류와 烏蘇里江 동쪽 및 庫頁島의 赫哲, 費雅喀 등의 변방지역 거주민들에 대해 貢豹賞烏制度를 실시하여 每 戶마다 豹賦를 징수하고 아울러 烏林을 賞으로 주었다. 貢賞制度는 국경 지역 각 민족을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변경지역의 강화와 변경지역 사회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나라 정부는 흑룡강 유역의 소수민족 사이에 貢豹와 賞賜制度를 통해 중앙과 국경지역 민족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9. 十字架與敖包, 神樹：人類學比較研究(唐戈,『东北史地』, 2006－4)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희랍정교 특유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런 십자가를 山 정상에 세워놓은 곳이 중국에 다섯 곳 이상 있는데 모두가 내몽고 額爾古納市에 있다. 이것을 세운 사람은 현지 러시아인과 중국인의 혼혈 후세들과 순수 러시아인들이다. 이렇게 산 정상에 세워 놓은 십자가는 몽고 초원위의 敖包 그리고 동북 지역의 神樹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들의 구조와 기능은 부분적으로 샤머니즘에서 온 것이다.

10. 從薩滿教的崇拜看其生態環保因素(閆超,『东北史地』, 2006－4)

샤머니즘 종교는 일종의 원시 종교 형태로 중국 동북 지역 소수민족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야 등지의 많은 민족들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가히 샤머니즘 종교가 世界性을 갖는 문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샤머니즘 종교는 중국 북방 민족 사이에서 오랜 동안 이어 내려왔다. 샤머니즘 종교의 모든 변화와 발전, 관념의식은 이들 민족들이 보여준 역사 발전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역으로 샤머니즘 종교의 각종 관념의식은 이들 민족의 생활과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이다. 샤머니즘 종교의 숭배신앙과 의식관념 및 행위형태에는 生態를 유지하고 環境을 보호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1. 清代滿族文化淺淡(杜晶,『东北史地』, 2006－4)

청나라 시기 만주족의 문화는 漢文化의 발전 추세를 따라 漢文化의 일부분으로 흥기하였다. 역사적 상황의 변화는 만주족이 지역적으로 原駐地와 遷徙地 두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통일되어 있던 民族文化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변해가도록 했다. 만주족 문화와 漢族 문화가 병존하고 있을 때 한문화는 우세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주류문화가 되었고 만주족의 문화는 변두리 문화가 되었다. 公文書에 만주어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에도 만주어를 점차 덜 쓰게 되는 상황이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12. 大連城山山城2005年調查報告(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东北史地』, 2006－4)

城山山城은 大連 지구 혹은 동북지역의 대형 山城 중 하나로 고구려 역사상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前城과 後城 두 개의 대형 산성을 포함하는 城山山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山城構造, 험하고 긴요한 지리위치와 "姉妹"城의 형태로 병존하고 있는 배치 모양은 城山山城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城山山城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관측은 고구려 산성과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산성에 대한 조사는 2005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이루어졌다.

13. 東北地方志與東北史地研究(任海濱, 王廣義,『东北史地』, 2006－4)

지방지는 역사를 골격으로 삼는 종합기록이자 地方性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廣範性이 그 특징이다. 요녕, 길림, 흑룡강 3성은 상대적으로 지방지 문서가 적다. 이 지역의 최초 지방지는『遼陽行省圖志』로 이것 이후 꾸준히 지방지가 발간되었다. 동북지역 역사와 지리연구에 있어 지방지가 갖는 가치는 ①지방지에 기록된 내용이 지역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동북지역 역사와 지리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②지방지 자료는 正史와 마찬가지로 連續性과 原始性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정사보다 훨씬 직접적인 내용도 있다. ③지방지 자료는 근대사연구에 있어 애국주의와 愛鄉主義 연구에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14. 喜讀長春地方文化建設的最新成果－《長春廳志·長春縣志》和《長春資料選編》(李健才,『东北史地』, 2006－4)

于涇이 校注한『長春廳志·長春縣志』는 총 530페이지, 약 31만 자에 달한다. 孫彦平이 編校한『長春資料選編』(光緒卷)는 총 303페이지 약 18만 자이고 楊洪友가 編校한『長春資料選編』(宣統卷)은 上下 두 권, 1029페이지로 대략 70만자에 달한다. 이들은 2002년과 2005년 사이 長春出版社에서 출판되어 동북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중『長春資料選編』에 수록되어 있는『盛京時報』는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15. 名家鼎立竞輝煌－高句麗學新著介紹(徐德源,『东北史地』, 2006－4)

李殿福은 현재 고구려학 관련 저서를 출판한 가장 초기 학자 중 한명으로 최근에『高句麗民族文化研究』

를 출간했다. 고구려인의 의복과 건축예술 등의 방면에 세밀하고 정치한 설명을 가했다. 張福有가 서문을 썼으며 본서에는 30 여장의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高句麗民族文化研究』는 2005년 吉林文史出版社에서 출간되었으며 부록으로 저자 소개와 저술 목록이 있다.

16. 瑣談東北大白魚(于濟源,『东北史地』, 2006－4)

大白魚은 예부터 魚類 중의 희귀한 것으로 여겨져 "大馬哈魚", "灘頭魚"와 함께 "변경 지역 3대 진귀한 물고기"로 칭해졌다. 황제에게 進獻되던 獻貢品이었다. 大白魚 중에는 興凱湖와 松花江에서 잡히는 것이 으뜸인데 송화강 大白魚는 전체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눈이 작은 특징이 있다. 현재 송화강 大白魚가 멸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17. 遼西金代古橋考(李仁志, 田月華, 李訓良,『东北史地』, 2006－4)

지금의 遼寧省 朝陽市 관할의 凌源에 있는 天盛號 옛 다리는 중국 동북 지역의 건설 年代를 알 수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 이 다리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기반 기초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건축 수준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다리는 금나라 女眞人들이 中原 漢族의 선진 문화와 생산기술을 계승,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18. 康熙和長白山 : 歷史的對話(高振環,『东北史地』, 2006－4)

강희 황제는 동북지역과 백두산 부근에 대한 실측조사를 여러 차례 명한다. 1708년『皇輿全覽圖』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외국 학자들을 동북지역에 파견해 백두산과 흥안령 지역에 대한 지리 계측을 실시했다. 이는 동북 인삼이 서양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조사에 참가한 외국 학자들은 이후 또다시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1712년 강희 황제는 다시 穆克登에게 명해 백두산 지역의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선 1677년에 강희는 內大臣 吳默納을 단장으로 삼은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국 1718년 중국 최초의 地理全圖인『皇輿全覽圖』가 완성되었다.

5기 [東北史地 2006年 5期]

1. 關于朝鮮歷史地理研究中若干問題的解誤(徐德源,『东北史地』, 2006－5)

본 글은『史記 朝鮮傳』의 첫 단락에 대한 새로운 句讀을 통해 그 담겨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遠古朝鮮 인문지리 구역의 구성과 箕氏朝鮮의 南界 파악[認知] 문제의 학술적 사각지대를 타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① 기씨조선과 眞番朝鮮의 위치 ② 옛 연나라가 동쪽으로 개척한 최대 邊界인 "滿潘汗" ③ 秦朝의 "遼東外徼" "秦故空地上下障" 소재지의 고증[考定] 등 몇 개의 주제에 대한 학술적 오류를 바로잡았다.『史記 朝鮮傳』은 옛 浿水의 소재지를 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 문헌으로 이에 근거하여 옛 패수는 현재 북한 대동강 수계의 普通江임을 새롭게 고증하였고 이로써 현재의 북한 청천강이 옛 패수라는 설과 이에 따라 만들어진 한 낙랑군의 몇 개 속현의 오늘날의 위치 고증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2. 高句麗人口問題研究(楊軍,『东北史地』, 2006－5)

역사서에 실려있는 고구려 멸망 시의 인구는 69만 7,000명으로 이는 고구려 정권 통치 하의 전체 인구이며 그 중 고구려족은 약 42만호를 점하고 있었다. 단 이는 호적에 기재된 숫자에 보이는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라 원래 고구려 영토 내에는 대략 58만호가 있었으며 고구려족은 33～34만호를 점하였다. 4년의 전란과 逃散을 거치고 또 8만에 가까운 戶가 중원으로 옮겨 들어와 원래 고구려 영토 내의 총인구는 27만호 안팎으로 떨어지기에 이르렀고 고구려족은 1/3보다 조금 많은 숫자를 점하였다. 그 가운데 대동강 유역 및 그 이남 지역에 분포하던 고구려족은 6만호보다 적을 수 없으며 발해에 들어간 고구려 유민은 5만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해의 10여만 編戶 가운데 고구려 유민은 확실히 소수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3. 集安出土趙國陽安君青銅短劍及相關問題再探(張福有,『东北史地』, 2006－5)

길림성 집안시에서 출토된 조나라 陽安君의 청동 단검은 중국 동북 압록강 변에서 발견된 전국시기의 중요 문물 가운데 하나이다. 양안군 본인에 대해 예전의 관련 문장에서는 모두 고적 속에 기재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신당서』의 기재에 따르면 양안군은 확실히 존재했으니 이씨 성을 획득한 조부 李利貞의 17대손이자 老子 李耳의 제5대손인 李躋이다. 이제는 당 고조 李淵의 35대 조상으로 趙나라의 명재상 奉陽君 李兌의 아들이다. 양안군의 검 및 그와 상호 관계에 있는 春平侯의 검·藺相如의 戈는 그 출토된 땅에서 墓葬을 발견할 수 없었다.

4. 北宋楊畏妻王氏墓誌與王彦英相國新羅(趙振華,『东北史地』, 2006－5)

낙양 龍門에서 새로 출토된 북송 王碩人의 墓誌에는 그의 선조인 王彦英·王仁侃 부자가 당말 福建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러 相國이 되었다고 실려있다; 조부인 王彬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王宗望·남편 楊畏와 함께 모두『宋史』의 傳記에 보인다. 낙양 南伊闕 西山佛刹 곁에 별장 松齋를 자연의 산수 속에 세웠는데 이는『洛陽名園記』의 송대 園林 기록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墓誌로 인해 正史 기록에서 빠진 점을 보충하고 잘못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5. 靈性世界探密－關于頭骨, 面具崇拜的文化人類學考察(樊菲 張碧波,『东北史地』, 2006－5)

巫史文化의 原生형태가 되는 두개골 숭배와 가면 숭배는 두개골과 가면이 영혼의 옥좌이자 巫術 능력의 중심이며 巫史文化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두골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영혼과 지혜와 능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가면은 두개골의 발전 변화로 두개골 숭배와 가면 숭배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靈性세계가 신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전환하는 궤적을 찾아낼 수 있다.

6. 集安出土青銅車轄的初步討論(王昭,『东北史地』, 2006－5)

집안에서 출토된 3개의 원형 조각 작품－고구려의 청동인형 비녀장[車轄]이 함축하고 있는 공예 조형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이미지[形象]의 소박한 아름다움 및 그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속성·인문적 이념에 대해 초보적인 분석과 탐구를 진행하여 고구려 고유의 민족 특질과 漢문화와 갈라놓을 수 없는

문화 傳承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어 보였다.

7. 東漢時期"柔道行之"治邊思想及其在東北地區的影響(蔣戎,『东北史地』, 2006－5)

서한 말 王莽은 정권을 탈취하자 동북의 각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고압정책을 실시하여 각 민족의 불만과 반항을 불러 일으켰다. 왕망 몰락 전후 천하가 크게 혼란하자 그 기회를 틈타 동북의 각종 세력들이 봉기하여 자립을 꾀하였다. 동한의 光武帝 劉秀는 재차 천하를 통일한 후 동북의 민족 상황은 이미 서한 武帝 시기와 크게 달라져 있었다. 변강의 안정과 소수민족의 위무 그리고 대통일의 局面을 다시 한 번 떨치기 위해 동한은 왕망의 민족고압정책을 바르게 고쳐 "柔道行之"의 治邊사상에 따라 군사 행동과의 조화 속에 비교적 관대한 민족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정책은 비록 동한의 중앙집권이 동북에서 수축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用兵 횟수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동한의 국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동북 각 민족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경제가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동북 변강이 확실히 튼튼해질 수 있게 하였다.

8. 近年來渤海與日本關係研究綜述(孫倩,『东北史地』, 2006－5)

발해는 我國 唐代 동북의 지방 정권으로 발해 일본 관계 연구는 발해사 연구의 중요 분야 중의 하나이다. 발해와 일본 관계에 대한 연구는 ①정치 교류(발해의 일본 속국 여부와 발해 민족의 귀속문제) ②경제 교류(교역의 내용, 교통로, 발해 사자의 출항 시기) ③문화 교류(불교·역법 등의 문화 교류와 관련 인물의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발해 일본 관계의 성격, 발해 민족의 귀속 등에 대해 아직 공통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고고학적 발굴의 심화와 다른 학문의 이론적 성과에 대한 섭렵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試論遼朝"治契丹與諸夷之法"(潘丹丹,『东北史地』, 2006－5)

遼朝의 "거란과 諸夷을 다스리는 법[治契丹與諸夷(원문의 起는 誤字)之法]"은 遼朝 법제사의 커다란 특징이다. 이는 烏桓·鮮卑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五代의 법률제도를 거울삼은 것이다. 요 왕조 전체 역사를 볼 때 "治契丹與諸夷之法"은 漢法과 융합하는 추세가 존재했지만 통치계급의 정책 변화, 사회 발전 속에 존재하던 노예제의 농후한 잔재 및 거란인들의 생산·생활 방식 등 요소의 영향 때문에 요 왕조와 그 명운을 같이 하였으며 漢法과 완전히 합쳐지지는 않았다.

10. 紅巾軍東渡鴨綠江及其社會影響(欒凡,『东北史地』, 2006－5)

홍건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진군한 것은 元朝末 홍건군 역사상의 중요 사건 중의 하나로 원말 농민군의 반원투쟁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에 속한다. 이를 통해 원조와 한반도의 연계를 끊음으로서 홍건군 주력의 원조 도성에 대한 진공을 보증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실패로 끝을 맺었지만 당시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 사회의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낳았다.

11. 從"犯越"到墾居－19世紀60年代朝鮮邊民偷圖們江性質的變化(趙興元,『东北史地』, 2006－5)

청 전기와 중기, 조선 변경민들은 금령을 어기고 圖們江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와 주로 인삼 불법 채취와 밀렵·벌목 등 불법적인 활동에 종사하였다. 1860년대 이후 일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선 변경민들

의 "불법 월경[犯越]"은 황무지의 개간과 거주로 점점 전환하였다. 이런 황무지 개간과 거주를 목적으로 한 조신 이민들이 결국 중국의 조선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2. 評宋德金先生的《遼金論稿》(薛海波, 『东北史地』, 2006－5)

송금덕 선생의 『요금논고』(호북교육출판사, 2005년 8월)는 사회연구·문화연구 및 평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논문 34편, 34만 6000자에 달하는 선생의 요금사연구 성과의 결집체이다. 이 책은 선생이 일관되게 지켜온 "각 민족이 공통으로 위대한 중화문명을 만들어내었다"는 역사 관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증명하고 있다.

13. 金州古城略考(崔世浩 劉艷紅, 『东北史地』, 2006－5)

金州 고성은 遼代부터 청말까지 "遼東의 重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遼代 蘇州와 來蘇縣의 治所에서 시작하여 金代에는 化成縣과 金州의 치소, 元代에는 金復州新附軍萬戶府, 明朝의 金州 衛所, 淸代 金州城守尉·寧海縣·金州廳·金州副都統衙門 등이 설치되었다. 이는 金州 고성이 遼南 지역의 정치·경제·군사·교통의 중심지로 동북 역사상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4. 愛國志士韓登擧事略(于文萍, 『东北史地』, 2006－5)

20세기 초 일본은 "간도"문제를 조장[製造]하여 더욱 많은 침략의 권익을 수탈하려고 기도하였다. 夾皮溝 금광 역시 일본인들이 "간도" 범위 안에 편입하려고 한 곳이었다. 韓邊外의 3대인 夾皮溝 금광구의 주인 韓登擧는 국가 이익을 중시하여 吳祿貞의 요청에 따라 병력을 거느리고 함께 延吉로 가 담판의 든든한 후원자로 호라동하여 청 정부 병력의 부족을 보완하여 중국 동쪽 영토[東疆] 주권의 수호에 역사적인 공헌을 하였다.

6기 [東北史地 2006年 6期]

1. 遼東"貊系"青銅文化的重要遺跡及其向高句麗早期文化的傳承演變－關于高句麗早期歷史的若干問題之四(王錦厚, 『东北史地』, 2006－6)

고구려 문화와 종족 기원 문제에 관해 최근 20년 동안 고구려 초기 역사를 토론하는데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왔다.

1. 최근에 遼東"二江(압록강, 渾江)"과 "二河(太子河, 蘇子河)"의 上流에서 발굴된 西漢 이전 의 청동시기 유적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압록강 중, 상류와 요동 靉河 유역 : ① 集安縣 太平鄕 五道溝門 積石墓(1978년에 발굴 그 시기는 전국시기 발기에서 한나라 초기로 고구려 건국보다 이른 청동문화), ② 集安縣 黃柏鄕 長川遺址(1962년에 발굴됨, 압록강 유역이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유적), ③ 集安縣 高臺子村 青銅時代文化遺址(1977년 발굴, 청동검이 발굴되었는데 전국시기 말기의 것으로 추정), ④ 集安市 陽岔鄕 青銅矛(1992년 출토, 전국시기의 것으로 추정), ⑤ 집안현 四道溝鄕 前陽村 북쪽에서 고구려 문화보다 이른 청동문화 유적지와 묘지(西漢 이전 압록강 중류 지역에 거주했던 "大水貊"부락의 것으로 추정),

⑥ 압록강 지류 요동 靉河 유역의 청동시대 문화(문화 특징상 역시 요동 "貊"系에 속한다.)

(2) 渾江과 腐爾江 유역 : 이 지역은 고구려가 시작되는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요동의 "二江"지구에 속한다. ① 요녕성 桓仁縣 四道河子鄕에서 전국시대 銅戈가 발견됨(춘추시기 말기에서 전국시로 보임). ② 환인현 大甸子村 灣溝子 青銅短劍墓에서 전국말기 청동 단검과 동 화살촉 등이 발견됨(전국 말기에서 서한 초기 유지로 집안 五道領과 유사한 형태). ③ 환인현 向鋼鄕 大巴村에서 청동시대 大石盖墓群이 발견되어 40여 개의 묘지가 발굴됨. ④ 환인현 五女山山城 서남 쪽 雅河鄕 米倉溝 부근인 고구려 적석묘와 봉토묘가 공존하는 渾江 연안에서 청동단검이 발견된 大石盖墓가 발굴됨(이것은 혼강 유역의 청동시대 석개묘에서 고구려 건국 후의 돌구조 무덤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그 문화의 전파와 변화상에 전형적인 의의를 가진다). ⑤ 오녀산 산성과 강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 高力墓子 일대에서 대량의 초기 고구려 圓丘式 적석묘가 발견된 동시에 최근에 고구려 건국 전의 청동시대 大石盖墓가 발견됨. ⑥ 환인현 서북쪽의 二戶來鄕 高麗墓子村과 馮家堡村에서 고구려 적석묘와 공존하는 大石盖墓가 발견됨.(청동시대의 대석개묘와 그 이후의 고구려 적석묘가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은 문화의 전승을 보여준다). ⑦ 富爾江 유역의 환인현 북부에서 夾砂紅褐陶高領壺를 특징으로 하는 돌구조 묘가 다수 발견됨.(이 유형의 "貊"계 陶壺는 갈아 만든 돌도끼, 돌칼 및 石盖墓, 石棺墓와 공존하며 출토되는데 이는 고구려 건국 이전의 청동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⑧ 渾江 상류의 청동문화는 길림성 通化지구에 비교적 집중된다. ⑨ 渾江 중류의 청동문화 유적지 중 청동기와 석기를 포함한 夾砂紅褐陶의 高領壺, 板耳罐과 鉢 등이 발견되는 石盖墓 외에도 새로운 유적지와 墓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비교적 많은데 이중 출토 유물이 명확한 8지역 10곳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桓仁 二戶來鄕 高麗墓子 石盖廟 근처의 "龍頭山遺址", 두 번째 혼강 오른쪽 연안에 있는 古城子村의 西山臺地, 세 번째 환인현 서쪽 三道河子村, 네 번째 환인현 沙尖子鎭 秋皮湯村 夾板溝 입구에 위치한 大夾板溝石棺墓群, 다섯 번째 桓仁鎭 鳳鳴村에 위치한 鳳鳴燒土石室墓, 여섯 번째 환인현 四道河子鄕 五道河子村에 위치한 五道河子積石墓, 일곱 번째 환인현 木盂子鄕에 위치한 蔡我堡積石墓, 여덟 번째 환인현 八里甸子鎭 동북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狍圈溝遺址와 荒溝遺址, 아홉 번째 환인현 雅河鄕 石哈達遺址, 열 번째 환인현 "望江樓"積石墓이 있다.

(3) 太子河와 蘇子河 상류 : 이 지역에서 최근에 고구려 기원과 관련된 청동문물이 점차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 ① 本溪市 馬城子와 張家堡子洞穴墓, ② 本溪 劉家哨 등 青銅短劍墓, ③ 新賓縣 大四平鄕・楡樹鄕・馬架子 등 청동시대 石構墓, ④ 本溪 南芬西山 石棺墓群 등이 있다.

2. 요동 "二江"과 "二河"상류 청동기 문화와 초기 고구려 문화의 淵源관계는 다음의 여섯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石構 묘지의 유형과 구조 및 그 제도 변화 관계 - 이강, 이하 지역 내에서 발굴된 초기 청동시대의 "洞穴積石墓, 石棺墓"에서 "石盖墓, 積石墓"로의 변화는 발전 및 변화하는 전승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세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太子河 상류의 洞穴式積石墓와 石盖墓, 石棺墓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本溪縣 山城子, 南芬西山, 小市鎭 張家堡, 南甸子鄕 등이 이곳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압록강 지류인 渾江과 靉河유역 중심의 大石盖墓와 石棺墓 발굴 지역으로 鳳城縣

草河堡鄕 西赫家堡 東山 石盖墓群, 西山頭石盖墓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渾江 상류 蘇子河와 二道河子 중심의 石盖墓, 石棺墓 발굴 지역으로 新賓縣 永陵縣鄕 동남쪽의 石棺墓群과 上夾河 石棺墓와 楡樹鄕 彭家村 지역의 大石盖墓가 대표적이다. ⑵ 요동 "貊"系의 夾砂褐陶器와 고구려 초기 도예기술 발전 사이의 器物類型學的 분석 - 요동 맥계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고고학 현상 중 하나가 도기 유형의 변화이다. 요동 二江과 二河 유역에서의 도기 유형의 발전 형태는 공통된 몇가지 발전 특징을 갖는다. ① 도기를 만든 흙이 夾砂 혹은 摻滑石粉, 雲母顆粒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夾粗砂褐陶系에 속한다. 이것은 요동 맥계와 초기 고구려 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청동시기 요동지역 諸貊系(大水貊, 小水貊, 梁貊), 北發(貊)문화 분포지역과 고구려 건국 초기 五部의 핵심지역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도기 변화 과정상 계승되는 발전 궤적을 찾을 수 있다. ② 요동 맥계 청동문화에서 고구려 초기 도기는 모두 紅褐, 黃褐과 조금 늦게는 灰褐色 위주로 되어 있어 모두 "素面褐陶系統"이라고 할 수 있다. ③도기의 조형과 조합으로 볼 때, 요동 맥계에서 고구려 초기까지는 하나의 기본적으로 안정된 공통 조합을 이룬다. 다시 말해 無三足器로 "壺, 罐, 鉢"가 기본 형태를 이룬다. ④ "壺, 罐, 鉢"의 器物組合과 함께 "多耳, 平底假圈足器"가 요동 맥계에서 고구려 초기 도기 예술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⑤도기의 외부 장식을 볼 때 고구려 초기 도기는 貊系의 방식을 이어 夾砂素面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간혹 刻劃式弦紋과 附加堆紋이 보인다. ⑶ 장례 풍속 - 돌을 쌓아 분봉을 만드는 것과 火葬의 풍습이 공존하는 것은 요동 二江 유역의 맥계에서 고구려 초기까지의 전통적인 장례 풍속이다. ⑷ 생활 습관 - 화장 풍속과 함께 "靈石崇拜" 전통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초기 貊系 무덤에서 "有槨無棺"과 "立石"의 구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 초기 무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立石"의 풍습을 통해 이들이 문화적으로 계승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靈石崇拜"의 풍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⑸문화 형태 - 銅과 돌을 병용하는 상태에서 철기 과도기로 진입하는 것은 맥계와 고구려 초기의 지역 문화의 공통된 특징이다. ⑹고구려 초기 산성 기원과 요동 貊系의 "石垣聚落" 사이의 변화관계 - 청동기 초기 맥계에서 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그 내부에 거주지를 만드는 형태는 이후 고구려 초기의 산성과 유사하다. 결국 고구려가 문명국가 형태의 "城邑制度"를 만들기 전의 형태는 원시적인 형태로 요동 맥계의 "石垣聚落"과 계승 관계를 갖는 것이다.

2. 王建爲何定國號爲高麗(史長樂,『东北史地』, 2006-6)

고구려와 고려 사이에는 아무런 계승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일찍이 북송시기 역사가 曾鞏에 의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역대 역사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왕씨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가 고구려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려 국호의 命名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왕건의 世家와 신변에 관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정인지가 편찬한『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왕건의 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태조실록」에는 金寬毅의『編年通錄』을 인용한 후 김관의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만약 김관의의 기록을 따른다 해도 이것은 신라나 고려의 전설에 불과하고 고구려와는 관계가 없다. 설사 김관의의 기록에 나온 虎景 - 康忠 - 寶育 - 辰義 - 作帝建 - 隆 - 王建의 世系를 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추론해 보면 호경은

결국 발해지역의 사람이지 고구려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왕건의 世系를 통해 볼 때 고려와 고구려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고려라는 국호가 왕건 이전인 궁예 때부터 있었다는 학계의 일부 의견이 있지만 궁예가 세력을 형성할 당시 아직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후 摩震과 泰封의 국호만 사서에 보이기 때문에 궁예가 고려라는 국호를 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궁예가 건설한 정치 집단의 제도가 신라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고구려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과 왕건이 궁예의 세력하에 있다가 내부 반란을 일으킨 이후 국호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려라는 국호는 왕건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왕건의 아버지 隆은 신라 북부 松嶽郡 지역의 세력자였다. 신라 출신인 그가 궁예의 세력에 귀의한 것은 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반란 세력에 참여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亂臣賊子로 보일 수 있다. 고로 隆과 왕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인들이 그를 不忠不義의 세력으로 간주해 거부감을 느끼고 동조하길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건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것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존재했던 옛 앙금을 이용해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동시에 신라를 멸망시킨 이후 자신이 세력을 고구려 영지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 **跋高句麗金銅佛造像**(耿鐵華,『东北史地』, 2006－6)

90년대 말에 요녕성 義縣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金銅佛像은 석가모니상으로 재질이 銅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도금을 했다. 머리, 손, 몸통 부분과 연좌 부분에 일부 부식이 있고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 손은 左手與愿印과 右手施無畏印으로 되어 있다. 머리 윗부분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얼굴은 풍만하게 되어 있으며 코가 곧으며 입이 크다. 귀가 커서 어깨에까지 닿는다. 얼굴의 표정은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중후하게 되어 있다. 몸에는 袈裟가 걸쳐져 있고 옷 맵시가 시원하고 은은하게 되어 있다. 몸 뒤에는 火焰紋 背光이 있고 발 아래에는 蓮花臺가 있다. 불상의 높이는 10.6센티, 밑 받침은 4센티미터 원형으로 둘레 직경이 7.5센티미터이다. 전체 금동 불상의 높이는 18센티미터이다. 불상의 후면에 3행의 銘文이 있는데 그 내용은 "大高句麗國甘山, 寺覺緣師徒敬造, 己酉年三月三日"이다. 명문의 글자 획이 매우 명확하며 해서체로 되어 있다.

이 불상은 머리의 비율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북위시대의 불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불상의 자세와 전체적인 분위기는 북위 孝昌2년의 銅佛像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불상의 명문에 있는 "己酉年"를 북위 시기와 비교하면 469년(장수왕 57년)과 529년(安藏王11년) 두가지가 있는데 孝昌, 永安 사이에 속하는 것은 529년이다. 따라서 본 불상는 52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63년에 한국 경상남도 宜寧郡 大義面 下村里에서 길이 16.3센티미터의 불상이 발굴되었는데 義縣에서 발굴된 것과 형태상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제작 년대가 10년 정도 늦어 전체적인 형태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색깔과 공예 기술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고구려 시기 요동, 요서 지역과 한반도의 문화적인 기술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는 4세기 중엽부터 사원을 건축하고 불교를 숭상해 왔다. 장수왕 시기 세력이 요동, 요서까지

미쳤으며 이것은 고구려 불교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義縣에서 발굴된 불상은 역사 사실을 고증하는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고구려 國名과 관련된 것으로 불상에 쓰여 있는 "大高句麗"라는 기록은 520년 이후 고구려를 고려로 고쳤을 것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4. 從傳統民族觀與正史體例來看正史四夷傳的部族前史謙論族源族屬問題(姜維公, 『东北史地』, 2006-6)

전통시기 중국은 중원의 왕조가 세계의 중심이며 유일하다는 大一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일상 생활 속의 질서와 규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고대 전통 역사가들은 독특한 민족관을 형성했다. 이들 민족관의 특징은 종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華夷의 관념이 종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민족이 중원 지역에 진입하여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관념은 유가 학파의 지지 속에서 전파되고 계승되었으며 결국 禮儀와 正義에 부합되는 문화를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夏와 夷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대 역사가들은 문화를 중시하는 민족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역사들이 하는 것처럼 혈통과 생활방식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부족을 나누는 경향이 많지 않았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반드시 혈통적으로 선후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부족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민족의 유래와 명칭을 기술하는데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다. 由來와 名稱의 혼란은 중국 正史에 실려 있는 四夷傳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중국 정사의 사이전은 일반적으로 諸臣列傳 이후에 위치하는데 부족과 부족정권을 주된 기술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그 부족, 부족정권의 前史에 대해서도 서술이 필요한데 이때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관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東夷", "南蠻", "西戎", "北狄"과 같은 방위와 문화 관념을 이용해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역사와 일치하지 않은 역사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으로 대개 3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漢族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외부로 팽창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주변 민족들이 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변 민족들은 다시 새로운 민족들과 융합되고 또 다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가들은 이전에 쓰던 명칭을 그대로 이어서 쓰고 이전의 민족과 새로운 민족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중국 주변의 민족들이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남쪽 지역의 소수 민족은 복잡한 지형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뉘어지며 이들 사이의 이동과 융합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기존의 개괄적인 서술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세 번째 역사서술의 인위적인 요소가 사실과 다른 역사서술을 초래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주변 민족들을 번속으로 보는 시각은 중국 중심의 사고를 만들어냈다. 이를 배경으로 외부의 특정 지역에 거주한 민족들을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민족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중국의 정사들이 고구려를 고려와 조선의 前期史로 보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정사 사이전이 갖고

있는 역사서술 내용이 역사사실과의 불일치하는 현상을 살펴보자. 고구려와 고려는 명칭상 유사한 면이 있고 영토의 극히 일부가 겹친다는 공통점 외에는 관계가 전혀 없는 국가이다. 하지만 당나라 이후의 중국 역사서들이 고구려를 고려의 前史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중국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관념 때문이다. 왕건이 내세운 고려의 명칭을 유가의 정통관념 하에서 고구려의 계승으로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정사 서술 체례 상의 특징으로 인해 생겼다. 특정 지역의 斷代史를 기술할 때 습관적으로 해당 지역에 존재했던 관련 부족의 역사를 같은 것으로 인정하고 계승관계를 서술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착오를 범하게 했다. 세 번째는 당나라 안사의 난 이후 원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원 왕조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고려와 고구려가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영토 관계가 없음에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전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네 번째는 당나라 이후의 정사가 모두 官撰史이기 때문이다. 官에서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수자는 새로운 것을 첨가하거나 잘못된 것을 정정하기 힘들고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 다섯 번째는 『삼국사기』의 영향이다. 삼국사기는 송대에 이미 중원에 유입되는데 삼국사기의 삼국에 대한 서술 내용은 중국 역사가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5. **清皇室始祖居地的鄂多里城考(李健才,『东北史地』, 2006－6)**

청나라 황실 선조들이 거주했다는 鄂多里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鄂多里城은 백두산 동쪽이지 서쪽이 아니라는 점, 建州衛는 백두산 서쪽 松花江 유역이 아니라 동쪽 綏芬河 유역이라는 점, 敦化와 依蘭 지역을 鄂多里城으로 단정지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鄂多里城은 백두산 동쪽 綏芬河 유역 雙城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紅山文化玉器的神話學思考(陳逸民,『东北史地』, 2006－6)**

홍산 문화 지구에서 출토되는 玉器에는 여러 신화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 龍과 鳳凰이 가장 대표적이다. 龍은 그 형태에 따라 우선 "C"字 龍이 있으며 "玦"형태의 龍이 있다. "玦"型 龍은 일반적으로 玉猪龍이라 여겨지며 일부에서는 熊龍이라 하기도 한다. 이외에 "弧"型 龍이 있다. 鳳凰은 玉이 생산되는 지역에 산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홍산 옥기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墓主의 머리 윗부분에 附葬되어 守護神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玉鳳과 玉龍은 용산문화에서 동시에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중국 龍鳳문화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龍과 鳳凰 이외에 돼지, 매, 소, 사슴, 까마귀, 물고기, 곰 등의 토템이 홍산문화 옥기에서 확인된다. 이외에 홍산문화 옥기 중 雙聯璧은 生殖器崇拜와 性崇拜 신화를 표현하고 있다. 홍산문화의 옥기들은 고대 신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7. **略析玄菟郡的多元民族結構(趙紅梅,『东北史地』, 2006－6)**

玄菟郡은 西漢 武帝 시기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西漢 昭帝 때 중국 내륙으로 옮겨졌다가 東漢 安帝 때에 또 한번 옮겨진다. 魏晉시기에 遼西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차례 위치가 바뀌었다 이러는 동안 현토군의 민족 구성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들 중 현토군 관할지역에서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沃沮, 高句麗, 夫餘이다.

8. 通化江沿遺跡群調査(通化市文管會辦公室,『东北史地』, 2006－6)

2005년 11월 通化市 정부의 도움으로 王貴玉, 王志敏 등 5명이 渾江 지역 통화시 동남지구를 중심 대상으로 고고조사를 20여 일에 걸쳐 진행했다. 古遺址 5곳과 古墓群 2 곳, 古祭祀遺址 1곳을 발굴했다. 祭祀遺址는 土珠子祭祀遺址로 大都領鄕 下龍頭村에 위치하고 있고 직경이 28미터 높이 10미터에 달한다. 古遺址로는 下龍頭 龍崗遺址(남북 1000미터 동서 350미터의 지역으로 그 형태가 용을 닮았다. 석기와 도기,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유물로 판별해 볼 때 이 유적지의 하한 연대는 고구려시기이다), 漁營長崗遺址(남북 1250미터 동서 350미터의 크기로 형태로 볼 때 당시 거주지로 초정된다. 돌도끼, 돌칼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유적의 연대는 청동기시기 말기에서 고구려 초기로 추정된다), 龍泉村 龍崗遺址(동서 900미터 남북 350미터의 크기로 돌도끼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下龍頭龍崗遺址와 동일한 시기의 중요 취락유지), 長崗村 龍崗遺址(동서 1500미터, 남북 350미터의 규모로 각종 석기 도구와 陶片들이 발굴되었으며 시기상 청동기 말기와 고구려 초기로 보인다), 頭道鎭 東村遺址(총 면적 325000 제곱미터로 북쪽에 臺地가 있고 적석묘가 있다. 타제, 마제 석기와 동물의 뼈로 만든 도구가 다수 발굴되었다. 시기상으로는 청동기 시대에서 고구려 시기로 보인다) 등이 있다. 古墓群으로는 南頭屯古墓群(현재 50 여 개의 묘가 보존되어 있다. 지형에 따라 北區와 南區로 나뉘어지며 40여개의 묘지가 북쪽에 집중해 있다. 이들 묘지를 형태상 특징으로 분류하면 方壇階梯石室墓, 方壇階梯壙室墓, 方壇積石串墓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방단계제석실묘와 방단계제광실묘는 연대상 차이는 없고 서로 다른 부족이 모여 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下龍頭古墓群(전체 묘군이 남북으로 400미터 동서로 30미터 되는 범위안에 총 46개의 묘지가 있다. 이들은 형태와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크게 方壇階梯石室墓, 方壇階梯壙室墓 그리고 積石串墓 3종류가 있다. 큰 것은 높이가 7~8미터에 달하고 작은 것은 2미터를 넘지 못한다. 현재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묘장의 형태와 구조로 봤을 때 고구려 초기의 묘들로 추정된다)이 있다.

통화시의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지와 묘지 그리고 제사터가 일체화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통일된 사회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초기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리적인 위치와 주변 환경 및 해당 지역에서 확인되는 높은 문화 요소는 이곳이 졸본부여의 초기 거주지역인 卒本川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9. 通化江沿遺跡群所在地當卽卒本夫餘初居地(王貴玉, 王珺, 王志敏,『东北史地』, 2006－6)

주몽이 기원전 37년 沸流谷 忽本川(卒本川)에 졸본부여를 건국하였는데 초기 거주지역인 졸본천의 위치에 대해 현재 학계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이 지금의 桓仁縣의 五女山 일대를 졸본천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몇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헌기록과 차이가 난다. 광개토대왕비문에 따르면, "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이라 했다. 비류는 渾江을 말하는 것이어서 수도로 삼은 지역이 홀본천의 서쪽이며 이 둘 사이에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환인의 오녀산 아래를 졸본천이라고 한다면 굳이 "忽本"의 "西"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 통화강변의 유적지들이 사서에서 말하는 졸본천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우선 이

유적지들의 지리적 위치가 바로 紇升骨城(오녀산성)의 동쪽 江川平原 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土壤肥沃, 山河險固"하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부합된다. 또한 유적지에서 확인되는 河卵石으로 건물을 짓는 흔적과 대량으로 발견되는 석제 공구와 도기들은 "結廬于沸流水上"이라는 기록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기록에 東明聖王 4년 즉 졸본부여 정권이 건립된 지 3년 후에 "營作城郭宮室"을 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에 성곽이 없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외에 역사 기록에 나오는 "東崗", "龍山" 등이 통화강 주변 유적에서 보이는 龍崗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고구려 건국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沸流國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비류국이 졸본천의 상류에 위치하며 그 땅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화강 유역의 유적지가 졸본천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는 고구려 초기 5부 중 涓奴部가 고구려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고구려 건국 초기의 5부 위치와 이후의 5부 위치는 지리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노부는 小水貊故地와 卒本지구로 비류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략 通化縣과 市 일대 지역이다. 계루부의 위치는 지금의 遼寧 桓仁 일대이고 절노부는 압록강 유역의 集安 일대일 것으로 보인다. 5部의 연구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계루부가 지금의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절노부를 通化, 연노부를 桓仁으로 잘못 비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루부는 瑠璃明王 22년에 國內로 옮겨 왔으므로 계루부는 이를 따라 國內로 왔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계루부가 國內로 옮겨왔다고 잘못 생각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② 이 지역 문화 유산은 濊와 貊 두 부족이 융합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졸본 지역은 이 둘 민족 사이에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던 지역이자 濊사람들이 貊지역에 거주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주몽이 남쪽으로 비류수를 건너 곧바로 졸본지역으로 들어와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③ 강 연안에서 발굴된 유적 중 두개의 墓群 또한 두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다. 하나는 石棚墓에서 積石墓로 바뀌어가는 중의 方檀石室積石墓이고 다른 하나는 方壇階梯壙室墓이다. ④ 桓仁 지역내에서 발굴되는 천여개의 묘지를 근거로 졸본천이 환인에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구려 정권이 이 지역에 유지되어 있던 시간은 40년에 불과하므로 이 짧은 시간에 천여개의 묘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것들은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東川王 20년 비류수 상류에서 丱丘儉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⑤ 土珠子祭祀遺址는 고구려 왕실이 매년 졸본천으로 돌아가 祖廟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증명하고 있다. ⑥ 통화강 연안 遺蹟群의 상류 부근에서 발견된 王八脖子遺址에서 보이는 3期, 4期문화는 고구려 시기 이전과 고구려 초기문화의 것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 각 문화를 연대별로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졸본천에서 3년간 머물렀다가 鵲嶺에 紇升骨城을 건립했다. 환인 오녀산성(紇升骨城)에서 37년 동안 있다가 유리명왕 때 국내성으로 옮겨 집안에서 427년간 거주했다. 비록 졸본천에 있던 시간은 3년에 불과하나 고구려 역사상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10. 高句麗前期地方統治考((韓)琴京淑 撰, 馬彦 編譯,『东北史地』, 2006－6)

고구려 초기 왕들의 출신부족은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옮겨져 굳어졌다. 또한 당시 주변의 여러 작은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료에서 "那"로 표현되었다. 여러 개의 那들은 고구려에 의해 정복되었고 이후에는 "那部"로 불려지며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고구려 건국 초기 중앙은 지방 통치를 위해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谷과 체계상 그 하부에 위치하는 村이라는 행정 단위로 편제했다. 이후

고구려는 초기에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정복지역을 "城邑"과 "縣郡"으로 편성하여 중앙제도 하에 두고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통치방법을 실시했다.

11. 哈達部城寨及哈達部的興衰(孫守朋,『东北史地』, 2006－6)

遼寧省 開原市의 八棵樹鎭과 李家臺鄕에 있는 哈達城寨 유지는 이미 많이 파손되어 현재 토담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 城寨와 관련된 역사기록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哈達都城은 모두 3곳인데 哈達舊城, 哈達新城 그리고 哈達石城이 그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哈達城寨로 花園城 등이 있다. 哈達城寨의 위치와 沿革은 哈達부족의 흥망성쇠 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2. 劉大觀與《玉磬山房詩集》(劉奉文, 夏曉東,『东北史地』, 2006－6)

유대관은 청나라 嘉慶, 道光시기의 사람으로 奉天 寧遠州의 知州가 되어 동북 지역에서 근 10년 동안 생활을 했다. 그의 문집『玉磬山房詩集』중 권3은「留都集」으로 유대관이 동북 지역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체류하는 동안 겪은 내용을 적은 일종의 활동 기록이다. 이것은 동북 지역의 自然風光, 토착민속, 문물고적 및 교통과 여행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동북지역 역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기 [東北史地 2007年 1期]

1. 長白山南麓積壇調查淸理與考證(張福有 孫仁杰 遲勇,『东北史地』, 2007－1)

2004년 6월 필자 일동은 길림성 長白縣 21道溝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13곳의 積壇을 발견하였다. 유관 부문의 동의를 거쳐 그 가운데 2곳을 더욱 더 확실하게 조사하여 적단의 분포와 구조를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밝혔으며 문물 9점을 출토 채집하였다. 장백현 干溝子 무덤군과 집안에서 출토된 趙나라 陽安君 청동검 및 장백현에서 출토된 藺相如 靑銅戈 등 동북으로 유입된 조나라 청동기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여 볼 때 조나라의 儀禮문화가 이미 2200년전 장백산과 압록강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장백현 21道溝에서 발견된 이 일군의 적단은 당연히 이 지방에 도착하였던 조나라 사람들이 현지인들과 결합한 후에 쌓은 것이다. 藺相如 戈와 陽安君 검 그리고 21道溝의 적단 청동기로 상징되는 조나라의 선진문화가 장백산 지역에 진입한 것은 장백산 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2. 高句麗與東漢王朝戰事雜考－以『三國史記 · 高句麗本紀』的記載爲中心(李大龍, 『东北史地』, 2007－1)

고구려와 동한 왕조 사이의 전쟁에 대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중국 史書의 기록을 대조 비교해 보면 양측 기록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순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자인 김부식이 의식적으로 삭제한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이는 저자의 몇 가지 심리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즉 『삼국사기』의 주요 참고 자료인 『海東古記』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고 『해동고기』와 중국 역사서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해동고기』의 기록을 따라 내용상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고구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부 현대 학자들처럼 이것만을 맹신하고 다른 사서의 기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다.

3. 略論高句麗與中原王朝的關係(王成國, 『东北史地』, 2007－1)

고구려는 중국 동북에 기원을 둔 고대의 중요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민족과 정권이 존속하는 동안 특히 중원 왕조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는 끊임없이 장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원 왕조와 정치적 통일 · 경제적 상호 보완 · 문화적 융합을 형성한 特定한 관계였다. 양자의 관계가 존속 발전한 기간 동안, 각자의 이익 추구에 이끌려 필연적[一定]으로 모순 충돌이 나타나고 전쟁에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이는 봉건 대국들에게 요구되는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이라는 최고 요구였다. 따라서 고구려 민족과 중원 한족 및 동북 제민족 사이의 우호적인 왕래는 관계 발전의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4. "斬俘圖"小議(梁志龍, 『东北史地』, 2007－1)

1937년 일본인 黑田源次가 도굴한 (그가 "馬槽塚"이라 불렀던) 通溝12호 묘에서 나온 "참부도"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고구려인으로 이는 내전을 묘사한 것이거나 붙잡힌 탈영병을 붙잡아 묘주가 참수하는 장면이다. 이 묘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5. 以王權爲中心的高句麗政治制度考察(祝立業,『东北史地』, 2007－1)

國體와 政體는 정치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 왕권의 신장은 일개 왕국의 각 시기별 정치제도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고구려 역사의 각 단계에서 왕권의 증감[消長]에 초점을 맞춰 고구려 정치제도사의 分期를 확립하고 각 분기의 일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각 시기 안에도 굴곡이 있지만 왕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①五部聯盟時期 ②왕권전제 하의 귀족 輔政시기(대무신왕－미천왕) ③왕 주도 하의 군주 전제 중앙집권시기(미천왕－양원왕) ④군주전재 하의 權臣豪族 전권 시기(양원왕－보장왕)로 나눌 수 있다.

6. 金末東北地區行省設置考(楊淸華,『东北史地』, 2007－1)

金末 동북 지역은 몽고·耶律留哥·浦鮮萬奴·金朝의 4대 정치세력이 각축을 벌이던 지역으로 금은 동북에서의 세력 범위가 점차 동북의 북부와 남부로 축소되어 갔다. 동북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貞祐연간 이 지역에 요동·上京 등의 행성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행성을 통해 동북 지역에 대한 군사 통치를 지속하였다.

7. 關于淸朝與朝鮮宗藩關係研究的幾個問題－兼與韓國全海宗教授商榷(魏志江,『东北史地』, 2007－1)

한국 학자 全海宗 교수의『淸代韓中朝貢關係考』라는 논문을 참고하여 청과 조선의 宗藩朝貢체제의 종류와 운용 특히 조공품과 回賜品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세밀한 고증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전해종 교수가 주장한 종번조공체제 하의 이른바 "(조선의) 조공품은 많고 (청의) 회사품은 적었다[厚往薄來]"고 하는 문제에 대해 자료의 부정확성 측면에서 비판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8. 赫哲族歷史源流(施雲,『东北史地』, 2007－1)

혁철족은 중화민족 대가정 중에서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하나로 고대로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인상이 남아있다. 혁철족 先世의 역사 발전 궤적에서 혁철족의 역사 원류를 정확히 설명하여 이 민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도록 하였다.

9. 抗淸功績不可泯－試談毛文龍評價問題(孟昭信 孟忻,『东北史地』, 2007－1)

모문룡은 明末 요동의 抗後金(淸) 전선의 저명한 장군이었다. 그는 먼저 휘하 부대를 이끌고 적의 후방으로 진격하여 적극적으로 遼東經略 熊廷弼의 "三方面布置策"을 관철하였고 뒤이어 東江의 기지를 창건하고 조선과 연합하여 후금에 저항하였다.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反後金 관원들을 하고 후금의 점령 지역을 습격하였으므로 후금의 寧錦 남하 전략은 시종일관 실현될 수 없게 되어 萬曆末에서 天啓初까지의 요동 전투 상황의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10. 程德全與黑龍江地區的移民實邊(1904－1908)(楊郁松,『东北史地』, 2007－1)

청대 흑룡강 지역은 청 왕조의 대단히 중요한 후방 기지였지만 장기간 엄격한 封禁정책을 실행하였으므로 흑룡강 지역의 개발에 엄중한 장애가 되었다. 1904년 청 정부가 동북 개방을 선포한 후 黑龍江將軍 程德全은 당시의 실제 상황에 대응하여 힘써 移民實邊을 추진하여 흑룡강 지역의 토지 경작 면적을 확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 지역의 조기 근대화 개발을 최대한 촉진하였다.

11. 松花江"神石"探秘(王松林,『东北史地』, 2007－1)

대략 2～3000년전부터 西圍山人들은 송화강 변에서 생활하였으며 대대로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렵 어로와 원시적인 농업으로 생존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원시 샤머니즘을 신봉하고 독특한 생활 습관을 보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신비스러운 송화강"신석" 숭배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12.『唐征高句麗史』評價(梁玉多,『东北史地』, 2007－1)

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 劉炬 · 姜維東 합작의『唐征高句麗史』출판은 이 결함을 보완하여 주는 것이다. 저자들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연과 필연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 분석하여 사학 이론상에 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그 뛰어난 학술성에도 불구하고 읽기에 매우 편하여 일반 독자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2기 [東北史地 2007年 2期]

1. 洛陽, 魯山, 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誌探索(董延壽, 趙振華,『东北史地』, 2007－2)

최근 백년 사이에 낙양, 노산, 서안 등지에서 6곳의 당나라 시기 백제 귀족의 묘지가 발견되었다. 1919년 낙양에서 夫餘隆의 묘지가 출토되었으며 1929년 낙양에서 黑齒常之와 黑齒俊 부자의 묘지가 발굴되었다. 1960년 河南 魯山에서 難元慶의 묘지가 출토되었고 1990년대에는 서안에서 諾思計(盧庭賓)의 묘지가 출토되었다. 부여융, 흑치상지, 흑치준, 난원경의 묘지명과 관련된 연구 상황과 논문 자료는 張福有와 趙振華가 쓴「洛陽, 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誌及泉氏墓地」(『동북사지』, 2005년 4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국 쪽의 연구 상황은 拜根興의「高句麗百濟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狀與展望」(『中國歷史地理論叢』, 2006년 2기)에 소개되어 있다.

(각 묘지명의 목록과 연구 논저 목록 및 묘지명 본문에 관한 요약은 생략)

최근 서안에서 禰寔進의 묘지명이 발견되었다. 기록을 통해 보면, 墓主는 백제 웅천 사람이다. 묘주의 父 思善과 祖父 譽多는 "佐平"이라는 관직을 역임했는데 이것은 백제의 正一品 관직으로 그 지위가 매우 높다. 이것은 좌평이라는 관직이 父子에 의해 세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禰寔進도 아마 이것의 계승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禰氏는 백제 大姓 8家 중에 포함되지 않는 성으로 문헌 기록에도 잘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禰植과 禰軍의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다. 묘주의 행적에 관해서 묘지명은 禰寔進이 武職을 주로 담당했으며 武功이 뛰어났다고 한다. 성격이 곧고 바르며 신의를 잘 지켰으며 활동 무대가 외국에까지 확장되어 당나라 황실의 도움으로 장안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禰寔進의 죽음에 관해 묘지명은 "咸亨三年五月廿五日因行薨于來州黃縣, 春秋五十有八. 恩加詔葬, 禮洽飾終"라 기록하고 있다. 죽음의 원인과 관련해 기록하고 있는 "因行"이라는 표현은 사서에서 매우 드물게 보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死因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묘지명에 따르면 禰寔進의 死後 당나라 정부가 喪禮를 후하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

禰寔進의 이름이 음역된 것인지 아니면 당나라 조정이 하사한 것인지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백제에서 좌평이라는 高官을 역임하고 당나라에서 左威衛大將軍이라는 높은 관직을 수여받으며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측면에서도 禰寔進의 묘지명은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갖는다. 禰寔進의 묘지명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역사 문헌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高句麗軍事問題述略(秦昇陽, 梁啓政,『东北史地』, 2007－2)

고구려의 군대는 국가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성장해갔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발달해갔고 隋唐과 군사적으로 대적하는 시기에 군대의 숫자가 정점에 달한다. 당시 고구려의 상비군은 대략 6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구려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는 고구려왕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다. 고려 중후기가 되면 중앙군사권력이 大對盧와 莫離支에게 집중되었다. 지방의 경우는 지방 행정장관이 군사권도 행사했으며 이것은 고구려군사제도의 특징 중 하나였다. 고구려는 山城을 군사주둔지로 삼는 일련의 전쟁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대 구성은 步兵, 騎兵, 水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보병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병이 그 다음이었다.

3. 關于滿族族稱的再思考(劉厚生,『东北史地』, 2007－2)

1635년 皇太極은 여진족을 滿洲族이라고 고쳐 칭했다. 이 명칭의 유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①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② 만주어의 음에서 轉化되었다는 설, ③ 지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④ 부락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설들은 아직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몇가지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① "滿洲"라는 말은 太宗 皇太極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단어라는 사실. ② 1583년 누르하치가 기병했을 당시 建州 5部 중 하나가 滿洲部로 이후 국가를 세우고 "汗"이라고 칭했다는 사실. ③ 滿洲部와 建州衛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④ 滿洲는 女眞語 "滿珠"에 해당되는 漢字라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4. 建洲女眞董鄂部族源考(張士尊,『东北史地』, 2007－2)

명나라 말기 건주 여진의 5部 중 하나인 董鄂部의 族源은 명나라 중후기에 渾江에서 활동했던 岐州衛와 建州衛가 아니고 압록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던 溫火衛이다. 온화위의 前身은 명나라 전기 圖們江 유역에 분포해 있던 喜樂溫河衛이다.

5. 清初招撫赫哲人入旗考論－清代新滿洲研究之二(張杰,『东北史地』, 2007－2)

赫哲人들이 滿洲八旗에 편입되는 것은 청나라 정권이 入關하기 전의 일로 당시 이들은 수만명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赫哲人들은 만주족에 의해 새로 탄생하는 만주족 공동체 조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康熙 元年(1662)에 청나라 정부는 "招撫新滿洲"令을 반포하게 되자 다수의 赫哲人들이 이에 따라 八旗에 편입되고 장차 "新滿洲兵"에 충당되었다. 그들은 제정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주력군대가 되고 동북지역 국토를 방위하는 충성스러운 衛士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 각 지역의 경제 생산자 역할도 담당했다.

6. 東北地區與青藏地區原始宗教比較研究(宋立民, 李陸華, 楊軍,『东北史地』, 2007－2)

青藏(青海와 西藏)지역의 원시 종교를 동북지역의 원시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靈魂觀念의 경우, 동북지역의 영혼신앙은 循環論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青藏지역은 그렇지 않다. 토템 신앙은 그 개수가 서로 다르고 青藏지역에서 확인되는 5가지 중 동북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2가지 있다. 조상숭배의 경우 青藏지역은 神仙신앙, 토템 및 先祖가 승화되어 天神이 되었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동북지역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일찍 출현하나 각 민족간에 서로 불균형하게 발전한다. 우주관념은 青藏지역에는 天界, 地界, 水界로 구성된 宇宙三界觀이 형성되지만 동북지역은 영혼의 선악에 따라 생성된 三界觀을 일반규율로 받아들였다. 이외에 青藏지역과 동북지역에 巫師와 巫術이 존재했지만 그 巫俗의 실제 내용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볼 때 青藏지역의 원시 종교는 토착 지역 거주민의 생활 속에서 탄생한 것이지 결코 동북지역 샤머니즘 종교의 영향하에서 발생된 산물이 아니다.

7. 試論鮮卑早期的宗教信仰及其轉變(邵正坤,『东北史地』, 2007－2)

선비족들은 민족 형성 초기에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종교 신앙 생활을 했다. 이후 중원지역의 한족과 한족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시기는 대략 慕容廆가 元康年間 大棘城로 이주한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와 비교해 도교는 더욱 이른 시기에 한족지역에서 선비족들에게 전파된다. 代國의 拓跋沙漠汗 시기에 이미 도교를 숭상했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도교는 선비족들에게 전래된 이후에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北魏 前期 각 계층의 선비족 가정에 주류의 종교신앙으로 자리잡게 된다.

8. 高句麗早期"那部體制"探析(薛海波,『东北史地』, 2007－2)

고구려 건국 신화는 건국 전후 시기의 일정 시간 동안 고구려가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민족 구성원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那部體制"는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의 지리환경과 민족 구성원 관계에 근거하여 건설한 지방 통치체제 중 하나이다. "那部體制"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관료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등급제도가 존재했다.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 후반까지 지방의 여러 那들은 스스로가 정치세력이 되어 고구려 정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3기 [東北史地 2007年 5期]

1. "遼東本周箕子國"別議(楊軍,『東北史地』, 2007－3)

唐代의 "遼東"이라는 단어는 遼東郡의 옛 땅 혹은 요동반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으며 한반도 북부와 요서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또 요동으로 고구려의 관할 지역을 대표하는 호칭으로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新舊唐書에 실려있는 溫彦博이 "요동은 본래 周의 箕子國"이라는 표현은 기자의 나라가 일찍이 요동을 소유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高句麗南部地區地方行政建置及其今地考(徐德源,『東北史地』, 2007－3

20세기 이래 고구려 역사지리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고구려의 한반도상의 지방 행정 기구 설치에 대한 고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부분 군현의 명칭 기록을 『新增東國輿地勝覽』중의 유관 지명의 연혁과 대조하여 압록강·圖們강 이남의 고구려 남반부 옛 성들의 절대 다수의 고구려 군현의 현재 위치를 고증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남부 강역 및 南界를 판정하기 위한 역사지리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이 작업은 지도를 더하여 『고구려남부지방행정건치금지도고』라는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간략하게 도표만을 제시하였다.

3. 唐明宗披露了高麗太祖王建的族籍(史長樂,『東北史地』, 2007－3)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한반도의 토착 신라인의 자손이 아니라 중국 회하 유역에서 건너온 漢人의 후예이다. 後唐 明宗과 송 태종의 고려왕 책봉 조서 속에 왕건의 출신 민족[族籍]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그 출신 민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의 옛 기록들은 책봉 조서를 싣고 있으면서도 "고려의 조상들은 역사 기록이 빠져있어 상세하지 않다"고 칭하여 왕건이 왜 국호를 고려라고 정하였는가라는 문제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4. 兀惹部 · 兀惹城研究(朱國忱,『東北史地』, 2007－3)

발해 멸망 후 그 유민이나 발해에 복속하였던 部들이 발해의 옛 지역의 한 구석에 할거하는 소왕국 혹은 정권을 건립하였는데 이를 "후발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요 왕조와 대치하기도 하였으며 뒷날 북송과 모종 형식의 왕래가 있었으므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이른바 "후발해"의 역사 난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동북 나아가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상의 중요한 수수께끼[疑案] 중의 하나를 파헤쳤다. 『宋史』·『文獻通考』의 "琰府"가 『遼史』의 燕頗이며 定安國은 『요사』의 兀惹府의 兀惹城이다. 兀惹는 하나의 部가 아니었으며 동일 지역에 살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또 兀惹部와 兀惹城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 사이에는 일정한 구별이 있었다. 올야성은 올야부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올야부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성곽들은 발해 유민 위주로 거주 수비하였다. 올야성의 주요 인물인 烏昭度若은 발해인이 아니지만 발해화한 올야인이었다.

5. 金長城的考古與發現(馮永謙,『東北史地』, 2007－3)

금대의 장성은 중국 역대로 수축된 장성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사막과 초원의 깊은 곳까지 구불구불 펼쳐져 어떤 곳은 오늘날의 장성 외곽에 있다.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가본 사람이 매우 적어 불분명한 점이 많다; 문헌 사료 역시 매우 부족하고 기록 자체가 많지 않으며 지명 기록이 사료에 따라 제각각 달라 인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금대 장성은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적어 일반인들이 아는 경우가 드물다. 현재 금대 장성에 대해 비교적 전반적인 인식이 가능해졌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興安嶺 북부와 남부의 장성이 있으며 그 가운데 남부의 장성은 대단히 복잡하여 수많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남부 장성의 방어와 관할 범위의 구획에 대해 종전에 4개의 노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으로 3개 노선으로 나누어 관할한 것이 정확한

것이다.

6. 何處梁口(周嚮永,『東北史地』, 2007－3)

양구는 魏와 고구려의 전쟁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지명으로 그 위치에 대해 수많은 이설이 존재한다. 위·고구려 전투와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하여 고증하여 볼 때, 양구의 口가 반드시 河口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정확한 것으로『삼국사기』에서 "梁貊之谷"이라 부른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두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梁貊之谷과 小水貊의 거주지는 한 곳에 있을 터이므로 고구려 중심 지역에서 漢魏의 西安平·遼東郡城에 이르는 노정 상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구 역시 梁貊之谷 즉 오늘날의 遼寧 寬甸 蒲石河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7. 我國東北漢唐時期壁畵墓發現與研究綜述(孫力楠,『東北史地』, 2007－3)

동북에서 발견된 벽화 고분은 대부분 漢唐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미 발굴이 완전히 끝난 벽화 고분은 66기이다. 이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요동 지역의 東漢魏晋 벽화 고분: 현재 자료가 발표된 고분은 27기로 1940년대까지는 일본 학자들, 그 이후에는 중국 학자들에 의한 발굴 보고가 이루어져 7기를 제외한 고분에 대해서는 정식 발굴 보고가 나왔다 ② 요서 朝陽지역 三燕 벽화 고분 ③ 고구려 벽화 고분: 중국 영내의 고구려 벽화 고분은 이미 발견되었거나 보도가 있는 것이 31기로 그 가운데 9기의 고분 벽화는 이미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 殘片에 근거하여 벽화 고분으로 확정하였다. ④ 발해 벽화 고분: 발해 관련 고분 벽화 연구의 주 대상은 貞孝公主 고분이다. 요동과 고구려 관련 벽화 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해 요서와 발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현재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① 동북의 한당 시기 벽화 고분과 관련된 영상자료 전문서적[專集]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② 기발표된 보고자료에 대한 심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③ 동북 한당 시기 벽화 고분에 대한 종합적 연구 논저가 결핍되어 있고 ④ 연구자 대부분이 고고학 관련자로 역사 미술 등 관련 학과의 전문지식을 통한 더욱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8. 論旅順·大連近代城市的形成(劉俊勇,『東北史地』, 2007－3)

旅順口는 오늘날 대련시의 일부로 그 근대적 도시 형성은 청일전쟁[甲午戰爭] 이전의 군항 건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일전쟁 전의 여순구는 항구에서 시로 발전하여 이미 근대적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대련의 근대적 도시도 모두 러시아가 여순과 대련을 강제 조차한 이후 형성된 것이다. 즉 여순구와 대련의 근대 도시는 청조가 반식민지반봉건 사회에 빠져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여순구의 근대적 도시는 중국인 자신이 완성한 것이지만 대련의 근대적 도시의 시작은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산물이다.

9. 遼東半島第一城－旅順牧羊城城址(劉美晶,『東北史地』, 2007－3)

대련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터 가운데 한 대의 것은 겨우 10여개로 여순의 목양성도 그 중의 하나이다. 목양성은 요동반도 내지 동북 대륙 최남단의 성터로 지리적 위치와 역사가치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1928년 일본 동아고고학회와 관동청박물관의 합동 조사가 이루어진 후 1960년 이래 중국 고고학자들은 목양성과 그 주변에 대한 과학적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목양성은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에 이르는

교통로 상의 중요 중심지로 戰國·西漢 시기에 크게 번영을 누렸다. 당시 이 곳은 "해상방어 城堡"만이 아니라 중원과 동북 지역이 교류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요충이자 교두보였다. 성은 3000여년전의 청동기 시대 옛 터 위에 전국말기에 처음 세워져 서한 시기에 번영하다가 동한초 쇠락하고 그 이후 점차 버려졌다.

10. 清代黑龍江將軍衙署的遷移及其政治功能的變化(顧麗華,『東北史地』, 2007－3)

흑룡강장군의 설치는 중러 분쟁의 산물로 세 차례 관아를 옮겼으며 그에 따라 역할도 변화하였다. 강희22년 착공하여 23년 완성한 瑷琿城은 군사적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강희24년 내지와의 교통 불편을 이유로 新瑷琿城으로 관아를 옮긴 것은, 대러시아 전쟁 승리에도 불구하고 강희제 시기 國防邊界의 개념이 관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희29년 이루어져 32년 정식으로 인정받은 墨爾根 관아로의 이동은 청조가 갈단[噶爾丹]의 침입이라는 내란 진압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러시아 방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이었다.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로 북변이 안정되고 갈단의 반란에 대한 염려에서 강희38년 齊齊哈爾로 마지막 이동이 이루어졌다.

11. 康乾時期燕行使眼中的中國北方市肆(趙興元,『東北史地』, 2007－3)

강희·건륭 시기, 중국에 왔던 조선 燕行使들은 대량의 문자 기록으로 중국 북방 상점[市肆]의 정황을 전하고 있다. 중국 북방 시진이 연행사들에게 남긴 전체적 인상은 ① 점포가 매우 많아 노정 상의 도처에 퍼져있고 ② 점포의 장식이 호화로우며 ③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업태가 복잡하고 ④ 매매 방식이 다양하여 점포 안에서 교역을 진행할 때 물품에 따라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며 ⑤ 가격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중국 북방 상점은 이 지역 상업 발전의 직관적인 상징이었다.

12. 新發現的滿文本『黑龍江·松花江·嫩江流域圖』(吳雪娟,『東北史地』, 2007－3)

새로 발견된 만주어로 쓰여진『黑龍江·松花江·嫩江流域圖』는 원본에는 이름이 없고 흑룡강 송화강 눈강의 세 강 유역의 지리 사물이 두드러지게 보이므로 잠시 이 이름으로 부른다. 이 지도는 청대 흑룡강·寧古塔將軍(후에 吉林將軍으로 호칭) 관할 영역 내의 城池·驛道·水系 등을 자세히 기록[標注]하여 청대 동북의 지리·언어 등 분야의 역사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사료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13. 長白山森林號子(曹保明,『東北史地』, 2007－3)

장백산의 삼림호자는 삼림 속에서 나무 운반공들이 나무를 운반할 때 부르던 노래로『串坡號子』·『歸棱號子』·『上跳號子』·『拽大繩』 등 있으며 민간에 널리 퍼져있다. 다양성·창조성·민중성 등의 특징을 띠고 있어 인류학·민속학적 가치가 있으며 독특한 예술 가치를 지녀 인류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가치를 지닌다.

14.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施立學,『東北史地』, 2007－3)

東北柳條邊은 청 順治帝 및 그 계승자들이 녹색의 버드나무로 山海關 밖의 요녕과 길림의 대지 위에 짜 놓은 동북의 녹색 장성인 동시에 이를 경계로 삼아 200여년에 걸친 東北封禁을 시행하였다. 이 봉금은 동북 생태 문화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柳條邊은 정치적 원인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풍부한 성과를 남겨주었다.

15. 驛路滄桑－東北驛站故事(高振環,『東北史地』, 2007－3)

청대 동북의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강희제 시기에 구축된 것이다. 흑룡강의 역참은 강희24년 개설되어 19곳에 역을 두었으며 흑룡강을 포함한 동북에서 북경까지는 총 67개의 역참이 있었다. 광서 연간 한차례 대규모 정돈이 이루어져 站丁을 37인에서 45인으로 늘려 총원은 1113명에 이르게 되었다. 내륙의 역참과는 달리 동북의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한 詩文이 많지 않은 것은 극히 열악한 역참의 조건 때문일 것이다.

16. 神秘的努爾哈赤聖像考釋(韓亞楠,『東北史地』, 2007－3)

2005년 발견된 누루하치의 목각 성상은 만주족 鑲黃旗인 馬希哈拉이 만들고 그 집안이 보관하여 왔던 것이나 가문 몰락 후 민간에 유전되었던 것이다. 형상에서 볼 때 수시로 朝拜나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성상에서 ① 만주족의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샤머니즘 의식을 구현했으며 ② 만주족이 숭배한 신상의 제작은 엄격한 규율이 있으며 아무나 신상을 제작할 수 없고 샤만이나 샤만이 관리하는 조직에서만 제작할 수 있었고 ③ 누르하치 성상의 용도는 ㉠ 자손을 보우하여 평안무사 ㉡ 전쟁터에서 보우하여 무사함 ㉢ 조상 숭배를 통해 종족의 단결과 화목을 꾀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4기 [東北史地 2007年 4期]

1. 高句麗王陵通考要報(張福有 · 孫仁杰 · 遲勇,『东北史地』, 2007－4)

본 글은 30만 글자에 달하는『高句麗王陵通考』와『高句麗王陵通鑑』(600여 개의 도록이 포함됨)의 요약보고서이다. 저자들은 桓仁, 集安 지역에 대한 40여 차례의 조사를 통해 33곳의 중심묘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고구려 왕릉의 지명을 확인해 보면, ⑴ "忽本"과 "卒本川"의 경우 "忽"과 "卒"은 음역으로『삼국사기』에 나오는 졸본은 호태왕비의『홀본』과 같은 것이다. ⑵ "故國"은 國內城으로 丸都山城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⑶ "川"과 "原", "中川"과 "中壤", "美川"과 "好壤"은 같은 의미로 이와 관련된 이름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豆谷"은 "通溝"를 뜻한다. 이들 내용을 기초로 하여 몇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① "忽本"은 "卒本"으로 지금의 요녕성 환인 지역 내에 위치한 渾江의 川原에 해당된다. ② "凉谷"은 桓仁 凉水 泉子河 계곡이다. ③ "豆谷東原"은 集安 通溝河 동쪽, 故國川原 서쪽, 국내성 북쪽의 高阜와 臺地이다. ④ "故國谷"은 집안 국내성에서 환도산성의 狗圈溝門 북쪽 沿通溝 계곡까지의 지역이다. ⑤ "故國原"은 넓게 이야기하면 "東川", "中川", "西川"을 포함하고 狹義의 "고국원"은 집안의 禹山墓地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국원"과 "故國壤", "中川", "國岡", "陽岡", "平岡"은 모두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이다. ⑥ "故國壤"과 "國岡"은 같은 뜻으로 특별히 호태왕비 주변의 "國岡", "陽岡", "平岡" 혹은 "東岡", "西岡"을 지칭하는 말이다. ⑦ "故國川原"은 집안 국내성 지역의 압록강 오른쪽 河岸의 평원으로 禹山墓地 지역을 포함한다. ⑧ "西川"은 집안 通溝河 서쪽편의 "七星山墓區"이다. ⑨ "東川"은 집안 蒿子溝 일대로 長川과 蒿子溝墓區를 포함한다. ⑩ "中川"은 집안 국내성 북쪽 高阜와 臺地이다. ⑪ "國岡"은 "國壤"과 같은 곳으로 "東岡",

"西岡", "陽岡", "平岡"을 포함하고 집안 "禹山墓區"의 중심지역이다. ⑫ "美川"은 집안 麻線墓區에 해당되며 墓區의 "大獸林原" · "小獸林原" · "閔中原" · "慕本原"과 "烽山之原"을 포함한다.

2. 集安出土卷雲紋瓦當研究(耿鐵華,『东北史地』, 2007－4)

고구려 都城인 集安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고구려 와당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 卷雲紋瓦當은 수량이 많고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문자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集安 國內城과 丸都城 및 일부 묘지에서 일련의 권운문와당이 출토되었다. 이로 인해 집안의 권운문와당과 관련된 자료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게 되었다. 본문은 우선 권운문와당의 출토 시기를 기준으로 1965년부터 2003년까지 총 20개의 단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4개 표본의 형태와 보존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권운문와당의 유형은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卷雲紋瓦當과 卷雲紋文字瓦當 두 종류로 나뉜다. 이 두 종류는 문양의 구성형태와 문자의 내용에 다라 몇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권운문와당은 그 문양 형태에 따라 A형(총 6종류)와 B형(총 10종류)으로 나뉜다. 권운문문자와당은 A형(총 3종류), B형(총 8종류)로 분류된다. 권운문와당의 연대는 烽上王時期(제 1기, 292～300년) · 美川王時期(제 2기, 300～331년) · 故國原王時期(제 3기, 331～371년) · 小獸林王 · 故國壤王時期(제 4기, 371～381～391년) 4시기로 나뉘어진다. 집안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은 흙회색과 회색의 泥質陶나 夾砂陶로 만들어져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일부는 변형이 일어나 완전한 원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기울기도 했다. 이들 와당은 직경이 12～16센티미터이며 두께는 1.6～2.5센티미터이다. 집안에서 출토된 와당은 당시 중원의 漢晉시기 와당과 비교해 새겨진 문양이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와당에 기록된 문자 크기가 중원의 것보다 작은 隸書體로 쓰여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은 같은 지역에서 출토된 蓮花紋瓦當 · 獸面紋瓦當 · 忍冬紋瓦當 등과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권운문와당이 발견된 지역으로는 禹山墓區 3319號墓와 992號墓 · 麻線墓區 2100號墓 · 西大墓 · 千秋墓 등이 있다. 이중에 2100호묘와 千秋墓에서 발굴된 와당만이 문자가 없고 다른 묘에서 출토된 와당은 모두 문자가 새겨져 있다.

집안에서 발굴된 와당은 역사적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① 와당의 출토는 역사서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왕궁과 官府에 와당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증명하는 실증이 된다. ②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연대는 대략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의 것이다. 이시기는 고구려 국가 발전에 있어 변혁의 시기로 국가 전반의 발전을 이룬다. 와당의 사용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③ 집안에서 출토되는 권운문와당은 고구려 통치 지역에 거주했던 漢族들의 물건으로 이것은 고구려 통치지역내의 민족 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論"關東"歷史地名內涵之演變(胡凡,『东北史地』, 2007－4)

先秦시기부터 宋代에 이르는 시기 동안 "關東"은 函谷關의 동쪽 혹은 潼關의 동쪽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山海關을 건설한 이후, 누르하치가 흥기함에 따라 관동의 지칭 대상이 동북지역 三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역대 왕조의 정치투쟁과 정치 중심의 이동 및 고대 중국의 민족 융합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었다. "關東文化"라는 것은 明淸시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

지 동북지역에 형성된 문화로 다원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융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4. 蓋蘇文抗唐政策的形成及起因(劉矩,『东北史地』, 2007－4)

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초기부터 당나라에 대항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애를 썼다. 당나라와 고구려가 서로 대항하게 되는 상황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객관적 필연성이 존재했다. 개소문은 당나라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나라와 고구려 양측의 관계가 대항과 전쟁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5. 高句麗的祭祀(孫顯,『东北史地』, 2007－4)

고구려의 풍속은 陰祀가 많아 제사의 대상 또한 다양했다. 제사의 대상으로는 零星神(靈星 神), 隧神, 扶餘神, 登高神(高登神), 日神, 箕子神, 可汗神 뿐만 아니라 하늘, 社稷, 山川, 鬼神 등 다양하게 존재했으며 이들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祭隧神과 祭天 : 祭隧神과 祭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역사서에서 그들의 존재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祭隧神의 경우,『三國志』와『周書』의 기록에 따르면 隧神은 登高神(高登神)과 扶餘神을 말한다. 隧神을 모시는 곳은 東明王 神像과 扶餘神像을 보관하는 곳이 된다. 고구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東明廟는 3곳이 있었으며 扶餘神廟는 2곳이 있었다. 고구려 祭天의 對象과 제사 방식 등에 관해서 현재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三國史記』의 기록에 의거해 돼지를 제물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祭天은 祭靈星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② 社稷과 靈星 : 고구려가 사직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三國志』·『後漢書』·『梁書』·『南史』등의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사직은 토지의 神과 神農氏를 말한다. 사직에 제사를 지냈던 장소는 集安縣城 東門 밖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東臺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靈星은 零星을 말하는 것으로 고구려가 이것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三國志』·『後漢書』·『梁書』·『南史』·『舊唐書』·『新唐書』에서 확인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다.『史記』「封禪書六」의 기록에 따르면 靈星祭祀가 고구려 자체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원지역에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靈星은 蒼龍七宿 중 角宿 좌측에 있는 天田星이고 靈星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靈星과 대응하는 農神, 즉 稷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壬申日마다 동남 방향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③ 祭祀日神 : 日神에 제사지낸다는 것은『新·舊唐書』「高麗傳」에서 확인된다. 고구려 벽화를 통해 日神이 月神과 함께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日月神의 형상은 중원지역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고구려가 중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기타 다른 祖先에 대한 제사 : a. 箕子神－기자는 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간 箕子를 말하는 것으로 箕子神의 기록은『新·舊唐書』「高麗傳」에서 확인된다. 기자조선은 고구려 건국 이전에 가장 일찍 출현한 정치조직으로 중원민족과 한반도 거주 민족과의 장기간에 걸친 융합을 통해 고구려인들은 기자를 자신의 조상으로 간주하여 제사지내게 된 것이다. b. 可汗神 －可汗神의 관련기사 또한『新·舊唐書』「高麗傳」에서 확인된다. 중국 고대 북방 유목민족의 최고 통치자를 가한이라 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도 가한이라는 칭호를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구려에서 가한이라고 칭했을 대상으로는 고구려 선조인 朱蒙과 소수민족들에게 天可汗이라 칭송되었던 당나라 太宗이 있다. 可汗神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주몽 혹은 당 태종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6. 慕容廆與兩晋政治關係淺析(黃河,『东北史地』, 2007－4)

西晋 말기에서 東晋 전기는 遼西 慕容鮮卑에게 있어 세력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시기였다. 모용선비의 수령인 慕容廆는 晋나라 정권과 臣屬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정권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데 유리하고 漢族士人들을 귀속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지지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겼다. 모용외가 이처럼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하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石趙로 하여금 東晋이 명의상으로는 그들의 전략적 友邦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이로써 薊遼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段部 鮮卑 등 적대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외부 조건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東晋 정권이 모용외에게 지속적으로 관직과 작위를 수여한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동진의 군신들은 모용외가 石趙를 견제하는 중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용외에게 동진이 석조를 北伐하더라도 동요없이 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모용외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石趙를 경솔하게 정벌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위진남북조시기 동북지역의 소수 민족이 건설한 割據政權은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거나 중원에 진출하기 위하여 南朝정권과 협조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7. 晚清延吉的興起及原因初探(王耀,『东北史地』, 2007－4)

연길은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 산과 강을 끼고 있어 도시를 확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나라 초기 동북지역에 대한 封禁정책으로 인해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연길은 청나라 말기에 弛禁현상이 발생하고 이주민들이 유입되자 개간이 이루어져 발전하기 시작했다. 연길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1902～1909년 사이에 행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편되었다. 1907년 한 해에 인구가 1만 5천명 증가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연길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 1860년 오소리강 동쪽이 러시아로 귀속된 후 청나라는 연길이 갖는 자연지형을 이용해 정책을 실시했다. 두 번째,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이후 중국의 동북지역도 노리게 되자 1905년 노일전쟁 이후 연길은 일본의 침략을 막는 중요한 요지가 되었다. 세 번째, 광서 원년에 훈춘에서 연길을 지나 敦化로 이어지는 吉林官道의 설치는 연길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있다.

8. 現代思惟科學與東北近現代歷史文獻研究(趙娅麗 · 范勝麗,『东北史地』, 2007－4)

현대 思惟科學을 역사 연구영역에 응용하는 것은 博物館學 전공 분야에 있어 속히 추진되어야하는 새로운 과제이다. 동북 지역의 역사문헌 연구에 있어서 의식과 존재, 정신과 물질의 主客體慣性思惟라는 전통적인 兩級的 사유방식을 새롭게 고치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기초 위에 인식주체(연구자)·역사문헌(중개물)·인식객체(歷史事物)의 三級的 사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정상적인 思惟를 하는 3단계(感性·知性·理性)와 사물을 인식하는 三級 사유방식을 결합해 역사문헌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思惟의 感性認識 단계인 역사문헌에 대한 정리, 思惟의 知性認識 단계인 歷史事物의 복원, 思惟의 理性認識 단계인 歷史規律의 提示가 있다.

9. 伊通河流域人類文明的演變與歷史啓示(楊雨舒,『东北史地』, 2007－4)

伊通河 유역은 인류의 초기 문명을 발생시켰던 지역 중 하나로 지금으로 부터 7000～4800년 전 인류의 흔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후 부여국 시기, 고구려와 발해국시기, 遼金시기, 元明시기, 청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근대시기의 伊通河 유역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과 노예화 경향 하에서 기형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다. 1898년 長春에서 大連에 이르는 中東鐵路(東清鐵路 혹은 東省鐵路) 支線이 제정 러시아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이곳에 유입되는 신문명은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新中國이 건설된 이후 伊通河 유역은 다시 새롭게 거듭났고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역사적 교훈은 매우 크다. 伊通河 유역의 문명 변화과정을 통해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伊通河 유역의 인류 문명은 그 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자연에 대한 정복과 개조 능력의 증가와 함께 伊通河 상류지역으로 인류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② 伊通河 유역은 역사상 肅愼·濊貊·東胡 3대 族系의 여러 민족이 생활했으며 다수의 한족들도 이곳으로 이주해 거주했다. 伊通河 유역의 인류 문명은 한족을 포함한 다수 민족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③ 근대시기 伊通河 유역의 발전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침략의 역사로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기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伊通河 유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점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④ 伊通河 유역은 길림성의 정치와 군사 중심 중 하나가 되었다. 伊通河 유역이 지세가 평탄하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비옥해 농업 문명이 발달한 것과 현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伊通河 유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⑤ 근대시기 伊通河 유역은 간헐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한족 정치를 주체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농업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이어지고 있다. ⑥ 해방 이후 이 지역에 다수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 기관이 설치되어 사고 능력이 뛰어난 理性的 思惟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⑦ 현재 伊通河에 대한 파괴가 심각하다. 동북지역 문명의 母親河와도 같은 伊通河에 대한 보호 노력을 해야 한다.

10. 蛟河"雙鴖首五弦琵琶劍"淵源考(王松林 · 田佳訓,『东北史地』, 2007－4)

20년 전 全局시대 초기의 청동검이 길림성 蛟河縣 新農鄕 興農村에서 농민에 의해 우연하게 발견되었다. 그해 7월 길림성 박물관에 기증되어 보관되었다. 이 劍의 淵源에 관해 일반적으로 東北系 銅劍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과 유사한 劍이 현재까지 매우 소량만이 발굴되고 있어 이 劍의 族屬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劍의 발전 과정을 추정하여 濊族의 遺物인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 姓氏의 기원과 華夏·동북민족의 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劍은 西團山 文化의 주인인 少昊鴟鳩氏·鷺鳳氏 부족의 후예, 滿洲 씨족이 祭壇에 이용했던 신령한 器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評校勘本『三國史記』與『三國遺事』(張永敏,『东北史地』, 2007－4)

한반도 지역의 古籍 중 중국에서 출간된 서적의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3년 10월 吉林文史出版社가 간행하고 孫文範 선생이 교감한『三國史記』와『三國遺事』는 중국 학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 서적의 출간은 4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 번째, 손문범 선생은 대표적인 판본을 참고하여 중국학자로는 처음으로 『三國史記』를 출간했다는 점. 두 번째, 『三國史記』를 간행하면서 標點·訂誤·存疑를 달아두어 『三國史記』의 여러 판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고, 『三國史記』와 중국 역사서와의 차이점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 교감본의 출간으로 한반도의 역사관련 서적이 중국에 보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古代 역사에 대한 한반도 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네 번째, 교감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출간은 당시의 한반도 正史와 佛學을 비교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好太王 元年과 長壽王이 平壤으로 도읍을 옮겼던 시기에 대해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12. 『遼南碑刻』:一部存史證史的力作(韓行方, 『东北史地』, 2007－4)

金州博物館 崔世浩는 遼南지역 비석문에 대한 장기간의 정리 작업을 통해 60만 자에 달하는 巨帙의 자료전집을 大連出版社에서 출판했다. 본 책은 "碑刻考釋"과 "碑文選錄"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碑의 탁본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변강사지연구』(2002~2007년)

• 邊疆史地 2002년

1기 [邊疆史地 2002年 1期]

论明前期斡朵里女真与明、朝鲜的关系－兼论女真对朝鲜向图们江流域拓展疆域的抵制与斗争

刁书仁,『中国边疆史地研究』2002-1

明朝 당시 女眞의 建州 左·右衛 그리고 毛憐衛는 건주 여진의 중심이었다. 건주 좌·우위는 斡朵里(알타리) 여진에서 기원했는데, 한국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에도 등장하는 알타리部는 원래 元代에 건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다섯 개의 萬戶府 가운데 하나였다. 元明 교체기에 알타리부의 만호 猛哥帖木儿은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조선의 吾音會(후의 회령)로 이주했다. 이후 서쪽 蘇子河 유역으로 이주한 알타리부는 鳳州에 거주했던 10여 년을 제외하고 줄곧 圖們江 이남에 거주했었다. 그리고 알타리부는 대륙의 왕조 교체기를 틈타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던 조선의 북진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었다. 본래 조선에 귀순했던 猛哥帖木儿은 몽고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명조가 동북 지방의 경영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명조 永樂 3년(1405) 조선을 버리고 중국에 귀순했다. 이에 조선은 두만강 유역 진출에 방해가 되는 여진을 경계하고 방비를 강화했다. 조선의 최북방 전진기지였던 慶源府는 영락 8년(1410, 조선 태종 10년) 여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남쪽의 鍾城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영락 9년(1411) 猛哥帖木儿은 그의 무리를 이끌고 서쪽의 鳳州로 이주했고, 그가 이주해 오자 명조는 그의 부락에 건주 좌위를 설치하고, 그를 建州左衛指揮로 임명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했다. 영락 21년(1423) 다시 阿木河(즉 吾音會)로 東遷한 猛哥帖木儿은 몰락한 다른 여진의 수령 楊木答兀이 각지에서 규합한 야인의 기습으로 피살되고 말았다 (이른바 阿木河事變).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은 이 틈을 이용해 아목하에 會寧府 설치하고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조선은 正統 14년(1449)까지 회령, 慶源 등 6鎭을 설치하고 다른 곳의 백성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다. 이상과 같이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의 시도가 쉽지 않았던 것은 여진인들의 저항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论两汉时期滇人的封建化问题

刘雪河,『中国边疆史地研究』2002-1

滇人은 지금의 운남성 경내의 滇池 주변에 거주했던 옛 민족으로, 주변의 다른 민족에 비해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일찍 발달했었다. 戰國 시기에 전인들은 이미 楚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秦朝 시기에 '五尺道'가 개통되자 교통이 한결 편리해졌으며, 서한 시기에 이르러 내지와의 관계가 한층 밀접해짐에 따라 중원의 선진적 봉건문화가 전지 일대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군현제의 실시와 중원의 선진 생산기술

및 도구 등은 아직 노예 사회의 단계에 머물고 있던 전지 일대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兩漢 교체기 즈음에 전인들은 야금 기술을 배워 스스로 철제 농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관개와 牛耕의 기술도 유입되어 농업생산이 크게 제고되었고 토지의 私有制도 등장했다. 그 결과 동한 시기에 전인들은 급속히 봉건화 과정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발굴된 고분의 부장품, 묘실 구조, 매장 방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봉건화 과정을 완성한 전인은 이윽고 蜀 지방의 漢人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동한 이후 운남의 전인이라는 호칭은 서서히 사라지고 촉 지방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叟人'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록 광활한 운남 지역의 봉건화 과정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었고 또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전인의 봉건화 과정이 비교적 빨랐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关于边疆研究若干问题的思考

马大正,『中国边疆史地研究』2002-1

1. 변강 연구의 현황과 평가

20세기 80년대 이래 중국 변강 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보였고, 특히 두 가지 큰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근대의 邊界에만 국한되어 있던 연구의 범주를 크게 확대시켰다.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변계 연혁사, 중국 변강 연구사를 중심으로 하여 邊疆史地의 기초적 연구를 크게 발전시켰다. 둘째, 중국 변강사 연구와 현재 상황을 결합시켜 현재의 중국 변강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잘 결합시켰다.

學際的 학과의 하나인 변강학과는 새로운 세기의 전반기에도 여전히 번영하고, 또 학과의 건설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변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대단히 낙관적이다.

① 중국 변강이 하나의 완전한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 학계에 의해 인정되었다. 전략적이고 거대한 시각에 의한 연구 결과가 잇달아 출판되었고,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七卷本『中國邊疆通史』(馬大正 主編, 그 중 한 권인『中國邊疆經略史』가 中州古籍出版社에 의해 2000년에 출판되었고, 나머지는 2002~2003년에 모두 출판될 예정임),『中國古代邊疆政策研究』(馬大正主 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년),『中國邊疆民族管理机构沿革史』(趙云田,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년),『中國疆域史』(劉宏煊, 武漢出版社, 1995년),『邊防論』(毛振發 主編, 軍事科學出版社, 1996년),『中國邊防史』(鄭汕 主編, 社科文獻出版社, 1995년),『清代的邊疆政策』(馬汝珩 · 馬大正 主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년),『清代邊疆開發研究』(馬汝珩 · 馬大正 主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년),『清代邊疆開發』(馬汝珩 · 成崇德 主編, 山西人民出版社, 1998년),『18世紀的中國与世界 · 邊疆民族卷』(成崇德, 遼海出版社, 1999년),『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 — 一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馬大正 · 劉 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7년),『中國古代海疆史綱』(安 京, 黑龍江教育出版社, 1999년) 등이 있다.

② 현대의 변강 문제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변강 연구는 그 특성상 변강의 현재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세기 90년대 이래 학자들은 변강의 안정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련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실용적 연구들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에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③ 연구 분야와 정책 결정 분야의 합작이 시작되었다. 두 분야의 합작은 연구 분야의 순조로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변강 연구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담당했다. 1994년 중국 사회과학원이 학과를 조정한 이후,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은 연구의 중점을 명확히 했다. 즉 첫째,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변계 연혁사, 중국 변강 연구사 등 3대 계열의 종합적 연구와 둘째, 현대 변강의 안정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며, 셋째, 중국 변강 이론과 중국 변강학의 구축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 변강 연구의 중점과 관심 문제

학과의 건설에 유리하고 또 변강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변강 연구의 중점과 관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5개 분야를 들 수 있다.

① 중국 강역사 연구: 무엇이 문제이며, 왜 그런가를 설명해야 한다.

② 중국 근대 변계 연혁사 연구 :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조가 그토록 침략에 무기력했던 원인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방면에서 찾아야 한다.

③ 중국 변강 연구사 연구 : 史學史의 관점에서 고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근대의 연구는 물론이고 현대의 연구도 계승하여 새로운 세기의 변강 연구를 예측해야 한다.

④ 중국 변강 통치 연구 : 진한 이래의 역대 왕조는 모두 변강 통치의 소중한 유산을 남겨 주었다. 그리고 新中國 성립 이후에도 역시 적지 않은 변강 통치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유산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오늘날 변강 통치에 관한 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⑤ 중국 변강 이론의 연구 : 변강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론적 문제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역사상의 중국', '변강', '海疆', '변계'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변강학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또 역사상의 중국의 강역 범위, 분열과 통일의 역사적 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변강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① 자료의 정리와 출판 : 이미 완성된『清代邊疆滿文檔案目彔』(广西師范大學出版社, 1999년)의 기초 위에 新疆의 滿文 檔案을 번역하고, 새로이 시작된 동북 변강 연구에 발맞추어 관련 당안은 물론이고 한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 저작도 번역해야 할 것이다.

② 연구자 진용의 정비 :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현직 연구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도적 학자를 배양하고 석사와 박사 연구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연구자의 진용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각종 방식을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의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를 연결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교량적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③ 연구의 심화 : 이미 완성된 연구 과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중국 고대의 변강 治理 연구, 중국 봉건사회의 藩屬 연구, 중국 근대 界務 문제 연구, 근현대 주변 諸國과 중국 변강과의 관계 연구, 중국 海疆의 역사와 현재 상황 연구, 중국 변강 探察史 연구, 현대

중국 변강의 안정과 발전에 관한 전략 연구 등의 과제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④ 학과의 구축 : 현재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은『中國邊疆學通論』의 편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는 중국 변강의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과 변강학의 이론적 틀, 변강학의 내용과 外延, 기능과 특징, 인접 학문과의 관계, 국내외 연구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공동 노력을 통하여 중국적 특색의 이 책을 완성함으로써 변강학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⑤ 연구 성과의 확산 :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흑룡강 교육출판사의 제휴는 이미 각종 상을 수상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각종 출판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복무할 것이다.

唐代城傍辨析

王义康,『中国边疆史地研究』2002-1

唐代에 兵種의 하나였던 城傍 혹은 城傍子弟는 蕃兵의 하나로서, 특히 내지로 이주한 소수민족의 부락과 관련이 있었다. 성방과 함께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部落兵은 성방과 성격이 조금 달랐다. 양자는 집결과 해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부락병은 집결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았다. 즉 유사시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가 완수되면 곧 해산되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반면 성방은 일정한 시기에 집결하고 해산되었다. 성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성방은 일종의 團結兵이며, 소수민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성방은 각지의 軍城의 지휘를 받았으며, 民兵의 성격이 농후했다. 한편, 당대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랐다. 특히 소수민족의 거주지인 羈縻府州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성방의 납세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미부주에 대한 과세는 일정하지 않았고, 통일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미부주를 輕稅州라고 규정할 수 없다. 특히 경세주는 남쪽의 嶺南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방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2기 [邊疆史地 2002年 2期]

试论唐西州都督府与西州政府的关系

李 方,『中国边疆史地研究』2002-2

당 태종 貞觀 14년(640) 唐朝는 지금의 투루판 지역에 있었던 高昌을 멸하고 그곳에 安西都護府를 설치했다. 얼마 후 정세의 변화로 도호부를 龜玆로 철수시키고, 대신 그곳에 西州都督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과 출토 자료를 보게 되면 軍政을 담당하는 서주도독부가 서주의 民政도 관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唐朝는 軍政과 民政을 엄격히 분리했고, 군정 기관이었던 都督府가 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서주에 관련된 자료에 이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독부가 민정 기관인 서주 정부로 격하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주 정부와 도독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정과 민정을 도독부가 동시에 관장하는 현상은 바로 서주도독부와 서주 정부가 하나로 합쳐져 군정과 민정의 실무를 처리했기(合署辦公) 때문이었다. 즉 서주도독부의 도독이 서주 정부의 刺史를 겸하고, 동시에 비교적 지위가 높은 5품 이상의 관원들도 두 기관의 직책을 겸한 채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곳과 달리 서주도독부와 서주 정부의 관할지역이 高昌縣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고창현 하나에 두 기관을 동시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두 기관을 합쳐 실무를 관장하게 하는 合署辦公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각종 자료에 서주도독부가 민정을 담당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一个研究新阶段的标志－评《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

张碧波,『中国边疆史地研究』2002-2

여러 가지 원인과 제약으로 인하여 중국의 변강 연구가 정체되고 낙후된 상황 속에서 馬大正을 위시한 다섯 명의 저자에 의해 출판된『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이하『논총』, 흑룡강 교육출판사, 2001)은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1. 새로운 학술적 사고와 학술적 구상

동북 지방의 민족과 강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학술사적 파악은 필수적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중복 연구를 피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회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논총』은 모범적 연구이다.

『논총』은 民族編, 政治編 그리고 研究編 등 모두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民族編은 고구려 명칭의 출현과 함의 및 소실, 고구려의 서로 다른 칭호(高句麗와 高句驪)와 簡稱 그리고 그 출현 시기, 고구려족의 민족 기원, 고구려의 멸망과 고구려인의 행방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민족편을 통하여 저자는 고구려 민족의 귀속문제를 검토하고, 고구려 민족이 중화민족의 일원임을 밝혔다.

정치편은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고구려와 중앙 왕조의 관계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저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즉 첫째, 427년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정권의 성격과 귀속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저자는 평양 천도 이전이나 이후에도 고구려는 西漢의 강역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중앙 왕조에 귀속된 변강 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둘째, 고구려와 隋唐의 전쟁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저자는 그 전쟁이 중앙 왕조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고구려에 관한 국내외 학술사의 파악은 학술적 주도권 장악에 있어 관건이 된다

『논총』의 제3편은 고구려에 관한 중국 학자의 연구에 대한 평가, 북한 학자의 연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근 백년에 달하는 일본학계의 고구려 연구 개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부문 즉 북한 학자들의 고구려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학계의 연구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논총』의 저자는 북한 내의 연구 상황을 소개하면서 고구려가 북한의 고대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한국 내에서의 고구려 연구 열기가 학술적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도 지적했는데, 이는 마땅히 중국의 학계가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저자는 또 일본의 고구려 연구가 한국 삼국시대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관심도 고대 日韓 관계, 호태왕비 시대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편, 연구편을 따로 설정한 것은『논총』저자들의 뛰어난 학술적 안목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미래지향적인 학술적 사고

『논총』은 연구편 뒤에 '高句麗歷史研究深化之管見' 이라는 절을 두고 있는데, 장래의 연구를 전망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첫째, 자료의 정리와 분석 그리고 국내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고구려 연구를 심화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 思考를 확대하고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여 주제를 선별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연구 역량을 조직하고 연구자 사이의 연락 강화는 물론이고 연구 인력의 배양과 은퇴 학자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연구 결과의 보급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섯째, 개방적 사고와 실사구시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지적과 강조는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의견이어서 느끼는 바가 많은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논총』은 새로운 학술적 사고로 학술적 연구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单于都护府的几个问题

宋秀英 · 龙 木,『中国边疆史地研究』2002-2

唐朝의 六大 都護府 중의 하나였던 單于都護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선우도호부의 설치시기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선우도호부의 설치시기를 永徽 원년(650)과 麟德 원년(664)으로 각각 나누어 보고 있는데,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인덕 원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설이 신뢰할 만하다. 그 외에 도호부에 관련하여 견해가 갈리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垂拱 2년(686) 선우도호부가 鎭守使로 개칭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료에 그 명칭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진수사가 單于大都護를 겸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開元 7년(719) 선우도호부가 다시 폐지된 것은 아마도 副都護였던 張知運이 돌궐의 반란을 진압하는 도중 돌궐의 포로가 된 것 때문일 것이다. 셋째, 선우도호부의 폐지 시기는 咸通 14년(873)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언급해야 될 사실은 선우도호부의 도호를 당조의 이씨 종친이 겸직하는 전통은 안사의 난 이후에 없어졌다. 넷째, 선우도호부의 치소 위치는 간단히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의 선우도호부가 유목민족의 부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까닭에 유목민족의 이동에 따라 치소도 이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유목민족의

항복과 이반이 무상했기 때문에 선우도호부의 관할 구역도 변화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선우도호부의 책무는 다른 도호부와 차이가 없었다. 즉 안으로 관할 구역 내의 변강민족을 관리하고 밖으로 방어와 토벌의 책무를 지고 있었다. 도호의 선발 역시 다른 관직의 선발 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关于古朝鲜几个问题的研究

李德山,『中国边疆史地研究』2002-2

古朝鮮族의 명칭을 '箕子朝鮮'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孫進己 · 馮永廉,『東北歷史地理』上冊,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年版, 217쪽)이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명칭을 그렇게 할 경우 箕子가 도착하기 이전에 고조선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또 사실상 이미 고조선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20세기 5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기자와 관련된 유적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서 기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건대 기자의 東遷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북한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기자의 동천 시기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殷商이 멸망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조선으로 간 이유는 첫째, 기자가 동천하여 孤竹國 부근에서 활동할 때 그곳이 燕나라의 제후가 관할하던 지역이라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고조선족이 東夷의 한 지파이면서 동시에 商民族과 같은 민족에 속했으므로 기자와 친속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기자는 조선에서 제정하여 가르친 '八條之敎'를 통하여 고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를 '中華'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고조선족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했다. 그 결과 이후 朝鮮侯 准의 조부 시절에 이르러 周 왕조를 존숭한다는 기치하에 稱王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고조선이 이미 스스로를 중국의 列國 가운데 하나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秦의 천하통일 이후에도 고조선은 여전히 그 판도 안에 존재함으로써 다민족으로 형성된 秦 왕조라는 대가정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漢 무제에 의한 고조선의 멸망은 중앙왕조와 지방정권 간의 모순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이며, 그 전쟁은 침략이 아니라 한 왕조의 통일전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东北古史分期探赜

程尼娜,『中国边疆史地研究』2002-2

동북 지방은 예로부터 많은 민족의 集居地였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던 각 민족의 발전 수준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북 역사의 큰 특징이었다. 그것은 각 민족의 경제유형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각 민족에 대한 중원의 영향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 동북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찍이 金毓黻은『東北通史』에서 동북의 역사를 6期로 나눈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기 구분은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고, 다수의 학자들은 단지 왕조의 교체에 맞추어 동북 역사의

시대를 구분했다. 따라서 동북의 역사 자체의 단계성과 특징에 근거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원시 상태에서 문명의 시작 시기

구석기 시대의 초기에서 기원전 3세기 후반기까지 해당되는 시기이다. 동북 각 지역의 문화적 발전은 그 편차가 상당히 큰데, 오직 남부의 일부 지역만이 비교적 빨리 발전하여 문명 단계에 일찍 진입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원시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세기 7~80년대 다량의 원시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이미 구석기 시대 초기부터 동북 지방에 원시인류가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구석기 시대 중후반기에 이르면 거의 모든 동북 지방에 원시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원시인류의 화석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遼西 지구에서 발굴된 5천여 년 전의 유적과 유물은 중국의 각 민족 사이에 진행된 교류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도 각 지역의 문화 발전은 현저한 편차를 보였다. 낙후된 동북 지방의 중부, 북부, 동부에서는 서로 다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원시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중부와 동부의 예맥 집단, 동북부의 숙신 집단 그리고 서부의 東胡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중원의 早期國家 시기에 이미 중원왕조는 동북 지방과 일정한 통할관계를 유지했다. 夏商 시기의 요서 문화는 商朝의 先世文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떤 이는 상조가 요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외에 箕子의 東遷과 燕나라의 대규모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중원 방식의 통치 등은 모두 동북 지방의 소수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2. 동북 각 민족과 지방정권의 건립 시기

秦朝에서 남북조 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동북의 각 민족은 차례로 지방정권을 건립했다. 특히 진조 이래 중원왕조가 이 지역에 실시한 군현제도는 각 민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쳐 예맥 계통의 부여와 고구려가 건국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곧 중원왕조와 예속관계를 맺었다. 원래 흉노의 통제하에 있던 동북 지방의 서부는 흉노가 서한에 의해 격퇴된 이후 烏桓이 이주하여 왔으며, 이어서 鮮卑도 남으로 이동하였다. 동한 말에 이르러 선비는 강력한 부락연맹을 형성했고, 특히 동부의 선비는 前燕, 後燕 등의 정권을 세우기도 했다.

이 시기의 동북 소수민족과 중원왕조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고, 각 민족 사이의 관계도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전쟁과 遷徙 등을 통하여 서로 雜居하거나 융합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魏晉 시기 이후 숙신 계열의 挹婁, 勿吉, 말갈 등이 신속히 발전하여 남하하기 시작했고, 동부의 선비가 쇠퇴한 이후 서부에서는 거란, 室韋 등이 등장하여 세력을 키워나갔다.

3. 수당의 기미통치 시기

隋唐 시기 동북 지방에 실시된 羈縻統治는 중앙왕조와 동북 지방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방면에 대한 중원의 영향을 심화시켜 동북 지방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다.

668년 고구려를 멸하고 安東都護府를 설치한 이후 793년 室韋 지역에 室韋都督府를 설치함으로써 唐朝는 동북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羈縻府州 통치를 완성했다. 이는 당조가 무력을 통한 정복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당시의 소수민족의 상태가 기미부주 통치에 적합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요금 북방왕조 시기

遼朝와 金朝는 유교의 숭상을 기본적인 국책으로 삼는 등 중원의 봉건적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북방민족의 왕조였다. 두 왕조가 동북 지방의 각 민족에 중원의 봉건적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를 전파함으로써 동북 지방의 각 민족은 전에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가 소수민족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소수민족의 관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5. 원명청 시기

이 시기에 동북 지방은 정식으로 중국의 통일적인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었지만 여러 민족이 集居하는 지역이라는 특성은 여전했다. 元代에는 중원과 동일한 行省 제도가 실시되었고, 明代에는 遼東都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淸代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奉天將軍, 黑龍江將軍에 의해 통치되고 일부 몽고족의 거주 지역에 盟旗制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민족의 분포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거란, 奚, 발해 민족은 이미 漢族과 몽고족에 융합되어 소멸되었고, 조선에서 조선족이 새로이 이주해왔다. 중앙왕조의 통일된 통치하에 각 민족은 특유의 경제, 문화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각 민족과 함께 중화민족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3기 [邊疆史地 2002年 3期]

《通典 · 吐蕃传》的史料价值

张 云,『中国边疆史地研究』2002-3

唐代의 杜佑(735～812)에 의해 편찬된『通典』은 史書 가운데 최초로 土蕃을 위한 專傳을 실었다. 『통전·토번전』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토번 민족의 기원과 풍습 그리고 각종 典章制度, 둘째, 토번과 唐의 관계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 그리고 셋째, 토번의 大相 論欽陵과 唐朝의 使者 郭元振 사이의 긴 대화와 곽원진의 상소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통전·토번전』은 토번의 민족 기원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도 이미 토번의 민족 기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함께 기록된 토번의 풍속과 전장제도는 이미『舊唐書』,『新唐書』의 기본 자료가 될 만큼 신뢰성이 높은 것이었다. 특히 토번의 풍습에 대한 기록은 두 唐書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어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그리고 당조와 토번의 관계에 관한 기술은 당 태종 貞觀 15년(641)에서 시작되어 宣宗 天寶 14년(755)에 끝난다. 마지막으로 武則天 萬歲通天 2년에 있었던 토번의 大相 論欽陵과 당조의 사자 곽원진의 무려 1,800 자에 달하는 대화는 唐書에 없는 내용으로 역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통전·토번전』은 唐代의 인물에 의해 저술된,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토번 관련 사료이다.

关于中国历史上疆域问题的几点认识

赵永春,『中国边疆史地研究』2002-3

1951년 白壽彝가『光明日報』에「論歷史上祖國國土問題的處理」를 발표하여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래, 중국 역사상의 강역문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강역 안에 존재하는 민족과 역사상 현재의 강역 안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민족 모두가 중화민족의 구성 요소이고, 그들의 역사 역시 중국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과 그들이 수립했던 정권의 강역은 당연히 모두 중국 역사상의 강역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상 '中國'의 함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상 '중국'의 함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즉 역사상 '중국'의 함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상 '중국'의 함의가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단히 변화해 왔기 때문에 역사상의 '중국'을 중국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단지 현재의 중국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한편, 비록 중국 역사상의 각 민족이 건립한 정권 모두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각 정권의 지위와 역할은 같지 않았다. 중국 역사상 주체 민족은 漢族이며, 주체 정권은 각 민족이 건립한 중원 정권이었다. 그리고 중원 정권과 변강 민족 및 그 정권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예속관계가 존재했다. 주체 민족과 주체 정권 그리고 기타 민족과 그 정권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의 강역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夏商周 시기의 五服制를 시작으로 중원 정권의 변강 지구에 대한 직간접인 관할은 계속되었고, 점차 직접적인 관할을 강화하여 마침내 淸朝에 이르러 변강 민족과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중원의 주체 민족과 정권 그리고 변강의 민족과 정권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원과 변강 사이에 예속관계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사상과 문화 방면에도 '華戎一族'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마천이『사기』에서 변강의 소수민족도 華夏族과 마찬가지로 黃帝의 자손이라고 언급한 이래, 중국의 소수민족이 모두 炎帝와 黃帝의 후손이라는 설은 광범위하여 퍼져 훗날 변강의 소수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비록 중화민족의 기원이 같다고 하는 이런 주장과 생각은 비과학적이긴 했지만, 중화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변강민족의 심리적 일체감을 잘 설명해준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중국 역사상의 강역 문제를 검토한다면 비교적 공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第二届东北边疆历史与现状暨高句丽学术研讨会述要

龙 木,『中国边疆史地研究』2002-3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주최하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

성 사회과학원 등이 협찬한 제2회 동북 변강역사와 현재 상황 및 고구려 학술대회가 200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두 단계로 나뉘어 長春과 通化에서 개최되었다.

1.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이론 문제

구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론적 측면을 소홀히 하는 최근 학술계의 경향은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관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의 역사 강역, 변강민족 정권의 귀속문제 등 중대한 문제에 관한 통일적 이론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론적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많은 경우 즉흥적인 면이 있었고 또 시각의 차이도 컸다. 겨우 몇몇 학자만이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張碧波는 중국의 역사 강역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고, 중원과 변강의 독립정권과 지방정권을 불문하고, 또 지방정권과 중앙왕조와 관계가 번속관계 혹은 기미관계에 있었든 아니든 무릇 중화민족이 건립한 정권과 그 강역은 모두 중화정권이고 중화강역이며, 그리고 변강에 있었던 중화의 古民族이 정권을 건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당연히 중화의 강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趙永春은 '中國' 개념을 검토하고, 오늘날 중국의 강역 안에 거주하는 민족과 역사상 현재의 강역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소멸된 민족 모두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부분이며, 그들이 건립한 정권의 강역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강역이라고 주장했다. 王景澤은 '변강'과 '內地' 개념을 분석하고, 변강의 內地化 문제를 검토했다.

2. 역대 왕조의 동북 지방 경영과 개발

역대 왕조의 동북 지방 경영과 개발 역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唐代의 동북 지방 경영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程尼娜는 당대에 동북에 설치된 羈縻府州의 유형과 통치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발해 정권의 귀속문제를 검토했다. 馮季昌은 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미부주의 숫자를 확인하여 모두 506개의 府州軍縣이 설치되었음을 밝혔다. 李大龍은 唐朝의 동북 변강민족의 관리 기구를 검토했다. 한편, 武玉環은 遼朝의 발해 이민정책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았고, 張杰은 고려가 철령 이북의 땅을 점유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依保中은 민국 시기 길림성 지역의 水田 개발 상황을 검토하였다.

3. 고구려 연구 관련

고구려 문제는 학술대회의 중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고구려의 귀속문제는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였지만 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컸다. 孫進己는 고구려의 귀속문제는 역사상의 귀속과 현재 각국의 역사연구 및 범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귀속의 시기와 정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귀속의 합당한 근거를 찾을 필요도 있고, 학술문제와 정치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劉子敏은 민족과 정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이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하나의 이론을 통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魏忠國은 고구려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국제 학술계의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시종 중국 역대 중앙왕조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관하여 王綿厚는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고구려 민족의 기원이 商周 시기

요동의 高夷였으며, 이후 그들은 貊族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曹德全은 高夷가 西周 초기의 북방민족 가운데 하나였지만, 먼저 孤竹에 병합되고 후에 燕나라를 거쳐 최종적으로 漢族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한편, 劉炬는 고구려의 내부 개혁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고국천왕과 소수림왕의 개혁이 고구려의 흥기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考古文化에 대하여 魏存成은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徐日范과 周向永은 압록강 이남과 철령 이북 사이의 고구려 山城을 분석했으며, 張雪岩은 고구려의 허리띠 장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변민족과의 관계를 검토했고, 李樹林은 돌에 새겨진 고구려의 '天書'를 해독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姜維東은 고구려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평가하면서 1998년 이후 고구려 연구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步平은 20세기 초의 '滿鐵歷史地理調查部'와 관련된 학자와 그들의 저술을 분석했다.

4. 동북 지방의 기타 민족에 대한 연구

孟古托力은 孤竹國의 역사와 민족의 기원과 분포 및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商朝와의 관계와 고죽국의 쇠망 및 그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楊軍은 箕子 조선의 사회성질과 귀속문제를 연구했고, 徐德源은 古燕國 및 진한 시기 燕나라의 동쪽 국경의 변천 상황에 대해서 검토했다. 그리고 孫進己·孫泓은 거란과 여진족이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에 합류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孫春日은 조선족이 중화민족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淸朝의 '剃髮易服' 정책의 실시에서 찾았다. 劉厚는 滿學의 함의를 정의하고 만학의 특징과 역사상의 의의에 대하여 논했으며, 王春瑛·王卓은 동북 변강문화에 미친 漢文化의 영향과 그 작용을 검토하여 한문화가 동북 변강문화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5. 중국과 한국의 관계

宋慧娟은 후금과 조선의 관계에 있어 1627년에 맺어진 '兄弟之盟'에 의해 형성된 '半藩屬關係'는 1637년에 이르러 완전한 번속관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劉爲는 청조 시기의 조선 사절단의 무역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것을 '朝貢貿易'이라 부르고 그 규모와 양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苑宏光은 청조 말기의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焦潤明은 드물게도 국제법적 시각에서 중국과 조선의 국경문제를 분석했으며, 王復은 조선인의 불법 월경 문제를 검토했다.

▌4기 [邊疆史地 2002年 4期]

自汉至唐海南岛历史地理略说

方 鹏,『中国边疆史地研究』2002-4

서한 무제 元封 원년(전 110) 서한은 海南島에 珠崖郡과 儋耳郡 등 두 군을 설치함으로써, 해남도를 정식으로 그 판도 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서한 원제 初元 3년(전 46) 주애군을 파하고 朱盧都尉를 설치한 뒤 合浦郡에 소속시켰다. 그 이후의 580여 년 동안 해남도는 縣級의 기구가 설치되거나 혹은 합포의 徐聞縣에 소속된 상태에 있었다. 이후 남조의 梁朝가 해남도에 다시 주애군을 설치하자 해남도에 다시 郡制가 회복되었다.

해남도에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남도에 관련된 논쟁

① 주애와 담이 두 군의 설치시기

서한 무제가 해남도에 두 군을 설치한 시기가 같은『漢書』에 출처에 따라 元鼎 6년(전 111) 혹은 元封 원년(전110)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가들의 연대 기록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해남도가 평정된 것은 기원전 110년 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연호가 원정에서 원봉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원봉 원년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한서』의 저자 班固는 만약 하나의 사건의 전후 과정을 모두 기록할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의 연호 즉 바로 직전의 연호를 그대로 써서 표기했었다. 또 사건의 전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만을 단독으로 언급할 경우 새로운 연호를 기준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해남도 평정의 전후 과정을 모두 기록하며 반고는 원정 6년이라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고의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② 서한의 주로도위와 삼국 손오, 남조 송, 제의 주로현

서한 원제가 주애군을 파한 후에 설치한 朱盧都尉와 삼국 손오 및 남조의 송, 제 시기의 朱盧縣이 해남도에 설치되었는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지금까지의 출토 자료 등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설치되었던 것이 확실시된다.

③ 동한 시기의 주애현

동한 시기 해남도에 朱崖縣이 존재했음이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데, 그 설치시기가 확실치 않았다. 관련 사료를 종합해 보면, 광무제 建武 18년(42) 馬援의 원정이 있은 직후에 이전의 주로도위의 치소가 주애현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손오 시기의 주애군

손오의 손권은 赤烏 5년(242) 해남도에 군사를 보내 평정하고 주애와 담이 두 군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군에 관한 사료를 종합하면, 손권은 주애와 담이 두 군을 설치한 직후 곧 담이군을 폐하고 주애군으로 하여금 해남도를 관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⑤ 주관현

손오의 손권 시기의 사료에 최초로 등장하는 朱官縣은 아마도 合浦縣이 개명된 것일 것이다. 합포현은 원래 관할 지역이 대단히 넓어 후에 여러 현으로 분할되었었다. 손오 시기의 주관현의 치소는 합포현의 치소에 있지는 않았다.

2. 명대 이래 해남도에 관한 논쟁

① 왕좌와 당주의 논쟁

明朝의 正德 연간『瓊臺志』의 편찬 작업을 담당했던 王佐와 唐胄는 漢唐 시기의 해남도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즉 왕좌는 해남도가 동한의 국가의 판도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한과 육조 5백여 년 동안 군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당조는 漢朝가 해남도를 포기한 시기는 겨우 86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양측은 모두 후세가 참고할 만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왕좌의 경우, 해남도에 대한 무력 정복은 비록 서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문화적 정복은 동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참고할 만하고, 당조의 경우는 해남도 문제를 검토할 때 사료의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참고할 만하다.

② 담기양 교수의 「自汉至唐海南岛历史政治地理」에 관하여

復旦 대학의 譚其驤 교수가 1988년『歷史硏究』제5기에 발표한 이 논문은 여러 면에서 논박할 여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주로도위의 경우, 그는 해남도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 또 그는 正史 이외의 사료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정사를 부인하지만, 그가 인용한 정사 이외의 사료는 신뢰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清末中朝日"间岛问题"交涉之原委

孙春日,『中国边疆史地硏究』2002-4

19세기 말 朝鮮이 제기한 간도의 귀속문제는 이후 1905년에 일본의 개입으로 결말이 날 때까지 양국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시켰다. 원래 圖們江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라는 의미의 간도는 1881년 도문강의 모래톱에 조선인들이 인공적으로 물길을 내고 도문강의 강물을 끌어들여 섬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간도라는 명칭도 조선 측에서 처음으로 지은 것으로 중국의 관원들은 1903년 조선 측에서 제시한 문서에서 최초로 이 명칭을 보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 후 도문강 이북 지역에 조선인의 유입이 증가하자 간도는 도문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원래 간도 지역은 여진족의 거주지였으나 17세기 초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뒤 무인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청조와 조선 사이에 체결된 '江都會盟'에서 양국은 '각기 자신의 강역을 지킨다'라고 하는 대단히 애매한 서약을 했는데 이것이 후일의 분쟁의 씨가 되었다.

그 후 1712년 정계비를 세워 최초로 양국의 국경을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土門江'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82년에 체결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제정 러시아의 동북 지방 진출이 현저해지자 청조는 동북 지방에 실시해오던 기존의 봉금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881년 중국은 도문강 이북에 대량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쇄환을 위해 조선과 교섭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조선 측은 土門江(圖們江)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기 때문에 토문강 이북의 영토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연히 두 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고, 조선은 국경을 재조사하여 확정짓자고 제의했으며 중국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도문강의 水源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고 국경의 확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은 간도 지역의 자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각기 조치를 속속 취하게 된다. 중국 측은 동북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군대를 증파하는 동시에, 漢人을 대량으로 모집하여 이주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충실히 하려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현지의 조선인을 자국의 국

민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중국식 복장을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이에 반발한 다수의 조선인이 간도를 떠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 측도 관원을 파견하여 간도 지역을 시찰케 하고, 1901년 邊界警務署를 설치하여 간도 지역을 관할하고자 시도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은 중국, 조선 그리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국경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정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동북 지역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은 간도 문제가 자국의 동북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간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사실상 동북 지역을 점령하자,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직전 중국과 조선의 「中漢邊界善后章程」의 체결을 주선하게 된다. 이로써 1881년 이래의 중국과 조선의 분쟁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1905년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간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제 간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간도 개입은 친일단체 一進會를 동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간도의 조선인을 보호해 달라는 일진회의 청원을 수용하는 형식을 통하여 간도에 개입했다. 1907년 간도에 '朝鮮統監府間島派出所'를 설치한 일본은 청조와 격렬한 분쟁을 벌였다. 분쟁을 해소하고자 개최된 양국의 협상도 간도의 소속 문제, 조선인 보호와 재판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1908년에 성립된 일본의 카쓰라 내각은 간도 문제를 이른바 '東三省六案'에 포함시켜 중국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즉 러일전쟁 이후 동북 지역의 각종 이권을 보다 많이 획득하고자 했던 일본이 간도의 귀속문제를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1909년 9월 4일 중국과 일본은 '동삼성육안'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중의 한 안건이었던 「圖們江中韓界務條款」도 함께 체결하여 간도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汉唐至宋元时期的闽台交流

廖大珂,『中国边疆史地研究』2002-4

1. 한당 시기의 복건과 대만의 교류

史籍의 기록에 따르면 복건과 대만의 교류는 일찍이 漢代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삼국시기의 孫吳는 黃龍 2년(230) 군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평정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西晉 이래의 사적에는 대륙과 대만의 교류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대륙에 동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隋唐 시기에 이르자 중앙 왕조는 당시 '流求'로 불리던 대만을 평정하여 왕조의 판도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唐 중기 이후 복건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복건과 대만의 교류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중원의 많은 인민이 복건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급증하면서 복건의 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과의 교류도 증가하게 되었고, 중간 지점에 위치한 澎湖의 역할도 동시에 중시되었다.

요컨대 한당 시기의 복건과 대만의 교류는 장기간의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은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복건의 사회, 경제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고, 대만은 이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동양항선과 복건과 대만의 교류

漢代부터 중국의 해양 교통에는 西洋航線과 東洋航線이 있었다. 지금의 廣州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 인도에 이르는 서양항선이 활발한 면모를 보인 반면, 산동반도의 登州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달하는 동양항선은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다. 교류에 불리한 계절풍과 해류도 동양항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낙후된 동양항선의 더딘 발전도 대만과의 교류를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3. 송대의 복건과 대만의 교류

宋代에 이르게 되면 복건은 이미 경제가 가장 발전된 선진 지역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리고 造船과 항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만과의 교류도 증가하게 되어, 北宋 초기에 이미 대만은 복건의 가장 중요한 상품시장이 되었다. 동시에 복건인의 팽호와 대만 이주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건과 대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팽호가 복건의 행정과 사법의 관할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팽호를 교량으로 삼아 교류는 더욱 증진되었고, 동시에 대만 토착민과 대륙의 왕래도 빈번하게 되었다.

4. 원대의 복건과 대만의 교류

元代에 대만을 정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지만, 대규모 군사적 행동으로 실현된 적은 없었다. 복건 연해지역의 인구가 부단히 팽호와 대만으로 이주함에 따라 移民이 원주민보다 많아지게 되어 대만의 주민 구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元朝는 또한 항구적인 해양 방비 기구를 설치하고 세금을 걷기도 하였다. 원래 대만의 사회, 경제는 대륙에 비하여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륙문화의 영향은 대만을 야만 상태에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 兩岸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훗날 淸代에 많은 복건인의 대만 이주를 가능케 한 기초가 되었다.

民族关系史和边疆史地研究的新探索－评李大龙著《唐朝和边疆民族使者往来研究》

周伟洲,『中国边疆史地研究』2002-4

『邊疆史地叢書』의 하나인 李大龍의『唐朝和邊疆民族使者往來研究』가 2001년 9월 흑룡강 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본서는 唐朝와 주변의 변강민족 사이를 왕래했던 '使者(혹은 使臣, 聘使)'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자가 後記에서 밝혔듯이 사자에 대한 연구는 민족관계사, 변강사지 및 민족정책 분야의 연구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자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분야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당조의 강역과 주변민족과의 경계를 확정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고, 이어서 사자의 使命과 성격에 따라 사자를 분류하고, 사자가 당조와 주변민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사자의 선발과 접대에 대한 禮儀 등도 자세히 분석했다. 아울러 부록에 「唐朝朝廷遣使大事年表」와 「邊疆民族政權使者大事年表」를 첨부하여 이해를 도왔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당조의 변강관리와 변강정책 그리고 변강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에 미친 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 요컨대 본서는 사자를 통하여 당조와 변강민족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강민족'의 범주를 정의하며 저자는 '당조의

강역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조 강역 밖의 정권이나 민족도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설정이다. 현재 중국 내의 학계에는 변강 민족 혹은 정권을 확정하는 기준에 관한 관점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재의 중국 판도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상 그 안에 활동했던 민족과 정권을 변강 민족 혹은 정권으로 확정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역사상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강역을 기준으로 삼아 변강 민족과 정권을 확정한다. 나는 후자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할 때 중국의 강역 밖에 존재했던 민족과 정권을 본서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본서가 보여준 唐代의 민족 관계와 변강사지에 대한 새로운 탐색은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하고, 중국 민족 관계사와 당조의 변강사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国民族史学会第九次学术研讨会纪要

灵 均,『中国边疆史地研究』2002-4

중국 民族史學會와 新疆 사회과학원이 합동으로 주최한 중국 민족사학회 제9차 학술대회가 2002년 8월 19일~22일에 烏魯木齊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중국 역대의 邊政이었고 70여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1. 역사상 중국 강역의 형성과 변천

20세기 50년대 白壽彝가 제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를 기준으로 역사상의 국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은 그 후 오랫동안 학계의 지배적 관점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20세기 80년대에 일부 학자들은 그의 관점이 역사상의 '當時'와 현대의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현재의 중국 강역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 학자들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중국 강역의 형성과 변천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제시했다. 馬大正은 역사상의 '중국' 개념을 분석하면서, '중국' 개념의 변화과정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역사발전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孫進己는 중국의 중앙 왕조가 관할한 지역은 모두 중국의 강역이라고 지적하고, 인종이나 문화 혹은 통치자의 민족적 출신에 의거해서 강역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張正明은 대체로 동일한 지리적 환경, 안정적인 주체 민족의 존재, 항구적인 주류 문명, 알타이어 계열 민족과 漢藏語 계열 민족의 융합, 공동 조상에 대한 관념, 正統에 대한 확고한 관념, 內地 왕조의 개명적인 정책 등이 중국의 고대 판도를 형성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 중국 역대 왕조의 변강 경영과 통치정책

邊疆은 지리 개념이자 동시에 역사 개념이다. 현재의 중국 강역과 역사상의 중국 강역 사이에는 繼承性과 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중국 고대의 강역은 안정성과 變動性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蔡志純은 「略論元代屯田与民族遷徙」에서 元代의 통치자들이 군량을 해결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변강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물어 민족융합을 촉진했다고 보았다. 羅賢佑는 「略論明朝的海禁与海防」에서 明朝의 해안 방어 정책은 긍정적이었지만, 주원장 당시부터 실시된 海禁 정책은 중국 해상무역의 발전을 가로막은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方素梅는 「北洋政府民族政策述評」을 통하여 전통적인 측면과 서구에서 새로이 도입된 측면이 혼재하는 北洋政府의 과도기적 성격이 민족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북양정부는 민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李全中의 「孫中山邊疆建設思想」은 孫文의 변강정책이 비록 봉건왕조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군벌정권 등의 원인으로 인해 결국에는 실행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李鴻賓은 「唐朝對河北地區的經營及其變化」에서 唐朝의 하북지역 통치가 전기와 후기에 서로 달랐던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았다. 達力扎布는 「試論清前期對喀爾喀的政策」에서 청조의 喀爾喀 지역에 대한 정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갔으며 결국에는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王冬芳의 「明代東北邊疆政策的特点和對后世的深遠影響」은 명조의 동북지방에 대한 정책은 羈縻, 華夷有別, 漢族正統, 자존망대의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훗날 만주족의 흥기와 조선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苗普生은 「新疆在中國統一多民族國家形成, 發展和鞏固過程中的歷史地位」에서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강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고, 王欣의 「常惠与西域」은 새로 발견된 간독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서한 무제 시기에 蘇武의 副使로 흉노에 갔던 常惠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西漢의 변강 통치정책의 득실을 논했으며, 蓋金偉의 「郭元振〈論去四鎭兵疏〉校注」는 唐代에 토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약했던 곽원진의 奏疏를 분석하여 서역의 4鎭이 唐朝의 변강 통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했다. 田衛疆은 「從"哈密衛"之興亡檢討明朝經略西域的政策」에서 명조의 哈密衛가 결국 쇠퇴해 가는 과정을 분석했으며, 劉正寅의 「和卓問題和清代西北邊政」은 청조가 행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야쿠브 베그의 침입을 물리치고 안팎의 분열세력을 제압해 나간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吐娜는 「伊犁厄魯特營的戍邊」을 통하여 청대에 이리 지방에 있었던 厄魯特營의 공적에 관해 논했으며, 劉文遠은 「張治中主新述論」에서 장치중이 신강에서 펼친 활약은 비록 평가할 만한 것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가 이룩한 평화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連心豪는 「施琅在清初開海設關過程中的作用」에서 청대 초기 대만 수복에 크게 활약했던 시랑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劉玉堂의 「楚人對西南邊疆的經略」은 전성기 때의 楚나라가 지금의 운남과 귀주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그 지역과 내지와의 교류를 촉진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도문명과도 접촉했다고 지적했다. 蔡靖泉은 「楚人的民族政策与楚國的疆域開拓, 文化發展」에서 楚나라의 민족정책은 무력과 按撫를 병행하고 왕도와 패도를 겸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고 지적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 楚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石茂明은 「開邊 · 治邊:漢晋時期民族關系的人類學分析」에서 진한에서 위진에 이르는 시기에 서남지역 개발에 따른 접촉, 충돌, 충돌의 해소 등을 논했다. 盧勛의 「唐王朝与南詔關系述論」은 唐朝와 南詔가 결국에는 무력을 동원하게 된 과정을 검토했으며, 段超는 土司制度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며, 改土歸流를 들어 토사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의 강화된 관리가 소수민족의 문화를 파괴했다고 하는 일부의 관점을 비판했다.

[원문에 단초의 논문 제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伍昆明은 「清季聯豫在西藏實施新政的評价」에서 청말 영국과 러시아의 西藏 침입을 저지한 連豫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며, 盧梅의 「清末及民國時期中央政府對川邊的經營与西康建省」은 청말 西康에 행성을 설치하게 된 과정을 고찰했고, 張澤洪은 「中國近現代史上的西南邊疆－以民族宗教考察爲中心」에서 서남 변강민족의 종교에 대한 근현대의 국내외 논문을 종합하고 평가를 내렸다.

3. 다국적 민족에 관한 문제

董珞의 「跨界民族問題淺議」와 孫泓의 「跨界民族的形成及處理」 모두 여러 국가에 동시에 거주하는 다국 거주 민족(跨界民族)의 형성 원인으로 민족의 遷徙와 국경의 변동을 들었다. 특히 후자는 오늘날의 변동을 근거로 다국 거주 민족의 역사상의 귀속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清代朝鮮使团贸易制度述略－中朝朝贡贸易研究之一

刘 为,『中国边疆史地研究』2002-4

清朝와 조선은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종번관계를 유지했다. 양국 사이에 진행된 조공무역은 이러한 종번관계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조공무역은 양국의 조정 차원에서 엄격한 예법에 따라 행해진 조공과 回賜의 과정 이외에, 또 조선의 사절단에 포함된 관원과 수행 상인들에 의해 행해진 이른바 '八包' 무역이라고 불리는 무역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조에 대한 조선의 朝貢使行은 원래의 규정대로라면 1년에 다섯 차례의 정기적인 사행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冬至使와 皇曆賚咨官 사행 등 두 차례의 사행이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그것은 조선의 동지사가 萬壽, 冬至, 元旦을 경하하는 사절단의 사명을 겸하여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사절단의 규모는 통상 삼백 명이 넘었고, 대량의 공물과 화물을 휴대했었다. 물론 정기적인 사행 이외에 비정기적인 사행도 많이 있었다. 조선의 조정이 사절단에 지급한 여비 즉 八包는 원래 인삼으로 지급되었으나 훗날 청조가 인삼의 매매를 금하자 대신 銀으로 지급되었다. 조선은 일본과의 인삼 무역을 통하여 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족하였고, 때문에 은의 대량 유출을 우려하여 팔포의 액수를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청조는 모범적인 종번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의 사절단의 규모와 휴대 화물 등에 대하여 사실상 규제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사절단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절단의 관원과 수행 상인들은 휴대하고 간 조선의 토산물로 이루어진 다량의 화물을 사행 도중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고,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또한 조공무역의 부산물로 조선의 '北學'과 '厚生'의 사상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천주교 같은 이단사상의 도입 등을 경계한 보수적인 조선 조정은 사절단의 무역활동에 갖가지 제약을 가했고, 18세기 후반 주요 거래 물품이었던 비단을 금지품목으로 정하자 팔포무역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1기 [邊疆史地 2003年 1期]

论中国古代治边思想的特点、演变和影响

方 铁 · 张 维,『中国边疆史地研究』2003-1

秦漢 시기에 형성된 治邊思想은 이후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청대까지 이어졌다. 비록 시대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이 변강 개척에 대하여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특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방 출신인 元朝를 제외하고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서한 무제와 같이 변강을 크게 개척하고 판도를 확대하는 행위는 백성의 동요를 부르고 재정을 고갈시켜 國基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사마천, 杜佑, 사마광 같은 역대 논자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상적인 治邊은 四夷들 가운데 중국을 보전하고 변강을 안정시킬 뿐, 영토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영토 확장을 위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청조의 건륭제의 예에서 보듯이 전통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았다. 한편, '華夷有別'의 관념에 근거하여 변강지구에 대단히 느슨한 기미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여 敎化에 힘쓸 뿐이라는 태도와 경향은 치변사상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이 같은 치변사상은 역대 왕조의 변강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漢唐이 변강 지구의 경제개발을 추구하면서 많은 물자와 인력을 투입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铁岭立卫"与辛禑朝出师攻辽

张 辉,『中国边疆史地研究』2003-1

明朝 초기에 있었던 '鐵嶺立衛'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에는 철령의 위치를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이기백과 국내의 李健才, 董萬倫, 張博泉 등 국내외의 대다수 학자들은 명조가 衛站을 설치한 '철령'이 한국의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후에 부득이하여 압록강 서쪽에 위참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참을 설치한 명조의 목적은 元朝의 雙城總管府 이북의 영토를 회수하는 데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위참이 최종적으로 설치된 곳은 高麗가 아니라 요동 지역이었으며, 철령위의 설치를 반대하는 고려의 표문이 명조에 전달됐을 당시(洪武 21년 4월) 명조는 이미 위참의 설치를 마쳤었다(홍무 21년 3월). 그리고 고려의 표문에 답하는 명 태조의 上諭에는 영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다. 만약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조를 이은 명조가 원조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원조의 東寧府와 탐라총관부 관할 지역도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영토 깊숙이 들어가 위참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상 그리고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위참이 최종적으로 설치된 지역을 두고 볼 때, 명조가 원했던 것은 압록강 하류 지역과 고려의 동북 邊界를 확정하는 것과 圖們江 남북의 여진족을 招撫하는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철령위가

설치된 지역이 '古鐵嶺城'이었다고 보는 일본학자 池內弘의 견해도 논증이 엄밀하지 않은 면이 있다. 비록 명초의 철령위가 여러 곳으로 옮겨 설치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고철령성'에 설치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명조가 고려에 보낸 咨文에서 언급된 철령이 고려의 영내에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조는 자문의 구절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을 감안하여 위참을 설치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철령위 문제로 촉발된 고려의 요동정벌은 고려 태조 이래의 북진정책과 당시 고려 내부의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이 격화된 것이 원인이었고, 철령위 문제는 단지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2기 [邊疆史地 2003年 2期]

高句丽自然宗教信仰对象辨析

李乐营,『中国边疆史地研究』2003-2

인류의 역사에는 다른 사회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조직과 체계를 갖춘 불교나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와 달리 다른 사회조직 속에 내포된 채 전승되어 온 원초적, 자연발생적 종교가 있다. 중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종교가 멀리 三代에 기원하여 清朝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편의상 이런 형태의 종교를 '自然宗教'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중국의 전형적인 자연종교는 中原에서 발흥하여 邊地로 전파되었다. 중국 동북 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이었던 고구려의 자연종교 역시 중원의 자연종교과 관련이 깊다. 고구려의 자연종교는 크게 天神類 숭배(여기에는 日月, 星辰, 上天에 대한 숭배가 포함된다)와 地祇類 숭배(여기에는 社稷, 隧神, 河神에 대한 숭배가 포함된다) 그리고 人祖類 숭배(祖先과 귀신에 대한 숭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외에 巫術에 대한 숭배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자연종교는 비록 나름대로의 특징-특히 '國東大穴'(즉 隧神)에 대한 숭배-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연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정신세계에는 중화문화의 기본적인 성분이 깊이 침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当前高句丽史研究中的几个问题

李德山,『中国边疆史地研究』2003-2

백여 년이 넘는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며, 고구려 연구의 이론과 실천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학계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연계 연구

현재까지의 고구려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시각과 관심을 고구려 자체에만 국한시킨 채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고구려 민족의 토착성, 독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고, 동북 지방의

다른 민족 및 중원 민족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전체 중화민족 문화 가운데 고구려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 민족이 고대 중화민족의 일원인 이상 당연히 중국 고대의 기타 민족과 連繫시켜 비교, 연구되어야 하며, 고구려사 역시 전체 중국역사의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선배 東北史家 張博泉이 지적한 것처럼(「東北古史研究中的几个問題」, 『東北史研究』 제1집, 5쪽) 비교연구는 우리의 시각을 크게 넓혀 줄 역사학의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그 외에 고구려사 연구는 역사학의 계통적 연구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첫째, 고구려 문제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구조적 층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 즉 고구려의 국민 구성을 검토할 때 왕족의 기원과 고구려족의 기원 그리고 기타 민족의 기원을 각각 구분하는 식의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 셋째, 고구려사는 영원히 중국사의 유기적 일부분이라는 점과 고구려의 독자적인 특징을 동시에 감안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문적인 연구

고구려사 연구가 백여 년이 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동북 지방사, 동북 민족사, 동북 문화사 등의 논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뿐 전문적으로 고구려사를 다룬 專著는 많지 않았다. 李殿福 · 孫玉의 『高句麗簡史』(韓國三省出版社, 1990), 劉子敏의 『高句麗歷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 1996), 黃斌 · 劉厚生의 『高句麗史話』(遠方出版社, 1999), 耿鐵華 · 倪軍民의 『高句麗歷史与文化』(吉林文史出版社, 2000), 馬大正 등의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曹德全의 『高句麗史探微』(中華國際出版社, 2001) 등이 종합적 성격의 저서들이고, 고고학 방면에 魏存成의 『高句麗考古』(吉林大學出版社, 1994)와 『高句麗遺迹』(文物出版社, 2002), 耿鐵華 · 尹國有의 『高句麗瓦当研究』(吉林人民出版社, 2001)가 있으며, 碑文 및 문헌 연구 방면에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吉林人民出版社, 1984), 朴眞의 『好太王碑与古代朝日關系研究』(延邊大學出版社, 1993)와 『高句麗好太王碑研究』(延邊大學出版社, 1999), 耿鐵華의 『好太王碑新考』(吉林人民出版社, 1994), 朴燦奎의 『〈三國志 · 高句麗傳〉研究』(吉林人民出版社, 2000) 등이 있다. 그 외에 논저 색인과 논문집, 자료 회편에 속한 것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처럼 전문적인 저서가 겨우 십여 권 있을 뿐이다. 이것은 28 명의 왕과 705년의 역사를 지닌 오랜 고구려의 역사에 비해 수량과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연구 수준을 따라잡고 또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와 수단을 취해야 한다.

고구려사의 특정 영역이나 방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희소하여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高句麗瓦当研究』와 李樂營의 「論高句麗的自然宗教」(東北師范大學 석사학위논문, 2002. 5, 內部版)는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3. 고구려의 귀속문제 확정

고구려의 귀속문제는 현재 학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학술대회에서 항상 검토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어떤 학자는 언제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이론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孫進己, 「当前研究高句麗歸屬的几个問題」, 『東疆學刊』 2001년 제3기), 또 어떤 학자는 현재의 국제법 중의 일부 원칙을 원용하여 십여 세기 이전의 고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선 분명한 것은 고구려 민족과 정권이 중국에 귀속된다고 하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성을 띤 이론적 원칙이란 것은 다소간 회의적인 느낌이 든다. 중국사에는 많은 소수민족 정권이 존재했지만 각각 고유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 중 한 정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원칙을 다른 정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0세기에 南詔大理國의 귀속문제를 다룰 때, 우리나라 학자들은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남조대리국의 귀속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고구려사 연구도 이 경우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의 귀속문제에 열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고구려 귀속문제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國外의 일부 학자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의 관계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는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연구에서 우선되는 자료는 문헌 자료이다. 고고학 자료는 그 다음이다. 어떤 학자의 경우 고구려의 민족 기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고학 자료만 믿을 수 있다면서 문헌 자료를 배척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대 동북 지방의 민족 성분은 대단히 복잡하고, 遷徙와 정벌 그리고 병합이 빈발했기 때문에 출토된 고고학적 문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공유하던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고고학적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 민족 기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일사양용'과 '쌍향계승'

'一史兩用'과 '雙向繼承'은 최근 우리 중국 학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두 관점이다(劉子敏, 「關于高句麗政權及其領域的歷史歸屬問題之我見」,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通化 1999년; 姜孟山, 「高句麗的歸屬問題」, 『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1999년판; 徐德源「關于朝鮮半島早期歷史研究經受誤導的反思」,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상동). 간단히 말해 고구려사는 중국사이면서 동시에 한국사가 될 수 있고, 그 문화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학술계에서는 찬성하는 학자들이 많고 반대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고구려의 영토가 한반도의 북부에 걸쳐 있었기 한국과 북한에서 고구려를 연구하고 그것을 國史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 국가의 많은 인사의 고구려사 연구 혹은 동북 지방 古民族 연구가 학술적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지는 오래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또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시켜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연구'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关于历史疆域归属若干理论问题的研究

焦润明, 『中国边疆史地研究』 2003-2

최근 몇십 년 사이에 한국과 북한의 역사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역사 강역의 귀속이론은 농후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역사연구를 혼란에 빠뜨렸다. 북한의 朴時亨이 1962년 제1기 『역사과학』에 발표한 「爲了渤海史的研究」에서 제기한 관점은 그 후 북한 학계의 기본적 관점이 되었고, 한국의 金得榥, 兪政甲, 梁泰鎭 등도 동북의 역사를 왜곡하는 논저를

발표하고 심지어 동북 지방을 한국의 역사 강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의 귀속이론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원시 선조의 활동범위로 강역의 귀속을 획정하는 이론" 검토

북한의 박시형은 『조선통사』 제1권을 통하여 중국 경내에서 구석기시대 후기문화를 창조한 勝利山人이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조선인의 祖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현재의 한국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朝鮮古類型人'이라 부르면서, 현재의 한국인은 이들의 후예로서 다른 민족과 혼혈되지 않은 단일혈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자 徐楨哲은 고대 한국인의 활동범위를 만주평원은 물론이고 연해주까지 확대하여 설정했고, 趙活은 만주와 간도를 그 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청동기(비파형 단검)와 도기 등 고조선의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은 곧 고조선의 영역이자 세력 범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우선 한반도의 考古文化가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동아시아의 몽골리아 인종이 중국 남부에서 기원하여 북쪽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 자료만으로 민족의 기원과 혈통을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 한국민족이 단일혈통이 아님은 史料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史籍에 등장하는 기자조선, 기원전 2세기 경 피란을 목적으로 많은 燕, 齊, 趙 주민이 한반도로 이주한 사실, 위만조선, 한사군 등의 예를 보면, 한국인이 단일혈통이 아니라 다수의 종족이 융합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학자들은 한국의 단일혈통을 근거로 삼아 고조선 → 부여 → 고구려 → 발해 → 근현대 한국이라는 역사의 계승 관계를 주장하고, 동북 지방을 한국의 역사 강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史實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이론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주 대륙의 인디언이 중국대륙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증명되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의 역사 강역에 미국은 물론 멕시코, 에쿠아도르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이들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물론 인도까지 진출했던 아리아인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아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각국이 선조들의 활동 영역을 근거로 역사 강역 문제를 제기한다면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선사시대에는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국가도 건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강역이라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선사시대 선조들의 활동영역을 후대의 국가 영토에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통치계급을 기준으로 국가귀속을 정하는 이론" 검토

박시형은 「爲了渤海史的研究」에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인이며, 발해의 지배계층이 대부분 고구려 귀족이라는 점을 들어 발해가 한국 역사상의 왕조인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학자 朴榮海가 1986년 제3기 『역사과학』에서 발표한 「渤海是繼承高句麗的國家」라는 논문도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박시형은 『조선전사』 제5권에서 그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켰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우선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발해 건국자 대조영이 말갈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新唐書』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고구려 왕실의 '高'氏와 대조영의 '大'氏가 모두 '高大'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대조영이 고구려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변에 불과하다. 대조영은 각종 사료를 종합해 볼 때 분명 말갈인이었다. 그리고 발해의 통치 집단이 주로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연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방관을 고구려인이 독점했다는 것도 일본의 史籍『類聚國史』권193의 한 대목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일부의 사실을 들어 전체의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한 면이 강하다. 그 외에 그는 말갈인이 스스로 국가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종족적 편견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을 정복하여 건립한 영국의 노르만 왕조의 상층부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건너갔지만, 영국의 역사 강역 귀속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중국의 오래된 민족인 몽고족은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여 통치계급으로서 그 지역을 지배하였지만 그 지역을 중국의 역사 강역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1932년 일본이 건립한 만주국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일본인이었지만 동북 지방을 일본의 강토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이 35년 간 한국을 강점하고 지배했다고 해서 한반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3. "현재 주민의 祖先의 족속을 근거로 역사 강역의 귀속을 결정하는 이론" 검토

북한은 1993년 단군릉 발굴 이래, 그 역사 강역을 더욱 확대시켜 지금의 요하 유역, 송화강 유역, 대흥안령 일대 심지어 북경 부근까지 역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많은 학자들은 현대 한국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계승했고, 그 선조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당연히 한국의 역사 강역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조선전사』의 관점이 이러하고, 한국의 김득황, 윤내현 등의 견해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한국 학술계는 20세기 70년대 중후반기에 '국사회복협의회'를 결성하여 역사교과서의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예맥, 부여, 고구려, 발해를 한국 고대사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 1983년 한국 국회에서는 金永光 등 53명 의원이 서명한「백두산 영유권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987년 이후 김득황, 양태진, 유정갑 등의 논저들이 속속 출판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현재 주민의 祖先의 族屬을 근거로 역사 강역의 귀속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때 성립하기 힘들다. 우선 고구려의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의 대부분은 漢族, 몽고족, 滿族에 유입되었고, 일부만이 한반도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고구려 민족의 조선은 중국 殷商 주민의 조선인 高陽氏의 후예였고, 고구려 문화는 본질상 炎黃 문화의 한 계통이었다. 또한 그들의 이론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원칙이나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흉노는 중국 고대 북방 유목민족으로 훗날 漢族에 융합되었다. 그 흉노의 일부가 유럽으로 진출하여 국가를 건립했고, 그들의 후예도 곳곳에 국가를 건립했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따르면 흉노가 현대 漢族의 조선의 하나이므로, 흉노가 서방에 진출하여 건립한 국가나 현대의 헝가리가 모두 중국의 역사 강역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용납되기 힘들다. 또한 미국의 경우, 원래 그 선대들이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 거주했지만, 현재의 미국이 선대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자신의 역사 강역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요컨대 역사 강역의 귀속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근거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국제법적 원칙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 셋째, 반드시 세계 각국의 역사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3기 [邊疆史地 2003年 3期]

“高句丽 · 渤海问题学术研讨会”纪要

龙 木,『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東北疆域歷史与現狀系列研究工程’ 판공실과 연변대학 中朝韓日文化 比較研究中心이 공동으로 주최한 ‘高句麗 · 渤海問題學術研討會’가 2003년 8월 23～24일 길림성 연길시에서 북경, 흑룡강성, 요령성, 하남성, 길림성에서 온 25명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中越 관계 전문가인 戴可來 교수는 중월관계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여 고구려와 발해 문제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회의의 전반적 상황이다.

고구려 연구에 있어서는 귀속문제가 여전히 토론의 중심이었다. 馬大正은 종번관계와 기미정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고구려 연구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강 이론에 대한 연구를 촉구했다. 또 ‘歸屬’이라는 용어를 ‘定位’로 교체하여 쓰자고 제안했다. 朴燦奎는 천도 이후의 고구려 역사의 귀속문제에 대해 여전히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中’과 ‘外’의 구분에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子敏은 ‘一史兩用’의 관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王綿厚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 건국과 시조 주몽, 역사 강역의 변천 등의 세 문제가 고구려 역사의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했다. 徐德源은 고구려족의 언어를 검토하고 고구려 문화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결론지었다. 李大龍은 현대의 국제법과 강역 이론으로 고구려 귀속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과거 당시의 중국 왕조의 강역의식, 변강민족의 강역의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고구려 뿐 아니라 다른 변강민족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귀속이론의 확립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했다. 厲聲과 李方은 隋唐의 고구려 정벌 원인을 역대 왕조의 고토 회복과 천하질서의 유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朴眞奭은 4～5세기의 동북아 朝貢冊封 체제 연구가 역사상의 동북아 각 민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耿鐵華는 고구려가 句麗로 약칭되는 것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徐日范은 북한 경내의 고구려 고분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발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발해 族屬과 문화 방면에 집중되었다. 朱國忱은 말갈이 발해의 주체 민족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高麗別種’의 함의와 각종 문헌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발해와 고구려가 두 개의 민족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健才는 大氏가 白山靺鞨이라는 관점을 다시 제기했다. 劉子敏은 ‘대조영의 高句麗化’ 관점을 반박했다. 嚴長錄은 발해 문화의 원류는 고구려 문화라고 보았고, 孫弘은 발해 문화의 주체는 唐의 문화였다고 보았다. 鄭永振은 비록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발해 문화는 여전히 발해 문화라고 주장했다. 方學風은 발해 도성과 장안성을 비교 검토했다. 金太順은 발해 평민의 거주 상황을 살펴보았다. 魏國忠은 발해의 언어와 문자를 검토하고, 발해 언어가 다양성과 多元性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문자는 한자를 위주로 했음을 지적했다.

都永浩, 王禹浪,『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최근 중국 동북 지방 민족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 가운데 역사상의 민족관계를 현재의 국가 및 민족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歷史民族決定論'이 동북 지방에 관한 역사학, 민족학 그리고 고고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동북아 관련 학술영역에 이성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민족체의 형성 법칙과 동북아 고민족 관계

民族體은 계급의 형성에 수반되어 형성되며, 대다수의 민족체는 부락연맹이 와해된 바탕 위에 형성된다. 지역성이 혈연성을 대체하는 것은 민족체 형성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 형성된 민족은 일정한 지역과 공동의 언어와 문화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족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민족 성원을 받아들여 혈연성은 점차 약화되고, 민족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성 역시 약화된다. 그리고 다른 민족문화를 흡수하면서 민족 내부의 문화적 차이도 점차 커진다.

민족체 형성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어떤 민족의 인구가 일정 규모에 달하게 되면 그 혈연적 구성도 대단히 복잡하게 된다. 바로 漢民族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른바 '동일한 혈통'이란 것은 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맞닿아 있는 민족들 사이에 혈연과 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 이는 민족학 이론의 기초적 상식이다.

동북아의 주요 민족들 예컨대 숙신 계통의 여진(滿族), 동호 계통의 몽고족, 예맥 계통의 조선족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간의 혈연적 융합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현재 학계에는 고구려족의 귀속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이상의 이론을 응용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정리된다. 고구려가 압록강 이북에 거주하며 활동했을 때에는 중국 古民族의 하나였으나,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조선족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족의 원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런 交叉現象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국가주권이나 민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각국과 중국은 돌궐 민족사를 공유하고 있고, 몽고와 중국은 몽고 민족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

이웃하고 있는 민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민족체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역사상의 고대 민족관계를 현재의 국가 및 민족관계와 관련짓는 것은 미래의 국제관계의 발전이라는 조류와 어울리지 않는다.

2. 역사 강역과 현재 주권강역의 관계

역사상 한 민족이 활동한 구역과 강역은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 현재의 국가주권 강역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이것은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국제사회는 주권국가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강역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백인의 미주와 대양주 정복이 합법화 되었다. 세계 역사상 역사 강역의 변천은 대단히 빈번하고 복잡했으며, 현대의 국가주권 강역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법률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동북아 역사와 고민족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일부는 역사상의 강역과 민족문제를 현재의 국가와 민족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 혹은 학술상 황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얄팍한 '歷史決定論'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는 각국의 학자들은 실사구시의 태도로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고 논쟁을 학술의 범위 내에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

3. 민족의 '無界性'과 문화의 無疆域性

현재의 동북아 민족관계 연구에서 잘못된 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한 민족의 역사를 단 하나의 국가에 귀속시키고, 혹은 문화적 유형을 근거로 어떤 한 정권이나 구역의 역사귀속 문제를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고학적 자료 가운데 발견되는 특징이나 유형을 근거로 귀속문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民族學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체는 서로 다른 정권이나 국가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역사상 중요한 고대 민족인 돌궐족은 현재의 중국 新疆과 중앙아시아의 많은 민족의 공통된 祖先이다. 중국은 돌궐을 고대 민족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국가도 돌궐을 민족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민족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와 같은 민족체의 '無界'性을 감안할 때, 고구려의 귀속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즉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민족이자 동시에 한국 민족체의 來源 중의 하나였으며, 한국 민족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자 중국 고대 민족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민족체의 '무계'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민족문화 역시 국가의 경계선이나 강역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오늘날 민족 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비록 엄격한 의미의 민족문화 체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각 민족문화의 공통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현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漢文化는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등에 전파되고 또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져 마침내 漢字文化圈을 형성하고, 각 지역의 정권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계통의 문화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漢文化와 전혀 다른 계통인 巴蜀 지방의 '三星堆' 문화도 틀림없이 중국사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처럼 민족 구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한 지역의 역사귀속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지역의 귀속은 첫째, 직접적인 행정관할 여부, 둘째,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여부를 근거로 해야 한다. 현실의 주권 강역이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지역의 역사는 곧 그 국가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4.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발전의 법칙과 특징

변강의 역사 문제를 연구하며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발전에 관한 서로 다른 법칙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까닭에 많은 불필요한 학술적 논쟁을 낳았다. 역사상 한 국가의 강역은 확대되기도 축소되기도 한다. 심지어 다수의 정권으로 분열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역사중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元, 明, 淸 세 왕조의 강역은 현재의 중국 강역을 초과했다. 현재의 강역을 초과한 그 지역의 역사는 당연히 중국 역사의 일부일 뿐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국가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현재의 국가주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민족체의 형성과 발전은 국가의 그것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민족체의 연속성이다. 역사상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민족의 主體的 구성원의 특징과 의식은 중단됨 없이 지속된다. 반면에 국가의 통치계층이 다른 민족의 구성원일 경우 그 국가의식은 비교적 큰 변천을 겪게 된다. 둘째, 민족체는 동시에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無界'性의 특징이 있는 반면, 국가는 有界的이며 또 그 경계선이 확대, 축소되기도 한다. 셋째, 민족체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혈연적 다원성을 보일 수 있지만, 민족심리 혹은 민족의식에 있어서는 혈연적 '一致性'을 보인다. 이에 반해 국가는 그 내부에 다수의 민족을 내포할 수 있으며, 그 혈연적인 차이를 인정한다. 민족체와 국가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맞닿아 있는 민족 사이에 역사중첩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지 않은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이웃하고 있는 민족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를 중국 고민족의 하나로 인식함과 동시에 韓民族의 來源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다. 발해의 경우, 발해를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발해가 한반도에 걸쳐 있었던 까닭에 역사중첩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架构中国边疆学的科学实践－评《中国边疆研究论稿》

李治亭,『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흑룡강교육사에서 출판된 馬大正의『中國邊疆研究論稿』(이하『論稿』) 최근 중국 변강학 연구를 대표하는 저작이다.

1. 중국 변강학의 새로운 영역을 열다

지금까지 변강 연구는 구체적 시기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변강 연구의 이론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변강학 설립의 필요성을 의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 변강학'의 학술적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적 원칙을 세운 학자가 바로 馬大正이었다. 1997년 그는 劉逖과 함께 출판한『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 — 一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에서 중국 변강 연구가 이미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학문인 '學際的 학과'(邊緣學科)가 된 과정을 설명했고, 이번의『論稿』에서 더욱 명확하게 '중국 변강학'의 학술적 개념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 점은『論稿』의 일대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변강의 개념을 첫째, 인접 국가와 맞닿는 국경선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연,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걸쳐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변강이 하나의 '역사개념'이며, 역사상의 변강과 현대의 변강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변강학의 연구 대상은 매우 풍부하여 중국 변강의 역사, 정치, 경제, 민족, 사회, 문화 등은 물론이고 변강의 자연환경, 생태환경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자고로 변강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역사문화

와 관련되지 않는 변강학의 분야가 없는데, 이 점은 또한 변강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 짓는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변강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적 지도이념으로 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마땅히 따라야 할 최고의 정치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곧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변강학의 이론체계'이다. 그리고 변강학은 전통적인 역사학, 지리학은 물론이고 고고학, 정치학, 인류학, 민족학, 사회학, 경제학, 종교학, 언어학, 심리학 등의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 성격의 학과이자 학제적 학과이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변강학의 이론적 원칙과 연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변강학의 체계를 세웠고, 이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이 변강의 治亂得失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발전 및 안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변강 지구를 포함한 완전한 통일과 변강 지구의 유효한 관할은 '大一統'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따라서 변강학 연구는 크나큰 현실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변강학의 학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응용가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즉 변강학 연구는 첫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형성과 변천의 법칙을 밝혀내고, 역대의 변강정책의 득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며, 둘째,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의 영토 주권과 국가의 통일을 옹호하고 변강을 안정케 할 뿐 아니라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论稿』의 구체적 연구

『論稿』는 '중국 변강학'의 유래와 학술적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구체적 연구를 진행시켰다. 저자가 연구한 문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과 변강 지구의 발전과정, 多元一體의 중화민족 형성, 역대 왕조의 민족정책과 치변정책 등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다. 저자는『論稿』에서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⑴ 변강 지구는 중국의 有機的 일부이며,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은 변강 지구에 대하여 영토 주권을 향유한다

⑵ 변강 지구는 오랜 변천과정 즉 때로는 확대되고 때로는 축소되는 과정을 거친 끝에 비로소 형성되었다.

⑶ 중국의 변강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발전의 산물이다.

⑷ 민족 문제는 변강학의 '主題' 가운데 하나이고, 변강 연구는 민족문제 연구과 분리될 수 없다.

⑸ 역대의 변강정책은 국가의 근본적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저자는 역대의 치변정책과 그 정책의 來源인 치변사상을 검토하였다. 秦朝 이래의 엄격한 내외 구분, 華夷之別의 강조, 내지와 다른 민족정책 즉 회유와 기미정책 등은 일정한 시기 동안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대일통'적 발전을 방해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한 것이 淸朝의 '中外一視', '天下一統, 滿漢無別'의 혁신적 치변사상과 민족관이었다. 청조는 변강 지구에 현지에 적합한 각종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華夷之辨' 사상을 탈피하였다.

이상에서 논한 문제는 변강학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논하고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의 논의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3. 신강 지구와 중국 변강학

저자의 新疆 문제 연구는『論稿』에서 논의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응용한 개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강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변강 지구 가운데 하나로서, 민족분리 세력 등으로 인해 정세가 대단히 복잡한 전략적 지역이다. 저자는 淸代의 신강 통치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특히 지금까지의 기존연구와 달리 淸朝의 신강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저자는 현지를 답사하고, 청대의 滿文 檔案을 검토하여 청대 察哈爾蒙古의 신강 이주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요건대『論稿』는 사료를 세심히 수집하고, 이론적 탐색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시켰으며, 동시에 현지 답사를 병행한 과학적 연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关于构筑中国边疆学的断想

马大正,『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성립 2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 변강학 구축을 위한 6가지 斷想을 밝혀 학계와 관심 있는 독자들의 가르침을 구한다.

첫째,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진지하게 총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변강학 구축의 중요한 학술적 기초이다. 지금까지 변강학 연구는 모두 세 차례의 고조가 있었다. 19세기 중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 邊疆史地學이 흥기함으로써 최초의 변강학 연구 고조가 있었다. 이후 20세기 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邊政學이 출현하여 변강학 연구를 다시 고조시켰다. 그리고 20세기 80년대에 나타난 세 번째 변강학 연구 고조는 다음과 같은 큰 업적을 이루었다. 우선, 연구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때까지의 기존의 연구가 다만 중국 근대의 邊界 문제만 다룬 반면, 이제는 연구 범위를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邊界沿革史, 중국 변강연구사 등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史地 연구에만 집중하지 않고 변강 역사의 연구를 변강의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많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과 같은 변강학 연구 고조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21세기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탐색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현대 중국의 변강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적 인식은 시급한 변강학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변강은 중국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변강의 안정과 발전은 중국의 안정 및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변강을 하나의 完整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변강의 역사상의 난점과 현실적인 쟁점을 보다 잘 인식하고, 또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다른 학문의 이론이나 연구방법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중국 변강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중국 변강학의 자리매김(定位)과 그 기본적인 기능에 관해서이다. 중국 변강학은 중국 변강의

형성과 발전의 법칙을 연구하는 學際的 학문으로, 변강의 역사발전의 궤적을 추적할 뿐 아니라 변강의 현실과 미래를 탐구하는 중국적 특색의 새로운 학문이다. 그 기능으로는 변강 관련 사실과 문제를 수집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하는 묘사의 기능과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해석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예측의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중의 판단을 돕는 교육의 기능이 있다.

넷째, 중국 변강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종합성이다. 중국 변강학은 변강 지구의 역사, 정치, 경제, 민족, 종교 등 다방면을 다루는 종합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둘째, 현실성이다. 중국 변강학은 변강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는 현실적 성격의 학문이다. 셋째, 실천성이다. 중국 변강학은 연구의 응용성을 중시하고 연구의 결과가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다섯째, 학문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중국 변강학은 중국 변강 이론, 역대 강역, 역대 치변정책, 변강 경제, 변강 인구 등을 다루는 '기초 영역'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중국 변강의 발전과 안정에 관한 전략, 예측 등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다루는 '응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중국 변강학 연구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변강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가 변강을 중시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중국 변강학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여섯 단상 가운데 일부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단지 토론의 단서를 제공하여 변강학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만족할 것이다.

沿着中国边疆史地研究的正确方向不断开拓进取

厉 声,『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하 변강중심)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는 변강사지 연구를 어떻게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변강사지 연구의 자리매김과 연구 내용의 심화

변강중심이 설립된 후 처음에는 변강사지 연구가 국가의 邊界에 관한 연구로 규정되었고, 연구의 내용도 변계의 변천과 변강의 문제가 위주였다. 20세기 80년대 말, 변강중심은 변강사지 연구를 중국 변강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규정하고, 연구의 내용 역시 중국 고대 변강의 형성과 발전, 중국 근대 변계의 연혁, 현대 중국의 변계와 변계 문제, 중국 역대의 변강 治理와 개발, 현대의 변강 치리, 중국 邊疆學 발전사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변강 연구를 다시 자리매김하고 연구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변강 연구는 일종의 '涉外' 연구 즉 세계 각국 특히 주변국가의 인정을 받아내야 하는 연구이다. 각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변강 연구를 세계 각국의 변강 연구와 비교하고 각자의 특징과 서로의 공통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변강사지 연구도 기존의 연구 영역은 물론이고, 중국 변강과 세계 각국의 변강(혹은 변계)의 비교 연구, 주변 국가와 인접해 있는 변강 지구의 발전의 비교 및 상호 관계, 중국

변강 발전에 대한 외국의 인식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를 '世界化'하여 변강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변강사지 연구에 관한 이론의 심화

변강사지 연구에 관련된 이론의 부족이나 그 후진성은 연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였다. 20세기 80년대부터 변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이론적 탐색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90년대부터는 치변사상과 정책, 제도에 관련된 이론 연구가 고조되었다. 그 외에 多元一體의 중화민족과 관련이 깊은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변강사지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이 부족하고 후진적인 것은 첫째, 변강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일부 학자들 사이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론적 지도이념으로 삼을 때 비로소 변강사지 연구에 관한 이론적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둘째, 이론 연구와 역사 연구 사이의 편중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장년 학자들 사이에 두드러지는데, 이는 역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 취약하고, 일부 이론 연구자들은 기본적인 사료를 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론적 분석을 진행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사료의 뒷받침이 없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편중 현상의 하나는 중국의 古今에 대해서는 밝지만, 외국의 변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연구를 심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일부 저술을 읽으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셋째, 변강사지 이론이 아직 계통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별 연구의 결론을 취합하여 법칙성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직 이런 방면의 결과가 부족하다. 넷째, 이론 연구의 主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 연구의 주지를 명확히 할 경우, 이론 연구를 계통화하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강사지 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관점을 견지하고, 둘째, 역사 연구와 이론 연구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셋째, 이론 연구를 계통화함과 동시에, 넷째, 이론 연구의 주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단계에 있어서 연구의 주지는 마땅히 '중국 역사 강역의 법률적 지위'와 '현대 중국 변강의 안정과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강사지 이론 연구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역사상의 변강정권과 중원왕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역사상 중원왕조는 모두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했지만, 사실상 秦漢, 隋唐 그리고 元, 淸 왕조를 제외하고 중심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원왕조의 입장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변강정권과 중원왕조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자가 융합하여 형성한 중국 변강의 역사 발전 법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변강 지구의 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변강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론 연구를 시의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3. 변강사지학의 사회화 강화

사회과학은 현실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변강중심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邊疆史地學의 社會化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강사지학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변강사지학은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변강의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을 심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변강중심은 고도로 민감한 정치적 감각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변강의 안정과 발전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조국의 통일과 영토의 完整, 변강의 안정과 안전, 변강 사회의 발전과 진보 등에 공헌해야 한다.

둘째, 중국 변강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의 사회적 효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의 변강에 대한 지식은 변강의 자연풍광과 민속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변강사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출판된 통속적인 저술들 즉 변강개발 총서, 변강탐험 총서, 변강여행 총서 등은 변강사지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잘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변강에 대한 소개와 선전을 강화하고, 공개적인 강좌 등을 통하여 토론을 유도하고, 대학에 변강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변강사지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변강중심의 체제와 제도의 개선

1983년 변강중심이 설립될 당시 중국 사회과학원은 변강중심을 개방적인 연구중심으로 확정하고, 전국의 변강 관련 연구를 조직하고 조율하도록 했다. 동시에 변강중심을 사회과학원의 연구체제 개혁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삼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연구체제의 제약과 개혁의 미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인식 부족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87년 체제를 개혁한 이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변강중심을 전국적, 개방적 연구중심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이미 4종의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60여 권의 저작을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변강중심이 기획하고 원외의 인원에 의해 완성된 저작만 해도 변강중심이 발간한 출판물의 70%에 해당하는 40여 권에 이른다. 그 중 『邊疆史地叢書』(1999년부터 시작하여 이미 50종을 출판함)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변강중심 설립 이후 설정되었던 50여 항의 연구과제 가운데 30여 항을 이미 완성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항목인 '東北邊疆歷史与現狀系列研究工程'과 '当代新疆治理研究'는 각각 동북 삼성과 신강의 학술계와 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북경, 흑룡강, 길림, 요령 등지에서 온 근 70 명의 학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원은 250여 명에 달한다. 그 외에 중국 사회과학원 歷史所가 1996년 운남대학과 연합하여 건립한 '中國邊疆歷史社會研究云南工作站'과 1999년 동북사범대학과 연합하여 건립한 '中國邊疆歷史社會研究東北工作站' 그리고 신강 사회과학원과 함께 건립한 '中國邊疆歷史社會研究新疆工作站' 등의 工作站 건립을 통하여 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많은 학자들을 우리들의 연구에 동참케 하였다. 둘째, '一人多役'의 원칙을 견지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내부의 조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변강중심은 연구 인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국의 관련 연구를 조직, 조율하게 함으로써 학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조직의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고 학술 지도를 강화했다. 조직을 간소화함으로써 비학술적 요소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각종 회의를 통하여 학술 지도를 강화하였다.

5. 변강사지학 연구의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강중심은 연구의 정보화에 주력했다. 이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148 메가에 달하는 1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었다. 그리고 홈페이지 '中國邊疆在線'을 개통하여 기본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배포와 교류가 가능해졌다. 인터넷망은 특히 '東北邊疆歷史与現狀系列研究工程'에 이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의 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在探索中开拓中国边疆史地研究的新局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20年来科研成就综述

李国强,『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하 변강중심) 성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성과를 총결산해보는 것도 21세기의 변강학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작업일 것이다. 변강중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다.

1. 1983년～1987년. 설립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모두 6명이 참여했으나 기본적인 조건의 미비와 변강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2. 1987년～1994년. 변강중심의 연구 방향이 정해진 시기다. 1987년 변강중심은 기구를 조정한 뒤, 변강사지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국의 변강 관련 연구를 조율하며, 변강학의 번영과 국가의 통일 그리고 변강 지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고 하는 임무를 확정했다. 그리고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되 응용연구로 이를 보충한다는 연구방침도 확정했다. 즉 기초연구는 중국 근대 변계 연구, 중국 고대 강역 연구, 중국 변강 연구사와 같은 세 계열에 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응용연구는 변강 지구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문제 혹은 중점적 문제에 대하여 대책성과 예측성을 갖춘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이로써 변강학 건설을 위한 기초가 갖춰지고 변강학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3. 1994년～2002년. 변강중심의 발전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변강사지'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점연구 분야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변강중심은 '九五' 연구계획을 제정하였다. 또한 연구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단순히 중국 근대의 변계 문제만을 연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변계 연혁사, 중국 변강 연구사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고, 둘째로 중국 변강의 역사 연구와 현재 상황을 결합시킴으로써 변강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중국 변강학의 건립은 변강사지학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九五' 연구계획 속에 변강학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이하에서는 변강중심 20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1. 주제 연구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이래 백여 명의 연구자가 주제 연구를 주도하거나 참가하였고, 연구 주제는 모두 54개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呂一燃 主持,『中國近代邊界沿革史』, 國家"七五"重点項目, 立項時間 1987年, 完成時間 1994年。
2. 呂一燃 主持,『關于南沙群島史地問題的綜合研究』,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1988年, 完成時間 1990年。
3. 馬大正 主持,『清代邊疆政策研究』, 社科基金項目, 立項時間 1988年, 完成時間 1990年。
4. 馬大正 主持,『20世紀的中國邊疆研究』, 社科基金項目, 立項時間 1990年, 完成時間 1994年。
5. 牛平漢 主持,『清代政區沿革圖集』, 社科基金項目, 立項時間 1990年, 完成時間 1994年。
6. 邢玉林 主持,『中國邊疆學概論』, 社科基金項目, 立項時間 1991年, 完成時間 1994年。
7. 馬大正 主持,『中亞五國簡史』,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1993年, 完成時間 1995年。
8. 呂一燃 主持,『帕米爾地區史』,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3年, 完成時間 1995年。
9. 林榮貴 主持,『中國古代疆域史』, 國家"八五"重点項目, 立項時間 1992年, 完成時間 1996年。
10. 馬大正 主持,『中國邊疆研究文獻信息數据庫系統』,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5年, 完成時間 1998年。
11. 馬大正 主持,『高句麗歷史研究』,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1996年, 完成時間 1997年。
12. 馬大正 主持,『当代中國邊疆系列調研』,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1996年, 完成時間 1999年。
13. 劉 爲 主持,『清代中朝使臣往來研究』, 院青年基金項目, 立項時間 1996年, 完成時間 1998年。
14. 李國强 主持,『近百年來南沙群島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6年, 完成時間 1999年。
15. 馬大正 主持,『中國邊疆通史』, 社科基金項目, 立項時間 1998年, 完成時間 2000年。
16. 馬大正 主持,『朝鮮半島局勢走向對東北邊疆的影響』,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17. 厲 聲 主持,『新疆反恐怖斗爭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18. 李國强 主持,『中國邊疆史地研究:1989～1998年』,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1999年。
19. 馬大正 主持,『新疆史鑒』, 交辦項目, 立項時間 1998年, 完成時間 2000年 12月。
20. 馬大正 主持,『新疆穩定与宗教管理工作』, 委托項目, 立項時間 1998年, 完成時間 1999年。
21. 馬大正 主持,『新疆穩定与新疆生産建設兵團布局研究』, 委托項目, 立項時間 1998年, 完成時間 1999年。
22. 馬大正 主持,『云南邊疆地區境外毒情調研』,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6月。
23. 厲 聲 主持,『中國東北歷史与社會研究信息庫』,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12月。
24. 安 京 主持,『〈海彔〉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12月。
25. 馬大正 主持,『当代中國邊疆系列調研(第4期)』,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0年, 完成時間 2001年 6月。
26. 李國强 主持,『論証南海主權的重要民間史料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0年, 完成時間 2001年 8月。
27. 万 燕 主持,『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主頁制作』,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0年, 完成時間 2001年 12月。
28. 厲 聲 主持,『中國歷代邊事与邊政』, 院重大項目, 立項時間 2000年, 計划完成時間 2004年 12月。
29. 馬大正 主持,『当代新疆治理研究』, 院重大A類項目, 立項時間 2001年 9月, 計划完成時間 2004年 12月。

30. 李國强 主持,『云南广西社會穩定問題研究』, 院重大B類項目, 立項時間 2001年 9月, 計划完成時間 2004年 12月。
31. 馬大正 主持,『東北邊疆歷史与現狀研究』, 院重大A類項目, 立項時間 2002年 9月, 計划完成時間 2006年 12月。
32. 李 方 主持,『中國三－九世紀高昌西州政治制度研究』, 院重大B類項目, 立項時間 2002年 9月, 計划完成時間 2004年 12月。
33. 馬大正 主持,『西藏反分裂斗爭研究』,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7月, 完成時間 2002年 12月。
34. 馬大正 主持,『新疆反分裂斗爭研究』, 院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7月, 完成時間 2002年 12月。
35. 房建昌 主持,『近代雅魯藏布江大拐彎及下游史地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0年 12月。
36. 阿拉騰奥其爾 主持,『俄國對新疆的考察史略』,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1999年, 完成時間 2002年 12月。
37. 馬大正 主持,『芬蘭探險家馬達漢日記翻譯与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0年, 完成時間 2001年 12月。
38. 李國强 主持,『中越邊境形勢對广西社會穩定的影響』,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2年 4月。
39. 李大龍 主持,『都護制度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3年 6月。
40. 万 燕 主持,『邊疆研究數据庫的設計与編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2年 6月。
41. 吳楚克 主持,『內蒙古民族區域自治与邊疆治理』,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1年 12月。
42. 劉 爲 主持,『多爾袞的朝鮮政策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2年 6月。
43. 孫宏年 主持,『民國時期治藏的有關問題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1年, 完成時間 2003年 6月。
44. 馬大正 主持,『新疆反分裂斗爭社情調研－和田地區』,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完成時間 2003年 6月。
45. 厲 聲 主持,『中國新疆:歷史与現狀』,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完成時間 2003年 6月。
46. 李國强 主持,『數字邊疆信息化研究和建設(第1期)』,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0月。
47. 許建英 主持,『近代英國与中國新疆』,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2月。
48. 万 燕 主持,『中國邊疆研究信息庫(第3期)』,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0月。
49. 劉 爲 主持,『明代中朝使者往來研究』, 所重点項目, 立項時間 2002年 10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0月。
50. 馬大正 主持,『高句麗歷史續論』, "東北工程"委托項目, 立項時間 2002年 8月, 完成時間 2003年 6月。
51. 厲 聲 主持,『東北三省歷史檔案概覽』, "東北工程"委托項目, 立項時間 2002年 8月, 完成時間 2003年

12月。

52. 李國强 主持,『二戰以后中朝, 中越政治關系發展比較研究』, "東北工程"委托項目, 立項時間 2002年 8月, 計划完成時間 2004年 6月。

53. 李大龍 主持,『漢唐藩屬研究』, "東北工程"委托項目, 立項時間 2002年 8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2月。

54. 劉 爲 主持,『漢文古籍朝鮮史料整理』, "東北工程"委托項目, 立項時間 2002年 8月, 計划完成時間 2003年 12月。

이상의 주제들 가운데 32개(59.3%)는 이미 완성되었고, 20개(37%)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개는 취소되었다. 그 중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주제는 34개이고, 응용연구에 해당하는 주제는 24개이다. 이상의 주제들은 비교적 높은 학술성과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일부 문제들 예를 들어 봉건시기의 번속, 속국, 조공제도 그리고 고대 중국의 주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념의 변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거의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적 학술 연구

1996년~2000년에 실시한 목표관리 책임제는 변강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2002년 '변강사지'가 또다시 '重點學科建設工程'의 하나로 채택됨으로써 변강중심의 연구 활동은 한층 촉진되었다. 1987년~2002년의 개별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87년 :

1 呂一燃,「駁柳條邊"國界"說」(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7年10月 第1輯

2 馬大正,「中國邊疆史地研究的几个問題」(論文),『西北史地』1987年 第3期

3 馬大正,「伏爾加河畔土爾扈特汗國的建立及其与俄國的關系」(論文),『西北史地』1987年 第4期

1988년 :

1 呂一燃 · 馬大正,「中國邊疆史地研究的几个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8年 第1期

2 馬大正,「深化清代邊疆開發研究之管見」(論文),『清史研究通訊』1988年 第3期

3 馬大正,「試論雍正諭土爾扈特汗敕書及出使土爾扈特的滿蒙使團」(論文),『民族研究』1988年 第1期

4 邢玉林,「定邊左副將軍成袞扎布及其立場」(譯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8年 第2輯

5 呂一燃,「關于帕米爾地區的几个名称, 范圍和含義」(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8年5月 第2輯

6 林榮貴,「遼朝的政區双軌制及其對北部邊疆的管轄」(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8年 第2期

7 劉 逖,「中國古代傳統治邊思想初探」(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8年 第3期

1989년 :

1 馬大正 · 蔡家藝,『衛拉特蒙古史入門』(專著), 青海人民出版社, 1989年版

2 呂一燃,「清末民初的禁烟運動与俄國在中國邊境的鴉片貿易」(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3期

3 呂一燃,「清代邊疆名臣明誼傳」(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4期

4 呂一燃,「阿勒坦諾爾烏梁海歷任總管考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6期

5 馬大正,「開展中國邊疆史地研究的几点思考」(論文),『中國史研究動態』1989年 第3期

6 馬大正,「650～820年唐蕃關系述論」(論文),『民族研究』1989年 第6期

7 馬大正,「略論雍正年間清政府兩次派往俄國的使團」(論文),『外交學院學報』1989年 第4期

8 大正,「清朝前期土爾扈特蒙古与祖國的聯系」(論文),『中國古代民族關系史論集』, 福建人民出版社, 1989年版

9 馬大正,「新疆地方志与新疆鄉土志稿」(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6期

10 邢玉林,「擴大邊臣疆吏研究的視角」(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3期

11 林榮貴,「遼朝開發北部邊疆的經濟戰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5期

12 房建昌,「西藏的回族及其清眞寺考略 — 兼論伊斯蘭教在西藏的傳播及其影響」(論文),『西藏研究』(英文版) 1989年 第2期

13 房建昌,「內蒙古多倫縣的歷史沿革·宗教及其外交史料」(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6期

14 邢玉林,「清對喀爾喀蒙古采取的旗盟制統治的過程」(譯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9年 第4輯

15 厲 聲,「中俄伊犁交涉研究概述」(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1期

16 李國强,「中越陸路邊界源流述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1期

17 李國强,「南沙群島的過去和現在」(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89年 第3期

1990년 :

1 馬大正 主編,『中國古代邊疆政策研究』(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版

2 馬汝珩·馬大正 主編,『清代邊疆開發研究』(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版

3 牛平漢 主編,『清代政區沿革綜表』(專著), 中國地圖出版社 1990年版

4 馬大正等 編,『新疆鄉土志稿』(資料集), 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 1990年版

5 馬大正 主編,『清代新疆稀見史料匯輯』(資料集), 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 1990年版

6 馬大正 主編,『朝鮮史料匯輯·壬辰之戰』(資料集), 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 1990年版

7 馬大正,「抓好中國邊疆史地研究的兩个重点」(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90年 第5期

8 呂一燃,「中國歷代王朝對帕米爾地區的管轄」(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90年 6月 第5輯

9 邢玉林,「中國邊疆史地研究的社會功能」(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90年 第3期

10 馬大正,「略論台湾學界對邊疆研究理論与方法的研究」(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90年 第6期

11 林榮貴,「歷代中國政府對南沙群島的管轄」(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1990年 第2期

12 房建昌,「中國与不丹的邊界及不丹在西藏的飛地」(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90年 第5輯

13 房建昌,「西藏甘丹池巴世系」(論文),『中國藏學』1990年 第2期

14 房建昌,「清代西藏護法考」(論文),『思想戰線』 1990年 第4期

15 房建昌,「斯文赫定在西藏的活動」(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 1990年 第3期

16 李國强,「中國海疆的瑰宝」(論文),『百科知識』 1990年 第5期

17 李國强,「略論明代中越邊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0年 第5輯

1991년 :

1 呂一燃 主編,『中國邊疆史地研究論集』(論文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1年版

2 呂一燃 主編,『中國北部邊疆史研究』(論文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1年版

3 馬大正 主編,『清代新疆開發研究』(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4 馬大正等 主編,『清代的邊疆政策』(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5 馬大正,『漂流异域的民族』(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6 呂一燃,「中國邊疆史地研究的回顧与展望」(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1期

7 呂一燃,「駁南沙群島"无主土地"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1年 第3-4合輯

8 呂一燃,「宣統三年中俄齊齊哈爾界務談判會議录」(資料整理),『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1年 第3·4合輯

9 馬大正,「論当前中國邊疆史地研究的几个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1期

10 馬大正,「中國古代邊疆政策和当前邊界問題芻議」(論文),『思想戰線』 1991年 第3期

11 馬大正,「略論清代邊疆政策的研究」(論文),『清史研究』 1991年 第2期

12 馬大正,「西域研究的前瞻」(論文),『西域研究』 1991年 第1期

13 馬大正,「論噶爾丹的政治和軍事活動」(論文),『民族研究』 1991年 第2期

14 林榮貴·李國强,「南沙群島史地問題的綜合研究」(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1期

15 劉 逖,「論漢帝國北部邊疆系統」(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論文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1年版

16 劉 逖,「論〈禹貢〉畿服制 — 中國最古的邊疆學說試探」(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1期

17 國强,「北宋与交趾間兩峒邊界爭端探微」(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論文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1年版

18 范秀傳,「中國邊疆史地古籍題解」(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2期

19 房建昌,「對〈十三世達賴喇嘛年譜〉及〈入藏紀行〉中若干史實之我見」(論文),『西藏研究』 1991年 第3期

20 房建昌,「關于塔波噶擧派的崗波寺〈藏游日記〉考」(論文),『民族研究』 1991年 第6期

21 房建昌,「中尼邊界洛敏湯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1年 第1-2輯

1992년 :

1 馬大正 等,『衛拉特蒙古簡史(上冊)』(專著), 新疆人民出版社 1992年版

2 邢玉林 等,『探險家斯文赫定』(專著), 吉林教育出版社 1992年版

3 呂一燃 主編,『南海諸島:歷史, 地理, 主權』(論文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2年版

4 呂一燃 主編,『馬克思恩格斯論國家領土与邊界』(資料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92年版

5 呂一燃,「清俄合作開發外蒙古金礦初探」(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4期
6 呂一燃,「清政府管理帕米爾地區研究」(論文),『史學月刊』 1992年 第5期
7 馬大正,「論禹貢學會的學術組織工作」(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1期
8 馬大正,「20 世紀新疆考察述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3期
9 馬大正,「論若松寬的清代蒙古歷史与宗教研究」(論文),『西北民族研究』 1992年 第3期
10 林榮貴,「遼代東北地區的經濟開發」(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2期
11 邢玉林,「中國邊疆學及其研究的若干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1期
12 邢玉林,「中瑞西北科學考察團組建述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3期
13 邢玉林,「新疆哈密王統領史」(譯文),『民族譯叢』 1992年 第5期
14 房建昌,「西藏回族与清眞寺研究的若干問題」(論文),『回族研究』 1992年 第2期
15 房建昌,「中尼邊界初探」(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2年 第3 · 4輯
16 房建昌,「中錫邊界研究」(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2年 第1 · 2輯
17 房建昌,「藏北三十九族述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 第1期
18 李國强,「民國政府与南沙群島」(論文),『近代史研究』 1992年 第6期

1993년 :
1 馬大正 · 華 立,『古代中國的北部邊疆』(專著), 內蒙古人民出版社 1993年版
2 馬大正,『邊疆与民族 — 歷史斷面研考』(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1993年版
3 阿拉騰奧其爾 等,『邊疆与國防』(普及讀物),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3年版
4 馬大正 等,「關于海南省海疆管理和南沙海域現狀調查」(研究報告),『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 1993年 第1 · 2輯
5 馬大正,「清末土爾扈特蒙古郡王帕勒塔述論」(論文),『慶祝王鐘翰先生80 壽辰學術論文集』, 遼宁大學出版社 1993年版
6 馬大正,「絲綢之路中國新疆段民族与考古研究的現狀与展望」(論文, 日文),『絲綢之路 — 文明交流的過去, 現在, 未來』, 日本學術出版社 1993年版
7 呂一燃,「關于西域回回炮東傳的研究」(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 第4期
8 林榮貴 等,「唐平薛延陀与加强漠北的管轄」(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 第1期
9 邢玉林,「中瑞西北科學考察團述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 第3期
10 房建昌,「清代西藏礦業史初探」(論文),『中國藏學』 1993年 第3期
11 房建昌,「清代西藏的行政區划与歷史地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 第2期
12 房建昌,「蒙藏生欽活佛考」(論文),『清史研究』 1993年 第3期
13 房建昌,「西藏黃金与鹽業史」(論文),『西藏研究』 1993年 第3期
14 阿拉騰奧其爾,「俄國遠東歷史研究概述」(論文),『世界史研究動態』 1993年 第1期
15 阿拉騰奧其爾,「論十八世紀衛拉特人的大遷徙」(譯文),『西北民族研究』 1993年 第1期

1994년 :

1 馬汝珩 · 馬大正 主編,『清代的邊疆政策』(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年版

2 厲 聲,『新疆對蘇(俄) 貿易史1600～1990』(專著), 新疆人民出版社 1994年版

3 牛平漢 · 吳元丰 等 主編,『清代西遷新疆察哈爾蒙古滿文檔案譯編』(資料集), 全國圖書館文獻縮微夏制中心 1994年版

4 馬大正 主編,『西域考察与研究』(論文集), 新疆人民出版社 1994年版

5 李國强 · 寇俊敏,『海南及南海諸島史地論著資料索引』(工具書),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版

6 馬大正 等,『清代蒙古的歷史与宗教』(譯著), 黑龍江教育出版社 1994年版

7 呂一燃,「俄國强占拉哈蘇蘇与中俄交涉」(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4年 第1期

8 呂一燃,「帕米爾的居民和清政府的管轄」(論文),『清代的邊疆開發』, 西南師范大學出版社 1994年版

9 呂一燃,「日商西澤吉次掠奪東沙群島資源与中日交涉」(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4年 第3期

10 馬大正,「有清一代新疆考察述論」(論文),『西域考察与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994年

11 馬大正,「清代西遷新疆之察哈爾蒙古的史料与歷史」(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4年 第3期

12 邢玉林,「喀爾喀蒙古王公」(譯文),『民族譯叢』1994年 第2期

13 房建昌,「明代西藏行政區划考」(論文),『歷史地理』1994年 第13輯

14 房建昌,「西藏測繪史略」(論文),『西藏研究』1994年 第1期

15 房建昌,「抗日戰爭時期日本特務入藏記」(論文),『抗日戰爭研究』1994年 第1期

16 阿拉騰奧其爾,「國際會審法庭 — 19 世紀下半叶調解俄中關系的新形式」(譯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4年 第2期

17 阿拉騰奧其爾,「斯文赫定的人文遺産」(譯文),『西域考察与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994年版

1995년 :

1 林榮貴,『遼朝經營与開發北疆』(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年版

2 厲 聲,『中俄伊犁交涉』(專著), 新疆人民出版社 1995年版

3 阿拉騰奧其爾,『清代伊犁將軍論稿』(專著), 民族出版社 1995年版

4 邢玉林,「關于中國邊疆的若干問題」(論文),『中國邊疆研究通報』, 新疆人民出版社 1995年版

5 邢玉林,「關東軍在內蒙古的活動及蒙疆政權的形成」(譯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5年 第4期

6 房建昌,「近代俄蘇英美駐新疆領事考」(論文),『新疆大學學報』1995年 第2期

7 房建昌,「〈中國藏族部落〉補考」(論文),『中央民族大學學報』1995年 第2期

8 李國强,「中老邊界歷史形成探微」(論文),『中國邊疆學論集』, 新疆人民出版社 1995年版

9 阿拉騰奧其爾,「清朝首任伊犁將軍明瑞政績述評」(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5年 第3期

10 阿拉騰奧其爾,「布彦泰在新疆」(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5年 第4期

11 劉 爲,「金三角的過去, 現在及未來」(論文),『中國研究』1995年 第2期

1996년 :

1 馬大正 等,『衛拉特蒙古簡史(下冊)』(專著), 新疆人民出版社 1996年版

2 林榮貴 等,『契丹史指南』(專著), 新疆人民出版社 1996年版

3 馬大正,「二十世紀的中國邊疆史地研究」(論文),『歷史研究』1996年 第3期

4 馬大正,「略論当代中國邊疆的穩定与發展」(論文),『中國邊疆研究通報』(第一輯), 新疆人民出版社 1996年

5 房建昌,「東北犹太人」(論文),『黑龍江社會科學』1996年 第4期

6 房建昌,「滿蒙開拓團在內蒙古」(論文),『中國歷史地理論叢』1996年 第3期

7 阿拉騰奧其爾,「阿桂在新疆」(論文),『西域研究』1996年 第2期

1997년 :

1 牛平漢,『明代政區沿革綜表』(專著), 中國地圖出版社 1997年版

2 邢玉林,「少數民族的歷史坐標」(論文),『吉林日報』1997年 4月4 日

3 邢玉林,「乾隆三十年桑齋多爾濟等人對俄走私貿易事件」(譯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2期

4 林榮貴,「北宋王朝的轄區設治与戍防」(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3期

5 厲 聲,「廢止俄商在新疆貿易暫不納稅始末」(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3期

6 房建昌,「近代中印西段邊界史略」(論文),『歷史研究』1997年 第5期

7 房建昌,「民國年間有關中國邊疆的研究机构和刊物」(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2期

8 房建昌,「近代中印邊界史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3期

9 房建昌 等,「滿蒙開拓團在興安」(論文),『歷史地理論叢』1997年 第2期

10 畢奧南,「耽羅隶元考述」(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7年 第1期

11 畢奧南,「哈丹乃顔事件与元麗關系」(論文),『內蒙古社會科學』1997年 第3期

12 烏 蘭,「〈蒙古源流〉的版本流傳及其研究」(論文),『蒙古學信息』1997年 第1·2期

1998년 :

1 馬大正 等,『20 世紀的中國邊疆研究』(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1997年版

2 馬大正,「清代邊疆史研究初議」(論文),『清史研究』1998年 第2期

3 林榮貴,「北宋与遼并立時期的疆域格局」(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8年 第3期

4 厲 聲,「乾隆年間新疆協餉撥解及相關問題」(論文),『清史研究』1998年 第2期

5 馬大正·李國强,「邊疆穩定与禁毒斗爭」(論文),『中國邊疆研究通報』(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998年版

6 安 京,「休屠, 昆侖与〈山海經〉」(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8年 第1期

7 烏 蘭,「〈蒙古源流〉成書的歷史背景及其作者」(論文),『內蒙古大學學報』1998年 第6期

8 烏 蘭,「17 世紀蒙文史書若干地名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1998年 第4期

9 畢奧南,「元仁宗賜書高麗雜考」(論文),『文獻』1998年 第4輯

10 房建昌,「本世紀上半叶日本及台湾總督府在潮汕的活動」(論文),『汕頭大學學報』1998年 第4期

11 房建昌,「日本侵藏秘史」(論文),『西藏研究』 1998年 第1期

12 房建昌,「近代中印中段邊界史初探」(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8年 第1期

13 房建昌,「日本對海南島的侵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8年 第3期

14 阿拉騰奧其爾 等,「清廷冊封瓦里蘇勒坦爲哈薩克汗始末」(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8年 第3期

1999년 :

1 安 京,『中國古代海疆史綱』(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1999年版

2 牛平漢 等,『清代邊疆滿文檔案目录匯編』(資料集), 广西師范大學出版社 1999年版

3 馬大正,「中國邊疆研究回顧与前瞻」(論文),『人民日報』 1999年10月23 日

4 馬大正,「從中國邊疆研究的發展到中國邊疆學的构筑」(論文),『光明日報』 1999年 1月 18日

5 林榮貴,「五代十國的轄區設治与戍防」(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4期

6 厲 聲,「哈薩克民族歷史發展的几个問題」(論文),『西域考察与研究(續)』, 新疆人民出版社 1999年版

7 安 京,「試論先秦國家邊界的形態」(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3期

8 房建昌,「近代外國駐藏机构及其官員的活動」(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3期

9 房建昌,「近代外國駐藏外事机构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2期

2000년:

1 馬大正 等,『中亞五國史綱』(專著), 新疆人民出版社 2000年版

2 馬大正 (主編),『中國邊疆經略史』, 中州古籍出版社 2000年版

3 安 京,『中國古代海疆史話』(專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0年版

4 阿拉騰奧其爾 · 閆 芳,『清代新疆軍府制職官傳略』(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版

5 馬大正,「中國的邊疆与清王朝的邊疆政策」(論文),『明清檔案与歷史研究論文集』, 中國友誼出版社 2000年版

6 馬大正,「中華民族從多元到一体」(論文),『中南民族學院學報』 2000年 第2期

7 馬大正,「中國學者高句麗歷史研究的百年歷程」(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2000年 第1期

8 厲 聲 等,「新疆維吾爾族种族与族源研究述評」(論文),『中華民族文化精神的呼喚 — 海峽兩岸弘揚中華民族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經濟管理出版社 2000年版

9 厲 聲,「創造良好的開發环境 — 西北大開發中的民族社會問題研究」(論文),『西北開發報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年版

10 林榮貴,「北宋与遼的邊疆經略」(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2000年 第3期

11 林榮貴,「中華龍文化 — 傳統文化的認同与多民族國家的統一」(論文),『人民日報』(海外版) 2000年7月3日

12 安 京,「試論中國古代海界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 2000年 第2期

13 李大龍,「使者与邊疆民族管理体制」(論文),『民族研究』 2000年 第1期

14 李大龍,「"用夏變夷"与劉敬的和親政策」(論文),『內蒙古社會科學』 2000年 第2期

15 李國强,「解決南沙爭議几个方案的解析」(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0年 第3期
16 房建昌,「從日文檔案所反映的1927～1945年間朝鮮僑民在北平的狀況」(論文),『北京檔案史料』2000年 第3期
17 畢奥南,「元朝疆域概述」(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0年 第4期
18 劉 爲,「清代中朝使臣往來」(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0年 第3期
19 孫宏年,「清代越南政治避難者問題初探」(論文),『南洋問題研究』2000年 第2期
20 孫宏年,「應山当清前期安南貢道必經之地」(論文),『歷史地理』2000年 第16期

2001년 :
1 馬大正 等,『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年版
2 李大龍,『唐朝与邊疆民族使者往來研究』(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年版
3 李國强,「關于中國海疆史地學術研究的思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2期
4 李 方,「西州諸縣及敦煌縣縣署机构"司"(曹) 探討」(論文),『敦煌文獻論集』, 遼宁人民出版社 2001年版
5 李 方,「唐西州參軍職掌考証」(論文),『民族史研究』第2輯,民族出版社 2001年版
6 李 方,「唐西州政府机构的檢点制度与値班制度」(論文),『敦煌學与中國史研究論集』, 甘肅人民出版社 2001年版
7 安 京,「北部湾与中國近代海界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2期
8 安 京,「蒙古國早期的水軍与水戰」(論文),『內蒙古社會科學』2001年 第1期
9 房建昌,「近代外國駐黑龍江領事机构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3期
10 阿拉騰奥其爾,「新疆史若干問題研究綜述」(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2期
11 劉 爲,「朝鮮赴清朝使團的文化交流活動」(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3期
12 孫宏年,「清代中越陸路邊界桂粤段交涉述論(1644～1885)」(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1年 第2期
13 孫宏年,「國民參政會中的藏族參政議員与國民政府的治藏政策」(論文),『西藏研究』2001年 第4期

2002년 :
1 李 方,『唐西州地方行政体制考論』(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年版
2 安 京,『〈海杲〉校釋』(古籍整理), 商務印書館 2002年版
3 馬大正,「中國古代的邊疆政策与邊疆治理」(論文),『從文明起源到現代化』, 人民出版社 2002年版
4 馬大正,「關于邊疆研究若干問題的思考」(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1期
5 馬大正,「新疆歷史縱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3期
6 厲 聲,「新疆歷史上的短命分裂政權 — "東突厥斯坦伊斯蘭共和國"的覆滅」(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2期
7 房建昌,「英國秘密檔案中記載的民國初年護理西藏辦事長官陸興祺 — 兼論印度華僑在維護中央對西藏的主權中所起的重要作用」(論文),『西北民族學院學報』2002年 第4期
8 房建昌,「日本興亞院蒙疆聯絡部与蒙古善鄰協會西北研究所始末及其對西北少數民族的調查研究」(論

文),『西北民族研究』2002年 第3期

9 李 方,「試論唐西州都督府与西州政府的關系」(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2期

10 李 方,「唐西州軍政官吏的升遷」(論文),『敦煌吐魯番研究』2002年 第6卷

11 畢奧南,「元朝的軍事戍防体系与版圖維系」(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2期

12 安 京,「對〈海彔〉及其作者的新認識」(論文),『海交史研究』2002年 第1期

13 李大龍 等,「唐單于都護府的几个問題」(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2期

14 李大龍,「唐安東都護府的几个問題」(論文),『黑龍江民族叢刊』2002年 第3期

15 許建英,「試析清政府在帕米爾交涉中的對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3期

16 孫宏年,「國民參政會与國民政府的治藏政策」(論文),『中國邊疆史地研究』2002年 第3期

17 孫宏年,「清代中越宗藩關系下的邊界交涉初探」(論文),『面向21 世紀的中國東南亞學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2年版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강중심의 연구원들과 저작들은 각종 학술상을 수상했다. 많은 학술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변강중심의 연구 성적이 뛰어났음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첫째, 기초연구에 있어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변계 연혁사' 그리고 '20세기의 중국 변강 연구'와 같은 주제 연구를 차례로 완성하여 전국의 변강사지 연구에 기초를 닦았다. 둘째, 응용연구에 있어 변강중심의 연구원들은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변강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책성과 예측성을 갖춘 연구 성과를 내놓음으로써 변강사지학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 셋째, 변강 이론과 변강학 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변강의 역사발전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에 관한 법칙성을 탐색했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변강학 이론체계를 세웠다.

3. 주요 학술 활동

변강중심은 설립 이래 단독으로 혹은 다른 기관과 연합하여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변강학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 결과 변강학은 왕성한 활력을 지닌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변강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강학의 장래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변강학의 훌륭한 기초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변강학은 보다 완전한 형태의 학문을 향해 부단히 발전해 갈 것이다. 둘째,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고, 기존에 소홀히 했던 이론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변강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고 변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新疆的地缘政治与国家安全－历史与现状的考察

潘志平,『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인 新疆은 오랫동안 폐쇄된 상태에 있었다. 중원의 왕조에 위협이 될

만한 적대세력이 신강의 서부에 출현한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시도하자 신강의 지정학적 환경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양대 식민세력은 1837~38년의 '赫拉特危机(Helate conflict)' 중에 최초로 충돌했다. 특히 러시아는 1871년 신강의 伊犁를 점령하여 신강을 瓜分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청조가 1881년 이리를 회복함으로써 신강은 중국에 완전히 귀속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90년대에 이르러 영국과 러시아가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의 세력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신강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1911~1949년의 민국시기에 신강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위치에 있었다. 1911년의 외몽고 독립선언과 소련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5개 민족 공화국의 성립은 신강에 대한 큰 위협이었다. 또한 19~20 세기의 전환기에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이른바 '雙泛'(범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주의)의 위협 역시 작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사회주의 대국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신강의 지정학적 환경도 양호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50년대 말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신강은 이른바 '反修前線'이 되어 양국이 대치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형세는 20세기 80년대 중기에 이르러서야 완화되었다. 특히 80년대에 시작된 신강의 민족분리주의자의 활동은 '민족자결'을 고취하는 이 시기의 소련의 선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된 뒤, 이른바 세 '主義'가 신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즉 민족분열주의, 극단적 이슬람원리주의, 국제테러주의가 신강의 지정학적 안정을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9.11 사건 이후, 테러분자를 소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이 협력하는 가운데 미군이 중앙아시아로 진주하고 또 이른바 세 '주의'가 합류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신강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康熙年间穆克登查边定界考辨」

刁书仁, 『中国边疆史地研究』 2003-3

康熙 51년(1712) 穆克登에 의해 행해진 邊界 조사와 定界 활동에 관하여 清末의 吳祿貞 이래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목극등의 변계 조사와 정계 활동이 결코 청 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은 接伴使로 한성우윤 朴權과 함경도 관찰사 李善溥 등을 파견하여 목극등과 함께 변계 조사와 정계 활동을 진행시켰고, 활동에 관련된 사실들은 모두 조선의 조정에 보고되었으며, 사후에 조선 국왕은 청조의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때의 변계 조사와 정계는 양국이 함께 진행했던 활동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당시 목극등이 확정했던 圖們江의 원류는 관련 史實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도문강의 세 상류 가운데 紅丹水가 확실하다. 또한 정계비가 세워진 최초의 위치는 장백산의 동남쪽 45리 쯤에 위치한 白山이 확실하다. 청말 광서연간에 청조와 조선 사이에 국경 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정계비가 장백산에서 발견된 것은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목극등은 자신의 활동을 마무리할 당시 정계비를 세운 뒤, 도문강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에 목책, 石堆, 土堆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고 그 작업을 조선 측에 위임했었는데, 조선 측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위치보다 북쪽에 목책 등을 축조하고

정계비를 장백산의 동남 기슭으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목극등의 변계 조사와 정계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명확히 밝힌다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관련된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기 [邊疆史地 2003年 4期]

「高句丽历史考古研究的新成就－评王绵厚的『高句丽古城研究』」

张碧波, 『中国边疆史地研究』 2003-4

2002년 말 文物出版社에서 출판된 王綿厚의 『高句麗古城研究』(이하 『研究』)는 古城 고고학을 기초로 하고, 역사문헌학, 민족학, 역사지리학, 민족문화사 등을 응용하여 고구려 정권사, 국가발전, 고구려의 역사문화와 중원 및 주변문화와의 관계 등을 다룬 역작이다. 또한 『研究』는 심층적으로 고구려의 귀속문제를 탐구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 『研究』의 특징

『研究』는 고구려사와 중국 동북사 그리고 중국의 역사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 고구려의 古城을 연구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研究』는 고구려의 '先世文化'가 濊貊 계열의 '高夷' 즉 '貊'族을 주체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압록강 서쪽의 요동과 반도의 山地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과 渾江, 太子河와 渾河 유역의 전형적인 지역문화로서, 압록강 양안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의 적석묘, 석붕, 석개묘, 석관묘 그리고 청동 단검 등을 그 고고학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漢 이전의 요동 맥족 문화가 그 문화적 기초라는 것이다. 이 문화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남하하기 이전의 부여의 선세문화인 '西團山文化'와 구별되며, 주로 산동의 古東夷 계통의 '岳石文化'의 영향을 받은 '貊系'의 토착문화였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가 송화강 유역의 '북부여'의 한 지파가 압록강과 혼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漢의 玄菟郡 경내에서 건립한 지방정권이라는 점은 곧 古高夷 즉 예맥 계통의 맥족과 부여족의 남북 문화가 漢文化의 영향하에 문화적 융합 즉 '多源一體'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고구려의 건국 이전의 高夷가 아직 '氏族聚落'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고, 그 취락의 기본 형태는 通化의 萬發撥子와 集安의 長川 등지에서 발견되는 '環山圍壕' 혹은 '石垣聚落'의 형태였을 것이며, 이것이 고구려 산성의 주요한 기원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한다. 나아가 고구려 정권은 바로 이러한 '씨족취락'의 기초 위에 건립된 지방 민족정권이었으며, 그 활동 중심지역은 중국 북방 맥족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문화에 대한 漢文化 및 주변 민족문화의 영향은 『研究』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특히 古城의 건축에 있어 漢과 鮮卑의 영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정권의 구조나 국가의 체제에 있어 고구려의 '五部'制와 '國'과 '野'의 구분은 중원의 商周 이래의 '五方土' 제도나 '鄕遂'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고구려 문화는 기원전 1세기의 맥족 문화의 기초 위에 다른 민족문화가 융합된 '多源一體'의 문화 즉 중국 동북의 漢文化가 주체이고 예맥, 고구려, 부여의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多元文化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현상은 7세기 이후

동북에 잇달아 출현한 민족정권들 즉 발해, 거란, 여진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華文化史의 각도에서 고구려와 동북의 古民族 문화의 발전과정을 탐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研究』의 내용 - 고구려사와 고구려 정권 관련

『研究』는 山城을 핵심으로 하는 고구려의 '城邑' 제도가 고구려의 건축 제도와 사회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성읍제도를 통하여 고구려의 사회구조 나아가 고구려사와 고구려 정권사를 탐구한 것은『研究』의 일대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研究』에 따르면, 고구려의 성읍제도가 서구나 중앙아시아의 그것과도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며, 중국 先秦 시기의 '封邑'제도와도 달랐다. 그 기본 구조는 동이족의 山居文化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성인 중심 城市는 행정관리 기능을 겸하고 있었지만 주로 군사적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이것이 고구려의 산성 건축의 큰 특징이었지만 내부에 시장이나 거주 지역에 대한 안배는 부족했다. 이 점이 중원의 도성이나 州郡의 城市와 다른 점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북방 민족의 특색을 띤 노예제 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구려는 '五部'의 흥기와 '高山曲谷'이라는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褥薩', '處閭 '등과 '諸加' 등의 성읍 관리체계를 운영했고, 성읍제도 안에는 왕족과 部族 이외에 '城民', '谷民', '上戶', '下戶'에 관한 것과 중국의 商周에서 연원한 '國'과 '野'의 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저자는 고구려 정권의 중후기에 산성 위주의 고구려 성읍제도가 중원의 郡縣制로 발전해 나갔다고 지적한다. 즉 城邦奴隸制 국가였던 고구려가 중원의 晉 왕조 시기 이후 州,郡,縣을 위주로 하는 봉건제 국가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는 漢文化의 영향을 한층 더 받게 되었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한문화를 위주로 하는 지방 민족 정권이 되었다는 것이다.

3. 미래 지향적인 연구

저자는『研究』의 제12장 4절「20世紀高句麗古城的考古發現与研究」에서 20세기 고구려 고성 연구를 총정리하며, 특히 80년대 이래의 국내외 연구가 지닌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하나의 古城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지역 혹은 압록강 양안의 고구려 고성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했다는 점과 고구려 고성의 건축적 특징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 했다는 점 등이 다른 시기의 연구와 달랐다는 것이다. 20세기 80년대 이후 고구려의 성읍제도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사 연구의 이론이 진일보했다는 중요한 표지일 수도 있다. 저자는 고성의 유적을 그 문화적 함의와 社會史的 맥락 속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저자는 80년대 이래의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의 고구려학 연구가 거둔 새로운 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研究』를 마무리하고 있다.

「隋末唐初东突厥与中原势力的关系」

李 方,『中国边疆史地研究』2003-4

隋朝 후기, 煬帝의 실정으로 천하가 소란해지자 한때 수조의 附庸에 불과했던 東突厥이 동아시아의 패주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唐朝의 李淵을 포함한 십여 개의 군벌들은 동돌궐의 후원을 얻기 위해 경쟁했었다. 중원 군벌에 대한 동돌궐의 정책은 모두 세 단계를 거쳐 변화했다. 즉 수조가 아직 존재해 있을 때에는 각 군벌을 지원하여 중원의 분열을 조장하는 첫 단계 정책을 폈다. 수조가 멸망한 뒤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조의 후예를 지원하여 괴뢰정권을 세운 다음 중원의 각 군벌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썼다. 그리고 당조가 이미 중원의 군벌세력을 평정한 뒤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조와 정면 대결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 과정에서 동돌궐은 각 군벌에 대한 책봉, 군사지원, 인질 수용 등을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삼아 가장 중요시했던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익의 다소에 따라 군벌 가운데 지지의 대상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원 군벌을 분열시키고 조종하여 패주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동돌궐의 정책은 중원의 분열을 지향하던 고유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자신들을 동서로 분열시켰던 수조의 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결과이기도 했다.

「边疆的概念与边疆的法律」

杜文忠,『中国边疆史地研究』2003-4

사람들은 흔히 변강을 단순히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역사상의 변강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었다. 예로부터 변강을 국토의 변두리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즉 국토의 변두리에 있지 않은 寧夏 회족 자치구, 청해, 귀주 등을 변강으로 간주하면서도, 국토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복건과 광동은 변강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 고대에 있어 변강은 대단히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였으며, 개념의 변화폭이 대단히 큰 '강역', '중국', '민족' 등의 개념과 관련이 깊었다. 특히 고대 중국의 '강역' 개념에는 강한 문화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변강은 문화의 중심지 주변에 존재하는 '未化之地'로 인식되었다. 중앙왕조의 변강에 대한 태도와 정책도 또한 이러한 변강 개념과 관련이 깊었다. 즉 변강의 개발이 곧 문화의 확장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강의 개념은 고대의 법률에도 반영되어『唐律疏義』,『大明律』,『大清律例』등의 化外人에 대한 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요컨대 '化'와 '未化'가 곧 '변강'과 '腹地'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으며, 변강에 대한 법률 역시 이런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肃慎族系长白山观念透析」

郝庆云,『长白山文化研究专稿』

肅愼, 挹婁, 勿吉, 靺鞨, 女眞, 滿族 등을 포함하는 숙신계 민족의 長白山에 대한 경외와 숭배는 유서 깊은 것이며, 끝내는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다. 장백산 지구가 숙신계 민족의 거주지였음은 문헌은

물론이고 이른바 '烏里爾文化'로 불리는 고고학적 발견으로 입증된다. 장백산에 대한 숙신계 민족의 숭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어 勿吉은 심지어 山上의 동물조차 사냥하지 않을 정도였다. 12세기 초 金朝를 세운 여진은 자신들의 업적이 모두 장백산의 보우에 힘입은 것이라 여겨 1172년 장백산을 '興國靈應王'으로 봉하고 장백산에 廟宇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후 1193년에는 장백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 '開天弘 聖帝'로 봉했다. 여진이 장백산에 제사를 지낸 흔적은 천지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淸朝에 이르자 강희제는 泰山의 龍脈이 장백산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장백산에 巡幸하여 제례를 행했다. 이러한 장백산에 대한 숭배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숙신계 민족의 장백산 숭배는 동북 지방의 고대 민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关于中国朝鲜族的含义」

金元石,『中国边疆史地研究』2003-4

학계와 사회에 중국의 朝鮮族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 있는데 이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국 조선족이 '古朝鮮'의 직접적인 후예라든가 혹은 중국의 토착민족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형성된 뒤 중국으로 이주한 '외래민족'이다. 비록 '외래민족'이긴 해도 중국의 역사 무대에서 장기간의 풍파를 거치며 형성된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다. 현재 중국에는 이주한 지 오래된 소수의 조선족 후예들이 있지만 그들은 현재의 조선족의 주류가 아니다. 현재의 조선족은 1850년 전후부터 1945년 항일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약 100년의 기간 사이에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이 그 주류이다. 따라서 조선족은 고대 민족이 아니라 근현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은 고유의 언어, 문자, 풍속, 문화의식을 유지한 채 한국과 밀접한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시에 중화민족의 민족적 요소와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양면적인 특징을 지닌 민족이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은 세계 한민족의 일부일 뿐 아니라 중화민족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거주하는 다국 거주 민족(跨界民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은 중국 동북의 변강을 개척하고 중국의 혁명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민족으로, 현재 자치권을 향유하며 각종 민족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각 민족과 분리될 수 없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중국 국적의 합법적 공민으로 인정되는 중국인이다. 과거 청조 정부, 군벌 당국, 만주국 정부는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가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조선족은 합법적인 공민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인' 혹은 '중국에 생활하는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高句丽史研究的又一部力作－《中国高句丽史》评介」

李大龙,『中国边疆史地研究』2003-4

2002년 12월에 길림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耿鐵華 교수의『中國高句麗史』는 李殿福 · 孫玉良의

『高句麗簡史』, 劉子敏의 『高句麗歷史硏究』, 馬大正 등의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의 뒤를 잇는 고구려 관련 중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好太王碑新考』를 저술하고 『高句麗史籍匯要』, 『高句麗歸屬問題硏究』 등을 편집했었다. 『中國高句麗史』는 먼저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저자는 고구려 민족, 그 정권의 형성과 발전 및 멸망의 과정 등을 상세히 서술했을 뿐 아니라, 문헌학과 고고학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고구려의 경제, 도성과 산성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상업과 육로, 수로 등의 교통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구려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저자는 고구려 관련 사료의 부족과 기록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하여 빚어진 연구자들의 시각 차이를 자세히 소개한 뒤, 자신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고구려사 연구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구려 유적 발굴 작업에 종사해온 저자는 고구려의 고고학적 자료에 대해서도 대단히 밝은데, 저자의 이 같은 장점은 그의 『好太王碑新考』와 『高句麗瓦当硏究』를 봐도 잘 알 수 있지만, 『中國高句麗史』에서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은 학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中國高句麗史』가 중국의 고구려 연구 열기를 다시 한 번 고조시킬 것으로 믿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기 [邊疆史地 2004年 1期]

「传统夷夏观与中国疆域的形成 – 中国疆域形成理论探讨之 – 」

李大龙,『中国边疆史地研究』2004-1

중국 변강사는 중국 변강학 연구의 주요한 한 부분이고, 그 연구 대상은 중국 강역의 형성 그리고 그 발전과 변화의 구체적 과정 및 법칙성이다. 중국 강역을 형성케 했던 원인에 대한 검토는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중국 강역의 형성 문제에 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자들의 관심은 중국 강역이 형성되어간 구체적 과정을 밝히는 데 있었고, 중국 강역을 형성케 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중국 강역의 형성 문제는 당연히 다음의 두 분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중국 강역 형성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서술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강역 형성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적 연구, 즉 강역을 형성케 한 원인과 그 법칙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처럼 두 분야를 동시에 포괄해야만 비로소 중국 강역 형성 문제에 관한 연구가 완정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중국 고대 夷夏觀의 변화를 단서로 삼아 강역 형성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중국은 자고로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말은 중국 역사나 중국 강역 형성사를 저술할 때 늘 쓰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민족'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국의 56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과거에는 '다민족'을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형 즉 夏와 夷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夏는 중원지역에서 형성된 華夏族 및 거기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漢族을 가리키고, 夷는 흉노, 돌궐 등 화하족과 한족 이외의 무수한 민족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양대 민족 집단은 중국 강역의 형성에 모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강역의 형성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

夷와 夏가 중국의 강역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경우, 중국의 긴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즉 夏가 강역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遠古~唐 시기와 夷가 강역 형성을 주도했던 五代~清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夷는 중화민족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몽고족의 元朝와 滿族의 清朝에 의한 중국통일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중국 강역은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 강역의 최후의 두 차례 통일이 모두 주체 민족이 아닌 夷에 의해 실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역대 왕조들의 변강 통치체제와 변강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 관념상의 요소, 그 중에서도 전통적 夷夏觀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2.

先秦 시기 이미 존재했던 이하관은 '天下' 관념의 중요한 일부분일 뿐 아니라, 夏商周 시대에 민족

문제와 그 통치체제의 구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하관은 화하족에 의해 탄생되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文化와 거주 지역을 근거로 민족을 구분했다. 둘째로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天下觀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셋째로 諸夏와 外夷를 엄격히 구분하는 '華夷之辨'과 화하족의 禮儀制度로 夷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用夏變夷' 등의 관념을 특색으로 한다. 이 같은 이하관은 중국 강역의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한족을 주체로 하여 건립된 중원지역의 왕조들은 선진 시기 이래의 이하관을 계승했다. 秦漢은 물론이고 변강민족이 대거 중원에 이주했던 위진 남북조 시기에도 外夷에 대한 편견과 경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아낀다고 말했던 당 태종이 살았던 隋唐 시기에도 계승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역대 왕조들의 변강정책에 영향을 끼쳐 변강을 방기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경영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서한 무제와 당 태종 같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변강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이나 개척을 포기하고, 오직 '德化'에 의한 '安邊'을 통하여 '固本'한다는 즉 변강민족을 통제하여 중원지역을 안전하게 보전한다는 방침을 택했다. 이른바 기미정책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華夷之辨'의 관념과 태도는 변강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예컨대 변강에 개척된 둔전도 변강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강에 주둔하는 군대에 양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어서 변강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4.

변강민족이 건립한 왕조들은 先秦 이래의 이하관을 계승하긴 했지만,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華夷之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중국의 강역을 완성하고 중화민족의 형성에 기초를 놓았다. 이들 왕조는 한족 왕조만을 '華夏正統'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며 元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정통으로 자임했으며, 전통적 이하관에 보이는 '貴中華, 賤夷狄'의 관념을 타파하고 元朝의 예처럼 이적을 우대했다. 이처럼 이들 변강민족의 왕조들에 의해 전통적 이하관이 부정되거나 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선진 시기 이래의 이하관에 대한 변강민족 왕조의 부정은 민족관계 문제의 처리는 물론, 변강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변강민족이 세운 왕조도 중원에 진입하여 '華夏正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兩晉 시기 중원에 진출했던 변강민족 왕조는 先秦 이래의 이하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못했지만, 遼金 이후 전통적 이하관은 점차 타파되기 시작하여 夷狄 정권도 정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둘째로 전통적 이하관에 의해 엄격히 중국과 구분되던 변강지역 특히 북부 초원지구가 중국 강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변강민족의 왕조가 '중국'으로, '華夏正統'으로 자임하면서부터 중원지역과 초원지역이라는 인위적 경계가 사라지고, 초원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즉 그들 왕조가 '중국'이 됨으로써 그들 왕조의 판도 역시 중국의 강역이 되었다는 의미 – 역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변강 지역의 內地化를 위한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강역과 중화민족의 최종적 형성을 촉진하였다.

요컨대, 선진 시기의 이하관은 중국 강역의 핵심지역인 중원의 통일을 촉진하긴 했지만, 중국 변강의 형성에는 장애로 작용하여 한족 왕조로 하여금 '夷夏'의 경계를 돌파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애의 제거는 북쪽 변강민족의 왕조에 의해 완수되었고, 그에 동반하여 중국의 변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新罗对唐纳质宿卫述论」

姜清波,『中国边疆史地研究』2004-1

속국과 종주국 사이의 오랜 외교수단이었던 納質宿衛는 신라와 唐朝 사이에서도 주요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원래 신라가 質子를 보내 숙위케 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정세를 역전시키고자 해서였고, 당조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조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한 다음에도 여전히 납질숙위를 중지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 목적과 성격도 변했다. 즉 당조의 선진문화를 배워 낙후된 신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양국의 충돌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納質宿衛는 唐末까지 계속되었고, 그때에 이르러서는 숙위가 신라 유학생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다. 숙위 유학생들은 신라와 당조 사이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양국의 정치, 문화 교류에 큰 공헌을 했다.

2기 [邊疆史地 2004年 2期]

「渤海国初建之际国号考」

纪胜利, 郝庆云,『中国边疆史地研究』2004-2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습관적으로 발해의 최초 명칭을 '震國' 혹은 '振國'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조영이 건국한 국가의 최초 명칭은 '靺鞨' 혹은 '靺鞨國'이었으며, 이는『新唐書 · 渤海傳』,『新五代史 · 渤海傳』,『玉海 · 朝貢 · 外夷來朝』와 같은 중국 문헌과『三國遺事』와『續日本紀』등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헌에 보이는 관련 기사 그리고『鴻臚井欄石刻』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볼 때 명확하다. 金毓黻을 위시한 여러 선학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해를 형성한 주체 민족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대조영이 건국한 국가의 최초 명칭이 '말갈국' 이라고 한다면, 발해 건국의 주체 민족이 누구인지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略论古代中国和越南之间的宗藩关系」

戴可来,『中国边疆史地研究』2004-2)

이천여 년의 월남 역사는 중국의 郡縣에 속해 있었던 천여 년의 '北屬時代' 혹은 '郡縣時代'를 거쳐, 968년 丁部領이 大瞿越國을 건국하면서 자주적 왕조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월남은 자주적 왕조 시대에도 여전히 중국과 宗藩關係를 유지했고, 도중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中越의 종번관계는 1885년

월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宋代에 확립된 이러한 종번관계는 첫째, 월남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과 둘째, 월남의 자발적 조공에 따른 책봉이 있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이후의 중월관계가 지닌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했다. 같은 형식의 종번관계가 주변의 占城(참파), 眞腊(柬埔寨,감보디아), 哀牢(老撾)와도 수립, 유지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亞宗藩關係'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长白府设置的背景及意义」

李乐营, 王景泽,『中国边疆史地研究』2004-2

청조 건륭제 초기 이래 동북지방에 실시되었던 封禁政策은 19세기 중엽 이후 제정 러시아의 침략과 중원 빈민의 이주로 점차 실효를 잃어갔다. 특히 '東邊外'로 불리던 압록강 유역과 장백산 內地는 同治 초기에 있었던 산동지방의 捻軍 반란 이후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고, 조선의 饑民 역시 동치 연간 대규모로 이주함에 따라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이에 청조는 광서 초기에 東邊道와 通化縣 등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할을 강화했다. 그러나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제정 러시아의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이 시작되고, 1904년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청조는 1908년 長白府를 설치하여 외세 침략과 韓人 이주민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후 청조는 이 지역에 대한 장악과 통치를 강화하고, 한인 이주민 관리를 엄격히 함과 동시에 중국 이주민을 초치하여 변방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 장백부의 설치는 청조 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였지만 국가주권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中华疆域观念与历代边疆政策－以东北疆域为例」

张碧波,『中国边疆史地研究』2004-2

중화 강역개념에 있어 完整性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거듭된 분열과 통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민족심리, 중화 감정, 공동 이익 그리고 동질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결집력은 중화지역의 완정성을 보장해왔다. 중원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夏商 시대의 服事制, 이를 계승한 전국시대 이래의 郡縣制와 隋唐 시대의 羈縻制 역시 多元一體의 강역관념이 반영된 제도였다. 고대 동북지방에 적용되었던 변강 정책과 제도는 모두 이상의 정책과 제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3기 [邊疆史地 2004年 3期]

「中国疆域的形成与发展」

马大正,『中国边疆史地研究』2004-3

1. 중국 인민이 계승한 양대 역사 유산

광대한 영토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와 많은 인구를 가진 多元一體의 중화민족은 중국 인민이 물려받은

양대 역사 유산이다. 중화민족은 역사상 소멸된 소수민족까지 포함하여 모든 구성 민족들이 중국 본토에서 生長했다고 하는 本土性과 근대 중국이 瓜分될 위기에 잘 나타났던 강한 응집력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중국 강역의 발전단계

중국 강역의 형성은 형성, 발전, 확정, 변천의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즉 秦漢 시기의 형성단계, 隋唐~元 시기의 발전단계, 淸代의 확정단계 그리고 淸 중기~민국 시기의 변천단계를 거쳐 중국의 강역은 형성되었다. 중국 강역 중 광대한 변강은 긴 역사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중국의 일부로 변해왔다.

3. 특수한 國情의 산물 : 변강정책

⑴ 변강정책의 주된 내용

① 羈縻와 회유 : 기미는 連繫와 견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대 왕조는 변강의 소수민족이 사회제도, 종교, 풍속, 문화 등을 보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연계를 강화했고, 변강의 정치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변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지와의 일체화를 촉진했다. 또한 변강의 君長을 우대한 唐朝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유정책은 기미정책과 동시에 병행되었다.

② 행정적 관리와 군사적 대응 : 역대 왕조는 변강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를 두었다. 본래 변강정책은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실시한다(恩威幷施)'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 외에 군사적 대응을 통하여 변강을 관리하기도 했다.

③ 和親과 聯婚 : 역대 왕조는 변강 소수민족과의 연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친과 연혼을 방법을 채택했고, 漢, 唐, 淸 세 왕조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④ 경제개발 : 역대 왕조가 채택한 변강 개발 정책은 주된 내용은 둔전과 내지와의 교류이다. 진시황 이래 청대에 이르기까지 둔전 정책은 계속되었다.

⑵ 변강정책의 특징

중국 고대의 변강정책은 진한 시기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뒤 이후 역대 왕조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청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따라서 청대의 변강정책은 역대 왕조의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역사적 계승성, 지역의 광대함, 내용의 다양함, 심원한 영향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⑶ 중시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중국 고대의 '大一統' 사상은 중국 인민의 사상과 감정에 깊이 침윤되어 거대한 구심력을 발휘했고, 중국 고대 변강정책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국가의 분열을 기피하고 통일을 지향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시해야 할 문제는 청대의 변강 통치정책이 변강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변강 외부의 문제 즉 外患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변강정책 전체의 파탄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⑷ 역사의 교훈

첫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변강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일부이다. 변강을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자는 생각과 정책은 역사의 견책을 피할 수 없다. 청대 신강 지방을 수복했던 左宗棠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의미가 있다.

둘째, 변강 통치는 관리와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역대 왕조는 통치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변강을 낙후된 지역으로 남겨 놓았었다.

셋째,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위가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넷째, 역대 왕조가 중앙집권적이기 했어도 소수민족의 풍속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일은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邊吏의 소질과 능력이 변강정책의 성패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4. 중국 강역 역사상의 난점과 관심 문제(热点)

⑴ 문제 발생의 원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역사상의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史籍들의 기록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유구한 역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⑵ 개별적 사례

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논쟁 – 중국과 북한(한국)의 인식 차이

북한과 한국의 역사학계 주류적 관점은 한국 역사를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시대 → 고조선(新金屬時期, 위만조선, 한사군) → 諸연맹왕국(고구려, 진국, 삼한) → 삼국시기 → 남북국시기 → 고려 → 조선 → 한국의 체계로 이해하고, 또 비학술적 색채가 농후한 '단군조선'을 청동시대와 고조선시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대한 중국학자의 관점은 그들과 사뭇 다르다.

우선,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중원보다 약 2,000년 늦고, 기원전 11세기 箕子가 건국한 기자조선은 이후의 위만조선, 한사군과는 분명한 역사적 계승 관계가 있다. 만약 이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을 '고조선'시기로 파악한다면, 이 '고조선'시기는 한국의 고대 민족국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 이는 북한과 한국의 일부 인사가 기자조선을 극력 부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의 범위가 한반도의 일부에 걸쳐있긴 했지만, 이들 국가는 한사군을 계승한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정권이었다. 20세기 80년대부터 북한과 한국의 역사학계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적 지위와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군조선과 통일신라 사이의 역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귀속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 차이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라는 명칭에 관해서이다. 북한 역사학계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단군조선'을 강조하지만, 기원전 11세기 기자가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건립한 국가는 중국 고대의 통일왕조 아래의 일개 侯國으로, 훗날 '조선'이라는 명칭의 이씨조선과는 명칭만 동일할 뿐 아무런 역사계승 관계가 없다.

둘째, 6세기 말까지 한반도에는 진정한 의미의 고대 한민족 민족국가가 등장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통제하에 있었고, 남부에는 '고대 한국 인민'의 聯邦城國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한반도에 출현한 최초의 한민족 민족국가는 7세기 중엽의 통일신라였다.

셋째, 한반도의 원시인류는 대륙에서 기원하여, 장기간의 遷移와 융합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남부에 정착하고 '삼한' 원시부족을 형성하였다. 이것이 한민족의 원류이다. 7세기 신라의 한반도 통일로 진정한 고대 한민족이 형성되었다.

넷째, 역사상의 한중관계는 대단히 강고하고 전형적인 宗藩關係였으며, 양국의 관계는 和好가 주류를 이루었다. 근대에 청조의 군대가 조선에 출병한 것도 종번관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침략이 아니라 원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을 거쳐 한사군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국의 중앙정부는 한반도의 북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으며, 고구려와 발해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통치는 계속되었다.

여섯째, 역사상 이민족의 압박하에 모두 3차례 한민족의 민족주의 정서가 폭발한 적이 있었다. 11세기 遼金 시기에 고려에서는 '三國'說이 출현하여 고구려를 한민족의 역사에 포함시켰고, 13세기 元代에 '단군조선'설이 등장했으며, 18세기 淸代에 조선에서 '남북국'설이 등장하여 발해를 한민족의 역사에 편입시켰다. 근래의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다른 민족을 폄하하는 방식을 통하여 민족정서를 선동하고 심지어 영토적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② 국가와 국가 사이의 논쟁－중국과 월남의 종번관계

[이 부분은 2004년 2기의 戴可來의 논문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생략함－역자]

③ 분열세력과의 논쟁

현재 '臺獨', '疆獨', '藏獨'을 주장하는 분열세력이 중국의 분열을 위하여 왜곡된 이론을 날조하고 있고, 역사 영역은 그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이라는 사실과 다원일체의 중화민족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東突民族' 至上論을 펼치며 新疆의 독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漢族을 배제하려 했었던 지난 세기 30～40년대의 '東突厥斯坦獨立' 사상은 좋은 예다.

⑶ 대응책과 건의

이상과 같은 변강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먼저 실사구시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문제를 학술의 영역에 국한시키고, 역사 문제를 정치화, 현실화하는 경향을 반대함과 동시에 학계에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문제의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변강 문제를 담당하는 측은 연구자들의 관점을 학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지 그들의 학술적 견해를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견해로 이해하여 비난할 필요가 없다.

4기 [邊疆史地 2004年 4期]

「两汉时期高句丽的封国地位」

李淑英, 耿铁华,『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서한 元帝 建昭 2년(전 37) 건국된 고구려는 당시 소속되어 있던 漢의 縣名을 국호로 삼았다. 이는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변강의 현에 존재했던 지방정권 즉 漢朝의 허락 하에 건립된 封國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는 건국 이전 벌써 70년 간 서한의 編戶齊民이었다.『漢書』,『後漢書』그리고『三國志』등의 관련 자료는 고구려왕이 봉국의 왕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후 후한시대에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 현도, 낙랑 등지를 침략했지만 그것은 邊郡 지방의 충돌이었을 뿐, 고구려의 봉국 지위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高句丽人口问题研究」

秦升阳,『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고구려의 인구는 초창기에 그다지 많지 않았다. 명확한 사료가 없지만 관련 기사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서한 元封 4년(107) 당시 현도군에 소속된 현의 평균 戶數가 15,002호, 인구수가 73,948 명이었는데 아마 건국 당시는 이보다 약간 많았을 것이다. 이후 각종 史籍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삼국의 曹魏 시기에 3만 호에 15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남북조 시기에는 9만 호에 45만의 인구가 있었으며, 盛唐 시기에 69.7만 호의 348.5만 명이 있었다. 인구가 이처럼 증가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그 민족구성이 단일하지 않았다. 즉 주변의 漢, 부여, 옥저, 예맥, 백제, 말갈 등의 많은 인구를 포섭, 융합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인구는 중원과 발해 그리고 돌궐, 신라 등지로 분산, 유입됨으로써 역사에서 소멸되었다. 특히 고구려는 훗날 한반도에서 흥기한 王建의 고려와는 필연적인 계승관계가 없었다.

「"东北工程"与中国东北史的研究」

李国强,『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 본문은 2004년 10월 6~11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있었던, 아시아와 서구의 민족주의와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동북공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히 싣는다.

동북 변강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朔方備乘』이 출판된 이래 이미 15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9년 이후, 특히 최근 20년 동안 東北邊疆史는 큰 발전을 보였다. 1999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동북사범대학은 함께 '中國邊疆歷史与社會研究東北科研工作站'을 건립하고 동북변강사의 발전과 학과 건립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20년 간 동북변강사의 연구는 주로 두 방면에 집중되었는데,

첫째가 東北區域史地 연구이고 둘째로는 동북아 국제관계사 연구인데, 특히 최근 들어 한중(中朝)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20세기 80년대 이래 200 여종의 專著와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기본적인 역사과정의 서술에 머물러 있고 이론적인 측면에 관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 둘째, 연구 역량이 분산되어 있어 연구 주제가 자의적이고 중복될 뿐 아니라 출판의 어려움과 연구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점, 셋째, 풍부한 고고학적 성과와 남아있는 檔案 같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의 최신 연구도 참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개혁개방 이후의 개방적 학술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1970년 이전의 특수한 학술적 분위기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가 있다는 점 등이다.

20세기 80년대 이래, 동북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는 등 동북 지방의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사회과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東北邊疆歷史与現狀系列研究工程(약칭 '東北工程')'이 2002년 2월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동북공정'은 각 학과, 지역,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 계획으로 5년을 기한으로 하고 1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주도된다.

'동북공정'은 설립 이후 국내 학술계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동북공정' 전문가 위원회는 2002년 4월, 2003년 8월, 2004년 7월에 각각 북경, 흑룡강, 요령 등에서 회의를 열고 95개 연구항목을 설정했다. 2004년 6월 현재, 40개 항목에 관한 연구를 완성하고『中國東北邊疆研究』,『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등을 출판했으며, 2004년 안에 12부의 저작을 출판할 계획이다.

2004년의 연구 계획은 주로 변강 이론 연구, 동북 변강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등이 위주가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공정'은 그 진행 과정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의 학자들과 널리 교류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토론할 것이다.

「南朝与北朝对高句丽政策的比较研究」

姜维公,『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남북조 시기의 北朝와 南朝는 경쟁적으로 주변 국가를 포섭하려 했고, 고구려는 그 주요 대상 국가였다. 남조는 고구려를 이용, 북조를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책봉과 賞賜가 융성했다. 반면, 북조는 천하통일을 스스로의 책무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조와 달랐다. 매번 고구려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정벌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포기하고, 대신 책봉, 恩賞, 인질과 后妃 요구 등의 방법으로 대처했다. 이런 까닭에 고구려는 남북조 시기 170여 년 동안 중국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唐朝对高句丽政策的形成、嬗变及其原因」

李德山,『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唐朝와 고구려는 51년 간 공존했는데, 개국 초기 唐朝는 고구려를 회유, 위무하려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처음 20여 년 간 충돌이 없었다. 그것은 중국 통일이 보다 시급했던 당조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유와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고구려 역시 隋朝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중국과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최후의 27년 동안 상황이 변한 것은 요동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당조의 의도와 고구려 연개소문의 등장 그리고 신라의 구원 요청 등이 그 원인이었다. 당조의 고구려 정벌은 이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그 후 이백 년 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从金富轼的高句丽观看高句丽政权的性质及其历史归属」

苗 威,『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三國史記』와 그 저자 김부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특히 그가 고구려를 백제, 신라와 함께 '海東' 삼국으로 파악하고 그의 저서에 나란히 편입시킴으로써 고구려 역사의 귀속문제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저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가 「進三國史記表」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그는 '해동'의 역사를 저술하고자 했으므로 '해동'의 고구려가 『삼국사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또 당시의 고려는 고구려 故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高麗라는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삼국사기』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를 기술하며 고구려를 배제한다는 것은 事實이나 情理에 있어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고구려는 한사군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를 쓸 때 언급되고 한국사를 쓸 때에도 또한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인데, 핵심은 당연히 정치 귀속이며, 단지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는 전제하에 한사군처럼 기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할거정권이라는 시각은 김부식의 高句麗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본기」 말미의 논찬에서 그는 고구려의 영역이 본래 箕子가 책봉된 지역임을 밝혀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易經』의 爻辭 가운데 '二多譽, 四多懼'를 원용하며 고구려가 신라와 달리 천자와 근접해 있으면서도 천자를 거슬러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고구려가 천자를 거스른 구체적 사실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보면 그가 고구려를 중국의 할거정권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고구려는 중국과 영토적으로 관련이 없는 백제, 신라와 달리 중국의 변군 안에서 자생적으로 성립한 할거정권이었던 것이다.

「清前期对鸭绿江封禁区的管辖」

张 杰,『中国边疆史地研究』2004-4

압록강 封禁區는 오늘날의 길림성 白山(渾江), 通化 그리고 요령성 撫順, 本溪, 丹東 등 5개 시와 그 관할구역을 말한다. 압록강 봉금구는 順治 연간 청조에 의해 盛京 柳條邊이 수축되자 정식으로 형성되어 광서 2년(1876)까지 200여 년 간 유지되었다. 이 지역을 중국의 동북 지방지는 중국에 의해 '甌脫'처럼 간주되었다고 기록하고, 한국의 朴趾源은 서로가 방기한 지역이라고 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이 지역은 淸朝가 각종 수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할했던 지역이었다. 청조는 우선 유조변을 이용하여 압록강 유역을 전면 봉쇄한 다음, 邊門을 설치하고 八旗를 주둔시켜 내왕하는 인원을 조사하게 했다. 또한 邊內 검문소를 세워 변내의 인민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조선의 邊民이 넘어와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것을 막았다. 한편 조선과 협의하여 '會哨' 제도를 확립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했다. 이처럼 청조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邊疆史地 2005년

1기 [邊疆史地 2005年 1期]

「高句丽族语言微识录」

徐德源,『中国边疆史地研究』2005-1

국내외의 고구려 연구 열기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고구려가 남긴 文化典籍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겨우 소수의 碑刻만 남아있지만,『三國史記 · 地理四』에 보이는 단어들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선 10개의 고구려 단어의 독음과 일본어의 독음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외에, 고구려 문화의 양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문화는 본래의 전통적 문화 특색과 함께 漢文化의 일관된 영향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양면성이 있는데, 고구려의 언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고구려는 자체의 언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漢語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중국 내 소수민족과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봐도 고구려 문화는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문화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论清朝疆域形成与历代疆域的关系」

成崇德,『中国边疆史地研究』2005-1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의 근대 강역이 淸朝의 군사적, 외교적 확장에 의해 확정되었다거나, '무주공산'이었던 중국의 변강을 중국이 강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역은 그 역사적 연원이 수천 년에 달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강역을 형성케 한 요인들 역시 매우 복잡하다. 그 요인들을 대략 셋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유구한 중국 문명의 연속성은 곧 강역의 연속성이라는 것, 둘째, 주변의 소수민족이 강역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세계의 다른 문명과 달리 중국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처해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청대에는 변강 확장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역대 왕조가 남긴 영토유산을 계승하여 국가의 통일을 완성하고 변강을 충실히 관할했을 뿐이었다.

청대의 강역과 역대 왕조의 강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역대 중원왕조의 강역과 현대 중국의 강역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는 문제는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했다. 혹자는 마땅히 역대 왕조의 강역을 중국의 강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孫祚民), 다른 혹자는 현재의 중국 강역을 기본 범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白壽彝), 또 다른 혹자는 18세기 50년대 淸朝의 강역을 기본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譚其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 민족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 현대의 중국 강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백수이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고, 민족 구성원의 범위가 역대 왕조의 강역을 넘어설 뿐 아니라 또 한족 이외의 민족 역시 우리 역사에 공헌한 바가 많기 때문에 손조민의 견해도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18세기 중엽 이후 1840년까지의 중국 범위가 수천 년의 역사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범위라는 담기양의 견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2기 [邊疆史地 2005年 2期]

「中国古代和亲与丝绸之路的拓展」

崔明德,『中国边疆史地研究』2005-2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행해진 혼인이었던 화친은 '和戎' 혹은 '和蕃'으로도 불리며, 중국 고대에 최소한 360 차례 있었다. 그 중 일부 화친은 비단길을 다시 열거나 안정시켰으며, 또 일부는 새로운 비단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화친은 비단길을 안정시켜 통상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양잠과 같은 기술이 서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和親公主는 주변국가와 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비단길을 보호하고 감독하여 각종 장애를 제거하였으며, 어떤 화친공주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화친으로 인해 사절단이 끊이지 않았으며, 화친으로 인한 중원왕조의 대량의 하사품이 비단길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중 비단길의 안정과 통상의 증대가 화친의 최대 목적이자 기능이었다.

3기 [邊疆史地 2005年 3期]

「高句丽法律问题研究」

秦升阳,『中国边疆史地研究』2005-3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373)에 율령을 반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성문 법률은 없다. 일부 史籍에 남아 있는 모반, 왕위계승, 재산과 절도, 혼인 등에 관한 고구려의 법률 규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원의 다원성이다. 고구려 법률은 일부 규정이 내지의 그것과 유사하여 중원왕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 지방정권 고유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그 내용의 원시성이다. 특히 데릴사위제(婿屋制) 등은 고대 씨족사회의 유습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법률 시행의 잔혹성이다. 고구려인은 성격이 흉악하고 급하여 통치계급의 인민에 대한 통치가 대단히 잔혹하였다.

「中国古代朝贡关系研究评述」

权赫秀,『中国边疆史地研究』2005-3

16세기 이후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성립되자 광대한 비서구 지역은 주변지구 내지는 半주변지구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서구 이외의 지역에 존재했던 국제질서를 연구하는 것은 完整된 세계사

를 위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학계는 조공제도에 주목하고, 이를 근대 이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로 이해하고 있다.

1. 서구 학계의 관련 연구

미국 학자 費正清이 지적했듯이 조공제도는 역사상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 중국과 서구와의 관계에도 역시 기반이 되었다. 중국 근대 외교관계사에 관한 논저들이 모두 조공제도를 언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910년 영국학자 Hosea Ballou Morse는 그의 대표작 『中華帝國對外關系史』에서 두 차례의 아편전쟁 결과 중국이 서구의 규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중국이 서구의 의도에 따라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에는 서방의 국제공법과 같은 대외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서구학계의 보편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언급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조공관계는 당연히 서구의 근대적 조약제도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오리엔탈리즘의 색채가 농후한 이런 관점은 서구의 주류적 관점이 되었고, 그 대표적 학자가 바로 비정청이다. 그는 1941년 鄧嗣禹와 함께 논문 「清代的朝貢制度」를 발표하며 清代의 조공제도와 청조의 對西歐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64년 유명한 『中國沿海的貿易与外交:條約口岸的開放 1842～1954』를 발표하고, 조공제도가 중국의 전통적 대외관계 방식이었으며, 이것이 서구의 조약제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그의 견해는 서구학계를 풍미하는 대표적 관점이 되었다.

1965년 미국 MIT 공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일본 및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함께 묶어 비정청이 발간한 『中國的世界秩序:中國傳統的對外關系』에서 그는 전통시대에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등급제적 국제관계가 존재했으며 이를 중국적 세계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른바 '중화세계질서'는 서구 학계의 기본적인 연구모델이 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비정청이 주창한 인식과 관점이 20세기 50년대 이래의 이른바 '충격과 대응'이라는 연구모델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중심론'은 많은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이는 科文의 『在中國發現歷史 — 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美]柯文 著, 林同奇 譯, 『在中國發現歷史 — 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 中華書局, 1989年版)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새로운 관점에서 조공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었다.

2. 일본과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

조공관계에 관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오래되었다. 20세기 초 이른바 경도 학파의 內藤湖南은 그의 '文化移動中心說'에 근거하여 중국문화가 동심원적으로 주변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후 그의 학설을 이어받은 西嶋定生이 '책봉체제론'을 발표했고, 그의 학설은 이후 藤間生大, 鬼頭清明, 菊池英夫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한편, 1974년 일본외교사 연구회가 발간한 『日本外交史』(상,하)에서 中山治一이 발표한 '華夷秩序'論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활용되었다. 그리고 20세기 90년대 濱下武志는 '亞洲經濟圈' 이론을 제기했고, 1990년에 출판된 『近代中國的國際契机:朝貢貿易体系与近代亞洲』는 그 대표적 저작이다. 그는 기존의 연구가 서구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조공제도와 그를 바탕으로 한 조공무역 관계가 아시아

유일의 역사체계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비정청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관심의 중점을 경제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東亞世界的地區网絡』,『朝貢体制与近代亞洲』등에서 그의 관점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외에 堀敏一이 서도정생의 '책봉체제론'과 松本新八郎의 '世界帝國論'을 이어 받아 1993년『中國与古代東亞細亞:中華的世界与各民族』에서 '中華的世界'論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은 비록 빈하무지의 이론만큼 독자적이지도 않고 영향도 크지 않았지만, 史實의 논증과 정리에 있어서는 뛰어난 면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전해종의『韓中關系史研究』,『古代韓中關系史之研究』와 김한규의『中國的世界秩序研究』,『韓中關系史』등이 있는데, 특히 김한규는 조공관계가 쌍방향적이었기 때문에 '책봉－조공관계(封貢關係)'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전면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외 이춘식의『事大主義』,『中華思想』, 김용구의『世界觀冲突的國際政治學:東洋之礼与西洋公法』, 권선홍 등의『傳統時代中國的對外關系』등이 있다.

3. 중국 학계의 관련 연구

중국 학계의 조공관계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傅斯年이 '中華帝國論'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그 외 20세기 후반 楊聯升이 '中國的世界秩序'를 논한 적이 있고, 張存武, 高明士, 張啓雄 등 대만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홍콩학자 黃枝連의 '天朝禮治體系'는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 그는 19세기 서구의 충격 이전 동아시아에 중국의 봉건왕조 즉 天朝를 중심으로 하고 禮儀, 禮義, 禮治主義를 주된 운영 형식으로 하는 체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비정청이 서구 본위의 관점을, 빈하무지가 일본 본위의 관점을 각각 대표한다면, 그는 중국 본위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연구에 있어 史實 논증 부분이 이론에 비해 취약하기 하지만 국내 학계에 미친 영향은 컸다.

중국 학계의 조공관계 관련 연구는 특히 이론적 측면이 취약한 면이 있다. 1986년 陳偉芳은 학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宗藩關係' 또는 '藩屬關係' 개념이 쉽게 근대 서구의 종주국과 식민지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륙학자 陳文壽는 그의『近世初期日本与華夷秩序研究』에서 고대에 책봉을 받지 않았던 국가도 중국의 藩屬國이 되었기 때문에 서구학계에서 말하는 'Tributary System(朝貢制度)'은 마땅히 'Investiture System(冊封制度)'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서구학계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4. 결 어

조공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쌓였음에도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사료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공관계에 관한 사료는 주로 24史의 四夷列傳이나 外國列傳의 명칭으로 남아있었는데,『淸史稿』에 이르러 최초로 屬國列傳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이는 조공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처럼 세밀한 사료 연구는 자체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이론적 탐구나 개괄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다.

「一部中国古代和亲问题研究的集大成之作 — 读崔明德博士《中国古代和亲史》」

樊文礼,『中国边疆史地研究』2005-3

崔明德 박사의『中國古代和親史』(人民出版社, 2005년판)는 중국 고대 和親에 관한 집대성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2~30년대에 시작된 고대 화친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고찰에 그친 반면에, 본서는 민족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고고학 등의 이론과 방법을 응용하여 거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제20장에서 언급한, 화친의 과정과 관련 활동에서 비롯되고 집적된 일종의 독특한 문화라는 '和親文化' 개념은 대단히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서의 저자는 방대한 문헌 자료를 섭렵하여 대단히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다. 和親公主의 신상과 事跡에 대한 정밀한 고찰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권말의 부록표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화친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漢과 唐 두 왕조의 화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본서는 중원왕조와 소수민족 정권과의 화친은 물론이고, 소수민족 정권 사이의 화친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고 있고, 또한 더욱 나아가 화친과 비단길의 관계, 화친에 따른 서역문명의 발전 등에까지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서는 근래에 발간된 민족관계사 분야의 역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五帝"世系与秦汉时期"华夷共祖"思想」

王文光 · 翟国强,『中国边疆史地研究』2005-3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五帝本紀」에서 五帝의 世系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華夷共祖' 사상 즉 화하족은 물론이고 흉노, 越人 등 주변의 소수민족도 모두 黃帝의 후예이거나 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상을 제시했다. 물론 고힐강과 같은 학자는 오제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문제는 이 사상이 반영하고 있는 同根共祖 의식과 그것이 중화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이다. 우선 이 같은 관념이 생겨난 것은 先秦 이래 각 민족이 황하 유역의 문화에 대한 문화적 일체감[identity - 역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 배경에는 秦漢에 의한 大一統이 있었다. 물론 '華夷共祖' 사상은 선진 시기에 주도적 사상이 아니었다. 당시 화하족 사이에 夷狄에 대한 멸시와 불평등적 태도는 두드러졌다. 그러나 秦漢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고, 각 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 생활하게 되자 '華夷共祖' 사상은 다시 제기될 수 있었다. 이 사상은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승되어, 五胡十六國 시대의 五胡들이 모두 스스로 황제의 후손으로 자처할 정도였고, 더욱 심화 발전되어 훗날의 거란, 여진, 몽고, 만족 모두는 스스로를 중국으로 인식했었다. 요컨대 '華夷共祖' 사상은 秦漢 시기라는 역사적 배경과 대일통의 사상적 조류 속에서 중화의 각 민족이 융합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그 융합의 과정 속에서 각 민족으로 하여금 문화적 일체감을 갖게 하여 중화민족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94～2004년 간의 好太王碑의 보호와 연구 개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994～2004년 간의 好太王碑의 보호와 연구 개황

지난 10년 간의 연구성과 가운데 중국 학자의 것으로는 魏存成의『高句麗考古』그리고 필자의『好太王碑新考』, 劉子敏의『高句麗歷史研究』등이 있고, 일본 학자의 것으로 東潮·田中俊明의 공동저작『高句麗歷史与遺迹』이 있다. 최근 10년 간 호태왕비의 보호와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集安 박물관과 관련 분야의 호태왕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학자들에 의한 호태왕비 연구 저작과 탁본 자료가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즉 1996년에 연변대학의 朴眞奭 교수의『高句麗好太王碑研究』가 한국 아세아문화 연구소에서 출판되었고, 李東源에 의해 번역되어 연변대학에서 다시 출판되었는데, 이 저작은 중국 조선족 학자의 견해를 대표한다. 1999년에는 孫寶文이 북경도서관의 C本을 저본으로 해서 편집, 출판한『好太王碑』가 있는데, 문자와 역사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다소간 수준이 떨어지고, 북경도서관 호태왕비 탁본을 최초로 발표한 徐建新의 사진을 근거로 해서 비교해보면 그의 저본은 북경대학의 A本임을 알 수 있다. 2001년 朴眞奭 교수가 편집, 출판한『好太王碑拓本研究』(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는 모두 4종의 탁본 즉 북경도서관본, 王少箴 舊藏本, 書通本, 吳椒甫本을 수록했다. 2003년엔 필자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를 출판하였다. 한편, 호태왕비의 書法과 篆刻에 관한 성과로는 秦維國의『好太王碑字貼』(韓國梨花文化出版社, 2001.10)과 任錫昆, 高良田, 王永利, 阿兵 공저의『好太王碑文印稿』(時代文藝出版社, 2003.10)가 있다.

셋째, 지난 십년 간 국내학자가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方起東,「好太王碑釋文一得」,『博物館研究』1995年 第1期。
徐建新,「關于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世界歷史』1995年 第2期。
徐建新,「關于北京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日本『歷史讀本』1995年 春季号。
徐建新,「好太王碑碑字的再考察」,『"走向國際化的日本"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天津人民出版社, 1995年 3月。
趙福香·孫慧艷,「清末遼東局勢与好太王碑的發現」,『通化師院學報』1995年 第3期。
李樂營,「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通化師院學報』1996年 第1期。
徐建新,「北京現存好太王碑原石拓本的調查与研究 — 以北京大學所藏拓本爲中心」, 日本『朝鮮文化研究』1996年 第3期。
傅朗云,「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社會科學戰線』1996年 第4期。
高明士,「台湾的好太王碑拓本以及碑文研究」, 韓國『高句麗研究』1996年 第4輯。
叢文俊,「關于高句麗好太王碑文字与書法之研究」, 韓國『高句麗研究』1996年 第4輯。
朴 眞,「辛卯年紀事再論」, 韓國『高句麗研究』1996年 第4輯。
劉永智,「好太王碑之發現与釋文研究」, 韓國『高句麗研究』1996年 第4輯。

王健群,「广開土王碑文中"倭"的實体」, 韓國『高句麗研究』1996年 第4輯。

徐德源,「高句麗好太王碑建立之原委与性質重探」『高句麗渤海研究集成』卷三, 哈爾濱 出版社, 1997年 11月。

湯 燕,「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版本概況」,『書法叢刊』1998年 第1期。

朴 眞,「關于好太王碑中守墓人烟戶的身份」,『朝鮮學韓國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8年 10月。

朴 眞,「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拓本采拓年代考証」,『史學論叢』1999年 8月。

高明士,「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藏高句麗好太王碑乙本原石拓本的史學价值」, 台湾『古今論衡』, 1999年 第3期。

耿鐵華,「王少箴旧藏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中國東北民族与疆域研究』,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10月。

李淑英 · 范犁,「好太王碑文烟戶, 奴客諸詞語補釋」,『通化師院學報』2002年 第1期。

耿鐵華,「好太王碑拓本收藏著录及其年代」,『社會科學戰線』2002年 第1期。

孫麗萍 · 王萍,「黑龍江省博物館藏〈好太王碑〉拓本賞析」,『北方文物』2002年 第2期。

2. 비문과 관련 史實에 대한 연구

1994년 필자는 2차 대전 前後의 대표적인 碑文의 釋文 16 종을 비교, 분석한 바 있었다 (耿鐵華,「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pp.266~7). 지난 10년 간 발표된 것으로는 張福有의「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이 있는데, 그는 기존의 연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이 기간의 대표적 석문은 方起東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석문은『동북사지』(2004년 3기)를 포함하여 모두 세 번 발표되었다.

호태왕비 관련 史實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새로운 견해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徐德源의「好太王碑銘文三个地名今址考析」과 傅朗云의「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3. 탁본 연구

새로운 호태왕비 탁본가 발견됨으로써 지난 십년 간 탁본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徐建新은 시기적으로 비교적 오래된 王少箴 藏本과 북경도서관 藏本 그리고 북경대학 도서관 藏本을 비교 연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북경의 소장가 왕소잠이 가지고 있던 왕소잠 장본을 王培眞과 함께 발견하고, 王培眞 · 徐建新의「好太王碑原石拓本的新發現及其研究」와 徐建新의「北京現存好太王碑原石拓本的調查与研究 — 以王少箴旧藏本和北京圖書館藏本爲中心」을 통하여 왕소잠 장본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호태왕비가 朝鮮 最古의 석각 문자 자료라고 하는 등 인식에 문제를 드러내 필자가「王少箴旧藏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호태왕비가 세워질 당시에는 '朝鮮'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호태왕비는 당연히 중국 고대 고구려 민족의 유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경도서관 장본 역시 서건신에 의해 최초로 공표되었는데, 왕소잠 장본과 성립연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북경대학 도서관 장본은 모두 4종이 있다. 그 외에 대만에서 5종이 이미 저록되었고, 듣기에는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도서관, 박물관, 대학 그리고 사사로운 개인의 수중 모두에 탁본이 있다는데 아직 저록되지는 않았다.

4기 [邊疆史地 2005年 4期]

「高句丽自然灾害发生状况及影响」

王利群 · 李乐营,『中国边疆史地研究』2005-4

고구려의 자연재해는 기후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었으며, 대략 다섯 시기 즉 2~153년, 154~253년, 254~389년, 390~492년 그리고 493~581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재해는 고구려의 강역, 경제발전, 사상문화 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论《三国史记》的编撰方法, 历史观及史学思想」

李春祥,『中国边疆史地研究』2005-4

『삼국사기』는 편찬 과정에서 『尙書』, 『春秋』, 『左傳』, 『孟子』, 『史記』 등 많은 중국 고대의 典籍을 인용하고, 중국 고대 史籍의 편찬 體例와 원칙을 참고하여, 편년체와 기전체의 일부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동시에 편찬상 독자적인 특징도 잘 살린 기전체 斷代史이다. 『삼국사기』는 특히 『漢書』의 체례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구성이 전통적 기전체 사서의 체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중국 고대 사적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正統史觀, 천명사관 그리고 尊儒崇禮, 重民觀念 등의 史學 사상 등이 모두 등장한다. 한편, 『삼국사기』는 중원의 왕조를 정통으로 보고 신라, 고구려, 백제를 閏統으로 보는 사관을 보여주는데, 이는 『삼국사기 · 年表』에서 중국의 연호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신라, 고구려, 백제를 중원왕조의 종속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春秋时期诸侯国是独立主权国家吗? 与叶自成先生商榷」

杨恕 · 王欢,『中国边疆史地研究』2005-4

북경대학의 『國際政治研究』 2005년 제1기에 실린 북경대의 葉自成 교수의 논문 「中國外交的起源 — 試論春秋時期周王室和諸侯國的性質」은 춘추시기의 제후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이론을 제기했다. 이는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후에 나타난 서구의 민족국가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제후국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周의 天子를 존중하고, 周禮에 따랐으므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 할거정권에 대한 중앙정권의 통제력의 강약을 기준으로 지방 할거정권의 국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통일된 하나의 정치 · 문화 공간 - 즉 천하 - 을 형성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다수의 정권으로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大一統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편집자 : 근년 들어 중국 변강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많은 관련 연구가 쏟아졌지만, 변강 이론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중시되지 않은 까닭에 연구의 심화와 학과의 성립이 어느 정도 제한됐었다.

이에 본 편집부는 2006년 제1기부터 학자들에게 의뢰한 이하의 문제들에 관한 논고를 싣기로 하였다. ⑴ 중국 강역 이론 연구, 여기에는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법칙과 그것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 '大一統'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 고대의 강역 관념과 강역의 형성; 중국 고대 변강 통치 관념의 변화와 강역의 형성; 민족 융합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기미통치(羈縻統治)와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 고대 종번관념(宗藩觀念)의 형성과 발전; 중국 역사상 종번관계의 특징; 중국 고대 종번체제의 형성과 발전; 조공－책봉체제의 형성과 발전; 근대 시기 종번관념의 변화; 종번관계와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 ⑵ 중국과 외국의 강역 이론 비교 연구, 여기에는 동서양의 강역 관념의 공통점과 차이; 중국 전통 강역 관념에 대한 서구의 인식; 서구 강역 이론이 중국 전통 강역 관념에 미친 영향; 최근 중국과 외국의 변강 이론 연구의 발전 추세; 서구 강역 이론이 중국 변강 연구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된다. ⑶ 學科로서의 변강학(邊疆學) 구축, 여기에는 변강학 구축이 지니는 학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 변강학의 연구 대상과 그 방법; 변강학의 형태와 구조; 변강학의 특징과 그 외 학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기수에 간행된 앞부분의 6편 논문은 첫 번째 관련 논고들이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대작을 생산해냄으로써 학과로서의 중국 변강 연구의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기 [邊疆史地 2006年 1期]

「论中国疆域最终奠定的时空坐标」

于逢春,『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강희제, 건륭제 등 청조의 역대 황제는 서구의 근대 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지도를 작성한 바 있고, 또 세 차례에 걸쳐『大清一統志』를 편찬한 바 있다. 그 중 1820년의『嘉慶重修大清一統志』('嘉慶志')와 거기에 부록된 '皇輿全圖'는 중국 역사가 내재적 발전에 따라 다다를 수 있었던 최대한의 공간이 어디까지인지와 청조 강희제 이래의 4대 황제들이 영토, 邊界, 주권 및 邊民에 대해 지녔던 명확한 경계 인식과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疆域'을 1648년 서구의 웨스트팔렌 조약의 결과로 생겨난 근대적 '영토주권'으로 이해할 경우, 중국의 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기는 근대 서구가 세계를 주도하던 시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존재했던 淸朝 시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영토주권은 '민족국가(natiaon-state)'와 '국가승인'과 관련이 깊은데, '가경지'와 '황여전도'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제정 러시아와 서구 열강의 국제적 인정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중국의 강역은 곧 '가경지'와 '황여전도'에서 확정된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중국의 강역이 확정된 공간적 좌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1820년의 청조의 강역은 곧 중국 강역의 극대점이자, 동아시아와 서구의 역량이 최종적으로 역전된 임계점이며, 이때가 중국의 국세가 기울기 시작한 시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중국의 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간적인 좌표는 1820년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筱田治策与《白头山定界碑》」

王德朋,『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는 본래 청나라 조정이 관원을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邊界의 중국 쪽 영역을 답사하게 하고 세운 기념비일 뿐, 결코 중국과 조선 변경의 '定界碑'가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과 비문에 대한 외국의 곡해로 인해, 후에 청대 이래 중국과 조선의 변계를 둘러싼 논쟁의 한 초점이 되었고, 일본 학자를 포함한 중외의 학자들이 이에 대해 장기간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 篠田治策이 저술한 책『白頭山定界碑』는 그러한 검토의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러일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이후 일본의 식민지 관료 신분으로 조선의 통치에 참여했던 소전치책은 1938년『백두산정계비』(樂浪書院)를 발간하고, 이른바 '간도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선 백두산이 이씨조선의 발상지이며, 圖們江에서 鳳凰城을 잇는 일대가 청조와 이씨조선의 중립지대 즉 이른바 甌脫地帶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그 지역이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歸屬未定論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土門'이 도문강이 아니라 黃花溝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록 그의 주장이 잘못된 면이 있으나 그는 비교적 자세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白頭山定界碑』를 자세히 검토한다면 오히려 중국과 조선의 定界 문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不同藩属体系的重组与王朝疆域的形成－以西汉时期为中心」

李大龙,『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서한 왕조를 예로 삼아 고찰해보면, 왕조의 강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서로 다른 藩屬體系 간의 충돌과 번속체계의 재정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한 초기, 중국 대륙에는 서한 왕조와 흉노를 핵심으로 하는 양대 번속체계, 그리고 허다한 準藩屬體系 및 弱藩屬體系가 존재했었다. 무제 때부터 서한 왕조의 국력이 증강되자 양대 번속체계가 충돌을 빚게 되고, 그 결과 흉노를 중심으로 한 번속체계가 서한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번속체계 속에 편입되었고, 약번속체계 역시 그 속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서한 왕조에 속해 있던 준번속체계는 곧 郡縣의 성립으로 발전했다. 이로써 군현, 특설기구, 번속국 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요소로 구성된 서한 왕조의 강역이 형성되었다

「对清代朝贡体制地位的再认识」

祁美琴,『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오랫동안 조공제도는 변강 민족 및 주변국가와 지역이 고대 중국과 교류하는 데 있어, 장기간 지속된 유일하고도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조공제도 자체가 발전하며 보여준 특징을 소홀히 한 것이며, 특히 明清代 두 시기의 조공제도에 나타나는 차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청대의 조공제도는 비록 명대의 조공제도를 계승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하나의 정치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명대 중원왕조와 변강민족, 중국과 西洋 諸國 사이에 형성되었던 번속관계는 청산되었고, 조공무역 역시 명 왕조의 그것과 크게 달랐다.

「古代治边观念的研究内容与主要特点」

方 铁,『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춘추전국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 고대의 治邊觀念은 秦漢 시기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이후 대대로 계승되어 심지어 거의 이천 년이 지난 민국 시기에 이르러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고대의 치변관념이란 중국 고대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던 관념으로, 邊疆과 역사 강역의 형성 및 그 관할, 그리고 관련 문제의 처리에 관한 태도, 방략과 조처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관념을 말한다. 그 연구 내용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크게 고대 邊疆觀, 고대 治邊觀, 그 외 변강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치변관념의 주된 특징으로는 우선 역대의 변강 통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 왕조의 최고 통치자가 확정한 치변관념은 이후 그 왕조의 존속 기간 내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宋朝의 태조 趙匡胤이 확정한 大理國 정책은 이후 송조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굳어져 대대로 계승되었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복잡한 변강의 사정으로 인한 정책적 혼란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치변관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것이 국력의

성쇠와도 관련이 깊었다는 것과 중원왕조와 변강정권의 치변관념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과 또한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中国世界秩序"观之影响及其与中国古代边疆研究－费正清 《中国世界秩序：中国传统的对外关系》读后」

许建英,『中国边疆史地研究』2006-1

【개요】

費正淸의 '中國世界秩序'觀은 학계에 소개된 이후 중외의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비록 그의 이론이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의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와 '중국세계질서' 이론은 여전히 중국 변강 연구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화민족의 공동 의식과 공동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역대 왕조의 변강 통치와 변강의 확립에 관한 연구에 비정청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많다.

【본문】

미국의 저명한 중국학 연구가 費正淸은[1] 중국학 연구와 세계의 중국학 건립에 걸출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중국의 대외 관계에 관한 그의 저작 중『中國世界秩序:中國傳統的對外關系』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서이다. 이 책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청을 비롯한 미국의 역사학자, 중국계 역사학자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비정청이 오랫동안 관심을 쏟았던 朝貢制度를 체계적으로 저술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중국세계질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설명했으며, 그것의 형성, 실질 및 변화 그리고 淸代에서의 상황 등을 나누어 고찰한 저작으로, 그의 조공제도 연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비정청의 이론을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단지 중국 고대의 대외관계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필자는 그의 이론이 중국 고대 변강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기회를 빌려, 책의 내용과 그의 이론이 미친 영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의 이론이 중국 고대 변강 연구에 지니고 있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

『中國世界秩序 : 中國傳統的對外關系』의 導論에서 費正淸은 정식으로 '중국세계질서'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이 이론적 틀은 그가 중국사 특히 중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접근하며 활용한 수단이자 동시에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다. 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는 '中國中心主義(sinocentrism)'라는 개념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기본적 이론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론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밝혔다.

1) 费正淸(John King Fairbank)(1907～1991) － 역자주

비정청은 역사 발전, 면적의 대소 혹은 財富 등 어느 방면으로 보더라도 고대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중심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조선, 월남 그리고 琉球에 대한 중국 고대문명의 영향은 컸다. 예를 들어 중국의 표의문자 체계, 가정과 사회질서에 관한 유교적 교의, 과거제도 및 중국식 왕조제도 그리고 관료제도 등이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 끼친 영향은 심원했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서구와 남아시아에서 분리되어 있어 문명 세계 가운데 가장 독특한 지역이었다. 근대 서구인들이 '遠東'이라 부르는 이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天下'였고, '天下'는 모두 天子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혹자는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의 대부분이 중화제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한다. 주변지구와의 관계 혹은 '非中國'과의 관계를 다룰 때 중국은 중국 중심주의적 관념과 우월감을 갖고 임했다. 중국사회 자체가 그러했듯이 중국의 대외관계 역시 등급제적이고 불평등했다.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대외관계가 일종의 네트워크처럼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구 사회에서 발전한 국제질서와 대체로 상응한다. 이것이 바로 비정청이 '中國世界秩序'라고 부르는 것이다.

費正淸이 말하는 고대 '중국세계질서'는 등급제적이었고 또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세 개의 주요지대로 나누었다. 첫째는 中國化 지대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문화상 가장 유사했던 조공국 월남과 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 국가의 일부는 일찍이 중국의 통치지역에 편입된 적이 있었다. 유구 군도 역시 이 지대에 속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 역시 이 지대에 속한 적이 있었다. 둘째는 내륙아시아 지대로, 내륙아시아의 유목 혹은 반유목 민족의 조공 부락 및 조공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는 외곽 지대로, 주로 해외나 내륙의 먼 지역에 있던 '外夷'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훗날의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서구의 국가들이 여기에 속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非中國' 국가와 민족은 중앙국가의 천자에게 조공해야 했지만, (그 이론이) 실제로는 항상 준수된 것은 아니었다고 비정청은 보고 있다. 그는 중국 대외 관계의 주된 문제는 실은 어떻게 이론과 현실을 일치시키는가, 어떻게 의식의 형태와 현실적 실천을 일치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 외에 중국의 대외질서는 대내질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비정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와 중국 문화권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중국화지대 예컨대 조선, 일본, 월남 그리고 유구 등은 한문과 유교 등을 매개로 세계질서에 포함되었지만, 내륙아시아의 만주족, 몽고족, 위구르족, 藏族 등은 사회와 문화가 중국과 기본적으로 다름에도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비정청은 다음과 같이 즉 중국의 문화와 경제가 내륙아시아보다 우월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 지역의 제 민족을 통제할 수 있었던 수단이 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의지할 수 없었다. 元朝와 淸朝는 내륙아시아 민족이 건립한 왕조였고, 체제상 상당히 새로운 측면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도 중국의 전통에 따라 중국을 통치했고, 대외관계 역시 대체로 그러하여 조공제도는 엄격히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중심주의의 대체적 윤곽을 그린 뒤, 비정청은 15개 방면에 걸쳐 중국세계질서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했다. 그 15개 방면은 중국세계질서가 농업을 위주로 한 (중국) 고대 사회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원했다는 것, 중국 천하관이 시종 통일적 의의와 문화적 완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등급제적 중국세계질서의 핵심은 공자 철학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上統下屬의 '三綱'論이라는 것, 중국세계질서와 천지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무한 권능의 주재자－天子라는 것, 고상한 덕행으로 표현되는 義理와 이를 강조하는

正統思想, 경전과 교의를 사회적 준칙으로 삼고 효율적인 법규와 상벌제도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했다는 것, 천자는 '禮治'와 '法治'의 주재자라는 것, 군신관계와 관료체제는 황제가 의지한 두 종류의 통치방식이라는 것, 유가학설의 영향을 받아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士紳 계급이 사회의 기층 통치를 담당했다는 것, 황제(군주)에 대한 충성을 중국과 번속국의 통치자가 공통적으로 원했다는 것, 外藩이 內藩으로 변할 수 있고 異族의 통치자도 중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중국세계질서가 광범위하다는 것, 중국세계질서에 참여하는 異族 통치자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예의를 준수해야 했다는 것 등이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그는 '중국세계질서'가 낳은 객관적 환경, 정치 배경, 천하관, 만능 천자, 유교문화, 禮治體制, 행정체제, 조공제도 및 그 작용, 조공무역, 夷夏關係, 번속제도 등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논증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이어서 고대 중국의 정치, 제도, 문화, 경제 그리고 민족 등 각 방면에 걸쳐있다.

그 외에, 비정청은 중국 봉건왕조가 이러한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주로 무력, 禮와 法, 文과 德, 이익, 종교 그리고 외교 등이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통제와 흡수 그리고 대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중국 봉건 왕조가 중국화 지대, 내륙아시아 지대 그리고 외곽 지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을 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의 13편은 실제적으로 독립된 논문으로, '중국세계질서'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淸代 당시의 상황을 각각 검토한 것이다. 첫 3편은 '중국세계질서'의 관념과 태도 그리고 각종 제도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楊聯升의 「中國世界秩序的歷史詮釋」은 종친관계 개념 혹은 '內服', '外服' 개념이 일찌감치 대외관계에 응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外來者를 대하는 중국 봉건 왕조의 전통적 태도에 보이는 신화와 현실을 대비하고, 고전 문헌 중에서 黷武主義와 綏靖主義의 수단과 변강 안정에 관련된 사상을 검토했다. 그리고 羈縻綏靖 정책의 기원과 변화의 범위 그리고 사용 대상 등을 설명했다. 王賡武의 「明朝早期和東南亞的關系:背景探析」은 청대 이전의 조공제도를 고찰한 것으로, 漢代에서 宋代까지 중국이 우월하다는 신화가 형성되어간 과정과 대외 관계에서의 작용을 분석했다. 그의 논문은 이러한 우월의식의 이론적 기초가 황제의 덕행과 덕치사상이었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明代의 황제들이 세계질서의 건립을 위하여 조공관계를 확대하며 기울인 노력을 지적했다. 曼考爾의 「淸朝的朝貢制度:一种解釋性的評論」은 중국의 세계관념에 대한 월남, 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서로 다른 반응과 이 이론이 청대에 중국의 서북지구와 동남지구에 끼친 영향을 논술했다. 그리고 조공무역의 각종 형식을 고찰하고 貢物과 예물을 교환하는 복잡한 과정과 변강의 '貿易口岸'에 엿보이는 管理 무역의 성격을 지적했다.

全海宗의 「淸代中朝朝貢關系考」는 조선의 遣淸 사절단의 많은 유형과 그 기능 그리고 경제적 의미 등을 대단히 상세히 설명하고 분석했다. 분석은 사절단의 구성, 방문한 곳, 북경에서의 활동, 사절단의 왕래 빈도, 공물와 回賜品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이 거의 이상적인 조공을 했던 전형적인 조공국이었으며, 정치적 동기가 경제적, 문화적 동기보다 컸다고 밝혔다. 坂井의 「作爲薩摩一塊封地的琉球群島」는 薩摩의 기록을 근거로, 유구 군도가 薩摩의 속국이자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유구에서 펼쳐진 중일 양국의 무역을 묘사했다. 陳大端의 「琉球王在淸代的授權」은 유구왕의 책봉 요구와 청조의 정식 책봉을 다루며, 청조가 파견한 8개 사절단과 그 구성, 활동, 각종 의식을 집중 분석했으며, 동시에 유구와 중국 간의 지속적인 조공무역을 간략히 언급했

다. 그는 사절단이 봉행한 의식은 주로 明代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황제의 덕치와 유교 문화를 선양하는 것이 그 主旨였다고 지적했다. 張寶林의 「中越關系中的干預對朝貢 : 1788～1790」은 18세기 후반 월남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야기된 위기에 대한 청조의 대응과 새로이 정립된 중월 조공관계를 고찰했다. 鈴木의 「中國和內陸亞洲的關系 : 匈奴和西藏」은 漢朝와 강력한 흉노의 복잡한 관계를 훑어보고, 청조 초기 라마교를 이용하여 몽고인을 제어한 과정을 검토한 것으로, 티벳에서는 施主와 승려의 관계가 황제의 덕행이 지니고 있는 우월성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法庫哈爾의 「滿族蒙古政策的起源」은 청조와 몽고의 관계 특히 1644년 만족의 입관 이전의 관계를 검토하여, 만족과 몽고인의 공통된 기원을 만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 보았다. 弗萊徹의 「中國和中亞 : 1368～1884年」은 명청 왕조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국가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다. 이들 오아시스 국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隊商 무역이었고, 중국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자를 교환했으며, 중국은 또 이들 국가를 조공국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기복이 많았는데, 그는 중국 이외 지역의 일부 자료를 검토하여 이 지역이 중국에서 멀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조공이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韋爾斯의 「清朝与荷蘭的關系:1662～1690」은 중국과 네덜란드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경영 규모와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 규모는 경쟁국인 영국의 그것을 능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네덜란드의 40년 관계사를 개술하고, 양국 간의 각종 충돌과 이해 부족, 불협화음과 행정, 사법상의 문제점 등은 모두 문화적 차이에서 기원했다고 지적했다. 비정청의 「中國世界秩序的早期條約体系」는 19세기 조공제도의 해체를 연구한 것이다. 그는 通商口岸은 최초에 외국인을 위한 특별 거주지였고, 최혜국 조약으로 서구인들이 특권을 누렸으며, 1860년 이후 중국의 황제를 압박하여 서구에 대한 우월감을 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의 20년 동안 중국은 서구인을 중국의 국가권력 안으로 포용하지 못했고, 이에 위기에 빠진 조공제도는 마침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史華慈의 「中國對世界秩序的理解:過去和現在」는 '중국세계질서'가 중국 고대 '王權遠披' 관념에서 기원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세계질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덕치 고유의 유교적 신비성과 '儒教道德秩序的絶對化'와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天子를 도덕적 질서의 근원으로 보는 儒家의 관념이 완성됨에 따라 普天王權 사상이 날로 강화되어 중국 봉건왕조 특유의 세계질서관이 형성되었고, 또한 19세기의 중국이 서방의 다국가 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중국세계질서'의 구축과 그 영향

20세기 30년대부터 비정청이 '조공제도'를 설명하면서부터, '중국세계질서' 이론은 서구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서방이 근대 중국을 이해하는 주요 관점이었을 뿐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중국사를 연구하는 이론적 틀이기도 했다.

1. '중국세계질서'의 구축 과정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 이론체계는 조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조공제도는 '중국세계질서'의 핵심 내용이다. 비정청은 20세기 30년대 청화대학에서 중국 근대사를 연구했다. 蔣廷黻의 영향을

받아 비정청은 중국 고대의 조공제도를 점차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그의 독창적 연구의 성과는 폭넓고 심원했다. 20세기 30년대 그는 박사논문을 쓰면서 최초로 조공제도를 언급했다. 1941년 그는 미국 국적의 중국계 학자 鄧嗣禹와 손잡고 「論清代的朝貢制度」라는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청대의 조공제도를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1942년 그는 위의 논문을 더욱 다듬어 「朝貢貿易与中西關系」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는 中西關係의 시각에서 조공무역을 검토한 것이었다. 1953년 수정을 거친 그의 박사논문 『中國沿海的貿易与外交(1842～1854)』이 정식 출판되었는데, 여기에서 비정청은 조공제도를 서방의 '條約体系(treaty system)'에 상응하는 '國際体系'로 해석했다.

비정청의 관심의 핵심은 조공제도였고, 그는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조공제도의 이론적 근거, 儀式, 작용 그리고 조공무역 등을 깊이 검토했다. 주지하듯, 그는 영국의 중국통 Housea Ballou Morse의 저작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대외관계와 중국 근대사를 연구했다. 그가 최초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세기 4,50년대 연해 무역이었는데, 이때는 중국과 서구가 격렬하게 충돌하던 시기였다. 중국이 서구의 평등무역 요구를 거절한 데에 의문을 품고 비정청은 그 원인을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역과 외교를 착안점으로 삼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 조정의 관련 공문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중국과 영국의 이익 문제 뿐 아니라 쌍방의 체제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서구의 '條約体制'[원문에서는 '조약체계'와 '조약체제'를 구체적 설명 없이 혼용하고 있음－역자]가 중국의 통상항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는 서구가 의지한 것은 '조약체제'(즉 웨스트팔렌 조약체계)였지만, 중국이 의지한 것은 조공제도였기 때문에[2] 쌍방이 교류하며 의지한 의사소통 체계가 현저히 달랐다고 보았다. 비록 조공제도는 장정불이 최초로 제기했지만,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은 비정청이었다.[3]그는 위의 저작들을 통하여 조공제도의 초보적 이론체계를 세웠고, 동시에 이를 '조약체제'와 비교했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제도는 중국 중심적이고 자족적이며 불평등한 것이었으며, 당시의 중국과 서방의 충돌은 제도의 충돌이었다고 그는 이해했다. 『中國沿海的貿易与外交(1842～1854)』에서 비정청은 이러한 충돌이 점차 '조약체제'에 의해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묘사했다. 이것이 비정청의 중국 근대사 내지는 중국사의 이해와 연구의 핵심이며, 그의 중국 현대사 연구의 기초이다. 서구의 중국사 연구 모델 '충격과 대응(冲擊－回應模式, impact-response model)'모델은 바로 그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연구 모델 '전통과 현대(傳統－現代模式, tradition-modernity model)' 모델과 '제국주의 (帝國主義模式, imperialism model)' 모델 역시 그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그를 서구의 중국 근대사 연구 그리고 연구 방법을 집대성한 학자로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비정청의 조공제도 이론은 서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이 그의 이론을 빌려 중국 역사를 연구했다. 그러나 비정청은 조공제도가 서구의 '조약체제'에 상응하는 중국의 전통적 체제의 전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고, 이 '모호하고 다문화적인 그리고 해석이 다양한 문제'를[4]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일련의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참여하여 관련 용어와 문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했다. 1963년 미국 亞洲研究會는 필라델피아에서 '東亞傳統國際秩序'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고,

2) 朝贡制度 (Tribute System, 혹은 Tributary System), 혹자는 이를 '朝贡体系' 또는 '贡纳体系'로 해석한다.

3) 余英时, 「费正清与中国」, [美] 费正清 著, 黎明 · 贾玉文 等译 『费正清自传』, 天津人民出版社, 1993년, 590쪽.

4) John K.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vi.

1965년 美國歷史學會는 샌프란시스코에서 '中國世界秩序'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費正淸, 法庫哈爾, 弗萊徹, 曼考爾 그리고 威爾斯 등이 두 차례의 대회에 모두 참석했다. 이들 학술대회의 연구 수준과 범위는 높고 넓었는데, 연구의 중점이 조공제도에서 중국 혹은 동아시아 세계질서로 옮겨갔다.

1965년 9월 매사추세츠 기술 연구소에서 개최된 일주일 간의 회의에서 비정청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자들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했다. 이 회의에서 학자들은 의견 교환을 거쳐 많은 용어들에 대한 일치된 정의를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문을 다시 수정했다. 1968년 비정청의 정리와 편집을 거쳐 이들 논문들이 묶여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中國世界秩序:中國傳統的對外關系』이다. 이 책은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와 조공제도 연구의 결정판이며, 이로써 그의 '중국세계연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정청은 중국 고대 조공제도부터 시작하여 '중국세계질서'에 관련된 연구를 차례로 구축해 나갔다. 그가 보기에 '중국세계질서'의 핵심은 조공제도이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중국세계질서'가 세워졌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조공제도와 '중국세계질서'를 늘 동일시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둘은 함께 거론될 수 없으며, 각각의 함의가 다르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세계질서'는 아직도 보다 심도 있고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다.

2. '충격과 대응' 모델의 이론적 기초

비정청 이론의 영향은 그 후 더욱 확대되어 구미의 중국사 학자 특히 중외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그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학자들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 조공제도, 조공무역 등의 용어는 근래 중국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늘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일본은 비록 '冊封体制', '華夷体制'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중국세계질서'와 이름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濱下武志와 같은 학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공제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한국 학자 역시 조공제도 이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의 이론적 틀 가운데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黃枝連의 『天朝礼治秩序研究』(상, 중,하 3권)는[5] 華夷禮治의 관점에서 중국 전통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형성된 '天朝礼治体系'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대만 학자의 경우 이보다 더욱 빨라서, 張存武의 『淸代中韓關系論文集』과 『淸韓宗藩貿易 1637~1894』는[6] 각각 대외관계와 무역이라는 각도에서 청대의 중한관계를 검토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비정청의 영향이 상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대륙의 학자 黎虎의 『漢唐外交制度史』,[7]李金明의 『明代海外貿易史』[8]그리고 陳尙勝의 『閉關与開放 — 中國封建晩期對外關系研究』[9]등도 각각 중국의 고대 외교, 대외무역 그리고 대외관계의

5) 黃枝連, 『天朝礼治秩序研究』 (상, 중, 하 3권),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 1994 · 1995年版

6) 张存武, 『清代中韩关系论文集』, 台湾商务印书馆, 1987年版

7) 黎虎, 『汉唐外交制度史』, 兰州大学出版社, 1998年版

8) 李金明, 『明代海外贸易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年版

9) 陈尚胜, 『闭关与开放 －中国封建晚期对外关系研究』, 山东人民出版社, 1993年版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 그 연구 중에 조공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중국세계질서'와 조공제도 개념이 널리 수용된 것 외에, (그의 연구는) 중국 근대사 연구 분야에 '충격과 대응 모델'이 출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 모델은 19세기 중엽 이전의 중국은 일종의 순환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의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비정청이 말하는 '中華世界秩序'라고 본다. 이러한 상태의 사회는 내부에 기존의 틀을 깨고 나갈 동력이 결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전진이 없는 정지상태에 있는 사회이다.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서구 열강이 중국과 중국의 기존질서에 강력한 충격을 줌으로써 "오래된 질서에 도전하고 공격함으로써 그 기초를 약화시키거나 제압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및 교육 등 각 방면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 중국 역사는 현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 국내의 이 같은 진전은 보다 강대한 외래 사회의 침입으로 유발된 것으로, (이로써) 방대한 전통구조는 분쇄되었다."는[10] 것이다. 비정청은 서구의 충격과 그에 대한 중국의 무기력한 대응을 묘사하고,[11] 중국이 보다 일찍 또 보다 강력하게 서구의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했다.[12] 이후 비정청은 일련의 저작에서 그의 관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는데, 아편전쟁에서 의화단 사건까지의 격동적 시기를 '서방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 과정으로 개괄했다. 克萊德과 比爾斯는 비정청의 연구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서방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의 시기를 위로는 1830년부터 아래로는 20세기 중엽 이후까지 확대하여 설정했다.[13]

이와 같은 '충격과 대응 모델'은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을 이론적 기초로 한 것으로,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서구의 역할을 과장하고, '선진적 서구'와 '낙후된 중국'이라는 선입견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 식민주의자의 식민사관의 한 표현 방식이다. 이 모델은 미국에서 20세기 5,60년대에 가장 성행했고, 후에 비록 약간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교과서의 핵심 개념이 되었고, 그 영향이 실로 깊어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중국 중심관'의 해체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을 기초로 한 '충격과 대응 모델'은 20세기 중국 근대사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모델이었다. 그 외의 '전통과 근대 모델' 그리고 '제국주의 모델'[14] 역시 비정청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실질적으로 뒤의 두 모델은 비정청의 연구 모델과 차이가 없다. 모두 서구를 중심으로 보는 연구 모델로서, 정체상태의 중국이 서방의 자극 하에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10) Ssu-Yu Teng & John K. 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 A Documentary Surve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 1.

11) John K. Fairbank & Ssu-Yu Teng, Research for China's Response to the West :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12) John K. Fairbank & E. O. Reischauer,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John K Fairbank & A. Craig, East Asia : The Modern Transform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John K. Fairbak, E. O. Reischauer, and A. Craig,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3) Paul H. Clyde and Burton F. Beers, The Far East : A History of the Western Impact and the East Response(1830～1965), 4th rev.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6

14) '전통과 근대 모델'은 서구 근대사회를 세계 각국의 규범이자 중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체상태의 중국이 근대에 서구의 자극을 받아 비로소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인식한다. '제국주의 모델'은 근대 중국사회의 붕괴와 재난 그리고 중국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의 원인이 제국주의의 침입에 있다고 본다.

서구의 근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환했으므로 서구의 충격이 중국 근대의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비정청의 이론과 연구 모델은 20세기 70년대 이후 비판을 받았고, 그 중 가장 격렬하고 영향이 컸던 것은 柯文의 비판이었다.

가문은 그의 대표적 저작『在中國發現歷史－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에서 비정청의 '충격과 대응 모델'이 지닌 문제로 첫째, 서구세계가 선진적인 반면 중국은 낙후되어 있다는 선입견적인 전제, 둘째,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식민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 셋째, 이 모델이 중국 근대사 연구의 "문제의 전부를 해결해 주고", "일체를 포괄한다는 사고방식" 등을 꼽았다. 그는 '中國中心觀(China-centered approach)'을 제시하며 "외국에서 수입되어 (중국) 역사를 재단하는 척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중국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내부에서 변화의 동력과 형태를 찾고, 또 여러 학문분야의 함께 협력 연구할 것을 힘주어" 주장했다. 연구 자체를 놓고 말하자면, 그는 이론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말한 '中國中心觀' 자체가 일종의 이론의 틀이었다. 그가 반대한 것은 이론의 틀이 지닌 폐쇄성과 확장성이다. 필자가 보기에 가문이 중국 내부에서 중국 역사의 변천 원인을 찾자고 주장하며 비정청의 이론체계를 비판한 것은 서구 역사학이 내세우는 '근대' 모델과 그 기준에 반대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서구의 근대 이론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연구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90년대에 何偉亞는 논쟁을 불러일으킨『怀柔遠人－馬噶爾尼使華的中英礼儀冲突』을 출판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존 중국 근대사 연구의 서구적 기준과 체계를 해체하고자 했다. 그는 서구의 근대가 의지한 국제관계 이론이란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며, 위에서 말한 서구의 세 가지 연구 모델을 반대했다. 그는 이들 연구 모델이 '서구 선진/우월' 그리고 '중국 낙후/저열'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대'와 '근대화'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통상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 史料(事實)와 해석 사이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개방적인 사유를 통하여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제안했다. 심지어 그는 가문의 '중국중심관' 역시 단지 내부의 변화만 중시할 뿐 외부의 요인을 소홀히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기존의 연구 모델과 체계를 모두 비판하며, 非'서구중심'적이면서도 또한 非'중국중심'적인 연구 방법을 찾고자 시도했다.

조공제도로 '중국세계질서'를 해석한 비정청의 이론체계를 하위아는 특히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관을 이용하고, 中西關係의 전형적인 사건을 연구의 매개로 삼아 '근대', '권위', '체계'에 반대했는데, 비정청의 이론체계는 그 첫 번째 해체 대상이었다. 따라서 '역사학을 해체하고 다시 재건한다'는 각도에서 보면, 비정청의 이론체계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에 있어 비판과 해체의 대상이자, 동시에 의지할 기초이고 참고의 대상이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정청 이론체계의 영향이 심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중국세계질서'관과 중국 고대 변강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은 중국 근대 역사의 변천과 中西關係을 탐구하기 위한 거대한 이론체계이고, 그 출발점은 중외관계였다. 지적할 것은 그의 이론체계가 서구의 근현대적 의의를 지닌 중국의 대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일 뿐 아니라, 중국 강역의 발전, 치변과 관련된 사상,

정책 그리고 제도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의 '중국세계질서'관이 中西關係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중국 고대의 변강 연구에도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의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내용이 중국 고대 변강의 연구 및 연구의 심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근래 중국 변강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비정청의 '중국중심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그의 이론에 은연중에 부합하는 연구를 보여주거나 혹은 일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들이 조공제도, 민족관계 그리고 민족정책에 관한 적지 않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제한된 지면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專著 역시 잇달아 출판되었는데, 그 중 馬汝珩 · 馬大正 주편의 『淸代的邊疆政策』은 청대의 변강정책에 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이고, 薛宗正의 『安西与北庭－唐代西陲邊政硏究』는 唐代의 西北都護 제도를 검토했으며, 趙云田의 『中國邊疆民族管理机构沿革史』는 변강민족을 관리하는 역대 중앙 정부의 기구의 발전에 관한 연구이며, 王靜의 『中國古代中央客館制度硏究』는 역대 중앙정부의 貢使 접대를 검토했고, 李大龍의 『都護制度硏究』는 唐代의 都護와 도호 제도에 관한 것이며, 李大龍의 『唐朝和邊疆民族使者往來硏究』는 唐代 중앙정부와 변강민족 사이의 사신의 왕래 현황에 관한 연구이고, 劉爲의 『淸代中朝使者往來硏究』는 청대의 중국과 한국의 使者의 왕래 현황에 관한 것이며, 張永江의 『淸代藩部硏究－以政治變遷爲中心』은 청대 藩部 정치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고, 李云泉의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系体制硏究』는 조공제도의 기원과 발전을 고찰했고, 彭建英의 『中國古代羈縻政策的演變』은 중국 고대의 치변정책의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이상의 저작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국세계질서'관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 이론을 보다 심화시키기도 했다. 필자는 이들 연구들이 비정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변강의 형성 혹은 중국 변강 발전사의 각도에서 비정청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는 중국 변강사 연구 심지어 중국 변강학 구축에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론체계의 '구축'은 '해체'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이에 필자는 무모하지만 초보적인 感想을 다음과 같이 밝혀본다.

우선, 관념(의식형태)의 방면에 있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은 중화 공동의식의 형성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중국세계질서'관은 중국을 3개의 지대 즉 '중국화' 지대(혹은 '漢文系統' 지대), '내륙아시아' 지대 및 '외곽' 지대로 나누고, 이 체계의 중심은 우월한 문화, 제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 중심에 대한 '조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론은 '중화의식'의 변천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한다. 주지하듯, 고대에 華夏 국가들이 황하의 중하류 지역에서 등장한 뒤 주변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華夷之辨'이 강조됐었다. 이는 스스로가 주변의 민족과 다르다고 하는 화하족의 자아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15]王畿를 중심으로 구획한 '五服',[16]'六服' 및 '九服'[17]은 중화의식의 원시적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周 왕조가 쇠락하고 주변의 낙후된 夷狄들이 속속 중원에 진입하자 이적을 경계하는 관념이 강화되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15) 何芳川, 「"华夷秩序"论」, 『北京大学学报』 1998年 第6期

16) 『尙書 · 禹貢』

17) 『周礼 · 夏官司馬 · 裝方』

보면 이는 중화의식이 이를 계기로 강화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漢代 이후 오랜 민족 교류와 융합의 시기에 '以夏變夷'가 강조됐었는데, 이는 민족 융합의 시기에 중화의식이 주도적 작용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唐代에 이르자 태종은 "자고로 중화를 귀하게 알고 이적을 천하게 여겼지만, 짐은 모두를 하나같이 아낀다."라고 하여 '華夏一家'의 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宋元 시기의 왕조 분립과 충돌 그리고 정복과 역사적 인정은 '중화의식'의 또 다른 표현 형식이었다. 명청 시기의 '土司制度'와 '藩部制度' 그리고 청대 후기의 '改土歸流'와 省의 건립은 '중화의식'이 전에 없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청말에 이르러 민족혁명의 물결이 일자 양계초는 선도적으로 '중화민족'의 개념을 주창하며 '중화의식'과 근대 민족개념을 서로 결합시켰다.[18]신해혁명을 거치며 '중화민족'의 함의는 더욱 풍부해지고 명확해졌다. 이후 민주주의 혁명, 항일전쟁 그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을 거치며 전통적 함의와 근대 민족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화민족'은 새롭게 56개 민족을 포함한 多元一體의 중국의 대명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에, '중화의식'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조선과 일본 그리고 월남에 의해 널리 인정되었다. 비록 이들 국가가 이해하는 '중화'라는 것은 중국 문화의 典章制度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또한 '중국세계질서'의 광범위한 영향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간략한 설명으로도 잘 알 수 있듯이, '중국세계질서'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화의식이 있었다. 황제가 존재하던 시기에 이 의식은 지고무상의 위치에 있던 황제가 四夷를 제어하고 개화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의식과 우월한 禮儀文化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중화의식'의 핵심은 중국을 宗主로 하고 四夷를 附庸으로 하는 華夷一統의 大一統 理念이었고, 그러기에 "게으르고 난폭하지 않으면 四夷가 와서 朝覲할 것이라"고[19] 했었던 것이다. 당연히 현대의 중화민족 의식은 전통적 의식을 초월한 새로운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관념에 있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은 多元一體인 중국의 공통된 가치관의 형성과정을 잘 묘사해 준다. 그는 '중국세계질서'관을 설명하면서 '세계질서'의 최고 정점이자 天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 천자와 그의 무한 권위는 漢民族 뿐 아니라 변강지구의 소수민족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비단 漢族 왕조의 '천자'만 '천하'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변강지구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왕조의 '천자'도 역시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교 경전의 教義가 그 핵심적 내용이고,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모범적 기준인 德은 '전인류(이적을 포함한)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도덕적 기초'[20]였다. 이 이론은 변강 지구의 '이적'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교화할 황제의 '德'을 한없이 흠모하게 하고, 변강을 '德化'하는 교의로 발전했다. 그래서 "선왕은 文德을 닦음으로서 遠人을 위무하였고, 이적이 朝覲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고[21] 한 것이다. 동시에 德은 황제가 천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자, 능히 천하를 위무하고

18) 梁启超,「中国学术思想变迁之大势」(1902年) ; 梁启超,「历史上中国民族之观察」,『新民丛报』第65 · 66号, 1905年 3 · 4月 连载

19)『尙書 · 大禹謨』

20) John King Fairbank,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 1854.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p. 27.

21) [美] 费正清 · 邓禹嗣,「论清代的朝贡制度」, 14쪽에서 재인용

군림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준칙이었다. 천하에 군림하는 자가 '華夏'人인지 아니면 변강의 '夷狄'人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德'이 天道에 합당한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기에 "오직 德을 가진 자만이 군주가 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필자는 '중국세계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이 중국 다민족 국가의 형성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한족 왕조나 소수민족 왕조를 가리지 않고, 또 전중국을 한족이 통치하건 소수민족이 통치하건 가리지 않고 그 왕조와 황제들은 중국 역사상의 각 민족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치 제도와 정책 방면에 있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은 중국 변강 통치의 제도를 총정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역대에 걸쳐 승계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보충되었지만 변강지구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그 제도는 조공제도, 기미제도, 번속제도 그리고 조공무역이 포함한다.

조공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록 후의 많은 사람들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를 간단히 조공제도와 등치시켰지만, 그의 본의에 있어서나 조공제도의 실제 내용과 기능에 있어서나 양자는 동일시 될 수 없다. 변강사 연구의 각도에서 보면 더욱 그러한데, '중국세계질서'는 조공제도의 이론적 기초일 뿐 아니라, 후자는 전자의 제도적 표현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기미제도. 중국 역대 왕조는 모두 변강 지구에 기미제도를 실시했다. 혹자는 이를 정책이라고 보았지만,[22]역대에 걸쳐 계승된 것을 보면, 필자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론적 기초는 역시 '중국세계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번속제도. 중국의 종법제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번속제도는 역대 왕조들이 변강을 통치하는데 활용한 하나의 제도였다. 비정청은 '중국세계질서'를 논하며 이 제도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번속을 內藩과 外藩으로 분류했다.[23]혹자는 그가 분류한 근거와 관심을 가진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24] 내가 보기에 비정청이 중국 고대 번속의 복잡성에 주의하지 않았을 리 없다. 특히 '外藩'이 '內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 그의 결론은[25] 중국 변강 연구에 참고할 만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공무역. 비정청은 '중국세계질서'를 논할 때 조공에 수반된 무역 활동에 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이를 '조공무역'이라 불렀다. 서구 학자로서 그는 중국 근대사 연구를 중국 연해의 대외 무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중국 고대 조공의 '厚往薄來'[중국이 厚한지 아니면 조공국이 厚한지 분명치 않음－역자]와 변강 지구의 '互市'를 고찰한 뒤 그것을 '조공무역'으로 개괄하였다. '조공무역'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무역활동의 본질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었고 또 연구를 심화시켰다. 일본 학자 빈하무지는 경제 무역의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고 심지어 '조공무역체계'라고 명명하며 근대 서구의 자유무역에 견주었다.[26] 빈하무지는 비정청의 연구 방법을 십분 활용하여, 전지구적 범위와 근대의 세계역사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조공무역체계'를 설명하고, 그것이 근대 중국과 아시아의 발전에서 갖는 의의를 밝혔다. 필자는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변강과 內地의 경제 관계를 밝힌

22) 彭建英.「中国古代羁縻政策的演变」

23) [美] 费正清编, 中国社会科学院历史所编译室 译,『剑桥中国晚清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5年版, 上册, 32～33쪽

24) 张永江,『清代藩部研究 — 以政治变迁为中心』, 黑龙江教育出版社, 2001年版, 34쪽

25) John King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8

26) [日] 滨下武志 著, 朱荫贵·欧阳菲 译,「近代中国的国际契机 — 朝贡贸易体系与近代亚洲经济圈」

조공무역은 중국의 변강 형성과정에 있어서 단지 왕조의 정치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그 무엇이 아니고,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고 연구를 심화시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는 내지의 왕조가 변강을 '來化'한 文化主義를 역사상의 내지와 변강의 문화 교류와 융합의 수단으로 묘사했다. 현대의 학자는 일체감(identity－역자)의 기준으로 귀속성, 문화성, 강역성, 정치성, 경제성 그리고 사회성 등 여섯 가지를 들고, 그 중 문화적 일체감이 민족 또는 국가에 대한 일체감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27]고대 중국에 있어서 服飾과 禮儀로 대표되는 중화문화에 대한 일체감은 '華夷'를 구분하는 극히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管仲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머리를 늘어뜨리고 옷을 왼쪽으로 여미고 있을 것이다."라고 감탄했던 것이다.[28] 이는 단순히 복식에 대한 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이 일체감을 가늠하는 文化符號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春秋左傳正義』에 "服章의 아름다움이 있어 華라 하고, 禮儀의 위대함이 있어 夏라 부른 것이다."라고 한 것은 '복장'과 '예의'를 강조한 것이다. 복식으로 華夷를 구분했기에 "冠帶를 갖춘 것을 보아 諸華임을 알고, 편벽된 곳에 거주하는 것을 보아 遐裔임을 안다. 中外를 구분한 것이 오래되었다."라고[29] 했던 것이다. 심지어 '冠帶'가 '華夏'를 대신 가리킬 정도였으므로 "관대의 지역을 안으로 하고, 이적을 밖으로 하였다"라는 말이 나왔다.[30]복식문화에 대한 일체감이 '夷夏'를 구분하는 상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화문화의 핵심인 '禮儀'는 더욱 그러했다. '이적'과 '화하'의 근본적인 구분은 종족이나 혈연에 있지 않고 '예의' 문화에 대한 일체감 여부에 있었다. 唐代의 韓愈는 공자의 사상을 한층 더 명백히 하며 "제후가 夷禮를 쓰면 이적으로 대하고, 중국 안으로 들어오면 중국으로 대한다"라고 했다.[31]이 같은 문화 지상주의는 심지어 중국 사상의 정통으로 인식되었다.[32]그러므로 "중국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예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33]라고 했던 것이다. 비정청은 그의 이론에서 유교 학설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儀式으로서의 禮儀를 강조했다.[34]

이 방면에 관한 비정청의 이론을 黃枝連는 '礼治体系'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문화의 각도에서 또 다른 '諸夏秩序'觀을[35]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연구가 국제관계라는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국가관계를 연구하는 데 치중하고, 禮儀文化라는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내지와 변강의 융합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서구의 학자들 역시 중국 고대의 禮治에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의 저명한 漢學者 汪德邁(Lion Vandermeer-sch)는 "예치는 사회를 통치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27) [美] 塞缪尔·亨廷顿 著, 程克雄 译,『美国国家特性面临的挑战』, 新华出版社, 2005年版, 24쪽

28)『论语·宪问』

29)『晋书』권97「四夷」

30)『史记』권27「天官书 第五」

31) 韩愈,「原道」

32) 梁漱溟,『中国文化要义』, 学林出版社, 1987年版

33) 陆九渊,『象山全集』권23『四部备要』本

34) John King Fairbank,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 pp.9～10.

35) 黄枝连,『天朝礼治体系研究』上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2年版

예치를 이용하여 사회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禮儀가 중국 특유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의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다만 중국 전통사회에서 각종 이익은 대단히 완정된 형태로 조직되었고, 사회활동 중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되었다."라고 말했다.[36]필자가 보기에 왕덕매는 다만 예치하의 질서정연한 중국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중국 고대에 내지와 변강이 '差序' 구조 속에 있었고, 禮治上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 그럼에도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과 그것이 밝힌 '문화주의' 혹은 '예의문화'는 중국 고대 변강 통치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개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다섯째, 현대 중국의 강역 형성과 그 구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은 중국의 변강지구와 多元一體의 국가인 중국의 구성에 대한 인식과 묘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방관자의 신분으로 바깥에서 중국 다민족 역사의 융합 과정을 묘사하고 중국 강역의 형성을 개괄했다. 비록 그의 모든 관점을 다 찬성할 수 없고, 또 이론의 구성상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문제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외번'의 '내번' 전환론,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문화주의'론 등은 중국 다민족 국가의 구성과 多元一體의 국가형태가 중국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잘 설명해 준다.

현대 중국의 최종적인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비정청이 말한 '중국세계질서'가 점차 서구의 '조약체제'에 의해 대체되어 가는 과정은 곧 '문화중국'이 '영토중국'으로 대체되어 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세계질서'관은 영토와 주권에 관한 명확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어 "하늘 아래 王土가 아닌 곳이 없고, 온 누리에 王臣이 아닌 자가 없네"[37] 라고 했다. 天朝의 예의 문화를 인정하기만 하면 천조 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중국은 '문화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청은 서구의 '조약체제'가 '중국세계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최초에 서구인이 중국에 수립한 '廣州體制'에서 '조약체제' 하의 공동 관리로 발전하고 마침내 '중국세계질서'가 '조약체제'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설명했다.[38]비록 비정청은 정치, 외교 그리고 무역 방면의 연구에 치중하여 이러한 과정을 연구했지만, 필자는 이 시기에 여러 차례 있었던 변강 위기와 영토 할양 그리고 불평등 조약을 통한 영토의 확정과 변강 지역에 省을 설치했던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변강의식이 큰 도전을 받아 중대한 전환을 이룬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영토주권이 서구의 '조약체제'에 의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은 곧 중국의 전통적 변강이 내지와 일체화를 이루는 改造過程이었으며, 바로 이 시기가 모호한 중국 전통의 '문화중국'이 경계선이 확실한 '영토중국'으로 전환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비록 타인의 '規則'에 굴복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항쟁 그리고 영토 상실을 동반했지만 그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변강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비정청의 '중국세계질서'관과 그것과 대비된 서구의 '조약체제'는 보다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체계 속에서 중국 변강의 발전 과정, 변강과

36) [法] 汪德迈,「礼治与法制 — 中国传统的礼仪制度与西方传统的 (JUS) (法权) 制度之比较研究」,『儒学国际学术讨论会论文集』, 齐鲁书社, 1989年版

37)『春秋分记』권76

38) John King Fairbank,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 pp. 462～468. John King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p. 257～276 ; [美] 費正清 · 賴肖爾 著, 陳仲丹 等譯,『中國:傳統与變革』, 江蘇人民出版社, 1992年版, 262～308쪽

내지 관계의 변천과정, 변강이 현대의 국제 체계 중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과정 등을 연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글을 끝맺기 전에 설명해야 할 것은 본문이 비정청의 『中國世界秩序 : 中國傳統的對外關系』를 전면적으로 평가한 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이론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필자는 그가 思辨에 능하며, 그의 '중국세계질서'가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 및 이론의 틀이 중국 고대 변강 연구에 특히 이론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本文責任編輯 李大龍〕

2기 [邊疆史地 2006年 2期]

「东北新石器文化格局及其与周边文化的关系」

赵宾福, 『中国边疆史地研究』 2006-2

폐쇄적인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동북 지구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考古 文化區를 형성했었다. 이미 수백 개의 신석기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지금으로부터 8,000 년에서 4,000 년 전까지의 신석기 유적은 선명한 구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적지의 층위, 器物의 형태 비교, 탄소 14의 측정 수치 등을 근거로 하여, 동북지구 11개 문화구의 신석기 문화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3단계 7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유적지의 분포, 위치, 묘장, 생산 공구, 생활 용구, 원시 예술품, 경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동북지구 신석기시대 고고학 문화는 7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었다. 즉 첫째, 대부분이 하천의 臺地에서 발견된다는 것, 둘째, 발견된 석기는 압제, 타제, 마제 등 3 종이라는 것, 셋째, 발견된 陶器의 대부분이 생활 중에 사용되던 취사 용구, 음식 용구, 저장 용구였다는 것, 넷째, 거주 공간이 원형 혹은 圓角方形의 半地穴式이라는 것, 다섯째, 모두 4종의 묘장 방식이 발견된다는 것, 여섯째, 陶質과 玉石質 그리고 뼈와 뿔 등으로 된 다양한 원시 예술품이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일곱째, 지역에 따라 생업의 방식이 크게 달랐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각지의 문화를 비교 연구해보면, 동북 문화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고고 문화구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중원지구, 산동반도 지구, 러시아 바이칼호 지구, 러시아 遠東南部 지구, 한반도 지구의 선사시대 문화와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渤海致日本礼物探析」

滕红岩, 『中国边疆史地研究』 2006-2

중국과 일본의 고대 문헌 속에 보이는 발해가 일본에 보냈던 예물에 관련된 기사를 자료로 하여, 그 역사적 과정, 예물의 전송 경로, 빈도, 전송의 방식 등을 검토하고, 발해가 보냈던 예물의 종류와 그 산지 그리고 수량 및 관련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발해와 일본 사이의 예물 외교가 지녔던 역사적

본질, 예컨대 일본이 예물 접수를 거부한 사례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일본이 발해에 대하여 上國으로 자임했으나 발해가 이를 인정치 않았으며, 또한 양국은 끝내 일본의 '上國地位'에 관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试论入关前清与朝鲜关系的演变历程」

孙卫国,『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건주 여진이 흥기하기 이전, 조선과 여진 諸部는 일종의 불평등 관계에 있었다. 조선은 정주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滿族을 이적시하고 있었다. 건주 여진이 나날이 강성해지자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명조와 후금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려 했지만, 반정으로 축출되었다. 청조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처음에는 조선을 형제국으로, 나중에는 번속국으로 만들었다. 조선은 침략을 받은 과정에서 시종 존왕양이의 유가적 의리관을 고수했고, 항복한 다음에도 여전히 명조와 몰래 왕래하고 있었다. 청조는 입관 후 조선 내에 존재하는 적대감과 원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덕화정책을 펼쳐 조선에 혜택을 베풀었다.

「"中国" 一 词和中国疆域形成再探讨」

杨建新,『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중국'이란 단어의 함의는 긴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의 함의와 오늘날의 '중국'의 함의는 크게 다르다. 역사상 '중국'의 함의는 모두 다섯 차례의 큰 변화를 거쳤는데, 최초에 즉 西周 이전에는 요순 등의 제왕이 거주하는 '都城'을 의미했고, 서주에서 전국 시기까지는 四夷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였으며, 주로 周의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중원지역을 가리켰다. 秦漢에서 隋唐까지는 華夷를 구분하는 문화적 개념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점차 희박해지면서 주로 중앙정부가 통치하는 지역 즉 중원지역을 의미했다. 그러나 宋元明 시기에 이르면, 민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화이구분이라는 개념은 더욱 담박해지고 '禮義'의 실행 여부, '正統' 여부 등 문화적 개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청대에서 민국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중국'의 함의가 완성되었는데, 특히 서구의 국가관념, 민주적 법제 등의 영향이 컸다. 이 시기의 '중국'은 중원과 漢族의 별칭이 아니라 현대 중국의 제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즉 영토상으로는 중국의 변강과 內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고, 민족상으로는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며, 정치상으로는 전국에 내려지는 政令이 통일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 이런 '중국'의 함의는 이후 民國에도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강역이 형성되는 방식에는 오늘날의 新疆 즉 고대의 西域이 주동적으로 중원왕조에 접근하여 교류하면서, 봉헌과 귀속의 형식을 통하여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는 '開拓式'과 西藏의 藏族이 전통적 중국 판도에 주동적으로 진입하여 현지의 각 민족과 융화된 뒤 마침내 중국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嵌入式'이 있었다. 이 두 방식 모두 중원지역이 강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历史语境中的王朝中国疆域概念辨析 — 以天下, 四海, 中国, 疆域, 版图为例」

毕奥南,『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강역 개념은 국가이론의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수천 년 역사의 고대 중국을 뭉뚱그려 '우리나라(我國)'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통시대 중국과 현대 중국의 국가 성격이 다르고, 또 강역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다. 역사상 강역 개념과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5개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들 용어들이 역사상의 언어환경에 따라 語義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하'는 '중국'과 '四夷'를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와 '중국'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천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四海'는 지리나 方位의 개념이 아니라 先秦 시기의 사람들이 주변의 제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뭉뚱그려 표현한 용어였으며, '중국'은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역대의 왕조에 따라 그 범위 역시 달랐으므로 '중국'이라는 용어로 역대 왕조를 모두 묶어 표현할 수는 없다. '강역'과 '版圖' 모두는 통치 영역을 의미했는데. '판도'는 국가의 행정구역을 의미했지만, '강역'은 왕조의 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했으므로 '판도'보다 범위가 넓었다. 이처럼 강역 개념에 관련된 용어들의 原義가 역사상의 언어 환경에 따라 달랐으므로 학술 용어로 사용할 경우 구분할 필요가 있다.

「魏源的边疆史地研究述略」

伍成泉,『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청말 특히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는 변강사지학 크게 성했었다.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고조된 위기 속에 일부 관료와 지식인들이 역사 연구를 통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변강사지학은 이 같은 經世的 분위기의 결과였다. 그 중 魏源은 乾嘉學者의 고증 학풍을 이어받아『圣武記』14권,『海國圖志』100권,『元史新編』과 같은 저서를 저술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방략을 강구했는데, 이들 저술은 그의 변강사지학 연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관찬 전적들에 변강 관련 기록이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원사신편』를 통하여 서역의 지리를 소상히 밝히고,『해국도지』와『성무기』를 통하여 러시아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그는 읽기 어려운 변강의 지명을 漢譯하고 또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종 기록의 상충되는 부분을 절충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위원은『성무기』에서 강력한 중앙왕조를 중심으로 한 다민족의 응집을 강력히 희망했다. 그리고 야심 때문에 혹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족 간의 모순을 극복하고 다민족의 응집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안으로 내치를 다져 국세를 신장하고, 각 민족에게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복종케 하며, 邊吏를 신중히 선발하고 종교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변강의 개발과 건설을 통하여 변강의 방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변강 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략까지 제시했다. 이와 같은 그의 관점과 대책은 전통적 변강사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현실적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论唐代渤海国儒学文化教育」

周喜峰,『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唐朝의 지방 정권이었던 발해는 당조의 정치제도 뿐 아니라 교육제도까지 당조를 모방했고, 중원의 유학문화를 그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유학문화는 원시사회 내지 노예사회의 상태에 있던 발해 사회를 봉건사회로 진입시켰고, 중원의 선진 경제의 기술과 경험을 학습케 함으로써 발해 경제를 번영시켰다. 당조의 賓貢科에 참가한 발해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해의 유학문화 교육은 성공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발해문화의 漢化를 촉진시켰다.

「黑水靺鞨思慕部探索」

冯恩学,『中国边疆史地研究』2006-2

唐代의 '黑水'는 穆棱河와 烏蘇里江 및 그 支流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흑룡강 중하류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結雅河 하류에서 발견된 特羅伊茨基墓地 유적은『新唐書』의「말갈전」에 나오는 흑수말갈 思慕部의 유적으로, 송화강에서 옮겨온 粟末靺鞨의 유적이 아니다. 사모부 문화의 특징으로는 초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원래 말갈족의 인종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 원류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결아하 하류에서 발견된 유적은 사모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흑수말갈 전체를 대표한다든지 혹은 말갈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는 차후의 더 많은 발굴과 연구 통하여 밝힐 문제다.

3기 [邊疆史地 2006年 3期]

「先秦国家形态与疆域, 四土刍见 — 以殷商国家叙述为主」

厉 声,『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지난 세기 80년 이래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중화문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先秦 시기의 국가형성과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역대의 변강 통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역대의 변강 통치 방식이나 정책의 원류를 선진 시기에서 찾고자 시도했었다.

그런데 선진 시기의 早期國家 즉 夏商周 왕조의 강역은 천하의 중심인 王畿와 왕기 주변에 병렬적으로 존재했던 '四土四方' 즉 제후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하상주 왕조는 국가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조기국가의 형태로 진입하긴 했지만, 당시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씨족부락의 연맹이라는 정치적 분산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상주 왕조의 국가는 왕기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 맹방 구조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까닭에 진정한 의미의 변강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선진 시기의 변강은 단지 먼 곳에 위치하는 제후국 또는 거리적으로 먼 지방을 의미할 뿐 이었다. 이후 기원전 221년 秦朝의 천하통일과 군현제의 전국적인 실시 이후 비로소 변강 개념이 발생했던 것이다.

「构筑中国疆域的文明板块类型及其统合模式序说」

于逢春,『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중국의 강역은 역사적 연원이 서로 다르고, 문화적 전승이 상이한 다섯 개의 文明板塊 즉 泛中原農耕文明板塊(약칭 農耕板塊), 大漠遊牧文明板塊(약칭 遊牧板塊), 東北漁獵耕牧文明板塊(약칭 東北板塊), 雪域牧耕文明板塊(약칭 雪域板塊), 海上文明板塊(약칭 海上板塊)가 장기간의 충돌과 공방, 그리고 상호간의 융합과 화해를 거쳐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원전 200년 전후에 흉노의 冒頓單于가 大漠遊牧區를 통일하고 또 기원전 100년 전후에 서한 무제가 農耕區를 통일한 이후 오랜 과정을 거쳐, 1820년에 이르러 마침내 清帝國이 국제법적 의의를 지닌 국가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중국의 강역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강역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중원왕조를 중심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보다 거대한 시각에서 중국 강역의 형성 추세와 그 模式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들 5대 문명판괴의 발전 추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원전 9~8세기에 이미 성숙한 문명을 형성했던 유럽과 아시아의 초원지대가 기원전 200년 전후에 흉노의 묵특선우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유목판괴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농경판괴는 진시황의 천하통일과 서한 무제의 영토 확장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확정되었다. 西藏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설역판괴는 6세기 후반 吐蕃이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7세기 초 松贊干布의 청장고원 통일을 거쳐 贊普赤松德贊 시기에 이르러 강력한 왕조를 건설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확정되었다. 토번의 문명은 황하문명과 인도문명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의 영향하에 형성된 것이었다. 이후 元朝 시기에 이르자 크게 흥기한 이른바 黃教를 통하여 설역판괴는 다시 한 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동북판괴 경우, 농경판괴와 유목판괴 사이에 의존적으로 존재하다 12세기 초 金朝에 의해 기본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동북판괴가 유목판괴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목문명과 농경문명의 장점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할린섬에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섬의 사이에 존재하는 오호츠크해, 일본해, 황해, 동해, 남해, 술루해 등의 해역 주변에 존재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구성된 해상판괴는 서한 시기 해상 실크로드의 개척과 특히 남지나해의 발견으로 그 초보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명청 시기에 실시된 海禁 정책으로 다소 위축되었지만 15세기 전후에 하나의 무역권을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상의 다섯 문명판괴는 흉노와 서한의 대립, 天可汗이 되어 유목판괴와 농경판괴를 최초로 통합한 당 태종의 唐朝와 토번의 대립, 元朝에 의한 육지 강역의 최초 통합과 해양 강역으로의 진출, 清朝에

의한 최종적인 5대 판괴의 통합이라는 큰 줄기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5대 판괴를 결합시킨 것은 중국 고유의 인문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藩属"与"宗藩"辨析 — 中国古代疆域形成理论研究之四」

刘志扬 · 李大龙,『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藩屬'과 '宗藩'은 고대사와 근대사의 저작들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양자의 함의와 그 차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직까지 없었다. 즉 명확한 개념 정리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期刊網에 있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의 관련 논문에는 두 용어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첫째, '종번'이 明淸 왕조와 월남, 조선, 미얀마, 유구 등과 같은 주변 왕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논문의 95%가 이런 용법으로 '종번'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종번'과 '번속'이 같다고 여기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책봉조공 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번'을 고대 왕조에서 지방의 제후를 책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번속'을 중국 통일왕조의 지방정권의 또 다른 형식으로도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번속'이 淸代에 비로소 등장한 개념이며, 중국의 정삭을 받들고 조공하는 국가의 의미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계에는 두 용어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일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번속'은『明實錄』에 최초로 등장하며, 주로 조선, 월남, 유구, 미얀마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따라서 '번속'은 우선 청조와 밀접한 조공관계를 유지한 청조 주변의 민족 혹은 정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번속'은 '外藩' 혹은 '內藩'으로 불렸던 몽고의 各部, 回部, 서장 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정권 사이의 예속관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조 주변의 '속국'과 변강의 일부 정권이 '번속'의 함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번'은『史記』에 최초로 등장하며, 漢代에 지방에 분봉된 제후왕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分封 제도는 先秦 시기에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선진 시기의 史籍에도 '종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후대에도 여전히 同姓의 제후왕 혹은 황실의 후예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종번'이 상당히 고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고대 왕조와 주변국가 사이의 국제관계를 지칭하는 함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번속'과 '종번'은 그 함의가 명확히 달랐다. 따라서 중국 고대 왕조와 주변민족 혹은 정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번'보다 '번속'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贡制度的理论渊源与时代特征」

李云泉,『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先秦 시기에 기원한 조공제도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四夷를 '羈縻'하는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공제도는 漢唐 시기의 발전을 거쳐 明朝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공제도의 이면에는 선진 시기 이래의 華夏 중심 의식과 大一統 사상 그리고 이른바 '事大事小'의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른 고대문명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다른 문명과 달리 중국의 자기중심적 관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었고, 그것은 조공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중국을 宗主로 하고 주변의 이적을 藩屬으로 하는 華夷一統을 이상으로 하는 대일통 사상도 역시 조공제도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맹자가 교린의 원칙으로 언급한 '사대사소'의 관념은 번국의 사신 파견과 朝覲納貢 그리고 연호의 채택 그리고 중국의 책봉과 回賜 등의 형태로 조공제도 반영되었다. 한편, 고대 중국이 시행한 조공제도는 일관되게 '厚往薄來'의 원칙을 고수했다. 혹자는 이를 경제적 이익을 무시한 원칙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후한 책봉과 회사 등을 통하여 역대의 왕조는 사이 가운데서 중국을 지킨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

조공제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대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번국 사이에 비록 조공제도가 실행되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즉 번국의 중국에 대한 臣屬과 중국의 번국에 대한 통치가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臣'과 '治'가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양상은 '臣而不治', '亦臣亦治' 그리고 '不臣不治' 등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었다. 둘째, 조공제도에 수반되는 각종 禮儀가 당시의 형세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셋째, 조공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의미를 혹자는 대단히 강조하지만, 조공제도는 원래 농후한 정치적, 禮儀的 색채를 띤 제도였고, 조공과 회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란 양측 모두에게 미미한 것이었다. 역대 왕조는 모두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고, 단지 明代에 海禁 정책의 영향으로 무역이 위축되자 조공이 지니고 있는 무역적 성격이 중요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古代西北疆域研究若干问题的思考」

田 澍 · 杨军辉,『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중국 고대의 서북 강역 문제는 변강사지 연구 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고, 근대 이후 한때 서북 강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西北學'이 등장한 적도 있었다. 20세기 80년대 이후 서북 강역사 연구 열기는 다시 고조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가 심화되어 서북 강역 연구는 區域史 연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 강역의 변천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역사상의 중국에 관해서는 현재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역사상의 각 시기에 중국의 주요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충분히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 혹은 여러 정권을

역사상의 중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이와 달리 현재의 중국 강역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각 민족과 각 정권의 역사상의 상황을 역사상의 중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역사상의 중국 강역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연히 각 시대에 존재했던 왕조의 강역을 역대 국토의 범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周偉洲 등의 주장이 있다. 즉 각 시기의 통일왕조의 강역을 역사상의 중국 강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白壽彝는 20세기 50년대 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상의 국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이 지난 뒤『中國通史』의 편찬을 주도하며 또 다시 일부 역사학자들이 皇朝의 강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譚其驤은 아편전쟁 이전의 청조 판도는 자연히 형성된 중국 역사상의 최대 판도라면서 마땅히 18세기 50년대에서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 발생 이전까지의 중국 판도를 역사상의 중국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관점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역사상 각 시기의 왕조 혹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강역을 당시의 중국 강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강역사는 이들 각 시기의 왕조의 영역이 계승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은 중국 강역이 부단히 변화해 온 과정을 잘 포착할 수 있지만, 역사상 분열 시기의 강역이 지닌 복잡한 측면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 둘째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강역 범위 혹은 현재의 중국 강역 범위를 역사상의 중국 강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끊임없이 변화한 고대의 강역을 하나의 확정된 강역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재단함으로써 강역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서북의 강역을 연구할 경우, 당연히 중국의 강역이 복잡하게 변화했다고 하는 動態的 시각에서 그리고 중원왕조의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연구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강역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핵심 疆域區과 일정한 자치가 허용되고 중앙에 대한 일정한 책무를 수행했던 羈縻 강역구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두 강역구 모두 중국 강역의 주요한 부분이다. 서북 강역은 물론 기미 강역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역구의 지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서북 강역 연구에는 필수적이다.

또한 서북 강역의 형성을 연구함에 있어 민족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서북 강역에 시행되었던 민족정책이 서북 강역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그리고 서북의 각 민족이 중화민족 형성 과정에 보여준 자발적 참여는 서북 강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내재적 원인이었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북 강역이 지닌 군사전략적 가치는 역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북 강역을 경영했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 지역에 수축된 장성이나 둔전의 경영 등은 모두 서북 강역이 지닌 군사전략적 측면과 관련이 깊었다. 그러므로 서북 강역의 형성을 검토함에 있어 그 군사전략적 가치와 지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简牍所见汉代边塞徼巡制度」

汪桂海,『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漢代에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부의 변경에 邊塞와 亭隧(隧는 사료에 혹 燧 등으로도 표기되기도 한다)를 설치하고, 戍卒을 배치하여 지키게 했다. 居延과 돈황 등지에서 발견된 한대의 간독을 살펴보면 당시의 변경에는 대단히 엄격한 정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정수의 吏卒들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서야 했고, 매일 天田을 관찰하여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또한 변새의 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여 매달 상부에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을 넘어 도주한 자가 있으면 자신의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수색하고 범법자를 체포해야 했다. 한편, 수졸과 달리 책임자인 候長, 候史 등은 자기의 관할지역을 매달 한 번씩 순찰해야만 했다. 한대의 변새 정찰제도는 물론 흉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漢人의 불법 월경과 도주를 저지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幽州镇与唐代后期政治探析」

冯金忠,『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唐代 河朔三鎭의 하나였던 幽州鎭는 전형적인 할거 번진의 하나였다. 하북의 북부에 위치하여 삼진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유주진은 넓은 판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었다. 비교적 외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에다 내부에 빈발하는 군란으로 인해 삼진 가운데 중앙의 조정에 대해 가장 공순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원래 유주진은 당 현종 시기에 설치된 열 개의 절도사 중의 하나였던 幽州節度使가 그 전신이었다. 天寶 4년(755) 유주절도사이었던 안녹산은 유명한 안사의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안사의 난이 끝나갈 무렵 유주절도사를 임시로 맡고 있던 李懷仙이 투항하자 조정은 그를 그대로 유주절도사로 임명했다(763). 이때부터 시작된 유주진의 역사는 913년 李存勖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모두 150년 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번진 내부에 변란이 끊이지 않아 줄곧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번진 휘하의 장수들이 이처럼 빈번하게 변란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관내 주현의 관직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권외에 일정한 정도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 29명의 유주절도사 가운데 16명이 변란을 통하여 절도사가 되었다. 여기에다 조정의 간섭이 끊이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유주진이 조정에 대해 대단히 온건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주진은 魏博과 成德과 같은 번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번진들 가운데 비교적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앙의 조정에 공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하삭삼진의 정세를 조정했으며, 다른 번진에 비해 유주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주진이 조정에 공손한 것도 상대적인 것이었다. 즉 유주진은 독립적으로 관내의 인사를 행했으며, 조정에 각종 租賦를 낸 적도 없었다. 그리고 이해가 충돌되면 조정에 대항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순종과 반역의 양 극단 사이를 오간

것이 바로 다른 번진과 비교되는 유주진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第三届中国边疆史地学术研讨会述要」

刘清涛,『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운남대학 서남변경 소수민족 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중국변강사지 학술대회가 2006년 8월 7~8일에 昆明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중국 강역 이론 연구'였으며 70여 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1. 강역 이론 연구

강역 이론은 줄곧 변강사지 연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대회는 학과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강역 이론의 연구를 주제로 정했다. 강역 이론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중국 강역의 형성, 고대의 강역 관념과 치변사상, 역사상의 번속 혹은 종번관계, 역사상의 중국 강역, 中外의 강역 이론 연구 및 비교 등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⑴ 중국 강역의 형성 문제

于逢春은 「构筑中國疆域的文明板塊類型及其統合模式序說」을 통하여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특징에 근거하여 중국 강역을 유목, 농경, 어렵, 雪域 그리고 해양 등 5대 板塊로 구분하고, 이들 5대 판괴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충돌과 공방을 거쳐 근대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융합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 판괴의 융합에는 지리적 기초도 있었지만 意識的 기초도 있었으며 그것은 곧 고대의 '大一統'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厲聲은 「先秦國家形態与疆域, 四土芻見 — 以殷商國家叙述爲主」에서 商과 周 왕조는 국가 형태상 다원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일종의 '國家盟約體制'에 의해 국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의 강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安京은 「論中國上古疆界的産生与嬗變」에서 국가는 지역관계를 연결고리로 하여 형성된 사회조직이며, 국가의 疆界는 이런 관계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夏商周 三代가 '邑'을 연결고리로 하여 형성된 사회조직이었지만, 춘추전국 시기에 이르러 직접적 통치가 점차 주요한 통치방식이 되면서 지역관계가 주체적 사회관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畢奥南은 「從邑土國家到領土國家的邊疆 — 先秦時期邊疆形成考察」을 통하여 선진 시기 중국의 강역이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⑵ 강역관과 치변사상

方鐵은 「古代"守中治邊", "守在四夷"治邊思想初探」에서 선진 시기의 '五服' 혹은 '九服' 학설에서 연원한 '守中治邊'과 '守在四夷' 사상은 고대 治邊思想의 핵심으로 양한 시기에 이르러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지적했다. 黎小龍은 「試論兩漢邊疆思想与邊疆觀, 治邊觀」에서 양한 시기에 있었던 변강 사상에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疆域觀과 治邊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對內 지역과 변강의 관계에 관한 인식을 포함한 국가 강역의 구성과 범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국가의 강역에서의 변강민족 지역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역대 각 시기 마다 강역관과 치변관이 서로

맞물리면서 때에 따라서 혹은 강역관이 우세하고 혹은 치변관이 우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方의 「試論唐朝的"中國", "天下"概念」은 唐代에 '중국'은 '內地'로도 불렸으며, '천하'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각각 나뉘어 사용되었는데, 특히 협의의 '천하'는 唐朝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핵심 부분을 가리켰으므로 '중국'이 곧 '천하'의 핵심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馬玉華는 「民國時期的治邊思想研究」에서 민국 시기에 민족주의의 영향과 변강의 위기로 인해 새로운 민족관과 변강관이 형성되었다고 이해했다. 즉 '華夷之辨'의 관념에서 일원적인 중화민족 관념으로, 민족 차별에서 민족 평등으로, '先華夏後夷狄'에서 변강 중시로 변했다는 것이다. 肖瑞玲의 「清前期"分而治之"与"近疆固守"治邊思想探微 — 以治理漠南蒙古地區爲例」는 청조가 현지의 풍속에 근거하여 통치한다는 전통적 방식과 기미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으며,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면 이에 맞는 새로운 치변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3) 번속과 종번관계

李大龍은 「"藩屬"与"宗藩"辨析 — 中國古代疆域形成理論研究之四」에서 '藩屬'과 '宗藩'의 개념을 분석하여 '종번'이 西漢 시기의 『史記』에 최초로 등장하며, 황실의 종친과 지방에 분봉된 황실의 성원을 지칭한다는 것과 오늘날 학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중국 왕조와 주변 국가 혹은 정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번속'은 明淸 시기에 형성되었지만 중국 왕조와 주변 국가 또는 정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함의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에 고대 중국의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에 '번속관계'로 표현할 것을 제의했다. 黃松筠은 「中國古代藩屬制度實爲國家政体說」을 통하여 번속관계가 군주체제에서의 왕권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고, 통일 왕조에서 지방정권을 구성하는 또 다른 형식이며, 번속제도는 중앙의 정권과 번속 간의 예속관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조의 政體를 구성하는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공제도에 관하여 許建英은 「論朝貢－冊封体制的擬宗法化性質 — 以漢代爲中心」에서 漢代에 확립된 조공－책봉 체제가 종법 사상의 기초 위에 형성된 것이며, 그런 까닭에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張云은 「甥舅關系, 貢賜關系, 宗藩關系及'供施關系' — 歷代中央政府与西藏地方關系的形態与實質」을 통하여 역대 왕조와 西藏 지방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근대 이래의 번속관계에 대해서는 孫宏年의 「清代藩屬觀念的變化与中國疆土的變遷 — 以中國与周邊鄰近的屬國問題爲中心」은 서구의 충격이 있은 뒤 청조가 어떻게 번속관계를 조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토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고찰하였다. 吳寶曉는 「關于晚清宗藩關系与國際法的几个問題」에서 중국의 종번관계와 서구의 보호국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서방의 충격으로 인하여 청조가 부득이하게 종번관계를 조정했던 사실도 아울러 지적했다.

(4) 역사 강역 문제

趙永春은 「中國古代的國号与"中國"國家觀念的演進」에서 중국이라는 칭호가 국호에 사용된 것은 근대 이후이며, 그 이전의 어떠한 왕조도 역사상의 중국이라고 할 수 없고, 중국에 의해 계승된 각 민족의 정권이 옹유한 강역까지도 모두 중국의 강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田澍는 「古代西北疆域研究若干問題的思考」를 통하여 비록 중국 역사상 최대의 강역을 역사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역사상의 중국 강역이 부단히 변화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呂一燃은 어떤 한 시기의 강역을 역사상의

중국 강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던 선배 학자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 강역의 발전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 강역사는 중국 통사와 민족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마땅히 강역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실사구시적 태도로 써야 하며, 또 왕조 중심으로 중국 강역사를 쓰는 것은 大漢族主義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 변강의 치리와 개발

齊淸順은 「歷代王朝治理新疆的發展進程」에서 역대 왕조의 新疆 통치가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했고, 田衛疆은 「歷代中央王朝選址新疆府治時的戰略思路」를 통하여 漢, 唐, 淸 등의 왕조가 신강의 치소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전략적인 사고에 대해서 검토했다. 龔蔭의 「東晋南朝邊疆民族地區設置稽考」는 東晉 등 南朝의 왕조가 남방의 변강민족 지역에 통치기구를 설치할 때 적용했던 원칙은 '민족에 맞게 설치한다.(因族設置)'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남방에 설치했던 군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楊永福는 「明淸王朝治理西南邊疆措施之比較」에서 移民實邊, 광산 개발, 유교문화 교육 등의 방면에서 명청 시기의 상황을 비교하였고, 古永繼의 「試論明代外來移民對云南文化發展的影響和推動」은 명대에 있었던 운남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운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鄒建達은 「淸代云南治礦政策演變及對邊疆穩定的影響」에서 청대의 운남 광산 개발에 대한 정책과 그것이 변강의 안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楊偉兵은 「淸代云貴地區政治地理与地域開發」에서 청대에 雲貴 지방에 실시된 改土歸流와 이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고, 房建昌은 「西藏亞東地區, 乃堆拉山口及帕里宗歷史概述」에서 영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근대에 서장 亞東 지역의 청조 관료의 활동과 錫金 등지의 영국과 인도의 商務 대표기구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趙之恒은 「淸末內蒙古西部地區的放墾及其對生態环境的影響」에서 청말의 내몽고 봉금 정책의 완화 및 폐지와 내몽고 개발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陸韌의 「義學 : 淸代邊疆民族地區初等教育体制」는 청조가 전국의 변강 지구에 설립한 '八旗義學'과 '夷番義學'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을 진행하였다.

3. 변강민족

姚大力은 「關于民族意識与前現代民族的形成」에서 민족의식과 민족형성 문제에 관한 서구 학계의 새로운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막연히 서구를 뒤쫓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魏存成은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동북 지방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설명함으로써 변강사지 연구가 學際的 연구임을 잘 보여주었다. 李德山은 '關于高句麗等中國古代東北少數民族歷史問題'에 관하여 발언했고, 孟楠은 '古代西域各民族對中原的認同'이라는 발언을 통하여 고대 서역민족의 중원에 대한 일체의식을 검토하고, 고대 중원왕조에 대한 소박한 일체의식과 현대의 국가에 대한 일체의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했으며, 근대 이래 어떻게 중국 국가에 대한 일체의식으로 변했는가를 검토했다. 鄭曉云은 「跨境民族的互動對当代邊疆政治的影響－以傣泰民族爲例」에서 중국 서남 지구의 다국 거주 민족(跨境民族) 문제가 발생한 유래와 당대 변강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劉稚는 「中國与東南亞跨界民族的類型, 屬性及其發展趨勢」도 서남 지역에 다국 거주 민족(跨界民族)이 생겨난 유래와 역사과정 그리고 특징을 검토했다. 崔明德은 「中國民族思想的研究方法」에서 민족사상은 민족과 민족 문제에 대한 역대의 인식이며, 이것은 민족 문제를 처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민족사상을 연구하는 세련된 방법을 제안했다. 姜維公은

「從傳統民族觀与正史体例來看正史四夷傳的部族前史 — 兼論族源族屬問題」에서 전통 역사가의 민족관과 정사의 四夷傳의 체례가 어떻게 고정화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야기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왜곡을 지적했다.

4. 학과 건설

운남대학의 부총장 肖憲 교수는 치사를 통하여 변강 문제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馬大正 연구원은 지금까지 성취한 변강학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강역 이론의 연구가 새로운 돌파구라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厲聲 연구원도 강역 이론의 이론적 틀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賀聖達은 「關于中國邊疆學學科建設的几点看法」에서 연구의 중점이 변강 이론과 현대 중국의 변강이 당면한 문제의 연구에 두어져야 하며, 육지 강역의 연구는 물론이고 해양 강역의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楚克의 「中國疆域問題与中國邊疆學理論建設之關系」는 중국 강역 문제와 변강학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했으며, 華濤는 근현대 국제관계사, 근대사 그리고 민족학 등의 시각에서 변강 문제를 연구할 것을 제안했고, 魏良弢은 변강학의 학과 건설은 그 학과 유형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변강학이 법학에 속하면서 동시에 역사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일부 학자들은 외국에는 없는 변강학 학과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외에도 능히 수용될 수 있는 이론이나 법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乐浪郡研究综述」 2

苗 威,『中国边疆史地研究』2006-3

1. 한사군의 위치

樂浪郡 등 漢四郡의 위치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는 상당히 크다.

⑴ 중국 학자의 연구

한사군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丁謙의『蓬萊軒輿地叢書』와 汪士鐸의『二十五史補編』그리고 楊守敬의『晦明軒稿』,『前漢地理圖』,『王險城考』,『后漢郡國圖』,『汪士鐸漢志釋地駁議』등에서 한사군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양수경의 연구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처음 낙랑군이 설치되었을 때 관내에는 朝鮮, 詷邯, 浿水, 黏蟬, 遂成, 增地, 駟望, 屯有, 鏤方, 渾彌, 呑列 등의 縣이 있었고, 군의 치소는 그 중의 朝鮮縣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또 낙랑군의 남쪽에 위치한 진번군에는 含資, 帶方, 海冥, 列口, 長岑, 昭明, 提奚 등 7개의 속현이 있었으며, 임둔군은 낙랑의 동쪽에 있었는데 單單大嶺은 아마도 蓋馬大山의 다른 명칭일 것이며, 군의 관할하에 東暆, 不而, 蚕台, 前莫, 邪頭昧 등 5개의 속현이 있었고, 4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현도군은 그 남쪽에 낙랑군이 있었으며 嶺東의 華麗, 夫租(즉 沃沮) 등이 모두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했다.

지난 세기 3~40년대 한사군 연구에 가장 뛰어난 학자는 金毓黻이었다. 그는 옥저가 현도군에 있었고,

辰韓의 서북쪽이 진번군이었으며, 낙랑군의 동쪽은 東部都尉가 현도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곱 현을 거느리고 있었던 임둔군이었다고 판단했다.

1949년 이후 한사군 연구는 한 때 침체되었지만 80년대 이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 · 東北卷』이다. 본서는 낙랑군의 북쪽 경계가 浿水(지금의 청천강)였으며, 군의 치소는 조선현 즉 현재 북한의 평양시 서남쪽에 있는 土城洞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진번군은 낙랑군의 남쪽에 있었는데, 낙랑군과는 황해도의 자비령을 경계로 삼고 있었으며, 그 관할 구역은 지금의 황해 남,북도 대부분과 남한강 이북의 경기도 일부분을 포괄하고 있었고, 군치는 霅縣(후의 남부도위의 치소였던 昭明縣, 즉 지금의 황해남도 신천군 서호리)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임둔군은 조선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치소는 東暆(지금의 강원도 강릉)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현도군의 경우 처음 설치되었을 때 면적이 대단히 넓어 동으로는 동해에 닿았고, 동북으로는 지금의 圖們江 유역에 이르렀으며, 서북으로는 지금의 요령성 新賓, 淸原 두 縣을 포괄하고 있었고, 서남쪽으로는 지금 북한 경내의 창성, 희천, 영원, 정평을 잇는 선과 요동, 낙랑 두 군을 경계로 삼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학계에서 말하는 第一 현도군(지금의 함경남도)과 第二 현도군(즉 고구려 故地)이 모두 한사군 중의 현도군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현도군의 치소는 沃沮城(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 있었으며 '옥저'가 현재 북한의 함경남도와 양강도를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는『東北歷史地理』가 있다. 본서는 第一卷에서 낙랑군의 북쪽 경계는 지금의 청천강이고, 남쪽 경계는 帶水(지금의 임진강)였기 때문에 나중의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고, 또 군의 치소는 조선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모두 18 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둔군은 낙랑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북쪽은 현도군이었으며, 남쪽은 삼한의 땅이었고 동쪽은 바다였는데, 양수경의 학설을 채택하여 관하에 영동의 東暆, 不而, 蚕台, 前莫, 邪頭昧 등 5개의 속현이 있었다고 보았다. 현도군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 · 東北卷』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진번군은 흑룡강성 牡丹江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군의 치소는 霅縣(지금의 흑룡강성 寧安市 일대)에 있었지만 그 나머지 縣들은 史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는 張博泉의 연구이다. 장박천은 蘇鑫源, 董玉英 등과 함께 저술한『東北歷代疆域史』와 專著『東北地方史稿』그리고「漢玄菟郡考」,「眞番郡考」등의 논문이 있다. 그는 진번이 북쪽에 있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진번이 고구려 고지에 있었다는 북한 학자 金致仁의 견해에 찬동하고 있다. 또한, 현도군이 처음으로 설치된 곳은 옥저성(지금의 북한 함경북도 경성 부근)이었는데 나중에 句麗의 서북쪽 고구려성(요령성 河赫爾蘇驛 부근)으로 옮겼으며, 임둔군의 치소는 暆縣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넷째는 李健才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건재는 3권으로 된 논문집 성격의『東北史地考略』을 출판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關于漢代遼東, 樂浪兩郡地理位置問題的探討」,「玄菟郡的建立和遷移」,「眞番郡考評述」,「關于古朝鮮和樂浪郡在遼東等地的記載和問題」,「評遼水, 浿水, 列水均指今滦河說」,「評漢代樂浪郡在今遼河以西說」등의 논문을 통하여 한사군에 대하여 논했다. 그는 낙랑군이 요서군에 있었다는 학설을 근거를 들며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처음에 옥저성에 설치되었던 현도군은 관할지역이 비교적 작아서 겨우 옥저 땅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고구려 등 3縣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현이 지금의 요령성 新賓縣 永陵鎭의 漢代 古城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며, 동쪽의

옥저(제일 현도군)와 천여 리 떨어져 있는데, 한대 군현의 관할지역의 실상을 감안하면 군의 치소에서 천여 리 떨어진 곳에 현을 설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한서 · 지리지』에 기록된 것은 단지 낙랑군과 현도군일 뿐 4군이 아니었고, 第二 현도군과 그 아래의 고구려, 西蓋馬, 上殷台 등 3현은 현도군이 서쪽으로 옮겨간 후 설치된 군현이지 서한 무제가 처음 옥저성에 현도군을 설치할 때의 속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는 劉子敏의 연구이다. 유자민은 『高句麗歷史研究』에서 진번, 현도 등 2군에 대하여 논했다. 그의 논문 「關于"遼東"的考辨」,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崔氏樂浪"考辨」, 「高句麗縣考辨」 등이 모두 사군에 관련되어 있다. 그는 우선 한사군은 위씨조선의 강역에 설치되었고, 또 위씨조선의 북쪽 경계는 오늘날 북한의 함경남도 북쪽에 있는 摩天嶺과 현재의 청천강을 넘지 않았으므로, 사군의 관할 구역은 위씨조선의 북쪽 경계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그는 진번군이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셋째, 현도군의 관할 구역은 동옥저('남옥저'라고도 하며,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즉 학계에서 말하는 제일 현도군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제이 현도군(고구려 고지)은 당연히 僑置郡으로 그 관할 구역은 원래 요동군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⑵ 북한과 한국 학계의 연구

북한의 한사군 연구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韓百謙은 그의 『東國地理志』에서 '삼국'이전의 한반도 역사는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자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浿水'는 청천강이며 列水는 한강이라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大韓疆域考』를 저술하고, 그 가운데의 「玄菟考」에서 단단대령을 함경남도와 양강도 사이의 薛罕嶺으로 비정하였다. 광복 후 초기의 북한 학자들의 연구는 비교적 엄격하고 객관적이었다. 都宥浩는 「王儉城的位置」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인 왕검성의 위치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같았고, 낙랑군의 유적과 유물은 절대 위조된 것이 아니며, 낙랑군이 평양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眞番与沃沮城的位置」에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당시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 및 민속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들 중 朴時亨은 도유호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는데, 즉 箕准朝鮮과 위만조선의 수도와 낙랑군의 조선현의 위치가 모두 일치했으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는 당연히 평양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견해는 1963년 이후 사라지게 되고 대신 낙랑군이 遼西에 존재했었다는 설이 등장하게 된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병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그의 주된 견해는 『國史大觀』, 『韓國史 · 古代篇』, 『韓國古代史研究』 등과 「浿水考」, 「眞番郡考」, 「玄菟郡及臨屯郡考」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패수'는 지금의 청천강이고, '열수'는 지금의 대동강이며 '滿番汗'은 현재 북한의 박천이라고 주장했다. 진번군의 지리적 위치 문제에 있어 그는 남쪽에 있었다는 학설을 견지했지만, 임둔군과 현도군에 관한 견해에는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는 한사군 가운데 낙랑, 진번, 임둔 등 3군은 모두 위씨조선의 영역 내에 설치되었고, 영동의 7현은 당연히 임둔군의 속현이었는데, 오직 현도군만 위씨조선의 영역 밖 즉 '예맥'의 땅이자 고구려의 땅 곧 학계에서 말하는 제이 현도군의 땅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한국 학계의 한사군 연구는 그 외에 권오중의 『樂浪研究 － 對中國古代邊郡事例的檢討』와 논문 「樂浪郡及其周邊的官府」, 「對樂浪郡居民的研究」, 「樂浪郡的設置背景」 등이 있고, 박형표의 「對漢四郡地理位置成說的考察及其是非」, 이도남의

「對中國史書的漢樂浪郡的認識 － 以樂浪平壤說的成立爲背景」, 이병두의 「樂浪郡縣位置考」와 「遼東, 玄菟郡的位置」 그리고 윤내현의 「漢四郡的樂浪和平壤的樂浪」 등이 있다. 윤내현은 고조선과 위만조선 그리고 낙랑군의 중심지는 지금의 평양이라는 한국 학계의 통설과 달리 낙랑, 진번, 임둔이 모두 지금의 灤河에서 요하의 서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존재했으며, 현도군 역시 요하 서부의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양 지역의 낙랑은 崔理의 낙랑국이었다고 주장했다. 낙랑군에 대한 윤내현의 견해는 그의 고조선에 관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⑶ 일본 학계의 연구

일본 학자들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부정하지만, 위씨조선 특히 한사군의 연구는 대단히 중시했다. 白鳥庫吉은 일찍이 1910년 「漢代朝鮮四郡疆域考」를 발표했고, 1913년 그는 또 松井, 箭內亘, 稻葉岩吉 등과 함께 『滿洲歷史地理』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그 중에서 그는 箭內亘과 함께 「漢代的朝鮮」을 썼는데, 그들은 『사기 · 조선열전』의 「索隱」에 인용된 應邵의 注를 근거로 진번군이 지금의 압록강 유역과 佟佳江 유역에 있었으며, 아울러 漢代의 '패수'는 지금의 압록강이고 지금의 義州는 한대의 浿水縣이었으며 지금의 용천 부근이 增地縣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三國志 · 東夷傳』을 근거로 현도군이 옥저 지방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那珂通世의 『朝鮮古史考』와 『朝鮮樂浪玄菟帶方郡考』 역시 이상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옥저 지방에 현도군이 설치되었었다는 玄菟沃沮說과 진번군이 북쪽에 있었다는 眞番在北說을 견지하는 학자로는 이 외에도 樋口隆次郎, 津田左右吉, 大原利武 등이 있고, 池內宏도 현도옥저설을 지지한다.

한편, 지내굉은 진번군이 남쪽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응소의 주는 서한 무제의 정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진번군 및 제일, 제이 현도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이해했다. 왜냐하면 『漢書 · 地理志』에는 단지 현도군과 낙랑군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진번군과 임둔군에 관한 기사가 없고, 응소가 '진번'을 현도군 기사 아래에 썼지만, 제일, 제이 현도군의 어느 지방을 眞番族의 거주지로 비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稻葉岩吉 역시 진번군이 남쪽에 있었다는 眞番在南說을 지지한다. 그는 「眞番郡的位置」와 「漢四郡問題考察」을 통하여 서한 무제가 설치한 현도군이 제일, 제이 현도군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고, 군치는 옥저성에 있었으며 속현으로 고구려, 상은태, 서개마 등 세 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설을 견지한 학자로는 그 외에 今西龍과 三上次男 등이 있다. 금서룡은 「眞番郡考」, 「關于眞番郡的位置」, 「洌水考」 등에서 진번군은 남쪽에 있었으며,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주장했다. 삼상차남은 「朝鮮的古代文明与外來文化」에서 그리고 和田淸은 「玄菟郡考」에서 각각 진번재남설을 따랐다. 또한 靑山公亮은 「漢代樂浪郡及其邊緣」에서 낙랑군이 사군 가운데 중심 지대였는데, 진번군은 그 남쪽에 있었고 임둔군은 강원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首藤丸毛는 「玄菟臨屯眞番三郡之我見」을 통하여 현도군이 穢(뒤의 부여)와 貊(뒤의 고구려, 小水貊)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제이 현도군이 바로 최초의 현도군이고, 임둔군은 옥저와 東濊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진번군이 남쪽에 있었다는 학설이 옳다고 주장했다.

2. 서한 소제 시기의 한사군 합병 연구

서한 昭帝 시기의 한사군 합병에 관한 학계의 연구 역시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 큰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⑴ 중국 학자의 연구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은 서한 소제 始元 5년(전 82)에 진번군과 임둔군 그리고 현도군의 옥저현이 모두 낙랑군에 합병되었으며, 현도군의 치소는 옥저성에서 고구려현으로 옮겨졌고, 영동의 7현은 후에 동부도위의 관할이 되고 진번군의 옛 현들은 남부도위의 관할이 되었다고 보았다. 周振鶴의 견해도 이와 같다. 李大龍의 견해 역시 이와 유사한데, 즉 한사군이 낙랑군과 현도군으로 합병되는 과정에 임둔군은 전체가 낙랑군에 합병되었고, 현도군의 치소는 고구려현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東北歷史地理』는 '모든 예맥의 땅이 현도군의 관할 범위'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진번군을 흑룡강성 영안 일대에 위치시키고 있고, 때문에 한도군의 합병 문제에 있어서는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와 같이 '축소설'을 견지한다. 진번군의 경우 현도군에 합병되었지만 흑룡강성 영안 일대에 진번군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박천은 고구려의 故地는 일찍이 箕子가 세운 '辰國'의 땅이었기 때문에 본래 '진번조선'이었다고 주장하여 진번재북설을 지지한다. 그는 소제 시기 동북의 군현들이 조정될 때 진번의 소재지였던 고구려 지역이 자연스럽게 '현도'로 改名되었던 것이지 현도가 진번군을 합병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건재는 진번재남설을 지지한다. 그는 제일 현도군(무제가 설치)과 제이 현도군(소제가 설치)은 한 가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군의 합병과 제이 현도군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유자민의 시각 역시 이와 유사하다. 그는 상세한 고증을 통하여 고구려 고지가 戰國 시기에 이미 요동군의 관할하에 있었음을 밝혀내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약간 달랐다.

⑵ 북한과 한국 학자의 연구

북한과 한국의 학계는 오랫동안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사군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이병도가 『후한서·동이전』의 기사를 바탕으로 임둔군이 현도군에 합병되고 진번군이 낙랑군에 합병되었다고 지적한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⑶ 일본 학자의 연구

일본 학자의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임둔군의 합병에 관해서이다. 대체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우선 임둔군이 낙랑군에 합병된 시기가 시원 5년(전 82)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나아통세, 백조고길, 통구융차랑, 稻葉君山, 금서룡 등이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둘째, 元鳳 6년(전 75)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지내굉과 삼상차남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병도 역시 삼상차남과 견해를 같이 한다. 즉 원래 현도군에 합병되었던 임둔군이 이때에 이르러 다시 낙랑군에 합병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수등환모의 견해이다. 그는 元帝 初元 3년(46) 이전에 합병되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진번군의 합병에 관해서이다. 진번재남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에 합병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진번재북설을 견지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나아통세와 백조고길은 진번군이 현도군에 합병되었다고 보고 있고, 통구융차랑, 진진좌우길은 요동군에 합병되었다

가 元鳳 6년(전 75)에 다시 요동군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현도군으로 변모했다고 보고 있다.

셋째, 현도군의 합병에 관해서이다. 현도군이 옥저라는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 예를 들어 나아통세, 백조고길, 진진좌우길, 지내굉 등은 모두 소제 시기에 현도군이 낙랑에 합병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도군이 처음에는 옥저에 설치되었고 또 고구려가 현도군의 속현이었다는 입장의 학자들은 제일 현도군이 축소되어 제이 현도군이 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도엽군산, 금서룡, 삼상차남의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현도군 최초의 치소는 고구려현이었으며 옥저 역시 그 속현이었다는 입장에 선 학자들은 단지 옥저만 낙랑군에 합병되었다는 견해를 유지한다. 대표적인 학자로 화전청, 청산공량, 수등환모 등이 있다.

3. 대낙랑군 및 대방군 연구

서한 소제 시원 5년(전 82) 한사군이 하나로 합병되어 大樂浪郡이 되었다. 그리고 동한 말년 대낙랑군의 남쪽에 또 대방군이 설치되었다. 대낙랑군은 그 설치기간이 길 뿐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문화 방면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모두 대낙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연구 역시 상당히 풍부하다.

⑴ 중국 학자의 연구

중국의 관련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관련된 논문들로는 고고학 방면에 王培新의 「樂浪遺迹的考古發掘与研究」, 劉銘恕의 「樂浪出土漢篋圖象讀考」와 「樂浪出土漢篋圖象續考」 그리고 이건재의 「平壤地區是否只有后漢而无前漢時代的遺迹遺物的問題」, 容庚의 「樂浪遺迹出土之漆器銘文考」, 鄭軍雷의 「從漢墓材料透視漢代樂浪郡居民构成」 등이 있다. 역사 방면에는 유자민의 「"崔氏樂浪"考辨」, 楊樹達의 「讀『樂浪』書后」와 「玄菟郡名新釋」 그리고 張碧波의 「漢晋与日本關系研究」 등이 있다. 또한 문화와 민족 방면의 연구에 李炬의 「朝鮮古代漢文詩'箜篌引'与漢文化」, 楊軍의 「漢四郡的民族构成」, 傅朗云의 「朝鮮民族族源神話研究」 등이 있다.

⑵ 북한과 한국 학자의 연구

북한은 지난 세기 60년대에 상당히 많은 낙랑 유물과 유적을 발견했다. 비록 북한이 그것을 낙랑군의 유물과 유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낙랑군의 유물, 유적인 만큼 상당히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북한의 주요한 저작으로는 조선전사편찬위원회의 『朝鮮全史』 다권본 중의 『고대편』,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朝鮮通史』(上)과 『朝鮮通史』 3권본, 문화보존연구소 편집부의 『我國的遺迹』, 조선사회과학원 고고민속 연구소의 『朝鮮考古學概要』와 『朝鮮考古學全書』 등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저작들이 낙랑의 유물, 유적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논문으로는 안병찬과 홍원표의 「新近發現的楸陵里磚墓」, 안정복의 「帶方郡考」, 백련행의 「關于夫租薉君印」, 이순진의 「關于"夫租薉君"墓」, 「夫租薉君墓發掘報告」, 「我國西北地區木椁墓起源和發生時期研究」 그리고 김영생의 「漢樂浪郡的位置問題」 등이 있으며, 모두 낙랑 지역의 고고 문화 연구에 중요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경우, 김원룡의 『韓國考古學概論』, 김한규의 『遼東史』 등이 낙랑의 고고 문화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띠고 있는 저작들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김종태의 「樂浪出土漢代銅鏡文考

」,「樂浪時代銘文考－以唐瓦, 封泥, 印章爲中心」 그리고 「樂浪時代的泉幣銘文考」와 김미경의 「高句麗的樂浪, 帶方地區進出及其統治形態」, 손병헌의 「樂浪古墳的被葬者」, 이경미의 「對樂浪古墳出土漆器的考察」, 윤용구의 「樂浪前期郡縣統治勢力的种族系統和性質」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요 저작으로는 關野貞 등의 『樂浪郡時代的遺迹』, 東京帝國大學文學部의 『樂浪』, 백조고길의 『白鳥庫吉全集』, 백조고길 · 殿內亘 등의 『滿洲歷史地理』, 지내굉의 『滿鮮史硏究』, 榧本杜人의 『樂浪漢墓』, 朝鮮古迹硏究所의 『昭和七年度古迹調查報告』, 『昭和八年度古迹調查報告』, 『昭和九年度古迹調查報告』 그리고 진전좌우길의 『津田左右吉全集』, 금서룡의 『朝鮮古史硏究』, 梅原末治 · 藤田亮策의 『朝鮮古文化年鑒』 (전4권), 동경제국대학의 『滿鮮地理硏究報告』, 小場恒吉의 『樂浪王光墓』, 소장항길 · 有光敎一의 『昭和十一年度古迹調查報告』, 原田淑人 · 田澤金吾 合編의 『樂浪 — 王官椽王盱的墓葬』 등이 있는데, 모두 낙랑군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관련 논문과 보고로는 谷井齊一의 「朝鮮平壤附近新發現的樂浪時代的遺址」, 野貞의 「樂浪之遺迹」, 中村潤子의 「高句麗壁畵古墳与樂浪故地」, 馬衡 · 원전숙인의 「關于朝鮮樂浪古墓發掘通信」, 원전숙인의 「樂浪出土之畵家漆器」, 榧本龜次의 「樂浪帶方郡時代紀年銘磚集录」, 谷豊信의 「樂浪土城址出土的陶器(下) — 浪土城硏究其四」, 「古朝鮮, 樂浪問題的硏究史」 및 「樂浪郡位置」, 內崎敬의 「有關"夫租薉君"銀印問題」와 「中國与日本的貨交流」, 關野雄의 「樂浪王氏的富」, 금서룡의 「大同江南的古墳及同樂浪王氏的關系」, 小田省吾의 「樂浪歷史硏究」, 지내굉의 「公孫氏的帶方郡設置和曹魏的樂浪, 帶方二郡」, 八木奘三郎의 「樂浪和帶方」, 町田章의 「關于樂浪前漢墓的視角」과 「漢代紀年銘漆器聚成」, 駒井和愛의 「樂浪郡治址」, 매원말치의 「朝鮮北部出土紀年磚集录」, 靑山公亮의 「帶方郡考」, 삼상차남의 「樂浪郡社會的統治結构」, 田村晃一의 「樂浪地區出土的印章与封泥 — 駁"馬韓文化"」, 「樂浪地區的木墓 — 漢墓綜考」 및 「樂浪, 倭与韓」 그리고 滯添慶文의 「樂浪郡和帶方郡的變遷」, 西本昌弘의 「樂浪帶方二郡的興亡与漢人遺民的下落」과 「帶方郡地的所在地和辰國廉斯号」, 소전성오의 「對平壤出土的"永和五年玄菟太守"銘文磚的硏究」, 小島健二의 「道內支那領時代的遺迹」, 田中俊明의 「高句麗的興起与玄菟郡」 등이 있다. 일본 학자의 낙랑 연구는 그 폭과 깊이가 상당하고, 특히 고고문화 방면의 연구는 우리에게 상당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한사군과 대낙랑군 그리고 대방군 연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

▌4기 [邊疆史地 2006年 4期]

「古代"守中治边", "守在四夷"治边思想初探」

方 铁, 『中国边疆史地研究』 2006-4

중국을 지키면서 변강을 다스린다는 '守中治邊'과 四夷들 가운데 중국을 지킬 뿐이라는 '守在四夷'는 고대 대다수의 봉건왕조가 견지했던 치변사상의 핵심이었다.

先秦 시기에 등장했던 이른바 '五服'說과 '九服'說은 '수중치변'과 '수재사이'의 초보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양한 시기에 이르면 기존의 '오복'설과 '구복'설의 바탕 위에 당시의 경험을 더하여 기본적인 '수중치변'과 '수재사이'의 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班固의 『한서 · 흉노전』 논찬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즉 중국과 四夷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內外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이가 침략한다면 이를 방어하고 중국에 귀부한다면 禮로써 대한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봉건왕조가 이러한 사상을 견지했던 것은 물론 문화적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중치변'과 '수재사이' 사상은 무려 2천여 년 동안 이어져 明淸 시기의 통치자들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漢代 이후 '수중치변'과 '수재사이'의 사상은 더욱 풍부해졌다. 예를 들어 내지와 변강의 관계를 唐代의 李大亮은 根本과 枝葉으로 비유했으며, 당 태종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안정시킴으로써 사이로 하여금 스스로 복종하도록 한다'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중치변'과 '수재사이' 사상은 봉건왕조가 변강의 이적을 외부의 침입을 막는 울타리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謹事四夷'의 관념 즉 변강에 대한 무리한 군사적 대응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치변사상이 생겨났다. 진시황과 서한 무제의 과도한 영토 개척과 군사적 정벌은 후세에 많은 논자들의 통렬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역대 통치자들은 內地의 번영과 안정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뿐, 변강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대단히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들의 변강과 邊界에 대한 인식은 이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淸代 중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변강과 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两汉边疆思想观的论争与统一多民族国家边疆思想的形成」

黎小龙 · 徐难于,『中国边疆史地研究』2006-4

兩漢 시기는 중국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강역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400여 년에 달하는 양한 시기 동안에 있었던 영토 확장과 經略 과정에는 또한 격렬한 변강 사상의 논쟁이 있었다. 이때의 논쟁은 폭과 깊이가 넓고 깊었으며, 시간적으로도 매우 오래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후세에 미친 영향이 컸다.

양한 시기의 변강 사상 논쟁은 크게 '無用'論과 '國本'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변강이 지닌 의의와 가치를 부정하는 '무용'론은 서한 무제 시기에 제기되었다. 西南夷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公孫弘은 그곳을 경영한다는 것은 중국을 피폐하게 할 뿐 득이 되지 않으므로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무용'론은 이미 秦朝의 李斯가 제기한 바 있었다. 무제 당시 공손홍 이외에도 韓安國과 主父偃 등도 같은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무용'론은『漢書』의 저자 班固에 의해『한서 · 흉노전』의 논찬에 잘 요약되어 있다. 즉 중국과 夷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적은 이른바 '羈縻不絶'의 방식을 통하여 대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국본'론은 변강이 지닌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는 주장으로, 무제의 사이 정벌을 반대했던 主父偃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무리한 군사적 정벌은 반대하면서도 변강의 의의와 가치는 인정했던 것이다. '국본'론은 이후 昭帝 시기에 소집된 鹽鐵會議에 출석한 御史와 大夫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근을 떠나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遐邇一體'를 주장한 司馬相如의 주장은 '국본'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 변강을 둘러싼 양한 시기의 논쟁은 우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 즉 '무용'론과 '국본'론이라는 성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大一統' 사상과 융합된 통일적 다민족 변강 사상을 출현시켰다. 즉 '遐邇一體'와 '兼容幷包'를 주장한 사마상여의 관점은 곧 통일적 다민족 변강 사상이 형성되었다는 구체적 표지라고 할 수 있으며, 염철회의에서 서로 대립했던 賢良文學과 御史의 주장에서 '대일통' 사상과 융합된 통일적 다민족 변강 사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런 사상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中国民族思想的概念及发展脉络」

崔明德,『中国边疆史地研究』2006-4

학계의 관련 논저들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용어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가 활발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론적 측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학술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관

'民族觀'은 현재 학계에서 상당히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 개념이 약간씩 다르다. 즉 '민족관'을 민족관계와 계급관계의 반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세계관의 일부 즉 민족 현상에 대한 인식과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민족관을 고대의 '夷夏觀'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민족관'을 다른 민족의 정치적 태도와 주장을 처리하는 원칙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관'은 중국 고대의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고대의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에 대한 논술과 인식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고, 또 格言式으로된 이론적 틀은 하나의 完整한 체계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2. 족군관

'族群'이라는 용어는 중국에 비교적 늦게 등장했고, '族群觀'의 개념은 더욱 늦게 출현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馬戎은 미국 내 존재하는 흑인, 중국계 미국인, 스페인계 미국인을 '족군' 즉 'ethnic group'으로 부른다는 것에 착안하여 중국의 '소수민족'을 '족군'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타당성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3. 민족사관

20세기 80년대 이후 제기된 개념이다. 21세기 들어 이 개념을 활용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李珍은 '民族史觀'을 史學 활동, 사학 사조 그리고 역사가의 사상 중에 존재하는 민족관념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사관'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여 역사가의 민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이 너무 협소하여 보편적 의의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4. 민족사상

'민족사상'의 개념은 최소한 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에 관한 논저들도 적지 않다. 필자는 '민족사상'을 각 시대, 각 민족의 인물들이 가졌던 중국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자, 민족문제를 처리하고 민족정책을 제정한 이론적 기초로서, 정치가, 사상가, 군사가, 역사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민족과 민족관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당시의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이해한다. 이 개념은 민족의 기원, 민족발전의 법칙, 민족정치의 구조, 민족문화, 민족융합, 민족의 遷徙 등을 다 포괄하고 있다.

5. 민족관계사상

20세기 80년대 제기된 이래 부단히 충실해지고 있는 개념이다. 각 시대, 각 민족의 인물들이 가졌던 민족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족사관'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명확하긴 하지만 협소하여 민족과 민족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6. 민족주의

19세기 서구에서 발생한 학설인 민족주의는 중국에 소개된 이래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또한 대단히 복잡다기하여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나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7. 민족주의사상

현재 민족주의사상에 관한 논문이 이미 6~70편이 발표되어 있지만 개념을 확실히 정의한 논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용어나 개념 가운데 민족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민족사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개념에 비해 중국에 비교적 일찍 출현했다. 즉 20세기 초에 이미 등장하여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둘째, '민족사상'은 그 내적인 함의가 다른 개념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풍부하다.

셋째, '민족사상'은 중국 '민족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양계초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이래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중국의 근대적 의의를 지닌 민족주의의 원류는 중국 고대의 민족의식과 민족사상에서 기원했다. 따라서 '민족사상' 개념은 고대의 정치가, 사상가, 역사가 등의 민족과 민족문제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넷째, '민족주의사상'은 '민족주의'에서 발전해 나온 개념이다. 민족주의가 민족사상에서 발전해 온 것인 만큼 민족주의사상과 민족사상은 관련이 매우 깊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민족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다섯째, '민족사상'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다른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다.

여섯째, '민족사상'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풍부하여, 민족사상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민족사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華夷之辨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고대 민족사상이 있었고, 反淸反帝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족사상이 있었으며, 평등, 단결, 互助, 민족구역 自治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대 민족사상이 있다. 전통적 고대 민족사상은 華夏族이 형성되면서 기원하여 춘추전국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역대의 왕조 시기에 보다 풍부해지고 성숙해져 최후의 淸朝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근대 민족사상은 孫文에 의해 제창된 것이었다. 손문의 민족사상은 최초에 '反淸' 혹은 '排滿'을 위주로 했으나, 신해혁명 이후 '五族共和', '民族平等' 그리고 '民族自決自治'의 내용이 추가되며 발전했다. 특히 그가 1917년에 제시한 '중화민족'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중국 각 민족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택동, 등소평 그리고 강택민 등의 현대 민족사상은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한다.

「西汉戊己校尉的名和实」

贾丛江,『中国边疆史地研究』2006-4

서역의 둔전을 관리하기 위해 서한 왕조에 의해 최초로 설치된 戊己校尉는 그 특이한 명칭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서한의 관직 명칭은 담당 사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도 무기교위는 그 명칭을 天干에서 따왔던 것이다. 원래 진한 시기에는 方位, 시간, 색깔, 맛, 소리, 도덕 등의 사물을 오행과 관련짓는 五行說이 크게 유행했다. 그런데 무기교위의 명칭을 구성하는 천간 '戊'와 '己'가 가리키는 사물 혹은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까닭에 역대로 많은 해석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한 해석들을 정리하면 크게 '居中說', '寄治說' 그리고 '厭勝說' 나눌 수 있다. 거중설은 동한의 應邵가 제기한 것인데, 戊己가 방위와 관련해서는 중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교위가 서역의 중앙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무기를 방위와 관련짓지 않고 무기가 의미하는 중앙은 곧 중앙정부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즉 무기교위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으로 명명되었다는 것이다. 기치설은 唐代의 顔師古가 최초로 제기했다. 무기가 가리키는 正位가 없고, 무기교위가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치소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寄治로 무기를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염승설은 역시 응소에서 비롯되었는데, 염승이란 漢代 당시 유행하던 呪術의 하나로 역시 오행설과 관련이 깊다. 무기가 오행의 土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둔전을 관리하는 교위의 명칭을 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흉노가 戊己日을 숭상했기 때문에 주술적 차원에서 무기교위라고 명명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무기교위는 하나의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의 함의만을 지니고 있었다면 서한 조정은 보다 직접적으로 직무를 표현해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무기는 우선 둔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한 왕조가 서역의 漢軍을 지휘할 武官의 명칭을 무기로 한 것은 서한 왕조가 土德을 숭상하고, 무기가 오행의 土와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즉 오행설에 있어 土(서한)는 水(흉노)를 이기고 金(서역)을 낳기 때문에, 무기는 土德을 숭상한 서한 왕조가 水德의 흉노를 제압하고 서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서한 왕조의 희망이 표현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기교위는 漢軍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편, 무기교위는 서한 왕조의 중앙군의 하나였던 北軍에 소속되어 있었고, 휘하의 부대 역시 북군의 계통이었기 때문에 서역에 파견된 북군의 장관의 명칭을 무기라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무기교위는 하나의 함의가 아니라 여러 함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기교위는 제도상에 있어서는 중앙의 북군에 예속되어 있었지만, 둔전에 관련된 사무는 중앙의 大司農에게 보고했고, 서역의 방어에 관련해서는 西域都護의 지휘를 받는 특수한 관직이었다.

「隋朝的北部防务与长城问题」

李鸿宾,『中国边疆史地研究』2006-4

만리장성은 군사적 방어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유목민족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隋朝의 만리장성 수축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조 역시 만리장성을 충분히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수조는 만리장성을 수축하며 기존의 장성 특히 北齊의 장성을 잘 이용했으며, 장성을 수축함으로써 방어하고자 했던 대상은 돌궐족이었다. 이것이 수조의 장성 수축이 지닌 기본적인 특징이다. 수조의 장성은 황하의 오르도스(河套) 지역 동쪽과 현재의 산서성과 하북성 경내에 존재하던 북제의 장성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확장한 것이었다. 그 외 지역의 장성은 아마도 새롭게 수축한 것일 것이다. 수조는 장성을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군대를 건설하고 將領들의 능력을 제고하며 또 북방의 방어에 중요한 인물의 파견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수조가 장성의 수축에 많은 인력과 재력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비용은 다른 대규모 토목공사 예를 들어 수 양제의 사치스런 토목공사에 소모된 비용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수 문제 당시 이미 長孫晟의 책략을 통하여 돌궐을 분열시킴으로써 장성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唐朝에 이르면 장성에 대한 통치자들의 관심이 더욱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당조가 장성 너머의 유목민족을 정복하여 장성의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突厥的叛乱与安北都护府南迁」

王世丽 · 王世伟,『中国边疆史地研究』2006-4

唐朝 貞觀 3년(629)에서 永徽 원년(650)까지 당조는 연이어 북방의 東突厥 汗國과 薛延陀 汗國 그리고 車鼻 汗國을 격파하고 그 지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한 뒤, 현지 부락의 수령을 기미부주의 도독, 자사 등으로 삼았다. 그리고 漠北 鐵勒의 지역에는 安北都護府를, 漠南 돌궐의 지역에는 單于都護府를 설치했다. 이들 두 도호부의 설치로 막북과 막남은 30년 간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 고종 調露 원년(679) 선우도호부 휘하의 돌궐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선우도호부를 점령한 뒤 막북으로 진군하여 後東突厥 汗國을 건국하자 回紇에 의존하고 있던 안북도호부는 불가피하게 남쪽의 同城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막북의 회흘이 돌궐에 의해 격파된 이후인 垂拱 3년(687)의 일이었다. 원래 세력이

미약했던 돌궐이 이처럼 다시 유목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당조가 직면한 내우외환과 관련이 깊었다. 우선 고구려가 평정된 이후, 吐蕃이 일어나 당조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西突厥 역시 이반하여 당조를 공격해 왔다.

또한 당조의 기미부주 통치의 한계 역시 또 다른 원인이었다. 원래 당조는 수시로 돌궐의 사병을 징발하여 각종 군사작전에 동원했는데 이것이 돌궐족의 불만을 사고 있었고, 돌궐에게 가해진 무리한 부담과 고유의 전통과 달리 전리품을 함부로 노획하지 못하게 하는 당조의 군율 역시 불만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급증한 인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도 또 다른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돌궐의 재기로 인해 안북도호부와 선우도호부는 결국 보통의 軍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당조의 기미부주 통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纳哈出盘踞辽东时明朝与高丽的关系」

王 剑, 『中国边疆史地研究』 2006-4

과거 학계에서는 明朝 초기의 명조와 고려의 관계를 고찰할 때 흔히 명조와 고려의 내부에서 각종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요동에 웅거하고 있던 納哈出의 세력은 양국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368년 주원장이 명조를 건국한 이후, 漠北으로 패퇴했던 元朝의 잔여 세력들이 요동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잔여 세력의 하나였던 납합출은 20여 만의 무리를 옹유한 채 막북의 원조와 고려 사이에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는 1374년 공민왕의 시해 사건 이후 親元派가 정권을 잡으면서 北元과 다시 과거의 종번관계를 복원시켰다. 이 때 고려와 북원 사이에서 존재하던 납합출은 고려 禑王의 왕위 계승 등에 간여하는 등, 한편으로 고려의 내정에 간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려를 끌어들여 동북 지방으로 진출하려는 명조와 대응하고자 했다. 북원과 고려의 종번관계 복원은 동북 지방으로 진출하려는 명조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납합출은 명조의 요동 진출에 최대의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명조는 운남에 남아있던 원조의 잔여 세력을 소탕하기 군사를 파견해야 했으므로 요동에 군대를 파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명조는 요동의 납합출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대신 그를 위무하여 투항시키고자 했다. 그 후 운남의 문제가 해결되자 명조는 즉각 완강하게 저항하는 납합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마침내 洪武 20년(1386) 항복을 받아냈다. 요동에 웅거하면서부터 명조에 투항할 때까지 납합출은 시종일관 명조와 고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명조 건국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던 명조와 고려의 관계는 공민왕의 피살과 우왕의 즉위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는데, 이 과정에 납합출의 개입이 있었다. 또한 납합출이 제거된 이후 명조와 고려의 관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보아도 명초 초기의 명조와 고려의 양국 관계에 미친 납합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기 [邊疆史地 2007年 1期]

「深化边疆理论研究与推动中国边疆学的构筑」

马大正,『中国边疆史地研究』2007-1

1. 세 차례의 연구 고조와 세 번의 학술토론회

19세기 중엽~말엽 사이에 西北邊疆史地學이 흥기함으로써 최초의 변강학 연구 고조가 있었다. 20세기의 20~40년대 사이에 邊政學이 출현하자 변강학 연구는 두 번째 연구 고조를 맞았다. 그리고 20세기 80년대 이후 세 번째 변강학 연구 고조가 출현했는데, 이때의 연구 고조는 두 가지 큰 업적을 이루었다. 우선, 그때까지 단지 중국 근대의 邊界 문제만 좁게 연구하던 것을 벗어나 중국 고대 강역사, 중국 근대 邊界沿革史, 중국 변강연구사 등 3대 연구 계열을 중점으로 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史地 연구에만 집중하지 않고 변강의 역사 연구와 변강의 현실을 결부시켜 많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세 번째 연구 고조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모두 3 차례의 중국변강사지학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1988년 10월 22~26일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중국 인민대학 淸史硏究所의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7개 省, 市, 자치구 등지에서 모두 107 명의 학자가 참가했고, 80 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회의의 성과는『中國邊疆史地論集』(呂一燃 主編, 黑龍江敎育出版社, 1991)으로 출판되었다. 두 번째 학술토론회는 1999년 9월 12~16일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절강성 象山縣 인민정부의 주최로 절강성 상산현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40 명의 학자가 참가했으며, 31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회의의 성과는 같은 해 8월 23~26일 烏魯木齊에서 개최되었던 '世紀之交新疆歷史硏究回顧与展望學術硏討會'의 성과와 함께『中國邊疆史地論集續編』(馬大正 主編, 黑龍江敎育出版社, 2003)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모두 3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세 번째 학술대회는 2006년 8월 6~9일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운남대학 서남변강 소수민족 연구중심의 연합주최로 昆明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70여 명의 학자가 출석했으며, 45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때의 성과는『中國邊疆史地論集三編』으로 출판되었다.

2. 변강 연구의 발전은 시대적 책무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민족 단결과 변강의 안정을 정치적 원칙으로 하는 중국 변강 연구는 크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하 변강중심)은 '十一五' 사업을 확정하며 '하나의 핵심, 두 개의 服務, 세 가지 堅持'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하나의 핵심이란 '십일오' 기간 동안 중국 변강학의 기초적 이론을 완성한다는 것을 학과 건설의 총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복무는 학과의 건설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과 중국 변강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세 가지 견지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병행한다는 방침과 精品戰略을 바탕으로 인재와 성과를 배출한다는 방침 그리고 사회에 개방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견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변강중심은 이후 '主體를 분명히 하고 양 날개를 확실히 한다(一个主体, 抓住兩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주체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변강 이론 연구를 연구의 중점으로 삼아 중국 변강학의 이론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양 날개를 확실히 한다고 함은 '新疆歷史与現狀系列研究項目(國家社會科學基金特別項目)'과 '東北邊疆歷史与現狀研究工程(中國社會科學院重大研究項目)'의 성과를 출판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중국 변강학 구축의 돌파구 – 변강 이론 연구

중국 변강학의 구축은 현재 변강학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동 책임이자 시급한 임무이다. 나는 변강중심 성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 「關于构筑中國邊疆學的构想」(『中國邊疆史地研究』 2003년 3기)에서 변강학 구축을 위한 여섯 가지 요점을 발표한 적이 있다. 즉 첫째,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진지하게 총정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 현대 중국의 변강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적 인식은 시급한 변강학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셋째, 중국 변강학의 자리매김(定位)과 그 기본적인 기능에 관해서이다. 즉 중국 변강학은 중국 변강의 형성과 발전의 법칙을 연구하는 學際的 학문으로, 중국적 특색을 띤 새로운 학문이라는 것, 넷째, 중국 변강학은 특정한 연구 대상으로 인하여 역사와 현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분야의 연구 방법이 정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 다섯째, 변강학은 기초연구 영역과 응용연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즉 역대의 강역, 역대의 치변정책, 변강 경제, 변강 인구, 변강 지리, 변강의 국제관계 등을 다루는 '기초영역'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중국 변강의 발전과 안정에 관한 전략 및 예측 등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다루는 '응용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섯째, 중국 변강학 연구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변강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가 변강을 중시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중국 변강학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등이었다.

20여 년의 연구를 거친 지금, 변강 이론의 종합적 연구는 변강학 구축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변강 이론 연구는 크게 중국 변강 이론 연구 즉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과 발전의 법칙성, 중국 고대의 강역관, 치변관의 변화, '大一統'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민족 융합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 고대의 종번관계 등의 영역과 中外 변강 이론의 비교연구 즉 동서양의 강역관념의 차이와 공통점, 서구의 중국 전통적 강역 관념에 대한 인식, 서구 강역 이론이 중국의 전통적 강역 관념에 미친 영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여 년의 연구 결과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는데 주요 저작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완성된 연구 항목으로는 呂一燃의 『馬克思, 恩格斯論國家領土与邊界』(1992), 馬大正의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 — 一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1997), 마대정 主編의 『中國邊疆通史叢書』(1999～2002), 馬大正 · 李大龍 등의 『古代中國高句麗歸屬研究』(2001, 2003), 이대룡의 『都護制度研究』(2003)와 『漢唐藩屬体制研究』(2006), 劉爲의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2002), 孫宏年의 『清代中越宗藩關系研究』(2006), 于沛 · 孫宏年의 『全球化境遇中的西方邊疆理論研究』(출판 예정) 그리고 林榮貴 주편의 『中國古代疆域史』와 여일연 주편의 『中國近代邊界沿革史』도 2007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로는 "中國歷代邊事与邊政研究"(厲聲 주관), "中國邊疆理論概要"(厲聲 주관), "中國邊疆歷史通論(教

材)"(李國强 주관), "古代中國疆域理論專題研究"(이대룡 주관) 등이 있다.『中國邊疆學通論』,『中國封建社會藩屬体制研究』 그리고『古代東亞藩屬關系(体制)研究』가 변강중심의 '십일오' 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어 완성이 예정되어 있다.

변강학 연구가 순조롭고 충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경세치용적인 연구 결과를 내야 한다. 둘째, 중국과 세계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폭넓은 시야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변강 연구에 있어 학술과 정치를 구분하고, 의도적인 역사 왜곡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동시에 관대한 태도로 서로 다른 국가와 단체 등의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舅甥关系, 贡赐关系, 宗藩关系及"供施关系" – 历代中原王朝与西藏地方关系的形态与实质」

张 云,『中国边疆史地研究』2007-1

역사상 중원왕조와 西藏 지방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서장 지방이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예속되어 행정적 관할을 받은 것 외에도, 양자 사이에는 舅甥 관계, 貢賜 관계, 宗藩 관계 그리고 이른바 '供施 관계' 등이 존재했었다.

첫째, 구생 관계는 唐朝와 吐蕃이 화친을 맺으면서 발생하였다. 화친은 양자 사이에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서한 왕조가 흉노와 화친을 맺은 이래 중원왕조는 약 800여 년의 화친 경험이 있었고, 토번 역시 정략결혼을 통하여 주변의 諸部를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唐代의 文成公主와 金城公主가 토번의 군주 즉 贊普에게 시집감으로써 양국 사이에 화친이 성립되었고, 이 화친을 통하여 양국은 구생관계를 맺었다. 혹자는 당조가 토번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화친을 맺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조는 화친을 통하여 토번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했으며, 토번은 화친을 통하여 찬보의 위신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화친을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사실 양국의 화친에 있어 토번은 수혜자였다. 군주인 찬보는 당조와의 화친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화친을 통하여 촉진된 양국의 교류로 인해 토번은 중원의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당조 역시 화친을 통하여 토번과 구생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토번으로 출가한 두 공주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토번의 불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 중원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토번이 무측천과 당 왕실의 투쟁에서 당 왕실의 입장을 지지했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후 元代에 이르러 또다시 중원왕조와 서장 지방 사이에 화친이 맺어졌지만, 이때의 화친은 당조의 그것과 상당히 달랐다. 즉 서장 지방이 元朝의 효율적인 행정적 관할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구생 관계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공사 관계 혹 貢賜貿易 관계는 주로 중원왕조가 서장 지방을 행정적으로 직접 관할하지 않거나, 서장 지방에 대한 중원왕조의 통제력이 약하거나 느슨했을 시기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 당조와 토번이 병존했을 때, 宋朝와 唃厮囉 왕조가 병존했을 때 그리고 明朝 당시 서장 지방에 대한 행정적 관할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을 때 공사 관계가 발생했었다. 중원왕조에 대한 조공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사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함의까지 내포하는 복잡한 관계였다. 또한 시기에 따라 정치와 경제의 비중이 각기 달랐다.

셋째, 종번관계는 清代에 존재했었다. 청대의 '藩屬'은 藩部와 屬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래 '宗藩'은 '宗室藩屬'을 의미하고, 이는 周代에 종실과 종실에서 分封된 藩王이 함께 '종번'으로 불린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혈연적 관계가 없는 번부와 속국은 당연히 '종번'으로 불릴 수 없지만, 그 의무와 역할이 종실을 보호하고 국가의 변강을 지킨다는 면에서 번왕과 동일했기 때문에 비혈연적인 번부와 속국도 종번관계에 포괄되게 되었다. 그런데 신강, 몽고 그리고 서장 등 청조의 번부는 그 강역이 중국의 판도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행정 계통도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따라서 그 내부 문제는 순수하게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월남, 조선, 유구 같은 청대의 속국은 그 영토가 중국의 판도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독립적인 행정계통과 정치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번부의 사무는 理藩院이 관리했으며, 속국에 관한 사무는 禮部에서 관장했었다. 그리고 서장 지방이 청조의 번부였음은 『清史稿』 등의 사료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청조와 서장 사이에 종번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은 곧 서장이 청조 판도의 일부분이었으며 청조의 행정적 관할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래 승려와 시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공시관계가 특히 元代와 清代의 내지와 서장 지방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즉 양자의 관계를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서장이 중앙왕조의 행정적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서장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시관계를 거론하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 시작된 이래 공시관계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고, 이후 서장 독립이 실패한 뒤로 줄곧 독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주장이 그렇고, 夏格巴, 黎吉生, 范普拉赫 등의 주장 또한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의 名號는 중앙의 조정이 수여했으며, 그의 권력은 황제의 임명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조정의 뜻을 거역하면 6세와 13세 달라이 라마처럼 폐위되기도 했다. 그리고 청조는 서장에 駐藏大臣과 군대를 파견하여 서장의 중요 사무를 관장케 했다. 이처럼 서장은 명백히 청조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와 중앙왕조의 관계를 고승대덕과 시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적 예속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원왕조와 서장은 대단히 복잡한 관계를 통하여 부단히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교류를 심화시켜 왔고, 서장이 마침내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할하에 포함됨으로써 중화민족 다원일체 중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略论北魏时期的"上客", "第一客"与招怀政策」

安介生,『中国边疆史地研究』2007-1

북방민족에 의해 건립된 北魏 왕조는 주변 국가와 민족에서 귀부한 인사에게 본래의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는 官爵과 지위를 부여하는 우대 정책을 채택했었다. 이 정책은 북위의 주요한 대외정책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북위의 정치, 문화적 발전 그리고 민족 융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上客',

'第一客'으로 분류되었던 인사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 그들은 북위가 실시한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도 할 수 있었다. 북위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 것은 이미 道武帝 拓跋珪 시기부터였다. '제일객'이라는 칭호는 북위 시기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객'과 '제일객'으로 분류되어 우대받던 인물들은 주변 국가와 민족, 예를 들어 북위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柔然과 남방의 南朝의 漢族 출신 인사 등이었다. 그들에게 부여된 爵位는 대개 후손에게 세습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북위 왕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북위의 이 정책은 우선, 등급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귀부한 인사들은 원래 출신과 지위 그리고 북위에서의 비중에 따라 최소한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에 따른 대우와 관작이 부여되었다. 둘째, 이 정책은 이미 성문화된 처우 규정('客例' 혹은 '客禮')과 귀부 인사들에게는 원래의 지위와 신분에 상응하는 지위와 신분이 주어진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북위는 귀부한 인사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 기구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한 것 외에도 귀부 인사들에게 줄 특수한 '客邸'를 조영하여 운영했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정책을 북위가 채택하고 장기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분열의 시기에 할거정권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북위에게 필요한 정치, 문화적 발전을 북위의 선비족 인사들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고, 따라서 '상객'과 '제일객' 등으로 불린 외래 인사들의 활약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3~14世纪辽阳, 沈阳地区高丽移民研究」

杨晓春, 『中国边疆史地研究』 2007-1

13세기 몽고가 흥기한 이래, 고려와 몽고 혹은 후의 元朝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교류가 있었고, 그 결과 대량의 고려인이 중국의 각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遼陽과 沈陽 두 곳은 고려 이민의 주요 대상지였다. 고려인의 이민은 주로 몽고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주자의 대부분은 몽고와 고려의 전쟁 과정에서 몽고에게 투항한 사람들이었다. 먼저 몽고 시기에 있었던 고려 이민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종 오고타이 6년(1234) 원래 최초의 몽고의 침입 당시 몽고에 투항하고 협력했던 洪大宣의 아들 洪福源이 고려의 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휘하의 編民 1,500 戶를 거느리고 '遼陽古城'으로 이주한 예와 오고타이 10년(1291) 趙玄習과 李元祐 등이 2,000여 명을 이끌고 이주한 예 그리고 憲宗 3년(1253) 고려의 왕이 인질로 파견한 왕족 王綧이 새로이 귀부한 고려인을 관할하게 된 예 등이 있었다. 요양과 심양 등지에 이주한 고려인은 대략 5,000 호 정도가 되었고 대부분이 군인 신분이었다. 고려 이민을 전문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기구가 '요양고성'에 설치되었고, 이후 고려 왕족 왕준이 새로이 고려 이민을 관리하게 되면서 원래부터 고려 이민을 관할하던 홍복원과의 사정이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元朝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려 이민의 대부분은 流民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고려에서 사역에 동원되던 사람들이었다. 한편, 고려 측의 요구로 원조와 고려 사이의 교통 요지인 요양과 심양 지구에서 접객을 위한 소규모의 고려인이 이주하기도 했다. 한편, 원말 명초의 동란기에 고려 이민은 고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계속 요동에 거주하는 등의 동향을 보였는데, 특이한 것은 洪武, 永樂 시기 일부의 고려인들이 몽고인, 回回人 등과 함께 揚州로 이주했는데, 그들은 주로 軍職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후 明朝가 끝날 때까지 대대로 그 신분을 유지했다.

2기 [邊疆史地 2007年 2期]

「论中国边疆学科建设的若干问题」

方 铁,『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개혁개방 이래 중국 변강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변강학은 관련된 분야가 비교적 많다는 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성과가 학술계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중국 변강학은 그 독특한 연구대상과 연구의 성격 때문에 전문 역사학, 역사지리학, 법학, 인류학, 국제관계학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중국 변강학은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우수한 학문적 전통을 자랑한다. 현재 중국 변강학은 하나의 학과로 독립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즉 2~30년의 발전을 통하여 이미 많은 연구 인력과 연구 역량 그리고 수준 높은 학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래 발표된 관련 논문들만 해도 천 편이 넘고, 저작들도 백 권 이상이 된다. 특히 과거 각급 대학과 사회과학원에서 연구 인력을 배출했지만, 남경대학이 변강학 박사과정을 설치한 데 이어 운남대학도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남경대학과 운남대학은 각각 중국의 북부 변강 연구와 남부 변강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 변강학의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학술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변강학회의 설립을 건의한다. 그리고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연구자들과 연계하여 합작할 필요도 있다. 둘째, 중국 변강학의 학과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즉 역사학 계열 아래에 새로운 학과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의 시각을 새롭게 하고, 또 넓힐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연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분야는 시급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이론의 구축과 완성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고대의 변강 통치 이론과 그 실천적 양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역사 강역의 형성과 공고화 및 중국 변강의 안정과 발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试论唐朝的“中国”与“天下”」

李 方,『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최근 10여 년 동안 費孝通의 중화민족 다원일체 이론과 그가 주편한『中華民族多元一体格局』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족’, ‘華夷秩序’, ‘중국’ 그리고 ‘천하’ 등에 관한 연구가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연구가 先秦 시기와 청조 말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전체 시기의 그것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깊이가 없고

세밀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시기의 그것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唐朝의 '중국'과 '천하'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래 '중국'의 개념은 이미 西周 초기, 더 거슬러 올라가 商朝 시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唐代의 '중국' 역시 전통적 개념을 여전히 이어 받아 '四夷(四方)'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蠻夷戎狄', '五方之民'이 함께 '천하'를 형성하고. '四海'에 함께 거주한다는 관념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중국'이 원래 지역개념이자 문화개념이라는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당대의 '중국'이 지역, 문화 등의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특이한 것은 당대의 '중국'에는 政權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가리키는 지역적 범위가 때로는 확대되고 축소되었으며, 대체로 '중국'은 중원왕조가 직접 관할하던 지역을 가리킨다는 학계의 지적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덧붙일 것은 당대에는 '중국'이 '內地'로도 불렸다는 사실이다. 어떤 학자는 '중국' 혹은 '중화'가 全國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전국을 의미하기 시작한 것은 청조가 제정 러시아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외교적 公文에 전국을 '중국'으로 표현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당대 '중국'과 동의어로 쓰인 용어들로는 '中夏', '華夏', '中華', '函夏' 등을 들 수 있다.

唐代의 '중국'이 당조가 통치하던 모든 영역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당조 통치의 핵심 지역만을 의미했다고 한다면, '천하'는 당조가 실제로 통치하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당대의 '천하'는 당조와 왕래하던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과 당조가 실제로 통치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당연히 협의의 개념이 보다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당대의 '천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로는 '軍國'과 '邦國'을 들 수 있는데, 단지 의미상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 달랐을 뿐이었다. 가장 정중한 의미를 지녔던 '군국'은 중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의 수뇌들이 관할하던 범위를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최고 수뇌 이하의 관료들이 직무상 관할하던 범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방국'은 주로 官府의 관리와 중앙 부서의 사무에 관련되어 사용되어 '군국'보다 약간 차원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하'는 중앙과 지방은 물론이고 관료와 백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쓰였다. 그 외에 '四海', '海內' '區宇(區寓)' 그리고 '區夏' 등도 '천하'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唐代의 '중국'과 '천하'를 비교해 보면, 결국 '중국'이 '천하'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음을 알 수 있고, 광의의 '천하'는 결국 '중국'을 핵심으로 하고, 당조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 -즉 협의의 천하-를 정치적 실체로 하는, 다른 국가들까지도 포함한 세계체제이자 정치질서라고 할 수 있었다.

「华夷衍变与大一统思想框架的构筑 - 以『史记』有关记述为中心」

于逢春, 『中国边疆史地研究』 2007-2

필자는 이전에 역사적 淵源이 다르고 문화적 전승이 각기 다른 中原農耕(泛中原板塊), 大漠遊牧, 東北漁獵耕牧, 雪域牧耕, 海上 등 다섯 개의 文明板塊가 오랜 기간의 상호 충돌을 거쳐 1820년에 최종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중국의 강역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이들 5대 문명판괴를 결합시킨 접착제는 곧 '범중원판괴' 즉 중원농경 판괴에서 생성된 '大一統' 사상이었다는 것을 논한 적이 있다. (于逢春, 「构筑中國疆域的文明板

塊類型极其統合模式序說」,『中國邊疆史地研究』, 2006年 第3期) '대일통' 사상은 대략 戰國時代에 생성되었으며,『사기』의 저자 사마천에 의해 역사학과 계보학의 시각에 따라 최초로 체계화된 이론이었다. 황하 중하류 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범중원판괴'는 춘추시대 이래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서한 무제 시기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화하족과 주변 이적에 대한 의식 역시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하족과 이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바로 이 시기에 사마천은 생존했었다. 사마천은 자신의『사기』에서 화하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주변의 이적이 모두 같은 기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 즉 모두가 黃帝의 후손이라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즉 五帝 이래의 夏商周 왕조와 秦朝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변부의 吳, 越, 흉노,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역시 황제의 후손이라는 관점을『사기』의 본기와 세가 그리고 열전 등을 통하여 밝혔던 것이다. 사마천이 이와 같은 관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춘추시대에 이적으로 간주되던 秦, 楚, 吳, 越 등이 중원의 국가들과 패권을 다투고, 전국시대에 이르러 중원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화하족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고, 또 천하에 華夷가 공존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또한 화이의 구분이 종족에 있지 않고 문화에 있다고 하는『맹자』,『춘추공양전』,『春秋繁露』 등의 관점도 사마천의 관점에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華夷同祖의 관점은 이후 위진 남북조 시기의 여러 국가들 예를 들어 흉노인 赫連勃勃의 夏, 劉淵의 漢, 선비 출신의 前燕, 南凉, 北魏, 西魏 등이 모두 황제의 후손으로 자처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边疆民族关系范例解读 — 中国朝鲜族聚居区民族和睦成因探析」

刘智文,『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중국 조선족 집거지는 新中國 성립 이후 민족관계가 원만하고 안정적이어서 두 곳의 조선족 자치지방은 30개 자치주 가운데 유일하게 세 차례나 국무원에 의해 '民族團結社會進步模范自治州'로 명명되었다. 조선족 집거지가 이처럼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된 역사적 원인은 우선 조선족의 파란 많은 과거와 동북 지방의 개발과정 그리고 反帝反封建의 투쟁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족은 원래 여러 대에 걸쳐 天災와 人災, 유랑 생활, 국가의 멸망, 골육상쟁 등을 거쳤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중시한다. 그리고 조선족은 동북 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개발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리고 1900년 제정 러시아 군대가 동북 지방의 의화단을 진압할 당시만 해도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며 어부지리를 노리던 조선족은 1909년 중국과 일본이 '圖們江中韓界務條款' 즉 이른바 '間島協約'을 맺으면서부터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자발적으로 중국의 국적 취득을 희망하면서 최초로 중국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후 조선족은 五四運動, '21개조' 반대 운동 등에 합류하면서 주동적으로 중화민족의 형성 조류에 참여했다. 한편, 조선족 집거지의 민족관계가 원만한 문화적 원인은 조선족이 문화적으로 중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공통으로 사용하는 漢字는 서로를 뭉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서로가 공유하는 유교적 가치관 역시 조선족과 중국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은 예로부터 인적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족은 중국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이 그다지 없었다. 조선족의 뛰어난 문화적 자질 역시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선족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조선족의 공민권(중국 국적), 토지소유권, 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오래 동안 문제가 되었던 조선족의 신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전 中外의 정권들은 조선족의 신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었다.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을 중국의 공민으로 인정하자 조선족 역시 중국을 자신들의 국가로 인정했다. 이러한 쌍방향 인정은 원만한 민족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 외에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앞서는 민족정책, 비자치 민족에 대한 자치민족의 배려, 민족 간부의 양성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새로운 인식 등도 조선족 집거지가 세 차례에 걸쳐 민족단결의 모범적인 자치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조선족이 중국을 자신들의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이 조선족을 중국의 공민으로 인정하는 쌍방향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鲜王朝的长白山认识」

李花子,『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과거에 학계에서는 한국인의 長白山에 대한 존숭이 오랜 유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인에 의해 白頭山으로 불리는 장백산은 조선 왕조의 후기, 특히 英祖 시기에 이르러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후 비로소 조선 왕조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 왕조의 초창기에 장백산은 국가에 의해 정식으로 제사가 행해지는 山川祀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 태종 14년(1414) 예조에 의해 산천사전이 정해질 때 장백산은 단지 지방관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는 대상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永興 북쪽의 鼻白山은 北岳으로 지정되어 존숭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 시기에 이르러서는 지방관에 의한 제사의 대상에서도 장백산은 아예 제외되었다. 장백산이 조선의 경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장백산 주위에는 이른바 '野人'이라 불렸던 여진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다. 이후 중종 시기에 편찬된『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장백산 이남의 圖們江 상류 지역을 여진족의 거주 지역으로 보았고,『조선세종실록 · 지리지』에 언급된 함경도 안의 명산에도 장백산의 이름은 없었다. 비록 당시 조선 북부의 여러 산들이 모두 장백산에서 뻗어 나온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장백산이 조선의 경내에 있다고는 간주되지 않았다. 1712년(청조 강희 51년) 청조와 조선 왕조가 국경을 확정한 사건은 조선 왕조가 장백산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왕조의 전초 기지는 장백산에서 오륙일 거리에 있었지만 조선 왕조는 장백산이 천혜의 군사적 방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장백산을 경계로 하자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청조의 발상지로 간주되던 장백산의 天池는 청조에 귀속되고, 천지의 이남 보다 정확하게는 당시 세워진 정계비의 이남은 조선 왕조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은 북쪽 경계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영조 37년(1761)에 이르자 비백산을 장백산으로 교체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장백산이 오랑캐의 땅에 있다는 것과 祖宗朝에 없던 새로운 禮制를 만들 수 없다는 반대의 의견에 부딪혀 논의는 실패로 끝났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영조는 1767년(영조 43년) 조선의 경내에 없다면 望祭로 대신하면 된다면서 마침내 장백산을 국가의 정식 산천사전의 대상으로 채택하고, 장백산을 북악으로 삼은 뒤 망제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백여

년의 제사를 통하여 조선인과 더욱 친숙해진 장백산은 조선말의 고종 시기에 이르면 이미 '우리나라 백두산'이라 불릴 정도가 되었고, 다시 한 번 북악으로 확인되었다.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독립정신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國歌인 애국가의 가사 속에 반영되었다.

「中亚国家的民族关系与地区安全」

李 琪,『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다섯 개 공화국은 독립했다. 그러나 그들 다섯 개 공화국의 민족 구성은 대단히 복잡하여, 카자흐스탄의 경우 131 개 민족과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129 개 민족과 부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민족과 부족은 서로 다른 공화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민족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복잡한 민족관계와 더불어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 기독교(新教), 천주교 그리고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병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종교를 이용한 극단적 민족주의가 이 지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다섯 공화국이 독립한 이래 10여 년 동안 주민의 절대 다수가 신봉하는 이슬람교의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는데, 바로 이 이슬람교의 부흥운동이 분열주의자들이 서식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이들 공화국들에 이른바 각국의 주체민족을 우선시하는 '國家民族化'가 출현하여 국내의 각 영역에서 비주체민족 출신 인물을 축출하고 주체민족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주체민족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까닭에 축출된 비주체민족의 종교 활동은 동시에 민족성과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민족의 기치를 내건 분리주의자와 종교적 외피를 두른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온상이 된 것이다. 국제 이슬람주의 부흥조직으로 '이슬람 해방당' 이라고도 불리는 '伊扎布特'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新疆와 우루무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교리로 이른바 '聖戰'을 주장하면서, 주민을 교민과 이교도로 분리하고, 또 교민을 진짜 교도와 가짜 교도로 분리하는 등 민족 간의 분열을 선동하여 각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최근 많은 러시아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키르키스스탄 현지를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의 '9.11' 사건 이후, 테러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자 일부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이용하여 더욱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세기 90년대 초 '東투르크' 분열주의자들은 카자흐스탄의 七河 지역의 위구르인을 선동하여 중국 신강의 위구르 자치구와 함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단일민족의 '東투르키스탄 공화국'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 등이 주장하는 '민족자결' 혹은 '一族一國論' 등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고,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기대와 달리 '9.11' 이후 있었던 미국의 개입은 현지의 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민족관계 문제의 해결은 각국의 정부와 인민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이 분명해졌다.

다민족 국가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각 민족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특히 각국이 주체민족을 강조하고, 주체민족에게 특수한 지위와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면 민족 관계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악화된 경제적 상황 역시 민족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 각국은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으며,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에 보다 단호히 대처하기 시작했다. 원만한 민족관계를 위한 조치와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시종일관 각국의 정부가 잘 통제한다면 이 지역의 정세는 전체적으로 보아 안정된 국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汉唐藩属体制的多维夏原 — 读『汉唐藩属体制的研究』」

姚 胜, 尚衍斌,『中国边疆史地研究』2007-2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감수한 李大龍의『漢唐藩屬体制的研究』이 중국 사회과학원 출판사에 의해 2006년 5월 출판되었다. 본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 상편은 양한 시기의 번속체제를 다루고 있고, 하편은 唐朝 시기의 번속체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양한 왕조의 번속 관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제1절에서 저자는 '天下觀' 및 '夷夏觀'과 관련이 깊은 服事制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본서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본서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양한 왕조의 번속 관념의 형성과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전한 무제 시기 유가적 학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유가적 학설의 영향하에 서한 왕조와 주변의 변강민족의 관계를 규율할 '번속관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관념의 바탕에는 '천자의 덕은 四海에 미쳐야 한다'는 것과 '海內에 臣屬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서한 왕조의 번속체제의 건립과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제1절에서 저자는 군현, 속국, 특설기구 그리고 비록 칭신했지만 관리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던 '藩臣' 등으로 구성된 서한의 번속체제가 서한 宣帝 시기에 대체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특히 '敵國'의 (여기서의 적국이란 적대적인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력이 대등하여 서로 예속되지 않았던 국가라는 의미이다) 관계에 있었던 흉노와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생겨난 '속국'과 특설기구 즉 '護烏桓校尉', '護羌校尉', '西域都護'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번신'이 항복한 흉노를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제2절에서는 번속체제의 유지를 위해 서한 왕조가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저자는 중앙왕조와 주변민족 사이에 왕래했던 使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것이 점차 제도화되어 동한 시기에 使匈奴中郎將이라는 관직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제3장은 왕망 시기의 번속체제를 다루고 있고, 제4장은 동한 시기의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서한 시기의 번속체제와 대동소이했던 동한 시기의 번속체제는 더욱 內地化되고, 사흉노중랑장 등과 같은 특설기구의 등장 그리고 더욱 강화된 유가적 영향 등이라는 특징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당조 시기의 번속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과거의 유산을 계승한 당조가 '번신', '羈縻' 그리고 '적국'으로 구성된 번속체제를 운영했음을 고찰하고 있고, 제2장에서 당조 번속체제

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당조가 번속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용했던 제도적 수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근대 국제관계 이론의 '민족국가' 또는 '국제외교' 관념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의 조공관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배출된 것에 비해, 중앙왕조와 변강 혹은 주변 지구의 번속체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그나마 번속에 관한 연구가 주로 清代와 동아시아 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출판된 『漢唐藩屬体制的研究』는 이 분야에서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 **상**

초판 제1쇄 인쇄 2008년 4월 16일
초판 제1쇄 발행 2008년 4월 23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39-9-94910
978-89-6187-041-2-세트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187-039-9-94910
978-89-6187-041-2 (세트)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하

2007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이 역사를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歷史主權'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번에 펴낸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한 데 모은 것입니다. 우리와 중국은 문헌이 전하는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교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의 영토와 민족적 정체성을 갖기까지 오랜 세월의 역사적 굴곡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과도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역사인식은 국가 간의 역사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평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촉발부터 현 상태까지의 진행 경과를 되새겨 보고 문제의 핵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한 첫 번째 의도입니다. 관련 연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서적과 관련 연구문헌들에 대한 현황의 파악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이란 시간과 품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여기에 힘을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연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지희 재단에서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 문제는 곳곳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했던 과거의 역사를 넘지 않으려는 육지임에서 촉발되었지만, 단지 과거에 벌어진 역사에 대한 인식에 머물지 않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내 학계는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주제의 학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필요한 학술행사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자료로 보완하고 새로운 정보를 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한·중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기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연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힘들지만 빛은 나지 않는 일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하

2007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 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 일람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자 일람 | 323

4 한·중 역사문제 관련 중국측 연구기관

1) 관련 연구기관 현황 | 403

2) 대표적 연구기관의 조직도 | 405

3) 관련 기관 웹사이트 | 423

5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1) 2005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423

ㅇ 학술회의 | 430
◎ 학술회의 일람표 | 430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32
ㅇ 연구 및 출간 | 452
◎ 도서 | 452
● 기타도서 | 453
◎ 논문 | 455
● 일반논문 | 455
● 학위논문 | 462
ㅇ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463
◎ 신문 / 잡지 | 463
● 신문 | 463
● 잡지 | 476
◎ 방송 | 476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482
◎ 대중문화콘텐츠 | 482
● 전시회 | 482
● 이벤트 / 단신 | 484
● 시민강좌 | 486
◎ 네티즌의 반응 | 486

2) 2006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488

○ 학술회의 | 489
◎ 학술회의 일람표 | 489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90
○ 연구 및 출간 | 501
◎ 도서 | 501
◎ 논문 | 502
● 일반논문 | 502
● 학위논문 | 505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507
◎ 신문 / 잡지 | 507
● 신문 | 507
● 잡지 | 525
◎ 방송 | 525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31
◎ 대중문화콘텐츠 | 533
● 전시회 | 533
● 이벤트 / 단신 | 534
● 시민강좌 | 535
◎ 네티즌의 반응 | 535

3) 2007년 한 · 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537

○ 학술회의 | 538
◎ 학술회의 일람표 | 538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539
○ 연구 및 출간 | 568
◎ 도서 | 568
◎ 논문 | 571
● 일반논문 | 571
● 학위논문 | 575
○ 언론 및 여론의 대응 | 576
◎ 신문 / 잡지 | 576
● 신문 | 576
● 잡지 | 587
◎ 방송 | 588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92
◎ 대중문화콘텐츠 | 593
● 전시회 | 593
● 이벤트 / 단신 | 594
● 시민강좌 | 594
◎ 네티즌의 반응 | 594

1 한·중 역사문제의 경과

한·중 역사문제 관련 주요 일지 | 13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성과물

1)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십일오" 사업 발전 계획』 중 관련 내용 | 21

2) 주요 단행본 | 40

『고구려 역사연구』 | 40
『당조와 변강민족간의 사자 왕래 연구』 | 42
『발해유적』 | 44
『중국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 47
『중국동북변강연구』 | 48
『호태왕비 1580년』 | 50
『중국동북고민족발전사』 | 52
『러시아의 (중국) 동북이민개발문제연구』 | 55
『고려기연구』 | 57
『고대중국고구려사속론』 | 60
『중국고구려학자와 연구종술』 | 62
『한당번속체제연구』 | 65
『발해국사』 | 67
『고구려민족과 국가의 형성과 변천』 | 70
『고구려문제학술연구토론회』 | 72

3) 주요 연구논문 | 73

(1)『东疆学刊』(04년 1기~07년 4기) | 73

(2)『东北史地』(04년 1기~07년 4기) | 76

(3)『博物馆研究』(04년 1기~07년 2기) | 85

(4)『北方文物』(04년 1기~07년 3기) | 87

(5)『史学集刊』(04년 1기~07년 5기) | 90

(6)『社会科学战线』(04년 1기~07년 6기) | 91

(7)『中国边疆史地研究』(02년 1기~07년 4기) | 92

4) 주요 논문의 요약 | 103

『동북사지』(2004년~2007년) | 103

『중국변강사지연구』(2002년~2007년) | 18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 일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자 일람

1. 강맹산(姜孟山)……327
2. 강유공(姜維公)……327
3. 강유동(姜維東)……328
4. 경철화(耿鐵華)……329
5. 고명사(高明士)……333
6. 고명학(顧銘學)……334
7. 고복순(高福順)……334
8. 고원대(高遠大)……335
9. 권혁수(權赫秀)……335
10. 김욱동(金旭東)……335
11. 나계조(羅繼祖)……336
12. 도흥지(都興智)……336
13. 동 달(佟 達)……337
14. 동 봉(董 峰)……337
15. 동장부(董長富)……337
16. 동학증(董學增)……338
17. 등홍암(滕紅岩)……338
18. 마대정(馬大正)……338
19. 마 언(馬 彦)……339
20. 맹광요(孟廣耀)……340
21. 묘 위(苗 威)……340
22. 무가창(武家昌)……341
23. 박윤무(朴潤武)……341
24. 박진석(朴眞奭)……342
25. 박찬규(朴燦奎)……343
26. 방기동(方起東)……344
27. 부가흔(傅佳欣)……345
28. 부랑운(傅朗雲)……345

29. 서가국(徐家國)…… 346
30. 서건신(徐建新)…… 346
31. 서광휘(徐光輝)…… 347
32. 서덕원(徐德源)…… 347
33. 소춘화(邵春華)…… 348
34. 손 력(孫 力)…… 348
35. 손 홍(孫 泓)…… 348
36. 손계림(孫啓林)…… 349
37. 손금화(孫金花)…… 349
38. 손문범(孫文范)…… 350
39. 손옥량(孫玉良)…… 350
40. 손인걸(孫仁杰)…… 351
41. 손진기(孫進己)…… 352
42. 송복연(宋福娟)…… 353
43. 신점산(辛占山)…… 353
44. 양 군(楊 軍)…… 353
45. 양계정(梁啟政)…… 354
46. 양보륭(楊保隆)…… 354
47. 양소전(楊昭全)…… 354
48. 양수조(楊秀祖)…… 355
49. 양옥다(梁玉多)…… 355
50. 양지룡(梁志龍)…… 355
51. 양지홍(楊志紅)…… 356
52. 양춘길(楊春吉)…… 357
53. 양통방(楊通方)…… 358
54. 엄장록(嚴長祿)…… 358
55. 염 해(閻 海)…… 358
56. 염의지(閻毅之)…… 359
57. 영회학(寧會學)…… 359
58. 예군민(倪軍民)…… 359
59. 온옥성(溫玉成)…… 360
60. 왕 기(王 紀)…… 360
61. 왕 진(王 臻)…… 361
62. 왕 협(王 俠)…… 361
63. 왕건군(王建群)…… 361

64. 왕굉북(王宏北)…… 362
65. 왕리군(王利群)…… 362
66. 왕면후(王綿厚)…… 363
67. 왕배신(王培新)…… 365
68. 왕순신(王純信)…… 365
69. 왕승례(王承禮)…… 365
70. 왕우랑(王禹浪)…… 366
71. 왕준휘(王俊輝)…… 366
72. 왕중수(王仲殊)…… 367
73. 왕홍봉(王洪峰)…… 367
74. 왕효남(王曉南)…… 368
75. 웅의민(熊義民)…… 368
76. 위존성(魏存成)…… 368
77. 유 거(劉 炬)…… 369
78. 유 람(柳 岚)…… 370
79. 유경문(劉景文)…… 371
80. 유영지(劉永智)…… 371
81. 유자민(劉子敏)…… 372
82. 유후생(劉厚生)…… 373
83. 유훤당(劉萱堂)…… 374
84. 윤국유(尹國有)…… 375
85. 이건재(李健才)…… 375
86. 이대룡(李大龍)…… 376
87. 이덕산(李德山)…… 377
88. 이락영(李樂營)…… 377
89. 이수림(李樹林)…… 378
90. 이숙영(李淑英)…… 378
91. 이신전(李新全)…… 379
92. 이전복(李殿福)…… 379
93. 이정평(李正平)…… 381
94. 이종훈(李宗勛)…… 381
95. 이춘상(李春祥)…… 381
96. 이효종(李曉鐘)…… 382
97. 임지덕(林至德)…… 382
98. 장 도(張 韜)…… 383

99. 장박천(張博泉)…… 383
100. 장벽파(張碧波)…… 384
101. 장복유(張福有)…… 385
102. 장설암(張雪岩)…… 386
103. 장전갑(張殿甲)…… 387
104. 장지립(張志立)…… 388
105. 정영진(鄭永振)…… 388
106. 조굉위(趙宏偉)…… 389
107. 조덕전(曹德全)…… 389
108. 조동염(趙東艶)…… 390
109. 조병신(趙秉新)…… 390
110. 조복향(趙福香)…… 390
111. 조서근(趙書勤)…… 391
112. 조영춘(趙永春)…… 391
113. 주영순(周榮順)…… 392
114. 주운대(周雲臺)…… 393
115. 주향영(周向永)…… 393
116. 증헌주(曾憲姝)…… 394
117. 지 용(遲 勇)…… 394
118. 진대위(陳大爲)…… 395
119. 진상위(陳相偉)…… 395
120. 진승양(秦升陽)…… 395
121. 진유국(秦維國)…… 396
122. 총문준(叢文俊)…… 396
123. 최옥관(崔玉寬)…… 397
124. 축립업(祝立業)…… 397
125. 풍영겸(馮永謙)…… 397
126. 하 명(何 明)…… 398
127. 한 승(韓 升)…… 398
128. 한충부(韓忠富)…… 398
129. 황 빈(黃 斌)…… 399
130. 황갑원(黃甲元)…… 3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강맹산(姜孟山)

강맹산(1939~2002), 남, 조선족, 길림성 화룡시 출생. 1964년 연변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및 교수, 박사 지도교수와 중국조선사 연구회 부회장 및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的足跡』, 延邊人民出版社, 1982年.

2.『高句麗史話』, 延邊人民出版社, 1984年.

3.『朝鮮簡史』(合編), 延邊教育出版社, 1986年.

4.『高句麗歷史故事』(上, 合編), 延邊人民出版社, 1987年9月.

5.『朝鮮中世紀史研究』(合編), 延邊大學出版社, 1988年.

6.『朝鮮通史』, 延邊大學出版社, 1992年.

7.『高句麗遺物和遺跡研究』(合編),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4年.

8.『中國境內高句麗遺跡研究』(合編), 韓國芸河出版社, 1995年.

9.『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合編), 延邊大學出版社, 1996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歷史的歸屬問題」,『全國朝鮮史研究회』, 1979年.

2.「論高句麗國家的社會性質」,『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3.「試論高句麗的源流及其早期國家」,『朝鮮研究』, 1983年第5期.

4.「高句麗五部」,『朝鮮學國際學術會議文集』, 1989年.

5.「高句麗族起源的最初國家形態」,『朝鮮學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89年2月.

6.「高句麗的早期國家」,『展望』, 1990年第1期.

7.「高句麗早期的兩個高句麗國家」,『朝鮮學國際學術會議文集』, 1992年.

8.「國內城遺址」,『高句麗遺物研究』,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4年版.

9.「高句麗族初期國家」,『延邊大學學報』, 1997年增刊.

10.「高句麗史的歸屬問題」,『東疆學刊』, 1999年第4期.

2. 강유공(姜維公)

강유공(姜維公), 또는 강유공(薑維恭), 남, 한족, 1962년 8월 길림성 농안현(農安縣) 출생. 1985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2004년 길림대학 역사학부 대학원을 졸업하여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장춘사범대학 역사관광문화학원 원장 겸 도서관 관장, 교수, 동북사범대학 겸임교수, 성급중점건설학과 책임자 이외에 길림성 역사학회 상무이사,『동북사지(史地)』편집위원회 위원, 중국 동북공정 책임자로 근무한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歷史地理簡論』(合著), 吉林文史出版社, 1990年10月.

2.『「高麗記」研究』(合著),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9月.

3.『高句麗歷史研究初編』, 吉林人民出版社, 2005年3月.

b. 주요 논문

1.「兩唐書及〈資治通鑒〉關于安東都護府記載的不同」,『古籍整理研究學刊』, 1990年第2期.

2.「7世紀東北亞形勢」,『長春師院學報』, 1990年第4期.

3.「中東鐵路與長春人民的抗俄鬪爭」,『長春史地』, 1992年第1期

4.「東疆古代民族地理述略」(合作),『長春師院學報』, 1992年第2期.

5.「〈高麗記〉成書時間及作者考」(合作),『古籍整理研究學刊』, 1998年第2期.

6.「關于衛滿的國籍問題」,『博物館研究』, 1998年第3期.

7.「〈高麗記〉校勘記」,『長春師院學報』, 1998年第4期.

8.「〈高麗記〉的史料價值」,『古籍整理研究學刊』, 1999年第2期.

9.「陳大德與〈奉使高麗記〉」,『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10.「〈高麗記〉一則佚文的補訂」,『通化師院學報』, 2000年第3期.

11.「北魏滅燕對海東局勢的影響」,『北魏史研究』, 商務印書館2001年.

12.「〈三國史記〉李績奏報的眞僞問題」,『長春師院學報』, 2002年第1期

13.「李績奏報的史料價值」,『長春師院學報』, 2002年第2期.

14.「關于處理歷史時期中朝邊界問題的几點建議」,『長春師院學報』, 2003年第1期

15.「歷代漢族移民對高句麗經濟的影響」,『東北史地』, 2004年第3期.

16.「南朝與北朝對高句麗政策的比較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17.「從古代假發的盛行看新羅貢發的作用」,『東北史地』, 2004年第10期.

18.「南朝與北朝對高句麗政策的比較研究」,『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3. 강유동(姜維東)

강유동, 남, 한족, 1971년 3월 길림성 농안현(農安縣) 출생. 국민학교, 중등학교를 거쳐 전문대를 나왔으며 전기 스토브 공장과 전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다년간 자습으로 중국 중고사 및 동북지방민족사를 공부하였다. 2000년에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연구소 자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에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연구소에서 보조(助理)연구원으로 발탁되었고, 2005년에는 장춘사범대학의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唐麗戰爭史』,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2.『唐朝皇帝秘史 · 唐昭宗, 僖宗, 哀帝卷』, 書海出版社, 2002年.

3.『唐的東征將士事跡考)』,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4.『東北地方民族史證』(合著), 吉林大學出版社, 2005年3月.

b. 주요 논문

1.「〈高麗記〉的成書時期及作者考」(合作),『古籍整理研究學刊』, 1998年第2期.

2.「從夫餘與高句麗官制中的"加"看夫餘玉文化與紅山文化的關系」,『長春師院學報』, 1998年第3期.

3.「歷史上的蓋蘇文政變」,『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4.「隋唐時出使高句麗的兩位使者」,『博物館研究』, 2000年第1期

5.「〈高麗記〉一則佚文的補訂」, (合作),『通化師院學報』, 2000年第2期.

6.「高句麗淫風析源」,『博物館研究』, 2001年第1期.

7.「高句麗的靈星祭祀」,『北方民族』, 2001年第2期.

8.「唐朝對高句麗遺民的安置」,『長春師院學報』, 2001年第4期.

9.「高句麗大族泉姓氏發覆」,『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10.「〈三國史記〉糾繆舉例」,『北方民族』, 2002年第1期.

11.「唐東征高句麗時的糧運措施」,『長春師院學報』, 2002年第6期.

12.「高句麗研究的若干問題」,『中國東北疆域與民族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年.

13.「唐東征將士事跡考撰集緣起」,『博物館研究』, 2003年第1期

14.「金仁問事跡考」,『博物館研究』, 2003年第2期.

15.「馬訾水, 鹽難水考」,『北方民族』, 2003年第2期.

16.「唐代關於高句麗, 新羅的著述考略」,『博物館研究』, 2004年第1期

17.「論中原王朝對高句麗政策的思想基礎」,『東北史地』, 2004年第3期.

18.「高句麗文化淵源概論」,『社會科學戰線』, 2004年第6期.

19.「中原王朝對高句麗冊封制度的研究」,『東北史地』, 2004年第12期.

4. 경철화(耿鐵華)

경철화(耿鐵華), 범러(範犁), 철화(鐵華), 화암(華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남, 1947년 길림성 부여현(扶餘縣) 출생. 1975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했고, 1981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에서 선진사(先秦史)를 전공하여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찍이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 집안시 박물관 부관장 및 부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부 교수 및 고구려연구원 원장,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 및 강역연구중심 학술위원회 위원, 길림사범대학 문학원 겸임교수, 중국 고고학회 회원, 중국 선진사학회(先秦史學會) 이사, 중국 조선사학회 이사, 길림성 역사학회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1993년에는 정부 특수보조금 지급자로 지정되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集安縣文物志』(合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0月.

2.『柳河縣文物志』(合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6月.

3.『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4.『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1994年6月.

5.『高句麗歷史及文化研究』(合著),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6.『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目錄1950～1996』(合編),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7年6月.

7.『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錄』(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8.『高句麗史籍匯要』(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9.『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合著), 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9年6月.

10.『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11.『高句麗歸屬問題研究』(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2.『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目錄1950～2000』(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3.『高句麗瓦當研究』(合著), 吉林人民出版社, 2001年12月.

14.『中國高句麗史』(合著), 吉林人民出版社, 2002年12月.

15.『好太王碑－1580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16.『古代中國高句麗史續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17.『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12月.

18.『高句麗史論稿』, 吉林人民出版社, 2005月3月.

b. 주요 논문

1.「集安出土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合作),『文物』, 1984年第1期.

2.「漢魏高句麗古都－集安」(合作),『吉林畫報』, 1984年第4期.

3.「高句麗好太王碑」,『文物天地』, 1984年6期.

4.「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合作),『考古』, 1985年第7期.

5.「吉林集安出土的几方銅印」(合作),『北方文物』, 1985年第4期.

6.「高句麗起源和建國問題探索」,『求是學刊』, 1986年第1期

7.「高句麗漁獵經濟初探」,『博物館研究』, 1986年第3期.

8.「文物豊富的集安」,『中國青年報』, 1986年8月24日.

9.「高句麗壁畫中的社會經濟」,『北方文物』, 1986年第3期.

10.「好太王碑新考」, 日本新泉社,『好太王碑爭論の解明』1986年9月.

11.「高句麗民俗概述」,『求是學刊』, 1986年第5期.

12.「我國歷史上的高句麗」,『中國青年)』, 1986年10月26日.

13.「高句麗壁畫中的貴族生活」(合作),『博物館研究』, 1987年第2期.

14.「集安高句麗文物」,『城市時報』, 1987年7月3日.

15.「從高句麗壁畫中的戰爭題材看高句麗軍隊與戰爭」,『北方文物』, 1987年第3期.

16.「集安出土的几面銅鏡」(合作),『北方文物』, 1987年第3期.

17.「高句麗貴族冉牟墓及墓志考釋」(合作),『遼海文物學刊』, 1987年第2期.
18.「好太王碑火前無完整拓本」,『考古與文物』, 1988年第1期.
19.「毋丘儉紀功碑考略」,『中國文物報』, 1988月4月29日.
20.「柳河縣三統河流域原始文化遺址調查」(合作),『博物館研究』, 1988年第2期.
21.「好太王碑的國煙看煙及其身份問題」,『求是學刊』, 1986年第1期.
22.「對毋丘儉紀功碑的幾點說明」,『中國文物報』, 1988年7月22日.
23.「集安人參史料考略」,『中國人蔘源流』, 吉林人民出版社, 1988年6月.
24.「高句麗壁畫中的宗教與祭祀」,『遼海文物學刊』, 1988年第2期.
25.「好太王碑發見時期についての新たな檢討」, 日本『市民の古代』第10集, 1988年.
26.「好太王碑は火ゃ燒かゎる以前完全な拓本はなかった」, 日本『市民の古代』第7集, 1985年.
27.「集安禹山高句麗墓葬」,『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8年.
28「柳河縣一統河流域原始文化遺址」(合作),『博物館研究』, 1989年第1期.
29.「集安高句麗農業考古概述」,『農業考古』, 1989年第1期
30.「高句麗文物古跡四題」,『文物春秋』, 1989年第4期.
31「好太王碑的保護與現狀」,『文博』, 1990年第2期.
32.「中國文明起源的考古學研究」,『中原文物』, 1990年第2期.
33.「高句麗民族的長袖舞」,『古民俗研究』, 1990年9月.
34.「好太王碑"辛卯年"句考釋」,『考古與文物』, 1988年第1期.
35.「中國古代帝王王陵墓的調查與研究」,『天皇陵墓と發掘せょ』, 日本三一書房, 1993年2月.
36.「朝鮮郵票上的集安文物古跡」,『吉林集郵』, 1993年第4－5期.
37.「高句麗兵器初論」,『遼海文物學刊』, 1993年第2期.
38.「中國高句麗文化研究十年1981～1990」,『朝鮮學研究』, 1993年第2期.
39.「〈高句麗族屬根源〉駁議」,『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7年7月.
40.「毋丘儉征高句麗的几個問題」,『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1.「高句麗墓上建築及其性質」,『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2.「集安高句麗古基壁畫及其保護」,『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3.「集安高句麗歷史與好太王碑」,『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4.「高句麗兵器研究」(合作),『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5.「中國學者高句麗研究論文目錄」,『高句麗研究文集』, 1993年7月.
46.「集安五盔墳5號墓藻井壁畫新解」,『北方文物』, 1993年第3期.
47.「集安博物館藏廣開土大王陵碑拓本研究」, 韓國『文化財研究所文集』, 1993年8月.
48.「高句麗人的婚姻和家庭」,『延邊大學學報』, 1996年第3期.
49.「好太王碑在集安」,『新文化報』, 1996年12月30日.
50.「初氏父子與好太王碑」(合作),『新文化報』, 1997年1月27日.
51.「高句麗先人經歷過銅器時代」,『博物館研究』, 1997年第2期.

52「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合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53.「高句麗南北道的形成與拓展」,『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54.「高句麗古墓的几個問題」,『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55.「高句麗冉牟墓研究」,『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56.「千秋風雨話丸都」(合作),『新文化報』, 1997年8月14日.

57.「立在墓旁的石刻人像」(合作),『新文化報』, 1997年9月25日.

58.「好太王碑建立及相關問題」,『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59.「好太王碑中的"倭"」,『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0.「好太王碑時期的軍隊」,『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1.「好太王碑的史料價值」,『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2.「羅振玉先生與好太王碑研究」,『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3.「水穀悌二郎先生與〈好太王碑考〉」,『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4.「王建群先生好太王碑識讀比較誤差及說明」,『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5.「〈好太王碑研究〉箚記」,『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66.「本世紀以來我國對高句麗問題的研究」,『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8年第2期.

67.「穢貊, 高句麗及其相關問題」(1)(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穢貊, 高句麗及其相關問題」(2)(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3期.

68.「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概述」(合作),『社科信息報』, 1998年7月30日.

69.「金毓黻丸都訪古」(合作),『新文化報』, 1998年4月23日.

70.「詩文典籍證丸都」(合作),『長白山日報』, 1998年6月22日.

71.「王國維與毋丘殘碑」,『新文化報』, 1998年4月.

72.「王志修〈高句麗永樂太王碑歌〉註釋與說明」(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73.「集安市新出土的几件高句麗文物」,『博物館研究』, 1998年第2期.

74.「高句麗人的詩作是對高句麗歷史與文化的結晶」,『長白山日報』, 1999年2月7日.

75.「歷代有關高句麗詩作是對高句麗歷史與文化的評說」,『長白山日報』, 1999年2月9日.

76.「今人對高句麗遺跡的吟詠是對高句麗古老文明的贊頌」,『長白山日報』, 1999年2月15日.

77.「高句麗族源論稿」(上),『通化師院學報』, 1999年第1期.

78.「關于東北民族與疆域若干問題的研究」,『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第2期.

79.「高句麗族源論稿」(下),『通化師院學報』, 1999年第3期.

80.「冉牟墓志集釋」(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81.「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建所五周年」(合作),『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2000年第1期.

82.「高句麗壁畫四神圖及其文化淵源」,『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83.「高句麗疆域調查與研究現狀」(合作),『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84.「高句麗歷史課程建設的特色與價值」,『通化師院學報』, 2000年第4期.

85.「冉牟墓志與中原高句麗碑」, 韓國『高句麗研究』, 第10輯, 2000年12月.

86.「中原高句麗碑考釋」,『通化師院學報』, 2001年第1期.
87.「高句麗紇升骨城新考」(合作),『北方民族』, 2001年第2期.
88.「高句麗釉陶的類型與分期」,『考古與文物』, 2001年第3期.
89.「高句麗歸屬問題研究」(合作),『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90.「王少箴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91.「〈長白山詩詞選〉對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的貢獻」,『長白山詩詞論選』,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92.「訪高句麗霸王朝山城」,『學問』, 2002年第2期.
93.「好太王碑拓本收藏著錄及其年代」,『社會科學戰線』, 2002年第7期.
94.「好太王碑文煙戶, 奴客諸詞語補釋」(合作),『通化師院學報』, 2002年第1期.
95.「〈中國高句麗史〉寫作緣起」,『學問』, 2003年第7期.
96.「高句麗王陵問題研究」(合作),『社會科學戰線』, 2003年第2期.
97.「高句麗文化研究與長白山地區旅遊資源開發」,『通化師院學報』, 2003年第5期.
98.「高句麗建國時間考論」,『學習與探索』, 2004年第3期.
99.「高句麗遷都國內城及相關問題」,『東北史地』, 2004年第1期.
100.「集安作爲高句麗都城的考古學證明」,『東北史地』, 2004年第2期.
101.「高句麗遺跡列入世界遺產名录之後」,『通化日報』, 2004年7月2日.
102.「高句麗歷史的三大謎團」,『北京科技報』, 2004年7月7日.
103.「高句麗遺跡列入世界文化遺產名录與高句麗歸屬問題」,『東北史地』, 2004年第7期.
104.「兩漢時期高句麗的封國地位」,『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105.「王莽征高句麗兵伐胡史料與高句麗王系問題」,『北方文物』, 2005年第2期.
106.「晉封高句麗官印考略」,『東北史地』, 2005年第3期.
107.「高句麗神話傳說解析」,『吉林師大學報』, 2005年第3期.
108.「好太王碑1590年祭」,『中國邊疆史研究』, 2005年第3期.
109.「高句麗泉氏墓地調查及其價值」,『東北史地』, 2005年第4期.
110.「方起東先生對高句麗考古研究的貢獻」,『東北史地』, 2005年第5期.

5. 고명사(高明士)

고명사, 남, 한족, 1940년 대만 중청수(中淸水) 출생. 1965년 대만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했고, 1983년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만대학 역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戰後日本的中國史研究』, 台灣, 1982年.

2.『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 台灣, 1984年.

3.『東亞古代的政治與教育』, 台灣樂學書局, 2003年2月.

4.『中日傳統政治與教育』, 台灣文律出版社, 2003年3月.

5.『東亞教育圈形成史論』, 上海古籍, 2003年7月.

b. 주요 논문

1.「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韓國學報』, 1983年第3期.

2.「訪勞貞一院士談高句麗好太王碑」,『韓國學報』, 1983年第3期.

3.「〈台灣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拓本〉補述」,『韓國學報』, 1983年第4期.

4.「高句麗好太王碑研究現況與展望」,『季刊邪馬台國』, 1985年2第6期.

5.「中央研究員歷史語言研究所所藏的高句麗好太王碑乙本原石拓本的史學價值」,『季刊邪馬台國』, 1985年2第6期.

6. 고명학(顧銘學)

고명학, 명학(明學), 고명학(高鳴鶴), 고명학(孤鳴鶴)이라고도 불렀다. 남, 한족, 1927년 7월 출생. 1951년 동북사범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하고 1953년 중국인민대학 외교학부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魏志 · 高句麗傳〉考釋」(上),『學術研究叢刊』, 1981年第1期.

2.「〈魏志 · 高句麗傳〉考釋」(下),『學術研究叢刊』, 1981年第2期.

3.「〈三國史記〉與〈舊三國史〉和〈東明王篇〉」,『朝鮮史研究』, 1983年第5期.

4.「一份更爲可信的高句麗史料－關于〈翰苑 · 番夷部〉注引〈高句麗〉佚文」(合作),『學術研究叢刊』, 1986年第5期.

5.「關于舊三國史與東明王篇」,『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11月.

7. 고복순(高福順)

고복순, 남, 한족, 1965년 길림 서란(舒蘭) 출생, 일찍이 장춘사범학원 동북아연구소 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길림대학 역사학부 부교수로서 박사과정에 있다. 길림성 역사학회 부비서장직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歷史地理簡論』(合著), 吉林文史出版社, 1991年.

2.『「高麗記」研究』(合著),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9月.

b. 주요 논문

1.「陳大德與〈奉使高麗記〉」,『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2000年第1期.

2.「〈高麗記〉佚文在地名學上的貢獻」,『東疆學刊』, 2000年第1期.

3.「東北地方史研究的新收獲 –〈黑土地的古代文明〉評價」(合作),『北方民族』, 2000年第3期.

4.「〈高麗記〉所記高句麗官制體系初步研究」,『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版.

5.「漢魏時期高句麗政權的統轄區域 – 〈三國史記 · 高句麗本紀〉記事爲中心」,『東疆學刊』, 2001年第4期.

6.「〈高麗記〉研究」,『東北民族與疆域研究』, 2002年第1期.

8. 고원대(高遠大)

고원대, 남, 한족, 1961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91년 길림대학 고고학부 고고학연수반을 졸업하고 현재 집안시박물관 직원으로 근무한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維修中發見的兩座高句麗積石石室壁畫墓」,『博物館研究』, 2000年第1期.

2.「集安出土的人形車轄」,『博物館研究』, 2000年第3期.

9. 권혁수(權赫秀)

권혁수, 남, 조선족, 1962년 길림성 반석현(磐石縣) 출생. 1979～1986년 동북사범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 8월에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의 자격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현재는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교수로서 박사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

2.『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韓國學者鄭求福的高句麗國號改稱"高麗"說」,『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2003年第1期.

2.「殊途未必同歸存異或可求眞 – 讀中韓學界兩部高句麗史研究最新代表作」,『東北史地』, 2004年第4期.

10. 김욱동(金旭東)

김욱동, 남, 한족, 1964년 길림성 덕혜시(德惠市) 출생. 1985년 길림대학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박물관연구』와『역사와 고고정보·동북아』두 잡지의 편집장, 길림성 고고학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丸都山城』,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探尋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合作),『中國文物報』, 2003年3月19日.

2.「走近高句麗」,『建築與文化』, 2004年第6期.

3.「丸都山城－因戰爭興廢的防禦性都城」,『中國文化遺産』, 2004年夏季號.

4.「艱辛的歷程, 閃光的足跡－方起東先生與吉林考古」(合作),『東北史地』, 2005年第5期.

11. 나계조(羅繼祖)

나계조(1913～2002), 남, 한족, 원래 자는 봉고(奉高)였으나 후에 감유(甘孺)로 고쳤다. 본적은 절강 상우(上虞), 일본 교토(京都)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조부 나진옥(羅振玉) 선생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 집안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학문이 깊다. 일찍이 길림대학 고적연구소(古籍研究所) 교수, 중국역사문헌연구회 학술위원, 중국서예가협회 회원을 역임하였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중국사학전문가, 고문헌학자, 서예가, 서화감상가(書畵鑑賞家)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永豊鄕人行年錄』, 江蘇人民出版社, 1980年.

2.『蛰寄留痕』,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10月.

b. 주요 논문

1.「遼東公孫氏聯吳拒魏及其和高句麗和關系」,『東北地方史研究』, 1985年第4期.

2.「簡談好太王碑字體」(合作),『博物館研究』, 1986年第1期.

12. 도흥지(都興智)

도흥지, 남, 몽골족, 1950년 1월 요녕성 와방점시(瓦房店市)에서 출생. 1982년 길림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했고, 1985년 길림대학 대학원에서 동북지방사를 전공하여 졸업하면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요녕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로서 주요 연구방향은 동북지방사와 요(遼), 금(金)의 역사이다. 강의하는 중점과목으로 중국고대사(五代宋遼金元明淸), 고고학개론, 동북지방사, 요금사(遼金史), 문물감상 등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從始祖神話傳說看東北古代民族與中原民族的聯系」,『遼寧師範大學學報』, 1995年第5期.

2.「唐政權與朝鮮半島的關系論述」,『史學集刊』, 2001年第3期.

3.「關于古朝鮮研究的几個問題」,『史學集刊』, 2004年第2期.

4.「關于高句麗史研究中的几個問題」,『東北史地』, 2004年第6期.

13. 동 달(佟達)

동달, 남, 석백족(錫伯族), 1953년 출생. 무순시박물관 고고대 대장, 부관장, 관장을 역임했고 무순시 문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주임, 무순시 문화국 국장조리(局長助理)로 근무한 적이 있다. 현재 무순시 문화국 부국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문물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爾山』, 遼寧民族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遼寧新賓縣黑溝高句麗早期山城」(合作),『文物』, 1985年第2期.

2.「遙寧新賓縣轉水湖山城」,『北方文物』, 1991年第1期.

3.「遼寧新賓縣高句麗太子城」,『考古』, 1992年第4期.

4.「關于高句麗南北交通道」,『博物館研究』, 1993年第3期.

5.「新賓五龍高句麗山城」,『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6.「撫順高爾山城II期遺跡的再認識」(合作), 韓國『高句麗考古遺跡與遺物』, 學文出版社, 2001年.

14. 동봉(董峰)

동봉, 남, 한족, 1970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93년 남개대학 역사학부에서 박물관을 전공으로 졸업하고, 현재 집안시 문물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國內城中新發見的遺址和遺物」,『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2.「東北地區高句麗山城的分類及年代」,『博物館研究』, 1995年第3期.

3.「集安高句麗古墳壁畫中的四神圖」,『博物館研究』, 2001年第1期.

4.「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2112號墓」,『北方文物』, 2004年第2期.

5.「集安的歷史沿革」,『建築與文化』, 2004年第6期.

15. 동장부(董長富)

동장부, 남, 한족, 1943년 11월 길림성 집안 출생. 1962년 통화사범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집안시박물관 부연구관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高句麗古墓壁畫」(合作),『文物天地』, 1984年第6期.

2.「集安渾江流域新石器時代遺址調查」(合作),『博物館研究』, 1985年第3期.

3.「集安高句麗壁畫臨摹的几點體會」(合作),『吉林省博物館學會成立十周年紀念文集』, 1992年8月.

4.「集安高句麗壁畫臨摹述略」(合作),『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16. 동학증(董學增)

동학증, 남, 한족, 1934년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55년 국가문물국 고고학 연수반 제4기를 졸업하고 길림성박물관 및 길림시박물관의 연구관원을 역임하였다. 중국고고학회 회원, 중국박물관학회 회원, 길림성고고학회 이사, 길림성 박물관학회 이사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西團山文化』, 吉林市博物館, 1984年.

2.『夫餘文化研究論集』(合編), 吉林市文化管理處, 2003年7月.

b. 주요 논문

1.「吉林東團山原始漢, 高句麗, 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博物館研究』, 1982年第1期.

2.「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附近衛城調查報告」,『北方文物』, 1986年第4期.

3.「〈中國高句麗史〉創新之處」,『中國文物報』, 2005年5月11日.

17. 등홍암(滕紅岩)

등홍암, 남, 한족, 1962년 9월 길림성 요원시(遼源市) 출생. 1984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통화사범학원 역사학부 세계사교학연구실 주임,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a. 주요 단행본

1.『渤海研究資料簡編』, 吉林文史出版社, 2005年.

b.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目錄』,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c. 논문

1.「高句麗與倭的關系」,『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2.「〈中國文物考古辭典〉中高句麗遺跡辭條的誤釋」,『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3.「中原王朝對高句麗政權的冊封新探」,『通化師院學報』, 2004年第3期.

4.「試析中原王朝對高句麗政權的冊封」,『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8. 마대정(馬大正)

마대정, 남, 1938년 9월 상해에서 출생. 1960년 7월 산동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였고, 1963년 7월 산동대학 역사학부에서 중국근대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획득하였다. 현재는 중국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 위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연구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이며 국무원에서 수여

하는 특수보조금 수혜자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문화정보연구중심(中國歷史文化信息研究中心) 주임, 중국사회과학원 신강발전연구중심(新疆發展研究中心) 주임, 중국변방지역 역사와 사회연구 운남공작참(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雲南工作站)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또한 중국사학회 이사, 중국중앙아시아문화연구회(中國中亞文化研究會) 이사장, 신강 위그르자치구 국제경제문화발전중심 이사, 대만 소수민족연구회 이사, 중국도시인류학회 상무이사, 중국해양법학회 상무이사,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 겸임교수,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과 강역 연구중심(東北民族與疆域研究中心)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변강 역사와 현황 연구 및 중국 변강학(邊疆學) 이론틀의 구축에 종사하였으며, 국가와 사회과학원의 중점연구항목 다수를 주관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邊疆經略史』(主編), 中州古籍出版社, 2000年.

2.『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

3.『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4.『中國東北邊疆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年.

5.『中國邊疆史地論集續編』,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年.

6.『高句麗渤海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b. 주요 논문

1.「深入研究, 規範宣傳, 加强管理－關于高句麗問題研究和宣傳工作的建議」,『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第1期.

2.「百餘年中國學者的高句麗歷史研究歷程)」,『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

3.「關于邊疆研究若干問題的思考」,『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第1期.

4.「組織跨學科力量對中國邊疆重大問題研究進行聯合攻關」,『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第4期.

5.「中國學者的高句麗歸屬評釋」,『東北史地』, 2004年第1期.

6.「再論高句麗歷史研究中的相關問題」,『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19. 마언(馬彦)

마언, 필명은 홍곡(鴻鵠), 남, 한족, 1954년 10월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75년 연변대학 조선어학부를 졸업하였고, 현재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 부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술성과

a. 편집저서

1.『中朝關系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年7月.

2.『三國史記』(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3月.

3.『三國遺事』(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3月.

4.『高句麗歷史知識』,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10月.

b. 주요 논문

1.「乙支文德家世考證述評」,『朝鮮研究文集』, 1983年第2期.

2.「德興里壁畫墓研究述評」,『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3.「安岳三號墓研究述評」,『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第1期.

4.「論唐朝的開明政策與高句麗滅亡之關系」(合作),『社會科學戰線』, 2000年第5期.

5.「朝鮮德興里壁畫墓之我見」,『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6.「高句麗國相制度研究」,『東北史地』, 2005年第6期.

20. 맹광요(孟廣耀)

맹광요(1938~2005), 맹고탁력(孟古托力)이라고도 부름. 남, 요녕 본계현(本溪縣) 출생. 1960년 내몽고사범학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 조교로 남았다. 1971년 이후 내몽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北方民族史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

2.『北部邊疆民族史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年5月.

b. 주요 논문

1.「隋王朝對邊疆遼海經略」,『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第1期

2.「古代東北民族南下西進規律性運動考論－駁"南北對抗論"」,『學習與探索』, 2000年第2期.

3.「高句麗王國儒家文化述論」,『黑龍江民族叢刊』, 2001年第2期.

4.「高句麗"天道修德"及仁孝禮述論」,『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5.「高句麗王國的韓族人口考索－兼論漢族人口的重要作用」,『北部邊疆民族史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年5月.

21. 묘위(苗威)

묘위, 여, 한족, 1968년 3월 길림성 이수현(梨樹縣) 출생. 1991년 사평사범학원(四平師範學院) 역사학과를 졸업하며 역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연변대학 역사학과 부교수이며 박사과정에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高句麗和孫吳的交往」(合作),『東疆學刊』, 1999年第4期.

2.「試論隋麗戰爭」,『延邊大學學報』, 2000年第3期.

3.「華夷觀的嬗變對朝鮮王朝吸收中國文化的影響」,『東疆學刊』, 2002年第3期.

4.「隋朝經略高句麗」,『北方民族』, 2003年第2期.

5.「從隋唐君臣的高句麗觀看高句麗政權的性質」,『北方民族』, 2004年第2期.

6.「〈中韓關系史〉(古代券)引注文獻訂訛」,『東疆學刊』, 2004年第2期.

7.「從金富軾的高句麗觀看高句麗政權的性質及其歷史歸屬」,『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8.「樂浪郡與三韓」,『東北史地』, 2004年第6期.

9.「箕子朝鮮研究」(合作),『東北史地』, 2004年第8期.

10.「高句麗歷史研究與中韓關系」,『延邊大學學報』, 2005年第3期.

22. 무가창(武家昌)

무가창, 남, 한족, 1947년 심양시 출생. 1984년 요녕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桓仁發現高句麗壁畫大墓」,『中國文物報』, 1992年3月8日.

2.「桓仁縣米倉溝高句麗壁畫大墓」,『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1992年.

3.「我省首次發掘高句麗壁畫大墓」(合作),『沈陽日報』, 1993年1月2日.

4.「遼寧桓仁高句麗壁畫」,『中國文物報』, 1993年5月9日.

5.「桓仁米倉溝將軍墓壁畫初探」,『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6.「米倉溝將軍墓壁畫及諸被葬者的問題研究」, 韓國『高句麗研究』, 1997年12月.

7.「關於集安高句麗王陵的看法」,『博物館研究』, 2002年第4期.

8.「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合作),『北方文物』, 2003年第2期.

9.「高句麗古墓壁畫中的蓮花形態與位置關系研究」, 韓國『高句麗研究』, 2003年12月.

10.「集安兩座高句麗墓上的石碑爲"通天柱"說」,『北方文物』, 2005年第3期.

23. 박윤무(朴潤武)

박윤무, 남, 조선족, 1953년 길림성 연길시 출생. 현재는 연변박물관 부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汪清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10月.

2.『和龍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1月.

3.『長白朝鮮族自治縣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9月.

4.『延邊文物志簡編』(合編), 延邊人民出版社, 1988年9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都城與渤海都城的比較」,『高麗學研究』(1), 北京民族出版社, 1994年.

2.「鴨綠江流域高句麗古墓調查」,『高句麗遺物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4年.

3.「고구려 도성과 발해 도성의 비교연구」,『어강권태원정년논총－민족문화의 제문제』, 1994.

24. 박진석(朴眞奭)

박진석, 남, 조선족, 1926년 8월 6일 길림성 도문시(圖們市) 출생. 1952년 10월 연변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연변대학 역사학과 부주임, 연변박물관 주비처(籌備處) 주임, 연변역사언어연구소 역사연구실 주임,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역사연구실 주임 및 교수를 역임하다가 1991년 5월 퇴직하였다. 일찍이 전국청년연합회 후보위원, 길림성 청년연합회 회원, 중국조선사연구회 상무이사, 길림성 사연(사회연합, 社聯) 위원, 길림성 외국사학회 부비서장, 길림성고고학회 및 연변역사학회 이사, 길림성직함평의(評定)위원회 역사분과위원, 연변주와 연변대학 직함평의위원회 위원, 연변대학 학위 평의위원회 부주석 등 직함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朝鮮簡史』(合著), 延邊教育出版社, 1986年.

2.『高句麗歷史故事』(下), 延邊大學出版社, 1988年.

3.『朝鮮中世紀史研究』(合編), 延邊大學出版社, 1988年.

4.『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3.

5.『高句麗遺跡和遺物研究』(合編), 東北民族出版社, 1994年.

6.『中國境內高句麗遺跡研究』(合編), 예하출판사, 1995.

7.『高句麗好太王碑研究』, 亞細亞文化社, 1996.

8.『好太王碑拓本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年.

b. 주요 논문

1.「試論廣開土王碑碑文的"辛卯年"記事」,『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2.「高句麗柵城遺址考」,『朝鮮問題研究叢書』, 1985年第3輯.

3.「高句麗柵城遺址再考」,『朝鮮問題研究叢書』, 1985年.

4.「關于任那日本府是否存在的問題」,『朝鮮歷史問題叢書』, 1987年第1輯.

5.「城子山山城和土城村及其築城年代」,『延邊大學學報』, 1987年第4期.

6.「好太王碑文中的朱蒙王及其出身」,『朝鮮學研究』第2期, 延邊大學出版社, 1989年.

7.「호태왕비문으로부터 본 임나일본부의 존재여부 문제」(1)(2),『역사과학』, 1989년 1～2호.

8.「소위 조선반도내의 왜지설에 관하여－후루다 선생에게 답함」,『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 1989.

9.「關于高句麗存在山上王與否的問題－與揚通方同志商榷」,『世界歷史』, 1989年第2期.

10.「北京新發現的一部好太王拓本的采拓年代考證」,『走向21世紀國際學術討論會』, 1996年8月.

11.「서건신의 〈호태왕비 및 그 비문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에 관하여〉를 읽고」,『광개토호태왕비연구 100년』(상), 1996.

12.「고명사 선생의 논문 〈대만 소장 호태왕비 탁본 및 그 비문 연구〉를 읽고」,『광개토호태왕비연구100년』(상), 1996.

13.「辛卯年記事再論」,『광개토호태왕비연구100년』(중), 1996.

14.「북경대학도서관 소장 호태왕비 탁본(3021326-3)의 채탁 연대고」,『高句麗研究』第3輯, 學研文化社, 1997.

15.「關于好太王碑文中的守墓人煙戶的身分」,『朝鮮學 · 韓國學論叢』(6), 延邊大學出版社, 1998.

16.「關于好太王碑文永樂5年條的"碑麗"的考證」,『延邊大學朝鮮問題研究所建所20周年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1998年.

17.「通過好太王碑文看朱蒙建立高句麗的年代」,『延邊大學學報』, 1999年第1期.

18.「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拓本采拓年代考證」,『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1999年.

19.「호태왕비 탁본의 초기편년 성질에 관하여」,『春史卞麟錫教授停年紀念論叢』, 2000.

20.「중원고구려비의 건립년대 고증」,『중원고구려비연구』, 2000.

21.「試論4～5世紀東北亞世界的朝貢冊封體系－以高句麗爲中心」,『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22.「試論中外古書關於高句麗歷史地位的記載」,『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25. 박찬규(朴燦奎)

박찬규, 남, 1963년 길림 쌍양(雙陽) 출생. 1997년 연변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三國志 · 高句麗傳〉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0年11月.

b. 주요 논문

1.「論高句麗"下戶"的性質」,『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9年8月.

2.「小水貊與梁貊關系考－小水貊的地理位置和活動時限考」,『北方民族』, 2000年第3期.

3.「王莽朝高句麗記事的諸史料辨析－王莽朝高句麗記事與高句麗侯考」(上),『延邊大學學報』, 2000年3期.

4.「高句麗的太祖王宮考」,『東疆學刊』, 2000年4期.

5.「高句麗侯騶考－王莽朝高句麗記事與高句麗侯騶考」(下),『延邊大學學報』, 2000年第4期.

6.「高句麗之新大王和故國天王考」,『東疆學刊』, 2001年第1期.

7.「再析〈三國志 · 高句麗傳〉中的王莽朝高句麗記事－答劉子敏先生」,『北方民族』, 2001年3期.

8.「高句麗之"下戶"性質考」,『東疆學刊』, 2003年第3期.

9.「淺談高句麗歷史歸屬的幾個問題」,『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8月.

10.「高句麗歷史問題學術研討會綜述」(合作),『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26. 방기동(方起東)

방기동(1939~2005), 방격(方格) 또는 방묘(方卯)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남, 절강성 선거(仙居) 출생. 1960년에 서북대학(西北大學)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일찍이 길림성 문물고고학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을 역임하면서 고구려 역사와 고고학 연구에 40여 년을 종사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집안시 고구려 대형 유적조사와 고분발굴 사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文物地圖集 · 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1993年10月.

2.『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合編), 科學出版社, 2002年8月.

b. 주요 논문

1.「吉林輯安高句麗覇王朝山城」,『考古』, 1962年第11期.

2.「吉林輯安高句麗南道與北道上的關隘與城堡」(合作),『考古』, 1964年第2期.

3.「吉林輯安五盔墳4號與5號墓淸理略記」(合作),『考古』, 1964年第2期.

4.「吉林輯安馬線溝1號壁畫墓」,『考古』, 1964年第10期.

5.「吉林集安的兩座高句麗墓」,『考古』, 1977年第2期.

6.「統一多民族國家的歷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30年的主要收獲」(合作),『文物考古工作30年』, 文物出版社, 1979年.

7.「集安高句麗墓壁畫中舞樂」,『文物』, 1980年第7期.

8.「東北考古的主要成果」(合作),『東北考古與歷史』, 1982年第1期.

9.「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格和年代」,『東北考古與歷史』, 1983年第2期.

10.「集安長川1號壁畫墓」(合作),『東北考古與歷史』, 1982年第1期.

11.「集安洞溝兩座樹立石碑的高句麗古墓」(合作),『考古與文物』, 1983年第2期.

12.「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獲」(合作),『文物(文物)』, 1984年第1期.

13.「高句麗石墓的演進」,『博物館研究』, 1985年第2期.

14.「我省文物考古工作者應邀赴日參加好太王碑學術討論會」,『吉林文物』, 1985年5月15日1版.

15.「我研究好太王碑主要學術成果簡介」,『吉林文物』, 1985年5月15日2版.

16.「高句麗石墓的時代變化」,『好太王碑－4, 5世紀的東亞與日本』, 日本東方書店, 1985年12月.

17.「千秋墓, 太王陵和將軍墓主人推定」,『博物館研究』, 1986年第2期.

18.「唐高句麗樂舞箚記」,『博物館研究』, 1987年第1期.

19.「失樂千年的古都」,『吉林日報』, 1987年第1期.

20.「城垣的意外發現」,『吉林日報』, 1987年5月27日.

21.「高句麗人的生死觀」,『吉林日報』, 1987年6月11日.

22.「高句麗故鄉的寶藏」,『吉林日報』, 1987年10月14日.

23.「吉林省六處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博物館研究』, 1988年第3期.

24.「吉林省近十年考古工作的主要收獲」,『博物館研究』, 1988年第3期.

25.「吉林省文物概述」,『博物館研究』, 1991年第3期.

26.「吉林省近十年的文物考古工作」(合作),『文物考古工作10年』, 文物出版社, 1991年11月.

27.「高句麗的墓制和葬俗」,『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3年第1, 2期.

28.「好太王碑釋文一得」,『博物館研究』.1995年第1期.

29.「集安下解放31號高句麗壁畫墓」(合作),『北方文物』, 2002年第3期.

30.「好太王碑文解說」,『東北史地』, 2004年第1期.

31.「好太王碑釋讀一見」,『東北史地』, 2004年第2期.

32.「好太王碑文」,『東北史地』, 2004年第2期.

33.「好太王碑釋讀一見」,『好太王碑』,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12月.

27. 부가흔(傅佳欣)

부가흔, 남, 한족, 1957년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82년 길림대학 고고학부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집안시박물관 고고학부 주임을 역임하였고, 현재 길림성 문물고고학연구소 고고학부 주임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集安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0月.

2.『渾江市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2月.

3.『通化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5月.

4.『中國文物地圖集 · 吉林分冊』(副主編), 中國地圖出版社, 1993年10月.

5.『集安高句麗王陵』(合編),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王陵及貴族墓葬：從積石塚到封土壁畫墓的演繹」,『中國文化遺產』, 2004年夏季號.

2.「艱辛的歷程, 閃光的足跡－方起東先生與吉林考古」(合作),『東北史地』, 2005年第5期.

28. 부랑운(傅朗雲)

부랑운, 필명 서광(曙光), 낭공(朗公), 남, 한족, 1933년 출생.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당대개혁발전이론연구중심(當代改革發展理論研究中心) 특별초빙연구원, 동북아연구중심 학술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古代史論文索引』, 東北師範大學歷史系東北亞歷史研究室, 1979年.

2.『東北民族史略』(合著), 吉林人民出版社, 1983年.

b. 주요 논문

1.「中國東北與古代東北夷」,『中國邊疆史地研究』, 1992年第2期.

2.「東北發族源流及其活動地區索證」,『中國邊疆史地研究』, 1995年第2期.

3.「〈好太王碑〉所載相關問題的思考」,『社會科學戰線』, 1996年第4期.

4.「東北亞歷史民族－高夷, 高麗, 高句麗」,『東北亞論壇』, 2001年第1期.

5.「關于高句麗與朝鮮立國關系及其它」,『博物館研究』, 2002年第3期.

29. 서가국(徐家國)

서가국, 남, 1943년 출생. 요녕성 무순시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唐代木底州治今地考」(合作),『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2.「漢玄菟郡二遷址考略」,『社會科學輯刊』, 1984年第3期.

3.「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遼海文物學刊』, 1987年第2期.

4.「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合作),『遼海文物學刊』, 1990年第1期.

30. 서건신(徐建新)

서건신, 남, 한족, 1953년생.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연구원이다. 10여 년 동안 줄곧 고구려 호태왕비 탁본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지속했으며, 깊이 있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好太王碑原石拓本的新發見及其研究」(合作),『世界歷史』, 1993年第1期.

2.「高句麗好太王碑研究史概括」,『世界史研究動態』, 1993年第10期.

3.「北京現存好太王碑原石拓本調查－以王少箴舊藏本和北京圖書館藏本爲中心」,『韓國研究』, 1994年第1期.

4.「北京的現存好太王碑拓本的調查與研究－北京大學仏所藏拓本爲中心」, 日本『朝鮮文化研究』, 1994年第3期.

5.「好太王碑碑字的再考察」,『"走向國際化的日本"國際學術討論會文集』, 天津人民出版社, 1995年.

6.「好太王碑論爭與原石拓本」,『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7.「高句麗好太王碑的早期墨本的制作與流傳(1880～1888年)」,『文史』, 2004年4輯.

8.「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見」,『中國史研究』, 2005年第1期.

31. 서광휘(徐光輝)

서광휘, 남, 조선족, 1961년 6월생. 1987년 길림대학 고고학부 대학원반을 졸업하고 선후로 한국, 일본으로 유학하였으며 현재 일본 류코쿠대학(日本龍谷大學) 국제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中原高句麗碑」,『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1992年.

2.「高句麗積石墓研究」,『青果集』, 北京, 1993年.

32. 서덕원(徐德源)

서덕원, 남, 만주족, 1927년 9월 길림성 길림시 출생, 1952년 길림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하얼빈사범전과학교(哈爾濱師範專科學校) 역사학과 교수, 심양동북교육학원 역사학부 교수를 거쳐 요녕대학 역사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심양시 우수교수, 요녕성 10대 명사(名師) 칭호를 수여받았고 1995년 정부 특수보조금 지급자로 평의되었다. 1997년에는 요녕성정부 문사연구관(文史研究館) 관원으로 위촉되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世界通史』(古代卷)(東北亞部分), 人民出版社, 1997年.

2.『世界通史』(中世紀編)(南亞, 東南亞, 東北亞部分), 人民出版社, 1997年.

3.『中天文集續集』, 嵩山書屋, 2002年.

4.『吉林舊事見聞』, 嵩山書屋, 2002年.

b. 주요 논문

1.「試論高句麗國家的社會性質」,『朝鮮史通訊』, 1980年第2期.

2.「高句麗社會性質問題的綜合評述」,『遼寧大學學報』, 1982年第6期.

3.「新羅兵制述考」,『韓國研究論叢』, 遼寧大學出版社, 1994年.

4.「高句麗好太王碑鑿立之原委與性質重探」,『高句麗渤海研究集成』(3), 哈爾濱出版社, 1997年.

5.「關于朝鮮半島早期史研究經受誤導的反思」,『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6.「東北地方史」序,『遼寧大學出版社』, 1999年.

7.「先秦到隋唐時期遼東地方歸屬問題考議)」,『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8.「高句麗歷史與疆域歸屬問題補議」,『社會科學戰線』, 2001年第5期.

9.「秦朝及漢燕東界百年前述考」,『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10.「戰國全燕世所築障塞釋考」,『遼寧大學學報』, 2002年第1期.

11.「迎接時代春光的綻放, 再現歷史的輝煌的篇章」,『中國高句麗史』序, 吉林人民出版社, 2002年12月.

12.「古燕疆域東界變遷述考」,『北方民族』, 2003年第3期.

13.「高句麗的在朝鮮半島上最大疆域南界贅議」,『遼寧文史』, 2003年特刊.

14.「好太王碑銘文三個地方今址考析」,『東北史地』, 2004年第3期.

15.「集安博物館藏高句麗印及印文考釋」,『博物館研究』, 2000年第3期.

16.「高句麗長壽王不是中國人嗎?」,『北方民族』, 2004年第4期.

17.「論韓國學者李丙燾先生歷史地理考證的兩項錯誤」,『東北史地』, 2004年第7期.

18.「高句麗族語言微識錄」,『中國邊疆出地研究』, 2005年第1期.

19.「漢字標記高句麗語語音地名字詞漢譯選釋」,『東北史地』, 2005年第5期.

33. 소춘화(邵春華)

소춘화, 여, 1953년생. 1980년 길림대학 역사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현재는 길림성박물관 연구관원으로 근무한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赤柏松漢城調查」(合作),『博物館研究』, 1987年第3期.

2.「吉林通化市漢代自安山城調查與考證」(合作),『博物館研究』, 1991年第3期.

3.「高句麗婚姻的開放性」(合作),『北方文物』, 1999年第2期.

34. 손력(孫力)

손력(1948~1990), 남, 한족, 요녕성 심양 사람. 1982년 길림대학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요녕성박물관 관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撫順高爾山高句麗山城址」,『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5年.

2.「撫順市高爾山山城」,『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6年.

3.「遼寧撫順市高爾山發掘簡報」(合作),『遼海文物學刊』, 1990年第1期.

4.「遼寧的高句麗山城及意義」,『高句麗渤海研究集成』(3), 哈爾濱出版社, 1997年.

35. 손홍(孫泓)

손홍(孫泓 혹은 孫弘), 녀, 한족, 1973년 길림성 매하구시(梅河口市) 출생. 2003년 요녕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심양동아연구중심(沈陽東亞研究中心) 부주임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渤海研究集成』(副主編), 哈爾濱出版社, 1997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族的形成, 發展及消亡」,『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2.「遼寧省發掘的高句麗遺物綜合考察」, 韓國『高句麗研究』, 2001年12月.

3.「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畫墓的族屬與分期」(合作),『北方文物』, 2004年第2期.

4.「東北亞各國對高句麗土地, 人民, 文化的繼承」(合作),『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36. 손계림(孫啓林)

손계림, 남, 1946년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75년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동북사범대학 조선교육연구소 소장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黑土地的古代文明』(合編), 遠方出版社, 2000年.

b. 주요 논문

1.「關于對東北民族與疆域若干問題的研究」(合作),『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第2期.

2.「韓國徐炳國著〈高句麗帝國史〉簡介」,『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3.「二戰後韓國史學界高句麗研究概況」,『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4.「二戰後朝鮮史學界高句麗研究概況」,『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37. 손금화(孫金花)

손금화, 여, 조선족, 1962년 10월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85년 사평사범학원(四平師範學院)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부교수, 일본 도쿠시마대학(德島大學)의 방문학자로 있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录』,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3.『高句麗歷史知識問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人的婚姻及家庭」(合作),『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大朱留王史事考」,『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3.「國外高句麗歷史與考古學研究概況」(合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4.「高句麗人的飮酒釀酒考」(合作),『通化師院學報』, 1999年第6期.

5.「長壽王遷都及其陵墓考論」,『通化師院學報』, 2000年第6期.

6.「韓國高句麗研究會及研究狀況」,『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1年.

38. 손문범(孫文範)

손문범, 남, 한족, 1943년 길림성 덕혜시(德惠市)에서 출생. 1968년 길림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길림성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동북사지(東北史地』편집장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合編), 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6年6月.

2.『三國史記』(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10月.

3.『三國遺事』(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10月.

4.『高句麗歷史知識』(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簡介」,『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8年首屆.

2.「高句麗遷都平壤芻議」,『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3期.

3.「高句麗歷史的几個問題」,『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4.「簡述新中國高句麗考古的几點收獲」(合作),『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39. 손옥량(孫玉良)

손옥량, 남, 한족, 1936년 11월 길림성 덕혜현(德惠縣) 출생. 1962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연구원을 지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東北史』, 第1卷(參編), 吉林文史出版社, 1987年.

2.『高句麗簡史』(合著), 韓國三省出版社, 1990年9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社會性質淺釋」,『博物館研究』, 1984年第1期.

2.「公元5世紀前後高句麗的發展」,『北方文物』, 1985年第3期.

3.「高句麗始祖朱蒙」,『東北歷史名人傳』, 吉林文史出版社.1986年.

4.「高句麗太祖高宮」,『東北歷史名人傳』,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5.「高句麗好太王高談德」,『東北歷史名人傳』,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6.「高句麗的都城」(合作),『博物館研究』, 1990年第1期.

7.「高句麗同中原王朝的關系」(合作),『博物館研究』, 1990年第3期.

8.「簡述新中國高句麗考古的几點收獲」(合作), 韓國『高句麗研究』, 2001年12輯.

9.「溯本追遠, 以成正論－評〈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社會科學戰線』, 2001年第6期.

10.「唐征高句麗的動機與效果」,『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11.「簡述新中國高句麗考古的几點收獲」(合作),『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40. 손인걸(孫仁傑)

손인걸, 남, 회족(回族), 1952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91년에 길림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집안시박물관 관원으로 근무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集安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2.『輝南縣文物志』(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86年.

3.『高句麗研究文集』(合編),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b. 주요 논문

1.「在東方的金字塔上」(合作),『文物天地』, 1984年第6期.

2.「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3.「高句麗積石墓的保護與管理」,『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4.「"折天井墓"調查拾零」,『博物館研究』, 1988年第3期.

5.「集安洞溝古墓群三座古墓清理」,『博物館研究』, 1988年第3期.

6.「高句麗串墓的考察與研究」,『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7.「論高句麗石石室內墓的起源」,『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

8.「集安縣上下活龍古墓發掘簡報」,『文物』, 1984年第1期.

9.「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合作),『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10.「高句麗兵器研究」(合作),『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11.「集安出土的高句麗金飾」,『博物館研究』, 1985年第1期.

12.「集安出土几方銅印」(合作),『北方文物』, 1984年第4期.

13.「談高句麗壁畫中的蓮花圖案」,『北方文物』, 1986年第4期.

14.「集安麻線安子溝高句麗墓葬調查與清理」(合作),『北方文物』, 2002年第2期.15.「推陳出新的〈好太王碑新考〉」,『吉林日報』, 1996年2月.

16.「高句麗石室墓起源的再探討－對李南奭博士關於對〈論高句麗石室墓起源〉文稿提出討論的答疑」,『博物館研究』, 2002年第4期.

17.「好太王碑現狀觀測與保護的思考」,『博物館研究』, 2003年第3期.

18.「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合作),『東北史地』, 2004年第4期.

19.「鴨綠江上遊右岸考古調查」(合作),『東北史地』, 2004年第5期.

20.「從泉氏墓看高句麗的回葬」,『東北史地』, 2005年第4期.

21.「洞溝古墓群禹山墓區JYM3319號墓發掘報告」,『東北史地』, 2005年第6期.

41. 손진기(孫進己)

손진기, 남, 1931년 5월 출생. 강소성 무석(無錫) 사람. 1957년 동북인민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선후로 길림성 장춘, 해룡 등지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8년 요녕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로 옮겨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심양동아연구중심(沈陽東亞研究中心) 주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찍이 중국요금거란여진사연구회 이사장, 중국조선사학회 고문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年.

2.『東北歷史地理』(1, 2卷)(合編),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年.

3.『東北古史資料叢編』(1至3卷)(合編), 遼沈書社, 1989年.

4.『東北各民族文化交流史』, 遼寧春風文藝出版社, 1992年.

5.『東北民族史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12月.

6.『中國考古集成 · 東北卷』(合編), 北京出版社, 1995年.

7.『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

b. 주요 논문

1.「關于高句麗社會性質的几個問題」(合作),『朝鮮史通訊』, 1982年第4期.

2.「古代東北民族的分布」(上),『東北地方史研究』, 1985年第2期.

3.「古代東北民族的分布」(下),『東北地方史研究』, 1986年第1期.

4.「穢貊文化的探索」(合作),『遼海文物學刊』, 1986年第1期.

5.「穢貊源流考」,『松遼文物』, 1986年第2期.

6.「穢貊史研究中的几個問題」,『東北史研究導報』, 1988年第1期.

7.「沈陽石臺子高句麗山城的名稱及建立時間考」,『北方文物』, 2000年第1期.

8.「對東北民族史研究方法的一些體會」,『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

9.「關于高句麗歷史歸屬問題的几個爭議焦點」,『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0.「高句麗歷史研究綜述」,『社會科學戰線』, 2001年第2期.

11.「當前研究高句麗歸屬的几個問題」,『東疆學刊』, 2001年第3期.

12.「中國統一多民族國家的發展」,『史學月刊』, 2001年第3期.

13.「高句麗的起源及前高句麗文化的研究」,『社會科學戰線』, 2002年第2期.

14.「論民族融合的不同類型及中華民族融合的不同狀況」,『史學集刊』, 2003年第1期.

15.「關于高句麗渤海史研究中的一些問題」(提綱),『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16.「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畫墓的族屬與分期」(合作),『北方文物』, 2004年第2期.

17.「高句麗國內城定點與建城時間論辯－兼考尉那岩城, 丸島城, 平壤城與黃城諸城址」(合作),『哈爾濱社會科學』, 2004年2期.

18.「東北亞各國對高句麗土地, 人民, 文化的繼承」(合作),『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42. 송복연(宋福娟)

송복연, 여, 한족, 1965년 11월 요녕성 부신시(阜新市) 출생. 1988년 요녕사범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한 이학학사이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부 부교수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3.『高句麗歷史知識問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的水上交通」(合作),『通化師院學報』, 2000年第6期.

2.「兩漢時期東北疆域與高句麗」,『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3.「高句麗與北方民族的融合」,『通化師院學報』, 2003年第1期.

43. 신점산(辛占山)

신점산, 남, 1944년생,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桓仁米倉溝高句麗"將軍墓"」, 日本『東北亞文明的源流考古學研究』, 1993年.

2.「遼寧省境內高句麗城址考察」,『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3.「遼寧高句麗城址的考察」,『東北亞考古學研究』, 日本同朋舍, 1995年.

4.「桓仁五女山城考古發掘獲重要成果」(合作),『中國文物報』, 2000年1月19日.

44. 양군(楊軍)

양군, 남, 회족, 1967년 요녕 조양(朝陽) 출생. 길림대학 문학원 역사학과 중국지방사연구실 교수, 박사 지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동북지방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也談高句麗柳花神話」,『社會科學戰線』, 2001年第1期.

2.「高句麗五部研究」,『吉林大學學報』, 2001年第4期.

3.「高句麗中央官制研究」,『黑龍江民族叢刊』, 2001年第4期.

4.「高句麗地方統治結構研究」,『史學集刊』, 2002年第1期.

5.「從"別種"看高句麗族源」,『東疆學刊』, 2002年第1期.

6.「高句麗族屬溯源」,『社會科學戰線』, 2002年第2期.

7.「高句麗名義考」,『東北史地』, 2004年第5期.

8.「粟靺鞨與渤海國」,『中國邊疆史地研究』, 2005年第3期.

45. 양계정(梁啟政)

양계정. 남, 한족, 1976년 길림성 무송현(撫松縣) 출생, 1999년 사평사범학원(四平師範學院)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통화사범학원 과학연구처 직원, 강사로서 동북사범대학 석사과정에 있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高句麗歷史知識問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關于高句麗歸屬問題的文獻記載說明」,『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2.「略說中外學者對好太王碑未記載好太王時期高句麗攻略遼東一事的研究」,『東北史地』, 2004年第6期.

46. 양보륭(楊保隆)

양보륭, 남, 1932년 출생,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合著), 北京民族出版社, 2000年.

2.『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年2月.

b. 주요 논문

1.「各史〈高句麗傳〉的几個問題辨析」,『民族研究』, 1987年第1期

2.「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民族研究』, 1998年第4期.

3.「論高句驪與王氏高驪無前後相承關系」,『社會科學戰線』, 1999年第1期.

47. 양소전(楊昭全)

양소전, 남, 한족, 1933년 하북성 옥전현(玉田縣) 출생. 1958년 북경대학 동방어언문학계(東方語言文學系)에서 조선어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연구중심

주임 및 연구원을 역임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朝邊界史』(合著),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11月.

2.『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史』(合編), 吉林文史出版社, 1994年12月.

3.『中朝關系通史』(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6年7月.

4.『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1998年.

b. 주요 논문

1.「論高句麗的歸屬」, 韓國『上考史學報』第13期, 1993年4月.

2.「漢四郡的位置與漢東北長城」, 韓國『上考史學報』第15期, 1994年1月.

3.「中, 朝, 韓三國關於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的研究概況」, 香港『中國社會科學學刊』, 1994年8月號.

48. 양수조(楊秀祖)

양수조, 남, 한족, 1961년 산동성 교주(膠州) 출생.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부주임, 학생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중공통화사범학원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및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b. 주요 논문

1.「隋煬帝征高句麗的几個問題」,『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高句麗東川王位宮評傳」(合作),『通化師院學報』, 1997年2期.

3.「試論高句麗與夫餘的關系」(合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49. 양옥다(梁玉多)

양옥다, 남, 1964년생 흑룡강성 임구(林口) 출생. 현재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역사학 석사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발해사, 요금사(遼金史)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關于"小高麗國"的几個問題」,『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2.「高句麗遺民的渤海化進程」,『哈爾濱學院學報』, 2002年第9期.

50. 양지룡(梁志龍)

양지룡, 남, 1954년 5월 산동성 봉래(蓬萊) 출생, 1986년 남개대학(南開大學)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요녕성 본계시박물관(本溪市博物館) 부관장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본계시 학술지도자이며,

과학기술 분야의 걸출한 인재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合編), 遼寧省文物志編委會, 1990年.

2.『本溪歷史人物傳記』(合編), 中國文獻出版社, 2003年.

3.『五女山城』(合編),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桓仁大梨樹溝的青銅時代墓葬調查」,『遼海文物學刊』, 1991年第2期.

2.「遼寧本溪劉家哨發見青銅短劍墓」,『考古』, 1992年第4期.

3.「梁貊略說」,『遼海文物學刊』, 1993年第1期.

4.「哥勿考辨」,『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5.「遼寧桓仁縣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合作),『博物館研究』, 1994年第2期.

6.「高句麗南北道新探」,『社會科學戰線』, 1995年第1期.

7.「高句麗名稱考釋」,『遼海文物學刊』, 1996年第1期.

8.「高句麗史箚五則」,『博物館研究』, 1996年第3期.

9.「沸流雜考」,『北方文物』, 1997年第3期.

10.「朱蒙考源」,『社會科學戰線』, 1997年第5期.

11.「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合作),『考古』, 1998年第3期.

12.「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合作),『文物(文物)』, 1998年第6期.

13.「高句麗國王名號相似現象的分析」,『北方文物』, 1999年第4期.

14.「遼寧本溪縣小市中心街高句麗墓」(合作),『北方文物』, 2001年第1期.

15.「高句麗史地拾零」,『博物館研究』, 2002年第2期.

16.「高句麗隧神考」,『北方文物』, 2001年第4期.

17.「遼寧本溪多年發見的石棺墓及其遺物」,『北方文物』, 2003年第1期.

18.「高句麗史物小考」,『博物館研究』, 2003年第3期.

19.「桓仁米倉溝高句麗壁畫墓」(合作),『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2003年.

20.「本溪南芬西山石棺墓」(合作),『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2003年.

21.「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合作),『東北史地』, 2004年第3期.

22.「泉氏家族世系及其事略」,『東北史地』, 2005年第4期.

23.「懷念方起東先生」,『東北史地』, 2005年第5期.

51. 양지홍(楊志紅)

양지홍, 남, 한족, 1973년 3월 길림성 농안현(農安縣) 출생. 1997년 동북사범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이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的建築工藝」(合作),『通化師院學報』, 1999年第6期.

2.「中原金屬工藝對高句麗的影響」(合作),『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3.「淺析乙支文德對隋軍的軍事策略」,『東北史地』, 2004年第9期.

52. 양춘길(楊春吉)

양춘길, 남, 한족, 1945년 4월 길림성 농안현(農安縣) 출생. 1969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주임, 고구려연구소 소장, 교수, 통화시 정협상무위원, 길림성 역사학회 부비서장을 역임하다가 2004년에 퇴직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合編),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2.『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彔』(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3.『高句麗史籍匯要』(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

4.『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合編), 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9年6月.

5.『中國學者的高句麗研究文獻目錄』(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6.『高句麗歸屬問題研究』(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7.『高句麗歷史知識問答』(合編),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初氏父子與好太王碑」(合作),『新文化報』, 1997年1月27日.

2.「高句麗歷史研究中的几個問題」,『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3.「國外高句麗歷史與考古研究概況」(合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4.「千秋風雨話丸都」(合作),『新文化報』, 1997年8月14日.

5.「立在墓旁的石刻人物像」(合作),『新文化報』, 1997年9月25日.

6.「千年古墓話維修」(合作),『新文化報』, 1997年10月2日.

7.「金毓黻丸都訪古」(合作),『新文化報』, 1998年4月23日.

8.「王國維與毋丘儉殘碑」(合作),『新文化報』, 1998年4月30日.

9.「王志修〈高句麗永樂好太王古碑歌〉註釋與說明」(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10.「集安高句麗壁畫的現狀與保護研究」,『全國首屆高句麗研討會論文集』, 1999年.

11.「高句麗疆域調查與研究現狀」(合作),『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12.「高句麗歷史歸屬問題論稿」(合作),『通化師院學報』, 2000年第1期

13.「中國東北歷史上的高句麗政權」(合作),『吉林日報』, 2000年6月30日.

53. 양통방(楊通方)

양통방, 남, 한족, 1924년 출생.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 주임 및 교수를 지낸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漢文化論綱』(合著), 北京大學出版社, 1993年.

2.『中韓古代關系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年2月.

b. 주요 논문

1.「〈隋書·東夷高(句)麗列傳〉訂誤」,『朝鮮史通訊』, 1980年第2期.

2.「穢貊族概貌」,『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3.「高句麗不存在山上王延優其人－論朝鮮〈三國史記〉有關高句麗君主世系問題」,『世界曆史』, 1981年第3期.

54. 엄장록(嚴長祿)

엄장록, 남, 조선족. 일찍이 연변주박물관 관원을 역임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爲會, 1986年.

2.『延邊古代簡史』(合著), 延邊大學出版社, 2000年.

b. 주요 논문

1.「延邊地區高句麗－渤海時期紋飾板瓦初探」(合作),『博物館研究』, 1988年第2期.

2.「對主要高句麗古城的考察」,『延邊大學朝鮮學國際學術討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89年.

3.「從板瓦紋飾看延邊地區古城的時代性質」,『高句麗遺物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4年.

55. 염해(閻海)

염해, 남, 1969년 요녕성 영구시(營口市) 출생, 요녕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영구시박물관 고고학부 부주임, 영구시 서포대(西炮台) 문물관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구시박물관 부연구원, 연구실 주임, 영구시 역사학회 부비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營口通史)』(合著),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年版.

b. 주요 논문

1.「蓋蘇文姓氏考」,『鞍山社會科學』, 1997年第6期.

2.「高句麗政權性質淺析」,『營口社科研究』, 1999年第2期.

3.「高句麗物質民俗初探」,『遼寧師大學報』, 1999年第4期.

4.「高歡族源考－兼析兩晉南北朝時期高句麗族向中原的遷徙」,『鞍山社會科學』, 2000年第3期.

5.「關于安市城城址考察與研究」(合作),『北方文物』, 2001年第2期.

6.「箕子東走朝鮮探因」,『北方文物』, 2001年第2期.

7.「試論高句麗與殷商的文化淵源」(合作),『遼寧師大學報』, 2001年第6期.

8.「高句麗"建安道"初探」(合作),『博物館研究』, 2001年第2期.

9.「試論遼南石棚與高句麗積石墓的演變關系」, 在營口歷史學會2004年年會暨石棚文化研討會上宣讀.

56. 염의지(閻毅之)

염의지(閻毅之), 남, 한족, 1921년 길림성 집안 출생, 집안시 박물관 직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合作),『考古』, 1983年第4期.

2.「集安高句麗國內城的調查與試掘」(合作),『文物』, 1984年第1期.

57. 영회학(寧會學)

녕회학, 남, 요녕성 환인현 지방지(地方志) 관련 부서 간부.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高句麗始祖王朱蒙墓何在」,『博物館研究』, 2002年第2期.

2.「桓仁米倉溝將軍墓墓主考」,『博物館研究』, 2004年第3期.

3.「桓仁米倉溝將軍墓所葬何人」,『東北史地』, 2004年第4期.

58. 예군민(倪軍民)

예군민(1963～2000), 남, 한족, 요녕성 적봉시(赤峰市) 출생. 1987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였고, 1990년 동북사범대학 명청사(明淸史) 대학원을 졸업하여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찍이 통화사범대학 역사학부 부주임, 과학연구처 처장, 총장보조 등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史籍會要』(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錄』(合編),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3.『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合編), 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9年6月.

4.『高句麗歷史與文化』(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b. 주요 논문

1.「兩唐書〈高麗傳〉比較研究」,『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首屆高句麗研討會在通化市召開」(合作),『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8年第1期.

3.「高句麗的軍事擴張與疆域」(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4.「高句麗疆域調查與研究現狀」(合作),『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5.「高句麗歷史歸屬問題論稿」(合作),『通化師院學報』, 2000年第1期.

59. 온옥성(溫玉成)

온옥성, 남, 1939년 흑룡강성 빈현(賓縣) 출생. 1964년 북경대학 역사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현재 하남성 용문석굴연구소 명예소장, 소림문화연구소(少林文化研究所) 소장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長川高句麗一號墓佛教壁畫」,『敦煌研究』, 2001年第1期.

2.「集安長川一號高句麗墓佛教壁畫研究」,『北方文物』, 2001年第2期.

3.「高句麗的〈相之國〉」,『北方文物』, 2004年第3期.

60. 왕기(王紀)

왕기, 여, 한족, 1975년 10월 길림성 통화현 출생. 1996년 7월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생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薩滿繪畫研究』(合著), 時代文藝出版社, 2003年3月.

2.『薩滿剪紙考釋』(合著), 時代文藝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鎏金鏤空馬飾圖案藝術識讀」(合作),『通化師院學報』, 2003年第5期.

2.「高句麗壁畫的遠緣移植－我對高句麗風情剪紙的初探」,『美術』, 2004年第10期.

3.「高句麗風情剪紙對高句麗壁畫的遠緣移植」(合作),『通化師院學報』, 2005年第3期.

4.「高句麗壁畫繪制技藝解析與臨摹期法研究」,『東北史地』, 2005年第5期.

61. 왕진(王臻)

왕진, 남, 한족, 1969년 산동 제성(諸城) 출생. 2004년에 연변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연변대학 사범학원 역사학과 부주임,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談朱蒙, 類利在位時的高句麗國力」,『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9年.

2.「高句麗研究的新突破－讀〈高句麗曆史研究〉」(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3.「高句麗"三貊"說」(合作),『延邊大學學報』, 2000年第2期.

62. 왕협(王俠)

왕협(1944～1999), 요녕성(遼寧省) 출생. 1968년 북경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일찍이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장기적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 및 고고학 연구에 힘썼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吉林省志 · 文物志』(副主編), 吉林人民出版社, 1991年10月.

b. 주요 논문

1.「我國東北古代民族的海上活動」,『北方文物』, 1987年第1期.

2.「集安高句麗封土石室墓與日本須曾蝦夷古墓,『博物館研究』, 1993年第2期.

3.「高句麗抹角疊澁墓初論」,『北方文物』, 1994年第1期.

4.「集安縣高句麗及渤海墓葬」(合作),『高句麗渤海研究集成』(2), 哈爾濱出版社, 1997年.

63. 왕건군(王建群)

왕건군(1927～1996), 남, 요녕성 해성현(海城縣) 출생. 1950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했고, 1959년 소주대학 역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62년 길림성 박물관 역사고고부 관원, 1978년 길림성 고고연구실 주임, 1983년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1985년 연구원으로 평가되었다. 일찍이 고고연구소 연구원, 국제아주사학회(國際亞洲史學會) 집행위원 및 평의원, 미국동서방연구센터 성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年8月.

b. 주요 논문

1.「好太王碑乙未年紀事考釋」,『博物館研究』, 1982年第1期.

2.「好太王碑文譯註」(上),『博物館研究』, 1983年第1期.

3.「好太王碑六年丙申, 八年戊戌條考釋」,『學習與探索』, 1983年第2期

4.「好太王碑文譯註」(下),『博物館研究』, 1983年第3期.

5.「和好太王碑研究有關的几個問題」,『博物館研究』, 1985年第1期.

6.「好太王碑中"倭"的實體」,『博物館研究』, 1985年第3期.

7.「關于九州大學藏好太王碑拓本的拓制年代),『好太王碑－4,5世紀的東亞與日本』, 日本東方書店, 1985年12.

8.「申采浩對好太王碑的論述和他的集安見聞」,『博物館研究』, 1986年第3期.

9.「玄菟郡的西遷和高句麗的發展」,『社會科學戰線』, 1987年第2期.

10.「高句麗千里長城」,『博物館研究』, 1987年第3期.

11.「對集安古墓的新認識」,『好太王碑與集安壁畫古墓』, 日本木耳社, 1988年9月.

12.「東北史識小錄」,『博物館研究』, 1989年第1期.

13.「集安高句麗好太王碑」,『中國文物報』, 1992年3月8日.

64. 왕굉북(王宏北)

왕굉북, 여, 한족, 1956년 4월 길림성 부여현(扶餘縣) 출생. 대학 학부 학력. 송화강 지역 문물관리기지 보조관원(助理館員), 흑룡강 고고학연구소 부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련대학 중국동북사연구중심 부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滙編』(合編), 哈爾濱出版社, 1994年.

b. 주요 논문

1.「黑龍江渤海山城的高句麗文化典型特徵」(合作),『黑龍江民族叢刊』, 2002年第3期.

65. 왕리군(王利群)

왕리군, 남, 한족, 1967년 9월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91년 동북사범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한 이학학사(理學學士)이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지리학과 부주임,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주요 단행본

1.『長白山旅遊文化』(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5年.

b. 편집 저서

1.『中國學者的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c. 주요 논문

1.「關于高句麗疆域的几個問題」,『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2.「高句麗自然災害初探」(合作),『通化師院學報』, 2001年第3期.

66. 왕면후(王綿厚)

왕면후, 자 박문(博文), 1945년 요녕 해성(海城) 출생. 1969년 북경대학 역사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1983년부터 1984년까지 길림대학 고문헌연구반에 입학하여 저명한 역사학자 김경방(金景芳)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다. 요녕성박물관 관장이며 연구원, 요녕성 박물관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중국박물관학회 이사로서 요녕대학, 동북사범대학, 대련대학에서 석좌교수를 겸임하였다. 요녕사회과학원 특별초청 연구원, 요녕성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위원, 요녕성 문물전문가소조 성원, 심양문사관(沈陽文史館) 연구원,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과 강역연구중심" 특별초청 전문가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원에서 수여한 특수보조금 전문가 혜택을 받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동북역사 고고와 민족 연구에 종사하였고 특히 동북역사지리, 변강고고와 고구려 등 고대 민족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칠오(七五)[1986～1990]"부터 "십오(十五)[2001～2005]"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사이 국가와 성급 중점과학연구계획에 속하는 여섯 개의 항목을 완성하였고, 여덟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이 백여 편이 된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歷史地理』第1卷(主編),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年.

2.『東北古代交通』(合著), 沈陽出版社, 1990年.

3.『秦漢東北史』, 遼寧人民出版社, 1990年.

4.『東北古族古國古文化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

5.『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年.

6.『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出版社, 2005年.

b. 주요 논문

1.「建國以來遼寧地區民族考古發現與研究」,『北京民族研究動態』, 1984年第1期.

2.「兩漢時期遼寧建置述論」,『東北地方史研究』, 1985年第1期.

3.「兩晉遼寧建置地理述考」,『東北地方史研究』, 1986年第1期.

4.「兩晉隋唐之南蘇水與南蘇城考)」,『歷史地理』, 1986年第4輯.

5.「隋唐遼寧建置地理述論」,『東北地方史研究』, 1986年, 第3期.

6.「古代高句麗族稱探源」,『遼海文物學刊』, 1987年第2期.

7.「考古學所見兩漢之際遼西郡縣的廢遷與邊塞內徙)」,『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9年.

8.「遼東"梁貊"與"貊城"」, 環渤海國際考古會議論文, 1990年.

9.「關于錦西台集屯三座古城的歷史考察」,『社會科學戰線』, 1990年第3期.

10.「東北古代夫餘部的興盛與王城變遷」,『遼海文物學刊』, 1990年第2期.

11.「"玄菟"與"新城"新解」,『沈陽文物』, 1993年第1期.

12.「中國東北"漢文化圈"的形成及其輻射」,『東北亞文化研究』, 中州出版社, 1993年.
13.「關于漢以前東北"貊"族考古學文化的考察」,『文物春秋』, 1994年第2期.
14.「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綜合研究」,『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15.「新城, 南蘇, 木底道與高句麗南北二道關系」,『社會科學戰線』, 1996年第5期.
16.「高句麗城邑制度與都城」,『遼海文物學刊』, 1997年第2期.
17.「高句麗後期都城平壤"三城一宮"的地理考證」,『曆史地理』, 14輯.
18.「高句麗民族的起源及其考古學文化」,『高句麗渤海研究集成』(2), 1997年.
19.「關于高句麗第二"丸都"考略」,『高句麗渤海研究集成』(2), 1997年.
20.「高句麗古城的構築特點及其特殊規律」,『東北亞歷史地理研究』, 中州出版社1998年.
21.「關於高句麗古城研究的若干問題」,『遼寧博物館學術論文集』, 遼海出版社, 1999年.
22.「高句麗古城的建置分期及其歷史背景」, 韓國『高句麗山城研究』, 1998年.
23.「20世紀高句麗古城的考古發現與研究」, 沈陽『高句麗歷史考古學術討論會』, 2000年.
24.「關于高句麗"遼東城塚"壁畫中若干問題考析」,『歷史地理』, 2000年 第16輯.
25.「高句麗城邑制度與其社會發展關系論略」,『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
26.「高句麗古城址出土文物的考古學斷代分析」, 『東北古族古國古文化研究』(中),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
27.「高句麗城邑制度與山城」,『社會科學戰線』, 2001年第4期.
28.「關于通化萬發撥子遺址的考古與民族學考察」,『北方文物』, 2001年第4期.
29.「20世紀的遼寧邊疆史地與古民族研究的回眸與前瞻」,『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30.「高句麗扶餘城與渤海扶餘府」,『東北歷史地理論叢』, 2002年.
31.「高夷, 穢貊與高句麗－再論高句麗族源主體爲先秦之"高夷"既遼東"二江"貊部說」,『社會科學戰線』, 2002年第5期.
32.「遼河文明在中華文明形成中的歷史地位」,『北京大學考古系成立50周年論文集』, 2002年.
33.「關于漢"四郡"中眞番, 臨屯地望的再考察」,『遼金史論叢』紀年張博泉教授逝世3周年, 2003年.
34.「回眸二十世紀遼寧文物考古學研究」,『二十世紀遼寧史學』, 遼寧大學出版社, 2002年.
35.「扶餘及其先世文化」,『扶餘王國論集』, 吉林省文物管理處出版, 2004年.
36.「關于確認高句麗民族政權歷史地位的三要素」,『東北史地』, 2004年第1期.
37.「再論遼東"二江"與"二河"上遊青銅文化與高句麗起源」,『北方民族』, 2004年第3期.
38.「五女山山城列入世界遺產名录的曆史文化價值」,『中國文物報』, 2004年8月6日.
39.「先秦時期中國東北三大土着族系及考古遺存新論」,『東北史地』, 2004年第5期.
40.「遼寧地區三座重要高句麗古城的考古發現及其學術價值」, 『中韓高句麗文化的歷史價值』學術討論會論文, 2004年.
41.「關于高句麗"尉那岩城"的若干問題－兼與馬永謙, 孫進己先生商榷」,『東北史研究』, 2004年第5期.
42.「論高夷, 高麗, 高句麗與西漢玄菟郡遞變與歸屬關系的歷史定位」,『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

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67. 왕배신(王培新)

왕배신, 남, 1956년 7월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82년에 길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다. 일찍이 길림성박물관과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년부터 길림대학에서 고고학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2년에 길림대학교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길림대학 문학원(文學院) 고고학과 부주임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樂浪遺跡的考古發掘與研究」,『北方文物』, 2001年第1期.

2.「高句麗封土石室墓文化淵源之樂浪因素初探」,『邊疆考古研究』, 2005年第3期.

68. 왕순신(王純信)

왕순신, 남, 한족, 1939년 길림성 통화현 출생. 일찍이 통화시 군중예술관 관장,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주임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교수, 길림사범대학 동북문화연구원 겸직교수, 중국샤만문화예술위원회 부비서장, 길림성 만주족전지연구회(滿洲族剪紙研究會) 주석, 통화시미술가협회 명예주석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吉林民間美術』, 吉林美術出版社, 2002年.

2.『薩滿繪畵研究』(合著), 時代文藝出版社, 2003年3月.

3.『薩滿剪紙考釋』(合著), 時代文藝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 高麗及好太王碑－兼與陳仲明先生商榷」,『書法報』, 1990年8月22日.

2.「高句麗民族藝術遺存中的生殖崇拜」,『社會科學戰線』, 1996年第4期.

3.「高句麗服飾原流考」,『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

4.「金蛙傳說與蛙紋瓦當考－高句麗民族的蛙崇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

5.「高句麗民族"愛蓮尙蓮"濫觴考論」,『吉林藝術學院學報』, 1999年第4期.

6.「高句麗石刻畵像與母神崇拜」,『吉林藝術學院學報』, 2000年第4期.

69. 왕승례(王承禮)

왕승례(1928～1996), 남, 요녕성 흥성(興城) 출생. 1952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였다. 길림성박물관 부관장, 길림성 문물국 부국장,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중국 출토문물 출국전람업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중국고고학회 이사, 중국민족사학회 상무이사, 중국요금거란여진사학회(遼金

契丹女眞史學會) 부회장, 길림성 고고학회 이사장, 동북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길림성 정협위원, 길림성 정협문사위원회(政協文史委員會) 부주임, 길림성 사회과학연합회 부주석, 길림성 문련(文聯) 위원이었으며 장기적으로 동북역사와 고구려, 발해의 문물고고 연구사업에 종사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吉林省歷史概要』(合著), 吉林省博物館, 1962年.

2.『渤海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年.

3.『渤海的歷史與文化』(合編), 延邊人民出版社, 1991年.

4.『中國東北的渤海國與東北亞』,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b. 주요 논문

1.「吉林輯安五盔墳四號和五號墓淸理略記」(合作),『考古』, 1964年第2期.

2.「吉林輯安通溝第十二號高句麗壁畫墓」(合作),『考古』, 1964年第2期.

3.「東北考古的主要收獲」(合作),『東北考古與歷史』, 1982第1期.

4.「吉林遼寧的高句麗遺跡」,『考古與文物』, 1984年.

70. 왕우랑(王禹浪)

왕우랑, 남, 만주족, 1956년 3월 출생. 1978년 8월에 흑룡강대학 철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다. 일찍이 흑룡강성 송화강 지역 문물관리기지 부책임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보조(助理)연구원, 하얼빈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부소장이며 부연구원, 지방사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대련대학 중국동북사연구중심 주임 및 교수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古族古國古文化』(下卷), 黑龍江敎育出版社, 2000年.

2.『高句麗渤海古城址硏究滙編』(合編), 哈爾濱出版社, 1994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渤海古城硏究概述」,『黑龍江民族叢刊』, 1995年第4期.

2.「長白山區域歷史與文化戰略思考」,『長白山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年.

3.「黑龍江省高句麗古城的特徵」,『黑龍江民族叢刊』, 2002年第3期.

4.「黑龍江渤海山城的高句麗文化典型特徵」(合作),『黑龍江民族叢刊』, 2002年第3期.

5.「1996年度鴨綠江右岸考察記錄」(下),『大連大學學報』, 2004年第5期.

71. 왕준휘(王俊輝)

왕준휘, 남, 1953년 요녕성 환인현 출생. 일찍이 환인현문물보관소(文管所)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환인현 문물국(文物局) 부국장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合著), 1990年.

2.『五女山城』(合著),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合作),『博物館研究』, 1994年第2期.

2.「桓仁五女山城考古發掘獲重要成果」(合作),『中國文物報』, 2000年1月19日.

3.「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合作),『北方文物』, 2003年第2期.

4.「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合作),『東北史地』, 2004年第3期.

72. 왕중수(王仲殊)

왕중수, 남, 1925년 10월 절강성 영파시(寧波市)에서 출생. 1950년 7월 북경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한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구원, 부소장, 소장, 학술위원회 주임 및『고고학보(考古學報)』와『고고학집간(考古學集刊)』의 편집장을 담당하였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대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겸임하였으며 국무원에서 수여한 정부특수보조금을 받는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漢代考古學概論』, 中華書局, 1984年6月.

2.『三角緣神獸鏡』(日文), 日本學生社, 1992年.

3.『六頂山與渤海鎭－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合作),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年.

b. 주요 논문:

1.「關于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考古』, 1990年第11期.

2.「再論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考古』, 1991年第12期.

3.「論所謂"倭面土國"之存在與否),『北京大學學報』, 1994年第4期.

4.「論漢唐時代銅錢在邊境及國外的流傳」,『考古』, 1998年第12期.

73. 왕홍봉(王洪峰)

왕홍봉, 남, 1952년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80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고, 현재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遼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4月.

2.『遼源市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8月.

3.『集安高句麗王陵』(合編),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羅通山城調查簡報」(合作),『文物』, 1985年第2期.

2.「石棚墓葬研究」,『青果集』, 知識出版社, 1993年.

74. 왕효남(王曉南)

왕효남, 여, 한족, 1956년 2월 길림성 백산시(白山市) 출생. 1987년 통화사범학원 정사계(政史系)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관리학과 관광교학연구실 주임 및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長白山旅遊文化』(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5年.

b. 편집 저서

1.『高句麗歷史知識問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c. 주요 논문

1.「高句麗疆域調查與研究現狀」(合作),『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2.「高句麗的起源問題再論」,『通化師院學報』, 2002年第6期.

75. 웅의민(熊義民)

웅의민, 남, 1966년 호북(湖北) 광수(廣水) 출생. 현재 광주 기남대학(暨南大學) 역사학부 부교수, 역사학 박사이며 주로 중외관계사 연구에 종사한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高句麗長壽王遷都之平壤非今平壤辨」,『中國史研究』, 2002年第4期.

2.「隋煬帝第一次東征高句麗兵力新探」,『暨南學報』, 2002年第4期.

76. 위존성(魏存成)

위존성, 남, 한족, 1945년 하북성 석가장(石家庄) 출생. 1969년 길림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북경대학 역사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으로 연수하였다. 일찍이 길림대학 고고학부 주임을 역임하였고, 현재 길림대학 동북역사 및 강역연구중심 주임이고 교수로서 박사 지도교수이다. 중국고고학회 이사, 길림성고고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遺址』(電教片), 中央音像出版社, 1986年.

2.『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1994年6月.

3.『東北古代民族 · 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1月.

4.『高句麗遺址』, 文物出版社, 2002年6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 1985年第2期.

2.「高句麗四耳展沿壺的演變及其有關的几個問題」,『文物』, 1985年第5期.

3.「高句麗積石墓的類型與演變」,『考古學報』, 1987年第3期.

4.「高句麗渤海文化的發展及其關系」,『吉林大學學報』, 1989年第4期.

5.「高句麗渤海古葬之比較」,『古民俗研究』, 1990年第1期.

6.「高句麗馬具的發見與研究」,『北方文物』, 1991年第4期.

7.「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青果集』, 知識出版社, 1993年.

8.「再談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博物館研究』, 1994年第1期.

9.「夫餘高句麗族源說考」,『高句麗渤海研究集成』(1), 哈爾濱出版社, 1997年.

10.「半個世紀以來中國高句麗考古的發見與研究」,『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8年第1期.

11.「深入開展高句麗考古研究的几點意見」,『通化師院學報』, 1999年第1期.

12.「吉林省高句麗山城的發見與研究」,『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13.「夫餘高句麗族源傳說考」,『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4.「近年來我國高句麗考古的主要發見與研究」,『東北亞論壇』, 2001年, 第1期.

15.「高句麗的主要遺跡與分布」,『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16.「中原, 南方政權對高句麗的管轄冊封及高句麗改稱高麗時間考」,『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8年第1期.

17.「高句麗政權的建立與發展」,『東北史地』, 2004年, 第1期.

18.「集安在高句麗歷史上重要地位及其遺產表現」,『吉林大學學報』, 2004年第2期.

19.「高句麗: 一个民族的盛衰」,『中國文化遺產』, 2004年夏季號.

20.「讀〈高句麗古城研究〉」,『東北史地』, 2004年第4期.

77. 유거(劉炬)

유거(劉炬) 또는 유구(劉矩)라고도 부름, 남, 1962년 길림성 장춘 출생. 1984년 동북사범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 1998년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소로 옮겨왔고 현재는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소 부연구원,『동북사지(東北史地)』의 부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地方民族史證』(合著), 吉林大學出版社, 2005年3月.

b. 편집에 참여한 저술

1.『三國史記』(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2.『三國遺事』(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3.『高句麗知識讀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c. 주요 논문

1.「論唐太宗東征高麗受挫之原因」(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2.「唐太宗東征高句麗勝敗辨」,『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

3.「論唐朝的開明政策與高句麗滅亡之關系」(合作),『社會科學戰線』, 2000年第5期.

4.「試論蓋蘇文」,『社會科學戰線』, 2001年第5期.

5.「高句麗相權考」,『北方文物』, 2003年第3期.

6.「論中國歷史上少數民族政權性質的界定標準－兼談高句麗政權的性質」,『東北史地』, 2004年第5期.

7.「唐滅高句麗善後政策之失誤及影響」,『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8.「論唐朝和新羅的聯盟關系」,『東北史地』, 2005年第2期.

9.「論中國歷史上少數民族政權性質的界定標準－兼談高句麗政權的性質」,『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78. 유람(柳岚)

유람, 여, 1950년 요녕성 해성현(海城縣)에서 출생하였다. 1976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현재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박물관연구』와『역사와 고고정보·동북아』두 잡지의 집행부편집장이기도 하다. 중국고고학회 회원, 중국박물관학회 회원, 중국 요금사학회(遼金史學會) 회원, 길림성 고고학회 이사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吉林省文物志』, 文物出版社, 1991年.

2.『吉林省文物志圖集』, 文物出版社, 1994年.

3.『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2004年.

4.『高句麗文化』(編譯), 2004年12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的墓葬」,『吉林文物』, 1983年第9期.

2.「高句麗壁畫墓」,『吉林文物』, 1983年第11期.

3.「1976年集安高句麗墓清理」(合作),『考古』, 1984年第1期.

4.「通化市王八脖子遺址復查報告」(合作),『博物館研究』, 1988年第3期.

5.「高句麗古城與遼金古城的比較研究」, 韓國高句麗研究會,『高句麗山城研究』, 1999年8輯.

6.「高句麗古城研究」,『博物館研究』, 2000年第1期.

7.「高句麗王陵研究」,『北方民族』, 2004年第1期.

8.「高句麗積石串墓研究」,『博物館研究』, 2004年第4期.

9.「高句麗封土墓研究」(合作),『博物館研究』, 2005年第3期.

79. 유경문(劉景文)

유경문, 남, 한족, 1946년 출생. 1976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현재 길림성 문물고고학 연구소 연구실 주임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楡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年4月.

b. 주요 논문

1.「好太王碑與好太王陵」,『吉林文物』, 1981年6月20日.

2.「吉林省近十年的考古工作的主要收獲(1979～1989)」(合作),『博物館研究』, 1991年第1期.

3.「吉林省近十年的文物考古工作」(合作),『文物考古工作十年』, 文物出版社, 1991年.

4.「集安縣高句麗及渤海墓葬」(合作),『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1997年.

5.「論中國境內圖們江流域的原始文化」,『博物館研究』, 2005年第3期.

80. 유영지(劉永智)

유영지(1931～2003), 유련(劉戀)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요녕성 봉성현(鳳城縣) 출생. 1960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朝鮮所) 연구원, 중국조선사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朝關系史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

b. 주요 논문

1.「從好太王碑看高句麗的社會性質」,『朝鮮史研究文集』(1), 1981年.

2.「好太王碑"辛卯年"記事初探,『學術研究叢刊』, 1981年第2期.

3.「也談"薩水究在何處"」,『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4.「訪高句麗早期遺址五女山城」,『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5.「高句麗壁畫與中國文化的關系」,『學術研究叢刊』, 1982年第4期.

6.「幽州刺史墓小考」,『朝鮮史通訊』, 1982年第4期.

7.「關于好太王碑爭論的問題」,『東北史研究』, 1983年第1期.

8.「幽州刺史墓考略」,『歷史研究』, 1983年第2期.

9.「〈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文釋略〉初評」,『學術研究叢刊』, 1984年第1期.

10.「好太王碑的發現及其他」,『社會科學戰線』, 1985年第1期.

11.「〈高句麗碑出土記〉芻議」,『學術研究叢刊』, 1986年第4期.

12.「薩水考略」,『社會科學戰線』, 1987年第4期.

13.「好太王碑綜述」,『東北亞研究動態』, 1996年第1, 2期.

14.「"箕氏朝鮮"不應任意否定」,『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1998年.

15.「再論箕氏朝鮮不容輕易否定」,『中朝邊界研究文集』, 吉林省社會科學院, 1998年.

16.「〈三國史記 · 高句麗本紀〉校評)」,『社會科學戰線』, 2000年第6期.

81. 유자민(劉子敏)

유자민, 남, 한족, 1938년 4월 산동성 악릉현(樂陵縣) 출생. 1963년 7월 동북사범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8월부터 연변제2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다. 1973년 9월 연길시 제6중학교로 전근한 이후 차례로 교학주임, 교장직을 역임하였다. 1983년 10월 연변대학 역사학과로 옮겨 일찍이 중국사 교학연구실 주임이 되었으며 강사, 부교수, 교수를 거쳤다. 1998년에 퇴직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6年12月.

2.『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合著), 延邊大學出版社, 1996年.

b. 주요 논문

1.「燕 · 遼東 · 古朝鮮」,『東疆學刊』, 1991年第4期.

2.「先秦時期的古朝鮮未曾使用過青銅鑄幣」,『東疆學刊』, 1994年第2期.

3.「關于好太王碑文"辛卯"句的語法分析」,『延邊教育學院學刊』, 1994年1, 2合刊.

4.「關于〈三國史記〉所記太祖大王至東川王資料的辨析」,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編,『高麗學研究』, 民族出版社, 1994年11月.

5.「高句麗國與南北朝的關系」,『中朝韓日關系史研究論叢』(1), 延邊大學出版社, 1995年8月.

6.「高句麗新大王伯固考」,『延邊大學學報』, 1995年第3期.

7.「〈山海經〉"貊國"考」,『北方文物』, 1996年第4期.

8.「高句麗族故地沿革考」,『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9.「箕子適朝鮮之我見」,『延邊教育學院學刊』, 1995年第1, 2期.

10.「關于"遼東"的考辨」,『中國邊疆史地研究』, 1996年第1期.

11.「貊族考」,『北方民族』, 1996年第1期.

12.「"遼東外徼"考釋」,『延邊大學學報』, 1996年第2期.

13.「古代高句麗同中原王朝的關系」,『東疆學刊』, 1996年第3期.

14.「"秦故空地上下鄣"考」,『博物館研究』, 1996年第3期.

15.「"高夷"考辨」,『延邊大學學報』, 1996年第2期.

16.「〈三國志 · 夫餘傳〉中的錯簡問題探討」,『東疆學刊』, 1996年第3期.

17.「關于編輯〈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思考」(合作),『延邊大學學報』, 1997年第3期.

18.「"古高句麗"新探」,『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

19.「關于〈魏志 · 高句麗傳〉探討」,『通化師院學報』, 1999年第3期.
20.「關于高句麗政權及其領域的歷史歸屬問題之我見」,『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21.「高句麗五部新探」,『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22.「關于毋丘儉征伐高句麗的探討」,『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1999年8月.
23.「走出高句麗歷史研究的誤區－試析古人在高句麗歸屬問題上的錯誤說法」,『東疆學刊』, 2000年第1期.
24.「穢族考」,『北方民族』, 2000年第1期.
25.「不要無視燕秦漢之遼東長成」,『北方民族』, 2001年第4期.
26.「"崔氏樂浪"考辨」,『北方文物』, 2001年第1期.
27.「高句麗疆域沿革考辨」,『社會科學戰線』, 2001年第2期.
28.「論兩漢對高句麗的有效管轄」,『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吉林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29.「〈史記 · 朝鮮列傳〉地名考釋」,『中朝韓日關系史研究論叢』(2), 延邊大學出版社, 2001年10月.
30.「几條關於朱蒙記事史料的研究」,『博物館研究』, 2002年第2期.
31.「高句麗族源研究」,『社會科學戰線』, 2002年第5期.
32.「朱蒙之死新探－兼說高句麗遷都"國內"」,『北方文物』, 2002年第4期.
33.「論高句麗滅亡的原因」,『長白山文化論叢』, 時代文藝出版社, 2003年7月.
34.「關于高句麗歸屬問題的再探討」,『北方民族』, 2004年第1期.
35.「東北亞古族古國歸屬談」,『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8月.
36.「關于高句麗歷史研究的几個問題」,『東北史地』, 2004年第2期.
37.「"高句麗縣"研究」,『東北史地』, 2004年第7期.
38.「新成果, 新高度－評〈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39.「箕氏朝鮮研究」(合作),『東北史地』, 2004年第8期.
40.「中華天下秩序中的高句麗－兼論冊封, 朝貢及割據問題」,『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82. 유후생(劉厚生)

유후생, 남, 1941년 2월 북경시 출생. 1961년 중앙민족대학 만주어반(滿文班)을 다녔으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 길림시 제29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80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명청사연구실(明清史研究室) 주임으로 옮겼으며 현재는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과 강역연구중심 주임, 중국변강지역역사와 사회연구 동북공작참(東北工作站) 부책임자(상무), 교수, 박사 지도교수이다. 주로 동북변강사 및 만주족 역사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薩滿教』, 吉林人民出版社, 1996年出版.

2.『高句麗史話』(合著), 遠方出版社, 1999年出版.

3.『黑土地的古代文明』(合編), 遠方出版社.2000年出版.

4.『滿族薩滿跳神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年出版.

b. 주요 논문

1.「滿洲薩滿教的祭神與祝辭」,『北方民族』, 1992年第3期.

2.「東北亞－薩滿教的搖籃」,『滿語研究』, 1994年第1期.

3.「試論薩滿教起源于東北亞」,『東師史學』,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4.

4.「關于薩滿教的界定, 起源與傳播」,『世界宗教研究』, 1995年第2期.

5.「薩滿教是世界性的研究課題」,『滿語研究』, 1999年第1期.

6.「關於東北民族與疆域若干問題的研究」(合作),『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第2期.

7.「高句麗是我國古代少數民族的地方政權」,『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第3期.

8.「尊重歷史正視現實」,『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9.「東北民族與疆域研究亟待加强」,『吉林日報』, 2001年3月17日.

10.「東北古代華夏族系」,『吉林日報』, 2001年3月24日.

11.「日本東洋文庫與中國歷史文獻」,『歷史檔案』, 2001年第3期.

83. 유훤당(劉萱堂)

유훤당, 남, 1938년 5월 출생, 한족. 1958년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길림성박물관에 입사하였다. 1978년 길림성 문물공작대로 옮겼고, 1983년부터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로 옮겨 근무하다가 1998년에 퇴직하였다. 미술원, 기사(技師), 보조연구원, 부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古代器物圖典』(合編), 吉林美術出版社, 1993年10月.

2.『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合編), 科學出版社, 2002年.

b. 주요 논문

1.「五盔墳4號墓壁畫中的龍」,『吉林文物』, 1986年9月25日.

2.「集安高句麗壁畫墓研究概述」,『北方文物』, 1998年第1期.

3.「中國集安高句麗壁畫墓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墓比較研究」, 『第3屆高句麗國際學術大會發表論文集』(韓國), 高句麗研究會編, 1997年7月.

4.「集安下解放31號高句麗壁畫墓」(合作),『北方文物』, 2003年第2期.

5.「集安高句麗壁畫墓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墓比較研究」(續編之一),『博物館研究』, 2003年第2期.

6.「 集安高句麗壁畫墓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墓比較研究」(續編之二),『博物館研究』, 2004年第3期.

7.「不盡的思念－追憶方起東同志」(合作),『東北史地』, 2005年第5期.

84. 윤국유(尹國有)

윤국유, 남, 1949년 길림성 통화시 출생. 일찍이 길림예술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통화시 군중예술관 관원,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부주임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瓦當研究』(合著), 吉林人民出版社, 2001年.

2.『吉林民間美術』(合著), 吉林美術出版社, 2000年.

3.『高句麗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壁畫中的湯穀扶桑圖及扶桑觀念播遷考略」,『通化師院學報』, 1997年第2期.

2.「高句麗壁畫中的尙鳥藝術」,『通化師院學報』, 1997年第3期.

3.「高句麗壁畫中的湯穀扶桑圖」,『高句麗曆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4.「高句麗墓室壁畫中的鳥圖騰」,『高句麗曆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5.「高句麗四神墓壁畫中"怪異獸面"新解」,『通化師院學報』, 1998年第1期.

6.「集安高句麗墓室壁畫的藝術特徵與表現形式」,『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7.「高句麗婦女的面裝及頭式」,『通化師院學報』, 1999年第1期.

8.「集安高句麗墓室壁畫的表現形式研究」,『全國首屆高句麗研究研討會論文集』, 1999年.

9.「高句麗的石文化」,『通化師院學報』, 2000年第1期.

10.「高句麗祭祀與墓室壁畫中的"神樹"」, 日本名城大學『人間科學』, 2001年第12期.

85. 이건재(李健才)

이건재, 남, 한족, 1920년 산동 임평현(茌平縣) 출생. 1953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일찍이 길림성 박물관 연구원,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역사지리의 연구와 고고 조사사업에 종사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史地考略』,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4月.

2.『東北的古代交通』(合著), 沈陽出版社, 1990年 11月.

3.『東疆史略』(合著), 吉林文史出版社, 1990年 12月.

4.『東北史地考略』(續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年 12月.

5.『東北史地考略』(第3集), 吉林文史出版社, 2001年 4月.

6.『吉林省歷史』(合著),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10月.

b. 주요 논문

1.「北夫餘·東夫餘豆莫婁的由來」,『東北史研究』, 1983年 第1期

2.「玄菟郡的建立和遷移」,『東北地方史研究』, 1990年 第1期

3.「關于高句麗南·北道的探討」,『歷史地理』, 1990年 第8期.

4.「高句麗的都城和疆域」,『中國邊疆研究報考』, 1991年 第1期

5.「唐代高句麗山城與夫餘城」,『民族研究』, 1991年 第4期.

6.「再論北夫餘, 東夫餘卽夫餘的問題」,『東北地方史研究』, 1992年 第2期.

7.「唐代高句麗長城和夫餘城」,『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1992年.

8.「吉林市龍潭山山城考」,『博物館研究』, 1995年 第5期.

9.「評箕子朝鮮傳說考」,『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 第2期.

10.「再論高句麗的夫餘城和千裏長城」,『北方文物』, 2000年 第1期.

11.「關于高句麗中期都城几個問題的探討」,『東北史地』, 2004年 第1期.

12.「再論高句麗遷都到國內以前有無漢代縣城的問題」,『東北史地』, 2004年 6期.

13.「關于漢代夫餘王城几個問題的探討」,『東北史地』, 2005年 第3期.

86. 이대룡(李大龍)

이대룡, 용목(龍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남, 한족, 1964년 하북성 하간시(河間市) 출생. 1986년 7월 서북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역사학 학사이다. 1986년 7월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민족연구 편집부 부주임을 담당하였다. 2000년 8월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으로 옮겨『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잡지 편집장, 편집부 주임, 편심(編審) 등을 담당하였다. 주로 한당변강사(漢唐邊疆史) 연구 그중에서도 민족관계, 관리기구 및 고구려 등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兩漢時期的邊政與邊吏』, 黑龍江教育出版社, 1999年.

2.『古代中國高句麗歷史論叢』(合著), 黑龍江教育出版社, 2000年.

3.『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合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從高句驪縣到安東都護府－高句驪和中央王朝的關系述論」,『民族研究』, 1998年第3期.

2.「關于高句麗侯騶的几個問題」,『學習與探索』, 2004年第5期.

3.「古國覓蹤〈尋找消失的高句麗〉」,『中國國家地理』, 2004, 6月號.

4.「高句麗史研究的又一部力作－〈中國高句麗史〉評介」,『中國邊疆史地研究』, 2003年第4期.

5.「試論有關高句麗歷史研究的几個問題」,『光明日報』, 2003年6月24日.

6.「五代至明中國正史將高句麗寫入王氏高麗傳, 朝鮮傳原因試析」,『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7.「從漢唐藩屬體制看高句麗政權歸屬」,『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

87. 이덕산(李德山)

이덕산, 남, 한족, 1962년 흑룡강성 오상시(五常市) 출생. 1984년 동북사범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동북사범대학 고적연구소 역사문헌연구실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역사학 박사이다. 『고적정리연구학간(古籍整理研究學刊)』 부편집장이기도 하다. 주로 동북역사와 문화 및 동북민족사의 교학과 연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 『東北民族與東夷淵源關系考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6年.
2.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合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b. 주요 논문

1.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 『社會科學戰線』, 1992年第1期.
2. 「崛起於中國東北的古國－高句麗」, 『東北民族與疆域動態』, 1998年第1期
3. 「東北邊疆和朝鮮半島古代國族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001年10月.
4. 「夫餘族考略」, 『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10月.
5. 「朝鮮半島的古族古國研究」, 『東北民族與疆域動態』, 2002年第1期.
6.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前言」, 『東北民族與疆域動態』, 2003年第2期.
7. 「當前高句麗史研究中的几個問題」, 『中國邊疆史地研究』, 2003年第2期.
8. 「唐朝對高句麗政策的形成, 嬗變及其原因」,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88. 이락영(李樂營)

이락영(李樂營, 李樂瑩), 남, 한족, 1962년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84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도서관 관장 및 교수이다. 주로 동북민족 강역, 종교신앙과 사상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 『中國學者的渤海史研究文獻目錄』(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2. 『高句麗歸屬問題研究』(副主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3. 『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合編),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4. 『中國高句麗學者與研究綜述』(合作), 吉林文史出版社.(即刊).

b. 주요 논문

1.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 「高句麗民族性格初探」,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3. 「高句麗法律, 司法及其特點」(合作), 『通化師院學報』, 1998年第4期.
4.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建所5周年」(合作), 『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2000年第1期.

5.「高句麗王位繼統法考略」(合作),『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6.「東北地方史研究的新收獲－〈黑土地的古代文明〉評價」(合作),『北方民族』, 2000年第3期.

7.「古代高句麗印章文化探析－兼與中原印章文化比較」,『長春師範學院學報』, 2001年第1期.

8.「中國古代王朝對朝鮮"賜讓土地"與中·朝邊界變化探析」,『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9.「高句麗自然宗教信仰對象辯析」,『中國邊疆史地研究』, 2003年第2期.

10.「高句麗自然宗教信仰活動及俗制的解析」,『東北史地』, 2005年第1期.

89. 이수림(李樹林)

이수림, 남, 한족, 1966년 2월 길림성 통화현 출생. 1988년 동북사범대학 미술학과 양성반을 졸업하였다. 일찍이 통화현 문화관 미술간부, 통화현 인민무장부 간사, 집안시 인민무장부 부부장, 통화시 국방교육사무실 부주임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동보약업(東寶藥業) 선전간부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高句麗石刻人像是外星人嗎?」,『通化日報』, 1988年8月15日.

2.「"躍進文化"的考古發現與高句麗民族起源研究」,『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3.「吉林集安高句麗3319墓日月神闕考釋及相關重大課題研究」,『社會科學戰線』, 2002年第3期.

90. 이숙영(李淑英)

이숙영(李淑英), 이영(李英), 아영(阿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 한족, 1955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77년 동북사범대학을 졸업했고, 1988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歸屬問題研究』(副主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2.『中國高句麗學者與研究綜述』(合著), 吉林文史出版社(即出).

b. 주요 편집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c. 주요 논문

1.「高句麗壁畫中的貴族生活」(合作),『博物館研究』, 1987年第2期.

2.「從高句麗壁畫中的戰爭題材看高句麗軍隊與戰爭」(合作),『北方文物』, 1987年第3期.

3.「四十年來我國高句麗研究的文獻計量分析」,『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4.「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合作),『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1997年6月.

5.「高句麗人飮酒釀酒考」(合作),『通化師院學報』, 1999年第6期.

6.「冉牟墓志集釋」(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硏討會論文集』, 1999年.

7.「高句麗傳說的漢文化本體」(合作),『高句麗歸屬問題硏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8.「朝鮮學者近年來高句麗考古硏究槪況」(合作),『高句麗歸屬問題硏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9.「中國學者對高句麗歷史的硏究」,『史學集刊』, 2000年增刊.

10.「五女山城不是紇升骨城」,『通化師院學報』, 2001年第1期.

11.「高句麗紇升骨城新考」(合作),『北方民族』, 2001年第2期.

12.「好太王碑文煙戶, 奴客諸詞語補釋」(合作),『通化師院學報』, 2002年第1期.

13.「高句麗王陵及相關問題硏究」(合作),『社會科學戰線』, 2003年第2期.

14.「高句麗建國時間考論」(合作),『學習與探索』, 2004年第3期.

15.「兩漢時期高句麗的封國地位」(合作),『中國邊疆史地硏究』, 2004年第4期.

16.「高句麗古城硏究的新成果」,『北方文物』, 2005年第4期.

91. 이신전(李新全)

이신전, 남, 한족, 1963년 사천 자양(資陽) 출생. 1985년 길림대학 고고학 학부를 졸업했고, 1988년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 부소장 및 부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五女山城』, 文物出版社, 2004年6月.

b. 주요 논문

1.「桓仁五女山城考古發掘獲重要成果」(合作),『中國文物報』, 2000年1月19日.

2.「關于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合作),『東北史地』, 2004年第3期.

3.「五女山城－高句麗開國都城」,『中國文化遺産』, 2004年夏季號.

92. 이전복(李殿福)

이전복(李殿福), 이전보(李甸甫) 또는 전보(甸甫)라고도 부른다. 남, 한족, 1934년 요녕성 대안현(臺安縣) 출생. 1959년 7월 길림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길림성 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 1983년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로 옮겼다. 일찍이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실 주임 및 연구원, 중국고고학회 회원, 중국요금거란여진사학회 회원, 중국민족사학회 회원, 중국발해사연구회 이사, 길림성 고고학회 이사, 길림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실 특별초청연구원, 길림대학 역사학과 객좌교수를 역임하다가 1994년에 퇴직하였다. 장기간 동북문물고고사업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동북한대고고(東北漢代考古), 고구려 및 발해 고고에 대하여 많은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대량의 1차 자료를 장악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 渤海文化』(合著), 韓國集文堂, 1985年 2月.

2.『高句麗簡史』, 韓國三省出版社, 1990年 9月.

3.『高句麗, 渤海的考古與歷史』, 日本學生社, 1991年.

4.『中國的高句麗遺跡』, 韓國學研文化社, 1994年 3月.

5.『東北考古研究』(2),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 12月.

6.『高句麗民族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 12月.

b. 주요 논문

1.「集安一日記」,『長春日報』, 1961年 9月 6日.

2.「畵像石刻」,『長春日報』, 1962年 6月 3日.

3.「高句麗壁畫」,『長春日報』, 1962年 11月 28日.

4.「1962年春季輯安考古調查簡報」,『考古』, 1962年 第11期.

5.「吉林省五盔墳4號和5號墓淸理略記」(合作),『考古』, 1962年 第2期.

6.「集安高句麗墓研究」,『考古學報』, 1980年 第2期.

7.「吉林集安高句麗壁畫初探」,『社會科學輯刊』, 1980年 第4期.

8.「吉林集安洞溝三室墓淸理記」,『考古與文物』, 1981年 第1期.

9.「集安三室墓壁畫著錄補正」,『考古與文物』, 1981年 第1期.

10.「集安山城子山城考略」,『求是學刊』, 1982年 第1期.

11.「集安高句麗山城調查與考略」,『文物考古匯編』, 1982年 第1期.

12.「漢代白玉耳杯」,『吉林文物』, 1982年 第5期.

13.「高句麗丸都山城」,『文物』, 1982年 第6期.

14.「集安東溝三座壁畫墓」,『考古』, 1983年 第4期.

15.「吉林集安五盔墳4號墓」,『考古學報』, 1984年 第1期.

16.「集安卷雲紋銘文瓦當考辨」,『社會科學戰線』, 1984年 第4期.

17.「兩漢時代的高句麗及其物質文化」,『遼海文物學刊』, 1986年 創刊號.

18.「高句麗新城始築年代」,『遼海文物學刊』, 1988年 第2期.

19.「高句麗的都城」(合作),『博物館研究』, 1990年 第1期.

20.「高句麗民族宗教信仰」,『北方民族』, 1990年 第2期.

21.「高句麗民族的社會生活」,『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1990年.

22.「高句麗民族文學, 音樂, 舞蹈, 體育」,『博物館研究』, 1991年 第3期.

23.「高句麗的考古學」,『高句麗·渤海的考古與歷史』, 日本學生社, 1991年.

24.「30年來我對高句麗渤海遺跡的調查與研究」, 日本『考古學研究』, 1991年 38卷 第1號.

25.「靑銅時代至唐代集安墓葬的變遷」,『高句麗·渤海的考古與歷史』, 日本學生社, 1991年.

26.「高句麗考古新發現」, 臺北『歷史月刊』, 1991年 11月.

27.「高句麗山城構造與變遷」, 日本『九州考古學』, 66號, 1991年 12月.

28.「高句麗考古回顧與展望」,『遼海文物學刊』, 1992年 第2期.

29.「高句麗易名高麗考」, 臺北『韓國學報』, 1992年 第1期.

30.「高句麗石雕, 金銅佛像及中原郡碑」,『考古』, 1993年 第8期.

31.「高句麗山城研究」,『北方文物』, 1998年 4期.

32.「高句麗古墓壁畫反映高句麗社會生活習俗的研究」,『北方文物』, 2001年 第3期.

33.「高句麗民族的社會生活與習俗」,『社會科學戰線』, 2001年 第3期.

34.「通過中原郡高麗碑看高句麗國名的變遷」, 韓國『高句麗研究』, 2000年 12月.

35.「簡述新中國高句麗考古的几點收獲」(合作), 韓國『高句麗研究』, 2001年 12月.

36.「高句麗貴族有回葬舊塋之習俗集安五盔墳應爲王陵」,『東北史地』, 2005年 第4期.

93. 이정평(李正平)

이정평, 여, 한족, 일찍이 길림성박물관 관원을 담당한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高句麗墓室壁畫霉菌清除技術報告」,『博物館研究』, 1991年第1期.

2.「吉林省古墓壁畫保護措施的探討」,『博物館研究』, 1996年第1期.

94. 이종훈(李宗勛)

이종훈, 남, 조선족, 1961년 길림성 안도현 출생. 1997년 연변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연변대학 "중조일삼국관계연구소" 소장이며 교수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9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族源流略考」,『中朝韓日關系史研究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5年.

2.「也談高句麗柵城遺址」,『史學論叢』, 延邊大學出版社, 1999年.

3.「韓國的高句麗研究及其史觀－以高句麗歸屬問題爲中心」,『史學集刊』, 2004年第4期.

4.「韓國的高句麗研究及其史觀－以高句麗歸屬問題爲主」,『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95. 이춘상(李春祥)

이춘상, 남, 한족, 1956년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98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에서 위진남북조를 전공하여 졸업하며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중국고대사 교학연구

실 주임,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방향은 위진남북조 및 고구려 역사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國相』,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6年版.

2.『中華歷代國運－西晉東晉卷』(合作),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3.『中華歷代國運－南北朝卷』(合作),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4.『高句麗與東北民族疆域研究』, 吉林文史出版社, (卽刊).

b. 주요 논문

1.「兩唐書〈高句麗傳〉比較研究」(合作),『古籍整理研究學刊』, 1996年第3期.

2.「高句麗東川王位宮評傳」(合作),『通化師院學報』, 1997年第2期.

3.「從正史〈高句麗傳〉看高句麗政權的內屬性」,『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96. 이효종(李曉鐘)

이효종 남, 한족, 1953년 출생. 1978년 길림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심양시고고대 대장으로 있었으며, 현재는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 부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遼寧沈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簡報」(合作),『考古』, 1998年第10期.

2.「沈陽石臺子高句麗山城發掘保告」(合作),『遼海文物學刊』, 1993年第1期.

3.「沈陽石臺子高句麗山城考古發掘取得重要成果」(合作),『中國文物報』, 1998年5月17日.

4.「石臺子山城」, 韓國『高句麗研究』, 2001年12月.

97. 임지덕(林至德)

임지덕(1931～1996), 남, 한족, 길림성 집안시 출생. 일찍이 집안시 문화국 문화과(文化科) 과원, 집안시 박물관 부관장 및 관원을 역임하였다. 평생을 집안 고구려 문물고적의 보호 및 관리와 고고연구에 종사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集安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2.『高句麗的傳說』(合編), 北方婦女兒童出版社, 1993年.

b. 주요 논문

1.「集安東溝兩座樹立碑石的高句麗古墓」(合作),『考古與文物』, 1983年第2期.

2.「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合作),『考古』, 1983年第4期.

3.「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獲」(合作),『文物』, 1984年第1期.

4.「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合作),『文物』, 1984年第1期.

5.「集安高句麗國內城的調查與試掘」(合作),『文物』, 1984年第1期.

6.「高句麗的兩都城－國內城和丸都山城」(合作),『文物天地』, 1984年第6期.

7.「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合作),『考古』, 1985年第7期.

8.「集安高句麗壁畫古墓的發現與保護」,『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8年第2期.

9.「集安高句麗壁畫古墓的演進及分期」,『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1998年第2期.

98. 장도(張韜)

장도, 여, 한족, 1973년 11월 흑룡강성 이춘시(伊春市) 출생. 1997년 흑룡강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통화사범학원 역사학 강사이며, 흑룡강성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的高句麗研究文獻敍彔』,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 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4月.

3.『高句麗歷史知識問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 4月.

b. 주요 논문

1.「全國首屆高句麗研討會」(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

2.「關于高句麗歸屬問題的文獻記載及說明」(合作),『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12月.

99. 장박천(張博泉)

장박천(1926～2000), 별칭 보백(甫白), 호는 리우자(梨牛子), 남, 만주족, 요녕성 서풍현(西豊縣) 출생. 1954년 동북인민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고대사 교학연구실 조교로 남았다가 1960년에 강사로, 1979년 부교수로, 1985년은 교수로 승급하였으며 1991년에 퇴임하였다. 중국원호문학회(元好問學會) 부회장, 길림성 역사학회 부비서장 및 부회장, 동북지방사연구회 부이사장, 길림성민족학회 고문, 길림성 철학사회과학 9차 5개년 계획(1996년～2000년 5년 계획) 역사고고학과 전문가 구성인원을 역임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歷代疆域史』(合著), 吉林人民出版社, 1981年.

2.『鴨錄江行部志注釋』(合著),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年4月.

3.『遼東行部志注釋』,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年12月.

4.『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年11月.

5.『東北歷史名人傳』(主編),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6.『中國地方史論』(合著), 吉林大學出版社, 1994年11月.

7.『中華歷史的一體軌跡』, 遼寧人民出版社, 1995年9月.

8.『箕子和朝鮮論集』, 吉林文史出版社.1995年9月.

9.『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b. 주요 논문

1.「漢玄菟郡考」,『吉林大學學報』, 1980年6月.

2.「夫餘史地叢說」,『社會科學集刊』, 1981年第6期.

3.「〈魏書 · 豆莫婁〉傳中的几個問題」,『黑龍江文物叢刊』, 1982年第2期.

4.「東北考史研究中的几個問題」,『東北地方史研究』, 1983年第1期

5.「"別種"芻議」,『社會科學戰線』, 1983年第4期.

6.「東北史的有關問題」,『社會科學通訊』, 1983年第10期.

7.「試論我國北方民族政權類型的劃分」,『學習與探索』, 1987年第1期.

8.「北方民族政權史論」,『北方民族』, 1988年創刊號.

9.「試論我國歷代疆域結構與邊疆政策的依據」,『中國邊疆史地論集』, 黑龍江教育出版社, 1988年.

10.「一體與邊疆史地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第1期

11.「"中華一體"的構成觀念」,『北方民族』, 1991年第2期.

12.「高句麗的名稱, 族屬與一體結構」,『龍江社會科學』, 1992年第6期.

13.「東北民族研究諸問題綜論」,『東北亞論壇』, 1993年第1期.

14.「中華民族學初探評議」,『民族研究動態』, 1993年第4期.

15.「箕子"八條之教"的研究」,『史學集刊』, 1995年第1期

16.「長白山古民族的神話與傳說」,『北方民族』, 1995年第1期.

17.「高句麗五部與統一的民族和國家」,『龍江社會科學』, 1996年第1期

18.「高句麗社會性質研究」,『龍江社會科學』, 1997年第4期.

19.「關于箕子朝鮮侯東遷及高麗, 遼東之地問題研究之我見－兼與李健才先生商討」,『博物館研究』, 1998年第1期

20.「夫餘的地理環境與疆域」,『北方文物』, 1998年第2期.

21.「高句麗與中原文明」,『社會科學戰線』, 1998年第5期.

22.「讀〈高句麗東北史〉後知所想」,『社會科學戰線』, 1999年 第1期.

23.「論古代邊疆民族與疆域研究問題」,『吉林大學學報』, 1999年 第3期.

24.「北夫餘與東夫餘的史地考慮」,『史學集刊』, 1999年 第3期.

42. 장벽파(張碧波)

장벽파, 남, 1930년 출생, 1956년 동북사범대학 중문학과 고전문학연구반을 졸업하였고, 1956~1985년에는 하얼빈사범대학 중문학과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85년에는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로

옮겨왔다. 일찍이 연구원 및 교수로서 국가 특수 보조금을 향수하였으며 1994년 퇴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民族文化卷』(合編),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年.

2.『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專題文化卷』(合編), 黑龍江人民出版社, 1995年.

3.『東北古族古國古文化研究』(上卷),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年.

4.『東北民族與疆域論稿』,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文化淵源考」,『北方文物』, 1998年 第1期.

2.「略談古朝鮮, 高句麗研究中的誤區」,『東北民族與疆域研究動態』, 1999年 第2期.

3.「殷商, 高句麗, 滿族 "三仙女"族源神話比較研究」,『滿語研究』, 2000年 第1期

4.「高句麗原始宗教文化略論」,『黑龍江民族叢刊』, 2000年 第2期.

5.「關于歷史上民族歸屬與疆域問題的再思考」,『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 5月.

6.「關于歷史上民族歸屬與疆域問題的再思考－ 謙評"一史兩用"史觀」,『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12月.

7.「論4至10世紀東北亞政治格局及高句麗, 渤海與日本的"結援"的歷史眞相」,『北方論叢』, 2001年 第2期.

8.「高句麗與渤海略論」,『黑龍江民族叢刊』, 2001年 第3期.

9.「高句麗"風俗好淫"考辨－與姜維東先生商榷」,『博物館研究』, 2001年 第4期.

10.「關于渤海王室高句麗意識的考辨」,『北方論叢』, 2002年 第1期.

11.「一個研究新階段的標志－評〈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 第2期.

12.「論高句麗的太陽神崇拜文化」,『博物館研究』, 2003年 第3期.

13.「高句麗歷史考古研究的新成就－評王綿厚的〈高句麗古城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2003年 第4期.

14.「中國高句麗史研究的新收獲－評耿鐵華著〈中國高句麗史〉」,『東北史地』, 2004年 第2期.

15.「高句麗(民族與政權)歸屬問題的几點思考」, 『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4年 8月.

16.「高句麗壁畫墓四神圖像與中國的天文學, 神話學」,『北方文物』, 2005年 第1期.

17.「從百濟, 高句麗滅國到渤海建國－公元663～713年間東北亞政治格局歷史走向的歷史解讀」,『東北史地』, 2005年 第1期.

101. 장복유(張福有)

장복유, 남, 한족, 양근재주(養根齋主), 호는 장백산인(長白山人)이다. 본적은 요녕성 동항(東港)이며, 1950년 3월 길림성 집안시 양민촌(良民村)에서 태어났다. 중앙당교(中央党校)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있었다. 현재는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장, 길림성사회과학원 부원장,『동북사지』 잡지사 사장이다. 중국 문련(文聯) 위원, 중국작가협회 회원, 중화시사학회(詩詞學會) 부회장, 중국촬영가협회 이사, 길림성

촬영가협회 주석, 중국서예가협회 회원,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회장직을 갖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長白山詩詞先』(輯箋), 時代文藝出版社, 1998年 8月.

2.『長白山詩詞史話』,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10月.

3.『長白山詩詞論說』(主編), 時代文藝出版社, 2001年 10月.

4.『長白山文化論叢』(主編),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5.『好太王碑』(主編),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 12月.

b. 주요 논문

1.「"九都""丸都"辨」,『光明日報』, 1998年 3月 5日.

2.「唐鴻臚井刻石研究的兩點質疑」,『學問』, 2001年 第12期.

3.「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東北史地』, 2004年 第1期.

4.「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考證與初步研究」,『社會科學戰線』, 2004年 第3期.

5.「高句麗第一個平壤城在集安良民卽國之東北大鎭－新城」,『東北史地』, 2004年 第3期.

6.「高句麗平壤東黃城考」,『東北史地』, 2004年 第5期.

7.「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好太王碑』,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 12月.

8.「洛陽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志及泉氏墓地」,『東北史地』, 2005年 第4期.

9.「高句麗的平壤, 新城與黃城」,『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 3月.

10.「跟方起東先生學寫考古文章」,『東北史地』, 2005年 第5期.

102. 장설암(張雪岩)

장설암, 여, 회족, 1946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76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고, 일찍이 집안시박물관 연구원으로 있었다. 1961년부터 장기간 문물보호, 문물보수, 문물문서, 고고 발굴 등 기초업무에 종사하였다. 차례로 1971～1973년 오회분5호고분, 장천1호고분의 벽화 모사 사업에 참가하였다. 1976년에 길림대학과 길림성박물관이 연합하여 동구(洞溝)고분군에서 200여개의 고분을 발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 가을 동대파(東大坡) 고구려 고분을 발굴하였다. 1984년 우산고분구역 동구(洞溝)고분군의 발굴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차원의 고분, 고유적 발굴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1993년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의 보수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동구(洞溝)고분군의 대형 전면조사사업(1977～1978년, 1997년)에 두 차례 참가하였다, 1997～1998년에는 장군총 및 함께 있는 기타 무덤의 측량과 정리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2002～2004년에는 집안 고구려유산 신청서류의 편집·작성과 고구려 왕릉 발굴 및 보고의 편집·작성 등에 참가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集安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b. 편집 저서

1.『集安縣志』, 中國標準出版社, 1987年.

2.『東北人物大辭典』, 遼寧人民出版社, 1992年.

3.『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2004年.

c. 주요 논문

1.「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淸理」,『考古』, 1979年 第1期

2.「集安發現靑銅短劍墓」,『考古』, 1981年 第5期.

3.「集安出土趙國靑銅短劍」,『考古』, 1982年 第6期.

4.「1976年集安洞溝古墓群淸理」(合作),『考古』, 1984年 第1期.

5.「高句麗兩都城」(合作),『文物天地』, 1984年 第6期.

6.「集安江堤遺址」,『考古學年鑒』, 1985年.

7.「集安考古述略」,『遼寧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論文集』, 1985年.

8.「集安嶺前鴨綠江流域原始社會遺址」(合作),『博物館硏究』, 1986年 2期.

9.「集安出土几方銅印」(合作),『北方文物』, 1986年 第4期.

10.「集安出土古鏡)」,『文物』, 1986年 第6期.

11.「集安兩座高句麗封土墓發掘」,『博物館硏究』, 1988年 第2期.

12.「集安出土几面銅鏡)」(合作),『北方文物』, 1989年 第3期.

13.「集安高句麗採石場」,『博物館硏究』, 1991年 第1期.

14.「吉林省集安東大坡高句麗墓葬發掘」(合作),『考古』, 1991年 第7期.

15.「集安靑銅短劍墓與相關問題硏究」,『高句麗硏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

16.「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合作),『高句麗硏究文集』, 1993年.

17.「高句麗大型方壇階梯石室墓的構築與保護」,『高句麗硏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

18.「集安國內城北墻馬面淸理」(合作),『北方文物』, 2003年 第3期.

19.「高句麗的帶飾硏究」,『東北邊疆考古』, 吉林大學出版社, 2004年.

20.「高句麗封土墓硏究」(合作),『博物館硏究』, 2005年 第3期.

103. 장전갑(張殿甲)

장전갑, 남, 한족, 1950년 길림성 백산시(白山市) 출생. 1991년 길림대학 고고학과 고고연구반을 졸업하고, 현재는 백산시 문화관리위원회(文管會)사무실 주임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渾江市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b. 주요 논문

1.「鴨綠江中上遊高句麗, 渤海遺址綜述」,『北方文物』, 2000年 第2期.

2.「鴨綠江上遊右岸考古調查」(合作),『東北史地』, 2004年 第5期.

104. 장지립(張志立)

장지립, 남, 한족, 1953년 5월 길림성 장춘시 출생. 1980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일찍이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부연구원, 길림성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심양동아연구중심 부주임 및 부연구원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소흥문리학원(紹興文理學院) 부원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백월민족사연구회(百越民族史研究會) 이사, 중국 요금거란여진사 연구회 이사, 절강성 월문화연구회(越文化研究會) 부비서장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北方八省考古論著匯編』, 1986年.

2.『古民族研究』(合編), 吉林文史出版社, 1990年 5月.

3.『東北亞歷史與文化』(合編), 遼沈書社, 1992年 6月.

4.『中國考古集成·東北卷』(合編), 北京出版社, 1995年.

b. 주요 논문

1.「高句麗羅通山城調查簡報」(合作),『文物』, 1985年 第2期.

2.「穢貊文化探索」(合作),『遼海文物學刊』, 1986年 第1期.

3.「東北石質葬具綜敍述」(合作),『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0年.

4.「高句麗風俗研究」,『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1992年.

5.「高句麗南北道和有關城址的考證」,『高句麗渤海研究集成』(1), 哈爾濱出版社, 1997年.

105. 정영진(鄭永振)

정영진, 남, 조선족, 1952년 길림성 용정현(龍井縣) 출생. 1980년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연변주 문화국 문물과 과장, 연변박물관 관장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연변대학 발해문화연구소 소장 및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박물관학회 이사, 길림성 박물관학회 상무이사, 길림성역사학회 이사, 길림성 고고학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汪淸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10月.

2.『和龍縣文物志』(合編),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1月.

3.『延邊文物志簡編』(合編), 延邊人民出版社, 1988年9月.

4.『延邊古代簡史』(合著), 吉林人民出版社, 2000年11月.

5.『渤海墓葬研究』(合著), 吉林人民出版社, 2000年11月.

6.『高句麗, 渤海, 靺鞨墓葬比較研究』(合著), 延邊大學出版社, 2003年7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渤海墓制比較研究」,『高句麗遺物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94年.

2.「1991年發掘三陵屯渤海壁畫墓與高句麗壁畫墓的關系」,『韓國上考史學報』, 1994年第16期.

106. 조굉위(趙宏偉)

조굉위, 남, 1966년 12월 길림성 매하구시(梅河口市) 출생. 1986년 통화사범대학 정사학계(政史系)를 졸업하고 통화사범대학 역사학부 당총지(黨總支) 부서기(副書記) 및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중문학부 당총지 부서기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研究文獻敘錄』,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長壽王高璉傳略」(合作),『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高句麗王狩獵考」(合作),『高句麗歷史和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3.「高句麗諸王血統考略」(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4.「朝鮮學者對古朝鮮及高句麗歷史研究的主要學術觀點」,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107. 조덕전(曹德全)

조덕전, 남, 한족, 1946년 12월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69년 하얼빈공업대학 공정경제학부(工程經濟系)를 졸업하고 환인국영신화기계공장(桓仁國營新華機械廠)에서 10년 근무한 이후 1980년 무순(撫順)으로 직장을 옮겨 무순시 방직기계부품공장, 제4모방직공장 부공장장, 무순시 경제위원회 및 시 체육개혁위원회 부처장 및 처장, 노천구(露天區) 상무 부구장(副區長), 무순시 정보센터 주임, 굴착기공장 지배인, 무순시 기계전력설비국 부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1년 무순시 사회과학원 부원장 및 연구원으로 옮겨서 무순시 지방사연구회 부회장, 요녕성 요금거란여진사학회(遼金契丹女眞史學會)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撫順史研究』(合著), 遼沈書社, 1989年6月.

2.『撫順通史』(合著), 遼寧民族出版社, 1995年12月.

3.『高句麗探微』, 中華國際出版社, 2001年12月.

4.『撫順百科大事典』(合著), 中華國際出版社, 2002年5月.

5.『撫順歷史之謎』, 大連出版社, 2004年11月.

6.『撫順編年史』(合著), 遼寧民族出版社, 2004年12月.

b. 주요 논문

1.「高句麗名稱辨疑」,『高句麗渤海研究集成 · 高句麗編(1)』, 哈爾濱出版社, 1994年6月.

2.「論漢武帝置高句麗縣時還不存高句麗族」,『高句麗渤海研究集成 · 高句麗卷一』, 哈爾濱出版社, 1994年6月.

3.「高麗營子及相關地名來歷考」,『東北亞歷史地理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12月.

4.「"太王陵爲廣開土大王墓"質疑」(上),『通化日報』, 1996年10月8日.

5.「"太王陵爲廣開土大王墓"質疑」(下),『通化日報』, 1996年10月9日.

6.「高句麗始祖朱蒙的姓"高"考析」(合作),『職工大學學報』, 1999年第3期.

7.「"高句麗易名論"質疑」,『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8.「『後漢書』,『三國志』中的〈高句麗傳〉比較研究」,『社會科學戰線』, 2000年第4期.

9.「評金富軾使用中國史料的態度」,『北方民族』, 2002年第4期.

10.「"新國"與"故國"簡析」,『東北史地』, 2004年第3期.

108. 조동염(趙東艶)

조동염, 여, 길림대학 고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찍이 요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關于集安壁畫墓分期問題之我見」,『東北地方史研究』, 1992年第4期.

2.「高句麗文化中的漢文化因素」,『遼寧大學學報』, 1995年第3期.

3.「試論高句麗壁畫的分期」,『北方文物』, 1995年第3期.

109. 조병신(趙秉新)

조병신, 남, 중국인민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世界古代歷史教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6年3月.

b. 주요 논문

1.「略論高句麗的社會性質」,『朝鮮史通訊』, 1981年第3期.

2.「關于"下戶"的身份問題"」,『朝鮮史通訊』, 1982年第4期.

110. 조복향(趙福香)

조복향, 여, 한족, 1948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통화사범대학 역사학부 부교수, 2003년에 퇴직하였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的高句麗研究文獻敘錄』,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3.『高句麗歷史知識文答』,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淸末遼東形勢與好太王碑的發現』(合作),『通化師院學報』, 1995年第3期.

2.『好太王碑研究的新成果－評〈好太王碑新考〉』,『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3.『高句麗, 穢貊及其相關問題』(1)(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4.『高句麗, 穢貊及其相關問題』(2)(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3期.

5.『高句麗的水上交通』(合作),『通化師院學報』, 2000年第6期.

6.『高句麗的遷都平壤後與中原王朝的關系』(合作),『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7.『高句麗的在東北史上的地位』(合作),『通化師院學報』, 2002年第6期.

111. 조서근(趙書勤)

조서근, 여, 한족, 1944년 길림성 반석현(磐石縣) 출생. 집안시박물관 보관부(保管部) 주임 및 부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00년에 퇴임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文物史話」,『吉林文物』, 1982年7月15日.

2.「集安萬寶汀242古墓淸理簡報」(合作),『考古與文物』, 1982年第6期.

3.「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合作),『考古』, 1983年第4期.

4.「集安老虎哨古墓發掘簡報」,『文物』, 1984年第1期.

5.「集安出土的高句麗鐵鍋」,『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6.「集安發現一處高句麗時期的小手工業作坊遺址」,『博物館研究』, 1997年第2期.

7.「一件復原的鎏金飾」,『博物館研究』, 1998年第1期.

112. 조영춘(趙永春)

조영춘, 남, 한족, 1953년 길림성 유수시(楡樹市) 출생. 1977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길림대학 문학원(文學院) 역사학과 교수 겸 중국요금거란여진사연구학회 상무이사, 길림성 역사학회 상무이사, 길림성 민족사학회 이사, 길림성 철학사회과학 "10·5(十五)"계획 역사학과 전문가 구성원이기도 하다. 1991년 길림성 우수교사로 평의되었으며, 1993년 헌재교육기금교사상(憲梓教育基金教師奬) 3등상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2001년에는 전국에서 스승으로서의 도덕 모범인물(師德先進個人)로 평의되

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中國道學文化名著』, 延邊大學出版社, 1985年.

2.『中國通史』(合著), 吉林教育出版社, 1998年.

3.『班固評傳』(合著), 南京大學出版社,『中國思想家評傳叢書』, 2002年.

b. 편집 참가 저술

1.『四庫大辭典』(子部副主編), 吉林大學出版社, 1996年.

2.『新編中國古代史』(副主編), 東北師大出版社, 1999年.

3.『中國北方各民族人物傳』(副主編), 遼海出版社, 2002年.

c. 주요 논문

1.「關于處理中國歷史上民族政權之間關系的看法」,『四平師院學報』, 1981年第4期.

2.「歷史上國內民族鬪爭中湧現出來的英雄人物不宜稱爲整個中華民族的民族英雄」,『歷史論文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4年.

3.「從〈尙書·康誥, 多方, 多士篇〉看周人對殷人的統治思想和政策」,『克山師專學報』, 1986年第4期.

4.「談談中國古代史的地位, 任務和培養措施」,『高師研究』, 1989年第1期.

5.「中國區域史研究的新篇章－〈中國東北通史〉評介」,『北方文物』, 1995年第3期.

6.「關于中國古代史課程改革的初步探索」,『高師研究』, 1997年第4期.

7.「歷史學價值觀初探」,『松遼學刊』, 1998年第1期.

8.「試論中國古代北方文化的發展及其歷史地位」,『松遼學刊』, 1999年第3期.

9.「轉換視角, 深入發掘史學民族精神的創新之作－陳其泰〈史學與民族精神〉評介」,『松遼學刊』, 2000年第1期

10.「爲史學研究注入新的活力－讀陳其泰〈史學與中國文化傳統〉,〈史學與中國民族精神〉」,『社會科學管理與評論』, 2000年第4期.

11.「論班固的創新思想」,『松遼學刊』, 2001年第5期.

12.「關于中國古代北方文化研究的几個問題」,『北方民族文化新論』, 哈爾濱出版社, 2001年.

13.「論班固的民族精神」,『社會科學戰線』, 2002年2期.

14.「關于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几點認識」,『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第3期.

15.「論班固的刑法思想」,『社會科學戰線』, 2002年第2期.

16.「關于北方民族史研究的几個問題」,『黑龍江民族叢刊』, 2003年第3期.

17.「關于中國古代民族內外遷徙及其歸屬問題」,『東北史地』, 2004年第3期.

18.「認識中國歷史疆域的几個原則」,『高句麗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5年3月.

113. 주영순(周榮順)

주영순, 남, 한족, 1963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91년 길림대학 고고학과 고고연구반을 졸업하고 현재는 집안시박물관 관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高句麗無釉陶器修復」,『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2.「好太王碑書法淺談」,『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114. 주운대(周雲臺)

주운대(1927~1996), 남, 한족, 길림성 집안시 출생. 일찍이 집안시박물관 부관장, 집안시 정협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장기적으로 고구려 벽화와 호태왕비 보호, 밀폐보호(封護)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국가문물국, 길림성박물관,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를 위해 호태왕비 탁본을 제작하였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萬寶汀242考墓淸理簡報」(合作),『考古與文物』, 1982年第6期.

2.「集安嶺前鴨綠江流域原始社會遺址」(合作),『博物館研究』, 1986年第2期.

115. 주향영(周向永)

주향영, 남, 1958년 1월 요녕성 대련(大連) 출생. 1981년 문물사업에 참가하여 선후로 개원(開原), 서풍(西豐), 창도(昌圖), 법고(法庫)등 현(시)의 문물일제조사와 요북(遼北) 부분 유적 묘장(墓葬)의 고고발굴에 참가하였다. 1984년에 요녕대학 역사학과 문물박물관(文博)전공에 입학하여 1986년 졸업 이후 철령시(鐵岭市) 문화국 문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철령시박물관으로 옮겼다. 현재는 요녕성 철령시박물관 부관장 및 부연구원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鐵岭歷史』, 中國文聯出版社, 2004年.

b. 주요 논문

1.「"洛氏"考」,『遼海文物學刊』, 1987年第3期.

2.「西豊城子山山城」(合作),『遼海文物學刊』, 1993年第2期.

3.「遼北東部山地靑銅文化族屬芻議」,『遼寧大學學報』, 1993年第5期.

4.「高句麗金山城考」,『博物館研究』, 1994年第3期.

5.「遼寧開原境內的高句麗城址」(合作),『北方文物』, 1996年第7期.

6.「夫餘名義考釋」,『社會科學戰線』, 1996年第1期

7.「遼寧鐵岭市催陳堡山城調查」(合作),『考古』, 1996年第7期.

8.「唐安東都護府延津州治考略」,『遼海文物學刊』, 1997年第1期.

9.「"紇升骨"詞義發微」,『博物館研究』, 1998年第1期

10.「高離族源試探」,『內蒙古社會科學』, 1998年第4期.

11.「東夫餘及相關問題的初步探索」,『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12.「遼寧鐵岭張樓子山城調查」(合作),『北方文物』, 2001年第2期.

13.「高句麗夫餘城考」,『遼寧長成』(四), 2001年.

14.「涉及鐵岭境內高句麗山城的几個問題」,『東北歷史地理論叢』, 2003年.

15.「從紇升骨至國內城:人地關系的歷史思考」,『東北史地』, 2004年第6期.

16.「遼寧開原建材村所出土銅刀銘文涵義考」,『北方文物』, 2005年第1期.

116. 증헌주(曾憲姝)

증헌주, 여, 한족, 1951년 6월 길림성 통화시 출생. 1972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해룡사범학교(海龍師範學校) 부교장, 통화사범학원 역사학부 당지부(黨總支) 서기 및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中國學者高句麗文獻敍錄』, 吉林人民出版社, 1998年1月.

2.『高句麗的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4月.

b. 주요 논문

1.「試評高句麗太祖王」,『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2.「高句麗好太王時期的擴張活動」,『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3.「高句麗諸王血統考略」(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2期.

117. 지용(遲勇)

지용, 남, 한족, 1955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1991년 길림대학 고고학과 고고연구반을 졸업하고 현재는 집안시박물관 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輝南縣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1986年.

b. 주요 논문

1.「在東方金字塔上」(合作),『文物天地』, 1984年第6期.

2.「集安渾江流域新石器時代遺址調查」(合作),『博物館研究』, 1985年第1期

3.「高句麗封土墓的保護與管理」,『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4.「集安東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高句麗研究文集』, 吉林大學出版社, 1993年7月.

5.「高句麗都城的戰略防禦系統」,『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6.「高句麗兵器研究」(合作),『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年7月.

7.「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合作),『東北史地』, 2004年第4期.

8.「鴨綠江上遊右岸考古調查」(合作),『東北史地』, 2004年第5期.

118. 진대위(陳大爲)

진대위(1928~2002), 남, 한족, 요녕성 환인현 출생.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고구려 역사와 고고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考古』, 1960年第1期.

2.「桓仁高句麗積石墓的外形與內部結構」,『遼寧文物』, 1981年2期.

3.「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 年代及其演變」,『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年.

4.「淸原縣英額門山城子調查記」,『遼寧文物』, 1982年第3期.

5.「遼寧高句麗山城初探」,『中國考古學會第5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年.

6.「遼寧境內高句麗遺跡」,『遼海文物學刊』, 1989年第1期.

7.「撫順高爾山山城結構布局辨析」,『遼海文物學刊』, 1992年第2期.

8.「遼陽岩州城山城」,『遼海文物學刊』, 1995年第1期.

9.「遼寧高句麗山城再探」,『北方文物』, 1995年第3期.

119. 진상위(陳相偉)

진상위, 남, 한족, 1938년 하남성 출생. 1960년 서북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길림성 박물관고고대 대장,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고고부 주임 및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吉林輯安高句麗南道和北道上的關隘和城堡)」,『考古』, 1964年第2期.

2.「吉林輯安渾江中流的三處新石器時代遺址」,『考古』, 1965年第1期.

3.「集安長川1號壁畫墓」,『東北考古與歷史』, 1982年第1期.

4.「吉林集安長川2號封土墓發掘紀要」,『考古與文物』, 1983年第1期.

5.「吉林省考古歷史述要」,『東北地方史研究』, 1985年第2期.

6.「不盡的思念－追憶方起東同志」(合作),『東北史地』, 2005年第5期.

120. 진승양(秦升陽)

진승양, 남, 한족, 1963년 11월 길림성 회남현(輝南縣) 출생. 1984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통화사범학원 역사지리학부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合編), 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 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9年6月.

2.『中國學者的渤海史研究文獻目錄』(合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

3.『高句麗歷史知識問答』(合編), 吉林人民出版社, 2003年4月.

b. 주요 논문

1.「唐對高句麗的政策及其演變」,『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高句麗名相－乙豆智, 明臨答夫」,『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6月.

3.「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概述」(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3期.

4.「高句麗法律, 司法及其特點」(合作),『通化師院學報』, 1998年第4期.

5.「高句麗的軍事擴張與疆域」(合作),『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1999年6月.

6.「高句麗王位繼統法考略」,『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7.「隋唐君臣對高句麗歸屬問題的認識」,『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8.「高句麗的軍事擴張及其疆域變遷」,『通化師院學報』, 2003年第1期.

9.「高句麗人口問題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第4期.

10.「高句麗王城, 王陵及貴族墓葬」,『東北史地』, 2004年第7期.

11.「高句麗的自然宗教信仰活動及俗制的解析」(合作),『東北史地』, 2005年第1期.

12.「高句麗法律問題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2005年第3期.

121. 진유국(秦維國)

진유국, 남, 한족, 1949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일찍이 집안시 심계국(審計局) 과원(科員), 백산시(白山市) 문관회(文管會) 간부를 역임하였다. 중국호태왕비서예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好太王碑書帖』, 韓國梨花文化出版社, 2001年10月.

b. 주요 논문

1.「"關東第一石"上的珍貴歷史和書法」, 新加坡『聯合早報』, 1991年4月26日.

2.「好太王碑及其書法一書」, 菲律賓『商報』, 1991年9月25日.

3.「好太王碑書法淺談」,『企業文化報』, 1992年6月25日

4.「好太王碑碑文」(手書),『好太王碑』, 吉林文史出版社, 2004年12月.

122. 총문준(叢文俊)

총문준, 남, 한족, 본적은 산동 문등(文登). 1949년 1월 길림성 길림시에서 출생하여 1981년에 길림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다. 1984년 남경대학 중문학과에서 한어문자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길림대학 고적연구소(古籍研究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길림대학 고적연구소 역사문헌학 전공 및 문화와 예술 연구소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서법가협회 학술위원회 부주임, 길림성 서법가협회 부주석을 겸직하고 있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簡談好太王碑字體」(合作),『博物館研究』, 1986年第1期.

2.「關于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韓國『高句麗研究』, 第4輯.

3.「〈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中國書法』, 2003年第9期.

4.「好太王碑書法及相關問題略論)」,『東北史地』, 2004年第1期.

123. 최옥관(崔玉寬)

최옥관, 남, 요녕성 봉성시(鳳城市) 문화관리소 소장, 부연구관원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鳳凰山古城」,『丹東史志』, 1986年第1期.

2.「烏骨山城」,『丹東史志』, 1986年第1期.

3.「鳳凰山山城調查簡報」,『遼海文物學刊』, 1994年第2期.

4.「烏骨城考」,『高句麗渤海研究集成』(1), 哈爾濱出版社, 1997年.

124. 축립업(祝立業)

축립업, 남, 한족, 1977년 길림성 백산시(白山市) 출생. 2000년 길림대학 고고학 학부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소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論南北朝時期高句麗王國的內外政策」,『社會科學戰線』, 2003年第2期.

2.「高句麗長壽王評傳」,『博物館研究』, 2003年第4期.

3.「簡論唐麗戰爭中的唐羅同盟與麗濟同盟」,『東北史地』, 2004年第4期.

4.「論南北朝時期高句麗王國的內外政策」,『中國東北邊疆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年8月.

5.「從"王國五部化"走向"五部一體化"的發展歷程－兼論高句麗王權與部權的消長」,『東北史地』, 2005年第5期.

125. 풍영겸(馮永謙)

풍영겸, 남 1935년 출생. 1954년 동북지역 고고학 연수반(培訓班)을 졸업하였다. 일찍이 요녕성 문물고

고학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東北歷史地理』(2)(合著),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年.

2.『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

3.『東北考古研究』(1), 中州古籍出版社, 1994年.

4.『中國考古集成 · 東北卷』(合著), 北京出版社, 1995年.

b. 주요 논문

1.「東北古代長成考辨」,『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出版社, 1991年.

2.「丹東虎山高句麗遺址」,『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92年.

3.「高句麗泊汋城址發現與考證」,『北方史地研究』, 1997年.

4.「高句麗千里長城建置辨」,『社會科學戰線』, 2002年第1期.

5.「高句麗國內城定點與建城時間論辯－兼考尉那岩城, 丸都城, 平壤城與黃城諸城址」(合作),『哈爾濱社會科學』, 2004年第2期.

126. 하명(何明)

하명(何明), 남, 한족, 1947년 7월생. 1975년 북경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였고 현재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集安市高句麗國內城馬面基址」,『中國考古學年鑒』, 1992年, 文物出版社.

2.「集安麻線安子溝高句麗墓葬調查與淸理」(合作),『北方文物』, 2002年第2期.

3.「吉林集安高句麗國內城馬面址淸理簡報」(合作),『北方文物』, 2003年第3期.

127. 한승(韓昇)

한승, 남, 복건성 복주(福州) 출생. 현재 하문대학(厦門大學) 역사학부 교수로서 역사학 박사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논문

1.「唐朝對高句麗政策的形成」,『東北亞研究』, 1995年第2期.

2.「〈魏伐百濟〉與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系」,『歷史研究』, 1995年第3期.

3.「隋煬帝伐高句麗之謎」,『漳州師院學報』, 1996年第1期.

128. 한충부(韓忠富)

한충부, 남, 1965년 요녕성 개현(蓋縣) 출생. 현재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소 부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문학자이다.

학술성과

a. 편집 저서

1.『三國史記』(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2.『三國遺事』(校勘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3.『高句麗知識讀本』, 吉林文史出版社, 2003年.

b. 주요 논문

1.「國內高句麗歸屬問題研究綜述」,『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2000年1月.

2.「國內高句麗歸屬問題研究綜述」,『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年12月.

3.「國內高句麗歸屬問題研究綜述」,『社會科學戰線』, 2001年第5期.

129. 황빈(黃斌)

황빈, 남, 1954년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에서 출생. 1972년 군대에 입대하였고 현재는 요원시(遼源市) 인민무장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高句麗史話』(合著), 遠方出版社, 1997年.

2.『渤海史話』(合著), 遠方出版社, 1997年.

b. 주요 논문

1.「淺談高句麗的戰略防禦配系和基本戰法」(合著),『黑土地的古代文明』, 2000年1月.

130. 황갑원(黃甲元)

황갑원(1935~2005), 남, 한족. 1960년 동북사업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일찍이 통화시위 선전부 간부(幹部), 통화사범대학 정치역사학부 부주임, 역사학부 주임을 역임하였다. 길림성 역사학회 상무이사, 길림성 노동모범이다.

학술성과

a. 주요 단행본

1.『長白山開發史稿』,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2.『〈長白彙征錄〉校注』, 吉林文史出版社, 1996年.

b. 주요 논문

1.「兩封皇后一封太后的高句麗于氏」,『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2.「高句麗長壽王高璉傳略」(合作),『通化師院學報』, 1996年第1期.

3.「高句麗東川王位宮評傳」(合作),『通化師院學報』, 1997年第2期.

4.「高句麗王狩獵考」(合作),『高句麗曆史與文化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7年.

5.「高句麗的東北史上的地位」(合作),『通化師院學報』, 2002年第6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한·중 역사문제 관련 중국측 연구기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관련 연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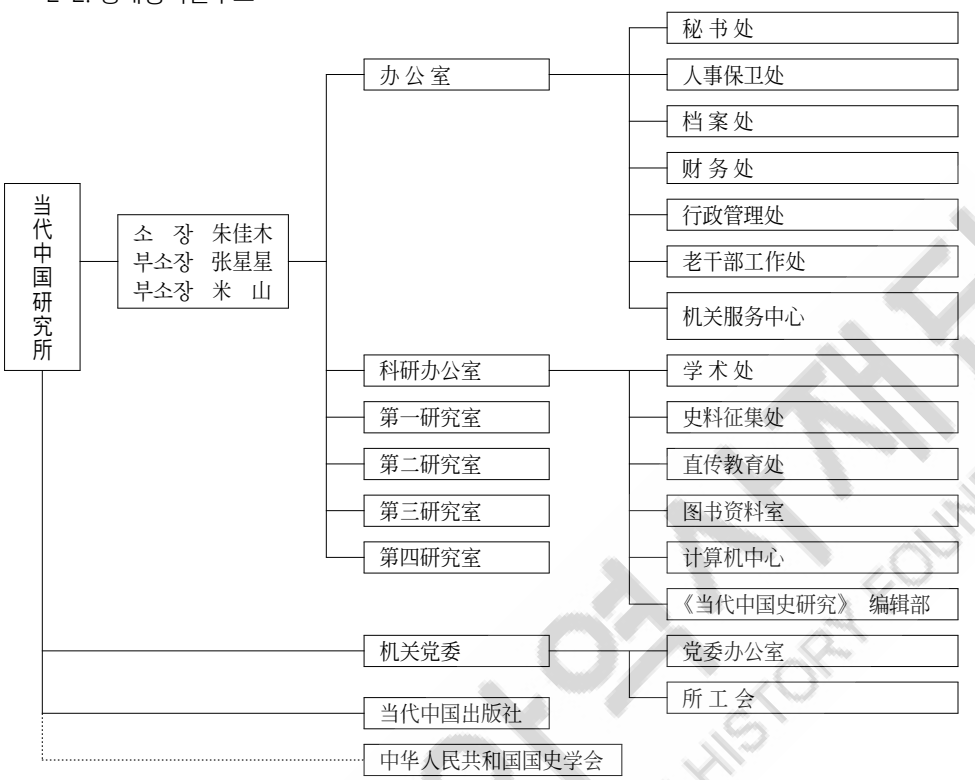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중 앙 연 구 기 관		
中国社会科学院	010－85195999	北京建国门内大街5号(100732)
当代中国研究所	010－66187359	北京西城区地安门西大街旌勇里8号(100009)
中国国家文物局	010－59881572	北京朝阳门北大街10号(100020)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010－66096114	北京西单大木仓胡同37号(100816)
中国社会科学院 考古研究所	010－85115250	北京东城区王府井大街27号(100710)
中国社会科学院 近代史研究所	010－65255400	北京王府井大街东厂胡同1号(100006)
中国社会科学院 民族学与人类学研究所	010－68932934	北京市海淀区中关村南大街27号6号楼(100081)
中国社会科学院 边疆史地研究中心	010－65275966	北京王府井大街东厂胡同1号(100006)
中国社会科学院 历史研究所	010－85195807	北京建国门内大街5号(100732)
中国文化遗产研究院 (原 中国文物研究所)	010－84642221	北京市朝阳区北四环东路高原街2号(100029)
동 북 삼 성 (辽宁, 吉林, 黑龙江)의 연 구 기 관		
辽宁社会科学院	024－86122143	辽宁省沈阳市皇姑区泰山路86号(110031)
辽宁省档案馆	024－23228910	辽宁省沈阳市皇姑区北陵大街45-11号(北院) 辽宁省沈阳市和平南大街45号(南院) (110032)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024－22825857	辽宁省沈阳市九纬路19号甲(110003)
辽宁师范大学	0411 -84258277	辽宁省大连市黄河路850号(116029)
辽宁大学	024－62202013	辽宁省沈阳市皇姑区崇山中路66号(110036)
吉林省档案馆	0431-8490660	吉林省长春市新发路577号(130051)
吉林省社会科学院	0431-84638323	吉林省长春市自由大路5399号(130033)
吉林省社会科学院 吉林省高句丽研究中心	0431-84638360	吉林省长春市自由大路5399号(130033)
吉林省社会科学院 吉林省东北亚研究中心		吉林省长春市自由大路5399号(130033)
吉林省文化厅	0431－5655654	吉林省长春市建设街2779号(130021)
吉林省文物局	0431－5654372	吉林省长春市建设街2779号(130021)
吉林市长白山文化研究会	0432－2451117	吉林省吉林市吉林大街169号(13200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0431 - 2866771	吉林省长春市光复北路3号(130051)
北华大学东亚历史与文化研究中心	0432 - 4602765	吉林省吉林市华山路3999号(132013)
东北师大 东北工作站	0431 - 5684088	吉林省长春市人民大街5268号(130024)
东北师大 东北民族与疆域研究中心	0431 - 5269418	吉林省长春市人民大街5268号(130024)
延边大 东北亚研究院	0433 - 2732173	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133002)
延边大 朝鲜-韩国研究中心	0433 - 2732181	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133002)
延边大 东北边疆地区国情研究基地	0433 - 2732198	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133002)
吉林大学 边疆考古研究中心	0431 - 85166321	吉林省长春市林园路1788号(130012)
吉林大学 东北亚研究中心	0431 - 5166393	吉林省长春市林园路1788号(130012)
通化师范学院 高句丽研究院 (2006년1월까지 고구려연구소)	0435 - 3208019	吉林省通化市通音才路950号(134002)
通化师范学院 长白山文化研究院 (2006년1월 설립)	0439 - 3225862	吉林省白山市浑江大街152号
黑龙江省文化厅	0451-82640490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中山路197号(150001)
黑龙江省社会科学院	0451-86497731	黑龙江省哈尔滨市道里区友谊路501号(150018)
黑龙江省档案馆	0451-53642933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花园等204号(150001)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	0451 - 2729832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宣德街44号(150008)
哈尔滨师范大学	0451-88067222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和兴路50号(150080)
黑龙江大学	0451-86608661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学府路74号(150080)
牡丹江师范学院	0453-6511248	黑龙江省牡丹江市中兴路19号(157012)
기타 연구기관		
北京大学 社会学人类学研究所	010 - 62751249	北京市海淀区北京大学社会学人类学研究所(100871)
北京大学 中国古代史研究中心	010 - 62751656	北京市海淀区北京大学 朗润园西所(100871)
山东大学 东方考古研究中心	0531 - 8366149	山东省济南市山大南路27号(250100)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010 - 82503408	北京市海淀区中关村甲59号文化大厦(100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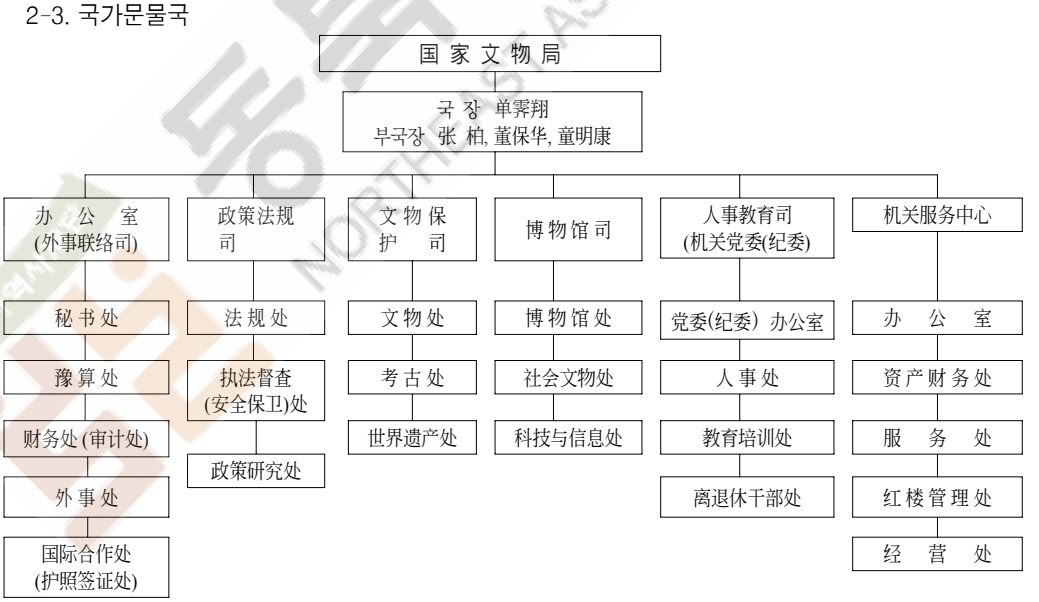
2) 대표적 연구기관의 조직도

2-1. 중국사회과학원

2-2. 당대중국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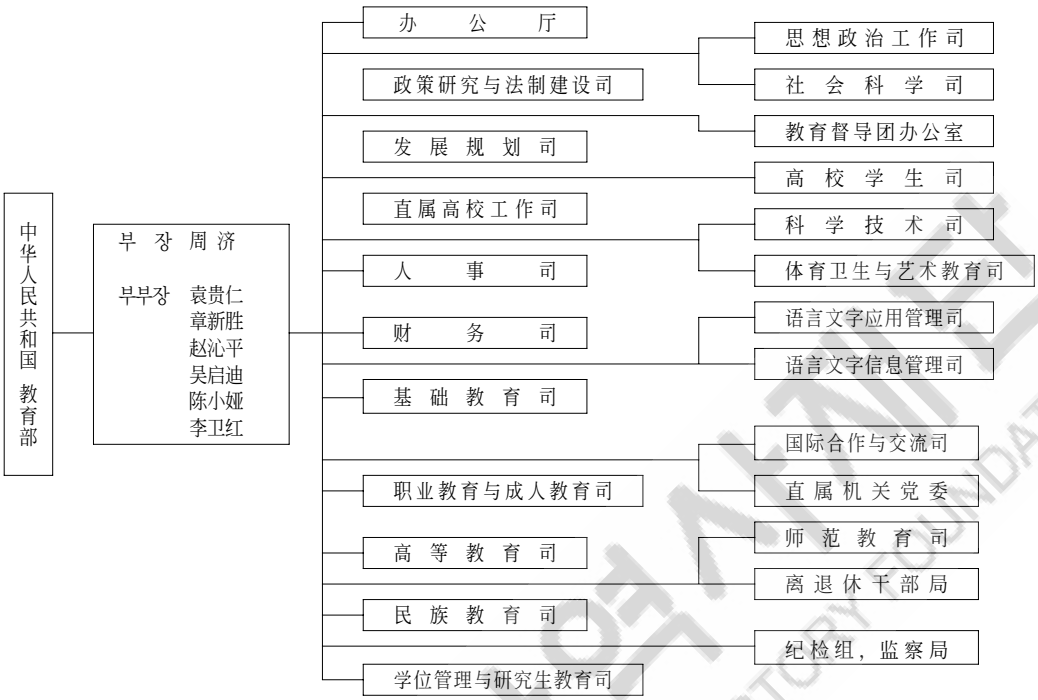


2-3. 국가문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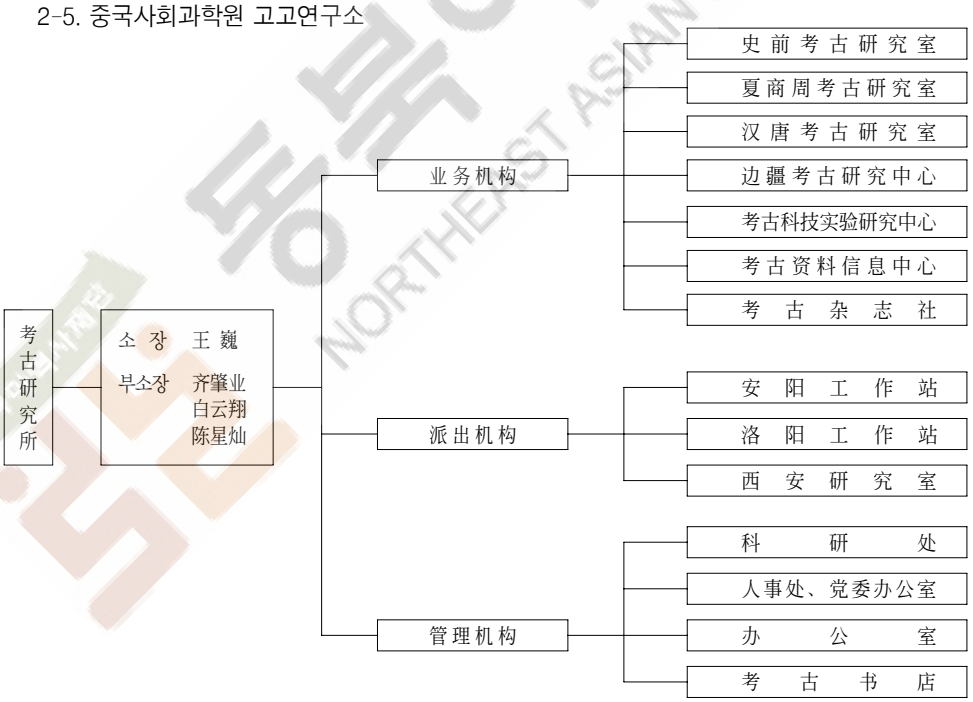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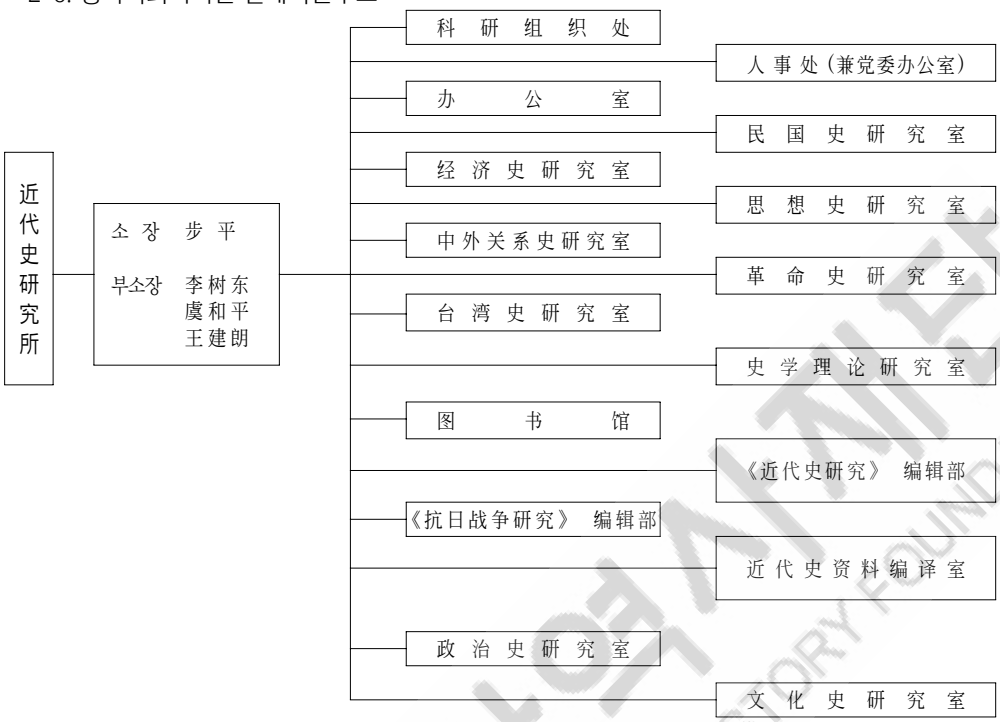
2-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2-5.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6.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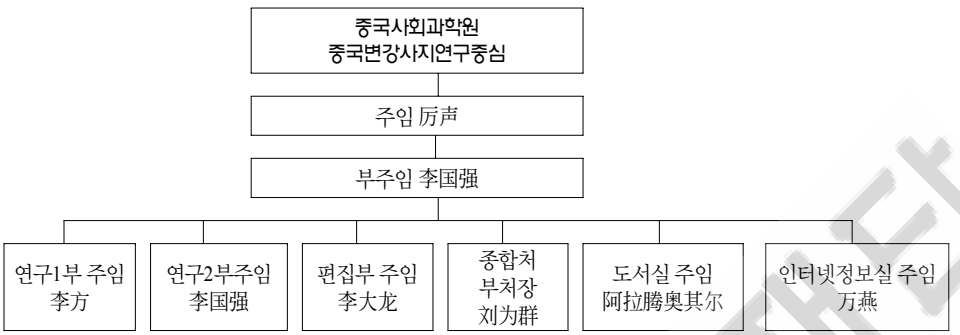


2-7.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여인류학연구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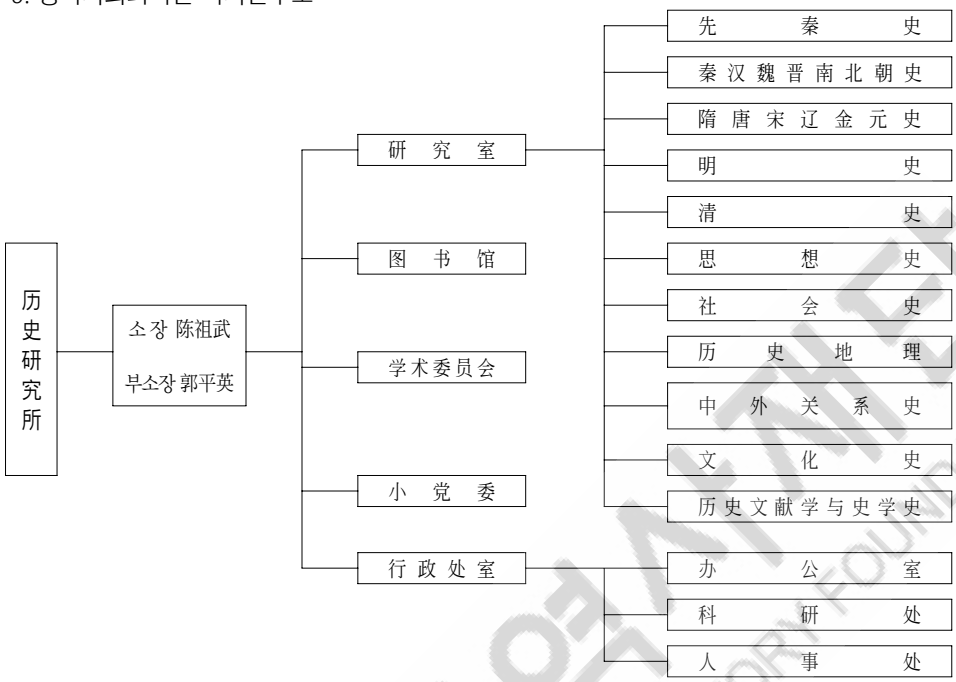
2-8.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인적 구성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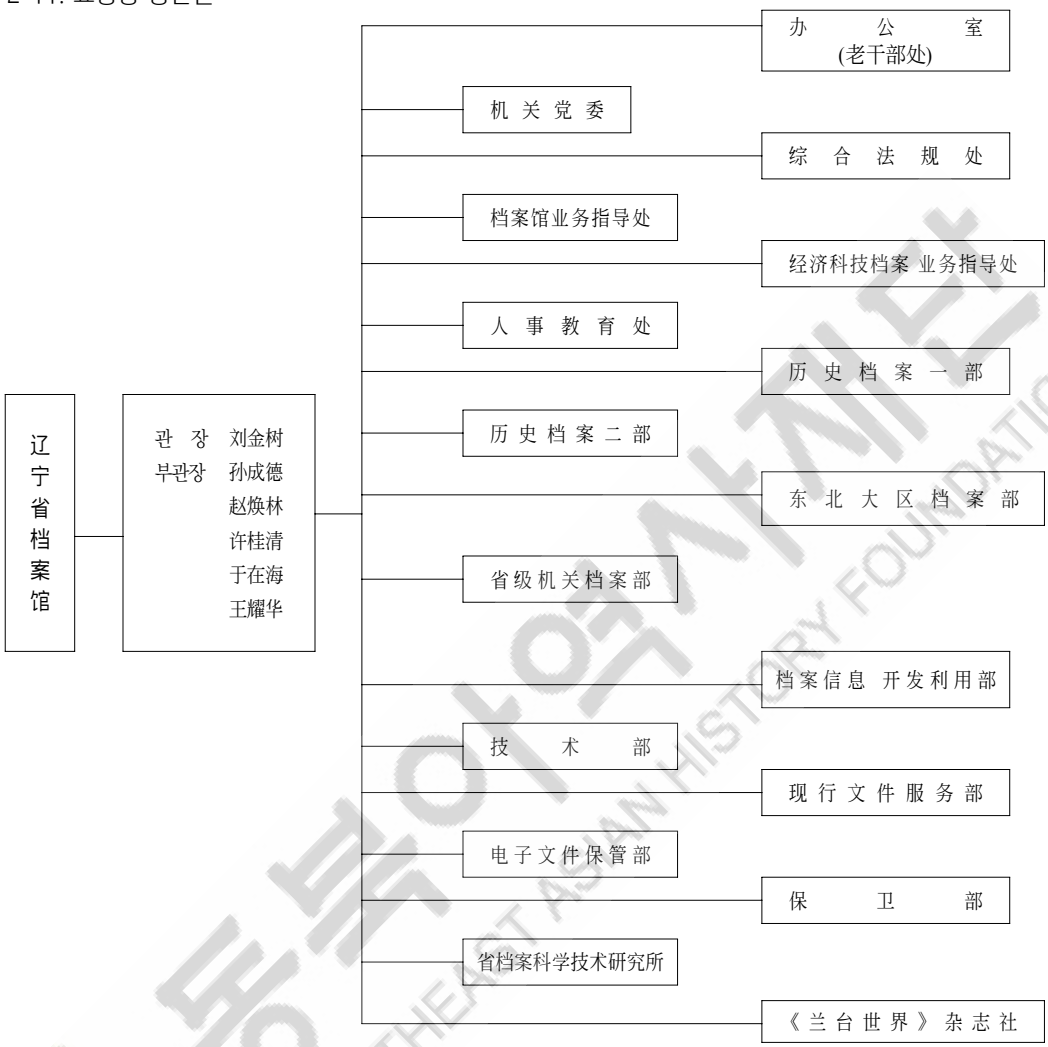
변강사지연구중심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 주 임 : 厉声 부주임 : 李国强 학술위원회 위원 : 马大正, 李方, 李大龙, 步平(中国社会科学院 近代史所 부소장, 연구원), 成崇德(中国人民大学 清史研究所 소장, 교수)
1. 고문: 李铁映(당 정치국원, 전 中国社会科学院 원장, 1936년생) / 项怀诚(당 중앙위원, 전 재정부장) 2. 영도소조 - 조 장: 王洛林(당 중앙위원, 中国社会科学院 부원장) - 부조장: 杨光洪(黑龙江省 당부서기, 1943년생), 全哲洙(吉林省 前 부성장, 1944년생), 赵新良(辽宁省 전 부성장, 1944년생), 马大正(中国社会科学院 边疆史地研究中心 연구원) - 비서장: 厉声(中国社会科学院 边疆史地研究中心 주임, 연구원, 1949년생) 3. 전문가위원회 (비상설기구) - 주 임: 马大正(지도소조 조장 겸직) - 부주임: 秦其明(中国社会科学院 판공실 주임, 연구원), 厉声(지도소조 비서장 겸직) - 위 원: 李传勋(黑龙江大学 러시아 연구소 소장), 魏存成(吉林大学 文学院 동북변강사와 강역 연구중심 소장, 1945년생), 胡玉海(辽宁大学 历史学系 주임, 1949년생), 成崇德(中国人民大学 清史研究所 소장, 교수), 王正(中国社会科学院 학술비서/부국장급, 연구원, 1949년생), 郝时远(中国社会科学院 民族研究所 소장, 연구원), 王巍(中国社会科学院 考古研究所 부소장, 연구원), 于沛(中国社会科学院 世界史研究所 소장, 연구원), 潘春良(黑龙江省 宣传部 부국장), 步平(黑龙江省 社会科学院 부원장, 연구원), 弓克(黑龙江省 宣传部 부부장), 邴正(吉林省 社会科学院 원장, 연구원, 1957년생), 常卫国(辽宁省 宣传部 부부장), 赵子祥(辽宁省 社会科学院 원장, 연구원, 1946년생), 刘厚生(中国边疆历史와 社会研究 东北工作站 참장, 교수, 1941년생) 4.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 马大正, 厉声, 秦其明, 王正 5. 전문가 위원회 번역 소조 - 한국어: 张英(吉林省 朝鲜半岛研究所, 전 吉林省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孙启林 (东北师范大学 교수, 한국어) - 러시아어: 宿丰林(黑龙江省 社会科学院), 王复士((辽宁省 社会科学院) 6. 전문가 위원회 당안 소조: 厉声 吴元丰(第一历史档案馆 满洲部 주임), 赵焕林(辽宁省 档案局 국장 겸 辽宁省 档案馆 부관장), 张志强(吉林省 档案局 历史档案处 처장), 梁尔东(黑龙江省 档案局 编研处 처장)

2-9.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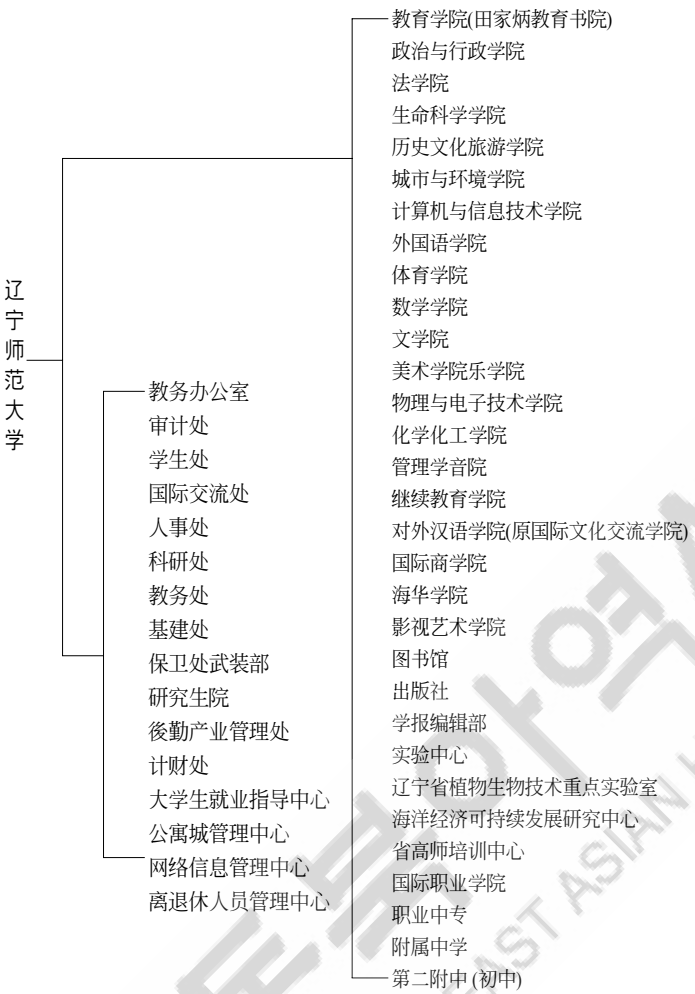
2-10. 요녕사회과학원

2-11. 요녕성 당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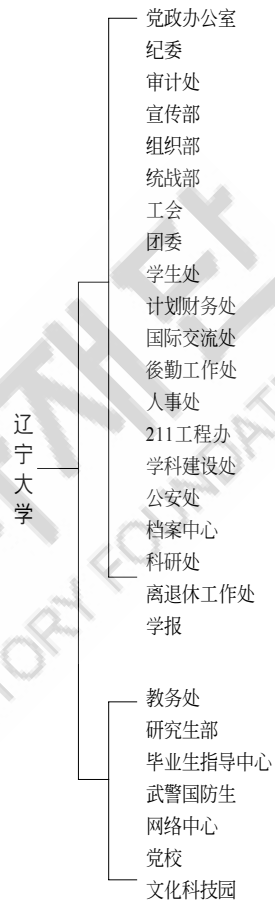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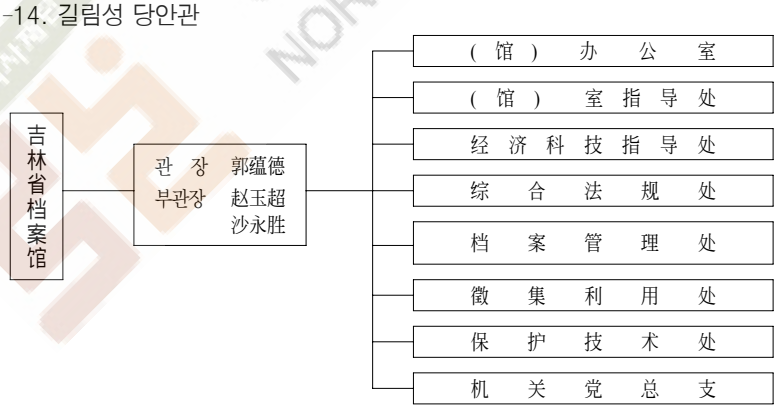
2-12. 요녕사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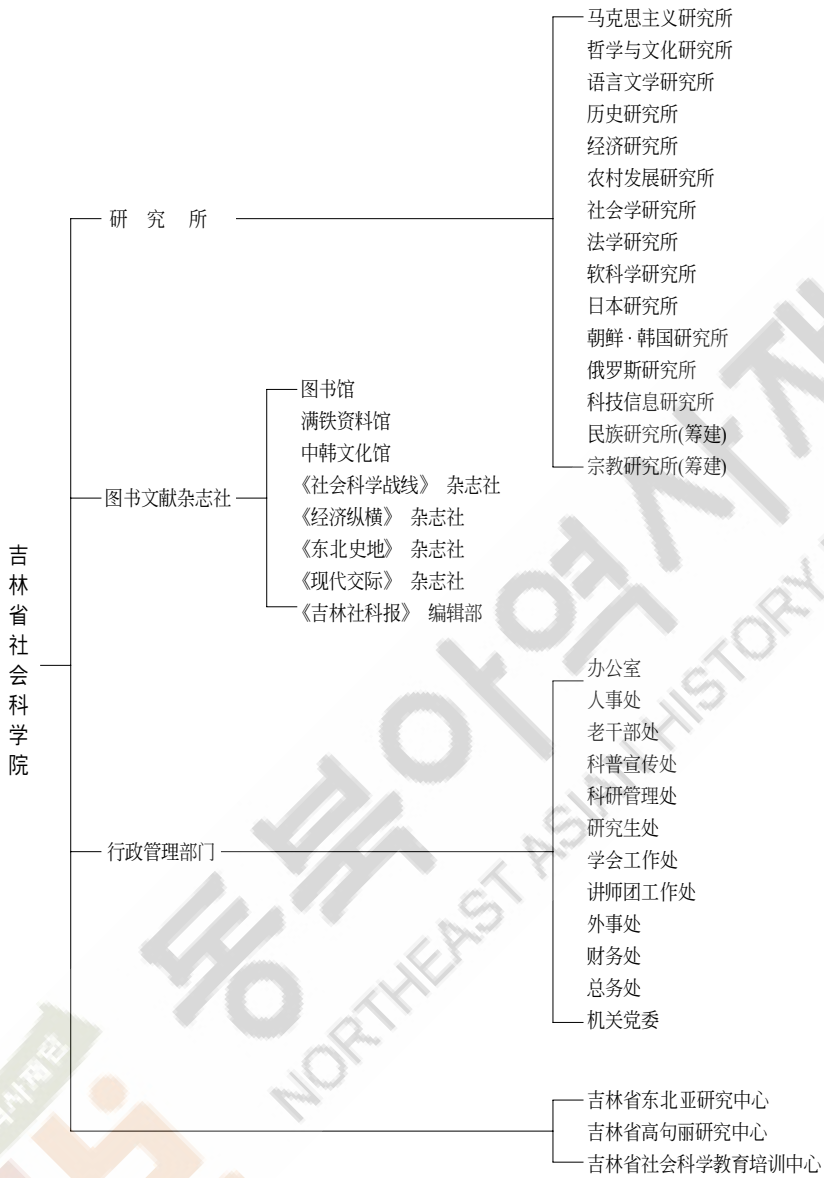
2-13. 요녕대학



2-14. 길림성 당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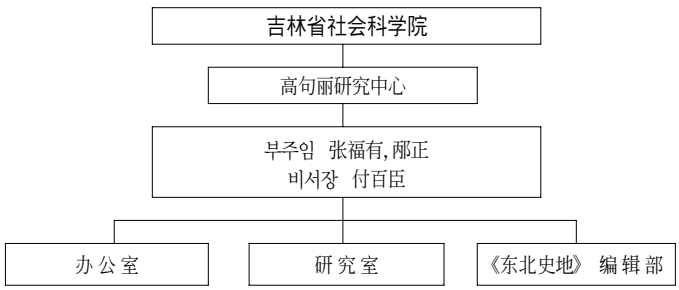


2-15. 길림성사회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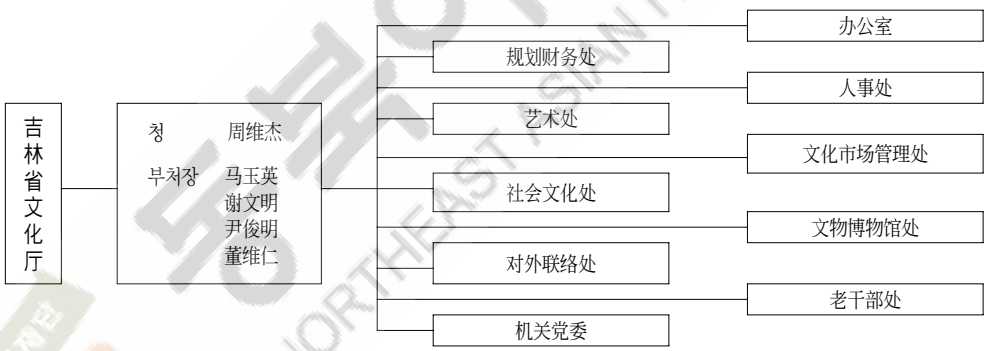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6. 길림성사회과학원 길림성고구려연구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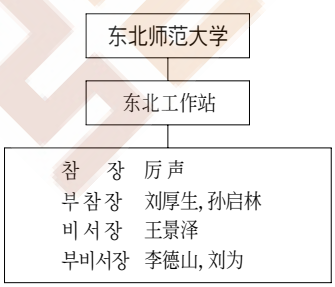


2-17. 길림성사회과학원 길림성동북아연구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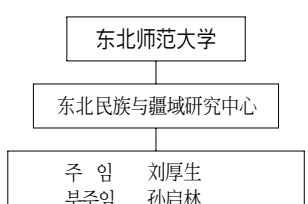
2-18. 길림성문화청



2-19. 동북사대 동북공작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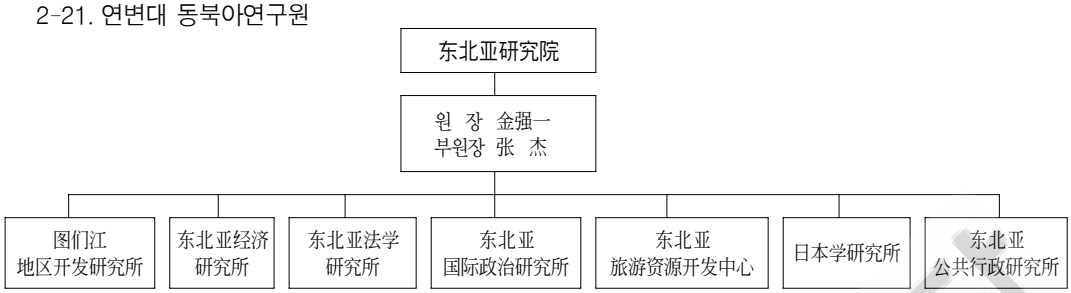


2-20. 동북사대 동북민족여강역연구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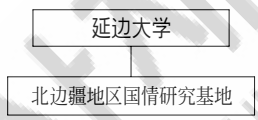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1.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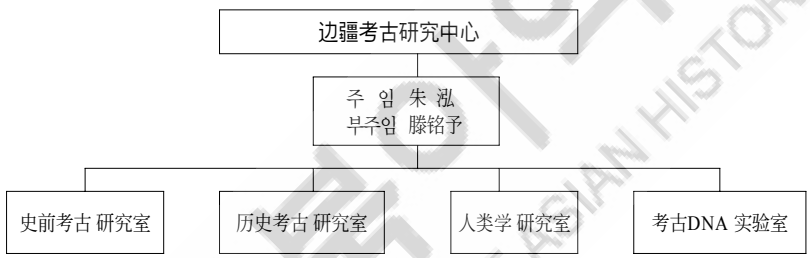


2-22.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중심

2-23. 연변대 동북변강지구국정연구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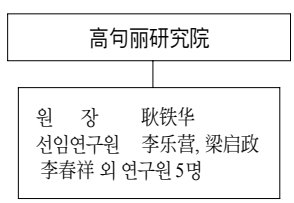


2-24. 길림대 변강고고연구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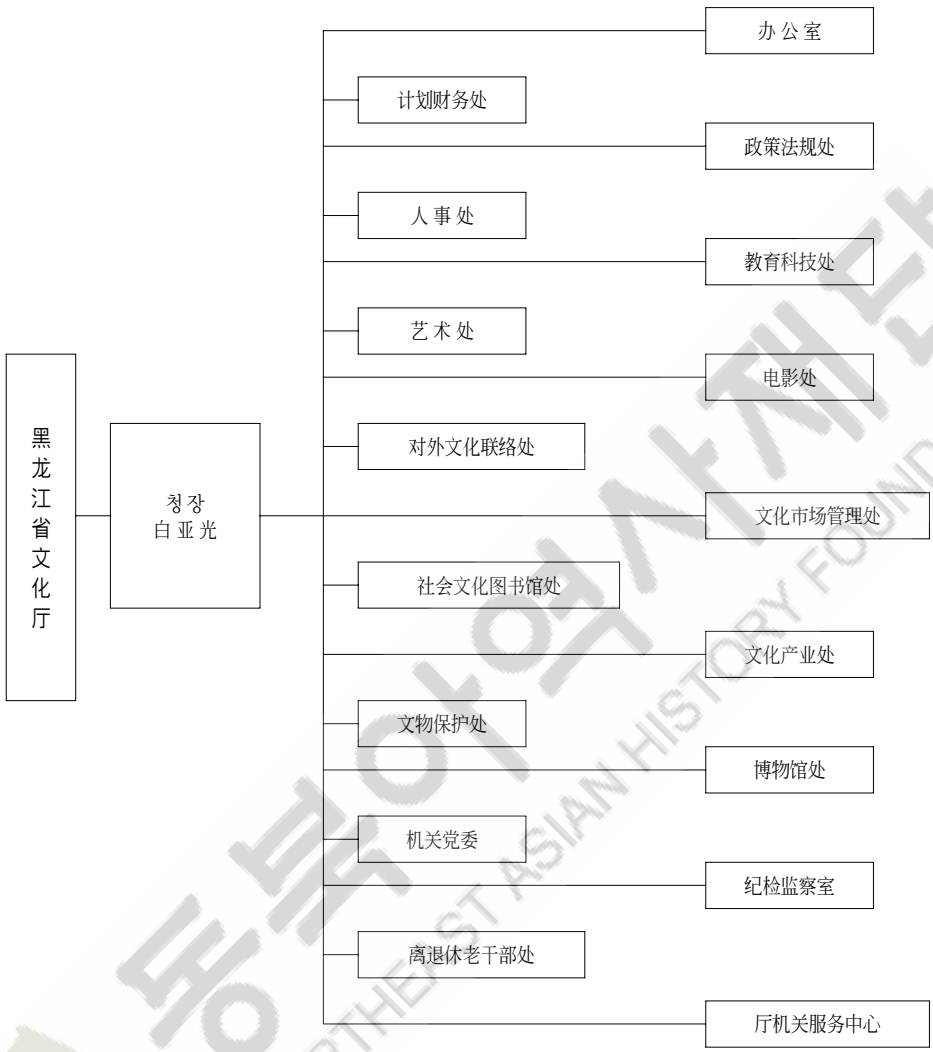
2-25. 길림대 동북아연구중심

2-26.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고구려사, 동북민족강역사 연구에서 2006년10월의 개편으로 발해사연구까지 연구영역 확장

2-27. 흑룡강성 문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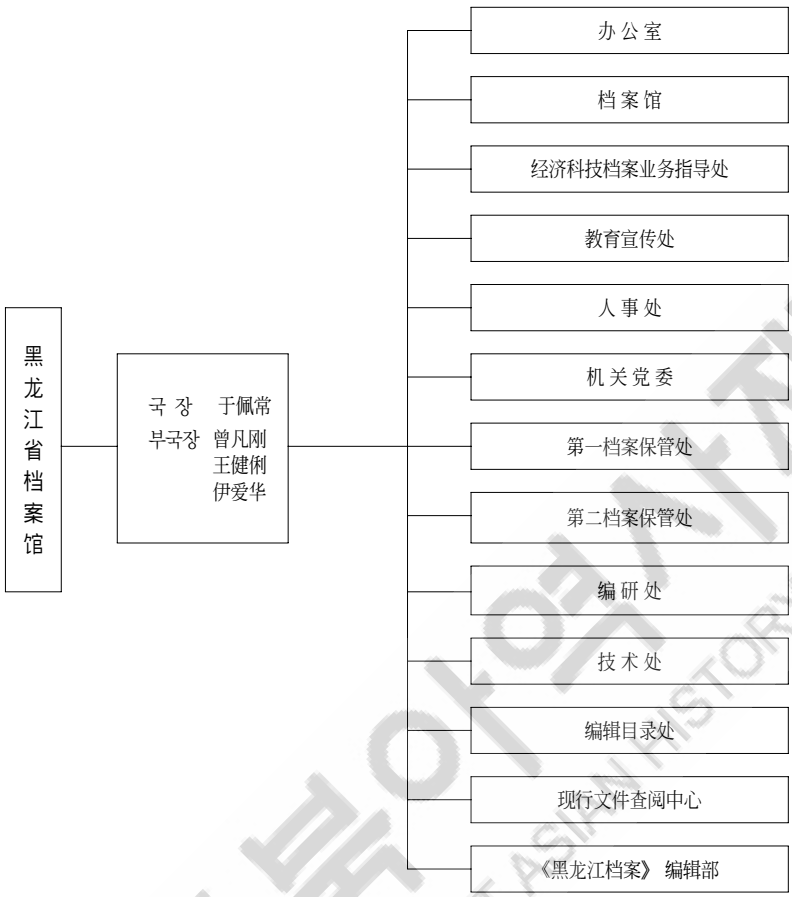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8.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9. 흑룡강성 당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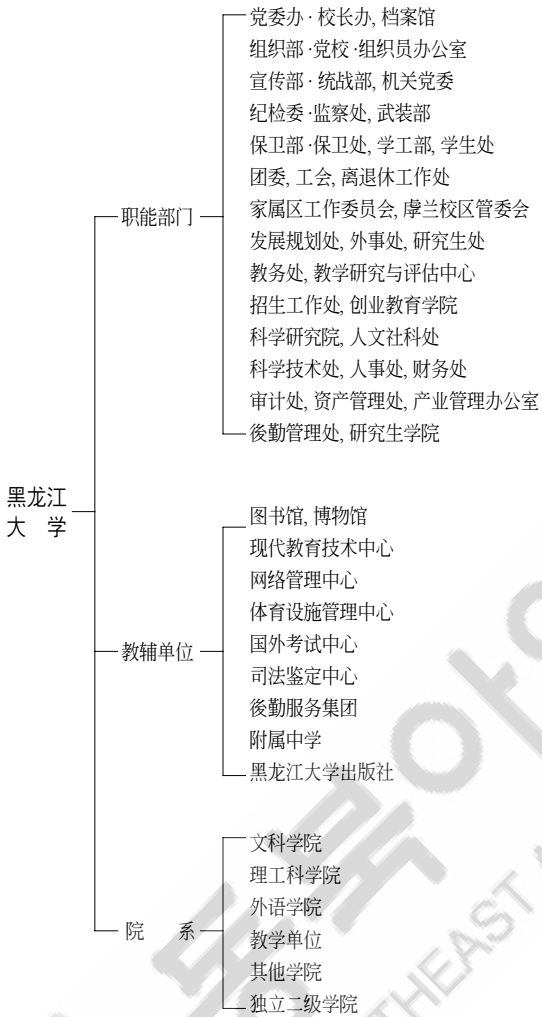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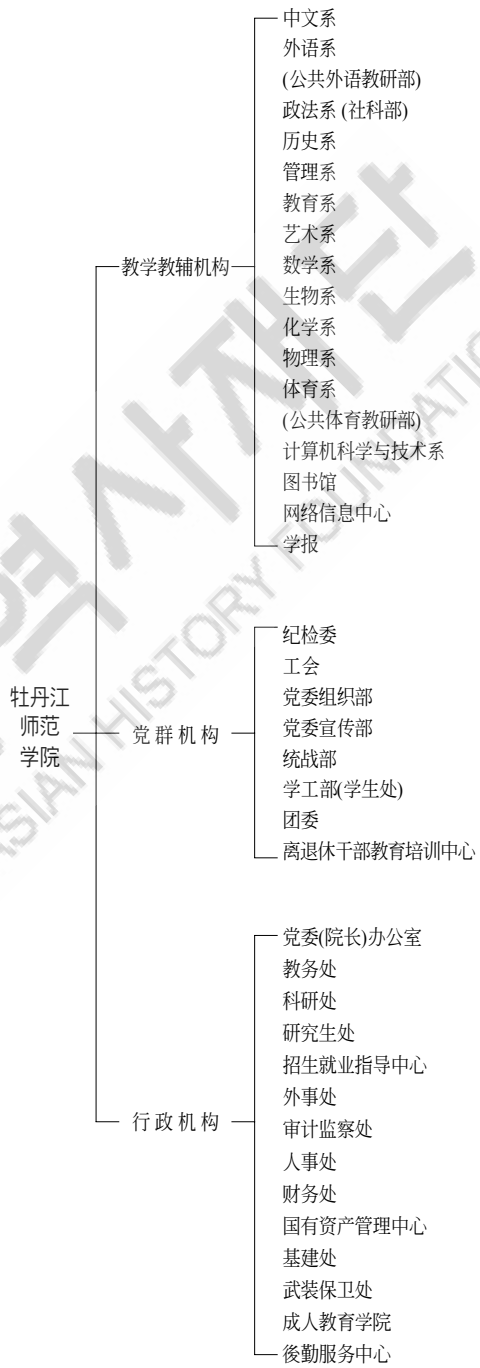
2-30. 하얼빈사범대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1. 흑룡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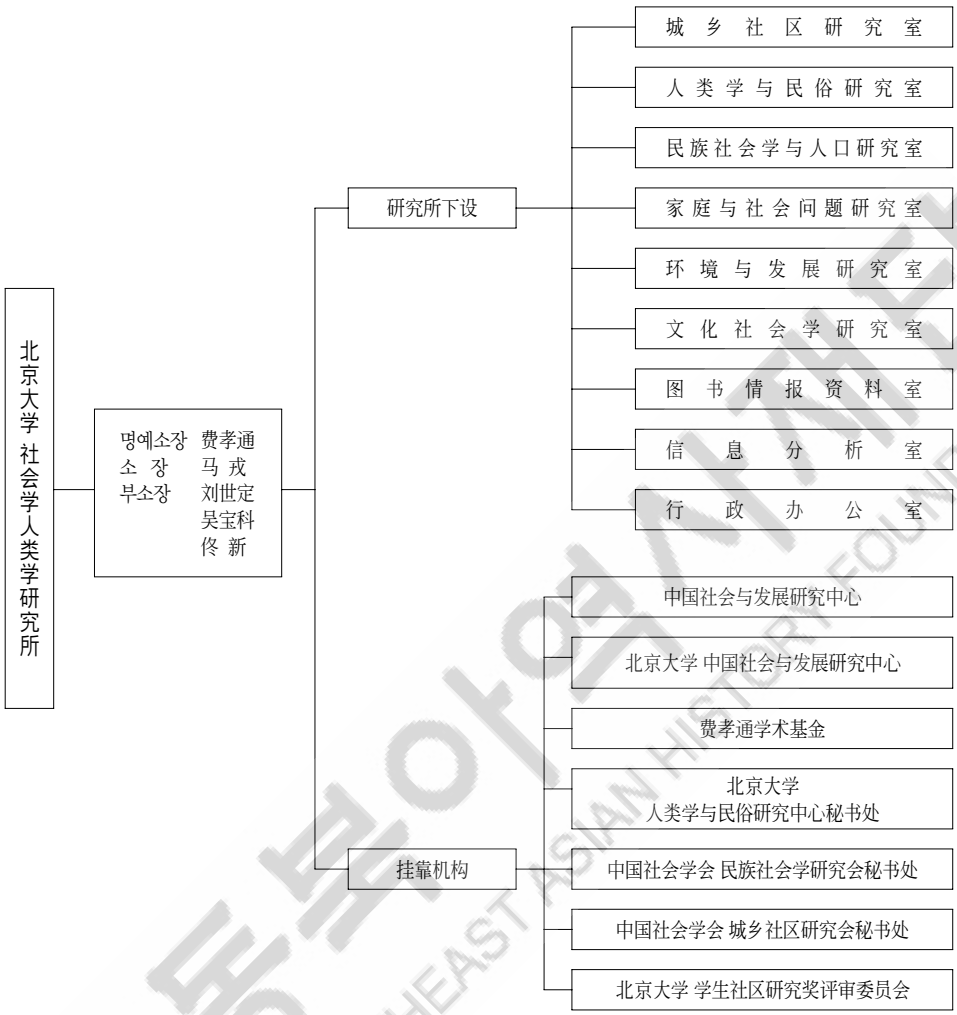


2-32. 모란강사범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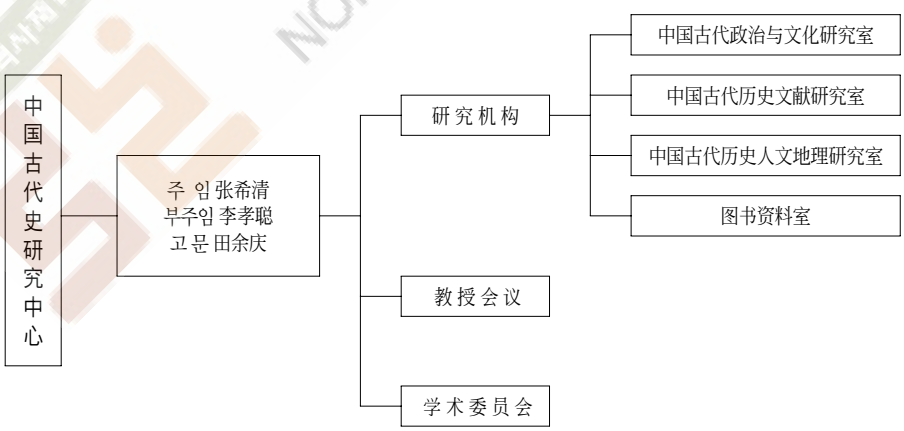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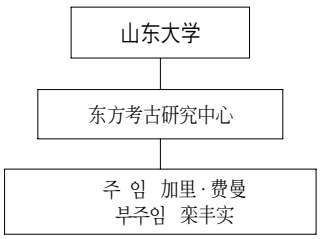
2-33. 북경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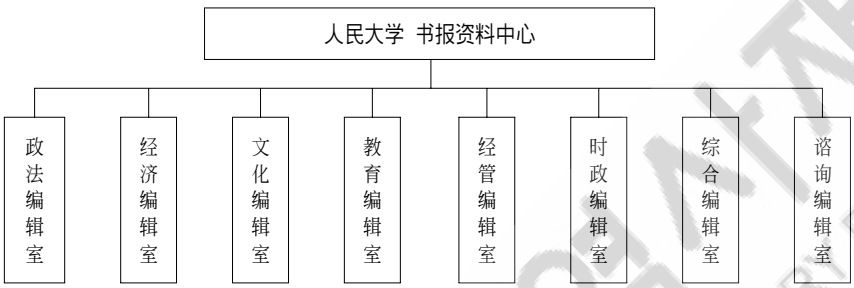
2-34. 북경대학 중국고대사연구중심



2-35. 산동대학 동방고고연구중심



2-36. 인민대학 서보자료중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관련 기관 웹사이트

	기관 및 학회 명	웹 사이트
1	중국사회과학원	http://www.cass.net.cn
2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대외관계사연구실	http://www.eurasianhistory.com
3	중국사회과학원 고대문명연구중심	http://www.kaogu.cn/cn/news2.asp?CategoryID=151
4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http://chinaborderland.cass.cn/
5	중국변강재선	http://www.chinaborderland.com/cn
6	대만중앙연구원	http://www.sinica.edu.tw
7	중국 국가도서관	http://www.nlc.gov.cn/GB/channel1/index.html
8	길림대학	http://www.jlu.edu.cn/newindex.html
9	길림대학동북아연구중심	http://nasc.jlu.edu.cn/keyanxiangmu_list.php
10	길림성 문화청	http://wht.jl.gov.cn/
11	길림성 문물국	http://www.sach.gov.cn/organ/organ_openinfo.asp?id=7
12	동북사범대학	http://www.nenu.edu.cn
13	복단대학역사학계	http://history.fudan.edu.cn
14	북경대학 도서관	http://www.lib.pku.edu.cn
15	북경사범대학	http://www.bnu.edu.cn
16	산동대학동방고고연구중심	http://www.arc.sdu.edu.cn/
17	산동대학국제합작여교류처	http://www.ipo.sdu.edu.cn
18	절강대학	http://www.zju.edu.cn/
19	연변대학	http://www.ybu.edu.cn/
20	요령대학역사문화학원	http://202.118.48.37/lndx_webM/academy_model/autumn/index.jsp?ximing=历史文化学院
21	흑룡강대학	www.hlju.edu.cn
22	香港중문대학중국문화연구소	http://translate.itsc.cuhk.edu.hk/gb/www.cuhk.edu.hk/ics/general/home.htm
23	변강고고연구중심	http://www.bjkg.com/index.asp
24	장성문화망	http://www.meet-greatwall.org/zhuanzhu/home.htm
25	요금사연구	http://sxr.jianwangzhan.com/cgi-bin/index.dll?index9?webid=jianwangzhan&userid=174606
26	中国史研究专业网站	http://xiangyata.net/history/
27	집안시 사이트	www.chinacsw.com/cszx/jian

28	집안시 관광사이트	http://www.jatravel.com/
29	환인현 사이트	http://www.huanren.com/
30	동북사범대학 역사연구중심	http://doh.nenu.edu.cn/yjs.htm
31	동북사범대학 중국변강지역역사사회연구	http://doh.nenu.edu.cn/yjjg/dbgzz/dbgzz.htm
32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여강역연구중심	http://doh.nenu.edu.cn/yjjg/dbyjzx/dbyjzx.htm
33	동북사범대학 고적정리연구소	http://web.nenu.edu.cn/gujs/index.htm
34	동북사범대학 중국동북연구원	http://city.nenu.edu.cn/overview/department/dbyj.htm
35	중국문화유산연구원 (2007년11월20일 "중국문물연구소"에서 "중국문화유산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http://www.cnicp.com.cn/
36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원 (2006년10월 "고구려연구소"에서 "고구려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http://web.thnu.edu.cn/kyc/gglyyy.asp (과거 "고구려여동북민족연구중심:은 http://web.thnu.edu.cn/kyc/gglydbyjzx.asp)
37	통화사범대학 장백산문화연구원 (2006년1월 설립)	http://web.thnu.edu.cn/kyc/cbswhyjy.asp

언론, internet

	기관 및 학회 명	웹 사이트
1	광명일보	http://www.gmw.cn
2	단동일보	http://www.ddrb.cn/
3	야후 중문판	http://cn.yahoo.com
4	연변일보	www.chinacity.net/zgcs/jilin/yanbian/yan21-50/yan40.htm
5	연변일보 한글	http://www.iybrb.com/
6	요녕일보	http://newspaper.lndaily.com.cn/lnrb/
7	인민일보 인터넷판	http://www.people.com.cn
8	중국청년보	http://zqb.cyol.com/
9	뉴스사이트 新浪网	http://news.sina.com.cn
10	통화일보	www.th.jl.gov.cn/thrbs
11	중국중요잡지목록 사이트	http://www.wst.net.cn/baokan/zazhi.html

기타

	기관 및 학회 명	웹 사이트
1	중국교육학회	cse.moe.edu.cn
2	중국법학회	http://www.chinalawsociety.org.cn/
3	중국지리학회	www.gsc.org.cn
4	중국철학학회	http://www.phil.pku.edu.cn/iscp/index.ht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태평양학회	www.psc.org.cn
6	중국인민외교학회	www.cpifa.org
7	汉文化论坛	http://www.han-people.com/bbs/Boards.asp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2005년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학술회의 …… 430
◎ 학술회의 일람표 …… 430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32

○ 연구 및 출간 …… 452
◎ 도서 …… 452
● 기타 도서 …… 453
◎ 논문 …… 455
● 일반논문 …… 455
● 학위논문 …… 462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463
◎ 신문 / 잡지 …… 463
● 신문 …… 463
● 잡지 …… 476
◎ 방송 …… 476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482
◎ 대중문화콘텐츠 …… 482
● 전시회 …… 482
● 이벤트 / 단신 …… 484
● 시민강좌 …… 486
◎ 네티즌의 반응 …… 4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월	일	제 목	주 제
1	19	2005년도 제6회 국제한국학연구소 정기콜로키엄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이해
2	17～18	제81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25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제2회 동북아 고대사 토론회	중국 출토 古代 韓人 관계 금석문 자료 소개
3	4	고구려연구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제3차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 비교-
	12	부산경남사학회 66회 월례발표회	
4	15	백산학회 학술회의	
	23	신라사학회 제39차 정기발표회	최치원의 발해관과 역사의식
	30	일본역사문화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5	14	한국근현대사학회 91회 월례발표회	
	20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춘계학술회의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
	21	부산경남사학회 제68회 월례발표회	'신묘년'명 청동방울과 광개토왕릉의 비전
	25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한국 근현대의 상고사담론과 민족주의
	27～28	2005년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을사조약과 20세기 초의 한반도
6	3	서울경기고고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동검과 묘제를 중심으로-
	3～4	고구려연구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	고구려와 백제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 문화의 형성 -고대를 중심으로-
	11	제85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6월 월례발표회	
	24	고구려연구재단 개원 1주년 기념 제4차 국내학술회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복원문제
7	15	강원발전연구원 학술대회	강원도와 고구려
8	4～5	제7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제문제
	17～18	2005 역사학회 하계 특별심포지움	광복60년 한국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24～25	2005년도 하계 일본사학회 워크	역사교육에 대한 국제적 전망
9	9	2005 서울역사학술대회	서울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16	한국사연구회 247차 연구발표회	高麗의 高句麗繼承에 대한 東北亞사람들의 이해
	23	한국고대학회 학술회의	2005년 상고사 토론회 -고조선사의 제문제-

월	일	제 목	주 제
	28	국사편찬위원회 국제학술회의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
	3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제145차 학술세미나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10	5	백제연구 초청강좌	東아시아와 倭 · 日本의 大臣外交
	7	한일문화교류기금 제73차 한일문화강좌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고대도시의 전개
	12	제17회 서울대학교 고고학 콜로퀴엄	알타이지역 파지릭문화 출토 미이라DNA 분석 연구
	1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2회 매산기념강좌	한국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14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14 ~ 15	제3회 지방사학회 공동학술대회	東西의 교류와 문화
	15	제86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21	한국상고사학회 제33회 학술발표대회	낙랑의 고고학
	27	백암학회 학술회의	백암 박은식선생 서거 80주년 추도식 및 백암 박은식 유업의 현대적 의의 학술회의
	28	한국간도학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영토문제
	29	간도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강연회	
	29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추계학술회의	고구려 미술문화의 재조명
11	3 ~ 5	제11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광개토태왕과 동아시아 세계
	10	성균관대박물관 ·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김석문
	17	제18회 서울대학교 고고학 콜로퀴엄	외국학계의 시선으로 본 고구려 문제
	18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0회 정기연구발표회	
	1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라인 장보고'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해양신앙과 해신 장보고
	19	신라사학회 제45차 정기발표회	중원고구려비의 연구사적 쟁점과 과제
	25	고려사학회 2005년 하반기 학술대회	8 ~ 10세기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25	역사문화학회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동아시아 도시의 역사와 문화' 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근대 도시와 타자의 거리
12	3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학술발표회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3	한국역사연구회 12월 연구발표회	6 ~ 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三國, 南北國의 대외관계
	3	강원고고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강원지역의 청동기문화
	10	제88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17	해상왕장보고연구회 워크샵	
	17	2005 고구려연구회 동계 학술대회	발해사의 재조명
	23	경기도박물관 학술강연회	'우리 곁의 고구려' 특별전 기념 학술강연회

◎ **월별 학술회의 내용**

▌1월 학술발표

▣ 2005년도 제6회 국제한국학연구소 정기콜로키엄

주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이해

일시: 2005년 1월 19일(수) 16:00～18:00

장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소회의실

발표자: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기획실장)

주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월 학술발표

▣ 제81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주제: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시: 2005년 2월 17일(목)～18일(금)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회의실

〈2월 17일〉

○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 13:20～13:50

개회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이문기(경북대)

기조강연: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의 특성

강연자: 서영대(인하대)

○ 제2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14:00～16:00 사회: 여호규(한국외대)

제1주제: 부여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제의

발표자: 윤성룡(국립중앙박물관)

토론자: 조법종(우석대)

제2주제: 백제의 건국신화와 제의

발표자: 박현숙(고려대)

토론자: 강종훈(대구가톨릭대)

○ 제3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16:10～18:10

제3주제: 신라의 건국신화와 제의

발표자: 나희라(울산대)

토론자: 김창석(강원대)

제4주제: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

발표자: 남재우(창원대)

토론자: 백승옥(함안박물관)

〈2월 18일〉

○ 제4부 종합토론 / 9:30～12:30

사회: 최광식(고려대)

참여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제2회 동북아고대사 토론회

주제: 중국 출토 古代 韓人 관계 금석문 자료 소개

일시: 2005. 2. 25(금) 15:00～17:0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중관 1층 회의실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발표자: 민경삼(백석대학 중국어과 교수)

▌3월 학술발표

▣ 고구려연구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제3차 국내학술회의

주제: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 한 · 중 · 일 3국의 근대사 인식 비교 –

일시: 2005년 3월 4일(금)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高句麗硏究財團

○ 제1부 사회: 장세윤(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10:10～10:50

한 · 중 · 일 3국의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공유방안

발표자: 김한종(교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정현(한신대학교 연구교수)

10:50～11:30

삼국의 근대화운동과 상호인식

발표자: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11:30～12:10

고교 역사교과서 『한국근 · 현대사』에서 근대의 '일상생활'기록 분석

발표자 : 마쓰모도 다케노리(松本武祝, 동경대 교수)

토론자: 김도형(연세대 교수)

○ 제2부 사회: 김성보(충북대학교 교수)

13:40～14:20
3국의 식민지 인식-수탈인가 개발인가?
발표자 : 신주백(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자: 배성준(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14:20～15:00
중국 항일전쟁사 연구의 이론과 통계수치에 관하여
발표자: 榮維木(중국사회과학원 副主編)
토론자: 김지훈(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15:20～16:00
일본의 右傾化 정세와 右翼 교과서 문제
발표자: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광열(광운대학교 교수)
16:20～17:40 종합토론
사회: 서중석(성균관대학교 교수)

▣ 부산경남사학회 66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5년 3월 12일(토) 1400-18:00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시습관(인문관 4층)
주최: 부산경남사학회
○ 제1부
○ 제2부 사회: 최덕경(부산대)
당대 이민족의 인식과 정책
발표자: 전영섭(울산대)
토론자: 백윤목(경성대)

▌4월 학술발표

▣ 백산학회 학술회의
일시: 2005. 4. 15.
장소: 국립중앙과학관(대전)
10:20～10:30
인사말씀: 김원식(중도일보사장)
10:30～11:00
제1주제: 고구려사의 민족사적 위상
발표자: 신형식(이화여대 명예교수)
11:00～11:30
제2주제: 충남일대의 고구려유적
발표자: 공석구(한밭대 교수)
11:30～12:00
평양성 안학궁 디지털복원(영상관람)
13:30～14:00
제3주제: 고구려 金泥如來立像의 특성
발표자: 정영호(단국대 박물관장)
14:00～14:30
제4주제: 고구려 평기와의 제작방법 고찰
발표자: 백종오(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사)
14:30～15:00
제5주제: 고구려 장안성의 규모와 특징
발표자: 田中俊明(일본 滋賀縣大 교수)
15:30～17:00 종합토론
좌 장: 최규성(상명대 박물관장)
토론자: 임기환(고구려재단 실장), 조법종(우석대 교수), 최맹식(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장), 심정보(한밭대 교수)

▣ 신라사학회 제39차 정기발표회
주제: 최치원의 발해관과 역사의식
일시: 2005년 4월 23일(토) 오후 3시～5시
장소: 마포 경인문화사 2층
발표자: 장일규(국민대)
토론자: 조범환(서강대)
사회: 김덕원(명지대)

▣ 일본역사문화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일시: 2005년 4월 30일(토)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세미나실
좌장: 정하미(한양대)
○ 제1부 사회: 장용걸(경남대)
제1발표: 19세기 민중운동사 연구에 관한 일고찰
발표자: 김필동(세명대)
토론자: 조성운(천천고) · 박훈(서울대)
○ 제2부 사회: 이진원(서울시립대)

제2발표: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최장근(동명정보대)
토론자: 김준섭(국방대) · 서민교(고려대)
제3발표: 독도, 역사교과서, 한일관계
발표자: 하종문(한신대)
토론자: 김동명(국민대) · 성해준(동명정보대)

▌5월 학술발표

▣ 한국근현대사학회 91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5년 5월 14일 오후 2시
장소: 대우학술재단빌딩 8층 세미나 2실
사회: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제1주제: 만주사변 발발 직후 재만조선인의 수난과 국내민족주의 진영의 구호활동-만주동포문제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최병도(서울시립대학교)
토론자: 박철하(숭실대학교)
제2주제: 재미한인의 국호인식
-신민보씨의 원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도훈
토론자: 한철호

▣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춘계학술회의

주제: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
일시: 2005년 5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
후원: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13:30～13:40
개회사 이융조(한국고대학회 회장)
주제 발표(13:40～16:00)
사회: 정운용(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제1주제: 마성자문화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발표자: 복기대(단국대 석주선박물관)
토론자: 박경철(강남대 교양교수부)
제2주제: 송화강 유역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서황산둔 고분군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종수(충남역사문화원 문화재센터)
토론자: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제3주제: 日本 先史考古學의 時代區分과 年代 問題 -紀元前 1千年紀를 中心으로-
발표자: 庄田愼矢(고려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토론자: 우재병(충남대 고고학과)
제4주제: 연해주 청동기시대 - 중세 유적 지표조사 보고
발표자 : 강인욱(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 양시은(서울대 박물관)
16:20～18:00
종합 토론 사회: 하문식(세종대 역사학과)

▣ 부산경남사학회 제68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5년 5월 21일(토) 14:00-18:00
장소: 신라대학교 사범관 515호(원형강의실)
주최: 부산경남사학회
○ 제2부(15:10-16:50) 사회: 김세윤(신라대)
'辛卯年銘 청동방울'과 광개토왕릉의 비정
발표자: 백승옥(함안박물관)
토론자: 남재우(창원대)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연구과제 결과발표회

주제: 한국 근현대의 상고사담론과 민족주의
일시: 2005. 5. 25(수) 14:00-18:0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중관 1층 회의실
사회: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신채호의 상고사 담론과 민족주의 · 발표자: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허동현(경희대)
정인보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주의
발표자: 오영섭(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토론자: 김동환(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최남선의 단군론과 민족주의
발표자: 이영화(한국역사자료연구소)
토론자: 최석영(국립민속박물관)

안확 국학의 민족주의와 상고사 담론
발표자: 류준필(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토론자: 권용선(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2005년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주제: 을사조약과 20세기 초의 한반도
일시: 2005년 5월 27일(금)～28일(토) 양일간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북악관
주최: 역사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회 2일째: 분과별 발표〉
일시: 5월 28일 토요일 10:00～18:00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북악관 강의실
참여학회: 분과발표 10개 / 자유패널 4개(1～3. 한국사부)
8. 역사교육부
주제: 동북아시대의 민족주의 인식과 역사 교육
○ 오전발표(10:00～12:00) 사회: 안상준(안동대)
민족주의를 둘러싼 최근 논쟁
발표자: 양정현(부산대)
토론자: 박상철(전남대)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서 민족주의와 근대주체
발표자: 이지원(대림대)
토론자: 박구병(서울대)
동북아시대의 한국사 서술과 역사교육: '국사'에서 '동아시아사'로
발표자: 김기봉(경기대)
토론자: 김정인(춘천교대)
○ 오후발표(13:20～15:20) 사회: 최상훈(서원대)
지구시대 한미관계와 한국민족주의: 연구방법론과 교육방법론 재론
발표자: 정일준(아주대)
토론자: 홍석률(성신여대)
역사교육에서의 한일관계와 민족주의
발표자: 박중현(중경고)
토론자: 한명철(경복고)
역사교육에서의 '동북공정'과 민족주의
발표자: 김남철(완도 수산고)
토론자: 윤종배(서울사대부고)
○ 종합토론(15:30～17:30) 사회: 유용태(서울대)
〈11～14 자유패널〉
11. 한국사학사학회
주제: 역사적 정통성과 정권의 정당성
○ 제1부 발표(13:30～15:00)
사회: 김기봉(경기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발표자: 김희곤(안동대)
중국사에서의 정통의 문제
발표자: 권중달(중앙대)
막스베버의 정통성 논의
발표자: 임상우(서강대)
○ 제2부 토론(15:20～17:00)
사회: 박인호(금오공과대)
토론자: 장석흥(국민대), 조병한(서강대), 최호근(부산대)
12. 한국근현대사학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주제: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과 해당국의 정책
○ 발표 사회: 한철호(동국대)
13:20～14:00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 구상과 한인 귀환정책
발표자: 장석흥(국민대)
토론자: 정용욱(서울대)
14:00～14:40 해방 후 일본 정부의 재일 한인 귀환정책
발표자: 채영국(국민대)
토론자: 김인덕(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14:40～15:20 해방 후 중국 국민정부의 한인귀환정책과 지역별 실상
발표자: 김승일(국민대)
토론자: 염인호(서울시립대)
15:30～16:10 소련정부의 한인포로정책과 귀환
발표자: 이평래(한국외대)

토론자: 최기영(서강대)

16:10～16:50 중부태평양 지역 한인의 귀환 -팔라우 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도형(독립기념관)

토론자: 정혜경(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6월 학술발표

▣ 서울경기고고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주제: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동검과 묘제를 중심으로-

일시: 2005년 6월 3일(금) 10: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최: 서울경기고고학회

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 기조강연

한국 청동기시대연구의 새 흐름 -동북아지역 청동기시대 연구를 마무하며

강연자: 최몽룡(서울대학교)

○ 발표

사회: 김경택(한국전통문화학교)

길림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발표자: 이종수(충남역사문화원)

중국 동북지방 고인돌에 대하여

발표자: 하문식(세종대학교)

묘제출토 두개골로 본 청동기시대 주민의 특징에 대하여

발표자: 신동훈(서울대학교)

요서지방 비파형동검문화

발표자: 복기대(단국대학교)

하가점상층문화의 형성과 유라시아의 초원문화 -청동기로 본 교류와 사회발전의 제양상-

발표자: 강인욱(서울대학교)

남한지역 청동기문화의 전환과정

발표자: 조진선(전남대학교)

○ 토론

사회: 이청규(영남대학교)

토론자: 정석배 (한국전통문화학교), 유태용(경기대박물관), 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서울대학교), 정상석(기전문화연구원), 박양진(충남대학교), 박순영(서울대학교)

▣ 고구려연구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

주제: 고구려와 백제

일시: 2005. 6. 3(금)～4(토)

장소: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본관) 연구관 대강당

주최: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주관: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후원: 고구려연구재단

〈제1일 2005년 6월 3일(금)〉

13:00～13:30

등록 및 개회

개회사: 고구려연구회 회장

사회: 延敏洙(부산대)

13:30～14:30

高句麗와 百濟의 出系 認識

발표자: 李道學(한국전통문화학교)

토론자: 徐永大(인하대)

14:30～15:30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와 百濟의 中國古典 理解

발표자: 朴燦圭(단국대)

토론자: 姜鍾元(충남역사문화원)

15:30～16:30

6～7世紀 高句麗와 百濟의 對外關係 變化

발표자: 金周成(전주교대)

토론자: 金賢淑(고구려연구재단)

16:40～17:40

제1부 종합토론

사회: 梁起錫(충북대)

〈제2일 2005년 6월 4일(토)〉

사회: 金希燦(경희대)

09:00～10:00

高句麗와 百濟의 建築文化

발표자: 徐廷昊(공주대)

토론자: 李建河(한서대)

10:00～11:00

高句麗와 百濟의 古墳文化

발표자: 李南奭(공주대)

토론자: 徐五善(국립대구박물관)

11:00～12:00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발표자: 沈光注(토지박물관)

토론자: 崔鍾澤 (고려대)

12:10～13:10

제2부 종합토론

사회: 沈正輔(한밭대)

14:10～16:00

공주지역 역사유적 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학술대회

주제: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 문화의 형성
-고대를 중심으로-

일시: 2005년 6월 10일(금) 10:00～18: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사회: 김창겸(한국학중앙연구원)

○ 개회 및 축사(10:30～11:00)

개회사: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장)

인사말: 윤덕홍(한국학중앙연구원장)

축 사: 김영숙(국회의원)

축 사: 김성훈(상지대학교 총장)

○ 제1부 (11:00～12:30)

동해문화권의 설정 가능성 검토 －고대 동아지중해문명의 이해를 위한 한 접근－

발표자: 윤명철(동국대학교)

단군신화와 동아시아 민족신화의 토템과 범의 위상

발표자: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발표자 : 강창화(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제2부(14:00～15:30)

고대 일본의 동아시아 교류와 정보

발표자: 연민수 (부산대학교)

유연 · 돌궐제국과의 교류와 우리 문화 -고구려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원길 (고구려연구회)

동아시아 고대문화와 신화 비교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신화연구에서 신화담연구로의 전환-

발표자: 양민종 (부산대학교)

○ 제3부 종합토론(15:50～18:00)

사 회: 서영수(단국대학교)

토론자: 박상진(부산외국어대학교), 송화섭(전주대학교), 송만영(경기도박물관), 김선민(숙명여자대학교),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정재승(봉우사상연구소)

발표자: 전원

▣ 제85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일시: 2005년 6월 11일(토) 13:00～18:00

장소: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삼성관) 지하 1층 사회교육실(지하철 6호선 1번출구 옆)

사회: 최광식(고려대)

○ 고려대 박물관 관람 13:00～14:00

○ 주제발표 14:00～18:00

제1주제: 조사 보고 -소그드 벽화, 호레즘 성곽, 돈황문서 중 고구려 자료

발표자: 윤용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토론자: 전호태(울산대)

제2주제: 장보고 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지역

발표자: 고경석(충무공수련원)
토론자: 윤재운(고구려연구재단)
제3주제: 제국 일본이 안출한 신라사 넘어뜨리기
발표자: 이종욱(서강대)
토론자: 김기흥(건국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6월 월례발표회
일시: 2005. 6. 18(토), 오후 2시
장소: 대우재단 제2세미나실(8층)
사회: 이상일(국사편찬위원회)
만주국 성립 전후 심양(봉천)의 한인사회
발표자: 김주용(독립기념관)
토론자: 황민호(서울대 법학연구소)

▣ 고구려연구재단 개원 1주년 기념 제4차 국내학술회의
주제: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복원문제
일시: 2005년 6월 24일(금)
장소: 고려대 100주년기념국제원격회의실
주최: 고구려연구재단
09:30～10:00 등록
10:00～10:05 국민의례
10:05～10:20 재단 이사장 인사말
○ 제1부
사회: 김일권(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문화연구팀장)
1주제(10:20～11:10)
고구려 고분과 벽화의 보존에 관한 과학적 방법론 모색
발표자: 한준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국)
토론자: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2주제(11:10～12:00)
전통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 현상모사방안 연구
발표자: 김 식(홍익대 교수)
토론자: 이종송(건국대 교수)
○ 제2부
사회: 고광의(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3주제(13:30～14:20)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를 위한 기초자료 검토
발표자: 박아림(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김진순(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4주제(14:20～15:10)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발표자: 한경순(건국대회화학과교수)
토론자: 서 용(동덕여대)
5주제(15:10～16:00)
고구려 고분벽화의 손상실태에 대한 연구
발표자: 안병찬(경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순관(국립고궁박물관)
○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지병목(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소장)
16:30～17:30 종합토론

▌7월 학술발표

▣ 강원발전연구원 학술대회
주제: 강원도와 고구려
일시: 2005년 7월 15일 14:00-17:00
장소: 두산 리조트 강원도에서의 고구려 백제·신라의 역학관계
발표자: 임기환
교통로를 통해서 본 강원도의 고구려
발표자: 금경숙
동해안 지역을 통해서 본 고대 제 세력
발표자: 공석구

▌8월 학술발표

▣ 제7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주제: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제문제
일시: 2005년 8월 4일(목) 13: 00～5일(금) 13: 00
장소: 계룡산 동학사 입구 주차장 옆 동학산장 (042-825-4301～2)
주관: 한국고대사학회

후원: 고구려연구재단, (주)시공테크, 충청문화재연구원

○ 등록 및 개회 (8월 4일 13: 00～14: 10)

개회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김태식(홍익대)

○ 제1부 주제 발표(8월 4일 14: 10～20: 10)

사회: 송호정(한국교원대)

제1주제: 고구려 왕릉의 구조 (14: 10～15: 20)

발표자: 강현숙(동국대)

토론자: 조영현(계명대 박물관)

제2주제: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 문제 -문헌자료 (15: 30～16: 40)

발표자: 백승옥(함안박물관)

토론자: 공석구(한밭대)

제3주제: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 문제 -고고학자료(16: 50～18: 00)

발표자: 여호규(한국외국어대)

토론자: 전호태(울산대)

제4주제: 왕릉급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의 문제 (19: 00～20: 10)

발표자: 최종택(고려대)

토론자: 박순발(충남대)

○ 제2부 종합 토론 (8월 5일 09: 00～12: 00)

사회자: 서영수(단국대)

토론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외 양기석(충북대), 주보돈(경북대), 최광식(고려대), 김기흥(건국대), 조법종(우석대), 김수태(충남대), 백승충(부산대), 한규철(경성대)

▣ 2005 역사학회 하계 특별심포지움

주제: 광복60년 한국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일시: 2005년 8월 17일(수) ～ 18일(목)

장소: 광림세미나하우스

후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일(8월 17일)〉

○ 등록 및 개회 (13:00-14:00)

개회사 (14:00-14:10)

역사학회 회장 金杜珍(국민대)

기조강연 (14:10-15:00)

車河淳(서강대)

○ 제1부 주제발표(15:00-18:30)

사회: 李益柱(서울시립대)

제1주제: 한국고대사(15:00-15:45)

발표자: 文昌魯(국민대)

토론자: 盧重國(계명대)

제2주제: 한국중세사(15:45-16:30)

발표자: 金塘澤(전남대)

토론자: 高惠玲(국사편찬위원회)

제3주제: 한국근세사(16:50-17:35)

발표자: 鄭求福(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李泰鎭(서울대)

제4주제: 한국근현대사(17:35-18:20)

발표자: 崔德壽(고려대)

토론자: 張錫興(국민대)

〈제2일(8월 18일)〉

○ 제2부 주제발표(09:00-12:00)

사회: 강명희(한세대)

제5주제 서양사(09:00-09:45)

발표자: 金榮漢(서강대)

토론자: 崔甲壽(서울대)

제6주제 동양사 -중국사(09:45-10:30)

발표자: 李成珪(서울대)

토론자: 曺秉漢(서강대)

제7주제 동양사 -일본사(11:00-11:45)

발표자: 任城模(연세대)

토론자: 金善民(숙명여대)

○ 제3부 종합토론(13:30-15:30)

사회: 閔賢九(고려대)

발표자 · 토론자 및 참석자 전원

▣ 2005년도 하계 일본사학회 워크

주제: 역사교육에 대한 국제적 전망

일시: 2005년 8월24일(수)～8월25일(목)

장소: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8월 24일(수)〉

○ 등록 및 개회(14:30-15:00)

○ 제1부 주제발표(15:00-18:00)

사회: 이계황(인하대)

제1주제: 최근 일본의 역사교육의 동향-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수철(전남대)

토론자: 남기학(한림대)

제2주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화기 서술 관련에 보이는 문제점과 제언 - 7차 교육과정「국사교육내용 전개의 준거안」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자: 허동현(경희대)

토론자: 유교열(해양대)

제3주제: 세계화 속의 중화주의 -중국 역사교육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자: 오병수(서울대)

토론자: 심기재(단국대)

〈8월 25일(목)〉

○ 제2부 주제발표(9:30-11:30)

사회: 김은숙(교원대)

제4주제: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역사교육

발표자: 윤병남(서강대)

토론자: 남상호(경기대)

제5주제: 독일의 역사교육과 국제적 이해

발표자: 한운석(상지대)

토론자: 김동명(국민대)

▌9월 학술발표

▣ 2005 서울역사학술대회

주제: 서울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일시: 2005. 9. 9.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4～5세기 백제의 성장과 삼국의 각축

발표자: 노중국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

발표자: 노태돈

신라의 영토확장과 북한산성

발표자: 신형식

통일기 신라의 지방제도와 한주

발표자: 이기동

▣ 한국사연구회 247차 연구발표회

일시: 2005. 9. 16 (금) 오후 3～5시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세미나 1실

사회자: 이진한(고려대)

高麗의 高句麗繼承에 대한 東北亞 사람들의 이해

발표자: 박용운(고려대)

토론자: 정구복(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대학회 학술회의

주제: 2005년 상고사 토론회

-고조선사의 제문제-

일시 : 2005. 9. 23.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3층 대강당

단군조선의 실시

발표자: 고준환

토론자: 서영대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및 한민족 뿌리 문제

발표자: 박찬덕

토론자: 김성환

중국 동북지방의 상고사 문제

발표자: 최재인

토론자: 복기대

▣ 국사편찬위원회 국제학술회의

주제: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일시: 2005. 9. 28(수), 09:00～18:00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연수과정 회의실

주제 1. 유럽지역 한인 이민의 역사적 고찰

발표자: 오장환(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조사위

원)
토론자: 한운석(상지대)
주제 2. 재일 한국인 · 조선인의 역사와 그 전망
발표자: 外村大(早稻田大)
토론자: 김태기(호남대)
주제 3. 중남미지역 한인 이주의 역사와 현황
발표자: 신정환(한국외국어대)
토론자: 전혜찬(한국외국어대)
주제 4. 중국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정과 현재적 위상
발표자: 이진영(인하대)
토론자: 임계순(한양대)
주제 5. 코리아타운의 초기 형성과정과 재미 한인사회의 변모
발표자: 윤인진(고려대)
토론자: 김도형(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제 6. 러시아 · 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그 변화
발표자: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토론자: 이형근(러시아 삼일문화원)
종합토론.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특성과 활용방안
발표자: 전형권(전남대)
토론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145차 학술세미나
주제: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2)(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 세미나)
일시: 2005년 9월 30일(금) 오후 3시
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704호 세미나실
이정훈, 〈고려시대 지배체제의 변화와 중국율의 수용〉《한국사론》33, 2002
발표자: 김호동 김인호, 〈고려의 원율 수용과 고려율의 변화〉《한국사론》33, 2002
발표자: 위은숙 김인호, 〈김지의 주관육익 편찬과 그 성격〉《역사와 현실》40, 2001
발표자: 한기문 김인호, 〈여말선초 육전체제의 성립과 전개〉《동방학지》118, 2002
발표자: 이정희 인정전승, 〈당송의 법과 고려법〉《동방학》30, 1965(당령습유보에 있음)
발표자: 전영섭

▌10월 학술발표

▣ 백제연구 초청강좌
주제: 東아시아와 倭 · 日本의 大臣外交
일시: 2005년 10월 5일 오후 4시
장소: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133호 강의실
주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발표자: 佐藤信(일본 東京大學 教授)

▣ 한일문화교류기금 제73차 한일문화강좌
주제: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고대도시의 전개
일시: 2005. 10. 7,
장소: 전경련회관 3층 제2회의실
발표자: 佐藤信

▣ 제17회 서울대학교 고고학 콜로퀴엄
일시: 2005년 10월 12일(수) 10:30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212호
알타이지역 파지릭문화 출토 미이라 DNA분석 연구
발표자: V.I.Molodin
미누신스크문화의 청동기
발표자: V.V.Bobrov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2회 매산기념강좌
주제: 한국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일시: 2005년 10월 13일(목) 14:00～18:00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
주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개회(14:00～14:30) 사회: 최병현(숭실대학교)
개회사: 박은구 박물관장
인사말씀: 김창훈 위원
기조발표(14:30～15:00)

이건무(국립중앙박물관장)
제1주제(15:15～15:45)
중국동북지방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발표자: 오강원(고구려연구재단)
토론자: 강인욱(서울대학교)
제2주제(15:45～16:15)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발표자: 조진선(전남대학교 박물관)
토론자: 이양수(국립김해박물관)
종합토론(16:15～17:45)
사회자: 이청규(영남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 외 다수

▣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제: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일시: 2005년 10월 14일(금)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후원: 한일문화교류기금 고구려연구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 제1부(09:30～10:00) 사회: 손승철(강원대)
개회사: 연민수(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축 사: 이상우(한림대 총장,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기조강연: 古代에 있어서 高句麗와 倭
강연자: 坂元義種(龍谷大 教授)
○ 제2부(10:00-12:10) 사회: 이재석(고려대)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高句麗와 倭 (10:00～10:30)
발표자: 서영수(단국대)
토론자: 김태식(홍익대)
宋書倭國傳에 보이는 倭王武의 上表文과 高句麗 (10:30～11:00)
발표자: 川本芳昭(九州大)
토론자: 이영식(인제대)
5세기후반 高句麗의 남진과 百濟·倭 (11:10～11:40)
발표자: 박천수(경북대)
토론자: 윤명철(동국대)
佛教文化를 통해 본 高句麗와 倭 (11:40～12:10)
발표자: 新川登龜男(早稻田大)
토론자: 김영미(이화여대)
○ 제3부(13:20～16:00) 사회: 나행주(건국대)
6세기후반 高句麗와 倭 (13:20～13:50)
발표자: 김선민(숙명여대)
토론자: 정효운(동의대)
白村江 전투와 高句麗 (13:50～14:20)
발표자: 森公章(東洋大)
토론자: 이근우(부경대)
고구려 멸망이후의 고구려 유민과 왜 (14:30～15:00)
발표자: 김은숙(한국교원대)
토론자: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日本亡命 王族 高麗王若光과 그 後裔 (15:00～15:30)
발표자: 高麗文康(高麗神社)
토론자: 이용현(국립중앙박물관)
○ 제4부 종합토론 (15:45～18:00)
사회: 연민수(한일관계사학회 회장)
발표자: 서영수(단국대)·김선민(숙명여대)·川本芳昭(九州大)·박천수(경북대)·김은숙(한국교원대)·新川登龜男(早稻田大)·森公章(東洋大學)·高麗文康(高麗神社)
토론자: 김태식(홍익대)·이영식(인제대)·윤명철(동국대)·김영미(이화여대)·정효운(동의대)·이근우(부경대)·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이용현(국립중앙박물관)

▣ 제3회 지방사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東西의 교류와 문화
일시: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 1:30～15일(토) 오후 5:00
장소: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세미나실(14

일), 무등파크호텔 4층 에메랄드홀(15일)

주최: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전남사학회

후원: 조선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재연구원

〈10월 14일(금)〉

○ 개회식: 13:30～13:50 사회: 이종범(조선대)

개회사: 유원적(전남사학회 회장)

환영사: 김주훈(조선대학교 총장)

○ 제1부 (韓國史部) 사회: 하태규 (전북대)

14:00～14:50

古代 百戱의 도입을 통해서 본 東西文化의 交流

발표자: 전덕재(경주대)

토론자: 권덕영(부산외대)

14:50～15:40

7～8C 東아시아 轉法輪印像의 영향 -新羅下代 寶城 柳新里 磨崖佛坐像 중심으로-

발표자: 이경화(조선대)

토론자: 강종훈(대구가톨릭대)

16:00～16:50

14C 南아시아와 東아시아의 佛敎 交流 -知空禪賢의 重要性-

발표자: 허흥식(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이병희(한국교원대)

16:50～17:40

西歐文化 流入의 樣相과 그 性格 - 兪吉濬 집안을 중심으로 -

발표자: 강재순(부산대)

토론자: 윤선자(전남대)

19:30～20:30 국악공연 -남도민요-

〈10월 15일(토)〉

○ 제2부 (西洋史部) 사회자: 차영길(경상대)

9:00～9:50

女性像을 중심으로 본 古代 韓國과 地中海 지역과의 文明交流의 可能性

발표자: 최혜영(전남대)

토론자: 변정심(경북대)

9:50～10:40

他者에 投影된 自我 -한 르네상스 知識人의 눈에 비친 東洋과 東洋人-

발표자: 임병철(신라대)

토론자: 김평중(전주대)

11:00～11:50 西歐 中心主義를 넘어서

발표자: 조승래(청주대)

토론자: 김숙자(동신대)

11:50～12:40

乙巳條約의 國際的 背景 -지금까지의 硏究에서의 몇 개의 問題-

발표자: 원 철(영남대)

토론자: 한규무(광주대)

○ 제3부 (東洋史部) 사회: 강판권(계명대)

14:00～14:50 唐代의 廣東과 文化交流

발표자: 김명희(호남대)

토론자: 이주현(한남대)

14:50～15:40

16～18C 東西文化 交流 -銀과 鴉片-

발표자: 이학로(계명대)

토론자: 조세현(부경대)

15:40～16:30

19C 중엽 네덜란드 무역회사(NHM)의 日本貿易活動

발표자: 김광옥(부산대)

토론자: 박수철(전남대)

▣ 제86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일시: 2005년 10월 15일(토) 14:00-18:00

장소: 서울 홍익대학교

사회: 송호정 (한국교원대)

제3주제: 최치원의 삼한관 재고

발표자: 김병곤(동국대)

토론자: 장일규(국민대)

▣ 한국상고사학회 제33회 학술발표대회

주제: 낙랑의 고고학

일시: 2005. 10. 21(금) 10:00～18:00

장소: 경기도박물관 강당

○ 개회

개회사: 이종선(한국상고사학회 회장)

○ 주제발표

사회: 오강원(고구려연구재단)

기조강연: 낙랑의 역사와 고고학

강연자: 권오중(영남대학교)

낙랑 호족의 세력기반의 추이

발표자: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토론자: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낙랑토기 및 기와의 제작기법

발표자: 정인성(동경대학교)

토론자: 이성주(강릉대학교)

한묘와 낙랑묘제의 비교

발표자: 黃曉芬(東亞大學)

토론자: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낙랑 전실묘의 연구

발표자: 高久健二(埼玉大學)

토론자: 강현숙(동국대학교)

남한출토 낙랑유물의 성격

발표자: 이재현(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이양수(국립진주박물관)

간독자료를 통해 본 중국고대 군현조직과 낙랑군

발표자: 김병준(한림대학교)

토론자: 윤재석(경북대학교)

○ 종합토론

좌장: 박순발(충남대학교)

▣ 백암학회 학술회의

주제: 백암 박은식선생 서거 80주년 추도식 및 백암 박은식 유업의 현대적 의의 학술회의

일시: 2005. 10. 27.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박은식의 고조선 역사관

발표자: 신용하

토론자: 박걸순

박은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발표자: 한시준

토론자: 김희곤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

발표자: 김삼웅

토론자: 김순석

박은식의 생애와 사상 -양명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유준기

토론자: 배용일

박은식과 대종교

발표자: 김동환

토론자: 박성수

박은식의 대한제국시기 자강론

발표자: 노관범

토론자: 김도형

박은식의 중국 망명활동

발표자: 손과지

토론자: 배경한

▣ 한국간도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제: 동아시아 영토문제

일시: 2005. 10. 28.

장소: 백범기념관

○ 제1부 한국과 중국의 간도, 연해주 문제에 대한 인식

간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발표자: 김성호(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역사연구소장)

손춘일(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소장)

토론자: 이일걸, 최덕규, 강석화, 남의현

○ 제2부 서양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

유럽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

발표자: Werner Sasse(독일 함부르크 대학 한국

학과 교수)
토론자: 김우준
Rocks and hard places
발표자: Timothy L. Savage(미국 국제위기그룹 선임분석관)
토론자: 이동수
○ 제3부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에 대한 인식
한일합방과 간도협약
발표자: 小林珙子(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신주백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이창위(대전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토론자: 최장근

▣ 간도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강연회
일시: 2005년 10월 29일 14:00～17: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주최: 한국 간도학회
제1주제: 간도문제와 동북공정
발표자: 이일걸(한국간도학회 부회장)
제2주제 :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간도영유권 문제
발표자: 노영돈(인천대학 법과대학 교수)

▣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추계학술회의
주제: 고구려 미술문화의 재조명
일시: 2005년 10월 29일(토) 13시 30분～18시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205호
후원: 고구려연구재단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덕성여자대학교
○ 13:50～14:00
개회사 이융조(한국고대학회 회장)
○ 14:00～16:50 주제 발표
사회: 최성은(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제1주제: 고구려 팔각형 건물터에 대한 연구
발표자: 이강근(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토론자: 한동수(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제2주제: 景4年辛卯명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중국 불상과의 관계
발표자: 양은경(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토론자: 임남수(영남대 미술학부 교수)
제3주제: 환문총 벽화에 그려진 동심원문의 도상과 그 의의
발표자: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토론자: 한정희(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제4주제: 고구려 집안지역 묘주도 의자의 계보와 전개
발표자: 이송란(인천시 문화재감정관)
토론자: 최응천(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
○ 17:00～18:00 종합 토론
사회: 문명대(동국대 미술학부 교수)

▌11월 학술발표

▣ 제11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주제: 광개토태왕과 동아시아 세계
일시: 2005년 11월 3일(木)～5일(土) [3일간]
장소: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관 11층 국제회의장
주최: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후원: 기업은행, 한국학술진흥재단, 단국대학교
〈제1일: 2005.11.03(木)〉廣開土太王碑의 제문제
개회사: 高句麗硏究會 會長
축사: 기업은행 은행장
사회: 정진헌(고구려연구회)
09:30～10:10
동아시아사에서 광개토태왕비 연구의 역사적 의미
발표자: 박성봉(경북대)
토론자: 이재석(고려대)
10:10～10:50
유럽학계의 광개토태왕비 조사와 연구
발표자: 서길수(서경대)
토론자: 지병목(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1:00～11:40
中國好太王碑研究現狀與趨勢
발표자: 耿鐵華 (中國 通化師範大)
토론자: 조법종(전주 우석대)
11:40～12:20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 -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
발표자: 早乙女雅博(日本 東京大)
토론자: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13:30～14:10
傅斯年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拓本乙本完整的發現
발표자: 高明士(臺灣大)
토론자: 이우태(서울시립대)
14:10～14:50
高句麗の異種族統治 -4～5世紀を中心に-
발표자: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토론자: 김영민(울산대 박물관)
14:50～15:30
高句麗の編史事業と百濟·新羅·倭
발표자: 高寬敏(日本 朝鮮大)
토론자: 노태돈(서울대)
15:40～18:30 종합토론
사회: 신형식(상명대)
〈제2일: 2005. 11. 04(金)〉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의 國際秩序
사회: 이병건(동원대)
09:30～10:10
高句麗의 세력권 遼東에 대한 地政學的 考察
발표자: 이기동(동국대)
토론자: 박경철(강남대)
10:10～10:50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遼東진출와 對後燕政策
발표자: 여호규(한국외국어대)
토론자: 이인철(고구려연구재단)
11:00～11:40
고구려의 초원진출과 유목민족 정책
발표자: 서영교(목원대)
토론자: 강선(숙명여대)
11:40～12:20
고구려의 부여진출과 교류의 실상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종수(충남역사문화연구원)
토론자: 정운용(고려대)
13:30～14:10
高句麗와 百濟의 對立과 東아시아 世界
발표자: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토론자: 금경숙(고구려연구재단)
14:10～14:50
광개토태왕의 신라구원과 가야와 왜의 무기체계 변화
발표자: 송계현(부산시립박물관)
토론자: 김태식(홍익대)
14:50～15:30「廣開土王碑文」と『帶方界』
발표자: 鈴木英夫(日本 國學院大)
토론자: 윤명철(동국대)
15:40～18:30 종합토론
사회: 김위현(단국대)
〈제3일: 2005.11.05(土)〉 高句麗와 東아시아 世界
사회: 박찬규(단국대)
09:30～10:10
關于高句麗好太王碑初期拓本的研究 - 早期墨本的製作和流傳(1880～1888年)-
발표자: 徐建新(中國 社會科學院)
토론자: 임세권(안동대)
10:10～10:50
광개토태왕비 초기탁본의 쟁점 -북경도서관 원석정탁본과 국제한국연구원 석회탁본을 중심으로-
발표자: 서영수(단국대)
토론자: 노중국(계명대)
11:00～11:40
고구려 국호고 -高句麗와 句麗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진석(中國 延邊大)
토론자: 정구복(한국학 중앙연구원)
11:40～12:20
4세기 후반 5세기초 고구려 왕권과 그 정당성
-광개토대왕을 중심으로-
발표자: P.N. MOHAN(호주 시드니대)
토론자: 공석구(국립 한밭대)
13:30～14:10
4～5세기 고구려의 동아시아 인식 -광개토왕비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용현(국립중앙박물관)
토론자: 송완범(고려대)
14:10～14:50
알타이지역 투르크문화의 형성과 고구려 -마구류를 중심으로-
발표자: 강인욱(고려대)
토론자: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14:50～15:30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문화
발표자: 전호태(울산대)
토론자: 박아림(숙명여대)
15:40～18:30 종합토론
사회: 양기석(충북대)

▣ 성균관대박물관 ·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
주제: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금석문
일시: 2005년 11월 10일(목) 오후 1:30-6:30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기조발표: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발표자: 조동원(성균관대학교 박물관장)
○ 주제발표:
고려 불교금석문의 특성과 정리방향
발표자: 허흥식(한국학중항연구원 교수)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발표자: 김용선(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中國古代石刻研究之現狀
발표자: 趙力光(中國, 西安碑林博物館副館長)
日本における金石文研究の現狀
발표자: 千千和 到(日本, 國學院大學 教授)
○ 종합토론:
사회 : 金瑛河(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자 : 金杜珍(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李在範(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河元洙(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李鎔賢(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 제18회 서울대학교 고고학 콜로퀴엄
주제: 외국학계의 시선으로 본 고구려 문제
일시: 2005년 11월 17일(목) 16:00
장소: 서울대학교박물관 강당
주최: 서울대학교박물관 · 고고미술사학과
발표자: E. Shultz(하와이대학 교수/한국학연구소 소장)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0회 정기연구발표회
일시: 2005년 11월 18일(금) 13:30～17:00
장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세미나실
○ 기조연설: 정영호(본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 발표 및 토론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국원성 관계
발표: 신형식(상명대학교 초빙교수)
토론자: 심광주(토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5～6세기 백제의 북계
발표자: 양기석(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토론자: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고찰
발표자: 서영일(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전임연구원)
○ 종합토론
진행: 정운용(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라인 장보고'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제: 동아시아의 해양신앙과 해신 장보고

일시: 2005년 11월 18일(금) 09:30～18:00

장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

주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장보고기념사업회, 목포대 다도해문화콘텐츠사업단

○ 개회식: 10:00～10:30 사회 곽유석(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회사: 강봉룡(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장)

환영사: 김성범(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치사: 김웅배(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축사: 김재철(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 제1부 사회: 곽유석(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30～11:50

제1주제: 동아시아의 해양과 해양신앙

발표자: 주강현(한국역사민속학회장)

토론자: 홍석준(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제2주제: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발표자: 강정식(제주대 국어교육과)

토론자: 이경엽(목포대 어문학부)

○ 제2부 사회: 김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3:00～15:00

제3주제: 도서 · 연안지역의 철마신앙

13:40～14:20

발표자: 강봉룡(목포대 역사문화학부)

토론자: 나희라(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제4주제: 중국의 마조신앙(媽祖信仰)과 관음신앙

발표자: 程俊(중국 절강해양학원)

토론자: 최연식(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제5주제: 일본의 선령신앙(船靈信仰)에 대하여

발표자: 安田宗生(일본 熊本大學 文學部 教授)

토론자: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제3부 사회 김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5:20～16:40

제6주제: 일본의 신라신과 장보고

발표자: 이병로(계명대 일본학과)

토론자: 권덕영(부산외국어대 역사관광학과)

제7주제: 한국에서의 장보고 신격화: 완도의 송징과 장보고 담론

발표자: 나경수(전남대 국어교육과)

토론자: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종합토론 좌장: 고석규(목포대 역사문화학부)

16:50～18:00

▣ 신라사학회 제45차 정기발표회

주제: 중원고구려비의 연구사적 쟁점과 과제

일시: 2005년 11월 19일 (토) 오후 2시 30분

장소: 마포 경인문화사 2층 (불교방송국 뒤)

발표자: 장창은(국민대)

토론자: 이부오(중산고)

사회: 조범환(서강대)

▣ 고려사학회 2005년 하반기 학술대회

주제: 8～10세기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일시: 2005년 11월 25일(금) 9:00～18:00

장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B1 사회교육실

주최: 고려사학회

후원: (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개회

9:30～10:00

사회:권내현(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9:50～10:00 개회사: 박용운(고려사학회 회장)

○ 오전발표

10:00～12:00

사회: 이진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8～10세기 동아시아의 교통로와 유통

발표자: 김은국(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창석(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8～10세기 발해 문물의 교류

발표자: 윤재운(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종복(성균관대 박물관 학예사)

○ 오후발표
13:30～16:30
사회: 정운용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발해의 도성체제 운영과 그 특징
발표자: 임상선(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위촉연구원)
신라말 - 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발표자: 강봉룡(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토론자: 양정석(수원대 사학과 교수)
나말여초 한중도자교류
발표자: 방병선(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토론자: 김영원(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 종합토론 17:00～18:00
사회: 한규철(경성대 사학과 교수)

▣ 역사문화학회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도시의 역사와 문화' 학술심포지엄
주제: 동아시아 근대 도시와 타자의 거리
일시: 2005년 11월 25일(금) 09:30-18:00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대학원동 3층(현관층) 세미나실
주최: 역사문화학회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제1부: 他者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 근대도시
발표 (10:00-11:10)
일본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도시 풍경 -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윤소영(충남대)
식민지시기 한국인이 본 일본의 도시 -일본시찰단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찬승(한양대)
한국인의 눈으로 본 중국 상해
발표자: 김희곤(안동대)
토론 (11:20-12:20)
토론자: 홍선영 (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 김영희 (연세대), 한시준(단국대)
진행 및 토론 사회: 김태웅 (서울대)

○ 제2부: 동아시아 근대도시 속의 他者의 거리
발표 (13:30-16:00)
상해의 조계 거리와 그 문화 / 박혁순(목포대)
개항장 인천의 중국인 거리와 그 문화 / 이옥련 (연변대)
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리와 그 문화 / 홍순권 (동아대)
식민지시대 경성의 소비자본주의와 일본인 거리 / 김백영(서울대)
개항장 공간의 조직과 근대성의 표상 / 김주관 (목포대)
목포 개항장 상인층의 존재양태와 그 성격 / 박이준(목포대)
토론 (16:15-17:30)
토론자: 전인갑 (인천대), 이현주 (국가보훈처), 오미일(친일진상규명위원회), 박세훈 (국토연구원), 서현정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전우용 (서울대병원 병원사연구실)
진행 및 토론 사회: 정근식 (서울대)

○ 종합 토론 (17:30-18:00)
사회: 정근식 (서울대)

▌12월 학술발표

▣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학술발표회
주제: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일시: 2005년 12월 3일(토) 11:00～13:00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삼성관 국제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후원: 고구려연구재단, 벽화연구회
고구려 고분벽화의 역사적 접근
발표자: 아즈마우시오(德島大)
한중일 고대고분벽화 제작기술 비교

발표자: 한경순(건국대)
이미지 복원을 위한 제작기법 재고
발표자: 안병찬(경주대)
복원재현도 제작 1: 프레스코기법
발표자: 진영선(고려대)
복원재현도 제작 2: 조벽지벽화기법
발표자: 이종송(건국대)

▣ 한국역사연구회 12월 연구발표회

주제: 6~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三國,南北國의 대외관계
일시: 2005년 12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2세미나실
○ 제1부 논문발표
▷ 책봉호를 통해본 삼국,남북국의 대외관계
책봉호를 통해 본 隋, 唐의 동방정책과 三國의 대응
발표자: 여호규(한국외대 사학과)
唐代 책봉호를 통해 본 南北國의 위상
발표자: 김종복(성균관대 박물관)
▷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 위덕왕대 남북조관계의 전개과정과 성격
발표자: 박윤선(숙명여대 사학과)
7세기 중반 百濟의 대외관계
발표자: 정동준(성균관대 사학과)
▷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신라의 대외관계 羅唐同盟의 성립배경
발표자: 이창훈(성균관대 사학과)
삼국통일전쟁기 羅唐의 갈등
발표자: 최현화(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제2부 지정 및 종합토론
사회: 윤선태(동국대 역사교육과)
토론자: 정병준(동국대 사학과), 김선숙(한국학중앙연구원), 전미희(국사편찬위원회)

▣ 강원고고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주제: 강원지역의 청동기문화
일시: 2005년 12월 3일(토)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주최: 강원고고학회
주관: 국립춘천박물관
○ 개회사: 지현병(학회장)
○ 환영사: 정종수(국립춘천박물관장)
○ 기조발표: 이건무(국립중앙박물관장)
○ 주제발표 사회(김규호 양구향토문화연구소)
강원 영동지역의 주거와 마을
발표자: 박영구(강릉대학교 박물관)
토론자: 유병린(고려문화재단)
강원 지역의 제사와 무덤
발표자: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
토론자: 하문식(세종대학교)
강원 영서지역의 주거와 마을
발표자: 김권중(강원문화재연구소)
토론자: 이형원(한신대학교)
강원지역과 한반도 동북한지역 비교연구
발표자: 강인욱(서울대학교)
토론자: 김재윤(러시아 과학원 극동분소 극동민족역사고고연구소
강원지역과 중국동북지역과의 관련성
발표자: 복기대(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토론자: 박상진(서울역사박물관)
연해주 청동기시대 연구의 최근 성과
발표자: 니꼴라 끌류예프(러시아 과학원 극동분소 극동민족역사고고연구소)
○ 종합토론 사회(이청규 영남대학교)

▣ 제88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일시: 2005년 12월 10일(토) 14: 00~18: 00
장소: 서울 국민대학교 북악관(15층 건물) 1010호
사회: 문창로(국민대)
제1주제: 고구려 동맹의 정치적 성격
발표자: 이정빈 (육사 교수부)
토론자: 조법종 (우석대)

제2주제: 경보와 그의 조동선 사상
발표자: 한태일 (국민대 박사과정)
토론자: 곽승훈 (목원대)
제3주제: 신라 하대 서남해역의 해적과 호족
발표자: 권덕영 (부산외국어대)
토론자: 강봉룡 (목포대)
제4주제: 고구려 환인 및 집안지역 답사보고 -나합성, 망강루 유적 등-
발표자: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 해상왕장보고연구회 워크샵

일시: 2005년 12월 17일(토) 오전 10시~17시 30분
장소: 코엑스 본관 3층 컨퍼런스센타 313호
사회: 曺凡煥(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
한중일 해양 및 도서신앙의 민속과 설화
발표자: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토론자: 채미하(경희대학교 강사)
당대 사원과 장보고의 법화원
발표자: 정순모(고려대학교 강사)
토론자: 정병준(동국대학교 교수)
장보고 구비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 현대적 맥락
발표자: 권도경(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토론자: 윤상림(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보고 CEO 정신 재조명과 동북아 물류 Global Network화 연구
발표자: 방희석(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진섭(대진대학교 교수)
서남해 포구조사
발표자: 고석규(목포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창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역사와 역사소설 그리고 사극
발표자: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아네스(안양대학교 강사)
TV 드라마 "해신" 촬영장의 외부효과 연구
발표자: 이상경(경성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희만(성화대학교 교수)

▣ 2005 고구려연구회 동계 학술대회

주제: 발해사의 재조명
일시: 2005년 12월 17일(토) 13:00~17:00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타(덕수궁 뒤 배재학당), 아래약도 참조
주최: 고구려연구회
후원: KTF(케이티프리텔)
13:00~13:40
발해의 영역에서 본 고구려 계승성
발표자: 한규철(경성대)
토론자: 임상선(고구려연구재단)
13:40~14:20
8·9세기 발해와 일본의 경제교역
발표자: 박진숙(충남대)
토론자: 김은국(고구려연구재단)
14:30~15:10
발해의 해양신앙
발표자: 윤재운(고구려연구재단)
토론자: 서영대(인하대)
15:10~15:50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발표자: 이병건(동원대)
토론자: 정연상(성균관대)
16:00~17:00 종합토론 사회: 서영수(단국대)

▣ 경기도박물관 학술강연회

주제: '우리 곁의 고구려' 특별전 기념 학술강연회
일시: 2005. 12. 23(금) 14:00~17:00
장소: 경기도박물관 강당
제1강연: 고구려 역사와 문화유적
강연자: 노태돈(서울대학교 교수)
제2강연: 고구려의 불교유적.유물
강연자: 정영호(단국대학교박물관장)
제3강연: 고분벽화를 통해본 고구려인의 세계
강연자: 전호태(울산대학교 교수)

○ 연구 및 출간

◎ 도서

※고구려연구재단 도서

(이 도서들은 2005년 당시 고구려연구재단에 의해 발간되었으나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 승계되었음을 밝혀둡니다.)

- 『고구려 문명기행 -고구려의 도읍, 환인과 집안을 찾아서-』, 고구려연구재단, 2005. 7. 16.
-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0.
-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0. 25.

□ 재단 연구총서

- 『고구려의 국가 형성』(연구총서01), 이남규 · 지병목 · 김기흥 · 강선, 2005. 12. 15.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연구총서02), 전호태 · 나희라 · 민병찬 · 오영찬 · 정완진, 2005. 12. 15.
-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연구총서03), 진영선 · 아즈마 우시오 · 안병찬 · 한경순 · 이종송, 2005. 9. 10.
-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연구총서04), 서영대 · 김상현 · 이한상 · 공석구 · 조법종, 2005. 9. 10.
- 『고구려의 국제 관계』(연구총서05), 권오중 · 박진숙 · 정운용 · 양정석 · 권덕영, 2005. 9. 10.
- 『고구려 문화의 비교 연구』(연구총서06), 강현숙 · 박선희 · 이장희, 2005. 9. 10.
-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연구총서07), 정진헌 · 한규철 · 이남석 · 문명대 · 김정희, 2005. 9. 10.
-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연구총서08), 방향숙 · 신채식 · 이석현 · 민경준 · 이영옥, 2005.9.10.
-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연구총서09), 박원호 · 권인용 · 홍성구 · 박정현, 2005. 9. 10.
-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한 · 중 · 일 3국의 비교연구-』(연구총서10), 송규진 · 김명구 · 박상수 · 표세만, 2005. 9. 10.
- 『한 · 중 · 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연구총서11), 김한종 · 왕현종 · 신주백 · 김정인 · 마쓰모토 다켄노리 · 롱웨이무 · 하종문, 2005. 9. 10.
-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연구총서12), 이개석 · 이희옥 · 박장배 · 임상선 · 유용태, 2005. 9. 10.
- 『미토콘드리아 DNA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연구총서13), 2005. 12.
- 『중국의 한국 고대사 연구 분석』(기획연구04),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5.
-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기획연구05),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5.
- 『중국의 민족 · 변강문제 연구동향』(기획연구06),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5.
- 『동북아시아와 카라수크 문화』(번역총서04), E. A. 노브고로도바 지음 · 이재정 번역,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20.
- 厲聲 · 朴文一 主編 · 연변대학 번역,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논문집』(번역총서05),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20.
- 王柯 지음 · 金貞姬 번역,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고구려연구재단 번역총서06),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20.
- 『한중관계사 연구논저목록(근 · 현대)』(연구논저목록03),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5.
- 『발해사 연구논저 목록』(연구논저목록04),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0.
- 『고조선 · 단군 · 부여 자료집(상)』,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12.
- 『고조선 · 단군 · 부여 자료집(중)』,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12.

- 『고조선 · 단군 · 부여 자료집(하)』,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12.
- 『중국소재 고구려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12.
- 『조 · 청 국경회담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10.
-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 V.I. 볼딘 · E.I. 겔만, 2005. 5.
- 『환인 · 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1.
- 『평양일대 고구려유적』(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1.
- 『평양일대 고구려유적』(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증보판),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12.30.
-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1.
-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증보판),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12. 25.
- 『북방사논총』 3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 『북방사논총』 4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 『북방사논총』 5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 『북방사논총』 6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 『북방사논총』 7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 『북방사논총』 8호,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Volume 2.1 (June 2005)
-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Volume 2.2 (December 2005)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발표 논문집』(남 · 북 · 러 국제학술회의), 고구려연구재단 · 조선력사학학회 · 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2005. 5.
-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한중 국제학술회의), 고구려연구재단 · 중국사회과학원, 2005. 12. 30.
-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자료 편람집』,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5.

● 기타 도서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 도
1	강윤동 외	고구려의 전설	백산자료원	2005
2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 진의 벽화분(솔벗한국학총서5)	지식산업사	2005
3	경기대학교박물관 고고학연구실	한국고대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5
4	고려대박물관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신국판
5	구자일	한국 고대 역사 지리	북캠프	2005 신국판
6	국립광주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통천문화사	2005 신국판
7	기수연	후한서 동이열전 연구 -삼국지 동이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5 신국판
8	김경일 저, 홍면기 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 · 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논형	2005 신국판
9	김득황	만주의 역사와 간도문제	남강기획	2005 신국판
10	김병기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학고재	2005
11	김산호	단군조선(대한민족통사 시리즈)	다물넷	2005
12	김영하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성균관대출판부	2005 신국판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 도
13	김지연	러시아의 한인들	눈빛	2005 신국판
14	김태준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푸른역사	2005 신국판
15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신국판
16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우리민족의 원시조 단군	대훈서적	2005
17	단군학회 엮음	단군과 고조선 연구(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지식산업사	2005
18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 Ⅱ -제5차 한·러공동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19	박지훈	중국과 한국(동아시아 역사속의)	서해문집	2005
20	방학봉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2005
21	방학봉	발해의 문화 1	정토출판	2005
22	백산학회	고구려 문화의 재조명	백산자료원	2005
23	백산학회	고구려의 발전과정과 사회상	백산자료원	2005
24	백종오·신영문	高句麗 遺蹟의 寶庫 京畿道	京畿道 博物館	2005
25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 창	2005
26	서긍 저·조동원 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27	서긍	고려도경	서해문집	2005
28	서병국	발해제국사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인 34가지 이유-	서해문집	2005
29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30	송호수	단군은 실존 인물이었다	한터	2005
31	시노다 지사쿠 저, 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2005
32	신용하	한국 원민족 형성과 역사적 전통	나남	2005
33	신주백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1920~30년대-	선인	2005
34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35	윤명철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SERI 연구에세이 32)	삼성경제연구소	2005
36	이덕일	장군과 제왕 1(대륙의 별 장군 고선지)	웅진지식하우스	2005
37	이덕일	장군과 제왕 2(중원의 고구려 제왕 이정기)	웅진지식하우스	2005
38	이명학 편역	옛 문헌 속 고구려 사람들	성균관대출판부	2005
39	이민홍	시법(시호 한 글자에 담긴 인물 평)	문자향	2005
4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민족사	2005
41	이성제	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	국학자료원	2005
42	이윤기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2005
43	이전	고조선과 고구려 -과연 우리 한민족의 역사인가?-	경상대출판부	2005
44	李殿福·孫玉良 저, 강인구·김영수 역	중국 학자가 쓴 고구려사	학연문화사	2005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 도
45	이종욱	고구려의 역사	김영사	2005
46	임채정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한 · 중 · 러 · 일 영토확장 현장-	동아일보사	2005
47	장세윤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48	장페이페이 저 · 김승일 역	한중관계사	범우	2005
49	장현덕	중국과 한국의 불교건축	빛과글	2005
50	정근재	그 많던 조선족은 어디로 갔을까	북인	2005
51	정연규	대한 상고사	한국문화사	2005
52	정욱	삼국유사(세계최초로 새롭게 번역된)	진한엠엔비	2005
53	조진선	세형동검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2005
54	朱建榮 저, 서각수 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55	최남희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56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57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연구	선문대출판부	2005
58	최장근	간도영토의 운명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틈새에서-	백산자료원	2005
59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고대도시와 왕권	서경문화사	2005
60	편집부 저 ·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 창	2005
61	편집부	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	백산자료원	2005
62	하정용	삼국유사 사료비판(학술총서55)	민족사	2005
63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 근현대사사전(증보판)	가람기획	2005
64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2005
65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66	한정섭 외	몽골제국과 한몽관계사	불교정신문화원	2005
67	현무와주작	중국을 물리친 고구려성	랜덤하우스중앙	2005
68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69	황민호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2005
70	KBS 원작 표정	고구려 천하의 중심을 선포하다(HD 역사스페셜 1)	효형출판	2005

◎ 논문

● 일반논문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	강경구	高句麗 復興運動의 新考察	『韓國上古史學報』47	韓國上古史學會	2005. 2
2	강경구	新羅의 浿西 地方과 前高麗 王朝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3	강석화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韓國史硏究』129	韓國史硏究會	2005. 6
4	강 선	書評 : 금경숙,『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韓國史硏究』128	韓國史硏究會	2005. 3
5	강인욱	알타이지역 투르크 문화의 형성과 고구려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6	강인욱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地域性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49	韓國上古史學會	2005. 8
7	강인욱 · 양시은 · Kolomiets, S.A.	연해주 한까호부근 청동기시대 ~ 중세 유적 지표조사 보고	『先史와 古代』22	韓國古代學會	2005. 6
8	耿鐵華	중국 호태왕비 연구의 현황과 추세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9	高寬敏	고구려의 編史사업과 백제 · 신라 · 왜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0	高明士	傳斯年도서관 소장 호태왕비 원석 탁본 乙本 完整本의 발견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1	고부자	고구려 古墳 壁畵의 騎馬武士服飾	『마사박물관지』2004	마사박물관, 과천	2005. 3,
12	공석구	대전 · 충남일대의 고구려유적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13	孔錫龜	安岳 3號墳의 幢에 대하여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14	金樂起	京畿 남부 지역 소재 高句麗 郡縣의 의미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15	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한국고대사연구』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12
16	金性泰	최근 보고된 고구려무기의 검토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17	金榮官	高句麗 東明王陵에 대한 認識變化와 東明王陵重修記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18	金王稙	고구려 국내성 발굴의 의의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19	金在善	契丹의 渤海遺民 移住政策의 要因	『新羅文化』26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2005. 8
20	金周成	6 ~ 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21	金昌錫	古代 領域 관념의 형성과 王土意識	『韓國史硏究』	韓國史硏究會	2005. 6
22	金希燦	국내성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 연구 -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23	김경록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	『韓國文化』35	大韓國文化硏究所	2005. 6
24	김구진	고구려의 북방계(시베리아) 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7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25	김대환	三國時代 陶枕 硏究 -高句麗 名文陶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71	白山學會	2005. 4
26	김미경	고구려 유리왕대 정치세력의 재편과 대외정책	『북방사논총』4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27	김수태	2세기말 3세기대 고구려의 왕실혼인 -취수혼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38	韓國古代史學會	2005. 6
28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29	김유리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30	김재윤	동북아시아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연구 -요서지방과 연해주 ~ 두만강유역의 비교 -	『북방사논총』 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31	김재홍	고구려의 철제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발전	『북방사논총』 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32	김종복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 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33	김종복	渤海 國號의 성립 배경과 의미	『韓國史硏究』 128	韓國史硏究會	2005. 3
34	김지영	7세기 고구려 對倭 관계의 변화 -630년을 기점으로-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연구회	2005. 9
35	김지훈 · 정영순	중국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인식	『史學硏究』 78	韓國史學會	2005. 6
36	金泰國	'만주국'에서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12
37	김희선	高句麗 長安城의 築城過程과 遷都의 背景	『역사문화연구』 22	韓國外國語大 歷史文化硏究所	2005. 6
38	노영돈	한 · 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2005. 4
39	文昌魯	고대사연구 60년의 동향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12
40	文昌魯	『三國志』 韓傳의 馬韓과 伯濟國 -마한의 역사적 실체와 백제국의 성장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27	國民大 韓國學硏究所	2005. 2
41	閔德植	高句麗城郭의 發掘調査 現況과 展望	『백산학보』 72	백산학회	2005. 8
42	朴京哲	高句麗 邊方의 擴大와 構造的 重層性	『韓國史學報』 19	高麗史學會 서	2005. 3
43	朴京哲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2005. 4
44	박경철	고조선 · 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	『북방사논총』 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45	朴今海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敎育政策 연구	『東方學志』 130	延世大 國學硏究院	2005. 6
46	박대재	고조선의 '왕'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47	박대재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韓國學報』 119	일지사	2005. 6
48	박미라	유교의 檀君 國祖論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28	韓國思想文化學會	2005. 3
49	박선미	전국 -진 · 한초 화폐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북방사논총』7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50	박선영	한국 국경획정의 과거와 현재 -유조선 간도협약 북중국비밀국경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4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51	박선주	인골을 통해 본 한 · 중동북부 민족적 특성	『韓國先史考古學報』 11	韓國先史考古學會	2005. 6
52	박성봉	동아시아사특히 한국사에서 광개토태왕비 연구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30
53	朴性鳳	중국 新刊 集安 등지 유적 보고서 연구 서설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54	朴承範	집안일대 고구려 왕릉의 제단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55	박양진	考古學에서 본 扶餘	『韓國古代史硏究』37	韓國古代史學會	2005. 3
56	박용운	왜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21	서해문집	2005. 9
57	박장배	현대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 배경	『역사와 현실』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58	朴長植	환도산성 및 한강유역 출토 철기에 나타난 고구려의 철기기술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59	박진석	고구려 國號考 -고구려와 구려 관계를 중심으로-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60	朴燦圭	集安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 자료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61	박찬흥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62	백승옥	辛卯年銘 청동 방울과 太王陵의 주인공	『역사와 경계』56	부산경남사학회	2005. 9
63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기와 製作方法 考察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64	백종오	최근 발견 경기지역 고구려 유적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며-	『북방사논총』7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65	복기대	馬城子文化에 관한 몇 가지 문제	『先史와 古代』22	韓國古代學會	2005. 6
66	濱田耕策	고구려의 異種族 통치 -4 · 5세기를 중심으로-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67	徐建新	고구려 호태왕비 초기 탁본에 관한 연구 -조기 묵본의 제작과 流傳1880～1888년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68	徐吉洙	오녀산성 · 국내성 · 환도산성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69	徐吉洙	오녀산성의 축성법에 관한 연구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70	서길수	유럽 학계의 광개토태왕비 조사와 연구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71	徐吉洙	중국의 역사왜곡 현장에 관한 사례 분석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72	徐炳國	好太王陵碑所載 永樂年號 使用匡正	『漢北史學』2	漢北史學會	2005. 2
73	서영교	고구려의 수렵습속과 유목민 -1～2세기 선비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74	서영수	고조선의 국가형성 계기와 과정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75	徐廷昊	高句麗와 百濟 建築文化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76	徐廷昊	集安 民主遺蹟 建物址의 性格에 관한 硏究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77	孫煥一	발해기와 명문의 서체	『高句麗硏究』19	高句麗硏究會	2005. 6
78	송계현	고구려의 신라구원과 가야와 왜의 무기체계 연구	『고구려연구』 21	고구려연구회	2005.12.30
79	송계현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	『북방사논총』3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80	宋基豪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硏究』37	韓國古代史學會	2005. 3
81	宋鎬晟	大凌河流域 殷周 靑銅禮器 사용 집단과 箕子朝鮮	『韓國古代史硏究』38	韓國古代史學會	2005. 6
82	송호정	扶餘의 國家形成 過程과 文化 基盤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83	신숙정	선사시대 지역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도시역사문화』3	역사박물관	2005. 2
84	신안식	高麗前期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18	한국중세사학회	2005. 4
85	신정훈	高句麗의 瑞祥物이 지닌 性格	『中央史學 -上岩金鎬逸敎授定年紀念特輯-』 21	韓國中央史學會	2005. 6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86	신주백	동북아에서 역사교과서 협력이 갖는 의미와 진로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6
87	신주백	한국근현대사에서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인식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3
88	신형식	고구려의 민족사적 위상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89	沈光注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90	심정보	고구려 장안성 축조시기에 대한 문제점 Ⅰ · Ⅱ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91	沈正輔	羅唐戰爭期 新羅의 北境意識	『新羅史學報』4	新羅史學會	2005. 8
92	심헌용	근대 조 · 러 국경획정과 영토 이주민 문제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93	安國承	漢北城域에 위치한 城郭에 대한 考察	『漢北史學』2	漢北史學會	2005. 2
94	안신원	靑銅器를 통해 본 韓 · 中關係	『韓國先史考古學報』 11	韓國先史考古學會	2005. 6
95	양시은	환인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양상과 성격	『북방사논총』3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96	양은경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 고대』23	한국고대학회	2005. 12
97	여호규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3
98	余昊奎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韓國古代史硏究』38	韓國古代史學會	2005. 6
99	余昊奎	高句麗 中期 官等制의 구조와 성립기반	『역사문화연구』특별호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5. 2
100	여호규	한 · 중 역사인식의 접점 -고구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기획하며-	『역사와 현실』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3
101	鈴木英夫	『광개토왕비문』과『帶方界』	『고구려연구』21	구려연구회	2005. 12
102	오강원	오녀산과 환인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사회	『북방사논총』3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103	吳圭烈	중국의 6 · 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軍史』55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2005. 6
104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認識의 변화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05	兪泰勇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자에 대한 一考	『高句麗硏究』20	高句麗硏究會	2005. 9
106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硏究』39	한국고대사학회	2005. 9
107	윤용구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3
108	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09	尹薰杓	朝鮮前期 北方開拓과 領土意識	『韓國史硏究』129	韓國史硏究會	2005. 6
110	윤휘탁	侵略과 抵抗의 사이에서 -日 · 中 갈등의 틈바귀에 낀 在滿朝鮮人-	『韓國史學報』19	高麗史學會	2005. 3
111	이강근	高句麗 八角形建物地에 대한 연구	『선사와 고대』23	한국고대학회	2005. 12
112	李康來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12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13	이기동	고구려의 세력권 遼東에 대한 지정학적 고찰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14	李基東	韓國民族史에서 본 夫餘	『韓國古代史研究』37	韓國古代史學會	2005. 3
115	李南奭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문화	『高句麗研究』20	高句麗研究會	2005. 9
116	이도학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과 동아시아 세계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17	李道學	高句麗와 百濟의 出系 認識 檢討	『高句麗研究』20	高句麗研究會	2005. 9
118	李道學	崔致遠의 高句麗 認識	『韓國思想史學』24	韓國思想史學會	2005. 6
119	李道學	太王陵과 將軍塚의 被葬者 問題 再論	『高句麗研究』19	高句麗研究會	2005. 6
120	李道學	漢城 沒落 以後 高句麗와 百濟의 關係 -耽羅와의 관계	『전통문화논총』3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여	2005. 6
121	이동진	1872년 '江北'의 조선인 사회: 『江北日記』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논총』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122	이병건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의 발해건축 연구현황 및 문제점 연구	『북방사논총』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123	이상협	조선 초기 북방사민과 토관제의 확대	『내일을 여는 역사』21	서해문집	2005. 9
124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對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25	이성환	을사조약과 간도문제	『白山學報』71	白山學會	2005. 4
126	이송란	고구려 집안지역 묘주도 의자의 계보와 전개	『선사와 고대』23	한국고대학회	2005. 12
127	이순근	고구려 역사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	『역사비평』70	역사문제연구소	2005. 2
128	이왕무	조선 후기 『강북일기』에 나타난 만주지역 인식	『북방사논총』4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129	이왕무	『아국여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러시아 영역 인식과 국경 상황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30	이욱	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韓國史學報』20	高麗史學會	2005. 7
131	이재성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충돌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32	李在勳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軍史』55	國防部 軍史編纂 研究所	2005. 6
133	이종수	고구려의 부여 진출과정 연구 -군사적 충돌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34	李鍾洙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Ⅱ -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2	韓國古代學會	2005. 6
135	이진영	1990년대 중국의 민족 및 소수민족 연구 경향에 대한 연구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136	이청규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137	이태진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분쟁을 넘어서	『韓國文化』35	韓國文化研究所	2005. 6
138	이판섭	三國時代 山城과 古代 交通路에 대한 고찰 -大田 北部圈의 大義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13	호서고고학회	2005. 10.
139	李孝珩	渤海의 멸망과 遺民의 諸樣相 -東丹國 관련 渤海遺民을 중심으로-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40	임석규	발해 소조불상의 성격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7	고구려연구재단	2005. 10
141	임효재	신석기시대의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교류 연구	『韓國先史考古學報』11	韓國先史考古學會	2005. 6
142	임효재	중국 환인현 오녀산 유적의 신석기 유물에 대하여 -주변 지역과 한반도와의 관련성-	『북방사논총』3 7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143	장보영	北魏 外交戰略과 軍事力의 한계 -北魏 東北經略상에서 보이는 外交秩序를 중심으로-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44	張彰恩	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關係와 政治變動	『史學硏究』78	韓國史學會 과천	2005. 6
145	田中俊明	中俊明 高句麗 長安城의 規模와 特徵 -條坊制를 中心으로-	『백산학보』72	백산학회	2005. 8
146	전호태	4～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문화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47	정광	書評 : Christopher I. Beckwith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2005. 6
148	정대영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시대 석관묘제와 장속의 지역성	『북방사논총』3	고구려연구재단	2005. 2
149	정영진	발해매장습속에 반영된 발해문화의 多源性	『백산학보』72 123～162쪽	백산학회	2005. 8
150	정호섭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유물의 현황과 과제	『북방사논총』4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151	조법종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23	한국고대학회	2005. 12
152	早乙女雅博	동경대학 소장 광개토왕비 탁본 -小拓紙에서 본 제작연대의 고찰-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153	趙二玉	8世紀 後半 渤海와 日本의 外交的 摩擦 -文王代 後期를 中心으로-	『白山學報』71	白山學會	2005. 4
154	趙二玉	茶山 丁若鏞의 渤海史認識	『東洋古典硏究』17	東洋古典硏究會	2002. 12
155	趙二玉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新羅文化』25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2005. 2
156	趙鎭先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47	韓國上古史學會	2005. 2
157	周采赫	高句麗의 始原領域 遊牧草地, 그 부르칸(不咸) 이즘과 한국축산의 비전	『白山學報』71	白山學會	2005. 4
158	최덕경	遼東犁를 통해 본 고대 동북지역의 농업환경과 경작방식 - 고구려 성장기반에 대한 농업사적 시론 -	『북방사논총』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159	崔峰龍	滿洲保民會의 活動과 그 性格 -만주에서의 濟愚教를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4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6
160	최장근	일본 대륙낭인의 간도문제 개입과정	『白山學報』71	白山學會	2005. 4
161	최종택	최근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韓國先史考古學報』11	韓國先史考古學會	2005. 6
162	秋明燁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硏究』129	韓國史硏究會	2005. 6
163	하문식	고조선의 무덤 연구 -중국 동북지역 고인돌과 동굴무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64	하종문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획정 문제에 대한 고찰 -포츠머스강화조약까지-	『북방사논총』4	고구려연구재단	2005. 4
165	한명기	17세기 초 · 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8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
166	한흥섭	고구려 문화전통과 거문고	『인문연구』48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6
167	P. N. Mohan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고구려 왕권과 정당성	『고구려연구』21	고구려연구회	2005. 12

● 학위논문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1	고혜경	러일전쟁에 대한 한 · 중 · 일 역사교과서 비교 분석: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모색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2005	석
2	권순진	경기지역 신라성곽 연구 : 한주를 중심으로	관동대	2005	석
3	김갑숙	한 · 중 · 일 중등 교과서의 임진왜란 관련 서술 분석	국민대	2005	석
4	김권중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 용암리 · 천전리 유적을 중심으로	단국대	2005	석
5	김재진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 분석	전남대	2005	석
6	김진한	5세기 말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漢城 공략	경북대	2005	석
7	김하림	1930년대 중국 지식인의 '아시아'상과 민족주의: 《신아세아》 · 《신동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2005	석
8	Natalia Dorovskaya	한국고대문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과 러시아의 학문적 교류	선문대	2005	석
9	박정옥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사형기사 검토	한국교원대	2005	석
10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단국대	2005	석
11	山本孝文	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	2005	박
12	시노하라 히로카타	高句麗的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4～5世紀를 中心으로-	고려대	2005	박
13	오천우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고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2005	석
14	윤진영	박지원이 인식한 청대 종교:『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2005	석
15	은종철	남 · 북한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서술 비교 : 『국사』와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2005	석
16	이경미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방정책	한국외국어대	2005	석
17	이기헌	중국의 역사 왜곡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 역사 교육에의 적용: 고구려 역사 왜곡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	2005	석
18	임정운	수 · 돌궐 · 고구려 3국의 관계와 수의 고구려 침공	고려대	2005	석
19	임진아	고려청자에 보이는 북송 · 요대 자기의 영향	홍익대	2005	석
20	장수남	3～4세기 백제의 대중관계의 변화: 낙랑 · 대방군의 소멸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2005	석
21	정신옥	고려 전반기 자기에 나타난 중국 북방 도자의 영향	이화여대	2005	석
22	정태은	삼국시대의 시루이용에 관한 시론: 한강유역 고구려 · 백제 주거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2005	석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신문/잡지**

● 신문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	2005.01.02.	경향신문	반크 "中 · 日 교과서 왜곡 막겠다"
2		경향신문	[베이징에서] 후진타오의 표정변화
3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1)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4		한겨레신문	동아시아 평화 제안, 함께쓰는 역사교과서
5	2005.01.05.	한겨레신문	삼국문화 '집합' 청주서 엿본다
6		한국일보	[경주] 고구려 기상 숨쉬는듯
7	2005.01.10.	한겨레신문	(31) 겨레사를 빛낸 유민의 원형, 고선지
8	2005.01.11.	국민일보	[문화산책-이도학] 국적 없는 국사 교과서
9	2005.01.12.	경향신문	[한국사 바로보기] 34. 온달과 평강공주
10	2005.01.13.	한국일보	[2005 문화전망] 〈5 · 끝 학술〉
11	2005.01.18.	경향신문	한 · 중 · 일 민족주의 접점 찾는다
12	2005.01.20.	세계일보	민간서 고구려우표도감 발간
13	2005.01.23.	세계일보	[학술]中, 대만역사도 '도둑질'했다
14	2005.01.24.	세계일보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
15	2005.01.25.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4) 양주 독바위와 도락산 보루
16		중앙일보	서길수 교수 "중 고구려사 왜곡은 현재진행형"
17		한국일보	中, 서우얼(首爾) 표기 시큰둥
18	2005.01.27.	서울신문	[씨줄날줄] 古천문학/이용원 논설위원
19		서울신문	中역사왜곡 고발
20		한국일보	발해해상로 뗏목 탐사 방의천 대장
21	2005.01.28.	한국일보	"제국의 뱃길 재현" 목숨건 도전
22	2005.02.01.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5)] 아차산과 용마산 보루
23	2005.02.02.	세계일보	[중국시장을 여는 사람들] 〈15〉 '오지중 오지' 위구르의 韓商들
24		한겨레신문	양주 불곡산 고구려보루 복원키로
25	2005.02.04.	한겨레신문	발해는 고구려 계승 "증거 보여주마"
26		한겨레신문	"중 고구려사 왜곡, 10년뒤 교과서 주목하라"
27	2005.02.06.	한국일보	[충북] 온달의 숨결 되살린다
28	2005.02.10.	한겨레신문	발해뗏목탐사대 출항 40여분만에 회항
29	2005.02.14.	경향신문	발해가 우리 민족史인 34가지 근거
30	2005.02.15.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6)] 구의동 유적과 몽촌토성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1		한국일보	광개토대왕, 새 화폐 모델 압도적 1위
32	2005.02.16.	경향신문	[한국사바로보기] 39. 간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
33	2005.02.17.	국민일보	[데스크 칼럼—문일] 외교의 敵
34	2005.02.22.	세계일보	[외국에서 보니]옛 고구려 영광 되살릴 길 없나
35	2005.02.13.	서울신문	[씨줄날줄] 발해와 일본
36		서울신문	"새 지폐 독도 · 광개토왕을"
37	2005.02.27.	동아일보	[역사교육 이대론 안된다]〈上〉학교서도 시험서도 외면
38	2005.02.28.	경향신문	[기자메모] 국사폐지 거꾸로 가는 '역사정책'
39		동아일보	[역사교육 이대론 안된다]〈中〉흔들리는 동북아 역사지도
40		한겨레신문	늠름하고 방대한 '고구려 바로 세우기'
41	2005.03.01	동아일보	[역사]韓-中-日 근대사 인식 거리 멀다
42		서울신문	[기고] 망언 · 망발과 역사전쟁
43	2005.03.02.	한국일보	韓 · 中 · 日 역사인식의 현 주소는…
44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세계 문화 유산 '고구려 유적'
45	2005.03.05.	중앙일보	'역사 왜곡 일본 새 교과서 채택 훨씬 늘어날 가능성'
46	2005.03.06.	국민일보	동북공정 연장선…중화패권 의도된 노림수…소수민족 독립 견제 의도
47		국민일보	[사설] 이러고도 중국은 일본을 비난하나
48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고구려 중요 史實까지 허물기 일관…시대별 변질내용
49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동북공정 연장선…중화패권 의도된 노림수
50		세계일보	"독도 · 고구려사 갈등 국제분쟁 불씨 가능성"
51		한국일보	교육부 '日 · 中역사왜곡' 적극 대처한다
52	2005.03.07.	경향신문	中 역사교과서 '한국사' 지웠다
53		경향신문	북한내 고구려 벽화고분, 남북학자 공동조사
54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고구려 삭제…발해는 당의 지방정부로
55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한국사 빼앗기 치밀한 역사도발"
56		동아일보	"평양 고구려고분 북한과 공동조사"
57		조선일보	고구려고분 남북 공동조사키로- 김정배이사장 '북과 합의'
58		프레시안	남-북, 中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공동대응키로
59		한국일보	'北과 평양일대 고분 공동조사'
60		한국일보	[사설] 멈추지 않는 중국의 한국사 왜곡
61	2005.03.08.	경향신문	[여적] 고구려 고분
62		국민일보	[사설] 빠를수록 좋은 남북 공동 역사연구
63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국내 학계 "고려사 거의 빼먹고 조선도 폄하" 반박
64		국민일보	"남북 함께 역사왜곡 바로잡겠다"…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65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발해 · 고려 · 조선 부문] 국내 학계 반박
66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러시아 학계선 "발해가 고구려 계승"
67		중앙일보	[분수대] 고구려 고분벽화
68		중앙일보	평양 고구려 고분 남북한 공동 조사 북한학자들 동의
69	2005.03.09.	국민일보	[중국 역사교과서 왜곡 — 대학 교재도 문제] "고구려도 中 소수 지방정권" 한술 더떠
70		서울신문	[사설] 고구려 고분 공동연구 기대 크다
71		세계일보	[사설]남북공동 역사연구에 거는 기대
72		세계일보	[공연]고대 예술혼의 부활
73	2005.03.10.	국민일보	[중국역사교과서 왜곡] '뒷북' 금물…동북공정 적극 대처를
74		국민일보	[중국역사교과서 왜곡] 中 교과서 바로잡기 시민단체가 나선다
75		한겨레신문	남북 '고구려 유적' 공동조사 합의
76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고분 벽화
77	2005.03.11.	서울신문	소설 속에 핀 소녀의 '고구려 혼'
78		조선일보	광복 60주년 10大사업 내달 확정
79	2005.03.12.	서울신문	[일본교과서 왜곡 파장] 점입가경 '우익 국수주의'
80	2005.03.14.	한국일보	동포 恨서린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건설
81	2005.03.15.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9)] 여전히 홀대받은 유적들
82		국민일보	국내 유적 보존 대책은
83	2005.03.17.	문화일보	단양군,'고구려' 되살린다
84		서울신문	[씨줄날줄] 남근형 백제 木簡
85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안악3호분의 '대행렬도'
86	2005.03.18.	오마이뉴스	유적과 전설이 가득한 아차산에 오르다
87	2005.03.19.	서울신문	[儒林 속 한자이야기] (63)
88	2005.03.21.	경향신문	[시론] 두개의 세계질서와 한국
89		세계일보	[공연]광개토대왕을 위한 아리아
90	2005.03.22.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10 · 끝)] "北 – 中에 있는 유물 심각"
91		국민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는 지금 (10 · 끝)] 주먹구구식 보존 – 해체…'반짝 관심' 도 문제
92		국민일보	고구려 유적 정부차원 첫 학술조사
93	2005.03.23.	문화일보	北 국보급 문화재 中서 떠돈다
94	2005.03.24.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묘지 – 무덤 주인에 관한 기록
95		강원일보	[문화계단신]창작오페라 '아 고구려…'
96	2005.03.28.	국민일보	[사설] 북한 문화재 유출에 남북 공동대처를
97		조선일보	"고구려의 기상 만나보세요" 국립광주박물관, 오늘부터 '고분벽화 특별전'
98		헤럴드경제	'고구려 역사 문화 마케팅 시급'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99	2005.03.29.	경향신문	[송영승칼럼] 동북아 격랑, 盧+5者
10		국민일보	[팔려다니는 북한 문화재 (2)] '족보' 없이 마구잡이 밀거래
101		동아일보	[학술]'고구려사 논쟁' 국제 무대로
102		동아일보	[격랑의 東北亞]〈上〉불안한 세력균형
103		동아일보	[사설]反日하는 중국, 고구려사 易地思之해야
104		동아일보	[오페라]오페라 '아 고구려…' 작곡 나인용 연대 명예교수
105		한국일보	[사설] 국사교육 그동안 홀대했다
106	2005.03.30.	동아일보	[학술]'고구려사 논쟁' 국제 무대로
107		세계일보	[문화]고구려 정궁 "안학궁" 입체영상 복원
108	2005.03.31.	경향신문	[정동칼럼] 역사전쟁, 잃어버린 10년
109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덕흥리 고분 벽화
110	2005.04.02.	서울신문	[열린세상]'작지만 당당하게 강한 나라'의 역설
112	2005.04.04.	브레이크뉴스	'조선 역사 4천년 이래 최고의 영웅이다'
113	2005.04.05.	한겨레신문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
114	2005.04.06.	동아일보	[학술]韓-中학자 美서 '고구려史' 또 격돌
115		조선일보	'이상한' 5세기 고구려 강역지도
116		조선일보	하버드대서 고구려 관련 대규모 국제 학술회의
117		노컷뉴스	대구서부도서관, '책으로 찾아가는 고구려여행' 등 행사
118	2005.04.07.	서울신문	[종교플러스] 9일 가산사서 '고구려 천제'
119		서울신문	"발해인 스스로 고구려 계승국 인정"
120		서울신문	"만주 고대사는 쥬신족의 역사"
121		한겨레신문	WSJ "한-중 반일시위, 동북아 세력판도 변화 반영"
122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안악 2호분
123		아이뉴스	남북 청소년 고구려 게임대회 추진...정동영 통일부 장관
124	2005.04.08.	서울신문	[씨줄날줄] 대방군(帶方郡)
125	2005.04.10.	경향신문	[기고] '中의 추월' 체계적 대책 시급
126	2005.04.11.	경향신문	'고구려 벽화 보존' 남북 공동작업 합의
127		세계일보	광개토왕비보다 150년 앞선 '고구려벽비'
128		한국일보	고구려 무덤 壁碑 의미와 파장
129		한국일보	3세기 고구려 동천왕때 벽비 공개
130	2005.04.12.	문화일보	동천왕십일년명 벽비 · 흙베개 등 고구려 희귀 유물 첫 전시
131		서울신문	[씨줄날줄] 中 반일시위
132		서울신문	광개토대왕비보다 앞선 3세기 고구려碑 공개
133		한국일보	[발언] '고려인 자치주' 명칭 우려는 기우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34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韓中日, 이젠 좀 진정하자
135	2005.04.13.	한겨레신문	호우총 호우가 고구려의 신라영토 진주 입증?
136	2005.04.14.	경향신문	[릴레이 기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말한다 ⑦독도
137		서울신문	고구려 · 고려 국보급유물 10점 선봬
138		한겨레신문	토지박물관 특별전
139		한겨레신문	서울 역사 · 문화 제대로 알아볼까
140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안악 1호분 벽화
141		소년한국일보	'국사교육 대폭 강화하라' 합창
142		소년한국일보	[대정부질문] 역사 · 영토주권
143	2005.04.15.	서울신문	[씨줄날줄] 고구려碑/이용원 논설위원
144		브레이크뉴스	'전국 1만개의 미니반크 만들 때까지 싸우겠다'
145	2005.04.17.	경향신문	[사설] 중 · 일간 민족주의 대결을 우려한다
146	2005.04.20.	동아일보	고구려유물 5점 고국 나들이… 日 와코大소장 기와류
147	2005.04.21.	동아일보	고구려 벽화는 日벽화의 뿌리… 7세기 다카마쓰즈카에 영향
148		서울신문	"역사왜곡 민간차원 대응이 효과적"
149		세계일보	'교포 2-3세들에 우리역사 바로 알려야'
149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약수리 고분
150		소년한국일보	'고구려벽화 日에 영향' 증거 확인
151	2005.04.22.	문화일보	日 다카마쓰카 벽화 고구려서 영향
152	2005.04.23.	동아일보	[고구려 특별전]고구려 대표하는 국보급 다수 첫선
153		동아일보	'고구려'가 서울 왔다…北유물 60점 특별전
154		서울신문	[씨줄날줄] 다카마쓰塚/이용원 논설위원
155	2005.04.25.	동아일보	최광식 교수 "中역사왜곡 공동대응 하자 北설득"
156	2005.04.26.	동아일보	[횡설수설/홍찬식]서울에 온 '고구려'
157		동아일보	[수도권]아차산 홍련봉 제2보루 고구려 유적 발굴 착수
158		동아일보	모습 드러낸 北평양출토 고구려 금동장식 황홀한 광채
159	2005.04.27.	국민일보	[전문가 시각—김경웅] 남북의'아름다운 동행'
160		동아일보	광개토대왕비 原石탁본 '청명본' 첫선
161	2005.04.28.	동아일보	[금요칼럼/현인택]韓中日 3국, 공존의 해법 찾아야
162		서울신문	[백승종의 정감록 산책] (16) 정감록, 언제 누가 썼나
163		서울신문	[학술 · 종교플러스] '고구려문화의 원류와 한강무역' 심포지엄
164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각저총 벽화
165	2005.05.01.	경향신문	[시론] 셰익스피어와 제국주의
166		동아일보	서울서 만나는 고구려 〈1〉 기마모형과 사신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67	2005.05.02.	동아일보	[서울서 만나는 고구려]〈2〉명문금동판
168		세계일보	남북 게임대회 8 · 15 개최추진
169		한겨레신문	동서 문명 교역로 실크로드
170		오마이뉴스	남북 청소년 함께 하는 '게임대회' 열릴까
171	2005.05.03.	경향신문	"발해 역사 · 문화 디지털로 복원"
172		경향신문	中 헤이룽장성 발해유적지 복원현장을 가다
173		동아일보	명문금동판'…왕을 '天孫'이라 칭한 佛家의 추도문
174		동아일보	서울서 만나는 고구려 〈3〉 불꽃뚫음무늬금동관
175		문화일보	남 · 북 청소년 240명 '고구려지키기' 게임
176	2005.05.04.	서울신문	[김홍신의 세상보기] 우리 역사의 아픔
177		세계일보	[경주]신라 금관, 고구려 · 백제로 '행차'
178		한국일보	[한 · 일 관계사 새로보기] 동이(2)
179		대전일보	충주 고구려학술대회 7일 개최
180	2005.05.05.	동아일보	[서울서 만나는 고구려]〈4〉 시루
181		동아일보	[서울서 만나는 고구려]〈5 · 끝〉 마구
182		동아일보	[학술]高大박물관,개교 100주년 기념 6,7일 국제 심포지엄
183		한겨레신문	7월10일까지 '고구려대축제' 펼치는 서해성 총감독
184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무용총
185	2005.05.07.	동아일보	채금석 숙명여대 교수 고구려 복식문화전
186	2005.05.08.	동아일보	"아! 고구려"…고려대 개교 100주년 특별전 개막
187	2005.05.09.	한국일보	'고구려 복식문화'전 여는 숙명여대 채금석교수
188	2005.05.10.	경향신문	정운찬총장 외교 · 교육정책 비판 발언 논란
189		국민일보	[문화산책—이도학] 임존城 가는 길의 단상
190		문화일보	유물에 비친 '대제국의 혼'
191	2005.05.11.	동아일보	이창재교수 고구려건국신화 논문…주몽은 마마보이型
192		한겨레신문	동북아 역사분쟁 중장기 전략 세워야
193		한국일보	고구려 남 · 북이 함께 지키자
194	2005.05.12.	서울신문	[학술 · 종교플러스] 고조선 · 고구려 문화기행 선착순 모집
195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무용총 천장 그림
196	2005.05.13.	동아일보	[문화재]출토된 악기유물 복원 20일 국악원서 시연회
197	2005.05.14.	강원일보	고려대 최종택교수 초청 14일 토요문화강좌 개최
198	2005.05.15.	매일경제	[이색투어] 중국 · 지안(集安) 고구려 역사의 현장 속으로
199	2005.05.17.	한겨레신문	〔창간특집〕 미 · 일 · 중 · 러 연속대담 '동북아를 묻는다'
200	2005.05.18.	국밍일보	[에세이—신혜영] 블록버스터보다 감동을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1	2005.05.19.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수산리 고분 벽화
202	2005.05.20.	경향신문	'한민족 역사 페스티벌' 개막 · · · 22일까지 콘서트 등 다채
203		한겨레신문	새단장 박물관들 풍성한 기획전
204	2005.05.21.	서울신문	[열린세상] 중국의 패권주의
205	2005.05.22.	소년한국일보	언제… 누가… 어떻게… '역사 왜곡' 주제 전시회 잇달아
206	2005.05.23.	경향신문	"역사 '과목'아닌 '교과'로 독립을"
207	2005.05.24.	국민일보	[문화산책—이도학] 사랑이 많은 우리 역사
208		한국일보	"광개토대왕비 碑文변조"
209	2005.05.25.	국민일보	[서울국제문학포럼] 모옌(중국)
210		한겨레신문	"일 광개토대왕비문 이렇게 조작했다"
211	2005.05.26.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용강대총
212		소년한국일보	[한 · 일 관계사 새로보기] 왜(倭) (1)
213	2005.05.30.	서울신문	[열린세상] 역사교과가 독립해야 할 이유/이영호 인하대 한국사 교수
214	2005.06.01.	한국일보	[문화 단신] '고구려와 백제' 주제 학술회
215	2005.06.02.	중앙일보	전문가, "中동북공정은 남북 공동의 문제"
216		한겨레신문	전문가 "중국 동북공정은 남북 공동의 문제"
21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쌍영총
218	2005.06.03.	세계일보	고구려역사 재정립 · 왜곡대응 세미나
219	2005.06.07.	오마이뉴스	고구려연구재단, 북방사 자료 일반인 열람 허용
220	2005.06.08.	동아일보	[역사]"고구려史 한중일 시각 비교해 보세요"
221	2005.06.09.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통구 12호분
222	2005.06.10.	경향신문	"지금의 한국사학은 後식민사학"
223		한겨레신문	'돈황문서' 고구려사료 첫 발견
224	2005.06.11.	동아일보	"제천행사 무천은 고조선 풍속"…기존 '동예' 이론과 배치
225	2005.06.14.	경향신문	"고구려 벽화 프레스코기법 사용"
226		문화일보	고구려연구재단 1주년 北方史 자료센터 열어
227	2005.06.16.	한겨레신문	발해유물, 당당히 전시관 '한지리' 차지
228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동명왕릉
229		한국일보	발해유물 쉽게 접한다
230	2005.06.17.	동아일보	高大 개교 100주년 고구려 유물특별전
231		스타뉴스	창작뮤지컬 '수천', 7월7일부터 공연
232	2005.06.19.	경향신문	중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김한규교수 '천하국가'
233		한국일보	北 고구려 고분 · 벽화 본래모습 잃어간다
234		한국일보	"다른 고구려 유산 · 고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35	2005.06.20.	동아일보	北 고구려 고분벽화 훼손 심각 …유네스코 조사
236	2005.06.22.	세계일보	'56개 민족의 뿌리는 하나'라는 중국 '중화민족론'은 조작됐다
23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장천 1호분 벽화
238	2005.06.24.	강원일보	[원주]"연개소문 뿌리찾기 움직임"
239	2005.06.29.	경향신문	[인사이드 월드] 中 역사왜곡 지금도 진행중
240	2005.07.06.	세계일보	KBS1 '역사스페셜', 수촌리유적 금동신발 발뼈 주인은?
241	2005.07.07.	동아일보	토지박물관, 382년 제작 아도화상 묘지함 추정 유물 공개
242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덕화리 1 · 2호분 벽화①
243	2005.07.12.	서울신문	[수도권플러스] 광진구, 고구려 유적지 조성 본격 추진
244	2005.07.13.	한국일보	[고지도 특별전] 간도 · 독도…고지도 보니 한국영토
245	2005.07.14.	문화일보	고구려박물관 유치 '줄다리기'
246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덕화리 1 · 2호분 벽화②
247		브레이크뉴스	고구려 '국내성', 중국인 아파트 속 방치
248		한국일보	[한 · 일 관계사 새로보기] 한민족(1)
249	2005.07.15.	경향신문	남북 평양 고구려유적 첫 공동조사
250		세계일보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251		한겨레신문	남북고구려 유적 공동조사 착수
252		한국일보	남북공동 첫 고구려유적 학술조사
253		오마이뉴스	북한, '밀봉된 벽화고분' 1점 최초 공개
254	2005.07.16.	동아일보	南北,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첫 공동조사
255	2005.07.19.	문화일보	南北 평양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256		서울신문	[사진으로 본 전통의 숨결] (2)활과 화살
25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호남리 사신총의 사신도
258		소년한국일보	서울에 온 북한 국보 해뚫음무늬금동장식
259	2005.07.20.	경향신문	고구려인 '일상과 死後' 한눈에
260		서울신문	서울에 온 北고구려유물
261		한국일보	[충북] 충주에 펼쳐질 '三國문화'
262	2005.07.25.	경향신문	석기~통일신라 '문화의 백미' 한눈에
263	2005.07.26.	조선일보	자기네 역사라고 우길땐 언제고… 중국, 고구려 유적 방치
264	2005.07.28.	조선일보	'잊혀진 발해 찾으러 갑니다'
265	2005.07.29.	문화일보	"고구려는 조선인 것 아니다"
266		문화일보	中 지린성 용담산성 안내판서 역사왜곡
267		세계일보	[설왕설래]고구려인은 중국인(?)
268		조선일보	'고구려는 한족이 세운 국가'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69		중앙일보	中 지린성에 '고구려는 한족이 세운 국가' 간판 등장
270		스포츠한국	[채널선택] 고구려 장수왕 남진 외교전략
271	2005.07.30.	서울신문	[열린세상] 국내성의 두 얼굴/이덕일 역사평론가
272	2005.08.01.	중앙일보	[알림] '고구려 지킴이' 무료 역사탐방 이벤트
273	2005.08.02.	조선일보	[독자칼럼]한 · 중 · 일 역사갈등, 어떻게 풀까
274		한겨레신문	"광개토왕비는 신도비, 태왕릉은 고국양왕릉"
275		한국신문	中, 고구려史 왜곡 공식화
276		한국일보	[고구려 유적] 〈上〉 中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277	2005.08.03.	경향신문	백두산 정계비 터 위치 첫 확인
278		한국일보	고구려硏 백두산정계비 위치 확인
279	2005.08.04.	동아일보	백두산 정계비 받침돌 남한 학자들 처음 확인
280		문화일보	조선 · 청 정계비 받침돌 확인
281		서울신문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은 토문강"
282		조선일보	'조 · 중 경계 = 토문강' 확인
283		중앙일보	백두산 정계비 터에 표석만… 고구려연구재단 첫 확인
284	2005.08.05.	중앙일보	中조선족들 '백두산 돌려달라' 호소
285		부산일보	[뉴스클릭] 거제문화예술관 '고구려 역사전'
286	2005.08.08.	경향신문	[문화단신] 간도학회 학회지 창간 外
287		한겨레신문	연해주 발해고분서 장신구류 다량 출토
288	2005.08.09.	국민일보	[현장기자 – 이지현] 아! 고구려
289		조선일보	"발해사 '디지털 콘텐츠'로 본다"
290	2005.08.11.	동아일보	[신음하는 고구려]'고구려'가 中國서 두 번 운다
291		동아일보	[신음하는 고구려]中 리안-랴오양-환런 유적지를 가다
292	2005.08.12.	세계일보	[시론]중 고구려사 왜곡 막을 길은?
293	2005.08.15.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 〈1〉고분벽화 장식무늬의 암호 풀다
294	2005.08.17.	오마이뉴스	아차산에서 고구려 가마터 추정 유물 발견
295	2005.08.18.	강원일보	[언중언]'수박도(手搏道)'
296	2005.08.20.	한겨레	북한, 고구려고분 일본 언론에 이례적 첫 개방
297	2005.08.22.	한겨레	고구려연구회, '축성법 · 와당' 학술발표회
298		대전일보	고구려 무용총 재현
299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2〉금속조각품 속의 靈氣무늬
300	2005.08.23.	경향신문	정부 '간도는 한국땅' 문서 공개 '미적'
301		세계일보	고구려 무용총 원형재현…독립기념관서 일반공개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02	2005.08.25.	국민일보	발해 온돌 유적 연해주서 첫 발굴 [연해주 발해 온돌 발굴] “발해는 고구려 후예”입증
303		세계일보	천년만에 햇빛 본 발해 유물
304		조선일보	발해 최대 온돌유적 러 연해주서 나와
305		오마이뉴스	최대 크기 ‘발해 온돌’ 유적 발굴됐다
306		오마이뉴스	발해와 일본 교역의 중심지 ‘크라스키노’
307	2005.08.26.	경향신문	[시론] 동북3성 경제부흥 공정
308		동아일보	발해 최대 온돌유적 연해주서 발견
309		서울신문	발해 ‘고구려 계승’ 중요 근거
310		세계일보	[설왕설래]간도와 토문강
311		부산일보	발해 온돌유적 연해주서 발굴
312	2005.08.28.	국민일보	발해 온돌 발굴 ‘발해 삼총사’…“발해 유적 일 · 러 · 중국도 눈독 ”
313	2005.08.29.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3〉무령왕의 왕관에 깃든 靈氣무늬의 비밀
314	2005.08.30.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km] 1. 유민의 길, 생존의 길 – 인천서 선양까지
315	2005.08.31.	한국일보	[中 고구려사 왜곡 현장을 가다] 〈상〉 지안시박물관
316		조선일보	고구려=한족(漢族)국가 주장 용담산성 안내판
317		한국일보	[中 박물관서 본 고구려사 왜곡] 〈하〉 오녀산성 사적 진열관
318	2005.09.04.	세계일보	“간도는 명확히 우리 땅입니다”
319		세계일보	“잃어버린 땅 간도 반드시 되찾아야”
320	2005.09.05.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4〉황남대총 금동제 말안장의 용무늬
321	2005.09.07.	세계일보	“고구려인의 눈으로 고구려사를 보아야”
322		한국일보	“발해는 우리 역사가 아니다”
323		조선일보	연해주 북옥저 유적 온돌 9기 발굴
324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진파리 1호분의 벽화
325	2005.09.09.	서울신문	[정치플러스] 남북 고구려유물 공동조사 추진
326		세계일보	‘한강유역 2000년 발자취 재조명’ 학술대회
327	2005.09.11.	문화일보	“고구려史는 민족주의로 과장 · 왜곡”
328		조선일보	[기자수첩] ‘주제’ 모르는 특위
329	2005.09.12.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5〉신라금관의 비췻빛 曲玉
330		서울신문	남북 고구려미술품 獨서 ‘랑데부’
331		서울신문	사극신천지 고대사가 밀려온다
332	2005.09.13.	문화일보	고구려미술 ‘독일 나들이’
333		조선일보	[시각] 신설 ‘동북아역사재단’ 논란
334	2005.09.15.	한겨레신문	한 · 중 · 일은 고구려역사 정치에 이용 말라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35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진파리 4호분
336		한국일보	日 나라 간가쿠寺터에서 6세기 한반도 유적 발견
337	2005.09.16.	문화일보	〈오후여담〉 바보 온달
338		서울신문	日 절터서 한반도식 연못 · 도로유적 발견
339	2005.09.21.	경향신문	국사학계 재야사학에 귀 기울여
340		경향신문	소설 '율려', 설화 · 역사 토대 '발해의 혼' 찾기
341		동아일보	中, 역사왜곡 넘어 '文明 훔치기' 시도
342		서울신문	남북 고구려미술품 獨서 '랑데부'
343		중앙일보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⑩국제] 99. 차이나 신드롬
344	2005.09.22.	서울신문	[백승종의 정감록 산책] (37) '고구려비기' 에서 만난 '정감록'
345	2005.09.23.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통구사신총
346		한국일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학술회의
347	2005.09.25.	경향신문	[기자메모] 韓 · 中 우호의 그늘 '고구려史'
348		국민일보	[화제의 전시] 경희대박물관 고구려 와당전
349		조선일보	[발언대] 크라스키노, 동북아 '역사전쟁'의 현장
350	2005.09.26.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6〉국보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신비
351		세계일보	내달 2일부터 베를린 "아태주간" 열려
352		한국일보	러시아 극동大, 발해연구소 세운다
353	2005.09.27.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2. 옛 자취를 찾아 -선양에서 베이징까지
354	2005.09.28.	한겨레신문	나-당 연합
355	2005.09.29.	서울신문	[백승종의 정감록 산책] (38) 천문은 '정감록'의 기둥
356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km] 3. 천년 고도, 비단길 출발점 -시안
35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오회분 5호묘
358		한겨레신문	남북 학자들이 함께 고조선 연구서 펴냈다
359	2005.10.02.	한국일보	[개천절 특집] 北 "단군릉 실재" 南 "글세"
360		한국일보	신돈이 지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할 일
361		한국일보	[개천절 특집] "中, 고조선에 문화 이식" 왜곡
362	2005.10.05.	경향신문	[창간59주년] 단일민족 국가, 그 빛과 그늘
363	.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7〉'귀면와' 아니라 '龍面瓦'
364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4. 애환의 비단길 -시안~란저우
365	2005.10.06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26〉 오회분 4호묘
366	2005.10.07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5. 동서 교통 요충지 -우웨이 · 장예
367		서울경제	[토요산책] 中國의 역사관
368	2005.10.08.	문화일보	〈배문성의 인물산책〉"한국美 원형 고구려 미술품에 숨어있어요"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69	2005.10.09.	경향신문	[사람속으로] 역사소설 집필하는 김홍신 前의원
370	2005.10.10.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8〉고려-조선시대 사찰 건축
371		동아일보	"고조선 건국당시 한반도 북쪽에 韓族 살고 있었다"
372		중앙일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 부분 삭제"
373		매일신문	신라 와당 특별전
374	2005.10.11.	조선일보	中지린성 옌볜자치구 교과서 한국 前근대사 아예 삭제
375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6. 만리장성 서쪽 끝 - 장예~자위관
376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강서중묘
377		매일신문	홍익정신 새롭게 부활시켜야
378	2005.10.14.	중앙신문	[고선지 루트 1만 km] 7. 비단길 중심, 사막길 - 둔황
379	2005.10.15.	서울신문	[열린세상] 역사 속의 리더십
380	2005.10.17.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9〉고려불화의 비밀은 옷에
381		조선일보	아! 고구려… 1300년전 唐나라에 끌려간 망국의 원혼들
382		한겨레신문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과 통합 반대"
383	2005.10.18.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8. 서역 가는 관문 - 투루판
384	2005.10.19.	동아일보	中 개정판 실험교과서 한국사 완전삭제…'2차 역사大戰 조짐'
385		서울신문	[씨줄날줄] 천남생의 무덤/이용원 논설위원
386		조선일보	[이덕일사랑]연개소문과 다섯 자루의 칼
387		한겨레신문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흡수 통합
388	2005.10.20.	세계일보	교육부 산하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과 통합키로
389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9. 사막과 초원 갈림길 - 우루무치
390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강서대묘
391	2005.10.23.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젖줄, 한강을 찾아] 탄금호
392	2005.10.24.	경향신문	알림] 동아시아 영토문제 국제학술회의 外
393		동아일보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10 · 끝〉미황사 11.7m 괘불탱
394	2005.10.25.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0. 험준한 산악, 서역 통로 : 우루무치~쿠얼러
395	2005.10.26.	한국일보	中 지안서 발굴된 유적통해 고구려 미술문화 재조명
396	2005.10.2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오녀산성
397	2005.10.28.	중앙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1. 군사요충지 : 쿠차~카스
398	2005.10.31.	조선일보	가장 오래된 광개토대왕碑 사진
399		한겨레신문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와서 - 강우방
400		한국일보	'最古 광개토왕비 墨本' 학계 주목
401	2005.11.01.	경향신문	만주대륙 말달리던 항일독립투쟁 조명
402		세계일보	서구학계 일찍부터 고구려 韓國史로 인식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403		조선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2. 동서 갈림길 : 카스~키르기스스탄
404	2005.11.02.	동아일보	[문화재]조작설 등 해석 분분한 광개토대왕비 비문
405		문화일보	대학서 잠자던 古유물 빛본다
406		서울신문	"고구려 역사" 바로 알리기 잇따라
407	2005.11.03.	한겨레신문	재량활동 시간에 한국사 교육을
408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국내성
409	2005.11.04.	조선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3. 탈라스 대평원서 '통한의 눈물' 뿌리다
410	2005.11.06.	한국일보	[공부야 놀자] 장하다, 우리 삼국!(전 3권)
411	2005.11.08.	조선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4. 1300년 전 벽화에 앗! 고구려인이…
412	2005.11.09.	국민일보	부시, 韓 · 中 · 日 정상 '歷史대화' 촉구
413		문화일보	[기고] 동북공정 · 다케시마에 맞서는 '개화공정'
414	2005.11.10.	조선일보	[고선지 루트 1만 km] 15. "고구려 후예여, 그를 기억하라"(끝)
415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환도산성
416	2005.11.14.	서울신문	북한 국보 1호는? 평양성
417	2005.11.16.	한겨레신문	고구려 벽화에 별자리가 있다?
418	2005.11.17.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광개토 대왕릉비
419	2005.11.22.	조선일보	北 최근 발굴된 유물 전시
420	2005.11.23.	문화일보	[씨줄날줄] 부아악(負兒嶽)
421		대전일보	고구려 벽화에 별자리가 있다?
422	2005.11.24.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칠성산 871호 · 천추총
423	2005.11.27.	조선일보	[북, 유네스코와 긴밀관계 유지]
424	2005.11.29.	경향신문	고구려 방앗간 유적 첫 발굴
425		서울신문	"우리민족 고대철학엔 자연 · 우주의 원리 담겨"
426		세계일보	고구려 방앗간 첫 발굴
427		한겨레신문	"고구려 유민이 중국 역사 바꿀 뻔했다"
428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태왕릉 · 장군총
429	2005.12.04.	중앙일보	[숫자로 본 北단군릉]
430	2005.12.05.	중앙일보	묘산봉에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
431	2005.12.06.	세계일보	'고구려는 야만족?'…해외 게임물도 한국역사 왜곡
432	2005.12.07.	세계일보	[세계포럼]한 · 중 · 일 역사전쟁, 구경만 할건가
433	2005.12.08.	경향신문	[사설] 고구려사 '구두양해' 제대로 이행돼야
434		소년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도성 유적지
435	2005.12.09.	한겨레신문	"구들문화가 '발해는 우리땅' 입증"
436	2005.12.11.	한국일보	[지평선] 온돌문화〈이충재〉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437	2005.12.13.	조선일보	中, 고구려史 왜곡 '심하네'
438		내일신문	동북아역사재단 '용두사미'
439		대전일보	韓-中, 고구려 혼 잇는다
440	2005.12.14.	국민일보	고교 '국사+세계사' 통합 역사과목 생긴다… 교육과정평가원 2009년부터
441	2005.12.15.	한국일보	[민족의 혼, 고구려 여행] 고구려 성
442	2005.12.18.	세계일보	[설왕설래] 'Refugee(난민)'
443	2005.12.19.	세계일보	만주 호령했던 기상 충천…고구려 천리장성을 가다
444		한겨레신문	'서역정벌의 영웅' 고선지 장군 유적은 어디에…

● 잡지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1	2005.03.18.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일촉즉발! 한·중·일 역사교과서 전쟁
2	2005.03.21.	미디어오늘	"한국사 왜곡, 중국도 심각한 상황"
3	2005.04.29.	뉴스메이커	[포커스]"17세기 연해주는 조선땅이었다"
4	2005.05.04.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동이(2)
5	2005.06.26.	뉴스메이커	[국학이야기]단군은 신화가 아니다
6	2005.06.27.	주간조선	[역사속의 오늘] 안시성 싸움 外
7	2005.07.06.	주간한국	[문화가 산책] 순수 한국뮤지컬 〈수천〉
8	2005.07.22.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한민족(2)
9	2005.07.29.	주간한국	[한·일관계사 새로보기] 한민족(3)
10	2005.08.16.	뉴스메이커	[포커스]역사 속 기록 현실이 되다
11	2005.08.23.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가야(1)
12	2005.09.13.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가야(4)
13	2005.09.26.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가야(5)
14	2005.11.21.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칠지도
15	2005.12.13.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광개토왕비
16	2005.12.13.	주간한국	[한·일 관계사 새로보기] 광개토왕비
17	2005.12.19.	주간한국	[어제와 오늘] 최태영의 '한국고대사를 생각한다'

◎ 방송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1	2005.01.01.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1편 뼈아픈 패전을 딛고 일어선 동천왕
2	2005.01.08.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편 왕권강화의 희생양-임금의 형제들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3	2005.01.15.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편 국상 창조리, 봉상왕을 폐하다
4	2005.01.2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편 대를 이은 적수, 모용 선비족
5	2005.01.2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편 비운의 임금 고국원왕
6	2005.02.05.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편 소수림왕, 불교를 받아들이다
7	2005.02.1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편 고국양왕, 영웅탄생의 기반을 닦다
8	2005.02.1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편 광개토왕릉비가 거기 있었다
9	2005.02.2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편 광개토왕, 대제국 건설에 나서다
10	2005.03.05.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편 위기일발의 신라를 구한 광개토왕
11	2005.03.07.	연합뉴스	고구려연구재단, 北고분벽화 공동조사 추진
12		YTN	고구려연구재단, 북 고분벽화 공동조사 추진
13	2005.03.1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편 장수왕,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14	2005.03.1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편 등거리 자주외교의 실천가, 장수왕
15	2005.03.2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편 장수왕의 한성공략과 승려 첩자 도림
16	2005.03.29.	연합뉴스	美하버드대, 고구려사 국제학술회의
17	2005.03.31.	연합뉴스	[문화재청] 남한내 고구려유적 정밀지표조사 착수
18	2005.04.01.	연합뉴스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고구려사람들' 제작추진
19	2005.04.0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4편 고구려 전성기의 마지막 임금, 문자왕
20	2005.04.06.	연합뉴스	하버드대서 고구려 관련 대규모 국제 학술회의
21	2005.04.07.	연합뉴스	〈연합시론〉 역사 교육 강화 서둘러야
22	2005.04.0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5편 왕권의 약화, 그리고 권력다툼
23	2005.04.11.	연합뉴스	〈한국토지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24		연합뉴스	남북 '고구려벽화 보존사업' 공동실시
25	2005.04.12.	YTN	'서울역사문화유적 탐방교실' 운영
26	2005.04.15.	연합뉴스	박진호씨, 고구려 안학궁 3D 영상 복원
27		연합뉴스	마산시, 중국내 고구려 문화유산 사진 특별전 개최
28	2005.04.1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편 한강 유역 상실, 그리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29	2005.04.18.	YTN	3D로 되살린 고구려의 기백!
30	2005.04.20.	연합뉴스	'동서고속도 노선 사적지 우회를'
31	2005.04.21.	연합뉴스	고구려 쌍영총 벽화 밑그림은 백색 납안료
32	2005.04.23.	연합뉴스	〈마산박물관에서 고구려 사진전〉
33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편 수문제의 30만 출병, 그 패전의 진실
34	2005.04.26.	연합뉴스	고구려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회
35		연합뉴스	〈북한상식〉 평양 청암동城
36		연합뉴스	아차산 홍련봉 2보루 유적도 발굴
37		연합뉴스	평안남도, 고구려 벽화고분 정비
38	2005.04.30.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편 수양제, 2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치다
39	2005.05.06.	연합뉴스	북한 송죽리 · 태성리 고구려고분 발굴성과 공개
41	2005.05.08.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편 을지문덕, 수나라 30만 대군을 섬멸하다
42	2005.05.11.	연합뉴스	〈노대통령 '古都' 사마르칸트 시찰〉
43	2005.05.15.	연합뉴스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 특별전
44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편 고구려의 마지막 적수 당나라의 등장
45	2005.05.2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편 연개소문, 영웅인가 난신적자인가
46	2005.05.23.	연합뉴스	역사연구단체協, 역사과목 '교과' 독립 촉구
47	2005.05.24.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김성구 의원 또 '아리수' 역사성 문제 제기
48	2005.05.26.	SBS	한 · 중 · 일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
49	2005.05.2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편 연개소문의 도전과 당 태종의 출사표
50	2005.05.31.	연합뉴스	고인돌 바위그림 강화도서 다수 확인
51	2005.06.02.	연합뉴스	'中동북공정은 남북 공동의 문제'〈전문가〉
52	2005.06.05.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편 당태종의 요동정벌, 대첩이었나 격전이었나
53	2005.06.07.	연합뉴스	고구려연구재단, 국제학술회의 잇달아 개최
54	2005.06.08.	연합뉴스	[삼성경제연구소] '해신, 글로벌 전략가 장보고' 심포지엄 개최
55	2005.06.09.	연합뉴스	〈중국 '변방'에서 구출한 '역사공동체'〉
56		연합뉴스	〈지역문화책갈피〉-대전(6월9-15일)
57		연합뉴스	[문화재청] '고구려 고분벽화 안료공동분석 연구세미나' 개최
58	2005.06.10.	연합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이미지 콜로키움
59		KBS	역사스페셜-제6편 위성으로 본 국내성, 그곳에 고구려가 있다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61	2005.06.1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편 안시성 싸움과 전설 속의 영웅 양만춘
62	2005.06.13.	연합뉴스	고구려 고분벽화 붉은색 주성분은 주사와 철
63	2005.06.16.	연합뉴스	수촌리 고분군서 '부절'(符節) 추정 대롱옥
64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설 해동성국
65	2005.06.17.	연합뉴스	〈기와로 본 미륵사와 황룡사〉
66	2005.06.19.	연합뉴스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학술대회
67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편 아, 고구려!
68	2005.06.20.	연합뉴스	北어학자 '고구려 말이 민족 언어사 기본줄기'
69	2005.06.23.	연합뉴스	〈문화단신〉 학술
70		연합뉴스	〈고구려.백제 건국 주역 '소서노' 동상 제막〉
71	2005.06.25.	YTN	한국 상고사 왜곡 심하다
72	2005.06.2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편 고구려 유민의 좌절과 희망
73		YTN	부여여걸 5미터 높이 돌동상 제막
74	2005.06.30.	연합뉴스	北 고구려벽화무덤 보존센터 조만간 완공
75	2005.07.01.	KBS	역사스페셜 -9편 고구려, 천하의 중심을 선포하다. 광개토대왕碑-
76	2005.07.01.	연합뉴스	고구려우표발행
77	2005.07.03.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편 성의 나라 고구려
78	2005.07.09.	연합뉴스	청소년 고구려게임퀴즈대회 열려
79	2005.07.10.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편 주몽신화, 그 속에 고구려가 있다
80		YTN	세계 유명 교과서 '한국을 중국영토로 표기'
81	2005.07.15.	연합뉴스	남북 학계, 평양 고구려유적 첫 공동조사
82		연합뉴스	〈인터뷰〉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김정배 이사장
83		KBS	역사스페셜 -제11편 고구려 고분벽화, 세계를 그리다
84		YTN	남북 학계, 평양 고구려유적 첫 공동조사
85	2005.07.17.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편 고구려 토속신앙과 유 · 불 · 선의 조화
86	2005.07.18.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 열어
87	2005.07.24.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0편 고구려의 평민, 사수촌 여인의 애환
88	2005.07.25.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한여름밤의 해변축제'와 만나다 연해주 발굴현장을 찾아(1)
89	2005.07.28.	연합뉴스	어린이 영어 뮤지컬 '평강과 온달'
90	2005.07.29.	KBS	역사스페셜 -제13편 장수왕의 승부수 - 고구려 남진 프로젝트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91	2005.07.31.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편 고구려의 여인들
92	2005.08.02.	연합뉴스	'광개토왕비는 신도비, 태왕릉은 고국양왕릉'
93	2005.08.03.	YTN	남북학술조사단 고구려유적 최초 공동조사
94	2005.08.04.	연합뉴스	남북학술조사단 '북한 고구려유적 최고 공동조사'
95	2005.08.05.	연합뉴스	홀본성 찾은 고구려유적답사단
96	2005.08.07.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편 고구려 문화의 보물창고, 고분벽화
97	2005.08.08.	연합뉴스	연해주 발해고분서 장신구류 다량 출토
98	2005.08.09.	연합뉴스	'발해史 '디지털 콘텐츠'로 본다'
99	2005.08.12.	연합뉴스	고구려벽화고분 사진전 도쿄서 개최
100	2005.08.14.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편 고구려, 해양강국을 꿈꾸다
101	2005.08.18.	연합뉴스	토지박물관 2005년 하반기 박물관대학 개설
10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편 고구려의 흥망, 바다에 있었다
103	2005.08.22.	SBS	[수원] 고구려 유적, 말로만 '보호'
104	2005.08.24.	SBS	[수원] '중원 고구려비 관리 엉망'
105	2005.08.25.	연합뉴스	발해 최대 온돌유적 연해주서 발굴
106	2005.08.28.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5편 5부족 연합체에서 중앙집권체제로
107	2005.09.01.	연합뉴스	서울대박물관 '고구려와 발해' 교양강좌
108	2005.09.04.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6편 고구려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
109	2005.09.06.	연합뉴스	'중국의 변강인식과 인접지역 갈등' 학술대회
110	2005.09.08.	연합뉴스	南오페라 '아, 고구려..' 평양서 공연
111	2005.09.09.	KBS	역사스페셜 -제18편 진흥왕 순수비, 무엇을 새겼는가
112	2005.09.10.	연합뉴스	고구려 고분벽화 학술대회 유럽서 첫 개최
113	2005.09.11.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7편 말과 수레의 나라 고구려
114	2005.09.12.	연합뉴스	北사이트 '일부 어용사가 고구려사 잘못 해석'
115	2005.09.15.	연합뉴스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상고사 토론회 개최
116	2005.09.18.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8편 고구려 사람들도 풍류를 즐겼다
117	2005.09.23.	연합뉴스	베를린 동아시아박물관서 '고구려미술 특별전' 개막
118	2005.09.25.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9편 고구려 귀족, 몸단장하고 외출하다
119	2005.09.30.	연합뉴스	남북 학자들이 함께 고조선 연구서 펴냈다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120		KBS	역사스페셜 -제21편 세계전쟁사의 수수께끼!! 고구려 수당전쟁(1/2)
121	2005.10.02.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0편 발해는 한국사의 부록편이 아니다
122	2005.10.07.	KBS	역사스페셜 -제22편 세계전쟁사의 수수께끼!! 고구려 수당전쟁(2/2)
123	2005.10.09.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1편 대조영, 발해를 세우다
124	2005.10.11.	연합뉴스	〈문화단신〉 학술 조회
125	2005.10.1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2편 발해 무왕, 영토확장에 나서다
126	2005.10.17.	연합뉴스	동북공정 中학자들 참석, 한·중 역사회의 개최
127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 vs 고구려연구재단〉
128	2005.10.23.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3편 발해, 당나라를 치다
129	2005.10.30.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4편 발해 문왕은 황상(皇上)이었다
130	2005.11.06.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5편 안록산의 난 그리고 상경천도
131	2005.11.07.	YTN	'중앙박물관 고조선 표기 누락 논란'
132	2005.11.13.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6편 일본의 신라협공 제의를 거부하다
133	2005.11.20.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7편 흔들리는 왕권
134	2005.11.23.	연합뉴스	고구려재단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발간
135		연합뉴스	광개토대왕비 원석 첫 지질학적 연구
136	2005.11.25.	KBS	역사스페셜-제29편 발해, 고구려를 꿈꾸다
137	2005.11.27.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8편 고구려 유민 이정기, 산동반도를 접수하다
138	2005.12.01.	연합뉴스	北 역사박물관 방문객 900만 넘어
139		연합뉴스	남북 역사학자들 금강산서 고구려유적 학술회의
140	2005.12.04.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9편 이정기 왕국의 투쟁과 좌절, 그리고 발해
141	2005.12.08.	연합뉴스	고구려특위 '한중 구두양해 전혀 이행안돼'
142		YTN	해외교과서, 역사 왜곡 많다
143		YTN	중국, 한국의 전근대사 아예 삭제
144	2005.12.11.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0편 발해, 해동성국을 이루다
145	2005.12.12.	연합뉴스	고구려 민족이 중화민족인가
146		연합뉴스	〈르포〉 중국내 고구려 유적지 훼손 심각
147	2005.12.18.	KBS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1편 발해와 신라의 윗자리 다툼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2005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사진 특별전시회

일시: 2005년 01월 20일 ~ 02월 18일

장소: 구리시 인창도서관 아트센터 전시실

주관: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주최: 구리문화원, 구리남양주시민모임

후원: 구리넷,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 구리의제 21, 구리YMCA, 바보온달산악회

전시내용:

- 방탄유리에 갇힌 광개토태왕비
- 동방의 피라미드 장수왕릉
- 강서 큰무덤
- 약수리 벽화무덤 등 85점의 고구려 관련사진

▣ e-고구려박물관 가수 서희 '고구려 만남'

일시: 2005년 08월 12일

장소: 구리시

▣ 서울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축제'

일자: 2005년 10월 07일-10월 09일

주제: 제1회 아차산 고구려 축제

장소: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일대와 능동로,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등

▣ 제10회 단양 온달문화축제

일시 : 2005년 10월 22일 ~ 10월 26일

주제 : 온달문화축제

장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및 영춘면 온달관광지 일원

후원 : 문화관광부

▣ 문경에 드라마'연개소문' 세트장

일자 : 2005년 10월 26일

장소 : 문경 가은읍 왕릉이 석탄박물관 주변 옛 은성광업소 터

규모 : 1만 2천 7백여 평 대형 세트장과 소형 세트장 각각 한 곳씩

시공 : SBS, SBS아트텍

후원 : 문경시(사업비-60억원)

◎ **대중문화콘텐츠**

● **전시회**

▣ 국립경주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공개전시

기간 : 2004년 12월 31일 ~ 2005년 02월 27일

주제 : 고구려인의 삶과 죽음

장소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 립경주박물관

내용 :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120여 점 중 40여 점 선정 공개

전시도록 목차:

- 106기 돌방무덤내부 고구려벽화
- 집안지역의 통구12호 무덤
- 평양지역의 감신무덤, 용강큰무덤, 별무덤, 천왕지신무덤, 쌍기둥무덤, 개마무덤, 사냥무덤, 진파리1호무덤, 강서큰무덤, 강서무덤 등 전시

▣ 국립광주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 공개전

〈이승보다 나은 저승의 삶 자리 -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기간 : 2005년 03월 29일(화)~2005년 04월 17일(일)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 국립광주박물관

▣ 광복60주년 기념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대탐험전'

기간 : 2005년 04월 01일 ~ 2005년 06월 12일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 및 야외전시장(대전)

주최 : 국립중앙과학관, 중도일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 : 통일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어린이신문, 새전북신문, 무등일보, 국제라이온스협회355-D지구, 구몬학

습,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 한국토지공사 창립30주년 기념특별전 –동천왕십일년명 벽비, 흙베개 등 고구려 희귀유물전시

일시 : 2005년 04월 14일 ~ 10월 29일

주제 : 생명의 땅, 역사의 땅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구성 :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300여점과 개인소장 유물 등이 전시. 고구려 유물은 지난해 토지박물관이 북한과 공동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발굴조사 성과와 연계해 북한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장소 : 한국토지공사 사옥1층 토지박물관

주최 : 한국토지공사

▣ 고려대 개교 100주년 '고구려 특별전 – 한국 고대의 글로벌 프라이드, 고구려'

일시 : 2005년 05월 07일 ~ 07월 10일

주제 : 한국 고대의 글로벌 프라이드, 고구려

구성 : 고려대 박물관 소장품 50점,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타 기관 소장품 80여점, 북한의 조선중앙 역사박물관이 대여한 60점, 일본의 교토대 박물관등의 유물 40여점. 총 230여점의 고구려 유물 종합전

장소 : 고려대학교 일민박물관

주최 : 고려대학교 일민박물관

▣ 이야기가 있는 고구려 복식문화 전시회

일시 : 2005년 05월 11일 ~ 05월 17일

주제 : 이야기가 있는 고구려 복식문화

구성 : 고구려 벽화를 정신문화, 장례문화, 생활문화, 놀이문화, 사랑 · 혼례문화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해 주제별 주요장면에 나타난 복식 장신구 소품 등을 재현

장소 : 인사동 덕원갤러리 5층

주최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과 평양이 함께 하는 고구려전

일시 : 2005년 07월 19일 ~ 08월 21일

주제 : 대륙의 꿈 고구려

구성 : 고구려 유물 및 모형 총186점 - 유물 54점, 고분모형, 벽화 재현품 등 132점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후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고려대박물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고구려 우표발행 특별기념전

일시 : 2005년 07월 01일(금) ~ 07월 05일(화)

장소 : 지하철 공덕역사 문화광장

주최 : (사)고구려연구회, 서울마포우체국

후원 : (재)고구려연구재단, 우정사업본부, KTF

우표소재내용

- 고구려 지도 모형
- 오녀산성과 백암성
- 집안 삼실총 벽화 가운데 기마전 장면
- 삼엽환두대도(세 개의 잎사귀로 장식된 둥근 고리자루 칼)
- 집안 말구유무덤 고분벽화의 개마무사 모습 등

▣ '고구려 역사 문화를 찾아서' 전시

일시 : 2005년 06월 11일 ~ 06월 12일

주제 : 고구려 역사 문화를 찾아서

장소 : 안산시 성호기념관

전시내용 : 고구려 대표적 유물 43점을 복제 · 전시해 고대 문화에서 차지하는 고구려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 고구려 유적(북한, 중국지역)과 벽화 사진패널 35점을 전시

▣ 제41회 도서관주간 기념전시회 세계유산 고구려 특별전

일시 : 2005년 10월 12일 ~ 18일

주제 : 세계유산 고구려 특별전

장소 : 대구시립도서관
후원 : (사)고구려연구회
전시내용 : 2004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광개토태왕비를 포함한 수도, 왕릉, 귀족무덤 등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 사진 80여점과 관련도서 100여점이 전시

▣ 미래를 여는 역사페스티벌 제주특별전
일시 : 2005년 10월 11일 ~ 10월 17일
주제 : 파(破)! 역사 왜곡 수(守) 우리 영토
장소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플라자
주최 : 경향신문사
전시구성 :
- 한국 위인 103인의 캐릭터(영웅열전)를 전시한 한민족관
- 고구려 벽화와 고분의 세계
- 고구려인의 복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구려관
- 간도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이주생활사를 담은 간도관
-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독도관
- 독도 문화전
- 독도 우표 전시회
- 실물 크기로 제작된 광개토대왕비 전시
체험행사 :
- 고구려 전통의상을 입고 말타기
- 간도지도 도미노게임
- 간도 퍼즐맞추기
- 백두산 정계비 탁본뜨기
- 한민족사 대형 벽화만들기
- 한민족사랑 소원지 꽂이
- 치우천왕 연날리기
- 아이 러브 독도 페이스페인팅
- 민족 사랑 탈 만들기

▣ 독일 베를린 동아시아박물관 '고구려미술특별전'
일시 : 2005년 10월 23일 ~ 11월 20일
주제 : 고구려미술특별전
구성 : 쌍영총, 수렵총, 진파리1호분, 개마총 등 9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32점, 고구려 토기 21점 전시
장소 : 독일 베를린의 동아시아박물관
주최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박물관 등 공동개최
후원 : 한국 국제교류재단
전시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고분 벽화 모사도 32점과 서울 몽촌토성 · 아차산 보루성, 평양 출토 토기 및 와당 21점(서울대박물관 소장),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소장하고 있는 덕흥리 고분 · 광개토왕릉비 모형, 영강7년명금동광배, 등 고구려 유물 복제품 3점 등 전시.

▣ 고구려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대전 전시회
기간 : 2005년 11월 30일 ~ 12월 05일
장소 : 대전 EXPO 과학공원
주최 : 문화재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전시내용 :
-안악 1,3호 고분
-덕흥리 고분
-강서세묘 등 북측이 제공한 벽화고분 사진 63점

● 이벤트 / 단신

▣ '고구려 우리의 미래' 고구려역사 우표도감 발행
일시 : 2005년 01월 21일
주최 : 고구려역사 우표도감 발행추진위원회
내용 : 우표도감은 64쪽 분량의 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유적,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고구려 고분벽화 '현무,주작,수렵도'와

광개토대왕비 등을 소재로 한 37종의 소장용 우표 수록

▣ '아 고구려 고구려'오페라

이름 : 민족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 광개토 호태왕'

일자 : 2005년 03월 30일 ~ 04월 02일(오후 7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사) 뉴서울오페라단

후원 : 문화관광부, KBS, YTN, MBN

작품소개 : www.ahkoguryo.com 참조

▣ 그룹사운드 '고구려밴드'창립기념 연주회

일자 : 2005년 04월 15일 (오후 7시)

장소 : 예술의전당 소극장

주최 : 의정부 예술의전당

후원 : 의정부시청 공무원밴드 동아리

▣ 경기도 독서의 계절 도서관 행사

일시 : 2005년 09월 09일

장소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내용 :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의 저자 이기담씨 초청, 작가와의 대화시간

▣ 제1회 고구려, 발해 글짓기 대회

작품접수 : 2005년 10월 01일 ~ 10월 20일

작품시상 : 2005년 11월 8일(오후 2시)

작품주제 : 고구려사 바로알기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작품종목 : 초등부 글짓기, 중등부 글짓기, 고등부 논술

시상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피런스홀

주최 : (사)국학원

주관 : 전국 고구려,발해 글짓기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재)고구려연구재단

작품목적:

-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 올바른 국가관 형성과 밝고, 아름다운 미래의 동력으로 성장 계기 마련

▣ 경기도 역사문화스페셜 '고구려 최전방의 요새, 아차산 보루'

주 최 : 경기도문화재단

영상내용 : 아차산 보루(전투요새)의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유역의 전쟁사를 재조명하고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 평가

▣ '독도 이순신 장군 동상 및 거북선 건립'

일자 : 2005년 04월 18일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주최 : 전북 군산 한국청년회의소(JCI)

내용 : 독도 이순신 장군 동상 및 거북선 건립을 위해 100원짜리 동전 8백만 개 모으기 운동 추진(인천국제공항에 독도와 고구려 역사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전시 관람관을 조성해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

▣ 남북청소년 고구려게임

일자 : 2005년 05월 04일 ~ 07월 10일

참가 : 남과 북에서 선발된 청소년 120명

주최 : KT / KTF, 통일부, MBC게임

목적 : 고구려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며 모바일대회, 전국대회, 남북대회 등으로 나눠 진행

내용 :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재현한 블록격파, 스포츠게임으로 수익금 일부는 고구려고고학연구소의 고구려 연구기금으로 사용.

▣ 고구려 기상 그린 창작뮤지컬 '수천'

일자 : 2005년 07월 07일 ~ 07월 17일

장소 : 서울 동숭동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겨울연가'피아니스트 일본서 고구려 미술 전시회

일자 : 2005년 04월 18일～4월 28일

장소 :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홍보원

주제 : 데이드림의 '고구려의 빛'

전시구성 :

- 고구려 벽화를 현대미술로 재창작한 총 40여점
- 전시회 기간에 겨울연가삽입곡 등 미니 연주회

▣ 창작뮤지컬 '꽃님'

일자 : 2005년 11월 17일～11월 20일(오후 4시)

장소 :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

주제 : 꽃님

내용 :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뿌리를 찾아가는 창작 뮤지컬.

▣ 어린이 영어 뮤지컬 '평강과 온달'

일자 : 2005년 08월 12일～08월 21일(오후 2시, 5시)

장소 : 대학로 게릴라 극장

▣ 홍성미 무용단 고구려 소재 '개화'창단공연

일자 : 2005년 08월 25일～08월 21일(오후 7시 30분)

주제 : 개화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악당

고구려 고분벽화와 전래설화등을 소재로 한국무용의 멋과 정서를 살리는 창작 무용

▣ 웅혼한 고구려 기상 그대로, 독립기념관 '무용총' 재현

일자 : 2005년 08월 23일

장소 : 독립기념관 제1전시관

▣ 창작판소리 '대고구려'완창 무대

일자 : 2005년 10월 21일(오후 7시 30분)

주제 : '대고구려'

장소 : 서울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내용 : 당태종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지만 무모한 전쟁에 회의를 느낀 당나라 군사들은 안시성에서 대패하고 도망을 친다는 내용으로 모두 15개 대목, 1시간 40분 공연

● 시민강좌

▣ 국학원 제28회 국민강좌 '삼족오의 유래와 한국사상'

일시 : 2005년 02월 01일(오후 7시-9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주제 : 삼족오의 유래와 한국사상

주최 : 국학원

내용 : 제28회 국학원 국민강좌는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의 이형구(선문대학교 대학원)원장이 '삼족오의 유래와 한국사상'에 대한 강연을 개최

▣ 제88회 우리문화사랑방(월례시민문화강좌) 고구려(高句麗) 도성(都城)

주최 :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의 재발견

강 사 : 민덕식 (국사편찬위원회)

강좌일시 : 2005. 9. 10. (토) 오후 3시

강좌장소 : :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

▣ 책으로 찾아가는 고구려 여행 특별 강연회

일시 : 2005년 09월 30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주제 : 책으로 찾아가는 고구려 여행

장소 : 대구시립도서관

강연내용 : 고구려 관련강의

◎ **네티즌의 반응**

▣ 세계 유명 교과서 · 지도 "한국은 중국땅"

2005년 07월 10일 (일요일) 13 : 29 연합뉴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비롯 총 34개 세계 유명기관의 53개 세계지도가 한국의 전체 영토 및 일부를 중국 영토

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남

▣ 반크, 사이버 외교관 '1만 양병설'

일시 : 2005년 07월 04일부터

제작 :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 (www.prkorea.com 단장 박기태)

내용 :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전국 학교 1만 사이버 외교관 동아리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

▣ 사이버 광복군

일시 : 2005년 07월 15일

후원 : 국정홍보처,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내용 :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인터넷상에서 역사바로잡기 활동하게 될 민·관 합동의 '사이버 광복군'이 인터넷 홈페이지(www.nurikorea.com)를 통해 고구려 역사바로잡기운동을 전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2006년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학술회의 …… 489
◎ 학술회의 일람표 …… 489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490

○ 연구 및 출간 …… 501
◎ 도서 …… 501
◎ 논문 …… 502
● 일반논문 …… 502
● 학위논문 …… 505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507
◎ 신문 / 잡지 …… 507
● 신문 …… 507
● 잡지 …… 525
◎ 방송 …… 525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31
◎ 대중문화콘텐츠 …… 533
● 전시회 …… 533
● 이벤트 / 단신 …… 534
● 시민강좌 …… 535
◎ 네티즌의 반응 …… 535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월	일	제 목	주 제
1	13	제59회 한국중세사학회 연구발표회	
	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378회 국학연구발표회	재만 조선인 관련 문헌자료
2	16-17	제19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삼국사기 원전 연구
	22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제9회 학술 심포지엄	
	25	신라사학회 제47차 정기발표회	
3	17	고구려연구재단 제5차 국내학술회의 개최	중국의 역사교육, 그 실상과 의도
	25	신라사학회 제48차 정기발표회	
4	21	한국중앙사학회 · 동국사학회 연구발표회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
	22	한국사학사학회 제58회 연구발표회	
	22	부산경남사학회 제75회 월례발표회	
	28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엄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1) 현대 중국의 역사교과서 -소외되는 한국사
5	13	신라사학회 제50차 정기발표회	
	19	白山學會창간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韓民族 北方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6	10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 100회 기념 학술회의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16	한국사연구회 제253차 연구발표회	
	26	2006년 한신대학교 학술원 학술대회	역대 '중국'의 판도(版圖) 형성과 '변강'지배
7	20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9	2	제8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한국 고대사 속의 이방인 -인문 교류와 문화적 역동성
	7	고구려 고분벽화 학술대회	고구려 문화와 고분벽화
	9	한국근현대사학회 9월 월례발표회	
	1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9월(118회) 월례발표회	
	27	제3회 학술대회 동북아 한인 공동체와 삶	
10	21	신라사학회 제55차 정기발표회	
	28	제63회 한국중세사학회 연구발표회	
11	2-3	한 · 중 · 일의 고대 수리시설 비교 연구	
	3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0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12	1	2006년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국제학술대회	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
	9	제101회 韓日關係史學會 월례발표회	
	9	2006년도 한국사연구회 학술대회	역사도시 평양

◎ **월별 학술회의 내용**

▌1월 학술발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378회 국학연구발표회

제목 : 재만 조선인 관련 문헌자료

일시 : 2006.1.24 (화) 오후 2:00～6:00

장소 : 국학연구원 발표실 (위당관 313호)

[발표순서]

사회 : 김 도 형(연세대)

오후 2:00～2:10

인사말씀 김 도 형(연세대)

오후 2:20～4:20

〈재만 조선인 교육 관련자료〉

박금해(연변대)

〈『汪淸縣政治報告書』의 文獻價値〉

이종수(연세대)

〈만주사 연구동향과 사료발굴의 필요성〉

이 윤 진(연세대)

[토 론]

김왕배(연세대) / 임 성 모(연세대)

▌2월 학술발표

▣ 제19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주제: 삼국사기 원전 연구

일시: 2006년2월16일(목)～17일(금)

등록 : 2005년2월16일(목) 09:00～09:30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주관 : 한국고대사학회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시공테크, 호림박물관

〈2월 16일〉

○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 09:30～10:00

사회: 하일식(연세대)

6개회사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김태식(홍익대)

기조강연 : 〈삼국사기 사료성격을 보는 관점〉/ 정구복(한국학중앙연구원)

○ 제2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10:00～12:30

사회: 공석구(한밭대)

제1주제: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형성과정〉

발표자: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토론자: 신동하(동덕여대)

제2주제: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발표자: 강종훈(대구가톨릭대)

토론자: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 제3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14:00～18:00

사회: 송호정(한국교원대)

제3주제: 〈신라본기의 사료성격과 전거자료 형성과정〉

발표자: 선석렬(부산대)

토론자: 문창로(국민대)

제4주제: 〈志의 구성형태와 전거자료의 성격〉

발표자: 이문기(경북대)

토론자: 권덕영(부산외국어대)

제5주제: 〈열전의 편제기준과 사료 가치〉

발표자: 이강래(전남대)

토론자: 윤선태(동국대)

〈2월 17일〉

○ 제4부 종합토론 / 09:00～12:00

사회: 노중국(계명대)

참여자: 발표자, 지정 토론자, 사회자 12명 외, 김영하(성균관대), 노태돈(서울대), 전덕재(경주대), 주보돈(경북대), 조인성(경희대)

▣ 신라사학회 제47차 정기발표회

일시 : 2006년 2월 25일(토) 오후1시 30분～5시 30

장소 : 서강대학교 인문관(X관) 429호

사회 : 조범환(서강대학교)

발표

제1발표 : 〈신라 중고기의 교와 왕권〉

발표자 : 조경란(서강대학교)

토론자 : 김희만(성화대학교)

제2발표 : 〈신라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발표자 : 김창겸(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 송화섭(전주대학교)

제3발표 : 〈8세기 후반 渤海의 對日本外交와 交易〉

발표자 : 조이옥(영산대학교)

토론자 : 박진숙(충남대학교)

▌3월 학술발표

▣ 고구려연구재단 제5차 국내학술회의 개최

주제 : 중국의 역사교육, 그 실상과 의도

일시 : 2006년3월17일(금) 09:30～18: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회의일정

○ 제1부 (사회 : 장세윤)

10:10～10:50

〈중국의 역사 교과서 정책의 변화추이 및 특징〉

○ 발표 : 김유리(전북대)

○ 토론 : 허원(서원대)

〈10:50～11:30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실용주의 역사학'으로- 중국 역사교육정신의 변화추이와 특징〉

○ 발표 : 권소연(이화여대)

○ 토론 : 하세봉(부산대)

○ 제2부(사회 : 이개석)

13:00～13:4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고교용 역사교과서 편제 분석- "세계역사", "세계근대현대사"를 중심으로〉

○ 발표 : 박장배(한신대)

○ 토론 : 김승렬(경상대)

13:40～14:2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고교용 역사교과서 편제 분석 - "중국역사", "중국근대현대사"를 중심으로〉

○ 발표 : 오병수(서울대)

○ 토론 : 김성보(연세대)

14:40～15:20

〈중국 역사 교육에서의 '민족'과 고구려 발해사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 발표 : 구난희(고구려연구재단)

○ 토론 : 유용태(서울대)

15:20～16:00

〈중국 역사교과서 발행현황과 한국사 서술현황〉

○ 발표 :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 토론 : 김지훈(성균관대)

○ 제3부(사회 : 전인영)

16:20～18:00 종합토론

▣ 신라사학회 제48차 정기발표회

일시 : 2006년 3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 마포 경인문화사 2층

사회 : 조범환 (서강대학교)

발표

발표주제 : 〈왕창근 고경문의 '압록' 위치 비정〉

발표자 : 이재범 (경기대학교)

토론자 : 정선용 (서경대학교)

▌4월 학술발표

▣ 부산경남사학회 제75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06년 04월 22일(토) 14:00-17:00

장소 : 부경대학교 박물관(학습도서관, 대연동) 110호, 104호

주 최 : 부산경남사학회

후 원 : 부경대학교

등록 및 개회(14;00-14;10; 110호)

사회 : 이종봉(부산대)

■ 주제 발표

〈제 1 발표실(14;20-17;00), 110호〉

사회 : 이근우(부경대)

1) 〈청동기시대 한국과 연해주의 교류-환동해문화권의 제안과 관련하여-〉
발표 : 강인욱(부경대)
토론 : 배진성(김해박물관)
2) 〈발해 부흥국가와 고려의 발해계승의식〉
발표 : 이효형(영도여고)
토론 : 선석열(부경대)
3) 〈연산군대 廟制論의 의의〉
발표 : 이현진(서울대)
토론 : 신명호(부경대)

▣ 한국사학사학회 제58회 연구발표회
일 시 : 2006년4월22일(토) 14:00-18:00
2. 장 소 : 대우재단 8층 세미나 1실
3. 연구발표회 :
사회 : 김 경 수 (청운대)
1) 주제발표 : 김 경 현 (고려대)
〈서양 고대세계에서의 역사서술과 수사학〉
토론자 : 김 기 봉 (경기대)
2) 주제발표 : 김 성 환 (경기도 박물관)
〈조선시대 단군묘에 관한 인식〉
토론자 : 서 영 대 (인하대)

▣ 한국중앙사학회 · 동국사학회 연구발표회
공동주제 :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
일 시 : 2006년 4월 21일(금) 14:00 ~ 18:00
장 소 : 중앙문화예술관 10B202 호
주 최 : 한국중앙사학회/동국사학회
주 관 : 한국중앙사학회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엄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1) 현대 중국의 역사교과서 -소외되는 한국사(1949-2006)
일시: 2006. 4. 28(금) 오후 1:30 ~ 8:00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주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주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정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5:20
1부 심포지엄 "중국 역사교과서의 제도와 역사관"
사회: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발표: 〈"현대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김지훈(성균관대)
〈"중국 역사교과서에 투영된 역사관"〉 박장배(한신대)
토론: 이은자(동국대), 박선영(포항공대)
15:40-17:00
2부 심포지엄 "중국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서술"
발표: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근대사 서술"〉 안병우(한신대)
〈"동아시아 근현대 질서변동과 중국의 역사인식"〉 신주백(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임기환(서울교대), 김희교(광운대)
17:00-18:00
3부 종합토론 "중국의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미래"
사회 : 허원(서원대)
토론: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이희옥(한신대), 발표자와 토론자
18:00-18:30 창립5주년 기념식

▌5월 학술발표

▣ 신라사학회 제50차 정기발표회
일시 : 2006년 5월 13일(토) 오후 3시
장소 : 마포 경인문화사 3층 학술 세미나실
사회 : 조범환 (서강대)
발표주제 : 〈고구려 유녀의 발생원인〉
발표자 : 김현정 (상명대학교 강사)
토론자 : 김락기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학예연구원)

▣ 韓民族 北方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白山學會 창간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시 : 2006년5월19일(금) 9:30～18:00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주최 : 백산학회

후원 : 고구려연구재단 · 간도학회

사회 : 유태용 (경기대)

10:00～10:30 등록 및 축사

10:30～11:00 〈고조선연구의 성과와 문제점-남북한 연구성과의 비교-〉

발표 : 서영수 (단국대)

토론 : 윤명철 (동국대)

11:00～11:30 〈고구려연구의 어제와 오늘〉

발표 : 임기환 (서울교대)

토론 : 공석구 (한밭대)

13:30～14:00 〈발해사연구의 회고와 전망-남 · 북한 그리고 일 · 러의 연구비교-〉

발표 : 한규철 (경성대)

토론 : 김은국(고구려연구재단)

14:00～14:30 〈고려시대의 북방영토문제 -9성의 위치를 찾아-〉

발표 : 최규성 (상명대)

토론 : 박은경 (인하대)

14:30～15:00 〈조선후기 조선인의 만주이주와 개척문제〉

발표 : 김기훈 (육군사관학교)

토론 : 한상도 (건국대)

15:30～16:00 〈간도문제의 회고와 전망〉

발표 : 이성환 (계명대)

토론 : 최장근 (대구대)

16:10～17:30 종합토론

좌장 : 신형식 (상명대)

▌6월 학술발표

▣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 100회 기념 학술회의

주제 :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일시 : 2006년 6월 10일 오후 2～6시

장소 : 배재정동빌딩(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주최 : 한국근현대사학회

후원 : 국가보훈처

사회 : 장규식(중앙대)

2:00～2:10 개회사 : 장석흥(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국민대)

2:10～2:40 제1주제-〈조지 쇼(George L. Show)의 이륭양행 운영과 한국독립운동〉 한철호(동국대)

2:40～3:10 제2주제-〈1920년대 만주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운동노선의 변화〉

장우순(대덕대)

3:25～3:55 제3주제-〈'만주국'시기 재만한인의 일상생활과 자아의식〉

다나카 유이치(田中隆一, 동남보건대)

3:55～4:25 제4주제-〈일제하 만주지역 한인 안전농촌 연구〉 김주용(독립기념관)

4:40～6:00 종합토론

사회 : 장세윤(고구려연구재단)

토론 : 한시준(단국대), 장문호(고려대), 임성모(연세대), 신주백(서울대)

▣ 한국사연구회 제253차 연구발표회

일시 : 2006. 6. 16(금) 오후 3-6시

장소 : 대우재단빌딩 8층 2세미나실

사회 : 조인성(경희대)

주제

1. 〈고려 석관의 선각화 사례로 본 고구려 문화의 전승〉

발표자 : 허흥식(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 박아림(숙명여대), 강병희(한국외국어대)

2. 〈되돌아온 고려의 금석문〉

발표자 : 손환일(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 김현숙(고구려연구재단), 권영국(숭실대)

▣ 2006년 한신대학교 학술원 학술대회

역대 '중국'의 판도(版圖) 형성과 '변강'지배

일시 : 2006년6월26일(월) 14:00～19:00

장소 : 배재정동빌딩 A동 L층

주최 : 한신대학교 학술원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발표 및 토론

사회 : 안병우(한신대학교) 2:20～5:40

〈北宋 陝西五路 국방전략과 版圖 경영〉 2:20～3:00

발표 : 이경룡(한신대학교)

토론 : 조남호(국제평화대학원)

〈中華人民共和國의 版圖 형성과 新疆〉 3:00～3:40

발표 : 박선영(포항공과대학교)

토론 : 박상수(고려대학교)

〈中華人民共和國의 版圖와 중러국경-중 러 국경 문제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4:00～4:40

발표 : 최덕규(고구려연구재단)

토론 : 이재훈(성균관대학교)

〈베트남 중국의 지도전쟁 -19세기 전반 '6맹지역' 논란〉 4:40～5:20

발표 : 최병욱(한신대학교)

토론 : 김종욱(청운대학교)

종합 토론 사회 :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05:40～7:00

발표자 토론자 전원

▌7월 학술발표

▣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주제 :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시 : 2006년 7월 20일(목) 9:30～21일(금) 16:30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연학연구원

일 정

1일째 7월 20일(목) : 9시 30분 등록

사회: 주보돈(경북대)

10시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축사

Ⅰ. 기조강연

10:30～11:10

조동일(계명대): 〈삼국유사 기본 특징 비교 고찰〉

11:20～12:00

김상현(동국대): 〈삼국유사 연구 현황〉

Ⅱ. 주제 발표

사회: 박찬흥(고려대)

제 1부

13:00～13:30

〈삼국유사 소재 인도관련기사의 이해〉

발표 : 반카즈(호주 시드니대학)

토론 : 조경철(한국학중앙연구원)

13:30～14:00

〈삼국유사에 보이는 貧民에 대하여〉

발표 : 하일식(연세대)

토론 : 전덕재(경주대)

14:00～14:30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본관〉

발표 : 기무라마꼬또(동경 수도대학)

토론 : 연민수(동북아 연구재단)

14:30～15:00

〈신라 三寶와 萬波息笛〉

발표 :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김복순(동국대)

제 2부

사회 : 박찬흥 (고려대)

15:20～15:50

〈삼국유사에 보이는 나당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

발표 : 배근흥(중국 섬서사범대)

토론 : 곽승훈(목원대)

15:50～16:20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발표 : 남동신(덕성여대)

토론 : 조인성(경희대)

16:20～16:50
〈신라불교사상사의 전개와 삼국유사 의해편〉
발표 : 정병삼(숙명여대)
토론: 김영미(이화여대)
16:50～17:20
〈일연의 고대 북방 민족관〉
발표 : 하마다 코오사꾸(일본 큐슈대학)
토론 : 김현숙(고구려연구재단)
17:20～17:50
〈고려후기 일연주관 인각사 구산문도회의 성격〉
발표 : 한기문(상주대)
토론 : 김광식(부천대)
제2일 제 7월 21일(금)
제 3부
사회: 남무희(국민대)
09:00～09:30
〈삼국유사 기술문의 시화적 성격〉
발표 : 김선기(충남대)
토론 : 김기영(나사렛대)
09:30～10:00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고찰〉
발표 : 맥브라이더(미국 워싱턴대)
토론: 노중국(계명대)
10:20～10:50
〈삼국유사 소전 단군왕검의 문화론적 연구〉
발표 : 정호완(대구대)
토론: 김진규(공주대)
10:50～11:20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민중성 연구〉
발표 : 이강옥(영남대)
토론: 고운기(연세대)
11:20～11:50
〈삼국유사의 한문학적 고찰〉
발표 : 이동근(대구대)
토론: 이경수(강원대)
13:00～13:30
〈신라건국신화의 맥락적 해석과 신라 문화의 재인식〉
발표 : 임재해(안동대)
토론 : 박선희(상명대)
13:30～14:00
〈삼국유사 소재 건국신화로 보는 일한비교〉
발표 : 아오키슈헤이(일본 국학원대학)
토론: 나경수(전남대)
Ⅲ. 종합토론
사회: 이기동
14:30～16:30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9월 학술발표

▣ 제8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주제: 한국 고대사 속의 이방인 -인문 교류와 문화적 역동성
일시: 2006년 9월 2일(토) 09:00～18:00
등록: 2006년 9월 2일(토) 09:00～09:20
장소: 충남대학교 박물관 1층 강당
주관: 한국고대사학회
후원: 고구려연구재단
〈세미나 내용 및 순서〉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09:20-10:00)
사회 : 하일식 (연세대)
개회사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김태식 (홍익대)
기조강연 : 〈한국 고대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 / 박순발 (충남대)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0:00-12:30)
사회 : 하일식 (연세대)
제1주제 :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 홍보식 (부산시립박물관)
토론 : 권오영 (한신대)
제2주제 :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는 서역계 문물〉 / 이한상 (동양대)
토론 : 이송란 (문화재청)
제3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4:00-18:00)

사회 : 윤선태 (동국대)
제3주제 : 〈한국 고대 국가와 낙랑계 중국인〉 / 윤용구 (인천시립박물관)
토론 : 오영찬 (국립중앙박물관)
제4주제 : 〈삼국의 불교 初傳者와 초기 불교의 특성〉 /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김상현 (동국대)
제5주제 : 〈신라 통일기 이슬람 문물의 전래〉 / 김창석 (강원대)
토론 : 권덕영 (부산외국어대)

▣ 한국근현대사학회 9월 월례발표회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2-6시
장 소 : 대우재단빌딩 8층 세미나 2실(서울역 앞)
사 회 :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1주제 〈해방 직후(1945-49)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민족교육 연구〉
발표 : 김인덕(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토론 : 채영국(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제2주제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본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과 연변 조선족〉
발표 : 박정수(한림대 강사)
토론 : 염인호(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 고구려 고분벽화 학술대회
주 제 : 고구려 문화와 고분벽화
시 간 : 2006년 9월 7일 10시～16시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 소재) 대강당
내 용 :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사회 : 연갑수(서울역사박물관 학예부장)
기조강연 :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구의 여러 문제〉(강우방. 이화여대 석좌교수)
제1발표〈고구려 안악3호분의 재검토〉(전호태. 울산대 교수)
토론 : 공석구(한밭대 교수)
제2발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고적조사 -고구려 벽화고분과 보존을 중심으로-〉 (사오토메 마사히로. 早乙女雅博. 도쿄대 교수)
토론 : 최석영(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제3발표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세계〉(김일권.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토론 : 이용복(서울교대 교수)
제4발표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고분벽화〉(박아림. 숙명여대 교수)
토론 : 강현숙(동국대 교수)
종합토론
사회 : 신형식(이화여대 명예교수)
참여대상 : 기조강연 · 발표 · 토론자 전원 · 방청객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9월(118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6. 9～16(토) 오후 2시
장소: 대우재단 제2세미나실(8층)
사회: 황민호(숭실대)
발표
① 〈일제말기 만주지역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거부항쟁〉 발표: 김승태(한국기독교회사연구소) 토론: 서굉일(한신대)
② 〈만주국의 황도낙토론〉 발표: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최봉룡(연변대)
③ 〈일제시기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보이는 조선인식〉 발표: 윤소영(한서대학교) 토론: 강효숙(과거사위원회)

▣ 제3회 학술대회 동북아 한인 공동체와 삶
일시 : 2006년 9월 27일(수) 13 : 30～18 : 10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주최 :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내용
개회 및 인사(13:30～14:10)
기조발표(14:10～14:35)
〈동북아지역 한인의 현황과 과제〉: 이만열(전 국

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14:45～16:15): 사회-강옥엽(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제1주제(14:45～15:15)〈중국 한인 시문학의 역사적 전개-'일제하 만주유이민'에서 '중국 조선족'으로-〉

윤영천(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제2주제(15:15～15:45)〈러시아 한인의 이주와 재이주에 관련된 제문제〉

반병률(외대 사학과 교수)

제3주제(15:45～16:15),일본 속의 한국인, 그들의 민족교육 수호를 향한 움직임〉

최영호(영산대 국제학부 교수)

종합토론(16:30～18:10): 사회-이영호(인하대 사학과 교수)

오양호(인천대 국문과 교수) / 심헌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폐회(18:10)

▌10월 학술발표

▣ 신라사학회 제55차 정기발표회

일시 : 2006년 10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마포 경인문화사 3층 학술세미나실

사회 :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주제 : 〈북한 역사학과 고대사 연구 동향〉

발표자 : 이영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토론자 : 하문식 (세종대)

총 평 : 신형식 (상명대)

▣ 제63회 한국중세사학회 연구발표회

일시 : 2006년 10월 28일(토) 14 : 00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관 101호

사회 : 송인주(대구교대)

1. 〈태조 왕건의 통일과정 속에서 천안부의 역할〉 발표 : 김명진(경북대) / 토론 : 류영철(영남이공대)
2. 〈고려시대 광양김씨 가계연구〉 발표 : 최영호(동아대) / 토론 : 김호동(영남대)
3. 〈13, 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발표 : 위은숙(영남대) / 토론 : 정용범(부산대)
4. 〈고려시대 구리의 사용 현황과 동소〉 발표 : 이정신(한남대) / 토론 : 윤경진(경상대)

▌11월 학술발표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 10:0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개회사 (10:10～10:20)

이원명 수선사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대회 취지 (10:20～10:30)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장

제1부 주제발표

사회: 박기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택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1주제] 임기환 교수(서울교육대학교)

〈10:40～11:10〉

〈"중국 동북공정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제2주제] 김종복 박사(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1:20～11:50〉

〈"발해사 연구의 국제적 쟁점과 연구과제"〉

[제3주제] 정병준 교수(목포대학교)

〈13:00～13:30〉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 · 미 · 일 3국의 시각"〉

[제4주제] 이규수 박사(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3:40～14:10〉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과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

[제5주제] 윤명숙 박사(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14:20～14:50〉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사적 쟁점들"〉
• 제2부 종합토론
사회: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15:30～17:30〉
[토론] 김기봉 교수(경기대학교)
윤휘탁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박 훈 교수(국민대학교)
주최: 수선사학회
주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일시: 2006년 11월 10일(금)
장소: 동북아역사재단(임광빌딩 구관 11층) 강당
주최: 韓日關係史學會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세부일정 (2006.11.10 금)
09:30-10:00 登錄 및 開會式
개회사 : 연민수(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축 사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제3부 요동반도와 영토, 민족문제(소회의실)
사회: 남상호(경기대)
1. 〈10:00-10:25〉〈明의 요동지배정책과 조선〉
發表: 남의현(강원대) 討論: 이경룡(세종대)
2. 〈10:25-10:50〉〈15세기 전후 朝明의 국경 완충지대 문제〉
發表: 유재춘(강원대) 討論: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3. 〈11:00-11:25〉〈선초 수직여진인의 조명 양속 문제〉
發表: 한성주(방송통신대) 討論: 최호균(상지영서대)
4. 〈11:25-11:50〉〈백두산정계비와 朝淸 국경에 대한 문제〉
發表 : 박선영 (포항공대) 討論 :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12:40-14:10〉 제3부 종합토론 : 사회 유재춘 (강원대)
○ 제4부 간도와 영토, 민족문제 (소회의실)
사회: 김동명(국민대)
5. 〈15:45-16:10〉〈한반도 통일문제와 간도문제 -조중변계 조약을 포함해서-〉
發表: 신주백(서울대발전연구소) 討論: 손기웅 (통일연구원)
6. 〈14:45-15:10〉〈日本의 對間島 정책의 방침 전환과 間島協約-內藤湖南의 『間島問題調査書』를 중심으로-〉
發表: 名和悅子(岡山大學) 討論: 김우준(연세대)
7. 〈15:20-15:45〉〈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發表: 이석우(인하대) 討論: 신창훈(명지대)
8. 〈14:20-14:45〉〈간도문제의 사회경제적 분석 -간도의 사회관계와 농업경영 상태를 중심으로-〉
發表: 이성환(계명대) 討論: 황민호(숭실대)
9. 〈16:10-16:35〉〈19-20세기에 걸친 간도영유권 문제 -만국공법의 수용과 영유관념의 변천-〉
發表: 秋月望(明治學院大) 討論: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16:45-18:50〉 제4부 종합토론 : 사회 이성환 (계명대)

▣ 한 · 중 · 일의 고대 수리시설 비교 연구
〈첫째 날 : 2006년 11월 2일 (목)〉
제1부 : 개회식 및 축사(10:20～11:00)
사회 : 김윤조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개회사 : 이명식 (계명사학회 회장)
축사 : 이윤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장)
이진우 (계명대학교 총장)
제2부 : 기조 및 특별 강연(11:00-12:30)
사회 : 박진우 (숙명여대)

기조강연 : 〈한국고대의 국가권력과 수리시설〉-이기동 (동국대)
특별강연 : 〈한국사에서의 수리시설〉-김현영 (농어촌연구원장)
제3부 : 청동기시대 및 백제의 수리시설 사회 : 이학로 (계명대)
제1주제 : 〈청동기시대의 수리시설과 안동 저전리 저수지〉(13:20-14:30)
발 표 : 이한상 (동양대)
토 론 : 김권구 (계명대)
제2주제 :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碧骨池〉(14:30～15:20)
발 표 : 성정용 (충북대)
토 론 : 박방룡 (대구박물관)
제4부 : 신라의 수리시설
제3주제 : 〈상주 공검지의 축조 과정과 그 성격〉(15:20-16:10)
발 표 : 박정화 (경북문화재연구원)
토 론 : 김세기 (대구한의대)
제4주제 : 〈신라 시대의 수리시설과 영천 菁堤〉(16:30-17:20)
발 표 : 전덕재 (경주대)
토 론 : 이영호 (상주대)
〈둘째 날 : 2006년 11월 3일 (금)〉
사 회 : 강판권 (계명대)
제5주제 : 〈영천 청제비의 변진명, 정원명 검토〉(9:00-9:50)
발 표 : 하일식 (연세대)
토 론 : 이문기 (경북대)
제5부 : 중국 및 일본의 수리시설
제6주제 : 〈중국 남북조시대의 수리시설과 농업〉(11:00-12:00)
발 표 : 王雙懷 (中國 陝西師範大學)
토 론 : 김재홍 (중앙박물관)
제7주제 : 〈일본고대의 수리시설과 농업〉(9:50-10:50)
발 표 : 關和彦 (日本 共立女子第二高等學校長)
토 론 : 박순발 (충남대)
종합토론 : 한국고대사회와 수리시설 (13:30-16:00)
사 회 : 주보돈 (경북대)

▌12월 학술발표

▣ 제101회 韓日關係史學會 월례발표회

일시 : 2006년 12월 9일(토) 오후 2시 00분～오후 5시 30분
장소 : 송파구 문화예술회관(송파문화원) 2층 제3회의실
사회 : 이기용(선문대)
〈제1주제〉 〈高宗14年(日本嘉祿·安貞期)前後の高麗·日本關係について〉 발표자: 近藤剛(日本中央大學) / 토론자: 이 영(방송대)
〈제2주제〉 〈14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왜구 :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의 파견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 영(방송대) / 토론자: 김보한(고려대)
〈제3주제〉 〈1876년 수신사연구 : 왜·양 분리론을 중심으로〉 발표자: 岩方久彦(부천대) /토론자: 방광석(연세대)

▣ 2006년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국제학술대회

대주제 : 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
일시 : 2006. 12. 1(금) 13:30～2(토) 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주최 : 한국국학진흥원, 국립국어원
1) 2006. 12. 1(금, 1일차)
학술대회 개회식
13:30～13:45
개회사 : 심우영(한국국학진흥원장)
환영사 : 이상규(국립국어원장)
축 사 : 김명곤(문화관광부 장관)
축 사 : 김관용(경상북도지사)

기조 강연
13:45～14:05 〈동질성에 대한 한 발언〉
- 고 은(세계한민족작가연합회장, 시인)
학술대회 주제발표(1)
－분단국가의 통일과 민족문화
14:10～15:10
〈단절이 아닌 분리 -독일의 냉전경험과 오늘날의 정신적 유산〉
-Thomas Lindenberger(포츠담대학)
15:10～16:10
〈예멘의 통일과 민족문화 동질화〉
-Ahmed M. Al-Kibsi(사나대학)
16:30～17:30
〈국가 통일에 대한 민족문화의 역할〉
-孔祥林(중국공자연구원)
17:30～18:00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박신의(경희대학교)
2) 2006. 12. 2(토, 2일차)
학술대회 주제발표(2)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10:00～10:30
〈문화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강석승(통일교육원)
10:30～11:00
〈교육을 통한 동질성회복 방안〉
-유영옥(경기대학교)
11:10～11:40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방안〉
-최용기(국립국어원)
11:40～12:10
〈고구려·발해사 공동연구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임상선(동북아연구재단)
학술대회 주제발표(3)
-동질성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조사 방법론
13:30～14:00
〈동북아 제국가의 역사왜곡 대처방안〉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14:00～14:30
〈새로운 역사인식을 위한 기초조사방안〉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14:40～15:10
〈남과 북의 언어통일을 지향하는 사전 편찬 방안〉
-한용운(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15:10～15:40
〈남북한 통일문화를 위한 민속학적 접근〉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종합토론
16:00～17:50
2부, 3부 발표자 종합 토론

▣ 2006년도 한국사연구회 학술대회
주 제 : 역사도시 평양
일시 : 2006년12월9일(토) 09: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7동 304호)
주 최 : 한국사연구회
후 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부 : 한국 고중세사의 전개와 평양
사회 : 이진한(고려대 교수)
09:40-10:30
〈고구려의 평양 도성과 그 역사적 성격〉
발표 : 임기환(서울교대 교수)
토론 : 서영대(인하대 교수)
10:30-11:20
〈고려 서경의 행정체계와 도시구조〉
발표 : 김창현(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 김기덕(건국대 교수)
11:20-12:10
〈조선 후기 평양의 문화적 특성〉
발표 : 오수창(한림대 교수)
토론 : 권내현(고려대 교수)

제2부 :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와 평양
사회 : 김성보(연세대 교수)
13:30-14:20
〈근대 평양의 도시 형성과 상공업 발달〉
발표 : 오미일(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토론 : 이승렬(서울시립대 강사)
14:20-15:10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 평양, 동아시아 도시로의 변화 가능성〉
발표 :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토론 :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3부 : 한국사상 평양의 위상
사회 : 노태돈(서울대 교수)
15:30-17:30 종합토론

▣ 백산 이청천(지청천) 장군 서거 50주기 추모 학술회의
이청천과 한국독립운동

일시 : 2006년12월15일(금) 13:30～18:00
장소 :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근현대사학회
후원 : 국가보훈처 · 광복회
2:00 제1주제 발표 〈이청천의 만주지역 군사활동〉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2:30 제2주제 발표 〈이청천의 중국관내 독립운동〉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3:15 제3주제 발표 〈이청천과 한국광복군〉 한시준(단국대학교)
3:45 제4주제 발표 〈해방 이후 이청천의 정치활동〉 김수자(이화여자대학교)
4:30 종합토론
사회 : 김희곤(안동대학교)
토론: 채영국(국민대학교), 김주용(독립기념관), 장석흥(국민대학교), 양정심(성균관대학교)

○ 연구 및 출간

◎ **도서**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1	동북아역사재단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06
2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06
3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4	박순교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5	방학봉	발해의 문화 2 -문학 예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정토출판	2006
6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2006
7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임진강에서 금강까지	서경	2006
8	백종오	남녘의 고구려 문화유산	서경	2006
9	송기호	한국 고대의 온돌 - 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0	신영란	당태종이 묻어버린 연개소문의 진실	작은키나무	2006
11	역사학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12	오영찬	낙랑군 연구 -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2006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13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14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5	이근우	고대 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	인물과 사상사	2006
16	이덕일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역사의 아침	2006
17	정석배	연해주 체르냐찌노 5 발해고분군 (Ⅱ) (제3차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	대한민국 문화재	2006
18	정영진 외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연구총서 19)	동북아역사재단	2006
19	조법종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20	지배선	고구려 백제 유민 이야기	혜안	2006
21	진종구	임진강주변 고구려城을 찾아서	어문학사	2006
22		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	한국국학진흥원	2006
23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	동북공정 알아야 대응한다 - 우리 강역 변천사	도서출판 백암	2006

◎ **논문**

● **일반논문**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A.L 이블...	러시아 연해주 발해고고학연구의 현황	高句麗硏究 25	高句麗硏究會	2006-12
	I.A. 똘...	발해와 이웃들의 문화·정치적 접촉	高句麗硏究 25	高句麗硏究會	2006-12
	O.V. 디...	연해주 발해문화의 토기 : 지리, 형식 분류, 기원	高句麗硏究 25	高句麗硏究會	2006-12
	Pankaj....	21세기 한국고대사의 위기와 호주의 반응 -호주 한국학의 고구려사 연구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7	新羅史學會	2006-08
	강 선	고구려와 突厥의 전쟁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金東宇	渤海의 地方統治體制 운영과 그 변화	韓國史學報 제24호	高麗史學會	2006-08
	金榮官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韓國古代學會	2006-12
	金在善	渤海 大武藝時期 對唐關係硏究	인문학연구 제2호	대진대학교 인문학	2006-08
	金賢正	고구려 '遊女'에 대한 사료기록과 학설 검토	新羅史學報 8	新羅史學會	2006-12
	김구진	고구려 건국신화의 성립 배경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김남중	고조선의 도성 -王儉城의 위치에 대하여-	國史館論叢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2006-06
	김미경	2世紀後半 -3世紀初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과 對公孫氏政策	國史館論叢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2006-06
	김식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상모사 방안	東北亞歷史論叢 13	동북아역사재단	2006-11
	김은국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韓國史學報 제24호	高麗史學會	2006-08
	김종복	남북국(南北國)의 책봉호(冊封號)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09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김종복	渤海史 認識의 推移 -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史林 제26호	首善史學會	2006-12
	김창호	고구려 太王陵 출토 연화문숫막새의 제작 시기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김태완	中國 上古時期와 高句麗의 語音 비교(1)	中國人文科學 第34	중국인문학회	2006-12
	김희선	6～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長安城 -도성의 가로구획방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3	한국고대사학회	2006-09
	東 潮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塚-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第百九十	朝鮮學會	2006-07
	閔德植	高句麗 平壤城과 新羅王京의 區域分割制 比較	白山學報 第75號	白山學會	2006-08
	朴京哲	麗·濟戰爭史의 再檢討	高句麗研究 第24輯	學研文化社	2006-09
	박남수	高句麗 租稅制와 民戶編制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2006-12
	박대재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기원전 4세기말～3세기초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第83號	한국사학회	2006-09
	朴雅林	【서평】 고구려 벽화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2006-09
	박아림	高句麗 古墳壁畵 기초자료 정리와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13	동북아역사재단	2006-11
	박정기	5～6세기 高句麗와 北魏 관계의 추이 -북위 文昭皇后 高氏의 등장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06-10
	方京一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徐炳國	渤海遺民史 研究	高句麗研究 25	高句麗研究會	2006-12
	徐榮教	고구려 國馬	軍史 第61號	국방부 군사편찬연...	2006-12
	서영수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서영수	광개토태왕비의 재조명	史學志 제38집	단국사학회	2006-08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제38집	단국사학회	2006-08
	손희하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2006-12
	송완범	8세기 중엽 '新羅征討' 계획으로 본 古代日本의 對外方針	韓日關係史研究 vo...	한일관계사학회	2006-10
	신종원	삼국의 불교 初傳者와 초기불교의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12
	辛珠栢	동아시아 근현대 질서변동과 중국의 한국근현대사 역사인식(1949～2006)	白山學會	白山學會	2006-08
	안국승	支石墓를 通한 古朝鮮의 領域에 대한 考察-漢北地域에 있는 지석묘를 中心으로-	漢北史學 第三輯	漢北史學會	2006-12
	엄광용	고구려 산상왕(山上王)의 '취수혼 사건'	史學志 제38집	단국사학회	2006-08
	王禹浪	唐鴻臚井刻石題名과 대조영의 국호고	高句麗研究 25	高句麗研究會	2006-12
	魏國忠	渤海의 初期 國號 "靺鞨" 再考	高句麗研究 25	高句麗研究會	2006-12
	이강식	『三國遺事』「古朝鮮」의『古記』와『帝王韻紀』「前朝鮮紀」의『本紀』가 舊『三國史』「檀君本紀...	단군학연구 제15호	단군학회	2006-12
	李道學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高句麗研究 第24輯	學研文化社	2006-09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이병건	考古學을 通해 본 中國의 渤海文化 硏究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이성환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李永植	가야와 고구려의 교류사 연구	韓國史學報 제25호	高麗史學會	2006-11
	이인재	夫餘·高句麗의 食邑制 -三國志 東夷傳을 中心으로-	東方學志 제136집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2006-12
	李仁哲	고구려와 고대중국의 전쟁 -西漢에서 西晉까지 국제정치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李廷斌	3世紀 高句麗 諸加會議와 國政運營	震檀學報 第102號	震檀學會	2006-12
	李孝珩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06-10
	이효형	발해 부흥국가와 고려의 발해 계승의식	역사와 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2006-09
	李孝珩	발해의 멸망·유민사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釜大史學 第三十輯	釜山大學校史學會	2006-08
	임기환	고구려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임기환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역사학계의 대응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史林 제26호	首善史學會	2006-12
	임상선	발해 '東京' 지역의 고구려 문화 요소	高句麗硏究 25	高句麗硏究會	2006-12
	임상선	발해의 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 제24호	高麗史學會	2006-08
	張彰恩	3~5世紀 高句麗·新羅關係의 戰爭史的 推移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전미선	고구려 고분벽화의 놀이문화	韓國古代史硏究 43	한국고대사학회	2006-09
	全虎兌	고구려 안악3호분 재론	韓國古代史硏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12
	정동준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09
	鄭雲龍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정원철	길림 장백현 간구자 묘지 발굴 간보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정호섭	고구려 특별전과 남북 문화교류	古文化 6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12
	정효운	高句麗·倭의 전쟁과 외교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조경철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4~8세기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43	한국고대사학회	2006-09
	조법종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조법종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 -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제25호	高麗史學會	2006-11
	조상현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	歷史學硏究 제28집	湖南史學會	2006-11
	赵诚乙	『世宗實錄』「地理志」와 『高麗史』「地理志」의 歷史地理 認識 -古朝鮮·三韓·三國의 首都와	朝鮮時代史學報 39	朝鮮時代史學會	2006-12
	赵诚乙	三國史記의 三韓·三國 首都와 疆域 認識	科技考古硏究 弟12집	아주대학교 박물관	2006-12
	朱甫暾	신라의 部와 部體制	釜大史學 第三十輯	釜山大學校史學會	2006-08
	周采赫	'몽골'-「貊高麗」, 유목형 '고구려' 世界帝國考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池培善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 -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高句麗硏究 第24輯	學硏文化社	2006-09
	최정환	【서평】『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박용운, 2006, 일지사)	東北亞歷史論叢 13	동북아역사재단	2006-11
	최종택	고구려고고학의 최근 연구성과와 과제	韓國先史考古學報 12	韓國先史考古學會	2006-06
	하원호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2006-12
	韓圭哲	발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남·북한 그리고 중·일·러의 연구비교-	白山學報 第76號	白山學會	2006-12
	한명기	조선시대 韓中 지식인의 高句麗 인식 -고구려의 '强盛'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3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12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韓國史硏究 134	韓國史硏究會	2006-09

● 학위논문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1	강성봉	발해의 8위제 연구	성균관대	2006	석
2	강신영	8~9세기 동아시아의 동기교역과 장보고	동국대	2006	석
3	김경미	통구지역 적석총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대	2006	석
4	김경복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인의 식생활	고려대	2006	석
5	김동우	발해 지방 통치 체제 연구 :발해 수령을 중심으로	고려대	2006	박
6	김량훈	4~5세기 남부가야제국과 백제의 교섭 추이	부산대	2006	석
7	김미숙	삼국시대 연화문수막새 와당의 조형적 특징 연구	경희대	2006	석
8	김미진	한·중 고대사 '분쟁'의 쟁점과 과제 :'동북공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6	석
9	김민선	고구려 머리모양과 관모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6	석
10	김민정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성신여대	2006	석
11	김선영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학습자료 분석	전북대	2006	석
12	김영준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의 정기적 국가의례	인하대	2006	석
13	김영천	말갈의 성장을 통해 본 고구려와의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석
14	김오선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발해사 서술 내용 분석 :6·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 비교	충북대	2006	석
15	김은진	낙랑고분 출토의 칠기 연구 : 평양 석암리 205호분을 중심으로	동국대	2006	석
16	김제호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 비교 분석 : 고구려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경남대	2006	석
17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	2006	박
18	김진선	중국정사 조선전의 한국고대복식 연구	단국대	2006	석
19	김흥복	고구려와 말갈 관계의 연구	한국교원대	2006	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20	나가사키 아이	남·북한 언론의 고구려 역사 및 독도 영유권 관련 분쟁에 관한 보도의 비교분석	연세대	2006	석
21	맹선영	고구려 고분벽화 연화문의 상징성 연구	강원대	2006	석
22	박병훈	단군신화의 일고찰	전주대	2006	석
23	박정기	5~6세기 고구려와 북위 관계의 추이 : 북위 문소황후 고씨의 등장과 관련하여	부산대	2006	석
24	박종영	고구려 전기 귀족회의와 국상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	2006	석
25	박진영	철기시대전기말 영동·영서지역 토기 연구 : 한식·낙랑도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2006	석
26	배영민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춤의 예술적 성향 연구	중앙대	2006	석
27	백종오	고구려 기와 연구	단국대	2006	박
28	시노하라 히로카타	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발전 : 4~5세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2006	박
29	신채경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묘주 연구 : 분묘구조와 행렬도를 중심으로	영남대	2006	석
30	심광주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연구	상명대	2006	박
31	심재헌	8세기 말 발해 정치세력의 변동과 대일본외교	한국교원대	2006	석
32	안종남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무예 형태의 조사연구	용인대	2006	석
33	안지연	고구려 주몽신화 연구 : 서언왕신화와의 비교중심으로	경기대	2006	석
34	엄광용	고구려 山上王의 '취수혼 사건'	단국대	2006	석
35	오혜정	동북공정에 나타난 중화사상의 현대적 변용	부산외국어대	2006	석
36	이경숙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연화의 양식적특성과 상징성에 관하여	대구대	2006	석
37	이연자	역사 학습 자료로서의 역사지도에 관한 분석 :고등학교 7차『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2006	석
38	이원배	고구려 '동명' 왕호의 성립과정과 성격	고려대	2006	석
39	이인숙	고구려의 자연재해와 대책	한국교원대	2006	석
40	이정민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춤 연구	이화여대	2006	석
41	이정자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 인식 : 대외관계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박
42	이정현	신라·고려인의 발해인식	한양대	2006	석
43	이준성	고구려 건국기 '국주'교체와 집권화 과정 연구	연세대	2006	석
44	이진영	국사과 수준별 자료 개발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중학교 'Ⅲ. 통일신라와 발해' 단원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6	석
45	장경숙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동아대	2006	박
46	장상주	鄭道傳의 北進政策에 대한 硏究 : 東北面 守復을 중심으로	안동대	2006	석
47	장오중	발해 인각와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6	석
48	張彰恩	新羅 上古期 高句麗 關係와 政治勢力 硏究	國民大學校	2006	박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49	전미선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이화여대	2006	석
50	정세영	고구려 미천왕대의 평양공략과 그 의미	국민대	2006	석
51	정영실	발해와 일본에 있어서의 한시문학의 전개와 교류에 관하여	경상대	2006	석
52	정진희	고등학교 역사부도의 경제사 분야에 대한 연구	계명대	2006	석
53	許太榕	朝鮮後期 中華繼承意識의 展開와 北方古代史認識의 强化	고려대	2006	박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신문/잡지**

● 신문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	2006.01.05	한겨레	사극, 선정적 민족주의 비켜갈까
2	2006.01.10	매일경제	KTF, 민족 화합 위한 한민족 사랑 요금 출시
3	2006.01.13	서울신문	[儒林 속 한자이야기] (105) 暗中摸索(암중모색)
4	2006.01.18	한국일보	中 인터넷에 황당한 고구려사 음모론
5	2006.01.21	동아일보	김정배 前고대총장 '한국고대사입문' 출판기념회
6	2006.01.25	한국일보	부상자 일으키던 손, 이젠 역사 바로세우기로
7	2006.01.31	문화일보	〈데스크 시각〉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8	2006.02.02	문화일보	논어 이면에 숨은 '공자의 비밀' 추적
9		한국일보	中, 발해 연구 열심인데 우린 남의 일 처럼 여겨
10	2006.02.03	매일경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한국 최고
11		국민일보	[독자의 목소리] 국어 · 국사교육이 더 중요하다
12	2006.02.07	조선일보	[디지털 문화혁명] 편하다고 클릭클릭 … 藥이 毒됩니다
13	2006.02.10	문화일보	〈데스크 시각〉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14	2006.02.14	국민일보	[경제시평—이만우] 인문학 재정지원 늘려야
15	2006.02.15	세계일보	고구려 사극으로 TV판 왕의 남자 노린다
16	2006.02.16	서울신문	100부작 '연개소문' 집필 이환경 작가
17	2006.02.22	서울신문	기억을 둘러 싼 투쟁으로서의 역사
18	2006.02.23	세계일보	[단독]반크, 역사바로잡기 잇단 성과
19	2006.03.01	동아일보	서길수 교수 "中 동북공정 고조선史까지 넘본다"
20	2006.03.03	국민일보	[책꽂이] 영화 속의 얼굴 外
21		세계일보	[화제의 책]동북공정 고구려사
22		조선일보	[이덕일사랑] 琵琶形 銅劍(비파형 동검)을 찾아서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3		조선일보	[한줄읽기] 시공간의 미래 외
24		한국일보	황당한 中 동북공정론 의 실체
25	2006.03.04	서울신문	김위현 교수가 읽은 '동북공정 고구려사'
26	2006.03.05	경향신문	서길수교수 "중단없는 中 역사침탈 대비"
27	2006.03.10	세계일보	[책]대쥬신을 찾아서1, 2
28		한겨레	"고대 동북아 주역은 한족 아닌 쥬신"
29		서울신문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김기봉 지음
30	2006.03.11	서울신문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김기봉 지음
31	2006.03.14	조선일보	中國 마음 알아야 '역사 중심' 잡는다
32		동아일보	"韓- 日 - 몽골의 공통된 뿌리는 쥬신족"
33		동아일보	中교과서 한국사 왜곡 어디까지…?
34	2006.03.15	서울신문	17일 '동북공정' 학술대회
35		세계일보	동아시아 공동체로 한 · 중 · 일 뭉치자
36	2006.03.16	서울신문	내일 '동북공정' 학술대회
37		중앙일보	점 빼는 레이저로 수천 년 더께 없애고
38	2006.03.17	조선일보	[이덕일사랑] 皇國史觀과 中華史觀
39		중앙일보	[BOOK기획] 민족주의 · 탈민족주의는 결국 공범 관계?
40	2006.03.18	동아일보	[문화오디세이]신화 역사로 만드는 中…신화도 역사도 못찾는 韓
41	2006.03.20	문화일보	한 · 중 '싱크탱크' 수뇌 국가정책 의견교환한다
42	2006.03.23	동아일보	[횡설수설/한기흥]경제 동북공정(東北工程)
43	2006.03.27	동아일보	[여론마당/정용화]한국판 '동북공정' 시작하자
44	2006.03.29	문화일보	〈현장에서〉정치판 싸움에 밀린 '역사'
45	2006.04.05	문화일보	"한민족 뿌리 제대로 알리고 싶어"
46		한국일보	동북공정 대항 위해 삼국유사 영어로 번역
47	2006.04.06	서울신문	한반도 특수상황 다룬 가상소설 2편
48	2006.04.07	서울신문	[기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어찌 되었나/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49		한겨레	'평양 안학궁터' 남북 공동발굴
50	2006.04.11	동아일보	김기봉 교수 "대중의 역사소비시대… 주입식 안돼"
51	2006.04.13	국민일보	대만 "한국은 中 식민지였다" 표기 파문
52	2006.04.17.	조선일보	김일성 사망 배후엔 중국 동북공정이…
53	2006.04.18	문화일보	〈기고〉일본정부에도 '독도이견' 있다
54	2006.04.21	한국일보	[高句麗(고구려)] 고구려 관심갖는 계기 고증 미비 · 왜곡은 안돼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55		한국일보	高句麗人 TV를 호령하다
56	2006.04.22	한국일보	[고구려인 TV 점령] 주몽 태왕사신기 대조영 연개소문
57	2006.04.26	한국일보	평양 안학궁 고구려 宮 확인
58	2006.04.27	국민일보	[여의도 포럼—이만열] 국사를 위한 변명은 이제 그만
59	2006.04.28	조선일보	TV 드라마 속 넘쳐나는 고구려 이야기
60		문화일보	〈포럼〉제조업 공동화와 '中경제 동북공정'
61	2006.05.03	서울신문	"No!" 그건 중국의 역사왜곡
62		중앙일보	[내생각은] 중국 역사왜곡 은 왜 대응 않나
63	2006.05.04	동아일보	MBC 월화사극'주몽' 송일국 "우리 자긍심 높이고 싶다"
64		조선일보	10~15년후의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될까
65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日 패권주의를 바라보며
66	2006.05.08	문화일보	〈포럼〉신동북아시대의 개막
67		문화일보	'고구려 역사찾기' 로 '동북공정' 맞불
68	2006.05.09	동아일보	동북아역사재단 8월께 설립…역사왜곡 대응 궤도 오를까
69		경향신문	[기자메모]"한국서 역사왜곡" 발칵 뒤집어 진 中
70	2006.05.10	경향신문	"간도 우리땅" 호랑이 한반도지도
71		한국일보	[광주] 영토 도발? 어흥, 물렀거라!
72	2006.05.11	동아일보	[中 압록강변 고구려 고분 2,360기 발견]中 어떻게 나올까
73	2006.05.12	동아일보	中수몰지구서 발견된 성곽 "고구려 동황성일 가능성 높다"
74		한겨레	돌덩이 하나하나에 석수 날품 서리서리
75	2006.05.14	중앙일보	고구려 유물 확실 … 중국은 역사 왜곡 말라
76	2006.05.16	동아일보	[횡설수설/홍찬식]고구려고분의 水難
77	2006.05.17	한겨레	"또 하나의 남성판타지 이번엔 연인도 당찬 여자"
78	2006.05.18	서울신문	[오늘의 눈] 고분, 그대로 잠기게 할 것인가/이지운 베이징 특파원
79	2006.05.20	중앙일보	중국 제2의 동북공정 논란
80	2006.05.22	조선일보	[오피니언] 다시 물에 잠기는 윈펑댐 고구려 유적
81		동아일보	[기고/신용철]물에 잠기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82		동아일보	동아시아와 미국…한중일 싱크탱크 도쿄 대토론
83	2006.05.23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美中日 사이에 떠 있는 나라
84	2006.05.24	세계일보	〈기획2〉'주몽' 제작진, '재미'와 '역사' 두마리 토끼 몰이 하라
85	2006.05.25	국민일보	韓中日 FTA 민족주의로 어려워…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
86	2006.05.26	문화일보	〈300자책읽기〉'탄생설화' 등 다큐식 구성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87		한겨레	'토종 판타지' 나래 펴고 발해로 날아보자
88		서울신문	[서울광장] 주몽과 소서노, 그리고 팩션/이용원 논설위원
89		세계일보	[책]영토한국사
90	2006.05.27	문화일보	中 "한중 FTA 조속 체결"
91	2006.05.28	국민일보	'발해석비' 반환 요구 파문…"전리품으로 가져가", 日 "모르는 일"
92		중앙일보	발해, 중국사에 편입 …제2 동북공정인가
93		매일경제	중국, 일본에 발해국 석비 반환요구
94		한겨레	고구려가 몰려온다
95	2006.05.30	조선일보	[기자수첩] 日도 끼어든 '동북공정'
96		국민일보	中 발해수도 유적 본격 복원… 5개 궁전 · 주작대로 흔적 그대로
97		중앙일보	[시론] 발해사 왜곡하려는 중국
98	2006.05.31	조선일보	中, 발해수도 복원 추진
99	2006.06.01	한국일보	[지평선] 중국의 욕심
100		조선일보	[사설] "고구려는 중국사"에 이은 "발해도 중국사"
101	2006.06.02	조선일보	"고구려 테마공원등 조성 구리를 명품도시로 만들것"
102	2006.06.03	문화일보	〈김승현의 文化데이트〉"中 발해史 편입은 한반도 개입 명분 쌓기"
103		중앙일보	[분수대] 동북공정 대처법
104	2006.06.05	중앙일보	동북문화공정 가속… 중, 발해.고구려 산성 2곳씩 문화재 지정
105		중앙일보	[노트북을열며] 중국 공산당에 질 수는 없다
106	2006.06.07	조선일보	기업들 中동북지역 진출 러시
107		조선일보	[태평로] 우루무치에서 발해를 생각하다
108		서울신문	"동아시아 인식의 공동체 만들자"
109	2006.06.08	세계일보	[스포츠월드]주몽 '대장금 신화' 넘어설까
110	2006.06.09	문화일보	'공자'키워드로 20세기 중국 읽기
111		세계일보	[책]한국사통론
112	2006.06.10	조선일보	시청률 돌풍 '주몽'의 드라마작가 최완규 씨
113	2006.06.11	한국일보	中 옌지에 진달래 문화원 만드는 장용규씨
114	2006.06.12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탁록의 中華三祖堂
115		동아일보	[우리 함께]KTF, '싱크코리아 요금제' 공익단체 지원
116		중앙일보	[NIE] 중국은 왜 발해를 자국의 역사라고 우길까요
117		경향신문	고구려 재단 흡수 · 통합…동북아재단 8월 출범
118	2006.06.13	동아일보	中 역사왜곡 대응, 동북아재단이 전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19		경향신문	'한국사통론'등 역사입문서 전면 업그레이드
120	2006.06.14	한겨레	[기고] 6 · 15선언의 민족사적 과제 / 김삼웅
121	2006.06.16	서울신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중국사… / 저우스펀 지음
122	2006.06.17	조선일보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나라였다
123		서울신문	자국주의 배제된 중국사
124	2006.06.21	동아일보	中, 韓드라마 수입 올해 4편만 승인…韓流막기 만리장성?
125	2006.06.22	국민일보	[사설] 中, 이젠 한국 TV 프로까지 트집잡나
126	2006.06.23	문화일보	'동북공정'은 新중화주의 서곡
127		경향신문	"동북공정은 깃털 몸통은 따로 있다"
128		경향신문	中 '한류막기' 만리장성 쌓는다
129		중앙일보	[행복한책읽기Review] 다시 시작된 팽창주의, 중국을 해부하다
130	2006.06.24	조선일보	"中 고구려 왜곡은 한반도 개입 전략"
131	2006.06.28	문화일보	중국 경제 巨物 대거 서울에
132		한국일보	[기고] 동북공정 단상
133	2006.06.29	한겨레	둥둥둥둥 몽골 초원의 '고구려 혼'을 깨우리라
134	2006.06.30	한겨레	"야마이 왕국 히미코는 가락국 공주"
135		한겨레	미국과 중국 사이 한반도 살길은?
136	2006.07.01	조선일보	中, 고구려 이어 "부여도 우리 역사"
137	2006.07.02	세계일보	[시사 따라잡기]역사해석에 대한 갈등
138	2006.07.03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河西走廊
139		경향신문	모습 드러낸 '연개소문', 고구려의 영웅 '위험한 부활'
140		국민일보	하나銀 '동북공정' 中 동북 3성 소매금융시장 공략
141	2006.07.04	동아일보	[흥미진진한 역사 읽기 30선]〈3〉고고학자 조유전의 한국사…
142	2006.07.05	한국일보	연개소문 이환경 고구려 魂담은 사극 진수 보여줄 것
143	2006.07.07	한겨레	자국중심주의사관 탈피한 다국간 대화
144	2006.07.10	한국일보	일연 탄생 800년 행사 다채… 삼국유사 현대적 의미 재조명
145		국민일보	[글로벌 포커스—윤재석] 要시찰 대상 中 조선족
146		한겨레	"'평양에서 온 국보' 보러 서울가요"
147	2006.07.13	한겨레	연개소문, 픽션 지나쳐 국수주의 우려…정통사극 맞나?
148		한국일보	[지평서] 고구려 영웅들의 부활
149	2006.07.14	서울신문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 포럼
150	2006.07.18	경향신문	[흐름과 소통] TV드라마 '고구려 열풍' 왜?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51		서울신문	무자격 가이드들 황당한 역사 왜곡
152	2006.07.20	동아일보	중국 '동북공정 논문' 홍수
153	2006.07.21	서울신문	[주말화제] 불붙은 고구려마케팅
154		중앙일보	[BOOK꿈나무] 그리스신화 저리 가 흥미진진 주몽신화
155	2006.07.25	중앙일보	백두산 · 발해가 중국 유산?
156		조선일보	고구려 유적지는 전원주택단지?
157		한국일보	[사설/7월 26일] 백두산 · 발해유적이 세계유산 된다는데
158	2006.07.27	중앙일보	[중앙시평] 역사적 상상력의 남용
159	2006.07.29	문화일보	영화 · 드라마 '민족주의' 바람… 문제없나
160		문화일보	"日 독도 영유권 주장하지만 다시 찾을 방법 전혀 없어"
161	2006.07.30	경향신문	中 백두산 대개발 '영유권 고착화?'
162	2006.07.31	조선일보	中, 백두산마저 노리나
163		동아일보	中 '백두산은 우리 것' 못박나
164		문화일보	〈여론마당〉일제 '간도협약'은 무효… 北과 공조 영토문제 공론화를
165		국민일보	[사설] 갈수록 가관인 중국의 역사탈취 야욕
166		중앙일보	중국 인삼 동북공정 ?
167		서울신문	[사설] 中의 '백두산 공정' 두고만 볼건가
168		한겨레	연개소문 · 주몽…다음은 대조영 안방은 고구려전쟁터!
169	2006.08.01	동아일보	[횡설수설/김충식]백두산
170		서울신문	[사설] 中의 '백두산 공정' 두고만 볼건가
171	2006.08.02	동아일보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통합
172		한겨레	"주도권 다툼 버리고 국제행사 이끌어야"
173	2006.08.03	중앙일보	백두산 물까지 노리는 중국 동북공정
174		경향신문	[여적] 백두산
175		조선일보	[특파원칼럼] 2006년 여름 '중국 vs. 한국'
176	2006.08.04	한겨레	[단독] 심상치 않은 북 -중관계 어디로 향하나
177		한겨레	[한겨레원형질] 민족문화상징 100 ②
178	2006.08.05	동아일보	WSJ "中 백두산공정은 간도분쟁 대비한것"
179	2006.08.06	국민일보	[시사풍향계 - 이남주] '長白공정' 이성적 대처를
180	2006.08.07	한국일보	고구려사 中에 한참 뒤져… 연구기관 절실
181		국민일보	고구려연구재단 해산… 22일 출범 고대사연구 발판마련
182		중앙일보	한 · 중 · 일 역사 갈등 해법 찾는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83	2006.08.08	조선일보	中 대학교재도 "고구려 · 부여가 중국사 일부"
184		조선일보	'고구려史 왜곡' 대응에 빨간불 켜졌다
185		문화일보	〈취재수첩〉고구려연구재단 29개월만의 해산
186	2006.08.09	서울신문	[중국의 '백두산 공정'] '장백산' 브랜드 선점…영유권 주장 노골화
187	2006.08.12	동아일보	中, 두만강 상류에 탈북자 방지 명목 철조망
188	2006.08.13	한국일보	[손호철의 정치논평]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189	2006.08.14	조선일보	[오피니언] 동북아역사재단이 오래가려면
190		한겨레	"요즘 역사드라마 왜곡 우려스럽다"
191	2006.08.18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唐 太宗의 昭陵
192		경향신문	[시론]북방영토 정책좌표 시급하다
193	2006.08.19	문화일보	〈포럼〉'자주'가 100년전 역사 되풀이 않게
194	2006.08.23	한겨레	역사가 얕잡아본 '고구려 여걸들'
195		서울신문	[염주영 칼럼] 北광산 사재기, 제2 동북공정인가
196		한국일보	작전권 환수는 北붕괴 대비용 김성곤 국방위원장 밝혀
197	2006.08.28	서울신문	[세계의 싱크탱크] (6) 中 사회과학원
198		서울신문	"육당 '만몽론'은 대륙지향 의식"
199	2006.09.01	동아일보	[동아광장/정옥자]역사 드라마의 쇼비니즘
200		중앙일보	예맥은 중국민족 한민족 조상까지 왜곡
201		세계일보	[기고] 우리 땅 간도 되찾아야 한다
202	2006.09.04	동아일보	中 '백두산 공정' 현장을 가다…노골화하는 역사-문화 왜곡
203		세계일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204	2006.09.05	동아일보	"2018 동계올림픽은 창바이에서" 中영토 도장찍기
205		중앙일보	고조선~발해는 중국 역사 중, 동북공정 책자까지 발간
206		문화일보	〈사설〉고구려 · 발해사 이어 백두산 넘보는 중국
207		문화일보	〈나의 일 나의 길〉"고구려史 뺏긴뒤 TV 드라마 등서 뒷북"
208		매일경제	[돌발질문] 중국이 백두산에 동계올림픽 유치한다는데?
209		매일경제	[사설] 中 역사왜곡 적극 대응하라
210		한국일보	[사설/9월 6일] 발해국사 에 담긴 중국의 패권주의
211		경향신문	임효재 교수 "2003년 中 역사왜곡 정치적 이유로 미온 대응"
212		경향신문	中 역사교과서엔 '고구려'가 없다
213		경향신문	"한강 이북은 中 영토"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억지논문
214		경향신문	[사설] 백두산까지 넘실대는 중국의 '동북공정' 파도
215		한겨레	한반도 통일 뒤 영토분쟁 대처위해 국책연구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16		한겨레	중국, 역사왜곡 재점화
217		세계일보	간도는 우리 땅 언젠가는 되찾아야”
218	2006.09.06	조선일보	中, 傳說까지 끌어들여 ‘한국史 삼키기’
219		조선일보	中 “한강유역은 중국땅이었다”
220		조선일보	고구려재단 전 이사 “동북공정에 북한 학자도 속이 부글부글”
221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마침내 드러난 동북공정의 속셈
222		동아일보	[기자의 눈/하종대]섬뜩한 中동북공정 프로젝트
223		동아일보	“한강 유역도 한때 중국땅”…中정부 ‘동북공정 인해전술’
224		중앙일보	[사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왜 말 못하나
225		중앙일보	한강 유역도 고대 중국의 영토
226		세계일보	정부 中 논문 검토후 외교대응”
227		경향신문	中 새학기 교과서 ‘고조선~발해’ 중국사 편입
228		매일경제	[사회] 동북공정 항의 중국 여행 중단 캠페인
229		문화일보	〈취재수첩〉학자들 입까지 막으려 하나
230		문화일보	“중국 B급학자들의 궤변”
231		문화일보	맞불 놓을 ‘동북아재단’ 출범도 못했다
232		한국일보	中 역사왜곡 단호히 대처
233		한겨레	중국 역사왜곡, 외교적 · 학술적 대응 병행해야
234		한겨레	동북공정 중단하라
235		한겨레	중국, 백두산에서 성화 채화
236		경향신문	정부 “中동북공정 외교 대응”
237		경향신문	[中역사교과서 왜곡] 동북공정 연구결과 이미 일부 반영
238		경향신문	이 외교차관 “역사왜곡 정부차원서 단호히 대처”
239		서울신문	[사설] 동북공정 대응 중국 눈치보지 말라
240		국민일보	[사설] 中 파상적 역사왜곡에 남북한 뒷짐만
241	2006.09.07	조선일보	“정부가 고구려재단 해산하라 1년전부터 압력”
242		조선일보	우린 ‘역사왜곡’ 대응인력 절반 줄였다
243		조선일보	[사설] 중국, 人海전술로 한국 역사를 유린하다
244		동아일보	정부, 中 ‘휴전’ 말만 믿다 뒤통수 맞아
245		동아일보	“한-중, 간도 영유권 분쟁 미해결”
246		동아일보	“자주 외치더니 中엔 왜 말 못하나”
247		동아일보	中동북공정 2년간 까맣게 몰랐다
248		중앙일보	중국이 백두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 관광 · 지하자원에 눈독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49		서울신문	[사설] 동북공정 대응 중국 눈치보지 말라
250		문화일보	〈푸른광장〉동북공정의 질긴 역사
251		문화일보	〈사설〉중국 눈치보느라 동북공정에 눈감아온 2년
252		세계일보	동북공정 결사저지 中대사관 앞 1인 시위
253		매일경제	[돌발질문] 中 동북공정 어떻게 대응?
254		매일경제	[기자24시] 동북공정과 新사대주의
255		한국일보	[사설/9월 8일] 하품만 나오는 정부의 동북공정 대응
256		한국일보	여야, 통외통위서 정부 미온대응 질타
257		한국일보	中, 발해사 왜곡 이미 1980년대 시작
258		한겨레	정부 '동북공정' 대응 혼선
259		경향신문	"왜곡 진상파악도 못해" 동북공정 대처 질타
260			정부 "中 공식입장 될때 문제제기"
261			[사설] 중국의 고대사 왜곡, 정부 대응 안일하다
262		서울신문	[씨줄날줄] 기자조선/이용원 수석논설위원
263		중앙일보	[시론] 중국 눈치보다 백두산까지
264	2006.09.08	한국일보	동북공정… 여야, 통외통위서 정부 질타
265		한국일보	[한국시론] 동북공정, 21세기 중국의 세계전략
266		한국일보	中동북공정에 저자세 외교 왜?
267		한국일보	盧대통령 과거사가 동북아 통합 장애
268		한국일보	여야 中 역사왜곡 초당적 대처
269		조선일보	중국동포 유학생에 설악관광 홍보
270		조선일보	정부 '中동북공정' 감싸기
271		조선일보	외교부 '자화자찬' 급급
272		조선일보	동북아재단 지휘부 '중국通' 없어
273		조선일보	외교부 "백두산공정은 관광用" 오판
274		조선일보	'동북공정' 주도 中 사회과학원
275		조선일보	"중국, 역사왜곡 매달리는 이유는 북한 붕괴때 연고권 주장 위한것"
276		조선일보	美日에 할말하는 盧대통령 中엔 "……"
277		조선일보	중 2004년 한중 합의 뒤에도 역사왜곡 정부, 알면서도 숨겼다
278		조선일보	[만물상] 역사의 정치무기화
279		동아일보	[사설]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80		동아일보	中 대변인 같은 외교부 "中 정부차원 왜곡 없다"
281		동아일보	中 앞에선 왜? …日엔 비판, 동북공정엔 꿀먹은 벙어리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82		동아일보	김진명 "동북공정은 한반도 흡수통합 위한 中의 공작"
283		중앙일보	중국 이번엔 백두산서 … 왜
284		중앙일보	사무총장에 보여라 지시에 연구원 두 명 언론 기고 포기
285		중앙일보	외교부 동북공정 중단 요구 어렵다
286		중앙일보	[박석재의천문학이야기] 동북공정과 세종대왕
287		세계일보	중국, 역사왜곡 정부는 뭐했나"
288		세계일보	공무원노조 차제에 만주땅까지 되찾아야
289		문화일보	〈지구촌 전망대〉역사없이는 미래도 없다
290		매일경제	역사왜곡 대응에 200억 지원
291		국민일보	[사설] 정부, 동북공정 대변인으로 나섰나
292		국민일보	[동북공정 대응] "발해史 우리학계부터 정리를"
293		경향신문	'동북공정' 시정 2년 허송 외교부 '눈뜬 장님'
294		경향신문	정부 '동북공정 대응' 일 터지면 허둥지둥 '無備有患'
295		한겨레	동북공정 관련 주요사건
296		한겨레	다시 불붙은 '동북공정'…한국정부 대응은 적절했나
297		한겨레	'동북아 역사재단' 흔들기 그만
298		한겨레	'세발까마귀' 역사기행 나서
299	2006.09.09	중앙일보	[사설] 한국 외교부는 중국 대변인인가
300		중앙일보	중국의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통일 대비 영유권 노림수
301		중앙일보	외교 · 문화부 등 공조 필요
302		조선일보	도굴한 부여國 유물 '중국 문화재' 둔갑
303		조선일보	동북공정 주도 中사회과학원 역대 수장은 黨이론 뒷받침해 온 정치 거물들
304		조선일보	[기자수첩] 동북공정에 침묵하는 북한
305		조선일보	백두산, 중 통일대비 영유권 노림수
306		동아일보	[시론/서길수]중국의 문화제국주의
307		동아일보	"동북공정은 지방정부 전략" 정부주장이 틀린 5대 이유
308		문화일보	〈사람과 말〉 "외교부는 국적 없는 사람들인가"
309		문화일보	〈포럼〉시녀화한 역사연구, 연목구어 대응
310		문화일보	〈인터넷에선 무슨 일이〉 "中동북공정 기간 정부는 뭘했나"
311	2006.09.10	한국일보	[지평선] 원자바오와 저우언라이
312		한국일보	동북공정, 한 · 중관계에 부정적
313		국민일보	[시사풍향계—우실하] 동북공정은 '큰 그림'의 일부
314		경향신문	[베이징에서] '덮고 싶은 동북공정'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15		경향신문	韓 · 中 '역사 대화' 갖자…소모적 정쟁보다 대안마련
316		경향신문	中 "동북공정 정부차원 조치"…盧대통령 유감 표시에
317		매일경제	盧대통령 동북공정 유감
318		중앙일보	[월요인터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319	2006.09.11	조선일보	"달걀을 한바구니에 담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320		조선일보	"중국의 동북공정은 양국관계에 부정적"
321		조선일보	[팔면봉] 盧, 中 동북공정에 "양국 관계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외
322		조선일보	[이덕일사랑] 동북공정과 檀君
323		동아일보	[기고/고정일]백두산의 눈물
324		동아일보	中 예비교사들 '왜곡 역사' 배워
325		동아일보	盧대통령 "中동북공정 유감"-, 원 총리 "악영향 없도록 조치"
326		동아일보	"대북제재 北자극" 한미회담 코앞 美압박
327		문화일보	아차산 고구려공원 재추진
328		매일경제	[매경춘추] 차라리 애국가를 바꿔라
329		매일경제	[기자24시] 중국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
330		한겨레	중 지린성 백두산 자연사박물관 개관
331		한겨레	중국 언론 "동북공정 조처" 총리발언 보도 안해
332		서울신문	[사설] 中, 동북공정 시정 약속 지켜라
333		중앙일보	[이훈범칼럼] 8호정신
334		동아일보	"사료가치 없는 내용 짜깁기 '고조선' 왜곡"
335		조선일보	[만물상] 조공(朝貢)
336		조선일보	[학술 소식] 고구려연구회 외
337		조선일보	동북공정은 우리 古代史의 강탈… 한강유역까지 '기웃'
338		조선일보	동북공정은 '날조공장'
339		조선일보	백두산 삼키려는 중국
340		서울신문	[사설] 中, 동북공정 시정 약속 지켜라
341		문화일보	〈포럼〉중국 역사교육의 두 얼굴
342		문화일보	"동북공정 민 · 관 합동대책위 설립"
343		세계일보	동북공정 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344		경향신문	中 역사왜곡 현장탐방
345		경향신문	中 동북공정 연구 끝냈다" 동북지방서 연구성과 토론회
346		한국일보	[메아리] 동북공정이 대수인가
347		한국일보	中동북공정 저지 30여개 단체 뭉쳤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48		서울신문	“동북공정 문제가 한 · 중관계 걸림돌 안돼야”
349		서울신문	동북공정 현장 다큐 방영
350		서울신문	‘동북공정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351		중앙일보	[분수대] 세발 까마귀
352	2006.09.13	동아일보	한중일 ‘인터넷 삼국지’…‘사이버 민족주의’ 극성
353		동아일보	“정부가 中 역사침탈 행위 묵인”
354		중앙일보	후진타오 서북공정 ?
355		서울신문	“동북공정이 한 · 중관계 걸림돌 안돼야”
356		서울신문	동북공정 현장 다큐 방영
357		서울신문	‘동북공정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358		매일경제	상하이 臨政청사주변 재개발 표류
359		한국일보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의 대책은…
360		경향신문	中 네티즌들 동북공정 ‘한술 더 뜬다’
361		한겨레	“동북공정 뿌리 ‘강역이론’부터 대응해야”
362		한겨레	중국 동북공정 저지 범국민대회
363		세계일보	[기고]중국 동북공정 맞서 북한도 공동대응 나서야
364	2006.09.14	조선일보	중국의 역사왜곡 현장을 가다
365		조선일보	“고구려史는 중국 단결에 중차대한 문제”
366		동아일보	[사설]과거사 政略에 쓴 혈세, 10%만 고구려사에 썼어도
367		동아일보	‘타임머신 배우’… 대하사극 ‘대조영’ 주연 최수종
368		동아일보	[기자의 눈/권재현]상대국 관점만 좇는 외교관
369		중앙일보	중국 동북공정에 앞서 서남공정 은 어떻게 …
370		세계일보	[기고]중국 동북공정 맞서 북한도 공동대응 나서야
371		세계일보	고구려 삼족오 패션 트랜드로 뜬다
372		문화일보	〈여론마당〉중국의 동북공정에 속수무책… 치밀한 전략 세워야
373		경향신문	KBS ‘대조영’ 1,300년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발해의 꿈
374		한국일보	삼족오 티셔츠… 고구려가 뜬다
375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달라이라마와 동북공정
376		국민일보	“현토 고구려현, 주몽 고구려는 별개”… 고구려연구회, 중국학자 17개 논문 반박
377	2006.09.15	한국일보	동북공정 대응 때 국수주의 사관 버려야
378		동아일보	“한국史 시야 金-淸 역사로 확대해야”
379		중앙일보	[클릭joins.com] 중국판 조삼모사
380		세계일보	잃어버린 발해사 를 밝힌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81		매일경제	팬택, 해외 교과서 통해 한국 알리기 나서
382		매일경제	[한조각 역사] 역주행 동북공정
383		문화일보	〈사설〉동북공정 이어 이어도 해역까지 넘보는 中패권외교
384		국민일보	[사설] 中國의 터무니 없는 오만과 욕심 어디까지
385		한겨레	배부른 기회주의자들의 식민지 찬가
386		한겨레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번잡하구나
387		한겨레	일본에 뒤통수 맞은 중국을 보라
388		한겨레	'동북공정' 대응, 단재선생이 뭐랄꼬
389		한겨레	발해 무대 대하드라마 첫방송
390	2006.09.16	조선일보	中 사학계 主流 "역사왜곡 문제" 처음 입열어
391		조선일보	"베이징大선 고구려를 한국史로 가르쳐"
392		중앙일보	[취재일기] 동북공정 외면한 시민단체
393		중앙일보	[사설] 백두산에 이어 이어도까지 넘보는 중국
394		문화일보	〈포럼〉東北工程이 간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395		한국일보	[특파원 칼럼] 동북공정의 진정한 난관
396		국민일보	[독자의 목소리] 역사침탈 대비해 교육 강화해야
397		서울신문	[씨줄날줄] '淸나라 시조'/이용원 수석논설위원
398		중앙일보	[노트북을열며] 바이킹과 고구려
399		조선일보	[오피니언] 동북공정은 역사전쟁 선전포고
400		조선일보	[사설] 東海바다만큼 벌어진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
401	2006.09.18	세계일보	[시사 따라잡기]중국의 동북공정
402		세계일보	[기고] 백두산 문제 남북한 공동 대처해야
403		경향신문	[시론]동북공정 대응논리 · 연대로
404		국민일보	中 주류 사학계, 동북공정 외면… "고구려는 한국사" 일관되게 주장
405		조선일보	[태평로] 한국은 왜 국학을 홀대합니까
406	2006.09.19	조선일보	"神話부터 이어져온 중화주의 해체해야"
407		문화일보	〈해외의 젊은 시각〉韓 · 中 '역사의 그늘' 벗어나자
408		문화일보	〈포럼〉중국의 이어도 '이의제기' 근거없다
409		문화일보	"아차산은 고구려 거점… 동북공정 대응 '공원' 조성"
410		경향신문	계간지 '한국의 고고학'…자나깨나 백제 '고고한 城主'
411		경향신문	[옛글의 숨결] 발해
412		경향신문	[사설] '베이징대는 고구려를 한국사로 본다'
413		한국일보	[메아리] 토문강의 진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414		국민일보	中교사들 "동북공정 일부 관변학자 주장"
415		국민일보	中교사들 "동북공정, 일부 관변학자 주장"
416		한겨레	[화보] 허물어지고 파헤쳐진 '광개토대왕의 땅'
417		서울신문	['하늘길' 탄 中華대장정] (1)서남공정의 현주소
418		서울신문	일제때 촬영 고구려유적 미공개사진 공개
419		중앙일보	[글로벌아이] 동북공정 에 일조하는 한국인들
420	2006.09.20	조선일보	"중국은 역사 왜곡하지 말라"
421		조선일보	역사 뺏으려고… 中 고구려 유적 리모델링
422		조선일보	동국대 총장, 中사회과학원에 '항의 편지'
423		동아일보	[기고/이삼열]한-중 역사갈등 유네스코 통해 풀자
424		동아일보	동북공정에 훼손된 고구려 유적
425		세계일보	1930년대 고구려 유적 사진120여점 22일 첫 공개
426		세계일보	동국대 中사회과학원과 협력 파기"
427		세계일보	비뚤어진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428		문화일보	中학자들 한국와서도 망언
429		경향신문	홍기삼 동국대총장 "한 · 중 역사전쟁 이제 시작"
430	2006.09.21	서울신문	[이용원 칼럼] 중국 正史에 고구려는 외국이었다
431		서울신문	[사회공헌 우수기업 특집] KTF-'고구려 지킴이' 홍보 활동
432		경향신문	"중국 역사왜곡 바로 알자"
433		한겨레	"동북아 집착 벗어나 동아시아를 보자"
434		한겨레	"21세기 한반도, 갈등 넘어 평화와 상생으로"
435	2006.09.22	문화일보	"동북아 역사인식 공유하자" 韓 · 日 시민단체 '대화 만남'
436		문화일보	〈지구촌 전망대〉티베트와 중국…그리고 한국
437		경향신문	[오늘의 동아시아](10) 한 · 중 역사인식 차이 줄이기
438		서울신문	거대 중국을 경영하라/남상욱 지음
439	2006.09.24	매일경제	내달 중순 北京서 한 · 중 정상회담
440		한겨레	발닿는 곳곳 '예부터 중국땅' 주문
441	2006.09.25	중앙일보	[학생기자코너] 중국 고구려사 왜곡 심각한 수준
442		조선일보	[태평로] 동북공정 뛰어넘기
443		서울신문	29일 '한국상고사의 쟁점' 대토론회
444		서울신문	29일 '한국상고사의 쟁점' 대토론회
445	2006.09.27	조선일보	시의회, 중국 규탄 결의안
446		동아일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진 임명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447		경향신문	“동북공정 핵심은 한국사 말살”
448		조선일보	짓밟히는 고구려
449		동아일보	中, 백두산 개발 ‘한국인 흔적 지우기’ 노골화
450		매일경제	[6일 케이블 하이라이트] 동북공정의 핵심 간도
451		한국일보	中 고대史 왜곡 등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452		국민일보	[사설] 정부, 中 백두산공정 보고만 있을 건가
453	2006.09.29	문화일보	〈여론마당〉중국내 고구려 유적 훼손위기… 정부차원 대책 필요
454		조선일보	고구려 유적마다 중국의 소수정권 문구에 분노
455	2006.09.30	동아일보	[시론/안순권]이런 중국 믿고 어떻게 투자하나
456		매일경제	中, 우리영해 침범 시나리오 가동?
457	2006.10.02	동아일보	[휴지통]대학생 광고 연합동아리 “中 동북공정은 모두 뺑”
458		중앙일보	간도 역사 재조명해보자
459		문화일보	〈2006 개천절 특집-고조선을 찾는 사람들〉동북공정 맞서 해륙사관 정립 앞장
460		문화일보	〈2006 개천절 특집-고조선을 찾는 사람들〉“단군조선 → 고구려 승계는 문헌상에도 명백”
461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사이비 민족주의’ 內戰
462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開天節과 檀君
463		중앙일보	[시론] 중·러 밀월과 동북아 신냉전
464		세계일보	동북공정 맞서 역사 바로잡기 앞장”
465		동아일보	아베 ‘화해 메시지’ 뭘까…8일부터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466		세계일보	동북공정 맞서 역사 바로잡기 앞장”
467		세계일보	종교판 동북공정 (?)에 몸살 앓는 인도
468		경향신문	[기고] 야심 드러낸 ‘중화 패권주의’
469		세계일보	[10월 4일의 YTN]동북공정 현황과 대응 방안
470		세계일보	케이블TV, 동북공정에 선전포고
471		문화일보	〈오후여담〉역사 vs 역사
472		경향신문	韓·中·日 연쇄정상회담 북핵·역사 바빠진 ‘3각 외교’
473	2006.10.08	세계일보	역사전쟁 동북공정 의 실체는?
474		한겨레	한반도 남쪽의 ‘고구려’ 찾아 떠나자
475		문화일보	〈동정〉‘中 동북공정과…’포럼 외
476		중앙일보	동북공정 실체는 무엇인가
477		서울신문	동북공정, 그 검은 실체를 말한다
478	2006.10.10	서울신문	동북공정, 그 검은 실체를 말한다
479		중앙일보	고구려사 왜곡현장 보니 가슴 답답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480		문화일보	“中 동북공정 실상 직접 보니 치떨려”
481	2006.10.11	서울신문	[北 핵실험 파장] 남북 문화교류도 ‘빨간불’
482	2006.10.12	서울신문	1500년전 ‘비단벌레 말안장’의 부활
483		문화일보	“中 동북공정, 北붕괴 대비한 것”
484		경향신문	[문화단신] 전통 민속주 자료전시회 外-동북아 영토분쟁 학술심포지엄-
485		경향신문	한·중정상 北核해법 조율
486		서울신문	[한류 통신] 중국인을 사로잡는건 스케일 아닌 인간냄새
487		매일경제	盧 동북공정 유감…원자바오 조치하겠다
488		한국일보	[北 핵실험 후폭풍] 한·중 정상 北核 대화로 해결
489		세계일보	[책]옛 고조선 영토까지 수복한 2015년 통일한국 은…
490		한국일보	지도자 포럼 여는 김한규 한중교류협회장
491		서울신문	‘발해시대 금화’ 진짜일까?
492		한겨레	‘발등의 불’ 북핵이 동북공정 봉합
493		세계일보	발해 금속화폐는 독립국가 증거물”
494		한국일보	노대통령 동북공정 문제에 사려깊은 조치를
495	2006.10.14	동아일보	경고 보내되 대화로 해결… 美日과 다른길 확인
496		세계일보	발해 금속화폐는 독립국가 증거물”
497	2006.10.15	한겨레	‘두껍게’ 읽는 228년 발해역사
498		경향신문	[시론] 北 핵실험과 중국 불신
499	2006.10.17	조선일보	“역사 왜곡의 역사가 이미 반세기”
500	2006.10.18	중앙일보	[중학논술] 역사를 배운다 는 것의 의미
501		중앙일보	한·중 시인 100여명 한자리에
502	2006.10.19	아시아경제	구리시, 아차산고구려유적공원 조성사업 재추진 관심
503		서울신문	한·중 시인들 ‘따뜻한 만남’
504		한겨레	[세상읽기] 동북아론의 부활을 / 김기원
505	2006.10.20	조선일보	[주말 나들이]“어디를 가든 가을은 즐겁다”
506		동아일보	[세계의 눈/스인흥]동북공정, 학술논쟁으로 그쳐야
507		서울신문	북핵 한·중 전문가 긴급대담
508	2006.10.23	문화일보	“이제부터 역동적인 주몽 모습 보게될 것”
509		국민일보	[새문안교회 국제 학술대회] 해외단기선교…현지 역사·문화부터 이해하라
510	2006.10.24	중앙일보	중국 이번엔 한의학 공정 ?
511		중앙일보	[찾아라!논술테마] 시청자들 고대사에 관심 갖게 돼 보람
512		중앙일보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보는 동북공정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513		중앙일보	[이슈&테마] 중국의 동북공정
514	2006.10.26	조선일보	중국 '동북공정' 어떻게 보나
515		동아일보	"백두산-옌볜조선족 '격리 공정'?"
516	2006.10.27	동아일보	북핵과 中 야심, 日 우경화가 동북아 '3대 불씨'
517		중앙일보	역시 한국사 홀대 바로잡는 계기로
518	2006.10.30	중앙일보	러시아 연해주에도 온돌 유적이 …
519	2006.10.31	조선일보	[학술 소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외
520		동아일보	발해의 뿌리는 말갈? 고구려?
521		세계일보	발해가 고구려 계승 못박겠다
522	2006.11.02	동아일보	[최정호 칼럼]'춘향전'의 중국화와 '동북공정'
523	2006.11.07	동아일보	[수도권]아차산에 '고구려테마파크' 조성 추진
524		중앙일보	[브리핑] 고구려 · 발해 유적공원 추진
525		조선일보	[이덕일사랑] 낙랑군 갈석산(樂浪郡 碣石山)
526	2006.11.08	동아일보	[횡설수설/권순택]위성국가
527		중앙일보	[나는논술한다] 동북공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
528	2006.11.09	한겨레	[고전다시읽기] 민족은 매일 결속하는 '의지공동체'
529		한겨레	"전문사학자가 여태 방치하기에…"
530	2006.11.10	동아일보	[기고/서영수]'주몽'이 동북공정 맞장구 치나
531		한국일보	탈북 청소년 고대사 바로알기 독립기념관 찾아
532		중앙일보	[행복한책읽기Review] 동북공정 대응책 ? 여기에 답 있네
533		중앙일보	[BOOK꿈나무] 만주 꽉 잡았던 고구려 제대로 알아볼까
534	2006.11.12	서울신문	[지금 구리에선] '고구려 프로젝트' 재점화…中 동북공정 맞선다
535	2006.11.14	국민일보	고구려 영웅 납시오… 구리시,삼족오 대축제 열어
536	2006.11.17	중앙일보	백두산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중국, 단독으로 추진 않겠다
537		문화일보	광진 "고구려 특별구 만들자"
538	2006.11.18	조선일보	문명은 '종합세트'로 전파되지 않았다
539	2006.11.19	국민일보	中, 관리 엉망… 관광지 개발에만 눈독 발해 궁성터 훼손 심각하다
540		한국일보	아차산 고구려테마파크 조성 "꼬이네"
541	2006.11.20	중앙일보	[취재일기] 중국, 말보다 행동을
542		서울신문	[세계의 싱크탱크] (14)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543		서울신문	광진구 "고구려를 되살려라"
544	2006.11.24	문화일보	〈300자책읽기〉한민족, 만주 · 몽골도 지배했다
545		문화일보	중국인 시각서 본 대장정 동북공정 꿰뚫어 볼 열쇠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546	2006.11.25	서울신문	구리시 '고구려 마을' 무산 위기
547	2006.11.26	한국일보	정부 역사왜곡 대책 손놓나
548	2006.11.27	조선일보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사실상 무산
549		동아일보	한민족 발자취 따라 '캔버스 유랑'…이태길 씨 '압록강 2천리' 전
550		경향신문	김용덕 이사장 "동북공정 국제적 해법 모색"
551		서울신문	"역사는 전쟁 아닌 외교로 접근해야"
552		중앙일보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역사 전쟁 아니라 역사 외교 펼 것
553	2006.11.28	동아일보	[문화 브리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554	2006.11.29	한겨레	"동북아 화해 위해 초국가적 민간활동 중요"
555		서울신문	동아시아 희망이 될 '평화교육'
556	2006.12.07	한겨레	"갑옷은 고조선과 고구려가 원조"
557		세계일보	고구려인의 터전 화폭에 담았죠"
558	2006.12.12	문화일보	〈동정〉'동북아 질서개편'아침공론 등
559	2006.12.14	동아일보	[특파원 칼럼/하종대]중국의 '굴기'
560		동아일보	[로비에서]늘어진 '주몽', 역사왜곡까지
561		동아일보	[횡설수설]음주 외교관의 국적(國籍)
562		한겨레	[기고] 역사는 도구가 아니다 / 이이화
563	006.12.18	세계일보	[아동신간]어! 발해가 살아 숨 쉬고 있네? 외
564		세계일보	한중 민간단체 교류 통해 공공 외교 활성화해야"
565		문화일보	〈기고〉'고구려 유적 복원법'을 기대한다
566		경향신문	[2006 드라마] '고구려'-역사 논쟁 타고 '주몽'안방점령
567	2006.12.22	동아일보	[동아광장/정옥자]참을 수 없는 역사의 가벼움
568		한겨레	'주몽' 떠올리며 고구려비 찾아봐요
569	2006.12.25	조선일보	몰려간 중국인들 '연해주 경제' 점령
570	2006.12.26	서울신문	"中 요서지역 홍산문화는 고조선문화권"
571		국민일보	[사설] 역사교육 강화 늦었지만 다행이다
572	2006.12.27	조선일보	중·고 역사과목 2010년 신설
573		문화일보	〈사설〉청소년 역사교육 편향사관부터 걷어내라
574	2006.12.29	조선일보	SBS '단군' 조명한 대하사극 방송
575		경향신문	中 "칭기즈칸은 위대한 중국인" 억지

● 잡지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1	2006.03.21	주간조선	[학술] 삼국유사 · 삼국사기 재조명 받는다
2		주간조선	전략 바꾼 중국 '북한 경제 살리기' 대규모 투자 지배력 키우고 지하자원도 확보
3	2006.04.14	뉴스메이커	[포커스]'역사바로세우기' 국회는 뭘 하나
4	2006.07.07	뉴스메이커	[포커스]동북아재단, 한반도역사 바로 세워라
5		뉴스메이커	[포커스]옛 소련 "간도지역은 한국땅"
6	2006.07.21	뉴스메이커	[스타데이트]이태곤 "중국이 놀랄 만한 연기 할 겁니다"
7	2006.08.08	주간조선	빛 좋은 '자주 외교'가 고립을 자초했다
8	2006.08.16	주간조선	[사람들] 고구려 열풍의 주역 소설가 유현종씨
9	2006.09.05	주간조선	백두산은 중국 땅 …세계에 못박으려는 중국
10	2006.09.12	한겨레21	백두산과 농심
11	2006.09.15	뉴스메이커	[BOOK]북조선 탄생 &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12	2006.10.04	주간조선	[출판] 고구려 열풍… 관심 모으는 고구려 의 역사 · 교양서
13	2006.10.19	뉴스메이커	[조명]'홍익인간' 21세기 세계가 원한다
14	2006.10.31	주간조선	[신간] 고구려 · 백제 유민 이야기 외
15		주간조선	[사람들]'아차산' 사진전 연 유승률 약사
16	2006.11.14	레이디경향	드라마 히트 메이커 최완규 작가에게 듣는 '주몽' 이야기
17	2006.12.21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한국은 '동북공정' 쟁점 파악 못하나
18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한반도 제 2분단 노리는 美 · 中 밀약설의 진실

◎ 방송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	2006.01.25	SBS	중국, 중 · 미 · 일 3국 공동 역사검증 거부
2	2006.01.26	연합뉴스	〈기자수첩〉 속성 재배 고구려
3	2006.02.01	연합뉴스	단재교육자료관 2일 개관
4	2006.02.14	연합뉴스	〈사람들〉 간도우표 자비제작 김우준 교수
5	2006.02.15	연합뉴스	〈인터뷰〉 SBS 연개소문 주연 유동근
6	2006.03.02	연합뉴스	한국 고구려연구는 日군국주의 영향?
7	2006.03.06	YTN	신간, 동북공정 고구려사 外
8	2006.03.09	연합뉴스	〈신간〉 대쥬신을 찾아서 외
9	2006.03.14	연합뉴스	중국의 한국사 삭제는 동북공정과 무관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0	2006.03.24	SBS	해도 너무하는 동북공정
11	2006.04.04	연합뉴스	UNESCO 일본委 제작 지도엔 독도 없다
12	2006.05.06	MBC뉴스	고대사 드라마 열풍
13	2006.05.10	MBC뉴스	중국 또 역사왜곡?
14		연합뉴스	北 · 中접경 압록강변서 고구려 고분 2천여기 발견
15	2006.05.11	YTN	北 · 中접경 압록강변서 고구려 고분 2천여기 발견
16	2006.05.28	연합뉴스	中, 日에 발해국 석비 반환요구
17	2006.05.29	MBC뉴스	[단신] 中, 일본에 발해비석 반환요구
18	2006.06.22	연합뉴스	〈방송3사 고구려 사극 외교문제 비화되나〉
19	2006.07.02	SBS	안방극장에 부는 고구려 열풍
20	2006.07.24	연합뉴스	연해주서 발해고분 40여기 추가 조사
21	2006.07.25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 민간이 주도해야
22	2006.07.28	연합뉴스	한국 독도 문제로 초조해 할 필요없다
23	2006.07.30	연합뉴스	〈中 장백산 공정 ..백두산 문화적 영유화〉
24	2006.07.31	YTN	중국 백두산 개발 가속화…숨은 뜻은?
25	2006.08.01	SBS	중국, 인삼 · 백두산은 우리 것 …외교마찰 우려
26	2006.08.07	연합뉴스	고구려연구재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27		연합뉴스	바른 역사와 평화통일 기원 전국달리기 대회
28		연합뉴스	고구려 연구재단, 활동마감 흡수 통합
29	2006.08.14	연합뉴스	창작 국악인형극 발해공주
30	2006.08.31	연합뉴스	〈사람들〉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 전호태 전시감독
31	2006.09.01	연합뉴스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고구려 문화 열기
32	2006.09.05	연합뉴스	中, 발해사 포함 고대사 송두리째 왜곡
33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 역사 왜곡에 왜 손놓고 있나
34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 재점화.. 일부 연구성과 출간 재개
35		연합뉴스	〈中 신간 동북공정 성과물 어떤 내용 담았나〉
36		연합뉴스	학계 中동북공정,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해야
37		연합뉴스	정부, '동북공정 연구물 검토후 외교대응 방침(종합)
38		연합뉴스	MBC !느낌표 동북공정에 맞선다
39		MBC뉴스	중국, 발해사 등 고대사 왜곡
40		MBC뉴스	동북공정① 백두산은 중국 땅
41		MBC뉴스	동북공정② 외교적 대응 검토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42		mbn	중, 발해사 포함 고대사 송두리째 왜곡
43		SBS	정부, 동북공정 자료 분석 후 외교대응 방침
44		SBS	중국 동북공정 역사 왜곡, 외교 분쟁 조짐
45		SBS	도넘은 동북공정 …한국 고대사 송두리째 왜곡
46		SBS	중, 백두산에 동계올림픽 유치 대대적 개발 나서
47		YTN	중국 역사왜곡 동북공정 구체화
48		YTN	동북공정 학술적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
49		쿠키뉴스	中, 한국 고대사 송두리째 왜곡
50	2006.09.06	연합뉴스	中과의 역사문제, 외교대응-학술성과 병행 -1
51		연합뉴스	中과의 역사문제, 외교대응-학술성과 병행 -2(끝)
52		연합뉴스	〈여야 中역사왜곡 강력 성토〉
53		연합뉴스	〈이규형 외교차관 문답〉
54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동북공정 대응약화 우려는 기우 〉
55		연합뉴스	〈김원웅, 中동북공정 정부 미온대응 비판〉
56		MBC뉴스	정부의 단호한 대처 필요
57		mbn	중국과의 역사문제, 외교대응-학술성과 병행
58		SBS	국경문제까지 동북공정 연구에 박차
59		SBS	중, 외교마찰 불구 동북공정 연구 계속
60		SBS	중 역사 교과서, 고대사 왜곡 심각
61		YTN	중국 여행 중단 캠페인 전개한다
62		YTN	중국 역사문제 외교적 대응 방침
63		YTN	연구결과 보고 외교적 대응
64		YTN	정부, 중국 눈치보기
65	2006.09.07	연합뉴스	동북공정 항의 中여행 중단 캠페인
66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日의 못된 책동 그대로 둘 것인가
67		연합뉴스	中동북공정 책임자 한국 반응 이해못하겠다
68		연합뉴스	中역사왜곡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69		연합뉴스	여야 '中역사왜곡 초당대처 움직임
70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 구두양해 후속조치 미흡
71		연합뉴스	中공산당간부 동북공정, 정부 입장 아니다
72		연합뉴스	〈통외통위, 동북공정 정부 미온대응 질타〉
73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출범 앞두고 논란 확산〉
74		연합뉴스	〈정부내 동북공정 대처 '온도차 있나'〉
75		MBC뉴스	중국, 백두산 공정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76		MBC뉴스	동북공정, 질타..초당적 대응
77		MBC뉴스	고구려유산 푸대접
78		mbn	여야 동북공정 초당대처 움직임
79		mbn	동북공정 = 중국의 영토야욕
80		SBS	중국, 아시안게임 성화 백두산서 채화…왜?
81		SBS	여야, 중국 역사왜곡 초당적 대처 움직임
82		SBS	국회 통외통위, 동북공정 정부 안이한 대응 질타
83		SBS	정부 중, 동북공정 논문 공식화하면 강력 대응
84		YTN	백두산 천지에서 중국 성화 채화
85		YTN	국회, 동북공정 중단 결의안 채택
86		YTN	중국으로 넘어가는 백두산…정부 뒷짐만
87		YTN	정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
88	2006.09.08	연합뉴스	외교부, 중국 역사왜곡 안이한 판단
89		연합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 中 역사왜곡 초당 대응 (종합)
90		연합뉴스	〈'고대사 왜곡 2004년 韓中 구두양해 뭘 담고 있나〉
91		연합뉴스	경북 경일대 간도론 과목 개설
92		연합뉴스	〈역사학계 동북공정 논란에 당혹〉
93		연합뉴스	'白壽 독립운동가 육동백씨 민족혼 강조
94		연합뉴스	〈한-중 역사분쟁과 동북공정, 동북아역사재단〉
95		MBC뉴스	여야 중국 역사왜곡 초당적 대처
96		MBC뉴스	우리말 지키기 조선어방송 50년
97		MBC뉴스	중국, 고구려는 연나라를 계승?
98		mbn	정치권 중국 역사왜곡 초당 대응
99		SBS	[주간만평] 땅 따먹기 동북공정 ?
100		YTN	여야, 역사왜곡 초당적 대처하기로
101	2006.09.09	연합뉴스	백두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문제 다각 정보수집
102		MBC뉴스	백두산, 영유권 노린 것
103		SBS	중국, 백두산 개발 등 목적은 영유권 확보
104		YTN	중국, 백두산 등재 최소 5년전 준비
105	2006.09.10	연합뉴스	노대통령, 中총리에 '동북공정' 유감표명(종합)
106		연합뉴스	〈원자바오, 동북공정 유감표명에 흔쾌히 답변〉
107		MBC뉴스	동북공정 유감 표명
108		SBS	노대통령, 중 총리에 동북공정 유감 표명
109		YTN	노 대통령, 동북공정 유감 표명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10	2006.09.11	연합뉴스	국회 역사왜곡특위, 중국 방문 추진
111		연합뉴스	中 지도들 백두산·창바이산 표기 혼용
112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 동북공정 말로만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113		연합뉴스	〈외교부, 동북공정 유감표명 사전에 알았나〉
114		연합뉴스	신화통신, 韓.中 정상회담 보도서 동북공정 누락
115		MBC뉴스	노 대통령, 동북공정 유감
116		mbn	노대통령 동북공정에 유감
117		SBS	노 대통령, 중 총리와 회담…동북공정 유감
118		YTN	동북공정에 맞서려면 역사 연구 지원부터 해라!
119	2006.09.12	연합뉴스	'동북공정 민족 자주권 빼앗아'
120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 이미 이달초 종료 〈홍콩 전문가〉
121		연합뉴스	한총리 동북공정 감정보다 논리적 대응 중요 -1,2
122		연합뉴스	'동북공정 민족 자주권 빼앗아' (종합)
123		연합뉴스	범국민연대 '동북공정 공동저지'(종합2보)
124		연합뉴스	동북공정 대응 새로운 사관정립 절실
125		연합뉴스	〈 동북공정 연구주역 中 둥베이사범대 류허우성 교수〉
126		연합뉴스	발해 건국사 통해 꿈과 자긍심 갖게 할 것
127		연합뉴스	범국민연대, 동북공정 저지 촉구 성명
128		SBS	중국, 30년 전부터 한국 고대사 왜곡
129		YTN	동북공정에 적극적인 대응 촉구
130		YTN	한 총리,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응이 중요
131	2006.09.13	연합뉴스	〈北은 동북공정 어떻게 보나〉
132		연합뉴스	중국은 동북공정 중단하라
133		연합뉴스	〈중국 역사왜곡, 서남·서북에 이어 동북공정까지〉-1,2
134		연합뉴스	〈한 동북공정 세미나서 정부비판 봇물 〉
135		연합뉴스	홍콩 언론서 동북공정 관련 첫 보도
136		연합뉴스	제주서 동북공정 중단 촉구
137		연합뉴스	동북공정 저지 국민운동 전개 (종합)
138		연합뉴스	동북공정 저지 시민단체 공동집회
139		연합뉴스	부산 시민단체 동북공정 규탄
140		YTN	북은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
141		YTN	역사단체, 중국 동북공정 규탄
142	2006.09.14	연합뉴스	〈연합칼럼〉 우리 곁에 다가온 대조영
143		연합뉴스	〈北 고구려, 한때 베이징까지 점령 〉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44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 이어도까지 넘보나
145		연합뉴스	中 지방정부 고구려사 왜곡 일부 시정조치
146		연합뉴스	中동북공정은 주변국 역사 말살 단계
147		연합뉴스	닝푸쿠이 동북공정 中정부 견해 대표 안한다
148		YTN	학계, 동북공정 반박 본격화
149	2006.09.16	연합뉴스	노대통령, 北.中에 핵실험 말라 메시지 전달 〈그레그〉(종합)
150	2006.09.18	연합뉴스	〈발해의 정체〉 이태백도 발해는 외국
151		연합뉴스	〈인터뷰〉 홍콩 발해사 학자 김광석 교수
152	2006.09.19	연합뉴스	울산서도 동북공정 중단하라
153		연합뉴스	인천시민단체, 中 동북공정 규탄집회
154		SBS	훼손된 고구려 30년대 고구려 유적 사진 공개
155		YTN	동북공정은 중국 내부문제 해결책의 일환
156	2006.09.20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내부문제 해결용
157		SBS	고구려사 넘보는 중국, 정부는 나몰라라?
158		YTN	중국 교과서 집필진, 고구려 · 발해는 중국사
159	2006.09.21	연합뉴스	남상욱 대사 거대 중국을 경영하라 출간
160		연합뉴스	〈고침〉(대북정책 · 주변4강 외교 총체적 위기 〈전문가〉)
161		연합뉴스	미공개 고구려 유적 사진전
162	2006.09.28	연합뉴스	미디어 체험으로 만나는 '주몽'
163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164		연합뉴스	불교계 中 역사왜곡 중지 촉구
165		MBC뉴스	중국, 백두산에서 나가라
166		YTN	역사분쟁 전담기구 출범
167	2006.09.30	연합뉴스	〈 동북공정은 모두 뻥이요 〉
168		연합뉴스	한총리 영토와 역사 주권 굳건히 수호
169	2006.10.04	연합뉴스	〈한일.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170	2006.10.09	연합뉴스	동북공정, 그 검은 실체를 말한다
171	2006.10.13	연합뉴스	노대통령 방중..후주석과 정상회담
172		mbn	오늘 베이징서 한중정상회담
173		YTN	한중 정상, 북핵 사태 집중 논의
174	2006.10.16	연합뉴스	〈시인들 태백산서 국토사랑 낭송〉
175	2006.10.22	연합뉴스	〈두꺼비를 잃어버린 삼족오〉
176	2006.10.26	연합뉴스	국사편찬위 국민 90%가 역사교육 강화 지지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77		연합뉴스	〈모스크바서 고구려.독도 문제 관련 국제세미나 열려〉
178	2006.10.27	MBC뉴스	중국 동북공정은 허구
179		SBS	한국에 온 발해 유물, 고대사 바로 쓴다
180	2006.11.01	MBC뉴스	발해는 고구려권
181	2006.11.03	YTN	중국 청소년들 열흘간 한국 문화 탐방
182	2006.11.05	연합뉴스	기업銀, 고구려 연구 돕기 나서
183	2006.11.06	연합뉴스	고구려 역사기념관 · 테마파크 조성 추진
184	2006.11.09	연합뉴스	닝푸쿠이, 동북공정은 학술적 범주
185	2006.11.13	MBC뉴스	中, 백두산에 박물관
186	2006.11.17	연합뉴스	한중 9.19 성명중 가능한 것 조기 이행 -2
187	2006.11.19	연합뉴스	동북공정은 북한 연고권 확보 목적
188	2006.11.20	연합뉴스	경기도, 고구려 유물 구입 '외면'
189	2006.11.27	연합뉴스	〈인터뷰〉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90	2006.11.29	연합뉴스	〈주말 저녁 활약 하는 두 명의 연개소문〉
191		연합뉴스	국사 교과서에 단군조선은 없다
192	2006.11.30	연합뉴스	나주시, MBC에 주몽 연장 건의서 제출
193	2006.12.05	연합뉴스	美CIA 고대사 왜곡, 中동북공정 논리 지지 〈반크〉
194	2006.12.12	연합뉴스	中 방송관계자 동북공정 다룬 다큐 없어
195	2006.12.15	연합뉴스	〈2006 국제〉 ⑨ 동북공정 한-중 갈등 뇌관 부상(끝)
196	2006.12.19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동북공정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
197	2006.12.26	MBC뉴스	역사 과목 독립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중원 고구려비' 세계문화 유산 추진

충주시와 지역단체들, '중원 고구려비' 세계문화 유산 추진.

▣ 아차산 고구려공원 추진

구리시 아차산 고구려공원 재추진. 4000억 들여 고분벽화 복원 · 역사박물관 조성, 아차산에 고구려유적공원 조성 사업을 재추진.

▣ 中 동북공정 저지 시민단체 연합 결성

中 동북공정 저지 '겨레사랑 하나되기 운동본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광복군 동지회',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발해1300년 기념사업회', '한국역사문화연구소' 등 30여개 단체 연합, 범국민연대 결성.

*기타 : 이외에 크고 작은 민간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연이어 저지 운동 및 결의 발표.

▣ 광진구민 한마음 가을 음악회

주최 : 서울시 광진구청

기간 : 2006년 10월 17일(화)

장소 :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

일정 : 제1부 구민노래자랑 “내가 바로 광진구 스타”(16:00～19:00)

제2부 경서도 소리극 “아차산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19:00～21:00)

제1막 〈어린시절 온달과 평강공주〉

제2막 〈무사가 된 온달장군, 아차산성의 전투〉

내용 : 아차산에서 전사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일대기를 그린 예술소리극. 무형문화재 제29호 배뱅이굿 전수조교인 김경배 선생이 이끄는 ‘김경배 광진경서도소리예술극단’ 및 ‘(사)배뱅이굿보존회 서울시지회’가 공동주최.

▣ 2006단양 온달축제

기간 : 2006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소 : 단양군 영춘면 온달관광지와 단양군 일원

내용 : 고구려의 전통복식과 유물을 전시하는 고구려문화전시회뿐 아니라 온달장군의 승전행렬이 재현되는 등 고구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갖가지 행사가 마련. 특히 온몸으로 고구려를 느낄 수 있는 온달장군 승전행렬, 온달장군 진혼제, 고구려 복식전시, 고구려 유물 탁본제작 체험, 고구려 토기 제작체험, 고구려무예 배우기 체험 등. 이 밖에 전국 검도왕 선발대회, 드라마 연개소문 복식전시, 남사당 외줄타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통혼례재현 등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콘서트, 노래자랑, 야외영화 상영 등.

▣ 고구려 유물.유적 사진전

장소 : 서울 광진구 구청 민원홀

기간 : 2006년 10월 20일까지

내용 : 진작가 유승률씨(58)가 찍은 아차산 발굴 고구려 유물 · 유적 사진 20점

▣ 일어나라 고구려의 혼불 ‘2006 고구려 삼족오 대축제’

주최 : 한국방송PD연합회, 경기도 구리시

주관 :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주)고구려벨트가 공동 주관

기간 : 2006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장소 : 구리한강시민공원과 구리시 일원

기획의도 : 문화와 민족 그리고 국가의 동력을 결집시켜 사회 대 통합과 ‘왜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는 계획으로 일시적, 구호적인 고구려 사랑이 아닌 국민들 가슴 속에 고구려의 혼불을 지피고 지역정체성 확보 및 새로운 지역문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

내용 : 고구려문화체험관과 고구려 관련공연행사

○ 상설관 : 삼족오특별전시관, 고구려유물관, 고구려 삼족오 미로체험관 등

기타 행사 : ‘고구려 삼족오군 집결퍼레이드’, 고구려역사기념관건립추진 위원회 발기인대회, 고구려 무용가 국수호의 무천 공연, 삼족오 학술심포지엄(1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강당), 삼족오 패션쇼, 고구려 무술, 타악그룹 ‘광명’ 등, 10㎞ 시민건강달리기 및 4㎞ 걷기대회 개최 등.

▣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

* 광진구청 아차산 탐방 프로그램

공원녹지과 02-450-1395, 숲탐방 프로그램과 답사를 동시에 진행.

문화체육과 02-450-1320, 향토사학자 김민수 선생님(017-247-6383)과 함께 답사. 1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

기간 : 2006년 12월30일까지

장소 : 서울 광진구 구청사 내

내용 : 고구려 고분벽화가 2004년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기념으로 일본의 교토통신사에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 촬영한 고구려 고분벽화사진 총 91점을 구청 본관, 민원봉사실 및 로비, 제3별관 2, 3층 복도 등 청사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이젤 및 벽면에 고구려의 고분벽화사진을 전시.

◎ **대중문화콘텐츠**

● **전시회**

▣ 고구려 특별전

장소 : 경기도 박물관

기간 : 2006-01

내용 : 고구려 유물 350여 점, 이중 200점은 국내에 첫 선. 임진강변의 은대리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아차산 4보루에서 나온 철제 건축도구와 화살촉 등.

▣ '호우총 은령총 발굴 60주년 기념' 특집전시 및 심포지엄

주최 : 국립중앙박물관

기간 : 2006-05-23

내용 :

■ 특집전시

○ 전시명: 특집전시 '호우총 은령총 발굴 60주년 기념'

○ 일시: 2006년 5월 23일(화)~2006년 7월 23일(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 내용:

· 프롤로그

· 60년 전, 그 때, 그 현장(조사일지, 도면, 사진)

· 청동호우(호우, 제작과 기술)

· 호우총과 은령총 출토유물

·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 심포지엄

○ 일시: 2006년 5월 23일(화) 14:00~18:00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내용:

· 호우총과 은령총 발굴조사 개요(조현종)

· 호우총 은령총의 구조와 성격(김용성)

· 호우총 은령총 출토유물(이주헌)

· 4~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윤성용)

· 종합토론(이한상)

▣ 특별전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기간 : 2006년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과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관장 김송현)과의 첫 번째 교류 사업

북한의 중요 문화재 90점이 출품. 국보 50점과 준국보 11점 포함.

중요 유물. 구석기와 청동기인 '상원 검은모루 출토 구석기'와 '신암리 출토 청동칼',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악기樂器인 '서포항 출토 뼈피리', 고구려의 중요한 금석문인 '고구려 평양성 명문석' 등의 고고 역사품. '발해 치미', '신계사 향완', '관음사 관음보살' 등의 건축과 불교 공예품. '선녀도'(김홍도), '소나무와 매'(신윤복), '옹천의 파도'(정선) 등 회화 명품 및 '고려 태조상' 등.

이후 2006년 8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 충북교육박물관 개관기념, 고구려문화특별전

기간 : 2006년 7월 14일부터

장소 : 충북교육박물관

주제 : '살아오는 고구려'

▣ "동아시아의 색, 광채"

-2006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개최 -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기간 : 2006-09-09~2006-11-11

내용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티베트의 유물

100 여점이 전시. 우리나라의 채색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채색화 및 공예품을 비교 전시하는 공간.

▣ '지안(集安)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기간 : 2006년 9월 22일부터 12월22일까지

장소 : 성균관대 박물관

내용 : 1930년대 당시의 고구려 유적을 담은 사진 전시회, 당시 일제 총독부 박물관장이었던 후지타 료오사쿠가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현 지안) 일대를 직접 촬영한 120여 점의 사진을 공개. 지안(集安) 고구려 유적의 통구12호 미공개 벽화 포함.

▣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기간 : 2006년 10월 22일까지

전시회 총감독 : 울산대 전호태 교수

내용 :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인 안악3호분, 덕흥리 고분, 쌍영총, 호남리 사신총,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 벽화고분 6기의 사진 147장 및 영상과 모형자료 등

▣ 한 · 러 공동발굴 유물 전시

기간 :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내용 : 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가 공동으로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 일대에서 발굴한 유물 393점 전시.

1만3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세계 최고(最古)의 토기, 인물 무늬 토기, 발해시대의 소규모 청동불상,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연상시키는 아무르강의 암각화, 편두 여인상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

▣ 한남대 '우리옷 2006 전시회'

기간 : 2006년 11월 15일까지

장소 : 대전 유성문화원

주최 : 한남대 우리옷 연구소

내용 : 우리 옷의 시대별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70여점의 작품이 전시. 고구려 시대의 옷은 벽화 속의 옷을, 고려시대 옷은 초상화 속의 부인, 사대부 등의 옷 등을 토대로 재현.

▣ 고구려 와당 전시

기간 : 2006년 12월17일까지

장소 : 경희대

내용 : 고구려 와당 88점

● 이벤트/단신

▣ '데이드림의 뮤직아트 예술전람회'

부제 : '음악과 미술로 승화시킨 고구려의 영혼'

데이드림(본명 연세영)

기간 : 2006년 6월 9일~23일

장소 : 가람아트홀 콘서트갤러리 예가 전시

내용 : 콘서트-9일 오후 7시 가람아트홀, 창작곡 'Princess of KoGuRyo(고구려의 공주)'를 비롯해 1,2집 주요곡.

전시-9~23일 갤러리 예가. 고구려 벽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평면 작품 20여점.

▣ '한-무천'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기간 : 10월 5 · 7일

주제 : 고구려 춤극

▣ 고구려 역사복원을 위한 '고구려 예술제' 개최

기간 : 2006년 11월 7, 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중앙박물관 메인오디토리움

내용 : 국수호 디딤무용단 50여명이 무용총-고구려의 혼, 아! 고구려~부활, 비조의 춤, 요령고무, 황조가, 비천무, 조의선인의 춤, 기악천무, 맞두드리북, 요동천하 등을 공연.

▣ 이태길 '압록각 2천리' 스케치전 外

기간 :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소 : 한국일보 갤러리

내용 : 1996년부터 99년까지 3회에 걸쳐 압록강 2,000리와 만주 일대의 고구려 ·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스케치한 그림들을 전시

▣ 〈한국고대사입문〉1-3권 출판기념회

김정배 교수(전 고려대 총장,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민덕식 연구관(국사편찬위원회), 최광식 교수(고려대 한국사학과) 등 32명의 고대사, 고고학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한 〈한국고대사입문〉이 총3권으로 출간.

제1권 한국 문화의 기원과 국가형성

제2권 삼국시대와 동아시아

제3권 신라와 발해

일시 : 2006년 1월 20일 오후 6시

장소 : 고려대 교우회관(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부근) 지하 1층 안암홀

▣ 한 · 중 교과서 세미나 개최

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

주제 : "교과과정 속의 문화적 시각"

일시 : 2006. 9. 19(화) 오후 1시부터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세미나실

참석 : 중국측은 인민교육출판사의 유취항(柳翠航: 교과과정실 편집인), 이경(李 卿: 역사편집실 편집인), 담연비(覃燕飛: 지리편집실 부주임). 한국 오만석(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고영진(광주대학교 교수),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문화화관광부 민족문화상징100 선정 기념]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의 문화사적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일시 : 2006. 9. 22(금), 13:30 ~ 19:30

장소 : 국민대 본부관 4층 세미나실

주최 : 문화관광부

주관 : 사단법인 민속문화연구소

후원 :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 인천시립박물관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및 특별전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10:00 ~ 18:00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기획전시실

주 최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국제학술회의 "화교-세계화의 주역"

● 시민강좌

▣ 고구려이해 시민강좌

주최 : 구리시

고구려이해 시민강좌(Ⅰ),

9월20일 17:00 여성노인회관 강당

고구려이해 시민강좌(Ⅱ),

9월27일 17:00 향군회관 강당

◎ **네티즌의 반응**

1월 *기타 : 중국 한 네티즌 '중국해체병탄만주(中國解體吞併滿洲)'라는 글귀로 우리나라가 고구려사를 우리역사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항의하는 배경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해체-만주 병탄 음모'가 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파문이 임.

▣ [단독]반크, 역사바로잡기 잇단 성과

2006년 2월 23일 (목) 03:50 세계일보

한국 영토왜곡 수정에 큰 역할을 해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역사 바로잡기에도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크는 최근 전 세계 여행가들의 '교범'으로 애용돼 온 미국 '론리플레닛' 인터넷사이트(lonelyplanet.com)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설명에 고구려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고구려 · 발해 등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 한창이던 2004년 반크에 의해 오류가 발견된 지 1년7개월 만의 일이다.

'론리플레닛'은 이번에 추가한 한국 고대사 부문에서 '한국에 처음 사람이 거주한 것은 B.C 3만년 전이며, 이는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서 종족들이 한반도로 넘어왔을 때'라며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이 부족들은 연합해 첫번째 왕국을 건설했고 이것이 고구려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고구려를 그들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고대 한반도에 독립 왕국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크는 또 대형 포털사이트 '야후' 여행 관련 정보(uk.holidaysguide.yahoo.com)에서 '이씨왕조'라고 했던 조선을 최근 '조선왕조'(Choson Dynasty)라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2004년 7월 오류가 발견된 후 첫 변화이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영토 왜곡 바로잡기와 더불어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정하는 작업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또 다른 압력이 예상되지만 대형 사이트에서 오류가 시정된 만큼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한국은 中 식민지였다" 표기 파문

2006년 4월 13일 (목) 19:50 국민일보

대만 정부 교무위원회 산하 화문네트워크 교육센터(www.ocac.gov.tw)가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다시 주장해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센터는 반크가 2004년 8월22일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표기한 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4일 뒤 사과하고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바로잡았었다.

그러나 교육센터는 이번에 다시 영어 표기부분은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둔 채 중국어로 된 부분만 고쳐 놓았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려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세계 화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고구려 역사를 강탈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때에는 한국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시정했다가 관심이 줄어들자 다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월 10일** 2006년 10대 뉴스, 야후!미디어와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의 BEST 10. ▸국제 뉴스 중 3위-중국 '동북 공정' 야욕 (5933표)차지 (1위-후세인 생포, 사형 선고 (득표수 6792표)/ 2위-인도네시아 강진, 수천 명 사망 (5944표)/ 4위-5주년 '911' 음모설 (5783표)/ 5위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5504표))

3) 2007년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학술회의 …… 538
◎ 학술회의 일람표 …… 538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539

○ 연구 및 출간 …… 568
◎ 도서 …… 568
◎ 논문 …… 571
● 일반논문 …… 571
● 학위논문 …… 575

○ 언론 및 여론의 대응 …… 576
◎ 신문 / 잡지 …… 576
● 신문 …… 576
● 잡지 …… 587
◎ 방송 …… 588
◎ 시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 592
◎ 대중문화콘텐츠 …… 593
● 전시회 …… 593
● 이벤트 / 단신 …… 594
● 시민강좌 …… 594
◎ 네티즌의 반응 …… 5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월	일	제 목	주 제
1	29	고구려연구회 발표회	중국의 동북공정 5년 그 성과와 한국의 대응
2	9	2007년 동양학연구소 학술토론회	동북공정 이후, 우리 학계의 과제
	23	제65회 한국중세사학회 연구발표회	
	24	미국 UCLA대 한국학 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구려와 그 이웃들: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3	10	韓日關係史學會 제102회 월례발표회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232회 월례연구발표회	
4	14	제95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21	대구사학회 제126차 정기학술대회	
	2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23회 월례발표회	
	28	대동한문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한국한문학과 고구려, 발해
5	3-4	2007년 고구려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고구려의 起源과 族源에 관한 제문제
	12	제74회 조선시대사학회 월례발표회	
	15-16	2007년 춘계 한국고대학회 국제학술대회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18	2007년도 역사학회 학술대회 · 제41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6	1-2	제 50회 전국 역사학대회	동북아의 평화와 역사서술-자국사와 지역사-
	2	제43회 단군학회 학술대회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실증적 · 문화적 인식
	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392회 국학연구발표회 및 제2회 한중문화교류 학술회의	
	15	한국사연구회 제258차 연구발표회	
	16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대회	백두산 영토문제와 조선 및 淸의 동북지역에 대한 영토인식
	16	대구사학회 제127차 전국학술발표회	
	1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2회 미귀환 학술회의	해방 전 · 후 동아시아 정세와 해외 한인의 미귀환
	22	중국고중세사학회 제2회 국제학술토론회	기원전 1세기 ~10세기 동북아시아 국가구조와 국제질서
	23	한국 암각화 학회	고대 동북아 암각화 비교연구
7	6-7	2007년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31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율령체제와 고려 율령
	20-21	동북アジア변강역사연구	
	27	백산학회 학술대회	간도개척의 민족사적 성격
8	1	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대회	운암 김성숙 선생의 항일운동
9	10	동북아 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의 협력을 위한 모색: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월	일	제 목	주 제
	12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상이한 역사인식: 그 책임과 민족, 영토 인식
	15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대회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
	15	조선시대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
	28	2007년 상고사토론회	
10	6	2007년도 대동한문학회 가을 기획발표회	영재 유득공 서거 200주기 追念 "18세기 실학에서의 영재 유득공의 위상"
	13	제98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19	연합사학회 학술대회	대중매체와 역사인식
	2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27	2007년 동양사학회 추계학술대회	
11	2-4	'동아시아속의 발해와 일본'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속의 발해와 일본
	15-1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워크숍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속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17	제35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환동해지역 선사시대 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24	한국목간학회 제2회 학술대회	신 출토 목간의 향연
12	7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전쟁과 기억의 표상으로서의 한일관계
	8	제100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9～11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er and Periphery	
	13	제29회 신라문화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13～14	제1회 주니어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한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17～18	2007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회의	

◎ **월별 학술회의 내용**

▌1월 학술발표

▣ 고구려연구회 발표회

중국의 동북공정 5년 그 성과와 한국의 대응

○ 일시: 2007년 1월 29일(월) 오후 2-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고구려연구회

〈발표〉

사회 : 한규철(경성대)

1. 〈중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발표 : 서길수(서경대)

2.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반성〉

발표 : 반병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유기홍(국회의원), 신형식(상명대), 박선영(포항공대), 박원철(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이강무(전국역사교사모임)

▌2월 학술발표

▣ 2007년 동양학연구소 학술토론회

동북공정 이후, 우리 학계의 과제

○ 일시: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장소: 단국대학교 서관 905호

○ 주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발표(오전)〉

사회 : 복기대(단국대)

1. 〈동북공정이 우리학계에 던진 과제〉
   발표 : 김위현(명지대)
2. 〈동북공정을 보는 구미학계의 시각〉
   발표 :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3. 〈중국학자들의 고구려신화와 종교인식〉
   발표 : 서영대(인하대)
4. 〈현대중국의 '지식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발표 : 전인갑(인천대)

〈토론(오후)〉

사회 : 백영서(연세대)

김기봉(경기대), 김희교(광운대), 박원철(김앤장), 서영수(단국대), 신동훈(서울대), 오병수(성균관대), 이정훈(동아일보), 정운용(고려대), 하문식(세종대)

▣ 제65회 한국중세사학회 연구발표회

○ 일시: 2007년 2월 23일(금) 14:00

○ 장소: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302호

사회 : 최영호(동아대)

1. 〈국가 계승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거란의 고려 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
   발표 : 허인욱(강원대)
   토론 : 남인국(대구교대)
2. 〈고려 현종의 즉위와 거란의 침략원인〉
   발표 : 김대연(충청남도 역사문화원)
   토론 : 남인국(대구교대)
3. 〈고려후기 대일 관계와 경상도 지역의 동향〉
   발표 : 구산우(창원대)
   토론 : 김호동(영남대)
4. 〈고려시대 13조창과 수륙교통망〉
   발표 : 한정훈(부산대)
   토론 : 위은숙(영남대)

▣ 미국 UCLA대 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구려와 그 이웃들: 고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일시 : 2007년 2월 24일

장소 : 미국 LA, 한국문화원

주최 : UCLA대 한국학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공동

개회 : John Ducan(UCLA)

축사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1. 〈고대 동북아의 국제질서〉
   발표 : 임기환(서울교대)
   토론 : John Ducan(UCLA)
2. 고구려와 가야: 접촉과 그 결과
   발표 : 김태식(홍익대)
   토론 : Dennis Lee(UCLA)
3. 고구려와 북방 관계: 정복 혹은 통제?
   발표 : Mark Byington(Harvard)
   토론 :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4.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 예술과 건축
   발표 : Nancy Steinhardt(Pennsylvania)
   토론 : Burglind Jungmann(UCLA)
5. 고구려의 대왜외교: 외교전략과 동아시아 정세
   발표 : 이성시(와세다대)
   토론 : Herman Ooms(UCLA)
6. 고구려와 중국: 동등한 경쟁, 조공,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발표 : Stella Xu(Roanoke)
   토론 : David Schanberg(UCLA)
7.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전개양상
   발표 : 정운용(고려대)
   토론 : 김형욱(UCLA)
8. 고구려와 백제 관계 개괄: 한국 고대사의 공간적 시간적 늪

발표 : Jonathan Best(Wesleyan)

토론 : 이인철(동북아역사재단)

▌3월 학술발표

▣ 韓日關係史學會 제102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07년 3월 10일(토)

오후 2시 00분 ~ 오후 5시 30분

장소 : 송파구 문화예술회관(송파문화원) 2층 제 2회의실

사회 : 남상호(경기대)

〈제1주제〉〈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발표자: 김은숙(한국교원대)

토론자: 송완범(고려대)

〈제2주제〉〈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양성 정책 -1930년 명륜학원 설립과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로의 개편과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류미나(국민대)

토론자: 호사카유지(세종대)

〈제3주제〉〈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되는 한미일관계〉

발표자: 유지아(중앙대)

토론자: 신주백(서울대)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232회 월례연구발표회

○ 일 시: 2007년3월27일(화) 15:00 ~18:00

○ 장 소: 독립기념관 연구동 2층 강의실

발표주제

사회 : 이명화(본연구소 책임연구원)

제1주제 발표자 : 김형관(한국방송)

제 목 : 〈중국 동북지방 자료조사 방법과 현황〉

제2주제 발표자 : 윤선자(전남대 교수)

제 목 : 〈1933년 전라북도의 공산주의 사건〉

토론자 : 김도형(본연구소 선임연구원)

▌4월 학술발표

▣ 제95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 일시: 2007년4월 14일(토) 14:00 ~18:00

○ 장소: 대전 충남대학교 박물관 강당

사회: 윤선태 (동국대)

제1주제: 〈산동반도 출토 비파형동검문화 유물과 고조선〉

발표자: 박준형 (연세대)

토론자: 송호정 (한국교원대)

제2주제: 〈중국 사서에 보이는 백제 시조관과 시국자 구태〉

발표자: 김병곤 (동국대)

토론자: 김기섭 (서울역사박물관)

제3주제: 〈홍려정 석각의 '鞅羯使' 명칭에 대한 재검토〉

발표자: 권은주 (경북대)

토론자: 김종복 (성균관대박물관)

자료 소개: 〈새로 발견된 낙랑 목간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 통계문서-〉

발표자: 윤용구 (인천시립박물관)

▣ 대구사학회 제126차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07년 4월 21일(토)

오후 2시 ~ 오후 4시 5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인문관, 101호, 102호, 103호

〈韓國史部〉(101호) 사회: 이영호(상주대)

〈대구지역 삼국시대 城郭 연구 -낙동강변 성곽을 중심으로-〉(14:30-15:30)

발표: 조효식(대구교대 박물관) 토론: 이판섭(충청문화재연구원)

〈羅唐戰爭期 기벌포 전투에 대하여〉

(15:50-16:50)

발표: 이상훈(경북대) 토론: 서영교(충남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23회 월례발표회

○ 일시: 2007년4월 ·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대우재단 제2세미나실(8층)

사회: 정병준(이화여대)

발표

1. 〈일제의 구황실 우대정책〉
발표: 최재성(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 토론: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2. 〈간도 영유권 문제〉
발표: 이성환(계명대)/토론: 신주백(성공회대)

▣ 대동한문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한국한문학과 고구려, 발해
○ 일시: 2007년 4월 28일(토)10:00～18:00
○ 장소: 계명대(성서켐퍼스)의양관216호
○ 주최: 대동한문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계명대학교
진행사회: 박준호(계명대)
10:00～10:00 회장 인사
10:10～10:40 기조강연
東北工程에의 대응, 한문학의 입장 / 이동환(고려대 명예교수)
오전 발표
10:40～11:10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고려부터 동북공정까지 / 한규철(경성대)
11:00～11:40
고구려 문자, 언어 자료의 현황과 과제 / 임기환(서울교대)
11:40～12:10
廣開土大王陵碑文의 문학적 구조 / 심호택(계명대)
오후 발표
13:30～14:00
발해 문자 자료의 현황과 과제 / 윤선태(동국대)
14:00～14:30
발해 한시문학의 현황과 창작 경향 / 장원철(경상대)
14:30～15:00
渤海 外交文書의 實狀과 그 文體의 特徵 / 황위주(경북대)
15:00～15:20 종합토론
좌장: 김혈조(영남대)
노중국(계명대), 주보돈(경북대), 김창룡(한성대), 강종훈(대가대), 이구의(상주대), 이승수(한양대)

▌5월 학술발표

▣ 2007년 고구려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주제명 : 고구려의 起源과 族源에 관한 제문제
일시 : 2007년 5월 3～4일(목, 금요일)
장소 : 경성대학교 누리관 이미지홀
주최 : 고구려연구회 · 경성대인문과학연구소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第1日 : 2007. 5. 3 (목)
14 : 00～14 : 30 登錄 및 開會式
개회사 : 고구려연구회장,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장
司會 : 정진헌
1. 〈14 : 30～15 : 20〉
〈高句麗 國號와 音價에 대한 諸問題〉
發表 : 서길수 (서경대)
討論 : 김위현 (명지대)
2. 〈15 : 20～16 : 10〉
〈高句麗의 淵源으로서 肅愼과 古朝鮮〉
發表 : 한규철 (경성대)
討論 : 선석열 (부산대)
3. 〈16 : 20～17 : 10〉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發表 : 송호정 (교원대)
討論 : 박경철 (강남대)
4. 〈17 : 10～18 : 00〉
〈高句麗의 夫餘 起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發表 : 이도학 (한국전통문화학교)
討論 : 이병로 (계명대)
第2日 : 2007. 5. 4 (금)
5. 〈09 : 30～10 : 20〉
〈中國 學界 高句麗의 商人, 炎黃 後裔說에 대한

批判的 考察〉

發表 : 기수연 (석주선박물관)

討論 : 이수덕 (동아대)

6. 〈10 : 20～11 : 10〉

〈高句麗의 起源에 關한 考古學的 考察〉

發表 : 지병목 (경주문화재연구소)

討論 : 홍보식 (부산시립박물관)

7. 〈11 : 20～12 : 10〉

〈高句麗 建築의 起源에 關한 考察〉

發表 : 이병건 (동원대)

討論 : 서정호 (공주대)

綜合討論 司會 : 서영수 (단국대)

〈12 : 10～13 : 10〉 종합토론

▣ 제74회 조선시대사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 14:00

○ 장소 : 대우재단빌딩 8층 제1세미나실

○ 발표 및 토론

사회 : 심승구(한국체대)

제1발표 : 〈조선 중종대의 진휼청〉

발표 : 김순남(고려대)

토론 : 문용식(전주대)

제2발표 : 〈18세기 중후반 중화계승의식의 강화와 송·명 역사서의 편찬〉

발표 : 허태용(고려대)

토론 : 이영춘(국편위)

제3발표 : 〈조선시대 국가경제의 운영원리 -국가재정의 재분배 관점에서-〉

발표 : 손병규(성균관대)

토론 : 송양섭(충남대)

▣ 2007년 춘계 한국고대학회 국제학술대회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Ⅱ-

○ 주제 :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 일시 : 2007년 5월 15일(화)～16일(수)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고대학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학술대회 일정

2007년 5월 15일 (화)

사회 정운용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09 : 40 개회사 최광식(한국고대학회 회장)

축사: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진행 사회 박희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09 : 50 기조강연

〈북방 청동기문화와 한국 고대문화와의 관계〉

강연 : 김정배 (전 고려대 한국사학과)

10 : 30 제1주제

〈쌍방문화 청동기의 형식학·연대학적 연구〉

발표 : 짜오빈푸 (길림대 고고학과)

토론 : 하문식 (세종대 역사학과)

11 : 10 제2주제 〈연해주의 청동기시대〉

발표 : 브로스끼 (극동대 고고학과)

토론 : 이종선 (경기도박물관)

13 : 30 제3주제

〈요령지역 청동기문화와 북방 청동기문화 간의 상호 작용과 교류〉

발표 : 오강원 (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이성주 (강릉대 사학과)

14 : 10 제4주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와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지역성과 상호 관계〉

발표 :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토론 : 복기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5 : 00 제5주제

〈연해주의 초기철기문화와 한반도 -끄로우노브까 문화를 중심으로-〉

발표 :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토론 : 에렉젠 (몽골 아카데미)

15 : 40 제6주제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북방 청동기문화〉

발표 : 타라 (내몽골 문물연구소)

토론 : 박상빈 (서울역사박물관)

토론 사회 :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16 : 40 ~ 18 : 00 종합토론

2007년 5월 16일 (수)

진행 사회 : 양은경 (부산대 고고학과)

09 : 30 제7주제

〈비교문화사의 입장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민속〉

발표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토론 : 전경욱 (고려대 국어교육과)

10 : 10 제8주제

〈오르도스 암각화와 한국의 암각화〉

발표 :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장명수 (낙동문화연구소)

11 : 10 제9주제

〈오르도스의 '새머리 장식 사슴뿔(Bird-Headed Antler Tine)' 모티프의 계보와 동점 -평양 석암리 219호분 〈은제타출괴수문행엽〉의 제작지 문제-〉

발표 : 이송란 (문화재청)

토론 : 최성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토론 사회 : 박희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12 : 00 ~ 13 : 00 종합토론

▣ 2007년도 역사학회 학술대회 · 제41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 일시: 2007년 5월 18일(금) 11시

○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3층 국제회의실

○ 주최: 역사학회 · 국사편찬위원회

○ 주관: 역사학회

제1부(11:00-12:00)

녹촌문고 목록집 증정식

사회 : 김원기(국사편찬위원회)

감사패 및 녹촌문고 목록집 증정

기념사 :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고병익 선생의 삶과 사상〉 :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녹촌문고 관람(사료관 지하 3층)

제2부(13:00-18:00)

학술회의 주제 :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세계"

13:00-13:30 학술회의 등록

사회 김병준(한림대 사학과)

13:30-14:00

〈9-12세기 한국과 동아시아세계〉

발표: 이기동(동국대 사학과) / 토론: 송기호(서울대 국사학과)

14:00-14:30

〈13-14세기 대몽고국(大元)-고려 관계 - 학설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 이개석(경북대 사학과) / 토론 윤용혁(공주대 역사교육과)

14:30-15:00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과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

발표: 장석흥(국민대 국사학과) / 토론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과)

15:20-15:50

〈청말 중국의 변혁사조와 근대일본 인식〉

발표: 조병한(서강대 사학과) / 토론 하정식(숭실대 사학과)

15:50-16:20

〈근대 유럽의 중국 인식〉

발표 강철구(이화여대 사학과) / 백인호(서강대 사학과)

16:30-18:00 종합토론

토론사회 김두진(국민대 국사학과)

▌6월 학술발표

▣ 제 50회 전국 역사학대회

○ 주제 : 동북아의 평화와 역사서술

- 자국사와 지역사 -

○ 일시 : 2007년6월1 ~2일 (금)

○ 장소 :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 소강당(1, 2일)

마테오관, 가브리엘관(2일)

○ 공동주제: 동북아의 평화와 역사서술 – 자국사와 지역사

개회식

10:00～10:30

개회사: 조병한(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대회장, 서강대)

오전발표

사회: 최기영(서강대)

10:30～11:10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 공유의 가능성 – 공동역사교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자: 김성보(연세대, 한국사연구회) / 토론자: 송상헌(공주교대)

11:10～11:50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역사서술〉 발표자: 박섭(인제대, 경제사학회) / 토론자: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오후발표 사회: 함동주(이화여대)

13:30～14:10

〈역사서술과 13～14세기 동아시아〉 발표자: 이개석(경북대, 동양사학회)/토론자: 김호동(서울대)

14:10～14:50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발표자: 안병직(서울대, 서양사학회)/토론자: 김기봉(경기대)

14:50～15:30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 –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반성〉 발표자: 백영서(연세대, 역사학회)/토론자: 안병우(한신대)

종합토론

15:30～17:30 종합토론

사회: 이태진(서울대)

○ 일시: 2007년 6월 2일(토)

【한국사학사학회】 (가브리엘관 401호)

國史의 계보학 – 國家와 國史

사회: 박인호(금오공대)

13:10～13:40

〈고대 · 중세 한국사에 있어서 국사개념의 형성과 변천〉 발표: 정구복(한중연)

13:40～14:10

〈근 · 현대 한국사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국사체계〉 발표: 이영화(동국대)

14:30～15:00

〈청말 민족국가 개념의 형성과 근대 '중국사'의 탄생〉 발표: 이춘복(중앙대)

15:00～15:30

〈근대 독일 역사학의 민족사 기획 : 형성에서 해체로?〉 발표: 박용희(서울대)

15:30～17:30 종합토론

권중달(중앙대), 박찬승(한양대), 함동주(이화여대), 김기봉(경기대)

【역사교육연구회】 (마태오관 204호)

주제: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오전발표

사회: 양정현(부산대)

10:00～10:40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 발표: 진재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 유용태(서울대)

10:40～11:20

〈동양사 내용 구성과 서술의 방향〉 발표: 정하현(공주대) / 토론: 하원수(성균관대)

11:20～12:00

〈서양사 내용 구성과 서술의 방향〉 발표: 김창성(공주대) /토론: 김덕수(서울대)

오후발표

사회: 박수철(전남대)

13:40～14:20

〈제3세계 관련 내용 구성과 서술의 방향〉 발표: 오창훈(서울사대부고교사) / 토론: 박구병(서울시립대)

14:20～15:00

〈"동아시아사"의 도전과 모색〉 발표: 김정인(춘

천교대)/ 토론: 정연(영락고)

15:00～15:40

〈세계사 교육과정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과 '세계 역사의 이해'〉 발표: 남정란(태능고교사)/ 토론: 강선주(경인교대)

16:00～18:00 종합토론

사회: 김한종(한국교원대)

【한국미술사회】 (마태오관 9층 회의실)

오전발표

사회: 이주형(서울대)

주제: 고구려 고분벽화의 국제성

10:00～10:40

〈중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발표: 전호태(울산대)

10:40～11:20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제재와 그 연원〉/ 발표: 김진순(동북아역사재단)

11:20～12:00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인들과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수용경로〉/ 발표: 이송란(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한국사연구회】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206호)

주제: 해외 한인사회의 형성과 역사적 정체성

오전발표

사회: 송양섭(충남대)

10:00～12:00

〈통일신라기 재당신라인사회의 형성과 역사적 정체성〉 발표: 고경석(해군 충무공리더십센터) / 토론: 권덕영(부산외대)

〈임진왜란기 피랍조선인의 향방과 역사적 정체성〉 발표: 민덕기(청주대) / 토론: 손승철(강원대)

오후발표

사회: 장석홍(국민대)

14:00～17:00

〈중국 조선족사회의 형성과 역사적 정체성〉 발표 : 염인호(서울시립대) / 토론: 문형진(한국외대)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형성과 역사적 정체성〉 발표 : 반병률(한국외대) / 토론 : 김영수(성균관대)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역사적 정체성〉 발표: 최영호(영산대) / 토론: 정혜경(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 제43회 단군학회 학술대회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실증적 · 문화적 인식

○ 일시: 2007년6월2일(토)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실

○ 주최: 단군학회

○ 후원: 동북아 역사 재단

○ 학회 일정

사회: 유상주(단군학회 부회장)

09:30 학회장 인사

09:35～09:45

축사: 박성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09:45～10:00 기조발표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고찰/이재원(한체대)

1부 학술회의

10:00～12:00

사회: 배영기(숭의여대)

1. 단군사상과 한얼태교에 관한 연구 : 김용환(충북대)
2.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 임재해(안동대)
   토론: 설중환(고려대)
3. 고대 동아시아 복식비교에 의한 고조선 복식의 전통 : 박선희(상명대)
   토론: 이애주(서울대)

2부 학술회의 및 종합토론

13:00～17:00

사회: 서영대(인하대)

4. 홍산문화와 요하문명의 한반도와의 연계성 연구 : 우실하(항공대)

토론: 김성숙(한체대)

5.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과정: 오강원(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6. 고조선의 돌돌림 유적에 관한 고찰: 하문식(세종대)
토론: 유태용(경기대)

15:20～16:00

7. 사기(史記)속의 고조선 사료(史料)의 구성 분석과 해석: 서영수(단국대)
토론: 박준형(연세대 박물관)

16:00～17:00 종합 토론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392회 국학연구발표회 및 제2회 한중문화교류 학술회의

○ 주관: 한국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中國浙江大學校韓國硏究所

○ 일시: 2007년 6월 8일(금) 오후 1시～6시10분

○ 장소: 새천년관 111호

사회: 이광호(연세대 국학연구원 부원장, 철학과)

1:00～1:10

개회사 / 薛盛璟(延世大國學硏究院長, 國文科)

1:10～1:20

격려사 / 林龍基(延世大文科大學長, 國文科)

1:20～1:30

인사말 / 沈 堅(浙江大人文學院副院長, 史學科)

1:40～2:10

〈關于全球化背景下文化趨向的思考〉 발표: 沈 堅(浙江大人文學院副院長, 史學科) / 토론: 金裕哲(延世大 史學科)

2:10～2:40

〈고대 한중 불교 교류의 일고찰 -고려의 의천과 절강의 정원을 중심으로〉 발표: 辛奎卓(延世大 哲學科) / 토론: 車次錫(韓神大硏究敎授, 佛敎學)

2:40～3:10

〈論金時讓"荷潭破寂錄"的硏究價値〉 발표: 王雲路(浙江大人文學院副院長, 中文科) / 토론: 金鉉哲(延世大 中文科)

3:10～3:40

〈"綠波雜記"를 통해서 본 강남 서적의 유입〉 발표: 許敬震(延世大 國文科) / 토론: 金長煥(延世大 中文科)

통역: 금지아(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중문과)

4:00～4:30

〈韓國古今漢字雜考二題〉 발표: 張涌泉(浙江大古籍硏究所長, 中文科) / 토론: 金愛英(安養大 中國語科)

4:30～5:00

〈최치원의 동인의식과 동문의식〉 발표: 崔英成(韓國傳統文化學校 文化財管理科) / 토론: 李相星(成均館大 韓國哲學科)

5:00～5:30

〈燕行使臣與西學初傳朝鮮〉 발표: 楊雨蕾(浙江大史學科) / 토론: 朴茂瑛(延世大 國文科)

5:30～6:00

〈고려 속요와 원 산곡의 비교연구에 대한 일고〉 발표: 河炅心(延世大 中文科) / 토론: 洪榮林(漢陽大 中文科)

통역: 이주해(연세대 인문학 특성화사업단 연구교수, 중문과)

▣ 한국사연구회 제258차 연구발표회

○ 일 시: 2007년6월15일(금) 오후 3-6시

○ 장 소: 대우재단빌딩 8층 2세미나실

사 회 : 조인성(경희대)

1. 〈신라 전성기의 왕경 인구와 신분제〉
발표 : 하일식(연세대)
토론 : 이문기(경북대) / 여호규(한국외대)

2. 〈5세기 백제의 중국식 관제 수용과 그 기능〉
발표 : 정동준(성균관대)
토론 : 이용빈(명지대) / 정재윤(공주대)

▣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대회

○ 주제: 백두산 영토문제와 조선 및 淸의 동북지역에 대한 영토인식

○ 일시: 2007년6월16일(토) 13:00～19:00

○ 장소: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세미나실

○ 주관: 부산경남사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창원대학교

개 회(13:00～13:20)

사회 : 강재순(동아대)

인사말 : 홍순권(부산경남사학회 회장)

환영사 : 염재상(창원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제Ⅰ부(13:20～14:40)

사회 : 이윤상(창원대)

주제발표 1 :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발표 : 강석화(경인교대) / 토론 : 오인택(부산교대)

주제발표 2 : 〈淸代 백두산(장백산)의 역사〉 발표 : 배우성(서울시립대) /토론 : 박인호(금오공대)

제Ⅱ부(14:50～16:10)

사회 : 도진순(창원대)

주제발표 3 : 〈간도협약 전후의 영토문제〉 발표 : 이성환(계명대) / 토론 : 신주백(성공회대)

주제발표 4 : 〈청말 혁명파의 간도 인식 -송교인과 오록정을 중심으로-〉 발표 : 손승회(영남대) / 토론 : 강진아(경북대)

제Ⅲ부(16:20～17:40)

사회 : 이학수(해군사관학교)

주제발표 5 : 〈청말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처리 - 琉球의 분할 소유방안을 중심으로 - 〉 발표 : 김광옥(부산대) / 토론 : 박혁순(목포대)

주제발표 6 : 〈독일 민족국가와 국경문제 -독일 제국시대 프로이센 동부 국경지방의 독일화정책과 국수적 폴란드정책(1885-1914)을 중심으로-〉 발표 : 이용일(진주교대) / 토론 : 현재열(창원대)

제Ⅳ부 : 종합토론(17:40～18:40)

사회 : 이윤상(창원대)

발표자, 토론자 전원

▣ 대구사학회 제127차 전국학술발표회

일시 : 2007년 6월 16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20분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기념관, 101호, 201호, 301호

분과별 발표 내용

〈韓國史部〉 (101호)

사 회 : 우인수 (경북대)

〈7세기 말 遼東지역의 反唐전쟁과 발해건국〉 (14:30～15:30)

발표 : 권은주 (경북대)

토론: 박진숙 (국가기록원)

〈조선후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전답매매 실태〉 (14:30～15:30)

발표 : 김영나 (경북대)

토론 : 김형수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2회 미귀환 학술회의

해방 전 · 후 동아시아 정세와 해외 한인의 미귀환

○ 일시: 2007년6월19일(화) 10:30～17:30

○ 장소: 국민대학교 본관 4층 학술세미나실

○ 주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국민대학교

사 회 신주백(국민대)

제1주제 : 〈미귀환 재중 한인의 국적귀속문제〉

최계수(국민대) 10:30 ～11:10

제2주제 : 〈중국 연변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김춘선(중국 연변대) 11:10 ～11:40

제3주제 : 〈중국지역 만인갱과 한인의 희생〉

김승일(국민대) 11:40 ～12:10

제4주제 : 〈문화혁명 직후 중국 역사서에 드러난 조선의용군상〉

염인호(서울시립대) 13:30 ～14:00

제5주제 : 〈미귀환 재일 한인의 거주권 문제와 일본의 탄압정책〉

채영국(국민대) 14:00 ~14:30
제6주제 : 〈태평양전쟁기 사할린 한인의 '이중징용'과 미귀환〉
장석홍(국민대) 14:40 ~15:10
제7주제 : 〈동남아지역 한인의 이주와 진출〉
김도형(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5:10 ~15:40
종합 토론 : 16:00~17:30
토론 사회 : 여성구(국민대)
토 론 자 : 손염홍(홍익대), 신주백(국민대), 윤선자(전남대), 장세윤(동북아재단)
정혜경(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봉빈(중국 길림대)

▣ 중국고중세사학회 제2회 국제학술토론회
기원전 1세기~10세기 동북아시아 국가구조와 국제질서
일시: 2007년 6월 22일(금)~6월 23일(토)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7동 304호
학회일정
〈2007년6월22일(금)〉
10:00~10:10 개회사: 정하현(학회장)
10:10~10:30 축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1부
10:30~11:00 사회 : 이명화(이화여대)
박한제(서울대): 기조발표
전 근대 동아시아세계 조공책봉체제의 실상
11:00~12:00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前漢代 樂浪郡의 郡縣支配
토론: 권오중(영남대)
○ 2부
14:00~18:00 사회: 김종섭(연세대)
이주현(한남대): 魏晉南朝의 將軍號 확산 양상과 그 의미
토론: 신성곤(한양대)
胡阿祥(南京大): 東晉 · 南朝僑州郡縣對當時政區的影響
토론: 홍정아(서울대)
張鶴泉(吉林大): 東魏 · 北齊時期的行臺區
토론: 최진열(서울대)
정재훈(경상대): 唐 德宗(780~805년)의 대외정책과 위구르의 대응
토론: 이재성(동국대)
〈2007년 6월23일(토)〉
○ 3부
10:00~12:00 사회: 박근철(한성대)
정면(서강대): 後漢代 遼東지역의 漢人大姓
토론: 최진묵(서울대)
王明河(中央研究員 歷史言語研究所): 遊牧者的選擇
토론: 김경호(성균관대)
○ 4부
14:00~16:00 사회: 정순모(충남대)
정병준(동국대): 중국의 藩屬이론과 高句麗 귀속문제
토론: 최재영(서울대)
川本芳昭(九州大): 安東將軍から天皇へ
토론: 김은숙(한국교원대)
○ 종합토론
16:00~18:00 사회: 이윤화(안동대)
유원적(목포대), 김호동(서울대), 김유철(연세대), 王元周(北京大), 魏志江(中山大), 김정희(동북아역사재단

▣ 고대 동북아 암각화 비교연구
○ 일시: 2007년6월23일
○ 장소: 창신대학 사회관 1층세미나실
○ 주최: 한국암각화학회
○ 개회식(10:00)
개회사/장명수(학회장 · 낙동문화학술연구소장)
환영사/강병도(창신대학장)

기조연설/한국 암각화연구 40년
문명대(동국대)
○ 주제발표(오전 10:30～11:50)
1. 오브 · 에니세이 강 상류 암각화의 형상비교
발표: 이하우(한국선사미술연구소)/토론: 송화섭(전주대)
2. 동북아시아 암각화의 문화성격발표: 신성해(원불교박물관)/ 토론: 김일권(동북아역사재단)
○ 주제발표(13:30～15:50)
3. 몽골고원 암각화의 성격과 한국암각화발표: 나착 발트볼드(몽골 과학아카데미)
통역: 울지바트(몽골국립대학)
토론: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4. 한국 암각화의 문화적 특성
발표: 장명수(낙동문화학술연구소)
토론: 서영대(인하대학교)
5. 알프스 주변지역의 선사시대 입석유적과 상징
발표: 이상목(성림문화재연구원)
토론: 박영희(동서대)
○ 종합토론(16:00～17:30)
사회: 이상길(경남대)
문명대 · 이하우 · 송화섭 · 신성해 · 김일권 · 장명수 · 서영대 · 나착 발트볼드 · 장장식 · 이상목 · 박영희
○ 현장답사
2007년6월 24일(일) 09:00～12:00
함안 도항리, 동촌리, 밀양 신안리 제단 암각화

▌7월 학술발표

▣ 2007년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31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율령체제와 고려 율령
(The Statute System of East Asia and Koryo Statute)
○ 일시: 2007년 7월 6일(금)～7일(토)
○ 장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영상회의실
○ 주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후원: 영남대학교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대회 제1일 / 7월 6일 (금요일)
제1부 개회식 (9:30～9:50)
사회 : 이창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개회사 (9:30)이동순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축 사 (9:30)우동기 (영남대학교 총장)
제2부 학술회의 (10:00～12:30)
사회 : 이수환 (영남대 국사학과)
기조발표 〈고려율령에 관한 연구현황〉 (10:00～10:30)
발표자 : 김호동 (영남대 국사학과)
〈古代日本における律令制の受容の特質〉 (10:30～11:30)
발표자 : 大津 透 (동경대 인문과학연구과)
토론자 : 이근우 (부경대 사학과)
〈試論宋代的法律體系〉 (11:30～12:30)
발표자 : 戴建國 (상해사범대학교 고적정리연구소)
토론자 : 이석현 (경성대 사학과)
제3부 학술회의 (13:30～17:50)
사회 : 김호동 (영남대 국사학과)
〈宋明淸 '告不干己事法' 及其對士人助訟的影響〉 (13:30～14:30)
발표자 : 霍存福 (길림대 법학원)
토론자 : 임대희 (경북대 역사교육과)
〈高麗時代 身分制에 대한 再檢討 -唐律令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14:30～15:30)
발표자 : 전영섭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토론자 : 구산우 (창원대 사학과)
〈唐律令与高麗律令之比較〉 (15:50～16:50)
발표자 : 鄭顯文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토론자 : 林容漢 (충북대 사학과)
〈高麗時代における恤刑 -中國宋代との比較-〉 (16:50～17:50)
발표자 : 石川重雄 (동양대학 문학부)

토론자 : 윤훈표 (연세대 국학부)

○ 학술대회 제2일 / 7월 7일 (토요일)

제4부 학술회의 (09:30～12:50)

사회 : 김호동 (영남대 국사학과)

〈고려시대 부역령의 편목과 그 성격〉

(09:30～10:30)

발표자 : 이정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토론자 : 김기섭 (부산대 사학과)

〈각화령을 통해서 본 원 율령의 수용문제〉

(10:30-11:30)

발표자 : 위은숙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토론자 : 권영국 (숭실대 사학과)

〈고려전기 불교관련 율령의 내용과 성격〉

(11:50-12:50)

발표자 : 한기문 (상주대 교양학부)

토론자 : 이병희 (한국교원대 역사과)

▣ 동북アジア변강역사연구

○ 일시: 2007년7월20일～21일

○ 장소: 九州大 한국연구센터

○ 주최: 九州大 한국연구센터, 미국 한국연구평의회(ICKS)

개회사: 稻葉繼雄(九州大)

환영사: 김일평(ICKS)

기조연설: 정종욱(서울대)

■ 1부

사회 : 松原孝俊(한국연구센터)

1.〈中 · 韓 · 朝 歷史分岐的演變〉

발표 : 孫進己(瀋陽 東亞研究中心)

2.〈한 · 중 역사갈등과 동아시아의 상호이해 -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발표 : 김지훈(성균관대)

토론 : Kenneth Quinones(秋田國際大)

■ 2부

사회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1.〈東北邊疆歷史與現狀研〉

발표 : 厲聲(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2.〈Historical Conversation of East Asia and Cooperative Historical Recognition -한국 고등학교의 '東아시아史' 개설을 중심으로-〉

발표 : 안병우(한신대)

토론 : 濱田耕策(九州大)

■ 3부

사회 : 정종욱(서울대)

1.〈東北工程을 바라보는 한국 내의 시각〉

발표 : 여신호(九州大)

2.〈동북공정에 대한 서구학계의 이해〉

발표 :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3.〈確定歷史疆域理論原則研究綜述〉

발표 : 孫弘(瀋陽 東亞研究中心)

토론 : 이홍표(九州大)

■ 4부

사회 : 김일평(ICKS)

1.〈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론과 唐代의 국제질서〉 발표 : 김정희(동북아역사재단)

2.〈중국의 '藩屬體制'論과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발표 :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3.〈Synthesis of Chinese and Korean Perspectives on Northeast Asia Borderland History and Geographic Studies〉 발표 : 강희웅(Hawaii)

토론 : 井上直樹(京都府立大)

▣ 백산학회 학술대회

○ 주제: 간도개척의 민족사적 성격

○ 일시: 2007년 7월27일(금) 10:00～17:10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주최: 백 산 학 회

○ 주관: 백 암 학 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북방민족나눔협의회

10:30 개회사 신형식(백산학회 회장)

10:40 축 사 김원웅(국회 외교통상위원장)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1부 간도개척사의 의미

진행사회 유태용(백산학회)

11:00～11:30 〈한(韓)인의 간도이주와「간도개척사」〉

발표 : 윤병석(前인하대)

토론 : 이성환(계명대)

〈북간도 한인의 민족주의 교육과 항일운동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발표 : 이명화(독립기념관)

토론 : 김우준(연세대)

제2부 영상으로 본 간도

13:30～14:10 발표 : 박진호(한국과학기술원)

제3부 간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

14:10～14:40 〈백두산(장백)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 조법종(우석대)

토론: 우실하(항공대)

14:40～15:10 〈재중동포의 실상과 문제점〉

발표: 이윤기(해외한민족연구소장)

토론: 이동훈(아태포럼 한국측대표)

15:20～17:10 종합토론 좌장 신형식(백산학회)

▌8월 학술발표

▣ 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대회

○ 주제: 운암 김성숙 선생의 항일운동

○ 일시: 2007년8월1일(수) 13:30～18:20

○ 장소: 동국대학교 원흥관

○ 주최: 한국근현대사학회/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후원: 국가보훈처/광복회/법보신문

행 사 일 정

14:00～14:30 : 개회식

진행 사회 : 한철호(동국대)

개회사 : 김상기(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축사 : 민성진(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국주(광복회 회장)

이동춘(서울지방보훈청 청장)

발표

14:30～15:00 :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발표 : 손염홍, 홍익대)

15:10～15:40 : 〈1930년대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과 김성숙〉

(발표 : 김광재, 국사편찬위원회)

15:40～16:10 : 〈중경 임정 시기 김성숙의 활동과 정치사상〉

(발표 : 한상도, 건국대)

16:20～18:20 : 종합 토론

좌장 : 한시준(단국대)

토론 : 위지강(중국 중산대학), 장규식(중앙대), 염인호(서울시립대)

▌9월 학술발표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의 협력을 위한 모색: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 일시 : 2007년 9월 10일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환영사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 1부 : 과거 -동북아의 역사적 경험: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

사회 : 濱下武志(龍谷大)

1. 〈명대 이후 중국은 없다: 17세기 이후 중국, 조선, 일본의 상호인식과 문화관계〉 발표 : 葛兆光(復旦大)

2. 〈대동아공영권의 허와 실〉 발표 : Peter Duus (Stanford大)

3. 〈미국과 아시아의 변환: 아이디어, 제도 그리고 사건〉 정일준(고려대)

종합토론

■ 2부 : 현재 -동북아의 지역협력체를 향한 다양

한 시도: 성과와 한계
사회 : 陳光興(國立臺灣大)
1. 〈보편주의 구상으로서의 '동북아시대'와 지역 공동체 형성 방안〉 발표 : 최태욱(한림대)
2. 〈동북아 지식인의 연대 가능성〉
劉傑(早稻田大)
3. 〈유럽 통합의 경험과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
Gyorgy Szell(Osnabruck大)
종합토론
■ 3부 : 미래 - 동북아 협력의 과제와 방향
사회 : 이수훈(동북아시대위원회)
1. 〈동북아에서의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방안〉 발표 : 임현진(서울대)
2. 〈동북아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명적 원리〉
발표 : 西川長夫(立命館大)
3. 〈동북아에서의 평화, 화해 그리고 越境 이주〉
발표 : Tessa Morris-Suzuki(Australian Na'l大)
종합토론

▣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상이한 역사인식: 그 책임과 민족, 영토 인식
○ 일시: 2007년9월12일(수) 10:00 ~17: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개회사 (10:00 ~10:20)
사회자 :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사 :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1부 : 동북아에서의 역사갈등 (10:20-12:00)
사회 : 이재석 (동북아역사재단)
〈21세기 한일관계와 전망〉
발표 : 최영호 (영산대학교)
토론 :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국가책임 :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발표 : 박배근(부산대학교)
토론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 경과와 쟁점 및 우리의 대응〉
발표 : 박장배 (서강대학교)
토론 :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 2부 : 다민족 국가의 역사와 정책(13:20 ~15:00)
사회 :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소련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 1950 ~70년대 소련 민족 창출과 새로운 역사〉
발표 : 박상철 (전남대학교)
토론 : 류한수 (상명대학교)
〈유럽내 다민족 국가의 민족 통합정책에 관련한 주변 국가들간의 갈등과 평화 정착의 문제〉
발표 :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 윤용선 (한성대학교)
〈현대 중국의 민족사 서술 경향〉
발표 : 강현사 (한성대학교)
토론 : 윤휘탁 (동북아역사재단)
■ 3부 : 다민족 국가의 역사와 정책(15:10-16:50)
사회 : 정인섭(서울대학교)
〈해양과학조사의 국제법적 평가와 전망〉
발표 : 신창훈(한양대학교)
토론 :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20세기 초 영토 취득과 시제법〉
발표 : 박기갑 (고려대학교)
토론 : 김석현 (단국대학교)
〈19세기 영토 인식과 백두산〉
발표 : 강석화 (경인교육대학교)
토론 : 배성준 (동북아역사재단)

▣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대회
○ 주 제: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
○ 일 시: 2007년9월15일(일) 10:00 ~17:30
○ 장 소: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종합강의관 209호
○ 주 관 : 부산경남사학회 · 조선시대사학회 ·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사회: 박원용(부경대)
환영사 : 목연수(부경대학교 총장)
인사말씀 : 이배용(조선시대사학회 회장, 이화여

대 총장)
홍순권(부산경남사학회 회장)
신명호(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장)
■ 제Ⅰ부(11:00～12:30)
사회: 이근우(부경대)
주제발표 1 : 〈조선 초기 해도정책과 연근해 개발〉 / 신명호(부경대)
주제발표 2 : 〈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표도민들의 추이〉 / 김경옥(목포대)
주제발표 3 : 〈한말 일제 초 해녀 분쟁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 강재순(동아대)
■ 제Ⅱ부(13:30～15:00)
사회: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발표 4 : 〈朝淸 어업분쟁과 해양 경계〉 / 김문기(부경대)
주제발표 5 : 〈조선 후기 對淸 外交의 정상화 과정과 그 성격〉 /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주제발표 6 : 〈조선 후기 외교사안 왜정과 조청관계의 전개과정〉 / 김경록(공군사관학교)
종합토론(15:20～17:30) 사회: 박원용(부경대)
양흥숙(부산대), 변광석(부산대), 전성현(경상대), 이욱(한국국학진흥원), 이철성(건양대), 김강식(동명대)
■ 제Ⅲ부(종합강의관 210호, 13:30～15:00) 사회: 조세현(부경대)
주제발표 7 : 〈4～5세기 남부가야제국과 백제의 교섭 추이〉 / 김량훈(낙동문화학술연구소)
토론 : 이상율(부경대 박물관) / 사회 : 허재혁(부경대)
주제발표 8 : 〈한말 · 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김 승(동아대)
토론 : 이귀원(창원대) / 사회 : 하유식(부산외대)
주제발표 9 : 〈戶婚法을 통해 본 唐宋元과 高麗의 신분제〉 / 전영섭(부산대)
토론 : 이정희(영남대) / 사회 : 정용범(동서대)

▣ 조선시대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 주제 :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와 해양교류
○ 일시 : 9월 15일(토) 10:00～17:30
○ 장소 : 부경대학교
■ 제Ⅰ부 10:30～11:00 사회: 박원용(부경대)
환영사 : 목연수(부경대학교 총장)
인사말씀 : 이배용(조선시대사학회장, 이화여대 총장)
홍순권(부산경남사학회장, 동아대 교수)
신명호(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장, 부경대 교수)
■ 제2부 11:00～12:30 사회 : 이근우(부경대)
신명호(부경대): 〈조선 초기 해도정책과 연근해 개발〉
김경옥(목포대): 〈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島民들의 추이〉
강재순(동아대): 〈한말 일제 초 해녀 분쟁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 제3부(13:30～15:00) 사회 : 권오영(한중연)
김문기(부경대): 〈朝淸 어업분쟁과 해양 경계〉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조선 후기 對淸外交의 정상화 과정과 그 성격〉
김경록(공군사관학교): 〈조선 후기 외교사안 왜정과 조청관계의 전개과정〉
■ 종합토론(15:20～17:30) 사회 : 박원용(부경대)
이욱(한국국학진흥원) 변광석(부산대) 전성현(경상대) 양흥숙(부산대) 이철성(건양대) 김강식(동명대)

▣ 2007년 상고사토론회
○ 일시 : 2007년 9월 28일(금) 13시
○ 장소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3층 국제회의실
○ 주최 : 국사편찬위원회
○ 주관 : 한국고대학회
○ 후원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일 정

13:30～14:00 개회

사회 : 정운용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환영사 :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사 :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부영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이사장)

개회 : 최광식 (한국고대학회 회장)

사회 : 박대재 (고려대 한국사학과)

제 1주제 〈遼河文明論과 한국상고사〉

발표 : 우실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토론 : 하문식 (세종대 역사학과)

제 2주제 〈한민족 기원과 대쥬신 -한국 고대사 천년의 패러다임을 넘어-〉

발표 : 김운회 (동양대학교 교수)

토론 :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16:00～17:30 종합토론

사회 : 신형식 (상명대 사학과)

▌10월 학술발표

▣ 2007년도 대동한문학회 가을 기획발표회

주제: 영재 유득공 서거 200주기 追念 "18세기 실학에서의 영재 유득공의 위상"

일시: 2007년10월6일(토) 10시～18시

장소: 경북대학교 유당교육관 1층 회의실

주최: 대동한문학회

주관: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경북대학교

개회식

사회 김종철(대구한의대)

10:10～10:15 회장인사 이종문(계명대)

10:15～10:20 축사 경북대 총장

■ 오전발표

〈영재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깅영진(계명대)

〈조선조 금석학사에서 유득공의 위상〉 박철상(고서연구가)

〈영재 유득공의 역사 의식〉 정진헌(고구려연구회)

■ 오후발표

〈영재 유득공의 풍속지 저술과 그 의미〉 나경수(전남대)

〈영재 유득공의 시의 신운풍과 고증학적 경향〉 이경수(강원대)

〈《고운당필기》에 보이는 유득공 산문의 특징〉 김윤조(계명대)

15:30～17:30 종합토론 좌장 황위주(경북대)

토론자: 김종서(한국학중앙연구원), 이문기(경북대), 권은주(경북대), 김명자(안동대), 장원철(경상대), 임완혁(영남대)

▣ 제98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 일시: 2007년10월13일(토) 13:30～18:00

○ 장소: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사회교육 강의실(지하 1층)

사회: 박대재 (고려대)

제1주제: 〈백제의 부여 인식〉

발표자: 배재영 (전남대)

토론자: 정재윤 (공주대)

제2주제: 〈新羅 月城垓子 木簡의 출토상황과 월성 周邊〉

발표자: 이경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토론자: 이은석

▣ 연합사학회 학술대회

○ 주제: 【대중매체와 역사인식】

○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20일(토) 12시까지

○ 장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1, 2.

○ 주관: 호서사학회

○ 주최: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 후원: 청주대학교, 학술진흥재단, 누리안 전자사전

10월 19일(금)

장 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1실

개회식: 14:00～14:30
전체사회: 이종민(충북대)
개회사: 조승래(청주대)
환영사: 청주대 총장
기조발표: 14:30～15:00
발표: 김기덕,「영상역사학」
○ 제1부 발표회(15:10～17:50)
◆제1분과(사회과학대학 세미나1실)
사회: 윤진(충북대)
1.「사이먼 샤머(Simon Shama)와 영상으로서의 역사」
발표: 이영석(광주대),
토론: 정영주(부산대)
2.「기억의 강화, 왜곡, 억압: 1920-30년대 러시아의 시각매체를 중심으로」
발표: 박원용(부경대)
토론: 박상철(전남대)
3.「미디어 속 '문화 원형'의 활용 사례와 전망」
발표: 김병인(전남대)
토론: 최혜영(전남대)
◆제2분과(사회과학대학 세미나2실)
사회: 조윤선(청주대)
1.「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고구려사 관련 드라마」
발표: 김현숙(동북아연구재단)
토론: 송호정(교원대)
2.「드라마 방송과 한국사의 리얼리티와의 상관관계」
발표: 김인호(광운대)
토론: 박걸순(충북대)
3.「영화를 통해서 본 사회주의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역사교육」
발표: 김창규(전남대)
토론: 김종건(경북대)
4.「근대 상해 속 영화 : 계몽과 오락의 결합」
발표: 이호현(고려대)
토론: 김세호(한남대)

10월 20일(토)
○ 제2부 발표회(09:00～11:00,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사회: 이학수(해군사관학교)
1.「영화의 문화사,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최용찬(연세대)
토론: 조원옥(부산대)
2.「역사와 다큐멘터리 : 교과목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발표: 박순준(동의대)
토론: 송충기(공주대)
3.「현대 중국관련 다큐멘터리와 그 역사 인식」
발표: 이학로(계명대)
토론: 강진아(경북대)
○ 제3부(11:10～12:00,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 종합토론 -
사회: 김기봉(경기대)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공동주제 :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일시 : 2007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문관 210호 소극장
〈개회식〉 10:40-11:00 개회사, 축사
〈발표 및 토론〉 사회 : 심재훈(단국대)
[11:00～11:50]
1.〈동아시아에서의 고대사인식의 連環과 分岐〉
발표 : 이성시(와세다대) 토론 : 강종훈(대구가톨릭대)
[11:50～12:30]
2.〈안용복의 활동과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
발표 : 송병기(단국대) 토론 : 허영란(국사편찬위원회)
[2:00～2:40]
3.〈한 · 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발표 :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손승회(영남대)

[2:40～3:30]

4. 〈근대 중국인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동아시아연합론을 중심으로〉

발표 : 손과지(복단대) 토론 : 한시준(단국대)

[3:40～4:30]

5. 〈민족의 전지구적, 지역적 구성: 동아시아의 관점〉

발표 : 프라센짓 듀아라(시카고대) 토론 : 임지현(한양대)

[4:40～6:00] 종합토론 사회 : 한석정(동아대)

▣ 2007년 동양사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07.10.27(토) 10:00～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위당관 / 외솔관

주최 : 동양사학회

주관 : 연세대학교 사학과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전체 일정

오 전 발 표: 10:00～12:00(위당관/외솔관)

오 후 발 표: 14:00～17:00(위당관/외솔관)

학회 리셉션: 17:00～18:00(한경관 1층)

○ 분과별 발표 일정

■ 중국고대사

장소: 위당관 201호

오전

사회: 이명화(이화여대)

구륭회(중국사회과학원): 商代 神靈 숭배의 기원과 발전과정 / 토론: 김정열(숭실대)

김진우(동남대): 先秦 儒家 '孝治'이론의 초기형태 -郭店楚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이성원(공주대)

오후

사회: 이성구(울산대)

민후기(연세대): 郎官의 屬官化를 통해 본 漢代 관료제도의 발달 / 토론: 송 진(서울대)

최진묵(한남대): 節氣와 중국고대인의 생활 -銀雀山 漢簡의 三十時를 중심으로 / 토론: 김경호(성균관대)

■ 위진수당사

장소: 위당관 202호

오전

사회: 신성곤(한양대)

홍승현(서강대):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喪服禮의 확정과정을 中心으로

토론: 김용찬(서울대)

최진열(서울대): 南北朝時代 본적지 봉작과 그 성격 - 통계적분석과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토론: 이주현(한남대)

오후

사회: 박근칠(한성대)

김호(고려대):唐前期의北衙禁軍

토론: 정병준(동국대)

최재영(서울대): 唐 後期 長安의 神策軍 활동과 그 위상

토론: 김종섭(서울시립대)

■ 송요금원사

장소: 위당관 203호

오전

사회: 오원경(숙명여대)

유원준(경희대): 南北宋交替期의 燕雲漢人硏究

토론: 육정임(고려대)

조복현(한국외대) : 宋代 副食 價格 연구

토론: 황보윤식(인하대)

오후

사회: 김용완(충남대)

이근명(한국외대): 지방관 역임 시기의 王安石

토론: 박지훈(경기대)

민병희(서울대): 朱熹(1130-1200)의 '學'에서의 制度와 心의문제 -功利之學, 空虛之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토론: 김상범(한국외대)

■ 명청사
장소: 위당관 204호
오전
사회: 차혜원(연세대)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토론: 김종성(성균관대)
김선민(동국대): 淸朝의 邊境 인식 -朝鮮과의 邊境을 중심으로
토론: 정혜중(이화여대)
오후
사회: 정철웅(명지대)
홍성화(성균관대): 淸代 江南都市部의 商工業組織과 市場關係
토론: 이화승(서울디지털대)
원정식(강원대): 전근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작물 -明淸時代 福建의 담배 산업을 중심으로
토론: 박기수(성균관대)
■ 중국근현대사
장소: 외솔관 01호
오전
사회: 강명희(한세대)
도중만(목원대): 淸末의 學戰, 飜譯과 啓蒙 -馬君武가 옮긴 自由原理를 중심으로
토론: 조세현(부경대)
김수영(국민대): 보이틴스키와 초기 동아시아 공산주의
토론: 김지훈(성균관대)
오후
사회: 손준식(중앙대)
최은진(이화여대): 南京國民政府 시기 浙江省 건설과정과 교육 — 輔導制度를 중심으로
토론: 이재령(단국대)
정문상(경원대): 南京國民政府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사회 -上海 大夏大學의 사례분석
토론: 유용태(서울대)
장수지(연세대): 1950년대 上海市 禁娼사업과 娼妓해방
토론: 이원준(서울대)
배경한(신라대):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의 중국현대사 관련자료 소개 -蔣介石日記와 宋子文檔案을 중심으로
■ 일본사
장소: 위당관 205호
오전
사회: 이계황(인하대)
이재석(동북아역사재단): 일본서기를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 -안승의 고구려국과 일본서기
토론: 김선민(숙명여대)
김보한(고려대): 해적과 약탈경제
토론: 남기학(한림대)
오후
사회: 남상호(경기대)
김나영(전남대): 江戶幕府의 殉死 금지 과정
토론: 박진한(인천대)
류미나(국민대): 戰前 일본'국민'교화정책의 諸相 -湯島聖堂과 經學院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 이승희(중앙대)
홍수경(연세대) : 만주국의 思想戰과 '영화 新體制' 토론: 강태웅(광운대)

▌11월 학술발표

▣ '동아시아속의 발해와 일본' 국제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속의 발해와 일본
○ 일시: 2007년 11월 2-4일
○ 장소: 경기도 김포시 약암리 소재 약암관광호텔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과 한일문화교류기금 공동
○ 일정
개회 및 기조강연
진행 : 孫承喆(강원대)
개회사 : 李相禹(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축사 : 金容德(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 渤海의 國家와 對外交流(鈴木靖民, 國學院大)

■ 제1부 - 동아시아 속의 발해

사회 : 林相先(동북아역사재단)

渤海의 高句麗 繼承性 補論 : 宋基豪(서울대)

渤海와 唐과의 關係 :古畑徹(金澤大)

■ 제2부 - 발해와 일본

사회 : 林相先(동북아역사재단)

考古學에서 본 渤海와 日本의 교류사 : 小嶋芳孝(金澤學院大)

渤海와 日本 交流와 크라스키노城 : 金恩國(동북아역사재단)

東北아시아 歷史紛爭 속의 渤海史의 位置 : 李成市(早稻田大)

■ 종합토론

사회 : 韓圭哲(경성대)

토론 : 琴京淑(동북아역사재단), 金鍾福(성균관대), 尹載云(동북아역사재단), 林起煥(서울교대), 朴眞淑(국가기록원)

▣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워크숍

○ 주제: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속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 일시: 2007년 11월 15일 - 16일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세부일정

11월15일(목)

■ 개회식 10:00～10:20

사회: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개회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 1부 10:00～12:20

사회: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발표: 朱漢國(북경사범대)

토론: 김지훈(성균관대)

중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발표: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김은숙(한국교원대)

■ 2부 13:30～15:40

사회: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

발표: 深谷克己(와세다대)

토론: 신주백(국민대)

■ 3부 15:40～17:40

사회: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서술과 그 특징

발표 : 갈리나 츠카체바(극동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토론 :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주변국서술과 그 특징

발표 : 응웬 반 카인(베트남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

토론: 윤대영(서울대)

11월16일(금)

■ 4부 09:00～10:00

사회: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발표: 게렐 받드라흐(몽골 국립사범대)

토론: 김장구(동국대)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술과 그 특징

발표: 신성곤(한양대)

토론: 송요후(청담고)

■ 종합토론 11:00～12:30 사회: 안병우(한신대)

총괄논평(1-2부): 강희웅(하와이대)

총괄논평(3-4부):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종합토론(발표자,토론자,방청객)

▣ 제35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환동해지역 선사시대 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 일시: 2007년11월17일(토) 10:30～19:00

○ 장소: 강원대학교 동해안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2층대강당)
○ 주최: 한국상고사학회
○ 주관: 강릉대학교 사학과, 강릉대학교 박물관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울산문화재연구원
○ 회의 일정

10:30～11:10 개 회
특별강연: 최몽룡(서울대)
한국상고사 연구의 나아갈 방향
기조강연: 백홍기(강릉대)
환동해지역 선사문화의 성격과 연구동향
11:20～12:00
주제발표 사회: 이상수(관동대학교 박물관)
환동해지역 신석기시대의 문화와 사회교류
발표: 신숙정(한강문화재연구원)
토론: 이동주(동아대)
13:00～13:40
청동기시대 연해주와 한국의 문화교류
발표: 강인욱(부경대학교)
토론: 배진성(국립중앙박물관)
13:40～14:20
연해주 철기문화의 발생과 전개
발표: 홍형우(국립문화재연구소)
토론: 유은식(국립문화재연구소)
최근 유적 · 유물자료 중심발표
사회: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
14:30～15:00
최근 발굴조사 성과로 본 러시아 연해주의 선사문화
발표: N.끌류예프(러시아과학원극동분소)
15:00～15:30
영동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
발표: 박영구(강릉대학교박물관)
15:30～16:00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연구의 최근성과
발표: 심재연(예맥문화재연구원)
16:10～18:10 종합토론
좌장: 이청규(영남대), 발표자, 토론자전원

▣ 한국목간학회 제2회 학술대회

신출토 목간의 향연

○ 주최 : 한국목간학회
○ 후원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서울역사박물관
○ 일시 및 장소

2007년 11월 24일(토)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학술대회 일정

13:00～13:20 사회/ 김영욱 (서울시립대)
13:20～13:30 개회사 주보돈 (한국목간학회장)
13:30～14:50 [제1부] 신출토 한국목간의 보고
사회/ 전덕재(경주대)
13:30～14:00 부여 쌍북리 현내들 출토 백제목간
발표 : 이판섭(충청문화재연구원), 윤선태(동국대)
14:00～14:50
고려청자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 -태안선 출토 고려목간 / 발표: 임경희(국립해양유물전시관), 최연식(목포대)
15:00～16:30
[제2부] 신출토 한국목간의 연구 / 사회 : 이수훈(부산대)
15:00～15:40
평양 출토「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목간과 진한시대 호적 / 발표: 김병준(한림대) / 토론: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15:40～16:20
신출토 문자자료로 본 백제의 五部五方制 / 발표: 김영심(가톨릭대학) 토론: 김수태(충남대)
16:30～18:30
[제3부] 신출토 해외목간의 소개 사회/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16:30～17:10

日本 오사카 桑津 유적 출토 呪符木簡 / 발표: 김창석(강원대) / 토론: 박이순(강원대)

17:10～18:30

新刊『走馬樓吳簡 竹簡(Ⅱ)』의 內容과 爭點 / 발표: 于振波(中國/湖南大學) 토론: 전효빈(태동고전연구소)

▌12월 학술발표

▣ 한일관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전쟁과 기억의 표상으로서의 한일관계

○ 주최 : 韓日關係史學會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 2007년 12월 7일(금) 09:30～

○ 학술대회 일정

09:30～10:00 登錄 및 開會式

개회사 :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 제1부 사회: 오성(세종대)

1.〈10:00～10:30〉

기조강연 : 戰爭과 記憶 속의 韓日關係 /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日本 九州大)

2.〈10:30～11:20〉

東아시아세계에 있어서 白村江戰鬪의 자리매김

發表 : 나카무라 슈야(中村修也, 文敎大)

討論 : 이재석(동북아역사재단)

3.〈11:20～12:00〉

倭寇의 表象 -공포와 기억 속의 고려 · 조선인-

發表 : 김보한(고려대)

討論 : 이재범(경기대)

■ 제2부 사회: 남상호(경기대)

4.〈13:00～13:50〉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像의 創出

發表 : 이케 스스무(池享, 一橋大)

討論 : 이계황(인하대)

5.〈13:50～14:30〉

朝鮮侵略의 表象 -韓國에서 본 伊藤博文-

發表 : 방광석(연세대)

討論 : 김동명(국민대)

6.〈14:40～15:20〉

朝鮮人 特攻隊員에 대한 記憶

發表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討論 : 김종식(아주대)

7.〈15:20～16:00〉

日本軍 '慰安婦'에 대한 記憶

發表 : 윤명숙(한성대)

討論 : 김부자(한신대)

■ 제3부 종합토론

〈16:15～18:00〉

사회: 정재정(서울시립대)

▣ 제100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 일시: 2007년 12월 8일(토)

13:30～18:00

○ 장소: 서울 홍익대학교 홍문관(R동) 419호

사회: 조인성 (경희대)

▸ 제1주제: 비교사의 방법론과 세계사적 파악의 필요성

-한국고대사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발표자: 이기동 (동국대)

토론자: 김영하 (성균관대)

▸ 제2주제: 광개토왕릉비의 입비 목적

발표자: 이성시 (와세다대)

토론자: 주보돈 (경북대)

▸ 제3주제: 백제의 골족의식과 골족집단

발표자: 노중국 (계명대)

토론자: 양기석 (충북대)

▸ 제4주제: 정기발표회 100회의 분석

발표자: 이영호 (상주대)

▣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er and Periphery

○ Date: December 9(Sun)～11(Tue), 2007

○ Veune: Hotel Seoul kyoyuk(Seoul Education, Culture Center: 教育文化會館)

December 10th(Sun) 09:30～18:30

■ Opening Ceremony

Presider: 琴京淑(東北亞歷史財團)

Opening Address

金容德 (東北亞歷史財團 理事長)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nts

■ Plenary Session (Ⅰ) 10:30～12:00

Moderator: 琴京淑(東北亞歷史財團)

1. 林熒澤 (成均館大)

東아시아의 中國 中心主義와 그 克服의 課題

2. Mark SELDEN (Cornell University)

Center and Periphery in East Asia in Three Epochs

■ Session Ⅰ - Three Panels 13:30～15:30

● Panel 1-1 East Asian Identity and Prospect for the 21st Century

【Room-1】

Moderator: 安秉佑(韓神大)

Presenters

1. 宋成有 (北京大學)

21世紀東北亞國際社會的和諧與發展 : "中日韓三國三足鼎立論"

2. 茂木敏夫 (東京女子大學)

東アジア世界の近代的再編 － 再定義された「傳統」とその行方

3. 孫進己 (沈陽東北亞研究中心)

東亞圈的前景及和平解決歷史問題

4. 汪高鑫(北京師範大學)

古代東亞文化圈的基本特征

5. 河世鳳 (釜山大)

都市 正體性의 擡頭에서 본 近代東아시아의 中心 / 周邊

Discussant : J. Victor KOSCHMANN (Cornell University)

● Panel 1-2 Regional order in pre-modern East Asia 【Room-2】

Moderator : 金渭顯 (明知大)

Presenters

1. Kenneth R. ROBINSON(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Korean Military Posts and Foreign Interaction, 1420s-1592

2. 王新生 (北京大學)

十五世紀東亞地區的朝貢體制

3. 楊軍 (YANG Jun, 吉林大學)

東亞封貢體系的確立 -以遼金與高麗的關系爲中心

4. 李根雨 (釜慶大)

古代 日本과 中國의 外交關係: 羈縻와 冊封을 中心으로

Discussants : 李宗勳 (延邊大學)

李錫炫 (釜慶大)

● Panel 1-3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modern & contemporary period

【Room-3】

Moderator: 崔德壽 (高麗大)

Presenters

1. 權赫秀(東北師範大學)

晚淸對外關系中的 "一個外交兩種體制" 現象

2. 許海雲 (人民大學)

試析1945-1953年東北亞區域關系及其演變

3. 木宮正史(東京大)

中心-周邊 視角에서 본 1970年代 初의 韓半島

Discussants: 尹善子 (全南大)

高毅(北京大學)

■ Session Ⅱ - Three Panels

● Panel 2-1

Historical perceptions of center/periphery

【Room-1】

Moderator : 荒井信一 (茨木大)

Presenters

1. 王明珂 (臺灣中央研究院)

核心與邊緣的歷史對英雄歷史的反思

2. 朴燦奎 (延邊大學)

東北亞의 平和繁榮과 中韓 兩國의 古代歷史 認識差異에 對하여

3. 宮嶋博史(成均館大)

在韓 日本人이 본 韓國의 歷史認識과 歷史教育

4. 朴文一 (延邊大學)

調和로운 東北亞 歷史 硏究를 爲한 構想

Discussant: 林起煥 (서울教大)

● Panel 2-2 China and East Asia

【Room-2】

Moderator : 川島眞 (東京大)

Presenters

1.王元周(北京大學)

中國史學的周邊視野：以亞洲史的沉浮爲中心

2.謝貴安 (武漢大學)

東亞文化圈中心與邊緣的歷史演變

3.徐勇 (北京大學)

東亞地緣戰略之線型關系硏究

4.石茂明 (中國社會科學院)

邊緣的力量考驗單一民族國家想象－跨界民族的視角與苗族的個案

Discussants : 鄭文祥 (暻園大)

金志勳 (成均館大)

● Panel 2-3 East Asia as seen from Japa

【Room-3】

Moderator : 尹炳男 (西江大)

Presenters

1. 李成市 (早稻田大學)

日本の歷史學界における「東アジア」概念について

2. 池內敏 (名古屋大學)

近世日本人の朝鮮漂流記

3. 長田彰文 (上智大學)

日本에서 본 東아시아 -歐美로부터의 抑壓 移轉(委讓)對象 地域에서 排他的 利益 獨占 對象 地域까지

4. 咸東珠 (梨花女大)

近代日本의 植民地 移住論과 東아시아

Discussants: 金慶海 (大阪經濟法科大)

陳昌洙 (世宗硏究所)

December 11, 2007

■ Session Ⅲ 10:00～12:00

● Panel 3-1 Cultural Changes in East Asia

【Room-1】

Moderator: 曺秉漢 (西江大)

Presenters

1. 張志立 (紹興文理學院)

東亞民族文化的交流趨勢

2. 孫泓 (瀋陽東亞硏究中心)

東亞歷史上的文化交流及其對東亞文化圈形成的影響

3. Pankaj MOHAN (The University of Sydney)

Cultural flow and transformation of buddhist ritual: focusing on the dissemination of the Renwangjing(Inwang Kyong) in Silla and its uses

4. 今福龍太 (東京外國大)

群島, 房飾り, アナクロニズム－東アジア文化地政學の周緣から

5. 柴璠 (中國傳媒大學)

当前中國主流媒介在大衆文化傳播中的角色-在文化的中心和邊緣間游走

Discussants: 韓圭哲 (慶星大)

趙南浩 (國際腦教育綜合大學院大學校)

● Panel 3-2 State rule and ethnics in East Asia

【Room-2】

Moderator: 金裕哲 (延大)

Presenters

1. 陳長琦 (華南師範大學)
六朝廣東的民族融合與社會發展
2.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Is "Ainu History" a part of "Japanese History"?
3. 李憑 (中國華南師範大學)
代北諸部的遷徙與貢獻
4. 曾少聰(中國社會科院)
海外華人的民族性
Discussant: 姜捴亞 (慶北大)

● Panel 3-3 Ruling Order and Social Classes in East Asia 【Room-3】
Moderator: 洪性讚 (延世大)
Presenters
1.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Nonelites and identity discourse in modern Korea : Capital Chungin ("Middle People") and genealogy compilation
2. 木村幹 (神戶大)
「德治」の論理と「法治」の論理 -儒教文化圈における國家と政治
3. 李妍淑 (一橋大學)
國家を脫政治化する文化 -日本の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めぐる言說と天皇制
Discussants : 向燕南 (北京師範大)

■ Session Ⅳ 13:00～15:00

● Panel 4-1 East Asia as seen from Korea 【Room-1】
Moderator : 河宇鳳(全南大)
Presenters
1. 濱田耕策(九州大學)
新羅と渤海の對唐關係の歷史に表れた自己認識の変容
2. 趙二玉 (靈山大)
韓國古代史의 周邊: 靺鞨
3. 金炅一 (韓國學中央硏究院)
1920～30年代 東아시아의 知識人과 美國
4. 朴孟洙 (圓光大)
日本 時事新報(Jiji Shinpo)에 나타난 朝鮮認識: 東學農民革命을 中心으로 Discussant : 盧重國 (啓明大)

● Panel 4-2 Oceanic States and East Asia 【Room-2】
Moderator : 吳密察 (國立台灣歷史博物館)
Presenters
1. 高岱 (北京大學)
"中心"和"外緣"與香港的發展
2. Gavan McCormack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rc of Dependence: Japan, Australia, and the contest for the future of Asia
3. 牛可 (北京大學)
世界體系與台灣發展
Discussants: 李培德 (Kong University)
辛珠柏 (聖公會大)

● Panel 4-3 Mongol and East Asia 【Room-3】
Moderator: 李鎔圭(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enters
1. Bayar DOVDOI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emorial complex of Bilge Kagan
2. Tsolmon SODNOM (Institute of Histor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Som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Zuungar Khanate XVII century (Tibet, Russia and Qing Dynasty)
3. Batsaikhan OOKHNOI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Letter to the Japanese emperor by the Bogd Javz and Amba Discussants : 特木勒 (南京大)
尹榮寅 (靈山大)

■ Plenary Session (Ⅱ) 15:30～16:30【Room-1】

Moderater : 金旼奎 (東北亞歷史財團)

Presenters

1. 姜尙中 (東京大)

"東アジア地域秩序の中心と分散"

2. 姜義華 (復旦大學)

文明演進視域中邊緣與中心的位

■ Roundtable Discussion and Closing

16:30～18:00 【Room-1】

Moderator : 白永瑞 (延世大)

▣ 제29회 신라문화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 일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3:00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 A홀(BF1)

○ 주최 : 경주시 · 신라문화선양회

○ 주관 : 경주문화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국사학과

○ 후원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본부

○ 학술발표

사회: 전덕재 (경주대학교)

13:10～13:55

제1주제: 사비도성과 경주왕경의 비교연구시론

발표: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토론: 박순발 (충남대학교)

13:55～14:40

제2주제: 신라왕경과 일본 중원경

발표: 양정석 (수원대학교)

토론: 박방룡 (국립경주박물관)

14:50～15:35

제3주제: 신라왕경과 고려도성

발표: 김창현 (성신대학교)

토론: 박용운 (고려대학교)

15:35～16:20

제4주제: 신라왕경과 발해도성의 비교

발표: 김진광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강현숙 (동국대학교)

16:30～18:00 종합토론

좌장: 노중국 (계명대학교)

▣ 제1회 주니어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한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14일(금)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7년 12월 13일(목요일)

개회식 : A강의실, 10:00～11:00

-진 행 : 강문종(한국학대학원 부연구원)

-격려사 : 정순우 (한국학대학원장)

-축 사 : 오만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학술대회 일정 안내

기조강연 : A강의실, 11:10～12:00

강연자 :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주제 : 국제화시대의 한국학

■분과발표 및 토론 : 13:30～17:50

〈제1분과 - 6강의실〉

사회 : 이태희

*13:30～14:50～漢源 盧兢의 詩世界 小考

(발표 : 김지영, 토론 : 장유승)

*14:50～16:10

- 16～8세기 동아시아에서의 唐詩 選集의 편찬과 유통 (발표 : 노경희, 토론 : 부유섭)

*16:30～17:50

- 한국과 중국의 몽환소설 비교 (발표 : 김홍매, 토론 : 김인회)

-그 발전 양상을 중심으로-

〈제2분과 - A강의실〉

사회 : 이대화

*13:30～14:50

- 현대 몽골 역사학자들의 高麗에 대한 인식 (발표 : 체렝도로지, 토론 : 강톨가)

*14:50～16:10

- 일상노동의 전문화 그리고 문화재화 (발표 : 전봉수, 토론 : 권오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침선장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16:30～17:50

- 현대 한국 혼례식 하객 복식에 대한 고현학적 연구(발표 : 노무라 미찌요, 토론 : 양연지)

〈제3분과 - 2강의실〉

사회 : 김방울

*13:30～14:50

-한국 종교학자들의 영화 연구에 대한 고찰 (발표 : 이종우, 토론 : 정선미)

-이를 통한 종교학의 문화컨텐츠 분석 가능성에 대한 전망

*14:50～16:10

- 한국천주교 성지의 유형과 특성 (발표 : 허남진, 토론 : 박상규)

*16:30～17:50

- 유교와 합리성 (발표 : 최창석, 토론 : 송상형)

〈제4분과 - B강의실〉

사회 : 박건

*13:30～14:50

- 다문화적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현황과 과제 (발표 : 김세진, 토론 : 김경숙)

-농어촌 이주 외국인여성을 중심으로-

*14:50～16:10

-새로운 종족 지표로서의 종교 (발표: 아미눌이슬람 수먼, 토론: 이상균)

-무슬림 모니뿌리(Monipuri)에 관한 연구-

*16:30～17:50

-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통해 본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대응전략 (발표 : 장지혜, 토론 : 오윤정)

〈제5분과 - 1강의실〉

사회 : 이상호

*13:30～14:50

-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과 남북한 국제정세 (발표 : 아그니에슈카 스미아타츠, 토론 : 정은이)

*14:50～16:10

- 문화대혁명시기의 북중관계와 재중조선인에 대한 연구 (발표 : 박종철, 토론 : 정진세)

*16:30～17:50

- 개발도상국에서 근대적 연구기관 만들기의 어려움

-1960년대 원자력연구소(AERI)의 사례-

(발표 : 김성준, 토론 : 강호제)

〈2007년 12월 14일(금요일)〉

■초청강연 : A강의실, 09:30～11:00

사회 : 이준희

*09:30～10:00

- 한국학 이대로 좋은가? (강연 : 김해웅)

- 중국을 중심으로 -

*10:00～10:30

-한국학 이대로 좋은가? (강연 : 부룬퉁 야닉)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10:30～11:00 -초청강연에 대한 자유토론

■분과발표 및 토론

〈제1분과 - 6강의실〉

사회 : 최진아

*11:10～12:30

- 통일신라 석탑에 찾는 십이신 부조 (발표 : 넬리 게오르기에마, 토론 : 윤경)

*12:30～13:50

- 황토색의 의미 활용 (발표 : 육수현, 토론 : 심재석)

-똥색에서 전통색으로-

〈제2분과 - A강의실〉

*11:10～12:30

- 〈京畿監營圖〉에 재현된 조선후기 도시의 삶과 문화 (발표 : 강서연, 토론 : 안광호)

*12:30～13:50

- 문화의 탈지역적 흐름과 재수용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 : 길지혜, 토론 : 이장환) -한국판

TV드라마〈하얀거탑〉과 일본 원전의 비교연구를 사례로-

〈제3분과 - 2강의실〉

*11:10 ~ 12:30

-조선시대 무속에 나타난 색채상징 연구 (발표 : 방옥자, 토론 : 김덕묵)

-〈무당내력〉을 중심으로-

*12:30 ~ 13:50

- 태양을 담은 꽃 '규화(葵花)'에 관한 소고 (발표 : 구본능, 토론 : 이유옥)

〈제4분과 - B강의실〉

*11:10 ~ 12:30

-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주의 특수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발표 : 김인영 · 박관영, 토론 : 남궁은정)

- KBS '미녀들의 수다'와 '러브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12:30 ~ 13:50

- 반크의 한국바로알리기 운동의 의의와 전망 (발표 : 박기태, 토론 : 이영주)

〈제5분과 - 1강의실〉

*11:10 ~ 12:30

- 버마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 (발표 : 마웅저, 토론 : 박영실)

*12:30 ~ 13:50

-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발표 : 이정희, 토론 : 류제철)

-현대자동차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종합토론 : A강의실, 15:30 ~ 16:30

▣2007년 한중 고구려역사연구 학술회의

○ 일시: 2007년12월17 ~ 18일

○ 장소: 북경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제2연구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 회의 일정

○ 2007년12월17일

09:00 ~ 09:10 개회식 사회 厲聲

09:10 ~ 09:20
중국사회과학원 진가귀부원장 기조연설

09:20 ~ 09:30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이사장 기조연설

1부(의제: 고구려 族源연구 10:00 ~ 12:00
사회 李基東(동국대)

10:00 ~ 10:15 발표 王綿厚(요녕성박물관)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与"卒本夫余" - 兼論高句麗起源和早起文化的內涵与分布〉

10:15 ~ 10:25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10:25 ~ 10:35 발표자 답변

10:35 ~ 12:00 자유토론 및 질문

11:00 ~ 11:15 발표 노태돈(서울대)
〈고구려인의 족원적 기원〉

11:15 ~ 11:25 토론 魏存成(길림대)

11:25 ~ 11:35 발표자 답변

11:35 ~ 12:00 자유토론 및 질문

2부(의제: 고구려 초기 정치 및 사회제도)
사회 王 巍(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02:30 ~ 02:45 발표 임기환(서울교대)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와 5부〉

02:45 ~ 02:55 토론 楊 軍(길림대)

02:55 ~ 03:05 발표자 답변

03:05 ~ 03:30 자유토론 및 질문

03:30 ~ 03:45 발표 朴燦奎(연변대)
〈沸流國考〉

03:45 ~ 03:55 토론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03:55 ~ 04:05 발표자 답변

04:05 ~ 04:30 자유토론 및 질문

3부 (의제: 초기 고구려와 주변관계)
사회 王 巍(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04:45 ~ 05:00 발표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고구려의 성장과 요동 · 현토군〉

05:00 ~ 05:10 토론 于逢春(중국변강사지연구중

심)
05:10～05:20 발표자 답변
05:20～05:30 자유토론 및 질문
○2007년12월18일○
3부 (의제: 초기 고구려와 주변관계)
사회 : 付百臣(길림성사회과학원)
09:00～10:00 발표 魏存成(길림대)
〈高句麗早期歷史及其與玄菟群的關係〉
09:15～09:25 토론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09:35～10:00 자유토론 및 질문
4부 (의제: 고구려초기 고고와 신화 연구)
사회 付百臣(길림성사회과학원)
10:15～10:30 발표 김기흥(건국대)
〈고구려 건국신화에 보이는 주몽의 出自 系譜 構造〉
10:30～10:40
토론 王震中(중국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0:40～10:50 발표자 답변
10:50～11:15 자유토론 및 질문
11:15～11:30 발표 楊 軍(길림대)
〈高句麗朱蒙神話研究〉
11:30～11:40 토론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11:40～11:50 발표자 답변
11:50～12:20 자유토론 및 질문
5부 (의제: 고구려 초기 왕성 및 천도연구)
사회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02:30～02:45 발표 조법종(우석대학교)
〈고구려 초기 도성과 비류국 위치 연구〉
02:45～02:55 토론 王綿厚(요녕성박물관)
02:55～03:05 발표자 답변
03:55～04:20 자유토론 및 질문
04:20～04:50 종합토론
폐회식 사회 반병률
05:00～05:10
1. 박문일 중국학자대표 인사말
05:10～05:20
2. 이기동 한국학자대표 인사말
05:20～05:40
3. 厲聲 폐막식 인사말
05:40 반병률 폐회 선포

○ 연구 및 출간

◎ **도서**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KBS HD역사스페셜 원작, 박기현 해저	HD역사스페셜 5 -실리인가 이상인가, 근대를 향한 역사의 선택	효형출판	2007
	경기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고제희	우리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문예마당	2007
	구자성	우리가 간과하여 잊혀진 상고사를 찾아서	이엘씨미디어	2007
	국학연구소	알소리 005 : 단군편	한뿌리	2007
	김민수	아차산의 전설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2007
	김육불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下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09)	동북아역사재단	2007
	김인호	오늘을 위한 우리역사	한양대학교출판부	2007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 극동 역사 고고민속학 연구소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박영철 외	동아시아의 타자인식: 기억의 역사/역사의 기억	제이엔씨	2007
	백산학회	선사시대의 연구동향	백산자료원	2007
	백산학회	한국의 고대문화 형성	백산자료원	2007
	서길수	한말 유럽 학자의 고구려 연구 - 모리스 꾸랑 / 에두아르 샤반느	여유당	2007
	송종성	삼국사기 초기기록	서림재	2007
	심백강	황하에서 한라까지, 2000년 만에 밝혀지는 한민족의 역사	참좋은세상	2007
	안병우 외	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안주섭	우리 땅의 역사	소나무	2007
	안휘준	고구려회화 -고대 한국 문화가 그림으로 되살아나다	효형출판	2007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양태진	조약으로 본 우리땅 이야기	예나루	2007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예나루	2007
	우실하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2007
	이도학	역사가 기억해 주는 이름	서경문화사	2007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이성재	잃어버린 나라 낙랑 - 낙랑군의 그늘에 가려진 낙랑국의 숨겨진 역사	어드북스	2007
	이우평	한국지형산책 1 - 백두산에서 독도까지	푸른숲	2007
	이우평	한국지형산책 2 - 백령도에서 이어도까지	푸른숲	2007
	이원기	우리 고대사 이해의 걸림돌들	도서출판 경남	2007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 자기 최면의 역사	책세상	2007
	鄭善如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7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찰 - 근대주의 비판과 평화공존의 역사학 모색 -	선인	2007
	주채혁	순록치기가 본 조선 · 고구려 · 몽골	혜안	2007
	中國社會科學院 東北工程辦公室 · 延邊大學 中朝韓日關係史硏究中心	2005년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08)	동북아역사재단	2007
	지배선	중국 속 고구려 왕국 제(齊)	더불어책	2007
	최광식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 일본역사교육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 선사부터 현대까지	혜안	2007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한림과학원	고병익 · 이기백의 학문과 역사연구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
	한일관계사학회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경인문화사	2007
	허흥식	삼족오	학연문화사	2007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역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09) 김육불의 東北通史 상		2007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역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09) 김육불의 東北通史 하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논저목록 06) 고조선 · 단군 · 부여 연구논저 목록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논저목록 06) 중국의 고고와 문화연구논저 목록		2007
	이성규, 정인성, 이남규, 오영찬, 김무중, 김길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0) 낙랑 문화 연구		2007
	박대재, 정운용, 위정, 조윤재, 시노하라 히로카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1)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2007
	문명대, 최성은, 양은경, 류펑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2)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불상		2007
	이문기, 장동익, 우인수, 홍성구, 이에나가 쥰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3)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2007
	백준기, 최정수, 정상수, 최재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4)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2007
	한규철, 김종복, 박진숙, 이병건, 양정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5)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2007
	유지원, 김영신, 김주용, 김태국, 이경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2007
	지배선, 정수일, 최광식, 장준희, 권영필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2007
	중국사회과학원 동북공정판공실저, 연변대학 역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08) 2005년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논문집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중공동학술조사보고서2)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기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 발굴보고서		2007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도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and Pride)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 바로알기-중국의 역사만들기 프로젝트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东北工程相关韩国学者论文选		2007
	동북아역사재단 편	KOGURYO - A Glorious Ancient Korean Kingdom in Northeast Asia		2007

◎ 논문

● 일반논문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강상규	일본의 유구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한반도와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2007-05
	공석구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孔錫龜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白山學報 제78호	白山學會	2007-08
	權奇重	9세기 濟州 鄕吏層 의 戶口 變動 -大靜縣 東城里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권도경	국립도서관보 계열「설인귀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당 전쟁 문학의 교섭양상에 관한 연구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권오중	遼東 公孫氏政權의 興亡과 '夷人'問題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권은주	鴻臚井石刻에 보이는 崔忻의 職名 재검토 -'宣勞靺羯使'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46	한국고대사학회	2007-06
	金京蘭	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19세기 濟州 戶籍中草, 光武戶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金南奭	1930년대 大衆劇團 '中央舞臺'의 공연사 연구	大東文化硏究 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金度亨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57	성균관대학교	2007-03
	金正仁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歷史敎育 第101輯	역사교육연구회	2007-03
	기미지마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국헌법 -시행 60주년을 맞이한 재검토	역사비평 2007년 봄	역사문제연구소	2007-02
	기수연	中國學界'高句麗'와 高句麗의 商人, 炎黃後裔說에 대한 비판적 고찰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김경수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기록관에 대하여	韓國史學史學報 15	韓國史學史學會	2007-06
	김기섭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硏究 35	한국고대사학회	2007-03
	金大淵	高麗 顯宗의 卽位와 契丹의 侵略原因	한국중세사학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04
	김동우	汕耘 張道斌의『渤海太祖』연구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김병남	백제 무령왕 때의 대내외적 상황과 영역의 변화	韓國思想과 文化	韓國思想文化學會	2007-0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김윤배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뗏목탐사를 통한 발해의 동해해상항로 연구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김은국	【서평】『渤海國交通運輸史研究』(尹鉉哲 著, 2006, 北京 : 華齡出版社)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김은숙	일본 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한일관계사학회	2007-04
	김종복	발해의 건국 과정	내일을 여는 역사제28호	서해문집	2007-06
	김창석	고구려 · 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南武熙	安原王 · 陽原王代 정치변동과 고구려 불교계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45	한국고대사학회	2007-03
	李信澈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 · 일 역사논쟁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03
	閔庚三	신출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	新羅史學報 9	新羅史學會	2007-04
	朴京哲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韓國史學報 제26호	高麗史學會	2007-02
	박경철	麗唐戰爭의 再認識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박병섭	환웅, 삼조선과 부여 · 고구려 · 요 · 금 · 원 · 청의 계보 -지식형태사에 입각한 한국과 방계의 역사	단군학연구 제16호	단군학회	2007-06
	朴商煥	人文學의 '위기'와 文化연구를 위한 試論 -분과학문의 배타성을 넘어 공존의 학문으로	大東文化研究 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박선희	고대 동아시아 복식비교에 의한 고조선 복식의 전통	단군학연구 제16호	단군학회	2007-06
	박윤선	5세기 중후반 백제의 대외관계	역사와 현실 제63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03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韓國外國語大學校	2007-06
	박인호	전통시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고구려인식	韓國史學史學報 15	韓國史學史學會	2007-06
	박찬흥	일제 '만선사학'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서해문집	2007-03
	박홍갑	발해 유민 大氏의 한반도 정착 과정 -영순현과 영순태씨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배우성	地圖와 記憶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삼국의 琉球 인식-	역사문화연구 제26	韓國外國語大學校	2007-02
	白種伍	南漢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韓國古代學會	2007-06
	서길수	'高麗'의 소릿값(音價)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第27輯	高句麗研究會	2007-06
	서병국	고구려인과 말갈족의 발해국		한국학술정보	2007-06
	孫炳圭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大東文化研究|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손혜리	鐘洲 朴琮의 〈白頭山遊錄〉 研究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송완범	'白村江싸움'과 倭 - 東아시아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35	한국고대사학회	2007-0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송용덕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제6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06
	송호정	미송리형토기문화에 대한 재고찰	韓國古代史硏究|45	한국고대사학회	2007-03
	송호정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宋鎬晸	기원전 시기의 사회 성격과 시대구분	韓國古代史硏究 46	한국고대사학회	2007-06
	신동규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의 동아시아 진출에 보이는 한국 · 일본관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사학|제30호	전북사학회	2007-04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歷史敎育|第101輯	역사교육연구회	2007-03
	沈載勳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 『詩經』"韓奕"편 다시 읽기	東方學志|126	延世大學校 國學硏	2007-03
	沈浩澤	廣開土王陵碑文의 構造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安在淳	17세기 한국의 유학사상 -朱子學의 深化와 그에 대한 批判-	儒敎文化硏究 第1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2
	여호규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여호규	한국사의 입장에서 본 고구려사 -중국의 동북공정을 넘어	내일을 여는 역사	서해문집	2007-03
	余昊奎	3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歷史學報 第194輯	歷史學會	2007-06
	연민수	6~7세기 高句麗의 對倭關係	韓日關係史硏究	한일관계사학회	2007-04
	유재건	한반도 분단체제의 독특성과 6 · 15시대	지역과 역사|제20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04
	윤상열	고구려 王后 于氏에 대하여	歷史와 實學 32輯	歷史實學會	2007-06
	尹善泰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윤승준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東方學志136	延世大學校 國學硏	2007-03
	윤현철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이영한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	韓日關係史硏究	한일관계사학회	2007-04
	이강래	한 · 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李庚燉	'趣味'라는 私的 趣向과 文化主體 '大衆'	大東文化硏究 제57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이도학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이병건	渤海 建築遺蹟에 關한 南韓의 硏究成果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李秉建	발해 도성과 궁전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白山學報 제78호	白山學會	2007-08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第29輯	東國大學校	2007-02
	李成妊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 - 『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第57輯	성균관대학교	2007-03
	이재원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고찰 -문학교과서(7차 교육과정)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6호	단군학회	2007-06
	이정효	장천1호분 예불도벽화의 불상양식 고찰	石堂論叢|제38호	동아대학교	2007-0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硏究 137	韓國史硏究會	2007-06
	장용준	中國 東北地域 後期舊石器 製作技術의 變遷과 系統硏究	東北亞歷史論叢|15	동북아역사재단	2007-03
	장원철	발해 한시문학의 현황과 창작 경향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張彰恩	新羅 智證王의 執權과 對高句麗 防衛體系의 확립	韓國古代史硏究35	한국고대사학회	2007-03
	張彰恩	新羅 上古期 對高句麗 關係의 史的 意義	新羅史學報 10	新羅史學會	2007-06
	정병준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정영진	발해의 建國年代와 建國地, 建國集團과 國號에 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06
	鄭雨澤	아리랑 노래의 정전화 과정 연구	大東文化硏究|제5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정재정	교토가 말하는 한일관계 2000년 -고대편	역사비평 2007년 봄	역사문제연구소	2007-02
	조법종	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 연구	白山學報|第77號	白山學會	2007-04
	조법종	'요동사'의 입장에서 보는 고구려사의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서해문집	2007-03
	趙成山	李綱會의 經世思想 - 茶山學 繼承의한 局面	大東文化硏究 第57輯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3
	趙誠乙	17세기 조선의 경학과 경세학	儒敎文化硏究 第11輯	성균관대학교 동아시	2007-02
	周恩來	【번역자료】 주은래 총리의 중국 -조선 관계 담화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지병목	高句麗 起源의 考古學的 考察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06
	최형국	성곽(城郭), 한반도의 숨결을 지켜주다	인물과사상 통권 1	인물과사상사	2007-07
	하문식	고조선의 돌돌림유적 연구 : 追補	단군학연구 제16호	단군학회	2007-06
	한규철	고구려 ·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咸苔英	『혈의 루』제2차 개작 연구 -새 자료 동양서원본 『牧丹峰』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57	성균관대학교	2007-03
	황민호	1920년대 초 재만 독립군의 활동에 관한 『매일신보』의 보도경향과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03
	黃渭周	渤海 外交文書의 實狀과 그 文體的 特徵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06
	김성수	동아시아론의 전개와 역사 텍스트 속의 동아시아	歷史敎育 第102輯	역사교육연구회	2007
	최치원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의미탐구 -역사 궤적, 그리고 관심들 · 관점들 ·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아세아연구 129호		2007
	고성빈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상호연관성과 쟁점의 비교 및 평가	국제지역연구16권 3호		2007
	김지훈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東北亞歷史論叢 17	동북아역사재단	2007
	송호정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귀속성 논란에 대한 하나의 제언- 조법종의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신서원)을 읽고	韓國古代史硏究 47	한국고대사학회	2007
	여호규	고구려 드라마 열풍의 허와 실 -드라마 〈주몽〉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41		2007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서길수	[번역자료]주은래 총리의 중국-조선 관계 담화	高句麗硏究 第27輯	高句麗硏究會	2007
	서길수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주몽'	高句麗硏究 第28輯	高句麗硏究會	2007
	김용만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연개소문'	高句麗硏究 第28輯	高句麗硏究會	2007
	한규철	고구려 ·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 第26輯	대동한문학회	2007
	주창윤	고구려 역사 드라마의 역사서술과 재현	高句麗硏究 第28輯	高句麗硏究會	2007
	이종수	中國의 夫餘史 認識과 硏究現況 檢討	高句麗硏究 第28輯	高句麗硏究會	2007

● 학위논문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1	강석민	18세기 조선의 영토론 연구	동국대	2007	박
2	강진원	고구려 시조묘 제사 연구 : 친사제의 성립과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대	2007	석
3	고영미	고대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춤 연구	숙명여대	2007	석
4	김민희	고대복식의 도식화 Data Base :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청주대	2007	석
5	김유정	집안지역 고구려 고분군의 분포 및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	2007	석
6	김진광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박
7	김창국	고구려 고분벽화의 생활풍속도 연구 : 놀이회화가 표현된 고분을 중심으로	계명대	2007	석
8	김효광	고구려의 전략 · 전술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7	석
9	문성숙	동북공정의 실체와 한국의 정책방안	강릉대학교	2007	석
10	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2007	박
11	박지영	동북공정의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2007	석
12	송영현	북한역사교과서의 고대사서술의 문제	서강대학교	2007	석
13	양형용	체제이행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한중관계 :동북공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2007	석
14	윤경해	고구려고분벽화의 회화성 연구	홍익대	2007	석
15	이수진	고구려 연화문와당 편년 연구	고려대	2007	석
16	이숙형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 연구	상명대	2007	석
17	이정록	발해의학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7	석
18	이종수	일제강점기 관야정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에 대한 고찰	명지대	2007	석
19	이주혜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중국외교의 정책과 그 성격 : 북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2007	석
20	이현정	한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 사진의 한국적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	2007	석
21	장창은	신라 상고기 고구려 관계와 정치세력 연구	국민대	2007	박
22	전지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불교문화 내용분석	중앙대	2007	석
23	정상민	4~5세기 예족의 동향과 고구려의 지배방식	연세대	2007	석

24	지미화	고구려 고분벽화의 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석
25	崔成奎	新羅 下代의 群小海上勢力 硏究 : 韓半島 西南 · 海岸의 海賊化한 海上勢力을 中心	성균관대	2007	석
26	코뱌코바 울리아나	고구려 〈주몽신화〉와 사하 〈엘레이신화〉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석

○ 언론 및 여론의 대응

◎ **신문/잡지**

● 신문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	2007.01.01	세계일보	시민단체 힘 모아 中 · 日 역사왜곡 대처해야"
2	2007.01.01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實利의 중국, 失利의 한국
3	2007.01.03	한겨레	사극열풍 타고 단군까지 오시네
4	2007.01.11	경향신문	[책읽기 365] 단재 신채호의 '천고'
5	2007.01.12	경향신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1) 동아시아의 성립과 교육의 효용성
6	2007.01.14	국민일보	[사설] 中 '역사 제국주의' 영토 침탈로 가나
7	2007.01.15	중앙일보	어설픈 명분 · 자주 … 포퓰리즘 이 국익 해쳐
8		경향신문	한 · 중 · 일 외교협의체 구축…연내 中서 첫 회의
9		조선일보	[만물상] 반크(VANK)
10	2007.01.16	조선일보	'뒷부분 한국사'는 몰라도 되나
11	2007.01.18	경향신문	中 중심주의 선전하는 '황후花', 현란한 영상 '씁쓸한 맛'
12	2007.01.19	중앙일보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한 시나리오 있다
13		경향신문	홍콩 ATV "고구려와 고조선 다른 민족"
14	2007.01.20	조선일보	"중국, 북한 무너지면 진입하려 북핵 시간 끌어"
15	2007.01.23	경향신문	[기자메모] '혼천의 지폐' 돌아서서 웃는 중국
16	2007.01.24	동아일보	[초대석]1992년 한중수교 협상 진두지휘 권병현 前주중대사
17		서울신문	[이용원 칼럼] 만주인가 동북3성인가
18	2007.01.25	조선일보	구리시, 실물크기 광개토대왕비 건립
19		한겨레	"이어도 문제제기는 '동북공정' 확대책"
20	2007.01.26	동아일보	[中동북공정 52% 한국관련]고구려-발해 역사왜곡에 집중
21		동아일보	중국 동북공정 연구과제 107개중 56개 '한국관련'
22		동아일보	[사설]'두려운 역사 날조' 중국의 동북공정 완결
23		조선일보	동북공정 연구과제 52%가 '한국 관련'
24		조선일보	백제가 정말 '요서' 지배 했을까?
25		한국일보	서길수 고구려연구회 이사장, 동북공정은 역사침탈 한 단계일뿐
26		서울신문	中 동북공정 타깃은 한국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7	2007.01.27	중앙일보	동북공정 5개년 계획 곧 마감되지만 … 중국 역사왜곡 더 강화
28	2007.01.29	중앙일보	중국, 5년 동북공정의 완결판
29		세계일보	백두산, 중국의 영산인가?
30		경향신문	中, 아시안게임 '동북공정' 으로 먹칠
31		국민일보	[사설] 동북공정 이후가 더 큰 문제다
32	2007.01.30	조선일보	"중국의 역사 침탈은 계속될 것"
33		동아일보	"고구려사는 시작… 모든 한국사가 위험"
34		중앙일보	[취재일기] 동북공정 5년 완결 … 우리는 뭘 했나
35		세계일보	창춘 동계 아시안게임, 동북공정 선전장인가
36		문화일보	中 '동북공정' 5년… "끝나지 않은 역사침탈"
37		경향신문	[시론] 국사교육과 국정교과서
38		한국일보	[기자의 눈] 中 · 대만의 역사 왜곡
39	2007.01.31	동아일보	전호태 교수 "고구려 문화의 힘은 창의적 재창조"
40		동아일보	[기고/정재정]21세기형 역사관을 가르치자
41		동아일보	[기자의 눈/유성운]한심한 13줄짜리 '동북공정 대책'
42		서울신문	"주몽 이젠 국민드라마"
43		조선일보	경기북부 단체장 연쇄 인터뷰 ④ 구리 박영순 시장
44	2007.02.01	한겨레	"중국, 5천년전 동이족 역사도 앗아갔다"
45		매일경제	[사설] 영토적 야심 노골화하는 中國
46	2007.02.02	경향신문	한나라 "'백두산 세리머니' 사과 어이없다"
47		경향신문	[책과 삶]고구려 vs 중국 패권다툼
48		문화일보	〈사설〉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당당히 대처하라
49		서울신문	[사설] 中, '백두산 피켓' 항의 앞서 성찰을
50	2007.02.03	중앙일보	백두산 세리머니 펼친 쇼트트랙 여자선수들
51	2007.02.04	중앙일보	[Family리빙] 만화로 보는 동북공정 … 중국 속내까지 쏙쏙
52		중앙일보	[NIE] 역사 왜곡은 우리 조상에 대한 모욕
53		중앙일보	[NIE] 자국 소수민족 관리위해 우리 역사 멋대로 왜곡
54		경향신문	〈스포츠칸〉'백두산 세리머니'패러디 中네티즌 한국 비하 논란
55	2007.02.05	한국일보	[기고] 백두산공정에 도사린 칼날
56		한국일보	뮤지컬 '판판판'… 동북공정에 고춧가루 뿌리다
57		국민일보	"영웅 · 삼국지는 동족상쟁"…中 네티즌 공격에 韓 네티즌 반격
58		국민일보	中 네티즌 드라마 '주몽'… 韓 네티즌 반격 댓글 잇달아
59	2007.02.07	동아일보	[문화 브리핑]'동북공정 이후, 우리 학계의 과제' 外
60		동아일보	앗! 고구려 주몽의 영정이 사라졌다
61		문화일보	〈방하 한생각〉 아! 고구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62		세계일보	국내 네티즌 중국 만리장성이 무슨 불가사의… 냉소
63		한국일보	[대구] 발해성터 떠나는 조선족 혼을 담았죠
64		조선일보	"발해 마을의 마지막 모습"
65	2007.02.08	매일경제	네이버, 중국 초상화 모방 논란 영정사진 삭제
66		중앙일보	조선 사적 삼전도비 페인트 낙서로 훼손
67		동아일보	[대구/경북]"中동북공정 부당한 처사 확인"
68		경향신문	'원삼국' 용어 폐지론 재부상
69	2007.02.12	동아일보	쑹청유 中교수 "신라 삼국통일은 한반도 국가의 통일"
70		세계일보	[시사따라잡기]한 · 중 외교전으로 비화된 백두산 세리머니
71		중앙일보	[송호근칼럼] 요코 이야기 와 민족주의
72	2007.02.13	조선일보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외국 학자들 "황당 그 자체"
73		문화일보	동아시아 고대사의 진 · 실 · 찾 · 기
74	2007.02.22	서울신문	[Seoul In] 마포구 역사왜곡 비판한 기획뮤지컬 공연
75	2007.02.23	세계일보	MBC 10부작 다큐 황하 내일 첫 방영
76		문화일보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
77		문화일보	〈취재수첩〉고조선 歷史편입, 취지는 좋으나…
78		동아일보	한반도 청동기 역사 1천년 앞당겨진다
79		한국일보	고조선 건국 역사 로 못박는다
80		한겨레	"단군왕검 고조선 건국"…고교 국사교과서 '대담'해졌다
81		국민일보	'고조선 건국, 공식 역사로 편입'… 청동기 시대 1000년 앞당겨
82		서울신문	[생각나눔] 고조선 신화서 역사로… 동북공정 대항?
83		조선일보	[만물상] 단군, 신화와 역사 사이
84	2007.02.24	동아일보	단군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역사'로
85		세계일보	고교 역사교과서 수정… 한민족 기원 공식화했다
86	2007.02.25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대륙사관과 반도사관
87	2007.02.26	중앙일보	류훙차이 중 공산당 부부장 한나라 빅3 차례로 만나
88		세계일보	SBS 3 · 1절 특집… 압록~두만 900마일 탐방
89		조선일보	[시론] 한 · 중 민족주의 충돌, 해법은 없나
90	2007.02.27	중앙일보	[시론] 단군신화 역사 가 되려면
91	2007.02.28	동아일보	"중국 金나라 시조는 안동 권씨일 것"
92		조선일보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니'…SBS '생방송 투데이' 네티즌 분노에 곤혹
93	2007.03.01	중앙일보	[노재현의시시각각] 대동강 문화가 사실이면 좋겠지만
94	2007.03.02	경향신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7) 성공적 경제협력 위한 요건
95	2007.03.03	동아일보	[인문사회]한중 역사전쟁 키워드…'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96	2007.03.05	중앙일보	[NIE] 교사가 쓴 발해유적 탐방기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97	2007.03.06	중앙일보	주몽이 태어나 자란 부여는 고구려 · 백제의 역사적 기원
98	2007.03.06	한국일보	2012년 신설 고교 동아시아史에 日 · 中 역사왜곡 실린다
99		한국일보	막내린 드라마 '주몽' 무엇을 남겼나
100		국민일보	동아시아史 '일 · 중 역사왜곡' 실린다
101		서울신문	2012년 신설 고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주변국 역사왜곡 객관 판단토록
102		서울신문	[데스크시각] '민족'은 죄가 아니다/김종면 문화부 부장급
103	2007.03.07	동아일보	中 – 日 역사왜곡 분명히 가르친다
104		조선일보	'중 · 일 역사왜곡' 교과서에 실린다
105		중앙일보	[한입정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外
106		한겨레	막내린 '주몽' 고대사 관심 환기시켜
107		한국일보	[사설] 동아시아사 교과서 좋기만 한 건 아니다
108		국민일보	[사설] '東아시아사' 역사 인식의 폭 더 넓혀야
109	2007.03.08	조선일보	"고조선 역사 복원은 한민족 사활걸린 중대사업"
110	2007.03.09	조선일보	"우리땅 민족의 숨결 느껴보자"
111		중앙일보	[취재일기] 샌드위치 코리아 중국 공략 어렵다지만…
112	2007.03.12	서울신문	학계 '고구려사 귀속문제' 해부
113		세계일보	국어교사가 만주 답사 후 책 펴내
114	2007.03.13	중앙일보	키워드로 푸는 역시 5 삼국사기 는 사대적인가
115		서울신문	"中 동북공정은 패권주의 역사관 요동 · 한반도 하나의 역사로 봐야"
116		문화일보	고구려는 왜 '그들'의 역사가 될 수 없는가
117	2007.03.17	문화일보	15년간 그림으로 복원한 '민족고대사'
118	2007.03.19	한국일보	인텔 中에 반도체 공장… 중국 위협론은 허구인가
119		중앙일보	중국, 단둥 인근 압록강 하구에 여의도 30배 산업 신도시 조성
120		한겨레	중국 드라마 고구려 · 연개소문 정체불명으로 그려
121	2007.03.20	한겨레	중국 1997년 이후 교과서에 '고구려사=중국사'
122		국민일보	동북아역사재단, 中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분석"삼국 = 신라 · 백제 · 가야"
123	2007.03.21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홍찬식]만주족의 굴욕
124		세계일보	온라인 교육사이트 '동북공정' 시사교양강좌 무료 공개
125		국민일보	[한마당-김상온] 春秋筆法
126		조선일보	고분벽화에서 조상의 모습 엿보다
127	2007.03.23	국민일보	[책과길] '중국 속 고구려 왕국, 제(齊)'… 제나라는 고구려 마지막 역사
128		경향신문	[이사람]"당과 천하제패 다툰 齊…동북공정 허구성 드러내"
129	2007.03.24	문화일보	〈데스크 시각〉中동북공정은 끝나지 않았다
130		서울신문	'中 동북공정' 허구 입증 나선다
131		서울신문	"동해 명칭은 2000년 전부터 널리 사용"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32	2007.03.27	조선일보	"동북공정은 수천년된 '중국확장'의 연장선"
133		세계일보	[기고] 식민사관 국사편찬위 역사 왜곡을 우려한다
134	2007.03.30	동아일보	[다시 보는 한국역사]〈1〉고구려의 민족적 계보
135		매일경제	동북공정 반박할증거가 여기 있소
136	2007.04.03	매일경제	고구려재단 자료 수집 · 활용 비체계적
137		매일경제	동북공정 마무리, 보고서 발간안해
138		경향신문	고구려 삼키려는 中, 비수 숨긴채 '미소'
139		한국일보	中, 동북공정 연구보고서 내지 않기로
140	2007.04.04	중앙일보	중 한국 자극해 외교 마찰 생길라
141		세계일보	中 동북공정 연구 종료
142		서울신문	고구려재단 예산 멋대로 썼다
143	2007.04.05	경향신문	원자바오 中총리 "한 · 중FTA 조속히 체결하자"
144		조선일보	한중 FTA 조기 체결을… 원자바오의 이유 있는 구애
145		한겨레	한-중 '가까이 더 가까이'
146		세계일보	원자바오 中총리 10일 방한… 경제협력 논의 급물살
147	2007.04.06	동아일보	원자바오 "한중 FTA 조기체결 희망"
148		동아일보	[사설]韓中 FTA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원자바오 총리
149		중앙일보	한 · 중 FTA 빨리 체결 희망
150		매일경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 韓 · 中 FTA 조기체결 희망
151		서울신문	원자바오 "한 · 중 FTA 서두르자"
152		서울신문	원자바오 보따리는 '안보' 와 '경제'
153	2007.04.07	한겨레	중 "FTA 빨리" · 노대통령 '천천히'
154	2007.04.08	국민일보	[사설] 中 총리 방한에 주목하는 이유
155		한국일보	한중 FTA 조급한 원자바오
156	2007.04.09	조선일보	원자바오 중국총리 'FTA 탐색' 방한
157		한겨레	송영길 "미국시장 선점…중 · 일 협상 지렛대로"심상정 "동아시아 협력…미 · 중 패권에 맞서야"
158	2007.04.10	한국일보	한중 정상회담 무슨 얘기 오갔나
159		국민일보	한중 FTA 필요성 공감… 노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
160		국민일보	정상회담 안팎… 노대통령 "손님 오실때 비오면 좋은 징조"
161		한겨레	새로운 전기 맞은 한-중 관계
162		세계일보	한국 · 중국, 해 · 공군 핫라인 구축 합의
163		경향신문	한 · 중 FTA협상 개시 등 논의
164		경향신문	한 · 중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
165	2007.04.11	한국일보	화기애애했던 한중 정상회담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166		조선일보	원자바오 FTA 서두르자 노대통령 더 지켜보고…
167		동아일보	“한중 FTA 윈윈 협상 하자”
168		중앙일보	원자바오 영토 · 역사 문제, 정치 · 학술과 분리해야
169	2007.04.12	한국일보	中 옌볜에 동북공정 연구기지 설립 의혹
170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조공무역(朝貢貿易)
171	2007.04.13	동아일보	동북공정 간판바꿔 다시 시작?
172		세계일보	中 동북공정 재추진 의혹
173		서울신문	中, 새로운 동북공정 시도
174	2007.04.14	동아일보	[인문사회]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175	2007.04.15	한겨레	균형 잃은 주장은 반감을 부를 뿐
176	2007.04.16	경향신문	단군 · 주몽이 中황제 후손? 끝나지 않은 고대사 왜곡
177		중앙일보	[내생각은…] 태권도 종주국 중국서도 넘보는데 …
178	2007.04.17	서울신문	“요하문명은 韓 · 中 · 蒙 공동의 뿌리”
179		문화일보	“동북아문명은 韓 · 中 생기기전 존재 어느 쪽의 일방적인 전유물 아니다”
180	2007.04.18	세계일보	동북아 역사 전쟁의 뿌리엔 중화사상 있다?
181	2007.04.24	경향신문	[아비투어 논술]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182		문화일보	“中 자국 중심적 중화사상 韓 · 日도 민족주의로 모방”
183	2007.04.25	매일경제	중국 정부, 동북공정 5월말 종료
184	2007.05.01	조선일보	‘고구려냐 고구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185	2007.05.04	서울신문	中 동북공정의 진화?
186	2007.05.07	경향신문	직장인 ‘역사아카데미’ 개설
187	2007.05.08	조선일보	[학술 소식] 동북아역사재단 외
188		문화일보	〈단신〉동북아재단, 직장인 역사 강좌 등
189	2007.05.10	한겨레	“세계사 빠진 한국사 교육은 반쪽”
190	2007.05.11	중앙일보	유역을 거슬러 고구려 문명 찾기
191	2007.05.12	서울신문	“중국은 몽골 역사도 크게 왜곡”
192	2007.05.14	문화일보	〈기고〉고구려기념관을 건립하자
193		세계일보	몽골 대학교수 중국 동북공정 뿌리는 마오이즘
194	2007.05.16	동아일보	[韓中日 신세대와 동북아의 미래]정치 · 외교 분과
195		조선일보	고고학계 뒤흔든 발굴품들
196		세계일보	‘아직 끝나지 않은 동북공정’ 특집 돋보였다
197	2007.05.17	경향신문	[문화수첩] 문화재硏 고구려 공정?
198	2007.05.22	국민일보	“현 백두산은 평안도 묘향산 진짜… 백두산은 만주 핑딩산”
199		조선일보	[특파원칼럼] 중국의 신 문화혁명
200	2007.05.23	국민일보	[사설] 國史 교육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1	2007.05.25	서울신문	美 SAT교재 '한국 최초국가는 신라' 오기…"고조선 뺀 中동북공정 시각"
202	2007.05.28	동아일보	제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국 68곳서 2만7738명 응시
203		한국일보	[선진사회로 가는 길]릴레이 인터뷰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4		경향신문	학계, 동아시아 담론 열풍…실체인가, 가상의 공동체인가
205		세계일보	中 사회과학원 열국지, 고구려는 한국사
206		한겨레	중 국책연구기관 사회과학원 '고구려는 한국사'인정
207	2007.05.29	경향신문	中 '고구려=한국史'로 기술…사회과학원 '한국편' 발행
208		동아일보	동북공정 학자 주장 배제…中, 당초 한국사 시각 복원
209		동아일보	"고조선-고구려는 한국사"
210		세계일보	中 사회과학원 열국지 서 고구려는 한국사
211		문화일보	中사회과학원이 펴낸 열국지 "고조선-고구려는 한국사"
212		매일경제	중 사회과학원, 고구려 한국사 인정 책 공개
213		국민일보	[사설] 중국 · 일본, 역사왜곡 더할 생각 버려야
214		한국일보	中, 고구려사 왜곡 포기?
215	2007.05.30	중앙일보	[사설] 중국이 고구려는 한국사 라고 했다지만
216		중앙일보	고조선 · 고구려는 한국사
217		서울신문	"中 동북공정 여전히 진행중"
218	2007.06.01	경향신문	[민통선 문화유산 기행](13)매소성 대첩 현장에서(하)
219	2007.06.02	동아일보	[다시 보는 한국역사]〈9〉 아사달문명이 서양사에 미친 영향
220	2007.06.04	조선일보	백제 · 신라 역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
221	2007.06.05	서울신문	"중국, 백제 · 신라도 자국사 편입 시도"
222		조선일보	차라리 아시아를 중국 영토라 하지 역사왜곡 심각
223		문화일보	"3국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 '집단 기억' 질곡도 벗어야"
224		한국일보	고려 건국한 왕건이 중국인의 후예라고?
225		세계일보	태조 왕건이 한족이라고? 중국 사회과학원 논문 파문
226		경향신문	中 역사학자 "고려 왕건은 중국 출신"
227	2007.06.06	서울신문	中 "고려 태조 왕건은 중국인 후예"
228		동아일보	中동북공정 대항 '경당' 부활…동양대서 청년 교육프로그램 마련
229	2007.06.07	조선일보	우리에겐 명백한 역사 기록 있다
230		서울신문	"백제 초기역사 300년 수용해야"
231	2007.06.07	경향신문	"한성 백제 폄훼 여전…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32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치우(蚩尤)와 황제(黃帝)
233	2007.06.08	문화일보	〈지구촌 전망대〉美 · 中의 '계산'과 북한의 '착각'
234	2007.06.10	한국일보	[新중화시대] 동북아 질서 재편 친구로서 함께해야
235	2007.06.11	경향신문	[기고] 中 무모한 패권주의 버려야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36	2007.06.12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유적
237	2007.07.05	문화일보	"10년간 발해에 미쳐 지냈다"
238	2007.07.07	동아일보	'머나먼 이웃나라들'… 日-中, 한국 영토 역사 왜곡 계속
239	2007.07.08	한겨레	실증주의와 현재주의 사관으로 본 역사왜곡
240		한겨레	과거청산이 '미래의 창'인 이유
241	2007.07.13	세계일보	구리시 고구려 기상 살려 中동북공정 막는다"
242	2007.07.18	경향신문	김홍신 "정치보다 문학이 100배 가치"…대하소설 '대발해' 발표
243		국민일보	김홍신씨 "발해역사 제대로 복원하는 게 국회의원 열 번하는 것보다 보람"
244	2007.07.19	경향신문	이이화씨 "역사를 모르는 건 미래를 모르는 것"
245	2007.07.20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동아시아론' 전문가 3인 토론
246	2007.07.21	조선일보	김홍신, 발해를 이야기하다
247	2007.07.22	세계일보	"'대조영' 등 TV사극 역사 오류 · 왜곡 심하다"
248	2007.07.25	동아일보	中 "백두산은 중국문화 중요 발원지"
249	2007.07.29	세계일보	고구려 백제 신라 800년 역사 '한눈에 쏙'
250	2007.07.30	한국일보	고구려 역사 기념관 국민 속으로
251	2007.07.31	동아일보	中 동북공정에 영향 받은 역사학계 4가지 새 인식틀
252		중앙일보	'역사왜곡 바로잡기' 또 하나의 밑거름
253		한국일보	가수 김장훈, 반크에 CF 모델료 1억 기부
254		문화일보	김장훈, 모델료 1억 '반크(사이버 외교사절단)' 기부
255	2007.08.02	한국일보	[지평선] 아차산의 후회
256	2007.08.03	한국일보	[메아리] 치우, 저우언라이, 삼족오
257	2007.08.06	조선일보	[서길수] 고구려사 기념관, 국민 손으로 세우자
258	2007.08.08	중앙일보	후보에 없던 광개토대왕이 1위
259	2007.08.09	경향신문	〈스포츠칸〉"광개토대왕을 고액권 인물로"…네티즌 지지 1위
260	2007.08.10	세계일보	[기획]발굴 · 복원 왜 어렵나
261	2007.08.12	중앙일보	동북공정의 실체를 밝힌다
262	2007.08.14	서울신문	15일 독립기념관 개관20돌 김삼웅 관장
263		경향신문	사그라드는 '항일의 숨결'… 깨지고 잡초 무성한 만주 유적지
264	2007.08.17	경향신문	[새책]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 外
265	2007.08.17	조선일보	백제와 신라까지 중국사의 일부라고?
266	2007.08.18	동아일보	[인문사회]한말 파란눈 학자들…아! 고구려
267	2007.08.20	중앙일보	역시] 제2회 성적우수자들 고구려 혼 찾아 지안을 가다
268		경향신문	[한 · 중수교 15년](上)얻은 것과 잃은 것
269	2007.08.22	세계일보	中 동북공정 대처 역사 바로세우기
270		세계일보	역사문화보전회 이이화 이사장 우리 역사 지키기 民 · 官 합심할 때"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71		경향신문	[사설]수교 15주년 한 · 중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
272		경향신문	[한 · 중수교 15년](下)과제와 미래
273	2007.08.23	문화일보	〈데스크 시각〉고구려 역사와 드라마
274		국민일보	[윤재석 칼럼] 中華—中禍—中和
275		국민일보	[한 · 중 수교 15주년] 북핵 해결 · 평화정착 안보 파트너로
276		한국일보	[사설] 수교 15년, 한중관계에 새 지평 열자
277		한국일보	[한 · 중 수교 15주년] 양국은 감정 배제하고 대승적 관계로 상생을
278		세계일보	장팅옌 초대 주한 中대사 동북공정 정치화 피해야 양국 관계 발전"
279	2007.08.24	서울신문	[韓 · 中수교 15주년] "우리는 연인… 윈-윈 전략 세워야"
280	2007.08.26	국민일보	"고구려 드라마 역사왜곡, 중국에 역공 빌미… " 여호규 교수 잘못된 열풍 비판
281		경향신문	[기고]한 · 중 수교 15주년 성과와 과제
282	2007.08.27	경향신문	[경향의 눈]리커창과 對中 공포감
283	2007.08.28	문화일보	〈포럼〉수교 15년, 韓中관계의 기회와 도전
284	2007.08.30	한겨레	이색 음반작업 '마에스트로 프로젝트' 나선 김장훈
285	2007.09.03	한국일보	[오늘의 책〈9월 4일〉] 영토한국사
286	2007.09.04	조선일보	[시각] '동북공정' 주도 기관이 NGO?
287		한국일보	韓 · 中 · 日 역사갈등 맞짱토론 벌인다
288	2007.09.05	조선일보	중국의 역사왜곡 어떻게 볼 것인가
289	2007.09.07	한국일보	태왕사신기 430억 제작비 · 현란한 CG · 애국심 마케팅 디워 닮았네
290		한국일보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1주년 기자간담
291	2007.09.09	국민일보	역사NGO 세계잔치 서울서 열린다… 9월12일부터 62개 연구단체 참여
292	2007.09.10	한겨레	"민족주의 발판삼아 보편주의로 가야 한다"
293	2007.09.11	조선일보	한 · 중 · 일 '쌍둥이 역사인식'
294		조선일보	중국 또 고구려사 왜곡?
295		세계일보	동북아 공동史觀 기틀 마련 中 · 日 역사왜곡 대응할 것"
296	2007.09.13	조선일보	북한 학계도 처음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비판
297		중앙일보	북한 학계 '동북공정' 우회적 비판
298		경향신문	상상력만 의존 "드라마야 만화야"…태왕사신기 논란
299		경향신문	"고구려사 중국사 편입 말도 안돼"
300	2007.09.16	국민일보	고려인삼 원산지가 랴오둥?…中 학자 주장에 학계 반발
301	2007.09.17	경향신문	이만열교수 "지나친 민족주의 버려야 한다"
302	2007.09.19	중앙일보	합동훈련 할 만큼 군사외교 폭 넓혀야
303		한겨레	고구려역사기념관 추진위 출범
304	2007.09.20	중앙일보	"북한, 평양은 수백 년 간 고구려 수도였는데 동북공정 비판에 너무 소극적"
305	2007.09.21	한국일보	[2007 한중일 국민의식] 한국, 호감 · 영향력 1위국 中서 美로 이동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06	2007.09.23	동아일보	韓-몽골 손잡고 中동북공정 맞선다
307		중앙일보	[Joins풍향계] TV사극 인기 예측 태왕사신기 27.6%로 1위
308	2007.09.27	동아일보	"단군조선, 동북아문명의 공동발원지"
309	2007.10.02	조선일보	'중국 웅녀'도 쑥과 마늘… 단군신화 동북공정?
310		문화일보	〈2007 개천절 특집-개천절의 과거와 미래〉"국경 낮아지지만 민족주의는 강화"
311		세계일보	'태왕사신기' 흥행 돌풍… 고구려 영웅 안방극장 재접수
312	2007.10.03	중앙일보	[특별기고] "개천절은 민족의 미래 결정지을 단서"
313	2007.10.05	동아일보	남-북-러시아 학자들 '동북아 고대국가' 학술회의
314		문화일보	〈2007 남북정상선언〉中 동북공정-日 역사왜곡에 한목소리 대응 기대
315		서울신문	[2007 남북정상선언 경제협력 어떻게] (하) 부문별 효과와 남은 과제
316		중앙일보	[취재수첩] 유네스코 한국위의 창바이산 변명
317	2007.10.12	한국일보	한국역사 크게 왜곡하는 주한미군
318	2007.10.13	동아일보	중국지도에서 백두산이 사라졌다
319	2007.10.23	조선일보	고(高)평가된 고구려 · 저(低)평가된 신라
320	2007.10.24	중앙일보	중국 '동북공정' 비판하면서 우리강 이름 중국식 표기
321	2007.10.26	조선일보	고구려 땅 되찾자는게 아닙니다 노역사학자의 집념
322	2007.10.28	한국일보	한 · 중 대학생들 역사갈등 딛고 교류의 푸른미래 열자
323	2007.10.30	국민일보	[문화산책-호사카 유지]중국 여행에서 발견한 것
324	2007.10.31	한겨레	11월1일 학술단신
325	2007.11.02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5) 신라유물 권장(權仗)의 비밀
326	2007.11.06	동아일보	[문화단신]'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外
327	2007.11.08	한국일보	내몽골 · 랴오닝성 조선족 학교 살리기 현장을 가다
328	2007.11.09	문화일보	'고구려 되찾기' 국민뜻 모은다
329		조선일보	중국 정부 난데없는 '시조 공정'
330		매일경제	[술술 논술]사극, 역사의 재해석인가 왜곡인가
331	2007.11.09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6) 싱룽와 신석기 유적-동이의 발상
332	2007.11.10	동아일보	[인문사회 중국지리 확장사…'중국지리 오디세이']
333		부산일보	단군신화까지 노리는 동북공정
334		한국일보	고구려연구회 이사장 물러난 서길수 서경대 교수
335	2007.11.11	국민일보	서길수 교수 "사대주의 없애기위해 시작, 동북공정 대응논리 세웠죠"
336	2007.11.12	문화일보	'고구려 되찾기' 범국민 모금 '스타트'
337		조선일보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구리시추진위(委) 출범
338	2007.11.13	한국일보	"한국 미술사의 모태는 고구려"
339		문화일보	〈데스크 시각〉가우리와 고구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40		한겨레	“북핵해결 · 한반도평화 거쳐 동북아 안보협력으로”
341		중국망	중국 최고인류화석 발견, BC204만년 것 추정
342	2007.11.15	부산일보	연해주에 중국보다 앞선 독자적 철기문화 있었다
343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7) 빗살무늬 토기문화
344	2007.11.20	조선일보	북한, 고조선 수도가 평양 아닌 이유
345	2007.11.23	서울신문	황제의 신화
346		문화일보	中 발해만-서해 운하 뚫는다
347		경향신문	[책@세상. 깊이읽기]동아시아 ‘근대성’ 해명에 도전하다
348			[코리안루트를 찾아서](8)차오마오산과 흥산문화
349	2007.11.24	서울신문	한 · 중미래포럼 개막
350		세계일보	8세기 혜초가 걸어간 길 5萬里 그 길을 다시 걷다
351	2007.11.29	문화일보	“고구려史 못지키면 한낱 설화 소재로 전락”
352	2007.11.30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9)뉴허랑의 적석총들
353	2007.12.03	서울신문	[홍순영칼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354	2007.12.04	동아일보	[광주/전남]“한일 쌍성보 전투 백강 선생을 아십니까”
355	2007.12.05	동아일보	[기자의눈/임우선]구글어스“백두산은 중국땅”
356	2007.12.07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10)랴오허 동서쪽의 적석총
357		조선일보	빛나는 시정, 냉철한 이성으로 묘파한 대륙의 흥망성쇠
358	2007.12.10	중앙일보	[시론]중 · 일 관계의 훈풍과 한국
359	2007.12.11	문화일보	中중심 사관 털어야 동아시아 번영
360	2007.12.12	한국일보	서기시대까지 천착한 국내 의학사 연구의 ‘밑둥치’
361	2007.12.14	중앙일보	[book북카페] 영원한 이웃‘중화문명’153개 키워드로 풀다
362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11)뉴허랑의 옥기묘
363	2007.12.18	동아일보	[문화 단신]‘한중고구려 역사학술회의’ 外
364	2007.12.18	문화일보	“백두산 관광, 中동북공정 견제 효과”
365		문화일보	〈단신〉 한 · 중 고구려역사 학술회의 등
366		서울신문	中언론 “한국이 활자 인쇄술을 약탈했다”
367	2007.12.19	조선일보	한문 교육의 중요성
368	2007.12.20	매일경제	韓-中, 역사왜곡 · 무역분쟁 난제 산적
369		동아일보	[특파원 칼럼/하종대]親中反中 그리고 用中
370		경향신문	美 · 日 · 中 등 주변국이 본 새 외교정책 전망
371	2007.12.21	한겨레	민족주의 영토욕 판치는 고구려땅
372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12)홍산 곰의 정체
373		경향신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43)‘중심과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학술회의
374		경향신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자민족 중심 역사인식 비판적 검토 · 경계 의미’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375	2007.12.22	문화일보	韓-中 함께 날자꾸나
376		조선일보	울산 '암각화박물관' 내년 문열어
377	2007.12.23	한겨레	'한-중 문화전쟁' 불붙이는 중 언론
378		조선일보	'왜?'라는 의문 갖고 기존 역사에 반문하라
379	2007.12.24	조선일보	한 · 중수교 15년, 그'시너지'의 역사
380		조선일보	철학자, 한국 역사학계 비판하다
381	2007.12.25	동아일보	韓-中문화교류 어디까지 왔나?…EBS 다큐멘터리
382		경향신문	"2008년은 중국의 해"…뉴스위크, 송년호 커버스토리로 집중조명
383	2007.12.26	세계일보	[외국에서 보니]삼국사기는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할 최고의 증거
384	2007.12.27	서울신문	'만주국경찰사'국내 첫 번역
385		중앙일보	[취재일기] 무례한 중국 외교
386		경향신문	KBS 스페셜 '차마고도' 700일간의 제작기록
387	2007.12.28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13)흥산인의 어머니
388	2007.12.29	세계일보	도도한 '장강의 뒷물결' 드디어 CCTV를 덮치다
389	2007.12.30	국민일보	[사설]중 · 일 新밀월, 환영할 일이지만
390	2007.12.31	서울신문	[기고] 아차산에서 고구려 해맞이를/정송학 서울 광진구청장
391		세계일보	간도 사료 모으기 8년, 박선영 포스텍 교수

● 잡지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1	2007.01.04	뉴스메이커	[우정이야기]우표로 미리 보는 2007년
2	2007.02.20	한겨레21	[인터넷 스타] "백두산은 우리 땅."
3		한겨레21	반기문은 '세계 정상'?
4	2007.03.08	미디어오늘	약육강식의 결과물 '국민드라마'
5	2007.04.03	미디어오늘	한 · 미 FTA의 정치
6	2007.04.10	주간조선	조선 왕조의 유목(遊牧)성 주장한 윤은숙 박사
7	2007.04.17	레이디경향	국민드라마 '주몽' 종방연 현장에서 만난 '주몽'의 주역들
8	2007.04.23	주간동아	[주간동아]파시즘은 드라마를 먹고 자란다
9	2007.04.24	주간조선	철도가 티베트를 무너뜨린다
10	2007.05.01	한겨레21	목간에 새겨진 낙랑군의 실체는?
11	2007.05.28	주간동아	[주간동아]백두산 천지샘물 국내 식탁에 올려요
12	2007.07.10	주간조선	[김호동 교수의 중앙유라시아 역사 기행(6)] 신질서를 모색하는 고대 중앙유라시아
13	2007.07.11	이코노미21	[화제의책]잊혀진 발해 역사가 되살아난다
14	2007.08.13	주간동아	[주간동아]물고기로 세 번 변해 고구려를 지킨 연암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15	2007.08.14	한겨레21	[이병걸] 이어도를 역사와 잇는다
16		주간조선	[단국대 주요 연구소] 38년 역사 동양학연구소 '한한(漢韓)대사전' 완간 눈앞
17	2007.08.23	뉴스메이커	[정동초대석]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18	2007.09.17	주간동아	[주간동아]당태종 죽음 수수께끼와 중화민족 만들기
19	2007.10.04	뉴스메이커	[펌 · 펌 · 펌]중국의 민족주의 전략
20	2007.10.11	뉴스메이커	[문화불평]'태왕사신기'의 심각한 역사왜곡
21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우리가 '환만주 문화권' 중심이었다
22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종족의 이동으로 문화 · 민족 재탄생
23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한국사 다시 써야 한다
24	2007.11.05	주간조선	[우리는 中國을 너무 모른다]현황과 문제점
25	2007.11.12	주간조선	[국제] 중국의 한반도 전략
26	2007.11.19	주간조선	[김호동 교수의 중앙유라시아 역사기행(23)]'대중국'의 탄생
27	2007.11.22	한겨레21	[박노자칼럼] 고조선이 만주를 지배했다고?
28		한겨레21	한승동 동방여록 동아시아판 큰바위 얼굴들
29	2007.12.06	한겨레21	사대부여 왜 발해를 무시하는가
30	2007.12.11	월간조선	'한민족의 숨결을 찾아서'…대학생 러시아 연해주 역사탐방
31	2007.12.13	주간한국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다를줄이야…
32		한겨레21	[박노자칼럼] 낙랑군은 침략자였는가?
33	2007.12.25	뉴스메이커	[특별기획]웅녀와 호녀의 '사랑싸움' 이야기
34	2007.12.26	주간동아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外
35		신동아	고성장 바람타고 화려해진 식탁, 그 아래엔 상실과 박탈의 그림자

◎ **방송**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	2007.01.07	연합뉴스	〈신년 초대석〉 김하중 주중대사
2	2007.01.15	연합뉴스	美 CIA 한국사 왜곡 오류 시정
3	2007.01.18	연합뉴스	中, 대만은 우리 땅 증명 위해 안간힘
4	2007.01.22	연합뉴스	구리시 실물크기 광개토대왕비 건립
5	2007.01.25	연합뉴스	동북공정 풍자한 뮤지컬 판판판
6	2007.01.26	연합뉴스	〈동북공정은 껍데기, 동북사지 주목해야〉
7	2007.01.29	연합뉴스	〈中 후진타오 주석 지린성 시찰 배경〉
8		YTN	[새털뉴스] 동북공정의 완성…창춘 동계아시안게임
9		MBC뉴스	중국 동계AG 개막…백두산에서 채화
10	2007.01.30	MBC뉴스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조선족 농가 시찰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1	2007.02.02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 백두산 세리머니 항의 저의 뭔가
12	2007.02.04	SBS	중국인들 한국 고구려 드라마 는 역사왜곡
13	2007.02.05	연합뉴스	〈모든 역사공정은 청사찬수공정으로 통한다〉
14	2007.02.07	SBS	철거! 삼전도비 빗나간 화풀이
15	2007.02.08	연합뉴스	광개토대왕비가 동북공정 허구성 입증
16	2007.02.21	연합뉴스	〈인터뷰〉 10부작 다큐 황하 이정식 PD
17	2007.02.23	YTN	고교 역사책 수정… 고조선 건국 역사로 편입
18	2007.02.26	SBS	중국 동북공정은 영토 분할 방지 목적
19	2007.03.01	YTN	시민단체도, 누리꾼도, 주민들도 대한독립 만세!
20	2007.03.04	연합뉴스	〈고구려 사극 열풍의 주역 주몽 〉
21	2007.03.06	연합뉴스	〈'동아시아사 과목 가이드라인 나왔다'〉
22		YTN	신설 동아시아사에 일 · 중 역사왜곡 수록
23	2007.03.07	연합뉴스	학자 100여 명, 고조선 견국기사 개선 지지
24	2007.03.09	연합뉴스	中 최대 검색사이트, 고구려카페 돌연 폐쇄
25	2007.03.11	YTN	고조선 역사부활 국민 대축제 열려
26	2007.03.20	연합뉴스	中교과서 고조선=야만, 삼국=신라 · 백제 · 가야
27	2007.04.03	연합뉴스	〈中 지린성 한국에 투자유치 러브콜 〉
28		연합뉴스	감사원 고구려재단 자료 수집.활용 비체계적
29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 마무리..보고서는 발간안해 〈아사히〉
30	2007.04.05	연합뉴스	원자바오, 한.중 FTA 조기 체결 희망(종합)
31		SBS	원자바오 총리, 한중 FTA 조속히 추진하자
32	2007.04.09	연합뉴스	노대통령-원자바오 中총리 내일 회담
33	2007.04.10	YTN	노대통령-원자바오총리 오늘 회담
34	2007.04.10	연합뉴스	韓中 'BDA해법 통한 북핵 초기조치 조속이행'
35		MBC뉴스	한.중 정상회담 FTA 빨리하자
36	2007.04.11	MBC뉴스	노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셔틀 항공편 합의
37	2007.04.12	연합뉴스	中, 북한 지하자원에 집중 투자 〈산은〉
38		연합뉴스	중국 동북공정 간판 바꿔 계속 추진 의혹
39	2007.04.25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 5월말 종료..정부 재정지원도 중단
40		YTN	동북공정 다음달 말 종료…연구는 계속
41		연합뉴스	〈 이순신장군님! 고구려도 지켜주세요 〉
42	2007.04.27	연합뉴스	〈고구려 문화의 특징은 기백 · 웅장 · 낙천〉
43	2007.04.28	연합뉴스	동북공정 상생의 원리에서 해법 찾아야
44	2007.04.30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직장인 역사강좌 개설
45	2007.05.03	연합뉴스	진화하는 中 동북공정.. 中.朝 종번관계 연구주력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46	2007.05.20	연합뉴스	〈세계태권도〉 뛰는 중국, 뒤로 가는 종주국
47	2007.05.21	연합뉴스	구리시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시동
48	2007.05.22	MBC뉴스	[뉴스초점] 골든로즈호 사건, 정부대응 적절했나?
49	2007.05.24	연합뉴스	美 SAT 교재, 한국 최초 국가 신라 로 표기
50	2007.05.28	연합뉴스	中, 고구려사 동북공정 무관하게 간략 기술
51	2007.05.28	YTN	중, 고구려사 객관적으로 기술
52	2007.05.29	연합뉴스	〈中, 고구려=고대 중국지방정권 주장 안 바꿨다〉
53		연합뉴스	〈연합시론〉 中, 한국 고대사 바로잡기 애쓸 때
54		YTN	고조선-고구려는 한국 역사
55	2007.06.03	연합뉴스	시민단체 中.日 패권주의 중단하라
56		연합뉴스	中, 7월 동북공정 총화 회의..보고서는 비공개
57	2007.06.04	연합뉴스	〈동북공정의 시발점 고구려역사총론 〉
58	2007.06.05	연합뉴스	〈중국, 학술연구 내세워 고려史까지 탐내나〉
59		연합뉴스	中역사잡지 고려는 중국 출신 통치자의 세번째 정권
60		연합뉴스	〈 왕건 한인설은 근거 없는 우기기에 불과 〉
61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동북공정 바로알기 발간
62	2007.06.07	연합뉴스	北 고구려는 황제국 ..中 동북공정 반박 분석
63	2007.06.13	YTN	고구려 유적지 훼손 심각
64	2007.06.22	연합뉴스	동북아재단 영문 고구려 개설서 발간
65	2007.06.24	연합뉴스	영주 동양대서 中동북공정 대항 2007 경당
66	2007.06.25	연합뉴스	〈연해주로 몽골로 이란으로..해외발굴〉
67	2007.07.19	연합뉴스	〈인터뷰〉 대하소설 대발해 펴낸 김홍신씨
68	2007.08.01	SBS	[연예] 기부천사 김장훈 또 1억 원 쾌척
69	2007.08.02	YTN	[서울] 광진-구리, 고구려 짝사랑 경쟁
70	2007.08.07	MBC	고액권 후보는?
71	2007.08.14	SBS	동북공정 때문에 항일유적 방치… 훼손된 영광
72	2007.08.15	연합뉴스	〈쿠랑 · 샤반느의 광개토왕비 연구〉
73	2007.08.20	연합뉴스	〈한중수교 15주년〉 ⑤김하중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
74	2007.08.24	연합뉴스	한 '결산 100대 문제사업 발표'
75	2007.08.31	연합뉴스	〈기획탐구〉 끝나지 않은 동북공정
76	2007.09.04	연합뉴스	〈꼬일 대로 꼬인 역사 갈등 NGO가 푼다〉
77	2007.09.06	YTN	안방극장에 부는 사극 열풍
78	2007.09.07	연합뉴스	〈인터뷰〉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79	2007.09.12	연합뉴스	〈북한 마침내 동북공정에 입을 열다〉
80		연합뉴스	동북공정 비판 북한 역사서 고구려이야기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81	2007.09.14	연합뉴스	〈중국학자 고려인삼 원산지 중국주장 논란〉
82	2007.09.20	연합뉴스	고구려역사관 건립 범국민추진위 출범
83	2007.09.21	YTN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운동 출범
84	2007.09.22	연합뉴스	〈중국 동북공정의 원류 동북통사 〉
85		연합뉴스	동북공정 공동대응, 한 · 몽 학술대회
86	2007.09.27	연합뉴스	〈학술소식〉국사편찬위원회 상고사토론회
87		MBC	왜곡된 졸본성
88	2007.10.01	연합뉴스	해외온라인백과사전 한국사 왜곡 시정
89	2007.10.02	연합뉴스	단군상 철거 안돼 〈홍익문화운동연합〉
90	2007.10.03	SBS	개천절 푸대접, 단군 우상숭배 비판 때문에?
91	2007.10.04	연합뉴스	〈10.4선언〉 공동 역사연구.언어통일 탄력받는다
92		연합뉴스	〈사거 200주년 유득공 다시보기〉
93		YTN	직항로 통해 백두산도 관광한다!
94		MBC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95	2007.10.07	연합뉴스	〈남북 신경협〉 ③백두산 관광길 열렸다
96	2007.10.12	연합뉴스	주한미군 교재 한국최초 국가는 통일신라 오기
97	2007.10.18	연합뉴스	〈광개토대왕을 중국산 四神이 지킨다?〉
98	2007.10.19	연합뉴스	中 지린성, 고구려 · 발해문화 연구지원 강화
99		연합뉴스	〈단재가 거세한 김유신을 다시 부른다〉
100	2007.10.22	연합뉴스	〈오류.편견으로 가득한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
101	2007.10.29	연합뉴스	〈신화에도 동북공정 ..中 주변문화 흡수〉
102	2007.11.05	연합뉴스	〈동북공정 원류 다민족통일국가론을 논파한다〉
103	2007.11.07	연합뉴스	〈기획탐구〉중국, 단군신화까지 노린다
104	2007.11.08	연합뉴스	고양서 광개토호태왕 추모제 열려
105	2007.11.11	연합뉴스	〈인터뷰〉고구려연구회 이사장 물러난 서길수 교수
106	2007.11.13	연합뉴스	〈인터뷰〉"통일한국,中에도 이익" 장췐이 부교수
107	2007.11.14	연합뉴스	〈한-중 곰 토템 신화 쟁탈전〉
108	2007.11.21	연합뉴스	발해사학회 대구박물관서 '발해사'특강
109	2007.11.21	연합뉴스	한중미래포럼 23일 제주서 개막
110	2007.11.27	연합뉴스	북한 中대사, 김일성종합대서 연설
111	2007.11.27	연합뉴스	'초원의 대제국-흉노(匈奴)'한-몽 학술심포지움
112	2007.11.28	연합뉴스	〈공자제사 '釋奠祭' 원형 되살린다〉
113		연합뉴스	北고고학자, 中'동북공정'간접 비판
114	2007.12.01	연합뉴스	中항저우 임정청사 복원 개관
115	2007.12.07	연합뉴스	〈'중심'과'주변'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번호	날 짜	방송사명	내 용
116	2007.12.09	연합뉴스	〈"동아시아 중국중심주의는 '현재사'"〉
117	2007.12.10	연합뉴스	"조선의용대 중국 창립지 첫 확인"〈밀양문화원〉
118	2007.12.11	연합뉴스	"역사문제보다 공통 근본이익이 우선"
119	2007.12.15	연합뉴스	〈"한국사 시험 잘 봐서 한국 꼭 가보고 싶어요"〉
120	2007.12.16	연합뉴스	〈北 조선말대사전, 中 동북공정 반박〉
121		뉴시스	발해1300호 장철수 기념사업회 발족
122	2007.12.19	연합뉴스	〈문화소식〉태고종.중국불교 문화교류 협정
123	2007.12.20	연합뉴스	〈이명박당선〉-종합진단(5)- 기로에 선 한중관계
124		연합뉴스	[속초시청]환동해권 거점도시 속초, 발해 역사·문화 계승발전
125	2007.12.20	연합뉴스	〈이명박당선해외시각〉中푸단대 한국전문가 스위앤화 교수
126	2007.12.21	연합뉴스	〈고구려사 놓고 한·중 학자들 열띤 토론〉
127	2007.12.23	연합뉴스	〈발해를 꿈꾸며 막 내리는 KBS'대조영'〉
128	2007.12.24	연합뉴스	고구려사 관련 한·중 공동 학술회의
129	2007.12.26	연합뉴스	〈발해 뗏목탐사대 10주기 추모행사 추진〉
130	2007.12.28	연합뉴스	"중국 역사를 공부하자"〈인천 한중문화관〉
131	2007.12.30	연합뉴스	겨울철에 열리는 中하얼빈 한국주간 볼거리 '풍성'
132	2007.12.31	연합뉴스	〈전시회 꼬리표 못 뗀 하얼빈 안중근기념관〉

◎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 제3회 '의랏차차 코리아' 고조선 역사부활 국민 대축제

일시 : 2007.03.11(일)

장소 :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 국사교과서 개정에 따른 고조선 역사 복원을 기념

▣ 고구려 유물 · 유적 사진전

장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1층 여권 민원실 앞

기간 : 2007.06.15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내용 : 사진작가 유승률씨가 아차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촬영한 작품 20점을 전시. 아차산성 전경을 비롯해 홍련봉 보루, 성터, 고분 유적 등.

▣『아차산의 전설』책자 발간 및 배포

주관 :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남한 내 고구려유적지의 하나인 아차산의 전설을 채록, 교육자료로 배포. 역사지킴이 동참을 유도

▣ 한민족 역사지키기 시민운동 추진

주관 : 사) 평화문제연구소

중국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자료를 제작, 교육용 자료로 배포

▣ 고구려특별전 개최

주관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제1회 세계 NGO대회 기간(2007.9.12~9.16) 중 고구려특별전 개최. 총 33점의 사진 및 축소모형 전시

▣ 교사와 함께 만드는 "경계를 넘는 동북아 여행"

주관: 동북아평화연대

국가와 민족을 넘어 동북아여행을 통해 청소년 동북아평화교육모델을 구축.

▣ 청소년 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역사. 문화교실」

주관: 국학운동시민연합

역사 문화교실의 운영, 삼족오 뱃지 달기 캠페인 전개, 교과서 왜곡 사진 순회전시회 개최

▣ "민족의식고취를 위한 국민역사 강좌"

주관: 사)동학민족통일회

민족자긍심 회복과 주체의식 함양을 위한 일반인 대상

◎ **대중문화콘텐츠**

● 전시회

▣ 청주박물관 '중원의 새로운 문화제'

기간 : 2007.01.30～2007.03.04

주최 : 재단법인 중원문화연구원, 국립청주박물관

장소 : 국립청주박물관내 청명관 기획전시실

전시내용 : 중원문화연구원이 최근 3년간 충북지역을 비롯해 경기 안성과 경북 문경 등 8개 지역 15개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 500여 점이 전시된다.

▣ 〈중국 동포 어린이 한글교육 지원 사진전〉

주제 : 영남일보 사진부 박진관 기자의 '중국 엿보기' 세 번째 사진전 -'발해 아리랑'

기간 : 2007.02.21～2007.02.26

장소 : 대구시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 갤러리

기획의도 : 중국 옌볜지역 동포 어린이들에 대한 한글교육 지원운동

내용소개 :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볜과학기술대 연수기간에 북한과 중국 국경의 모습을 담은 자연풍경, 선조의 흔적이 깃든 고구려, 발해의 유적을 담은 역사풍경 등 30여점을 전시

▣ 화폭으로 만나는 '우리 땅...' 기획전

기간 : 2007.03.04～2005.05.03

주최 : 대동문화재단

장소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제 : '우리 땅 우리 민족의 숨결' 기획전시회

기획의도 : 우리 땅과 국토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전시.

▣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Ⅰ－주작朱雀"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고구려실

기간 : 2007.04.03～2008.03.30

시기별 전시 주제

2007.04.03(火)～2007.07.01(日)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Ⅰ-주작朱雀

2007.07.03(火)～2007.09.30(日)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Ⅱ-현무玄武

2007.10.02(火)～2008.01.06(日)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Ⅲ-청룡靑龍

2008.01.08(火)～2008.03.30(日)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Ⅳ-백호白虎

▣ '역사 회화전'

장소 : 경복궁역내 미술관

기간 : 2007.05.11～2007.05.30

내용 : 김산호 화백이 15년간 그림으로 복원한 '민족고대사', '배달한국시대'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주요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그린 50여점의 대형(500～600호) 작품.

▣ '그리운 땅, 그리운 사람-평양'

장소 :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기간 : 2007.06.10까지

내용 : 6세기 고구려 때 평양의 옛 사진 32점이 전시.

▣ 「2007 고구려 우표전시회」

기간 : 2007.07.02～2007.07.07

장소 : 마포구 공덕역
주최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획 : 「고구려 시리즈 우표」(세 번째 묶음) 2종 발행 기념.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상을 소개.

▣ 신용덕의 우리리즘 회화展
기간 : 2007.07.15까지
장소 : 한밭도서관 전시실
내용 : 백제금동대향로부터 사신도, 삼족오 등 고구려 고분벽화와 유물의 다양한 이미지가 작품 16점.

● 이벤트/단신

▣ 연극, 바보 온달
기간 : 2007.02.19까지
장소 :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순회 운영
주제 :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기간 : 2007년도 3월부터
장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덕장초등학교 외 28개 지역 39개 학교(기관)
내용 :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 무기류와 금속공예품인〈둥근고리자루칼〉〈활〉〈해뚫음무늬금동장식〉〈깃털모양관꾸미개〉를 중심으로 복제 및 복원품 60점 소개

▣ 뮤지컬, '바람의 나라'
주제 : 고구려 시조 주몽의 손자 '무휼(대무신왕)'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뮤지컬
기간 : 2007.05.05 ~05.25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제4회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와 통일 기원 전국달리기 행사
주최 : 국학운동시민연합, (사)국학원
주관 : 국학운동시민연합지역연합회, (사)국학원 지부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문화관광부, 범민족단체협의회, 통일부, HSP생활문화연합회
기간 : 2007.08.04 ~2007.08.15.

● 시민강좌

▣ 영주 동양대서 中동북공정 대항 '2007 경당'
기간: 2007.06.25(4박5일간) (일) 08:00 연합뉴스
주최: 미래재단
내용: '중화주의와 동아시아의 미래', '한중 역사전쟁의 실체' 등 강연 '코리아의 신(新)문명'

▣ 직장인을 위한 역사 아카데미 개설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기간 : 2007.05.29 ~2007.07.24
내용 : '드라마에 나타난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인가'등 강연.

◎ 네티즌의 반응

▣ 한국이 중국의 활자 인쇄술을 약탈했다
○ 신쾌보 2007.12.18
중한전통문화논쟁 5 "발명권논쟁"
신쾌보 기자 鄧毅富, 통신원 王勇幸 林燕薇

활자인쇄술, 혼천의, 두유, 이런 것들은 중국인이 잘 알고 있는 발명들이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은 이것들의 발명권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된 한국의 서적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활자인쇄술 발명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혼천의도 최근 발행한 만원권 지폐의 뒷면에 인쇄하여 한국인의

전유물로 삼았다. 심지어 "두유의 발원지" 조차도 한국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권" 논쟁은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활자인쇄술, 혼천의, 두유 등등의 "기원과 함께" 한국의 약탈에 대한 해결방법도 제기되었다.

논쟁

연합국은 한국의 금속활자가 최초임을 인정함

한국학자들이 "활자"와 "인쇄물유물" 두 가지를 들어 감히 활자의 기원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백운과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라 표기)이다. 한국 주중영사관 홈페이지에서는 2001년 6월, 『직지』가 마침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물로 인정되었고, 2005년 9월 한국정부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청주에서 『직지』에 대한 대규모 기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하나는 『몽계필담』의 기재에 따라 필승의 니활자를 복원했는데, "쉽게 부서진다", "견고하지 않다" 등등의 "문제"가 발견된 바, 이를 근거로 한국학자들은 필승의 니활자는 이론상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금속활자의 "불충분한 증거(孤証)"인 『직지』는 국보를 초월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광고공세 또한 대단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직접 고인쇄박물관 행사에 참석하였고, 청주시와 경주시의 "직지로", "직지교" 등을 통해 한국인이 이미 금속활자를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금속활자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한국은 전부터 수억 원을 들였다. 2000년 청주국제인쇄출판전람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0주년 경축행사에 한국정부는 한국 돈 150억 원을 투자하였다.

북경대학 현대출판연구소 소장 肖東發교수는 한국 고인쇄박물관전에서 국제자문회의상의 사진과 서명 중에 중국인이 없음을 언급하고, "이것은 중국학술계를 애써 피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학자의 문제제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쇄술 이외에, 우리의 혼천의 역시 한국의 국보가 "되었다". 금년 1월에 발행한 한국의 새 만원권상에, 혼천의가 불쑥 나왔다. 개조된 혼천의는 현재 한국 국보230호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심지어 한국 두유음료광고 역시 "두유의 발원지는 한국"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네티즌의 열띤 논평

한국 인쇄술의 "개량"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았다.

"한국이 스스로 정한 활자인쇄술기원국"의 주제는 인터넷상에도 뜨거운 화제가 되어 天涯社區(유명 포털싸이트)에서 논쟁거리였을 뿐 아니라 많은 연관된 주제로 토론되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의 첫 번째 반응은 모두 "분노"다. 네티즌 '騎着扁担拿着牛'는 "마치 Henry Ford가 100여 년간 차를 생산해왔는데 우리가 二大爺 자동차를 특허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네티즌 '技術犯規'는 "그렇다면 일본인은 자동차를 그들이 발명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하였다.

네티즌 '이대수'는 한국의 "금속활자발명"을 인정함과 동시에, "금속활자인쇄는 명백히 조선인이 필승의 니활자인쇄술의 기초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올렸다. 네티즌 '백마비마'는 한국의 금속활자에는 분명 개량의 그 무엇이 있다. 그는 또 "중국의 그림은 수묵화이며, 금속판의 인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丁尼費閣"은 "유럽, 한국의 인쇄는 중국과 같다. 교니를 사용하여 활자를 만들고 만든 활자를 운에 따라서 배열하였으며, 활자를 사용할 때에는 운에 따라서 검자하고 배판하였으며, 먹으로 인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네티즌 "executioner13"는 이것은 "개량이지, 절대 발명이 아니다" 라며, 주석 활자는 송 말기 왕정의『조활자인서법』중에 이미 소개된 것이다. 그리고 '발명'이란 말을 남용하기엔 적당치 않고 남용은 곧 역사적 사실의 모순을 가져와, 도리어 영문을 알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말하였다.

북경대학 현대출판연구소 소장 肖東發교수는 "인쇄 방식의 채택으로 한국의 금속활자는 처음 하루에 겨우 10쪽을 인쇄할 수 있었고 다년간의 개선을 거친 후 한국금속활자인쇄의 절정인 "갑인자"에 이르러서도 하루에 겨우 40쪽을 인쇄하게 되어, 속도상에서는 중국의 목판 인쇄술에 한참 떨어졌다"라고 말하였다.

대응

한국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중국은 "활자", "인쇄물유물"과 "인쇄발전사"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증거를 제시하였다.

『몽계필담』중 기록에 근거하여, 필승이 당시에 발명한 활자를 완벽히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청조 때에는 소주의 이요, 안휘 경현의 최금생이 필승의 제작법으로 니활자를 증명하였다. 2002년에는 북경인쇄학원 과제팀이 한국학자의 "깨지기 쉽다"와 "자주 사용하는 활자는 떨어진다" 등의 의문을 명확하게 부정하였다.

특히 이 팀은『몽계필담』의 "박여전순(薄如錢脣)" 묘사에 근거하여 1.2cm 높이와 0.6cm 높이 두 가지 종류의 규격 활자를 제작하여, 전문 테스트와 인쇄실험을 거쳐 "쉽게 깨진다"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이 팀은 또한 한국학자가 주장한 활자깨짐은 너무 얇거나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였다.

한국학자가 제기한 "자주 사용한 활자가 떨어진다"에 관해서 북경인쇄학원팀은 당시 송진의 배합, 봉합과 종이문제를 근거로 들어, 약물조합이 적당하다면 고판과 탁판의 효과가 좋고 접착력 또한 나쁘지 않음을 밝혔다. 북경인쇄학원팀은 한국학자가 제기한 문제는 실제로 적당치 않은 약 배합의 사용 때문이거나 혹은 고판에 사용되는 접착약이 필승 원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활자에 대한 복원만이 아니라 중국의 4대 발명에 대한 출토문물도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최근 한국의『직지』보다 빠른 인쇄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바로 영하자치구(寧夏) 하란산(賀蘭山) 산취구석굴(山嘴溝石窟)에서 발견된 서하(西夏 : 1038-1227)문헌에는 심지어 인쇄의 각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쇄발전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먼저 조판인쇄가 있은 연후에 활자 인쇄가 있었는데, 조판인쇄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아무리 늦어도 당나라시기에는 이미 발명되었다.

인터뷰

인쇄술은 여전히 빼어난 문명 이기.

인터뷰 : 우취령(북경사범대학신문방송연구소 소장, 석사생 지도)

기자 (이하"기"로 지칭): 한국이 스스로 활자인쇄의 기원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취령(이하"우"로 지칭) : 한국 활자인쇄술의 광고력은 확실히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

원국임을 증명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죠. 원대

왕정의『조활자인서법』에 남송시기 금속활자의 정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석자에 쇠막대로 줄을 입혀 자판에 배열한 다음 막대를 써서 분리하여 인쇄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금속활자인쇄의 기원이 늦어도 남송, 12～13세기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또한 12～13세기라는 시기 역시 한국보다 빠르죠.

기 : 우리의 인쇄사의 전개상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우 : 한국과 비교해 우리는 "국보"를 스스로 알리는 데 소홀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보배가 너무 많아서 일겁니다. 전시를 예로 들어보자면, 중국인쇄박물관은 북경 대흥구황촌에 있어 너무 외져있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인쇄박물관은 규모가 크고, 인쇄문화실, 인쇄공구실,『직지』금속활자공방 모의관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모의관은 여러 벌로 구성된 밀랍판형을 만든 것부터 제조, 글자배열, 인쇄, 제본까지 활자인쇄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제작방법과 해설까지 곁들여 놓았습니다. 또한 이 박물관은 한국 각지에서 나온 대량의 활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한국 대통령도 이 전시시설을 관람했습니다. 국민들이 활자인쇄를 중요시 하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제회의 때에도 회원들을 조직하여 인쇄박물관을 참관케 하고 있습니다.

기 : 광고상에서 우린 어떤점을 보완해야할까요?

우 : 제가 알기로, 상해에 출판박물관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 우표도 하나의 광고무대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독일 인쇄술을 발명한 Gutenberg의 초상 우표가 몇십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필승에 관련한 우표는 단 한 장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각종 매체에서 선전하고 있고,『직지』이 두글자를 각종 매체와 건축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중국인쇄술의 상징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쇄는 문명의 이기이고, 일국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4대발명의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것을 표현하는 것" 또한 배워야 하고, 절대 "다른 이의 왜곡된 말에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사료

필승의 활자 발명은 한국보다 400년 앞선다.

활자 인쇄술은 중국인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 발명 중 하나로, 발명자는 필승이고 시간은 북송 경력(송대 인종의 연호, 1041～1048)이다. 한국의『직지』와 비교해 근 400년 앞선 것이다.

동시대의 과학자 심괄은『몽계필담』에서 이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활자제작의 방법에 대해 "진흙을 이용하여 글자를 새기고, 얇게 하여, 각 글자를 찍어 불에 구워 단단하게 하였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세부사항들을 기재하여, 당시의 활자인쇄가 이미 분명히 나누어져 제작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당시 글꼴의 제작법은 발음 분류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다. 모든 활자는 각각 글꼴을 따서 제작되었고, 상용자는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보기 드문 글자의 경우에는 임시로 제작하였다.

1965년 저장성에서 출토된『불설관무량수불경』은 필승의 사후 대략 50년(1103년)뒤인 북송시기에 인쇄된 오늘날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것이다.

필승의 활자인쇄술 발명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 전통시대 한국학자 역시 "금속활자"는 단지 재료가 다를 뿐이라고 인정하였는데, 한국학자 서유구(1764～1845)는『이운지』권7의「활반녹기」에서 "심괄의『몽계필담』내용 중, 점토를 파내는 자법을 소개하고 활판의 권위와 (기원) 또

한 …… 혹은 구리로 제작－우리 동(조선을 지칭)에서 그것을 숭상하여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원문)

中韓傳統文化之爭5 發明權之爭

■ 新快報記者 鄧毅富 通訊員 王勇幸 林燕薇

活字印刷術, 渾天儀, 豆漿, 這些都是中國人熟知的發明, 不過, 有好些韓國人聲称它們的發明權歸韓國。這不, 因爲韓國的一本古籍被聯合國教科文組織認定爲世界上最古老的金屬活字印本, 于是韓國人便聲称自己是活字印刷術發明的祖先。中國的渾天儀, 也被印到了最新版的一万元韓幣的背面, 成了韓國人的專利了。甚至連"豆漿的發源地"也挪移到韓國了。

這些"發明權"之爭引起网友强烈反響, 网友們除了訴說活字印刷術, 渾天儀, 豆漿的"家史", 還提出了應對韓國"侵占"的解決方法。

爭議

聯合國認定韓最早金屬活字

韓國學者敢于宣称"起源國"在于有"活字實物", "印刷物文物"兩手証据。一手証据是《白云和尚抄录佛祖直指心体要節》(下称《直指》)。韓國駐華使館官方网站称：2001年6月, 《直指》終于被聯合國教科文組織認定爲世界最古老的金屬活字印刷品；2005年9月韓國政府資助聯合國教科文組織在清州爲《直指》舉行了大型紀念活動。

另外一手是他們根据《夢溪筆談》的記載對畢昇的泥活字進行了還原, 發現了"問題", 例如"易碎", "不牢固"等等。韓國學者提出, 畢昇僅僅還停留在理論階段, 只是一个設想, 并沒有付諸實施。

話說《直指》作爲韓國金屬活字的"孤証", 受到了超越國宝的尊崇, 宣傳攻勢十分了得, 前總統金大中親自參加了古印刷博物館的活動, 清州市和慶州市有"直指路", "直指橋"等等－可見, 韓國人已經把活字印刷当作發展旅游業的金字招牌。

爲了打造這个金字招牌, 韓國前后動用了數以亿計的金錢－僅僅是2000年的清州國際印刷出版展覽會和清州古印刷博物館開館十周年慶典, 韓國政府便投入150亿韓元擧辦。

据北京大學現代出版研究所所長肖東發教授介紹, 韓國古印刷博物館展出的國際咨詢會議上的照片和簽名中都沒有中國人, 肖教授說："這就是對中國學術界的刻意回避, 否則必然會面對來自我國學者的質疑。"

除了印刷術, 我國渾天儀也被"当成"了韓國國宝。今年1月發行的新版万元紙幣上, 渾天儀赫然紙上。由渾天儀改造替換部分机件制成的渾天表被韓國列爲國宝230号, 收藏于高麗大學博物館。甚至連韓國豆漿飲料广告都极力宣傳"韓國是豆漿的發源地"。

熱評

韓印刷術"改良"并不實用"韓國自称活字印刷術起源國"的話題在互聯网上也是熱門話題, 僅僅在天涯社區論壇, 即有數十條相關的主題討論。

大部分网友第一反應都是"憤怒"。天涯网友"騎着扁担拿着牛"說："就好像亨利·福特埋頭生産了100多年汽車, 最后讓我們對門的二大爺給申請了一个汽車專利, 那于情于理于法都是說不通的。"网友"技術犯規"說："那日本人是不是可以說汽車是他們發明的？"

天涯网友"李大水"則認同韓國"發明金屬活字"的說法, 認爲"金屬活字印刷确實是朝鮮人在畢昇的泥字印刷的基础上改進的"。天涯网友"白馬非馬"則指出韓國的金屬活字确有明顯改進之處, 他說："中國的墨是水墨, 不适合于金屬版的印刷。"

對此, 网易网友"丁尼費閣"指出歐洲, 韓國的印墨与中國一樣, "是烟炱和膠混于水中制成"。新浪

网友“executioner13”則提出改進并非發明。 他說錫活字在宋末王禎《造活字印書法》一書中已有介紹。這位网友指出, “‘發明’一詞不宜濫用, 濫用則有悖歷史的眞實, 反倒讓人莫名其妙。”

北京大學現代出版研究所所長肖東發教授更是指出, 由于采取了“打印”方式, 韓國的金屬活字最初每天僅能印10頁, 經過多年改造后達到韓國金屬活字印刷頂峰的“甲寅字”一天也只能印40頁, 速度上遠落后于采用“刷印”的中國的泥字, 木字及金屬字印刷術。

應對

面對韓國的兩手証据, 中國提出了“活字實物”, “印刷物文物”和“印刷發展史”三方面的証据。

依照《夢溪筆談》中的記述, 后人完全可以再造畢昇当年發明的活字, 清朝就有蘇州李瑤, 安徽涇縣翟金生用畢昇遺法制泥活字証明可行。

而在当代, 北京印刷學院課題組在2002年完成了這一工作, 對韓國學者“易碎”, “常使活字掉下來”等質疑作了明确的否定。

該課題組按照《夢溪筆談》“薄如錢唇”的描述制作了1.2厘米高和0.6厘米高兩种規格的活字, 經專業測試和印刷試驗, 不存在“易碎”問題。該課題組介紹, 韓國學者制作的活字易碎可能是因爲太薄或者燒制工藝不成熟。

至于韓國學者質疑“常使活字掉下來”, 課題組根据当時配方松香, 蜂蜡和紙灰, 只要粘藥用量配比合理, 固版和拆版的效果都很好, 黏着力也不差。課題組認爲, 韓國學者提出的問題實際上是由于使用了不良配藥, 或者是固版所用的粘藥与畢昇原法不同。

除了今人對活字的“夏活”, 出土文物對中國四大發明也提供了有力的証据。 近年不斷發現比韓國《直指》 要早得多的印刷本, 宁夏賀蘭山山嘴溝石窟里發現的西夏(1038-1227)文獻甚至詳細記录了參与印刷各个工序的人員名單。

從印刷發展史的角度看, 必然先有雕版印刷, 后有活字印刷。雕版印刷起源于中國, 最晚在唐代已經發明。

訪談

印刷乃文明利器非秀不可

受訪嘉賓●于翠玲(北京師范大學新聞傳播研究所所長, 碩士生導師)

記者(以下簡称“記”): 怎么看待韓國聲称自己是活字印刷的起源國?

于翠玲(以下簡称“于”): 韓國對活字印刷術的宣傳气勢的确很大, 但并不足以証明它們就是起源國。我國在元代王禎的《造活字印書法》里就記載了南宋時金屬活字的情况: 把錫字用鐵條穿成行, 排在字盤里, 然后用界條隔開來印書。充分的歷史事實証明, 中國金屬活字印刷的起源時間最遲應該在南宋, 也就是12～13世紀, 這早于韓國。

記: 我國在印刷史的展示上与韓國相比有哪些欠缺?

于: 相對于韓國, 我們在宣傳自己“國宝”方面确實不够重視, 可能是中國宝貝太多了。以展覽爲例吧, 中國印刷博物館地址很偏僻, 在北京大興區黃村, 很多人都不知道。而韓國的古印刷博物館規模很大, 設有印刷文化室, 印刷工具室,《直指》金屬活字工房模擬館等。 尤其模擬館有几組蜡像來展示活字印刷的步驟, 從燒蜡, 制模, 排字到印刷, 裝訂, 每道工序都有3-4个眞人大小活動蜡像演示具体操作, 并配有解說。這个博物館還展出了來自韓國各地的大量的活字。 韓國總統也曾到這里參觀, 大大提升了國民對活字印刷的重視。 韓國在舉辦其他學科國際會議時, 也會組織与會人員參觀古印刷博物館。

記: 在宣傳推广上, 我們需要怎樣補課呢?

于：据我所知，上海要籌建一个出版博物館，這也是其中的一个做法吧。 另外郵票也是一个推广平台，現在全世界以德國印刷術發明家谷登堡爲頭像的郵票有几十种，而有關畢昇的郵票，我國却連一枚都沒有設計發行。 同時韓國還配套有各种媒体的宣傳，“直指”二字的標志常常醒目地出現在各种媒体和当地的建筑物上，而我們誰能說出中國印刷的標志？印刷爲文明利器，一國之文化系焉。在擁有四大發明這些宝貝的時候， 也要學會“呅喝”，千万别以爲“酒香不怕巷子深”。

史料鏈接

畢昇活字發明早韓國近400年

活字印刷術是中國人引以爲豪的四大發明之一，發明者畢昇，時間在北宋慶歷年間(1041-1048)，比韓國的《直指》早近400年。

同時代的科學家沈括在其著作《夢溪筆談》中對此有詳細記載，不僅記載了造活字的方法是“用膠泥刻字，薄如錢唇，每字爲一印，火燒令堅”，還記載了許多細節， 当時活字印刷已有明确的分工，“常作二鐵板，一板印刷，一板已自布字”；当時字庫的檢字法爲按讀音分類查找，“每韻爲一貼，木格貯之”；字庫中每个字都有數个，常用字更多，以備重复；如果是罕見字，則臨時制作。

1965年，浙江溫州出土一件印本殘頁《佛說觀无量壽佛經》，經有關專家考証認定爲是畢昇之后大約50年(1103)北宋時期的泥活字印本，應是迄今發現存世最早的活字印刷品。

畢昇發明活字印刷術非常确鑿，傳統的韓國學者也承認“金屬活字”不過是材料不同，韓國學者徐有榘(1764-1845)在《怡云志》卷七的《活版緣起》中說：“沈括《夢溪筆談》記膠泥刻字法，斯乃活版之權與(起源)也……或用銅造－我東(朝鮮自称)尤尙之。”

▣ 한자통일? 가소롭다!

○ 남방일보 2007.11.06

한자통일? 가소롭다!

일부 한국인들이 요즘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디어 대학에서 제8회 국제한자회의를 성대하게 열렸다. 본 회의에서 번체자를 중심으로 5000여개의 상용한자를 통일하고, 만일 한자에 간체자가 있을 경우,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사실이라면, 우리 중국 본토에서 이러한 회의가 열렸고, 게다가 “이 협의가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몇몇 국내 학자들이 터무니없이 지껄인 것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국의 대중매체가 미친 것이다.

왜 “한자통일”을 해야하나? “한자통일의 목적이 저마다 다른 형태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 또한, 회의에서 각국의 한자“비교연구사전” 제작하여, 차츰 각국 실용한자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소롭다고 할 수 있다. 진시황이 한자를 통일하고, 소전을 표준으로 삼은 이유는 7개국 문자의 고른 발전과 더불어 7개국 사람들의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간에 경제, 문화교류의 장애를 막고자 함이었고 또한 중앙 정권의 입김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하기위한 정책이었으며 실제로 그 영향력은 컸다. 그 후에 한자는 단지 자체적으로 생산, 변화되었을 뿐 어찌 “제후”가 한자통일의 필요성을 말하는 시대가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한자에서 파생된 일본한자에도 “통일”을 고려해야하나? 번체자와 간체자로 말하자면, 역시 이른바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 또는 완전히 두가지를 병행하여도 어긋남이 없다. 응당 번체자와 간체자는 대륙이 “정통”의 자리에 있고, 대량의 고대 법 서적을 포함하여 당대 사학자의 작품은 모두 번체자로 인쇄되어 있다. 게다가 간체자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여지나 청소

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번체자로 바꿔 인식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 대만의 청소년이 간체자를 인식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사실상, 한자 간체화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옛부터 일찍이 성립된 하나의 습관이다. 물론 오늘날의 간체자에도 분명히 문제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뜻과 음의 구조파괴나, 읽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 등등에서 협의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간결함이든 복잡함이든 한자의 방향을 소위 "통일"하려는 것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한국등의 삼국과 중국 대만지역의 학자들이 글자를 통일하여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면 결정되는 것인가?

일단의 한국인이 열을 올리는 것 또한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허나 일부 한국인들의 문화 공격 그 이전에, 우리들의 대응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현실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한국인들은 단오절, 중의학의 세계문화유산신청 등 중국의 역사문화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우린 매번 피동적인 대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게다가 매번 물러나거나 물러서는 형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보급을 중시하지 않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점에 가서 보면, 지금은 역사보급류의 "저술된 서적"이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리는 화려한 시기로 역대왕조와 시대의 세세한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번영의 배후는 되려 사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연구부분은 오히려 공자를 결국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시키고, 사마상여는 원래 건달이었다 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세는 분명히 형식만 바꾸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중 앞의 역사는 대중에게 주입되는 문화의 양상을 띠어야 한다고 한다. 모두 뭐하는 것인가!

일부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조상인식과 잘못된 원조문화 강탈주장은 기세등등하다.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열등감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화 열등감이 번번히 기선을 차지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집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돈까지 세주고 있으니! 모두가 문화인이고 무지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원문)

韓國人說要統一漢字？眞可笑！

韓國一些人最近腦袋有点儿發燒。

韓國《朝鮮日報》刊載文字及視頻報道称，第八届"國際漢字研討會"上周在中國傳媒大學隆重召開。本次會議提到，5000多个常用標准字將以"繁体字"爲主進行統一，如果个別漢字有簡体字，就継續保留。不知道這消息确實与否。如果确實，那么在我們國土上召開這樣的學術會

議，而且"欲達成協議"，表明一些國人也在鸚鵡學舌跟着說昏話了；如果不确實，則韓國一些媒体的腦袋可能已經燒糊涂了。

爲什么要"統一漢字"？据說，目的在于"預防東亞國家因爲使用中國台湾地區的繁体字，中國大陸的簡体字，日本的略字等不同形狀的漢字産生混亂"。因此，會議決定制作各國家地區漢字"比較研究詞典"，逐漸統一各國使用的字形。眞可笑！秦始皇統一漢字，以小篆爲標准，是因爲七國文字平行發展，百姓互不相識，妨碍了地區之間經濟文化的交流，也影響了中央政令的暢通。自此之后，漢字只有字体的産生和流變，何曾有過"諸侯"并存需要統一的時代？從漢字中异化出的日本什么字，也能在所謂"統一"的考慮之中嗎？

單就繁体字与簡化字本身而言，也沒有所謂"統

一”的必要, 二者完全可以并行不悖。應当說, 繁体字, 簡化字在大陸同樣具有“正統”地位, 大量的古代典籍包括当世史學著作都是用繁体字印刷的。而且, 雖然簡化字是日常生活中的主導, 但卽使青少年, 如今也可以辨認大量繁体字。想來, 台湾的青少年辨認簡化字也不會行同天書。事實上, 漢字簡化不是今天才有的新鮮事, 在古人書法作品中早已成爲一个習慣。毋庸諱言, 今天的簡化漢字還存在一定問題, 有商榷的余地, 比如破坏了形旁和聲旁的完整結构, 繁, 簡不是一一對應爲閱讀造成了一定障碍, 等等。但是, 卽便如此, 漢字的走向, 是簡是繁, 要不要所謂“統一”, 豈是“屬于漢字文化圈的中國, 日本, 韓國三國和中國台湾地區的學者決定制作統一字形”就能決定, 就能決定得了的？！

韓國一些人發燒, 發高燒, 由他們發去吧。但是在韓國一些人的文化進攻面前, 需要反思的是我們的應對態度。稍微關注現實的人都知道, 這几年在韓國一些人對我們的歷史文化不斷發起挑戰, 端午節, 中医的申遺等等。我們不僅每每被動接招, 而且每每敗下陣來, 或者有敗陣的趨勢。我們不注重歷史的普及嗎？似乎不是。到書店里去瞧瞧, 現在應該是歷史普及類“著作”空前繁榮的時期, 花花綠綠, 歷朝歷代的犄角旮旯, 都被人寫遍了, 而且不知被多少人寫了多少遍。然而細細看去, 繁榮的背后却是動輒宮廷傾軋, 后宮粉黛之類, 屬于令人艷羡, 誘人垂涎的那种。還有一些搞研究的, 倒是眞出成果了：孔子果眞是喪家狗, 司馬相如本來是流氓, 諸如此類。影視劇的戲說漸漸收場了, 學者們的正說粉墨登場了, 那架勢居然換湯不換藥。專家學者們呈現于公衆面前的歷史, 灌輸給公衆的文化, 都是些什么東西！

韓國一些人亂認祖宗, 亂搶文化源頭, 看起來咄咄逼人, 實質上表現出的是一种文化的极端自卑。然而, 這种文化自卑支配出來的行動, 硬是能頻頻占得先机, 這就是咄咄怪事了。反觀我們的一些人, 被人家賣了居然還帮着數錢！都是有文化的人, 不可能无知吧, 那么, 該不該汗顔呢？(潮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 **하**

초판 제1쇄 인쇄 2008년 4월 16일
초판 제1쇄 발행 2008년 4월 23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40-5-94910
978-89-6187-041-2-세트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187-040-5-94910
978-89-6187-041-2 (세 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